최종보고서

국민소통단 운영

2015 . 12.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목 차

Ⅰ. 제안개요

1. 기관현황 및 업무연혁 1

2. 조직 및 인력 2

3. 업무분장 및 인력투입 계획..... 3

Ⅱ. 업무수행내용

1. 사업개요 4

2. 사업목적 5

3. 사업추진 일정 5

4. 업무추진 절차 6

5. 업무수행범위와 내용

1) 국민소통단 구성·유지 및 관리 7

2) 국민소통단 관리위원회 구성 8

3) 국민소통단 운영 9

(1) 관리위원회 운영 9

(2) 식의약품 소비자 불만사례 수집 및 분석 12

(3) 국내외 식의약품 관련 언론 기사 수집 및 분석 341

(4)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365

(5) 지역오피니언 리더 의견수렴 395

(6) 소통주제 정보 전달 - 의견수렴 및 피드백 396

(7) 식의약 정책 및 생활밀착형 정보만족도 조사 412

(8) 소비자포럼 413

Ⅲ. 업무관리 (소요예산 산출내역) 431

Ⅳ. 기타 (설문조사 양식 등) 432

Ⅰ. 제안개요

1. 기관현황 및 업무연혁

○ 기본사항

회사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자명	이 덕 승
주 소	서울 중구 명동 11길 20 서울YWCA회관 701호		관할세무서	중부세무서
전화번호	02-774-4050	팩스번호		02-774-4090
사업자번호	106-82-05162	업 종		서비스, 연구용역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 등록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번호 : 제96-1호> ○ 등 록 일 : 2012년 4월 9일			
총 종업원수	14명	매출액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자 본 금	해당 없음			

○ 회사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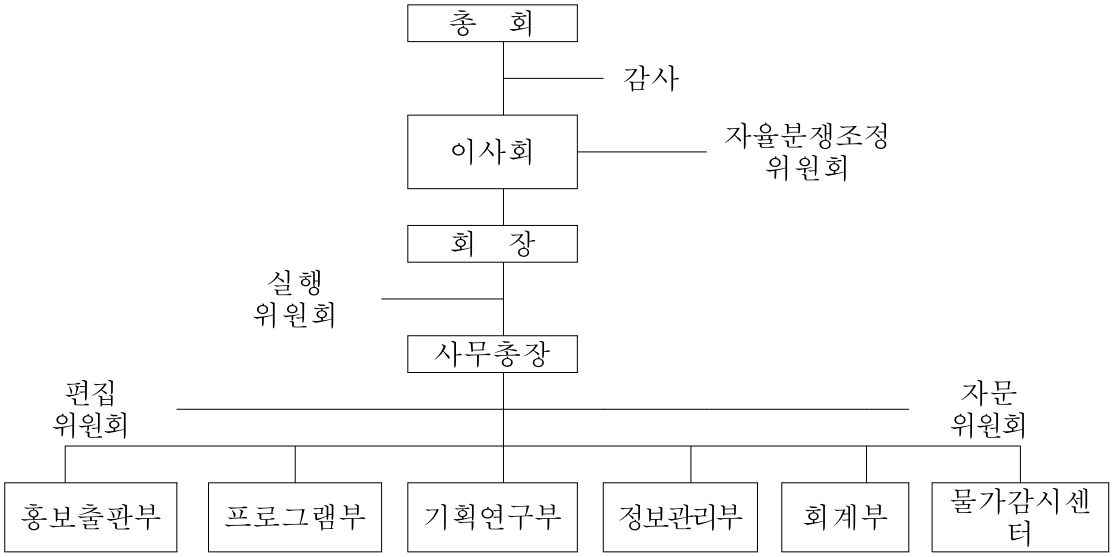
연월일	내 용	비 고
1976. 4. 16.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창립	
1978. 3. 14.	사단법인 설립인가(경제기획원 제36호)	
1978. 9. 25.	월간 「소비자」 창간	
2001. 2. 1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명칭 변경	
2002. 10.	식품위해정보시스템 사이트 개발	
2003. 12.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발족	
2008. 11. 10.	식품안전 확보방안에 관한 소비자 포럼 개최	
2014. 2. 25.	제21대 이덕승 회장 취임	

2. 조직 및 인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단체명 (회장)	회장	설립연도	규모		발간물
			지부수(개)	회원수 (천명)	
ㅇ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이덕승 회장	1976	10개 소비자운동단체	-	월간“소비자”
- 한국YWCA 연합회	차경애 회장	1922	52개 지부	96	월간“한국YWCA" "한국YWCA연감"
- 한국여성소비자 연합	김천주 회장	1964	13개지회, 85개 지부, 5,000개 클럽	318	격월간 “주부클럽 저널”
- 소비자시민 모임	김자혜 회장	1983	본부 및 10개 지부	55	월간 “소비자리포트”
-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주경순 회장	1971	16개 시·도지부, 232개 시·군·구지회	316	월간 “주부교실”
- 한국소비자 연맹	강정화 회장	1970	8개, 서울시전자상거래 센터	56	-
- 한국소비자 교육원	전성자 원장	1981	6개지부	85	월간“소비자뉴스”
- 한국YMCA 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1903	64개	200	연감“한국YMCA ”
- 녹색소비자 연대	이덕승 이성환 김병량 박인례 이경환 주 엘 남수자 박기영 조윤미 (공동대표 9인)	1996	3개 지역협의회, 14지부, 3개 프로그램센터	14	월간 “녹색살림”
- 한국소비생활 연구원	김연화 원장	1994	9개 지부, 22개 지회	30	격월간 “녹색소비자”
- 한국부인회 총본부	조태임 회장	1963	16개 시도지부, 247개 시군구지회	1,200	연2회 “한국부인회 소식지”

○ 조직 및 기구 현황

조직 현황	· 회장 : 이덕승 · 이사회 : 18명으로 구성(각 회원단체 파견)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31명으로 구성 · 실행위원회 : 15명으로 구성(각 회원단체 파견) · 사무국 : 13명으로 구성
기구 현황	

3. 업무분장 및 인력투입 계획

○ 실무급 관리위원회

역할	성명	소속기관	직위
책임연구원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연구원	박지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연구보조원	이경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간사
연구원	이유정	한국소비자연맹	간사
연구원	이혜영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본부장
연구원	허혜연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연구원	최은주	한국YWCA연합회	부장
연구원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	사무총장
연구원	최애연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국장
연구원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연구원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실장
연구원	심유경	한국YMCA전국연맹	팀장
연구원	김선희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

○ 위원급 관리위원회

성명	소속기관	직위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태민	스카이법률사무소	변호사
강재헌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교수
김용휘	세종대 식품공학과	교수
박기환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Ⅱ. 업무수행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국민소통단 운영

□ 사업배경

○ 식의약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의견을 소비자단체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파악하여 식의약 안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식의약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위해식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1월(10개월)

□ 소요예산 : 60백만원

2. 사업목적

○ 지역별·계층별·성별을 대표하는 대국민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상시창구를 운영하여 전국적인 소비자의 관심 사안을 파악함.

○ 식의약 안전에 대한 소비자불만사례 연구를 통해 원인 및 경향 등 정보를 분석하고, 소비자 궁금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식의약 생활 정보를 제공함.

3. 사업추진일정

연구개발내용	2015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민소통단 구성	●										
실무급 관리위원회 회의	●		●		●		●		●		
위원급 관리위원회 회의		●		●		●		●		●	
소비자 불만사례 수집(매월)	●	●	●	●	●	●	●	●	●	●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		●		●		●			
오피니언리더 설문조사							●				
소통주제 정보 전달		●		●		●		●		●	
만족도 조사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서 작성											●

4. 업무추진절차

절 차	내 용
1 단 계 국민소통단 구성·유지 및 관리	• 식의약 이슈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비자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소통단 구성 • 일반소비자 700명, 오피니언리더 301명을 대상으로 구성
2 단 계 국민소통단 관리위원회 구성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회원단체의 실무자로 실무급 관리위원회 구성으로 매월 수집 및 분석된 사례 연구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위원급 관리위원회(식품안전위원회) 및 소통협력과로 구성하여 식의약품 안전이슈에 대한 심층 논의
3 단 계 식의약품 소비자 불만사례 수집 및 분석	• 상담전화 1372 통합망을 통해 접수된 식의약품 관련 불만사례 수집 • 상담리코딩에 따른 정량적 분석 • 유형별로 월별 상담의 추이 분석
4 단 계 국내외 식의약품 관련 언론 기사 수집 및 분석	• 매월 식의약품 관련 언론 이슈 수집 및 정책제안 • 최근 발생하는 식의약품 이슈에 대한 의견 교류
5 단 계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 식의약 소비자 불만사례 주요 이슈 등을 주제로 소비자의견 수렴 • 일반소비자 700명, 오피니언리더 301명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6 단 계 오피니언리더 의견 수렴	• 오피니언 리더 활용하여 다각화·전문화된 의견 수렴 • 지역사회 식의약 안전이슈 발굴 등 정보 수집과 소통 활성화
7 단 계 소통주제 정보 전달 및 만족도 조사	• 국민소통단을 통해 수렴된 소비자의 의견 중에 소통주제를 선정, 정보자료 공유 • 확산·전파된 소비자 필요정보에 대해 국민소통단의 정보이용 만족도조사 실시

5. 업무수행범위와 내용

5.1. 국민소통단 구성·유지 및 관리

○ 식의약품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 불만 및 제안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기 위한 국민소통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소통단 명단을 재점검함.

○ 국민소통단 구성은 일반소비자 700명과 오피니언리더 301명으로 구성함. 일반소비자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700명으로 계층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균등 배분을 하여 구성하고, 오피니언리더는 소비자운동가로 소비자단체를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301명으로 구성함.

○ 국민소통단 구성표 확인 (일반소비자, 오피니언리더)

지역	남					여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강원	2	2	3	2	3	1	3	5	6	4	31
경기	14	21	24	16	12	14	29	38	40	29	237
경남	3	3	4	5	2	4	6	7	12	6	52
경북	4	4	4	5	6	3	5	10	10	7	58
광주	2	2	3	2	2	2	2	5	6	4	30
대구	3	3	4	4	3	4	4	5	7	5	42
대전	2	2	2	2	2	2	3	6	7	2	30
부산	4	5	5	5	4	5	6	12	13	8	67
서울	12	17	14	12	12	15	23	31	36	36	208
세종	-	-	1	1	-	-	-	-	-	-	2
울산	1	2	4	2	1	2	3	6	4	1	26
인천	4	6	5	6	5	5	9	9	15	7	71
전남	2	2	3	3	3	2	3	5	5	6	34
전북	2	3	3	4	3	3	4	4	4	6	36
제주	1	1	2	1	-	1	1	1	1	1	10
충남	2	3	3	3	3	3	2	6	6	6	37
충북	3	2	3	3	2	2	3	5	4	3	30
총합계	61	78	87	76	63	68	106	155	176	131	1,001

○ 국민소통단 - 오피니언 리더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01	69	18	9	22	9	11	9	73	9	8	10	9	8	16	1

○ 국민소통단은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조사방법을 동시에 실시하여 설문 응답률을 높이도록 하며 미응답자에 대한 관리를 진행함.

○ 설문조사 과정

설문작성	→	설문기간 설정	→	설문진행 사항 파악	→	미응답자 대상 문자, 이메일 재발송 단체별 독려요청	→	설문종료, 설문결과 정리

5.2. 국민소통단 관리위원회 구성

○ 실무급 관리위원회 구성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에서 식의약품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상담사례 및 언론 이슈를 협력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역할	성명	소속기관	직위
책임연구원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연구원	박지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연구보조원	이경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간사
연구원	이유정	한국소비자연맹	간사
연구원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
연구원	허혜연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연구원	최은주	한국YWCA연합회	부장
연구원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	사무총장
연구원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연구원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연구원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실장
연구원	심유경	한국YMCA전국연맹	팀장
연구원	김선희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

○ 위원급 관리위원회 구성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안전위원회 위원 및 소통협력과 담당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식의약품 안전 이슈에 심층 논의를 진행함.

성명	소속기관	직위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태민	스카이법률사무소	변호사
강재헌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김용휘	세종대 식품공학과	교수
박기환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5.3. 국민소통단 운영

5.3.1. 관리위원회 운영

○ 실무급 관리위원회

- 실무급 회의를 통해 각 단체별 210곳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수집된 식의약품 상담사례를 분석과 언론자료를 통해 이슈를 발굴함.

- 실무급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가 참석하여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격월로 진행)

회차	일정	논의내용
1회	2월 26일(목) 오후 4시	· 2014 식품 불만사례 점검 및 2015년 1월 식의약품 불만사례, 이슈 분석
2회	4월 27일(월) 오후 4시	· 2015년 2~3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불만사례 분석 · 한약 집중 분석(소협) · 국내외 식품·의약품·화장품 언론 이슈 ·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검토
3회	7월 3일(금) 오후 4시	· 2015년 4~5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불만사례 분석 · 백수오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5월) · ‘무점포‘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집중분석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YWCA) · 국내외 식품·의약품·화장품 언론 이슈

4회	7월 17일(금)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추진계획 보고 (소통협력과, 소비안전과, 소비자단체)
5회	8월 27일(목) 오후 4시	· 6~7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불만사례 분석 · '과자류' 관련 불만사례 집중분석 (소비자공익네트워크,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부인회총본부) · 국내외 식품·의약품·화장품 언론 이슈
6회	10월 29일(목) 오후 4시	· 8~9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불만사례 분석 · '발효유', '분유류' 소비자불만사례 집중분석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 국내외 식품·의약품·화장품 언론 이슈
7회	-	· 10월~12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불만사례 분석 · 국내외 식품·의약품·화장품 언론 이슈

○ **위원급 관리위원회 운영**

- 위원급 회의는 실무급 회의 운영을 통해 발굴된 이슈 중 심층분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요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함.

- 위원급 회의는 국민소통단 운영과 소통주제 선정 및 소비자의견이 식의약 안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함. (격월로 진행)

회차	일정	논의내용
1회	3월 9일, 오후 2시	· 2014년 식품안전위원회(위원급 관리위원회) 운영 보고 및 위원회 소개 및 기타 사업보고 · 국민소통단 1차 실무급 관리위원회 회의 주요논의결과 · 국내외 식품·의약품·화장품 언론 이슈
2회	5월 19일, 오전 10시	· 식품안전위원회 운영 보고 : 백수오 관련 소비자피해 개선방안 소비자라운드테이블 · 국민소통단 이슈 논의 (2차 실무급 회의 주요논의결과) · 한약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 국내외 식품·의약품·화장품 언론 이슈
3회	7월 27일, 오후 2시	(보고안건)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대표발의)(2015.6.11)에 대한 의견제출 · 송학식품의 불량제품 유통에 대한 소비자단체 성명서 배포

		(논의안건) · 식품안전을 위한 소비자라운드테이블(HACCP 인증제도 개선) 논의 및 개선방안 논의 · 국민소통단 이슈 논의
4회	10월 2일, 오전 9시30분	· 식품안전위원회 활동보고 · HACCP 인증제도 개선 라운드테이블 후속방안 논의 · 국민소통단 내용 논의 설문조사 · 과자류 불만사례 집중 분석 · 기타 식의약 언론 이슈
5회	11월 17일, 오전 10시	· 식품안전위원회 운영보고 (소비자포럼, 백수오 사건 진행경과보고,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 2016년도 국민소통단 개선방안 논의

5.3.2. 식의약품 소비자 불만사례 수집 및 분석

○ 소비자단체에서 접수되는 1372 통합소비자 상담망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접수된 전국의 식의약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를 수집함.

○ 매월 수집된 식품, 화장품, 의약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를 분석하여 월별 품목에 따른 소비자 상담사례 및 분석의 특징사항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사례를 분류하여 분석함.

○ 소비자 불만사례에 대해 전월 대비 증가 및 감소 품목을 알아보고, 월별 상담건수를 비교하여 식의약품 관련 상담 추이 등을 분석함.

○ 불만사례는 품목별, 지역별, 구입장소별, 판매방법별, 상담유형별, 처리결과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 소비자 불만사례 유형은 이물, 이상증세, 유통기한, 변질, 검사요청, 품질불량, 표시광고, 규격 등으로 세분화함.

(1) 이물질

(가) 벌레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식별하기에 파리, 애벌레 등의 벌레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나) 머리카락/털/뼈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 털, 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다) 다칠 수 있음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과정에서 금속, 유리, 쇠, 철, 플라스틱 등 다칠 수 있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라) 다치지는 않음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과정에서 비닐, 고무 등 다치지는 않으나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마) 침전물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과정에서 특히 음료류에 액체 이외의 고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상담을 요청한 경우

(2) 이상증세

(가) 설사/복통/구토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한 후 식품으로 인해 설사, 복통, 구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나) 발열/두통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한 후 식품으로 인해 발열 또는 두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다) 치아손상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도중이나 섭취한 후 식품으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거나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라) 두드러기/알레르기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한 후 식품으로 인해 두드러기 또는 알레르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마) 식중독

- 소비자 2명 이상이 같은 곳에서 음식을 섭취한 후 구역, 구토, 설사, 복통, 발열 증상을 겪은 경우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

(3) 유통기한

(가) 유통기한 경과

- 식품이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여 섭취하지 못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불만으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

(나)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시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으로 인해 불만이 발생한 경우와 유통기한이 두 번 표시되어 있어 상담을 요청한 경우

(4) 변질

(가) 상함/부패

-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식품이 상하거나 부패의 증상이 나타나 섭취할 수 없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나) 곰팡이
-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하였을 때 검거나 푸른색을 띄어 소비자가 식별하기에 곰팡이로 보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다) 악취
-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하였을 때 불쾌한 냄새가 있어 식품 섭취에 불만이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5) 검사요청
(가) 성분검사
- 소비자가 식품에 포함된 성분의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나) 원산지확인
-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표기된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다) 진품확인
-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제품이 틀림없이 진품인지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라) 위생점검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식품 안전성에 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생점검을 의뢰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6) 품질불량
(가) 품질불량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식품의 질이 불량한 상태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
(나) 용기파손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금속용기, 유리병, 플라스틱병, 통, 접시, 봉지(파우치) 등의 용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다) 포장불량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식품포장의 재질이 불량한 상태로 포장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거나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라) 용기에 의한 손상
- 소비자가 식품포장 용기에 의해 베인 상처 등 신체적인 손상을 입어 상담을

요청한 경우

(7) 표시광고

(가) 과대광고

- 소비자가 식품 구입 시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나) 가격미표시

- 소비자가 식품 구입 시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다) 성분표시

- 소비자가 식품 구입 시 표시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성분에 대해 불만이 있어 상담을 요청한 경우

(8) 기타

(가) 용량미달

- 소비자가 식품 구입 시 제품 포장 또는 용량표기 사항과는 다르게 미달되어 불만을 상담 요청한 경우

(나) 식품정보제공

- 소비자가 식품 구입 시 발생하는 전반적인 식품과 관련한 불만에 대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청약철회 방법 등에 상담을 요청한 경우

(다) 배송문제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면서 배송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라) 가격불만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면서 가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표〉 소비자불만사례 조사표 1

항목	분류			
지역	- 서울	- 경기	- 강원	- 경남
	- 경북	- 전남	- 전북	- 충남
	- 충북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부산	- 울산	- 제주
구입장소	- 슈퍼마켓	- 대형마트	- 편의점	- 백화점
	- 재래시장	- 소형매장	- 음식점	- 무점포
판매방법	- 직접구입	- 방문판매	- 다단계판매	
	- 전화·통신판매	- 전자상거래	- TV홈쇼핑	

〈표〉 소비자 불만사례 조사표 2

항목	분류
상담이유	- 교환 - 반품 - 환불 - 해지 - 치료비요구 - 손해배상청구 - 사과요구 - 부당행위 시정 - 정보요청
처리결과	- 교환 - 반품 - 환불 - 해지 - 치료비배상 - 손해배상청구 - 사과요구 - 부당행위시정 - 상담·정보제공

〈표〉 소비자 불만사례 조사표 3

항목	분류
이물질	- 벌레 - 머리카락/털/뼈 - 침전물 - 다칠수있음(금속/유리쇠/철/플라스틱) - 다치지는 않음(비닐/고무)
이상증세	- 설사/복통구토 - 발열/두통 - 치아손상 - 두드러기·알레르기 - 식중독(2인이상일 경우)
유통기한	- 유통기한 경과 -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변질	- 상함·부패 - 곰팡이 - 악취
검사요청	- 성분검사 - 원산지확인 - 진품확인 - 위생점검
품질불량	- 품질불량 - 용기파손 - 포장불량 - 용기에 의한 손상
표시광고규격	- 과대광고 - 가격미표시 - 성분표시 - 용량미달
기타	- 식품 및 관련 정보제공 - 배송문제 - 가격불만

〈표〉 식품 상담물품별 조사표

분류	항목	
가공식품	빵 및 떡류	- 빵 - 케익류 - 떡류
	과자류	- 과자류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당류	- 잼류 - 설탕 - 포도당/과당 - 꿀 - 엿류 - 당시럽류 -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 아이스크림류 - 빙과류
	유가공식품	- 우유류 - 발효유류(요쿠르트) - 분유류 - 치즈·버터류
	육류가공품	- 햄 및 소시지류 - 치킨류 - 기타 육류가공품
	알가공품	- 알가공품
	어육가공품	- 어묵제품류(어묵·맛살)
	두부류·묵류	-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	- 식용유지류(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등)

	면류	- 라면류 - 건면류 - 생면류
	다류	- 다류 - 커피
	음료류	- 탄산음료류 - 과·채음료류 - 생수
	특수용도식품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이유식
	조미식품류	- 장류(고추장·된장등) - 소스류(케첩·마요네즈등) - 조미료류
	드레싱류	- 드레싱류
	김치류	- 김치류
	젓갈류	- 젓갈류(새우젓 등)
	절임식품	- 절임식품(장아찌 등) - 절임배추
	조림식품	- 조림식품(통조림, 병조림 등)
	주류	- 소주 - 맥주 - 포도주 - 탁약주(막걸리 등) - 기타주류
	건포류	- 건포류(북어포 등)
	건강식품	- 건강식품
	즉석식품	- 즉석식품(햇반, 3분카레 등)
농수축산물	육류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기타육류
	유란류	- 알류(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등)
	곡류	- 곡류
	채소류	- 채소류
	과일류	- 과일류
	생선류	- 생선류
	어패류	- 어패류
	해조류	- 해조류
	식용종자·버섯류	- 식용종자·버섯류
	나물류	- 나물류
	약용작물류	- 약용작물류
음식점	음식점	- 한식 - 양식 - 일식 - 중식 - 분식 - 노점상 - 패스트푸드점 - 뷔페

〈표〉 의약품 상담물품별 조사표

구분	식품 분류	구분	식품 분류
1	감기약	9	해열제
2	진통제	10	간장약
3	소화제	11	영양강장제
4	외피용약	12	비타민제
5	피부병약	13	소독살균제
6	안약	14	한약
7	위장약	15	동물약품
8	피임약	16	기타약품

〈표〉 화장품 상담물품별 조사표

구분	식품 분류	구분	식품 분류
1	립스틱	17	어린이용화장품
2	마스카라	18	염색제
3	맛사지류	19	영양오일류
4	면도용 비누	20	영양크림류
5	면도용 크림	21	치약
6	매니큐어	22	탈모제
7	메이크업베이스	23	파마약
8	목용용오일	24	파운데이션
9	바디클렌저	25	팩류
10	발모제	26	향수
11	보건위생용품 기타	27	헤어린스
12	보건위생용품세트	28	헤어스프레이
13	샴푸	29	헤어크림
14	선탠, 선크림 화장품	30	화장비누
15	세안류	31	화장수류
16	아이라이너	32	화장품세트

가.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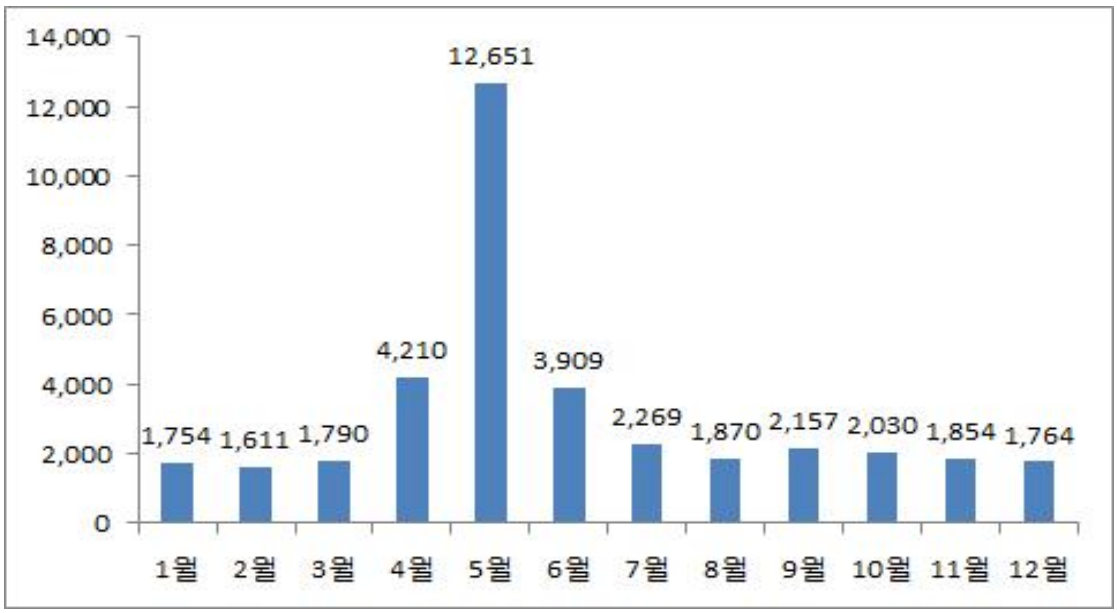
○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식품관련 상담은 총 37,859건으로 5월이 12,65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월(4,210건), 6월(2,672건) 순으로 불만사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불만사례 유형 중 기타에 해당하는 식품 및 관련 정보제공, 배송문제, 가격불만, 철회에 대한 상담을 제외하고 총 21,805건에 대한 세부분석을 실시하였음.

[표] 소비자 불만사례 월별 분석

단체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녹색소비자연대	156	180	222	499	1,421	384	252	200	233	215	189	167	4,118
한국여성소비자연합	440	366	448	931	2,813	974	584	422	471	476	439	397	8,761
소비자시민모임	167	162	175	441	1,127	322	210	184	191	168	153	163	3,463
소비자교육중앙회	305	262	281	785	2,074	625	324	295	358	339	292	290	6,230
한국부인회총본부	90	74	109	249	744	215	133	107	129	126	131	113	2,220
소비자공익네트워크	161	141	147	358	1,554	420	201	171	206	151	167	158	3,835
한국소비자교육원	84	76	-	-	-	154	102	79	85	109	101	84	874
한국소비자연맹	185	206	245	589	1,812	474	238	240	291	264	245	256	5,045
한국YMCA전국연맹	60	52	76	143	491	135	82	78	61	65	58	50	1,351
서울YWCA	106	92	87	215	615	206	143	94	132	117	79	86	1,972
총합계	1,754	1,611	1,790	4,210	**12,651 식품 (1,711) 백수오 (10,940)**	**3,909**	**2,269**	**1,870**	**2,157**	**2,030**	1,854	1,764	37,869
기타제외 건수	943	850	894	2,318	7,558	2,672	1,212	1,067	1,183	1,097	1,041	970	21,805

[그림] 소비자 불만사례 월별 분석



○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가 접수된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가 5,247건(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 3,830건(17.6%), 부산 2,609건(12.0%), 충남 2,214건(10.2%), 순으로 나타남.

[표] 소비자 불만사례 지역별 건수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서울	188	19.9	174	20.5	189	21.1	330	14.2	1,050	13.9	499	18.7
경기	257	27.3	197	23.2	215	24.0	565	24.4	1,667	22.1	593	22.2
강원	21	2.2	21	2.5	25	2.8	48	2.1	256	3.4	79	3.0
경남	50	5.3	38	4.5	38	4.3	120	5.2	440	5.8	109	4.1
경북	26	2.8	18	2.1	24	2.7	99	4.3	273	3.6	94	3.5
전남	31	3.3	16	1.9	33	3.7	49	2.1	201	2.7	54	2.0
전북	51	5.4	63	7.4	68	7.6	211	9.1	628	8.3	219	8.2
충남	93	9.9	81	9.5	79	8.8	356	15.4	916	12.1	270	10.1
충북	25	2.7	10	1.2	18	2.0	38	1.6	191	2.5	64	2.4
광주	5	0.5	10	1.2	1	0.1	10	0.4	62	0.8	18	0.7
대구	20	2.1	26	3.1	30	3.4	82	3.5	254	3.4	117	4.4
대전	24	2.5	10	1.2	15	1.7	53	2.3	161	2.1	87	3.3
인천	30	3.2	30	3.5	35	3.9	68	2.9	186	2.5	115	4.3
부산	106	11.2	87	10.2	97	10.9	252	10.9	1,060	14.0	280	10.5
울산	7	0.7	10	1.2	12	1.3	18	0.8	75	1.0	34	1.3
제주	8	0.8	-	-	6	0.7	15	0.6	29	0.4	19	0.7
해외	1	0.1	-	-	-	-	1	-	2	-	-	-
세종	-	-	-	-	-	-	-	-	-	-	-	-
무응답	-	-	59	6.9	9	1.0	3	0.1	107	1.4	21	0.8
합계	943	100	850	100	894	100	2,318	100	7,558	100	2,672	100

지역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서울	234	19.3	243	22.8	263	22.2	223	20.3	241	23.2	196	20.2	3,830	17.6
경기	336	27.7	273	25.6	315	26.6	288	26.3	269	25.8	272	28.0	5,247	24.1
강원	33	2.7	37	3.5	32	2.7	26	2.4	13	1.2	15	1.5	606	2.8
경남	64	5.3	49	4.6	43	3.6	35	3.2	31	3.0	32	3.3	1,049	4.8
경북	35	2.9	20	1.9	28	2.4	15	1.4	34	3.3	29	3.0	695	3.2
전남	17	1.4	15	1.4	26	2.2	36	3.3	17	1.6	20	2.1	515	2.4
전북	91	7.5	63	5.9	81	6.8	81	7.4	62	6.0	70	7.2	1,688	7.7
충남	104	8.6	71	6.7	64	5.4	64	5.8	64	6.1	52	5.4	2,214	10.2
충북	27	2.2	28	2.6	28	2.4	25	2.3	22	2.1	24	2.5	500	2.3
광주	3	0.2	7	0.7	19	1.6	26	2.4	9	0.9	8	0.8	178	0.8
대구	38	3.1	41	3.8	49	4.1	27	2.5	32	3.1	30	3.1	746	3.4
대전	31	2.6	40	3.7	30	2.5	34	3.1	41	3.9	49	5.1	575	2.6
인천	52	4.3	55	5.2	63	5.3	54	4.9	78	7.5	58	6.0	824	3.8
부산	119	9.8	110	10.3	129	10.9	147	13.4	117	11.2	105	10.8	2,609	12.0
울산	10	0.8	6	0.6	5	0.4	6	0.5	1	0.1	8	0.8	192	0.9
제주	18	1.5	8	0.7	2	0.2	7	0.6	10	1.0	1	0.1	123	0.6
해외	-	-	-	-	5	0.4	3	0.3	-	-	-	-	12	0.1
세종	-	-	-	-	-		-	-	-	-	-	-	-	-
무응답	-	-	1	0.1	1	0.1	-	-	-	-	1	0.1	202	0.9
합계	1,212	100	1,067	100	1,183	100	1,097	100	1,041	100.0	970	100	21,805	100.0

○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의 구입장소를 살펴보면, 무점포가 13,182건(6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소형매장 2,457건(11.3%), 대형마트 1,754건(8.1%), 슈퍼마켓 1,409건(6.5%) 순으로 나타남.

[표] 소비자 불만사례 구입장소 별 건수

구입장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슈퍼마켓	97	10.3	88	10.4	113	12.6	78	3.4	98	1.3	124	0.5
대형마트	116	12.3	103	12.1	114	12.8	90	3.9	288	3.8	202	0.8
편의점	32	3.4	23	2.7	29	3.2	24	1.0	41	0.5	38	0.1
백화점	13	1.4	10	1.2	12	1.3	8	0.3	58	0.8	10	0.0
재래시장	37	3.9	37	4.4	36	4.0	22	0.9	36	0.5	31	0.1
소형매장	179	19.0	167	19.6	193	21.6	199	8.6	292	3.9	264	1.0
음식점	80	8.5	55	6.5	40	4.5	42	1.8	60	0.8	66	0.2
무점포	323	34.3	299	35.2	291	32.6	1,739	75.0	6,485	85.8	1,627	6.1
무응답	66	7.0	68	8.0	66	7.4	116	5.0	200	2.6	310	1.2
총합계	943		850		894		2,318		7,558		2672	

구입장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슈퍼마켓	141	11.6	167	15.7	128	10.8	148	14.3	143	13.7	84	8.7	1,409	6.5
대형마트	132	10.9	109	10.2	189	16.0	143	13.8	121	11.6	147	15.2	1,754	8.1
편의점	38	3.1	45	4.2	37	3.1	38	3.7	40	3.8	39	4.0	424	2.0
백화점	11	0.9	11	1.0	10	0.8	8	0.8	8	0.8	3	0.3	162	0.7
재래시장	34	2.8	27	2.5	39	3.3	47	4.5	36	3.5	37	3.8	419	1.9
소형매장	155	12.8	208	19.5	201	17.0	215	20.8	203	19.5	181	18.7	2,457	11.3
음식점	55	4.5	65	6.1	47	4.0	85	8.2	66	6.3	72	7.4	733	3.4
무점포	551	45.5	353	33.1	460	38.9	349	33.8	366	35.2	339	34.9	13,182	60.6
무응답	95	7.8	82	7.7	72	6.1	-	-	58	5.6	68	7.0	1,201	5.5
총합계	1,212		1,067		1,183		1,033		1,041		970		21,741	

○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의 판매방법을 살펴보면, TV홈쇼핑이 8,849건(4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직접구입 8,598건(43.5%), 전자상거래 2,144건(10.8%), 방문판매 1,292건(6.5%), 전화통신판매 636건(3.2%) 순으로 나타남.

[표] 소비자 불만사례 판매방법별 건수

판매방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직접구입	654	69.4	550	64.7	591	66.1	725	31.3	951	12.6	828	31.0
방문판매	75	8.0	62	7.3	85	9.5	110	4.7	366	4.8	137	5.1
다단계판매	5	0.5	4	0.5	7	0.8	4	0.2	11	0.1	6	0.2
전화통신판매	44	4.7	50	5.9	42	4.7	124	5.3	81	1.1	72	2.7
전자상거래	117	12.4	114	13.4	116	13.0	204	8.8	483	6.4	271	10.1
TV홈쇼핑	28	3.0	53	6.2	40	4.5	1,103	47.6	5,599	74.1	1,354	50.7
무응답	20	2.1	17	2.0	13	1.5	48	2.1	67	0.9	4	0.1
총합계	943		850		894		2,318		7,558		2,672	

판매방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직접구입	675	55.7	712	66.6	763	64.5	764	70.8	713	68.5	672	69.3	8,598	43.5
방문판매	111	9.2	64	6.0	79	6.7	58	5.4	74	7.1	71	7.3	1,292	6.5
다단계판매	3	0.2	3	0.3	1	0.1	1	0.1	2	0.2	1	0.1	48	0.2
전화통신판매	33	2.7	23	2.2	44	3.7	22	2.0	61	5.9	40	4.1	636	3.2
전자상거래	132	10.9	136	12.7	166	14.0	146	13.5	130	12.5	129	13.3	2,144	10.8
TV홈쇼핑	252	20.8	112	10.5	125	10.6	88	8.2	51	4.9	44	4.5	8,849	44.7
무응답	6	0.5	19	1.8	5	0.4	-	-	10	1.0	13	1.3	222	1.1
총합계	1,212		1,069 (복수응답)		1,183		1,079		1,041		970		19,778	

○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의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정보요청이 15,980건(4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부당행위시정 8,923건(27.0%), 환불 3,917건(11.8%), 반품 1,922건(5.8%), 손해배상청구 1,475건(4.5%) 순으로 나타남.

[표] 소비자 불만사례 상담이유별 건수(중복응답)

상담이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교환	33	3.1	51	5.3	37	3.8	16	0.1	10	0.1	32	1
반품	99	9.4	113	11.7	95	9.6	862	5.9	1	0.0	212	6.8
환불	132	12.6	121	12.5	102	10.4	962	6.6	49	0.6	1,406	45.3
해지	28	2.7	7	0.7	18	1.8	460	3.2	3	0.0	94	3
치료비요구	113	10.8	86	8.9	98	9.9	195	1.3	-	0.0	112	3.6
손해배상청구	113	10.8	93	9.6	90	9.1	383	2.6	2	0.0	207	6.7
사과요구	3	0.3	10	1	10	1	42	0.3	1	0.0	17	0.5
부당행위시정	275	26.2	246	25.4	267	27.1	5,981	41.2	19	0.3	398	12.8
정보요청	236	22.5	234	24.2	243	24.7	5,138	35.4	7,473	98.9	609	19.6
기타	16	1.5	7	0.7	25	2.5	490	3.4	-	-	15	0.5
총합계	1,048		968		985		14,529		7,558		3,102	

상담이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교환	29	2.2	33	2.9	33	2.6	43	3.7	31	2.7	30	2.8	378	1.1
반품	101	7.7	84	7.3	106	8.3	68	5.9	96	8.3	85	7.8	1,922	5.8
환불	304	23	174	15.1	240	18.8	166	14.3	128	11.0	133	12.3	3,917	11.8
해지	31	2.3	19	1.6	24	1.9	23	2	28	2.4	11	1.0	746	2.3
치료비요구	107	8.1	94	8.1	73	5.7	94	8.1	92	7.9	58	5.4	1,122	3.4
손해배상청구	118	8.9	110	9.5	72	5.6	64	5.5	110	9.5	113	10.4	1,475	4.5
사과요구	8	0.6	16	1.4	10	0.8	6	0.5	14	1.2	19	1.8	156	0.5
부당행위시정	287	21.7	258	22.3	324	25.4	291	25.1	278	24.0	299	27.6	8,923	27.0
정보요청	324	24.5	361	31.3	318	24.9	363	31.3	368	31.8	313	28.9	15,980	48.3
기타	11	0.8	6	0.5	78	6.1	41	3.5	14	1.2	23	2.1	726	2.2
총합계	1,320		1,155		1,278		1,159		1,159		1,084		33,102	

○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정보제공이 20,386건(9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환불 526건(2.4%), 부당행위 시정 384건(1.7%), 손해배상청구 157건(0.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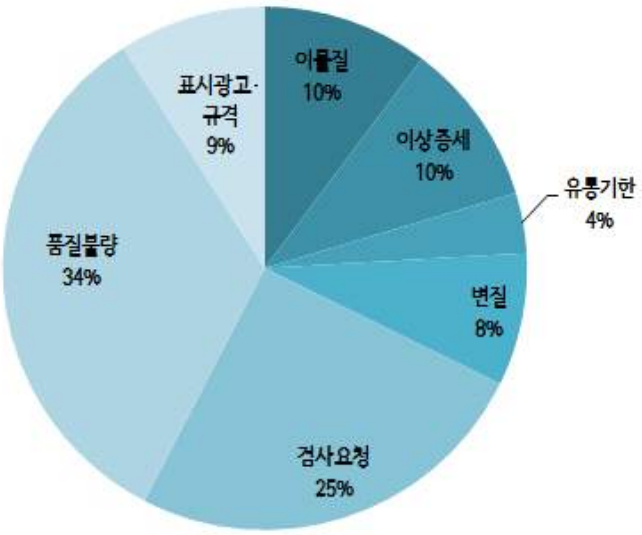
[표] 소비자 불만사례 처리결과별 건수

처리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교환	6	0.6	12	1.4	7	0.8	8	0.3	10	0.1	5	0.2
반품	-	-	4	0.5	3	0.3	2	0.1	1	0.0	2	0.1
환불	26	2.8	17	2.0	15	1.7	17	0.7	49	0.6	99	3.7
해지	-	-	8	0.9	6	0.7	3	0.1	3	0.0	10	0.4
치료비배상	6	0.6	2	0.2	1	0.1	7	0.3	0	0.0	3	0.1
손해배상청구	-	-	6	0.7	4	0.4	6	0.3	2	0.0	4	0.1
사과요구	2	0.2	-	-	1	0.1	-	-	1	0.0	2	0.1
부당행위 시정	7	0.7	16	1.9	7	0.8	7	0.3	19	0.2	20	0.7
상담정보제공	891	94.6	782	92.0	850	95.1	2,267	97.8	7,473	98.9	2,527	94.6
무응답	53	5.5	3	0.4	-	-	1	0.0	-	-	-	-
총합계	991(중복응답)		850		894		2,318		7,558		2,672	

처리결과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교환	3	0.2	33	2.9	7	0.6	6	0.5	11	1.1	3	0.3	111	0.5
반품	3	0.2	84	7.3	3	0.3	1	0.1	4	0.4	3	0.3	110	0.5
환불	36	3.0	174	15.1	27	2.3	20	1.8	18	1.7	28	2.9	526	2.4
해지	3	0.2	19	1.6	4	0.3	-	-	2	0.2	3	0.3	61	0.3
치료비배상	1	0.1	94	8.1	1	0.1	3	0.3	2	0.2	-	-	120	0.5
손해배상청구	8	0.7	110	9.5	4	0.3	4	0.4	4	0.4	5	0.5	157	0.7
사과요구	0	0.0	16	1.4	2	0.2	-	-	2	0.2	-	-	26	0.1
부당행위 시정	11	0.9	258	22.3	9	0.8	7	0.6	8	0.8	15	1.5	384	1.7
상담정보제공	1,147	94.6	361	31.3	1,127	95.2	1,055	96.3	991	95.1	915	94.1	20,386	92.9
무응답	-	-	6	0.5	-	-	-	-	-	-	-	-	63	0.3
총합계	1,212		1,155		1,184 (중복응답)		18,834		1,042 (중복응답)		972		21,944	

○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2015년 1월~12월), 전체 24,056건에서 품질불량이 8,020건(33.3%)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검사요청 6,091건(25.3%), 이상증세 2,437건(10.1%), 이물질이 2,464건(10.2%), 표시광고·규격 2,184건(9.1%), 변질 1,974건(8.2%), 유통기한 893건(3.7%)으로 나타남.

[그림] 소비자 불만사례 유형별 건수(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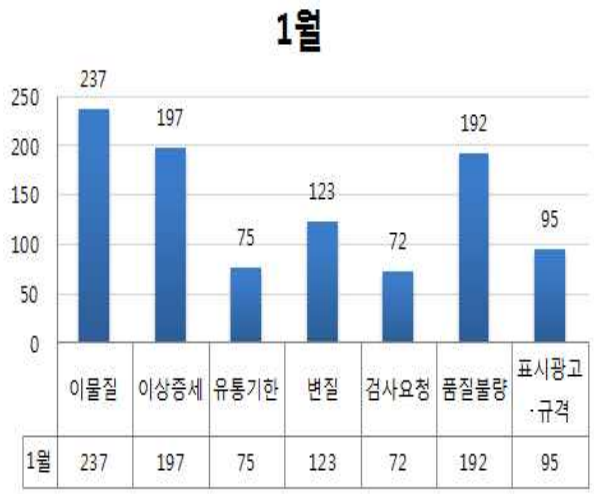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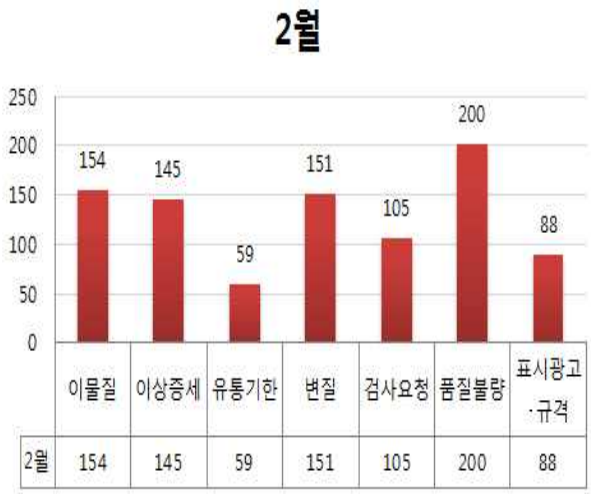
[표] 소비자 불만사례 유형별 건수(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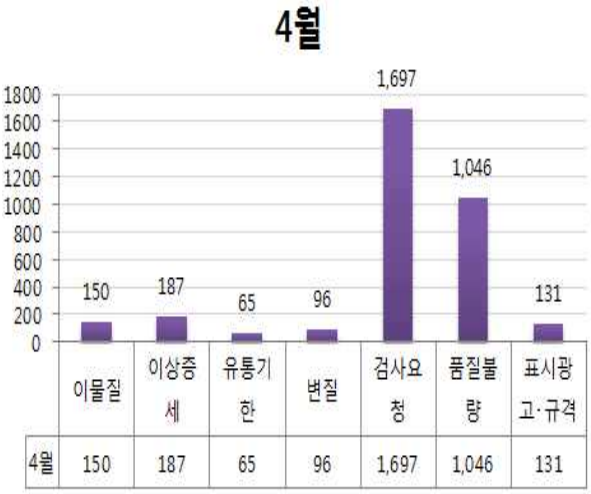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이물질	237	24.1	154	17.1	183	19.5	150	4.4	191	2.4	241	8.2
이상증세	197	20.0	145	16.1	189	20.1	187	5.5	399	4.9	235	8.0
유통기한	75	7.6	59	6.5	83	8.8	65	1.9	84	1.0	93	3.2
변질	123	12.5	151	16.7	122	13.0	96	2.8	142	1.7	170	5.8
검사요청	72	7.3	105	11.6	82	8.7	1,697	50.3	2,842	35.0	664	22.5
품질불량	192	19.5	200	22.2	207	22.0	1,046	31.0	3,865	47.6	994	33.7
표시광고·규격	95	9.7	88	9.8	73	7.8	131	3.9	595	7.3	550	18.7
합계	984	100.0	902	100.0	939	100.0	3,372	100.0	8,118	100.0	2,9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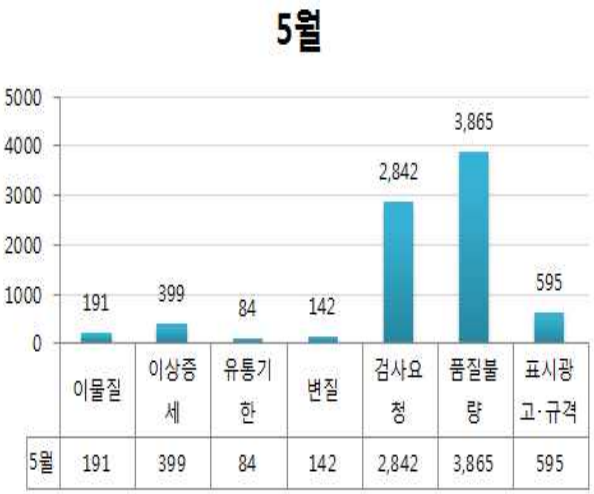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이물질	208	16.7	221	19.9	226	18.2	204	18.3	248	22.8	201	20.2	2,464	10.2
이상증세	177	14.2	204	18.4	203	16.4	177	15.9	169	15.5	155	15.5	2,437	10.1
유통기한	77	6.2	71	6.4	56	4.5	83	7.5	73	6.7	74	7.4	893	3.7
변질	163	13.1	199	17.9	233	18.8	239	21.5	171	15.7	165	16.5	1,974	8.2
검사요청	196	15.7	91	8.2	94	7.6	90	8.1	85	7.8	73	7.3	6,091	25.3
품질불량	306	24.5	220	19.8	281	22.7	231	20.8	243	22.3	235	23.6	8,020	33.3
표시광고·규격	120	9.6	103	9.3	146	11.8	88	7.9	101	9.3	94	9.4	2,184	9.1
합계	1,247	100.0	1,109	100.0	1,239	100.0	1,112	100.0	1,090	100.0	997	100.0	24,0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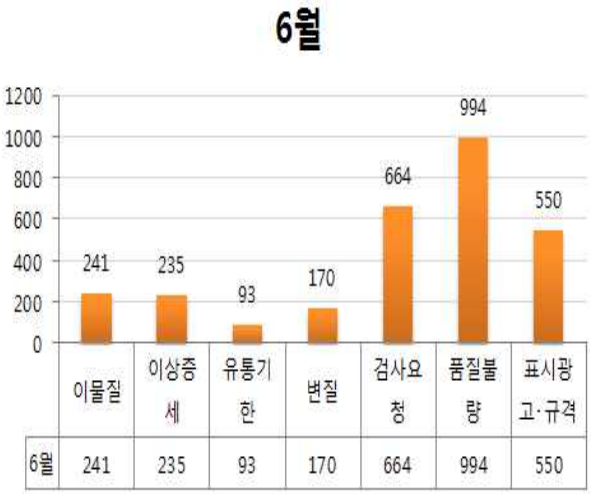
[그림] 소비자 불만사례 유형별 월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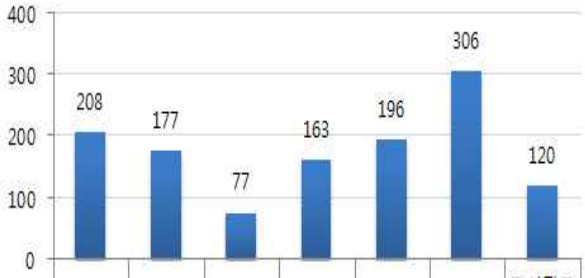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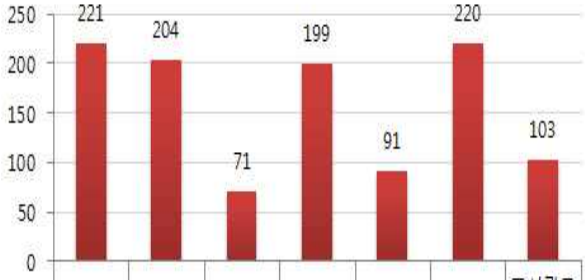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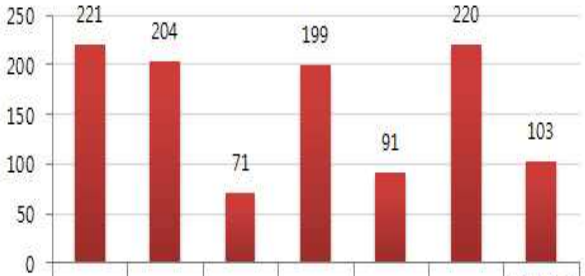
	이물질	이상증세	유통기한	변질	검사요청	품질불량	표시광고·규격
7월	208	177	77	163	196	306	120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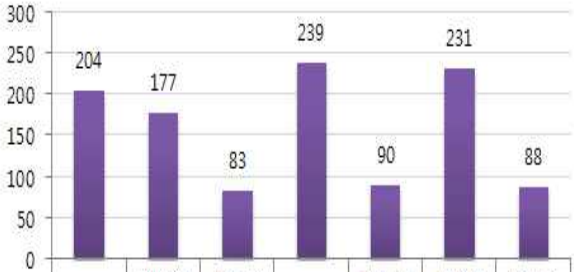
	이물질	이상증세	유통기한	변질	검사요청	품질불량	표시광고·규격
8월	221	204	71	199	91	220	103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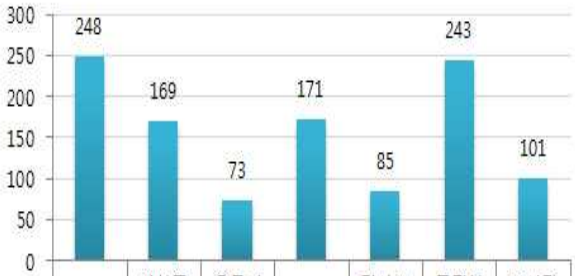
	이물질	이상증세	유통기한	변질	검사요청	품질불량	표시광고·규격
8월	221	204	71	199	91	220	103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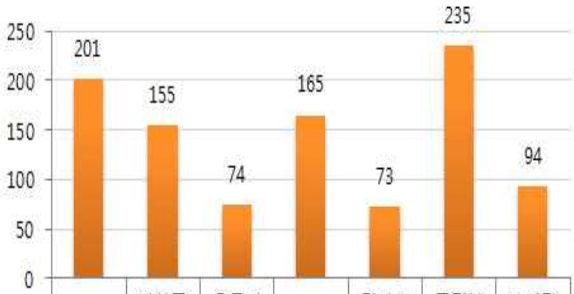
	이물질	이상증세	유통기한	변질	검사요청	품질불량	표시광고·규격
10월	204	177	83	239	90	231	88

11월



	이물질	이상증세	유통기한	변질	검사요청	품질불량	표시광고·규격
11월	248	169	73	171	85	243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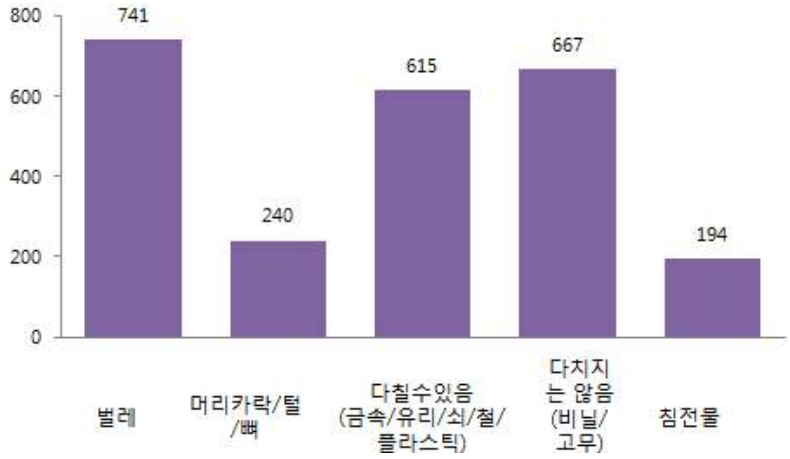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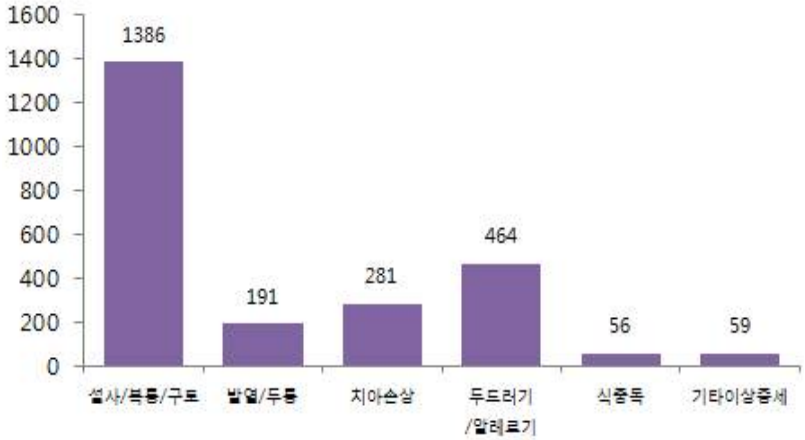
	이물질	이상증세	유통기한	변질	검사요청	품질불량	표시광고·규격
12월	201	155	74	165	73	235	94

○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2015년 1월 ~ 12월), 이물질 중에는 벌레가 741건(3.1%) 이상증세 중에는 설사/복통/구토가 1,386건(5.8%), 유통기한 중에는 유통기한 경과가 754건(3.1%), 변질 중에는 상함/부패가 1,297건(5.4%), 검사요청에는 성분검사가 5,012건(20.8%), 품질불량 중에는 품질불량이 7,724건(32.1%), 표시광고 중에는 과대광고가 938건(3.9%)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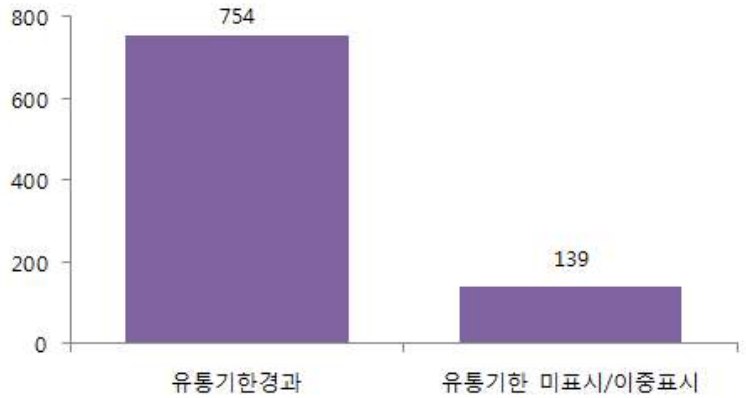
[그림] 이물질 유형별 상담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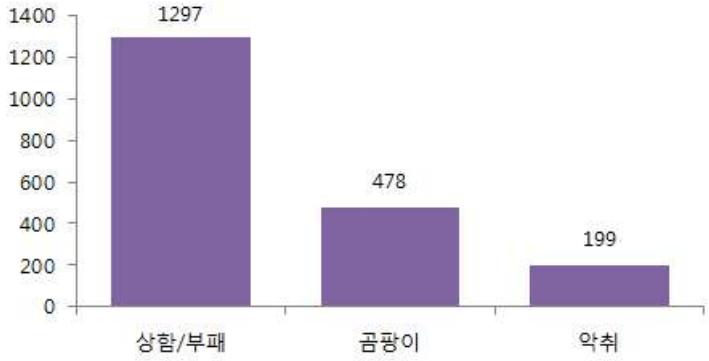
[그림] 이상증세 유형별 상담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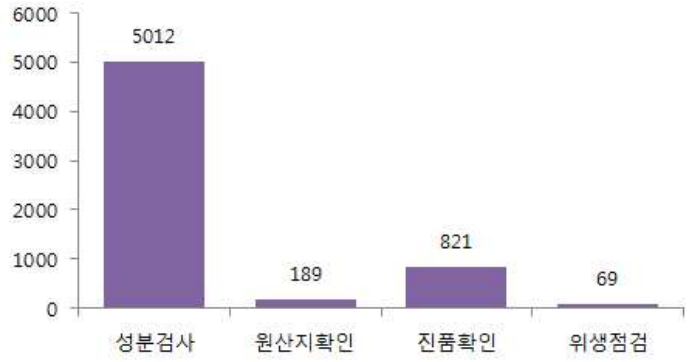
[그림] 유통기한 유형별 상담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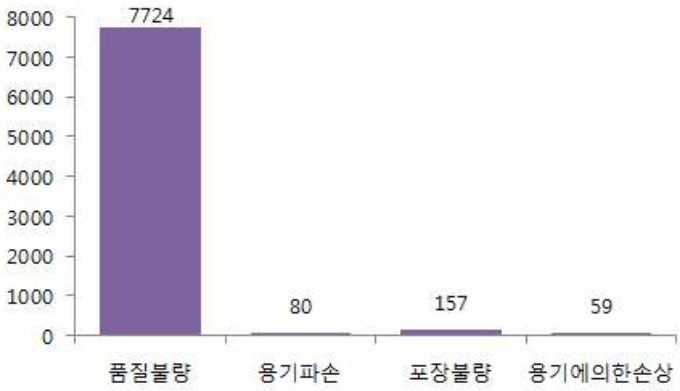
[그림] 변질 유형별 상담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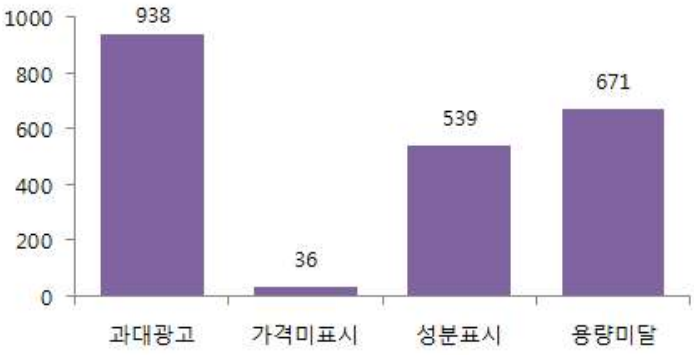
[그림] 검사요청 유형별 상담건수



[그림] 품질불량 유형별 상담건수



[그림] 표시광고·규격 유형별 상담건수



[표] 소비자 불만사례 유형별 건수 세분화(중복응답)

불만사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이물질	벌레	41	4.2	26	2.9	44	4.7	24	0.7	41	0.5	71	2.4
	머리카락/털/뼈	24	2.4	17	1.9	25	2.7	14	0.4	34	0.4	21	0.7
	다칠수있음 (금속/유리/쇠/철/플라스틱)	61	6.2	46	5.1	46	4.9	39	1.2	62	0.8	41	1.4
	다치지는 않음 (비닐/고무)	94	9.6	49	5.4	52	5.5	64	1.9	38	0.5	86	2.9
	침전물	10	1.0	16	1.8	16	1.7	9	0.3	16	0.2	22	0.7
이상증세	설사/복통/구토	141	14.3	86	9.5	119	12.7	95	2.8	170	2.1	129	4.4
	발열/두통	15	1.5	10	1.1	7	0.7	16	0.5	54	0.7	25	0.8
	치아손상	21	2.1	19	2.1	37	3.9	20	0.6	22	0.3	19	0.6
	두드러기/알레르기	15	1.5	24	2.7	25	2.7	55	1.6	104	1.3	46	1.6
	식중독	5	0.5	6	0.7	1	0.1	1	-	3	-	7	0.2
	기타이상증세	-	-	-	-	-	-	-	-	46	0.6	9	0.3
유통기한	유통기한경과	57	5.8	43	4.8	68	7.2	57	1.7	69	0.8	83	2.8
	유통기한 미표시 /이중표시	18	1.8	16	1.8	15	1.6	8	0.2	15	0.2	10	0.3
변질	상함/부패	90	9.1	114	12.6	76	8.1	64	1.9	81	1.0	126	4.3
	곰팡이	25	2.5	22	2.4	30	3.2	27	0.8	48	0.6	30	1.0
	악취	8	0.8	15	1.7	16	1.7	5	0.1	13	0.2	14	0.5
검사요청	성분검사	44	4.5	48	5.3	41	4.4	1098	32.6	2759	34.0	603	20.5
	원산지확인	19	1.9	28	3.1	23	2.4	15	0.4	11	0.1	9	0.3
	진품확인	7	0.7	27	3.0	15	1.6	580	17.2	64	0.8	41	1.4
	위생점검	2	0.2	2	0.2	3	0.3	4	0.1	8	0.1	11	0.4
품질불량	품질불량	176	17.9	174	19.3	179	19.1	1028	30.5	3844	47.4	963	32.7
	용기파손	7	0.7	10	1.1	7	0.7	1	-	9	0.1	3	0.1
	포장불량	9	0.9	14	1.6	13	1.4	13	0.4	8	0.1	19	0.6
	용기에의한 손상	-	-	2	0.2	8	0.9	4	0.1	4	0.0	9	0.3
표시광고	과대광고	49	5.0	43	4.8	42	4.5	73	2.2	75	0.9	352	11.9
	가격미표시	7	0.7	6	0.7	1	0.1	3	0.1	2	-	3	0.1
	성분표시	3	0.3	5	0.6	4	0.4	22	0.7	470	5.8	6	0.2
규격	용량미달	36	3.7	34	3.8	26	2.8	33	1.0	48	0.6	189	6.4
총합계		984		902		939		3,372		8,118		2,947	

불만사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이물질	벌레	71	5.7	81	7.3	97	7.8	84	7.6	103	9.4	58	5.8	741	3.1
	머리카락/털/뼈	21	1.7	18	1.6	16	1.3	14	1.3	23	2.1	13	1.3	240	1.0
	다칠수있음(금속/유리/쇠/철/플라스틱)	62	5.0	51	4.6	47	3.8	42	3.8	57	5.2	61	6.1	615	2.6
	다치지는 않음(비닐/고무)	42	3.4	53	4.8	50	4.0	47	4.2	47	4.3	45	4.5	667	2.8
	침전물	12	1.0	18	1.6	16	1.3	17	1.5	18	1.7	24	2.4	194	0.8
이상증세	설사/복통/구토	108	8.7	132	11.9	132	10.7	112	10.1	87	8.0	75	7.5	1,386	5.8
	발열/두통	13	1.0	12	1.1	16	1.3	10	0.9	7	0.6	6	0.6	191	0.8
	치아손상	12	1.0	18	1.6	23	1.9	25	2.2	32	2.9	33	3.3	281	1.2
	두드러기/알레르기	37	3.0	37	3.3	31	2.5	24	2.2	34	3.1	32	3.2	464	1.9
	식중독	6	0.5	3	0.3	-	-	6	0.5	9	0.8	9	0.9	56	0.2
	기타이상증세	1	0.1	2	0.2	1	0.1	-	-	-	-	-	-	59	0.2
유통기한	유통기한경과	62	5.0	68	6.1	52	4.2	69	6.2	64	5.9	62	6.2	754	3.1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15	1.2	3	0.3	4	0.3	14	1.3	9	0.8	12	1.2	139	0.6
변질	상함/부패	118	9.5	121	10.9	167	13.5	158	14.2	99	9.1	83	8.3	1,297	5.4
	곰팡이	32	2.6	59	5.3	60	4.8	53	4.8	47	4.3	45	4.5	478	2.0
	악취	13	1.0	19	1.7	6	0.5	28	2.5	25	2.3	37	3.7	199	0.8
검사요청	성분검사	155	12.4	68	6.1	60	4.8	47	4.2	40	3.7	49	4.9	5,012	20.8
	원산지확인	11	0.9	9	0.8	12	1.0	20	1.8	21	1.9	11	1.1	189	0.8
	진품확인	19	1.5	7	0.6	18	1.5	14	1.3	21	1.9	8	0.8	821	3.4
	위생점검	11	0.9	7	0.6	4	0.3	9	0.8	3	0.3	5	0.5	69	0.3
품질불량	품질불량	279	22.4	188	17.0	253	20.4	209	18.8	220	20.2	211	21.2	7,724	32.1
	용기파손	6	0.5	9	0.8	5	0.4	7	0.6	6	0.6	10	1.0	80	0.3
	포장불량	16	1.3	18	1.6	19	1.5	7	0.6	11	1.0	10	1.0	157	0.7
	용기에의한 손상	5	0.4	5	0.5	4	0.3	8	0.7	6	0.6	4	0.4	59	0.2
표시광고	과대광고	51	4.1	49	4.4	60	4.8	34	3.1	52	4.8	58	5.8	938	3.9
	가격미표시	10	0.8	1	0.1	-	-	-	-	1	0.1	2	0.2	36	0.1
	성분표시	-	-	1	0.1	8	0.6	8	0.7	7	0.6	5	0.5	539	2.2
규격	용량미달	59	4.7	52	4.7	78	6.3	46	4.1	41	3.8	29	2.9	671	2.8
총합계		1,247		1,109		1,239		1,112		1,090		997		24,056	

나.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유형별 심층분석

(1) 이물질

○ 1월~12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4390건으로 건강식품 188건(7.71%)으로 가장 높고, 과자류 179건(7.34%), 빵 159건(6.52%), 곡류 132(5.41%), 분유류 128건(5.25%)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1월~12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6	4.9	21	9.1	57	9.2	41	6.2	4	2.1	159	6.52
케익류	8	1.1	5	2.2	6	1.0	1	0.2	1	0.5	21	0.86
떡류	3	0.4	4	1.7	15	2.4	13	2.0	-	-	35	1.44
과자류	59	8.0	13	5.7	51	8.2	49	7.4	7	3.7	179	7.34
코코아가공품류	30	4.1	4	1.7	6	1.0	8	1.2	1	0.5	49	2.01
잼류	1	0.1	-	-	-	-	-	-	4	2.1	5	0.21
설탕	-	-	-	-	1	0.2	1	0.2	-	-	2	0.08
포도당/과당	1	0.1	-	-	-	-	-	-	-	-	1	0.04
꿀	1	0.1	-	-	-	-	1	0.2	3	1.6	5	0.21
엿류	1	0.1	-	-	3	0.5	-	-	-	-	4	0.16
당시럽류	-	-	1	0.4	-	-	-	-	-	-	1	0.04
올리고당류	1	0.1	-	-	-	-	-	-	-	-	1	0.04
아이스크림류	8	1.1	5	2.2	17	2.7	11	1.7	1	0.5	42	1.72
빙과류	1	0.1	3	1.3	3	0.5	1	0.2	1	0.5	9	0.37
우유류	11	1.5	1	0.4	14	2.3	24	3.6	10	5.2	60	2.46
발효유류	6	0.8	5	2.2	4	0.6	6	0.9	5	2.6	26	1.07
분유류	47	6.4	7	3.0	10	1.6	47	7.1	17	8.9	128	5.25
치즈·버터류	2	0.3	1	0.4	1	0.2	3	0.5	-	-	7	0.29
햄 및 소시지류	4	0.5	12	5.2	14	2.3	14	2.1	-	-	44	1.80
치킨류	5	0.7	3	1.3	6	1.0	4	0.6	-	-	18	0.74
기타육류가공품	13	1.8	14	6.1	28	4.5	29	4.4	1	0.5	85	3.49
알가공품	-	-	-	-	-	-	-	-	-	-	-	0.00
어묵제품류	2	0.3	1	0.4	4	0.6	5	0.8	-	-	12	0.49
두부류 또는 묵류	4	0.5	2	0.9	2	0.3	2	0.3	1	0.5	11	0.45
식용유지류	-	-	-	-	-	-	6	0.9	3	1.6	9	0.37
라면류	49	6.6	5	2.2	22	3.5	21	3.2	2	1.0	99	4.06
건면류	5	0.7	2	0.9	6	1.0	-	-	1	0.5	14	0.57
생면류	3	0.4	-	-	2	0.3	2	0.3	-	-	7	0.29
다류	12	1.6	1	0.4	5	0.8	11	1.7	2	1.0	31	1.27
커피	38	5.2	2	0.9	6	1.0	27	4.1	9	4.7	82	3.36
탄산음료류	7	0.9	4	1.7	8	1.3	5	0.8	5	2.6	29	1.19
과·채음료류	10	1.4	2	0.9	16	2.6	20	3.0	13	6.8	61	2.50
생수	4	0.5	-	-	-	-	8	1.2	19	9.9	31	1.27
특수용도식품(환자식)	2	0.3	-	-	-	-	2	0.3	-	-	4	0.16
이유식	5	0.7	7	3.0	4	0.6	3	0.5	1	0.5	20	0.82
장류	9	1.2	3	1.3	3	0.5	4	0.6	-	-	19	0.78
소스류	2	0.3	-	-	4	0.6	4	0.6	1	0.5	11	0.45
드레싱류	0	0.0	-	-	-	-	-	-	1	0.5	1	0.04

김치류	20	2.7	-	-	5	0.8	9	1.4	-	-	34	1.39
젓갈류	1	0.1	1	0.4	-	-	10	1.5	-	-	12	0.49
절임식품	5	0.7	-	-	2	0.3	-	-	1	0.5	8	0.33
절임배추	1	0.1	-	-	-	-	-	-	1	0.5	2	0.08
조림식품	12	1.6	5	2.2	16	2.6	12	1.8	1	0.5	46	1.89
소주	8	1.1	-	-	11	1.8	3	0.5	8	4.2	30	1.23
맥주	2	0.3	3	1.3	9	1.4	3	0.5	9	4.7	26	1.07
포도주	1	0.1	-	-	1	0.2	-	-	1	0.5	3	0.12
탁약주(막걸리)	7	0.9	1	0.4	1	0.2	3	0.5	2	1.0	14	0.57
건포류	4	0.5	4	1.7	9	1.4	3	0.5	-	-	20	0.82
건강식품	22	3.0	12	5.2	47	7.6	84	12.7	23	12.0	188	7.71
즉석식품	10	1.4	9	3.9	28	4.5	32	4.8	1	0.5	80	3.28
쇠고기	6	0.8	2	0.9	4	0.6	2	0.3	-	-	14	0.57
돼지고기	4	0.5	2	0.9	2	0.3	2	0.3	-	-	10	0.41
닭고기	6	0.8	8	3.5	8	1.3	2	0.3	1	0.5	25	1.03
오리고기	1	0.1	2	0.9	1	0.2	-	-	-	-	4	0.16
알류	2	0.3	-	-	-	-	1	0.2	2	1.0	5	0.21
곡류	93	12.6	4	1.7	16	2.6	15	2.3	4	2.1	132	5.41
채소류	23	3.1	5	2.2	6	1.0	5	0.8	1	0.5	40	1.64
과일류	11	1.5	2	0.9	7	1.1	2	0.3	1	0.5	23	0.94
생선류	17	2.3			10	1.6	8	1.2	0	0.0	35	1.44
어패류	10	1.4	1	0.4	7	1.1	5	0.8	3	1.6	26	1.07
해조류	6	0.8	2	0.9	10	1.6	9	1.4	1	0.5	28	1.15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1	0.5	1	0.04
나물류	-	-	-	-	-	-	-	-	-	-	-	-
약용작물류	1	0.1	2	0.9	2	0.3	3	0.5	-	-	8	0.33
견과류	25	3.4	-	-	5	0.8	12	1.8	2	1.0	44	1.80
조미료(향신료	2	0.3	1	0.4	2	0.3	7	1.1	2	1.0	14	0.57
고추가루	-	-	-	-	2	0.3	1	0.2	1	0.5	4	0.16
한식	14	1.9	8	3.5	25	4.0	21	3.2	4	2.1	72	2.95
양식	1	0.1	1	0.4	1	0.2	-	-	-	-	3	0.12
일식	1	0.1	-	-	-	-	1	0.2	-	-	2	0.08
중식	4	0.5	1	0.4	7	1.1	4	0.6	2	1.0	18	0.74
분식	-	-	2	0.9	15	2.4	5	0.8	2	1.0	24	0.98
노점상	-	-	-	-	2	0.3	-	-	1	0.5	3	0.12
패스트푸드점	17	2.3	23	10.0	29	4.7	12	1.8	-	-	81	3.32
뷔페	-	-	-	-	-	-	-	-	-	-	0	0.00
복합조미식품	2	0.3	-	-	3	0.5	3	0.5	-	-	8	0.33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3	0.4	-	-	1	0.2	-	-	2	1.0	6	0.25
기타육류	-	-	-	-	4	0.6	-	-	-	-	4	0.16
기타식품류	5	0.7	1	0.4	4	0.6	5	0.8	1	0.5	16	0.66
미기재	-	-	-	-	1	0.2	3	0.5	-	-	4	0.16
총합계(중복응답)	737	100.0	230	100.0	621	100.0	660	100.0	191	100.0	2439	100.00

○ 1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30건으로 과자류 23건(10.0%)으로 가장 높고, 빵류 18건(7.8%), 즉석식품 16건(7.0%), 분유류13건(5.7%) 패스트푸드점 12건(5.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1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2	4.9	5	20.8	9	14.8	2	2.1	-	-	18	7.8
케잌류	-	-	1	4.2	-	-	-	-	1	10	2	0.9
떡류	-	-	-	-	1	1.6	2	2.1	-	-	3	1.3
과자류	4	9.8	2	8.3	7	11.5	10	10.6	-	-	23	10.0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	-	-	-	-	2	2.1	-	-	2	0.9
잼류	-	-	-	-	-	-	-	-	-	-	-	-
설탕	-	-	-	-	-	-	-	-	-	-	-	-
꿀	-	-	-	-	-	-	-	-	-	-	-	-
엿류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2	8.3	-	-	-	-	-	-	2	0.9
우유류	3	7.3	-	-	1	1.6	4	4.3	1	10	9	3.9
발효유류	-	-	1	4.2	2	3.3	-	-	-	-	3	1.3
분유류	2	4.9	-	-	-	-	9	9.6	2	20	13	5.7
치즈버터류	-	-	-	-	-	-	1	1.1	-	-	1	0.4
햄 및 소시지류	1	2.4	1	4.2	1	1.6	1	1.1	-	-	4	1.7
치킨류	-	-	1	4.2	-	-	-	-	-	-	1	0.4
기타육류가공품	2	4.9	-	-	3	4.9	5	5.3	-	-	10	4.3
알가공품	-	-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1	1.6	1	1.1	-	-	2	0.9
두부류 또는 묵류	1	2.4	-	-	1	1.6	-	-	-	-	2	0.9
식용유지류	-	-	-	-	-	-	2	2.1	-	-	2	0.9
라면류	3	7.3	-	-	2	3.3	2	2.1	-	-	7	3.0
건면류	-	-	-	-	-	-	-	-	1	10	1	0.4
생면류	-	-	-	-	-	-	-	-	-	-	-	-
다류	1	2.4	-	-	1	1.6	1	1.1	-	-	3	1.3
커피	3	7.3	-	-	-	-	5	5.3	1	10	9	3.9
과채음료류	-	-	-	-	1	1.6	5	5.3	1	10	7	3.0
생수	-	-	-	-	-	-	2	2.1	-	-	2	0.9
특수용도식품	-	-	-	-	-	-	1	1.1	-	-	1	0.4
이유식	1	2.4	2	8.3	-	-	1	1.1	-	-	4	1.7
장류	-	-	-	-	-	-	-	-	-	-	-	-
소스류	1	2.4	-	-	1	1.6	1	1.1	-	-	3	1.3
김치류	-	-	-	-	-	-	-	-	-	-	-	-
젓갈류	-	-	-	-	-	-	2	2.1	-	-	2	0.9
절임식품	-	-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	-
조림식품	-	-	1	4.2	2	3.3	2	2.1	-	-	5	2.2
소주	-	-	-	-	-	-	-	-	-	-	-	-
맥주	-	-	-	-	-	-	1	1.1	2	20	3	1.3
건포류	1	2.4	-	-	1	1.6	-	-	-	-	2	0.9
건강식품	2	4.9	1	4.2	3	4.9	1	1.1	-	-	7	3.0
즉석식품	-	-	3	12.5	6	9.8	7	7.4	-	-	16	7.0
쇠고기	-	-	-	-	1	1.6	1	1.1	-	-	2	0.9

돼지고기	1	2.4	-	-	-	-	-	-	-	-	1	0.4
닭고기	-	-	1	4.2	-	-	1	1.1	-	-	2	0.9
알류	-	-	-	-	-	-	-	-	-	-	-	-
곡류	6	14.6	1	4.2	2	3.3	-	-	1	10	10	4.3
채소류	1	2.4	-	-	1	1.6	-	-	-	-	2	0.9
과일류	-	-	-	-	-	-	-	-	-	-	-	-
생선류	-	-	-	-	-	-	2	2.1	-	-	2	0.9
어패류	-	-	-	-	-	-	1	1.1	-	-	1	0.4
해조류	1	2.4	-	-	1	1.6	2	2.1	-	-	4	1.7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1	1.1	-	-	1	0.4
견과류	-	-	-	-	-	-	4	4.3	-	-	4	1.7
조미료	-	-	-	-	1	1.6	-	-	-	-	1	0.4
고추가루	-	-	-	-	1	1.6	-	-	-	-	1	0.4
한식	1	2.4	-	-	2	3.3	3	3.2	-	-	6	2.6
양식	-	-	1	4.2	-	-	-	-	-	-	1	0.4
일식	-	-	-	-	-	-	-	-	-	-	-	-
중식	1	2.4	-	-	-	-	1	1.1	-	-	2	0.9
분식	-	-	-	-	4	6.6	1	1.1	-	-	5	2.2
패스트푸드점	3	7.3	1	4.2	3	4.9	5	5.3	-	-	12	5.2
복합조미식품	-	-	-	-	1	1.6	1	1.1	-	-	2	0.9
기타주류	-	-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	-
비어 있음	-	-	-	-	1	1.6	1	1.1	-	-	2	0.9
총합계	41	100.0	24	100.0	61	100.0	94	100.0	10	100.0	230	100.0

○ 2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154건으로 과자류가 각각 13건(8.4%)으로 가장 높고, 빵이 11건(7.1%), 기타육류가공품 10건(6.5%), 건강식품 8건(5.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2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	-	3	17.6	4	8.7	3	6.1	1	6.3	11	7.1
케익류	-	-	-	-	1	2.2	-	-	-	-	1	0.6
떡류	-	-	-	-	-	-	1	2.0	-	-	1	0.6
과자류	1	3.8	1	5.9	5	10.9	5	10.2	1	6.3	13	8.4
코코아가공품류	3	11.5	1	5.9	-	-	-	-	-	-	4	2.6
잼류	-	-	-	-	-	-	-	-	2	12.5	2	1.3
설탕	-	-	-	-	-	-	-	-	1	6.3	1	0.6
당시럽류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3	6.1	-	-	3	1.9
빙과류	-	-	-	-	-	-	-	-	-	-	-	-
우유류	-	-	-	-	1	2.2	2	4.1	-	-	3	1.9
발효유류	2	7.7	-	-	-	-	-	-	1	6.3	3	1.9
분유류	1	3.8	-	-	1	2.2	2	4.1	1	6.3	5	3.2
치즈·버터류	-	-	-	-	1	2.2	1	2.0	-	-	2	1.3
햄 및 소시지류	1	3.8	3	17.6	1	2.2	1	2.0	-	-	6	3.9
치킨류	1	3.8	-	-	-	-	-	-	-	-	1	0.6
기타육류가공품	-	-	3	17.6	1	2.2	6	12.2	-	-	10	6.5
어묵제품류	-	-	1	5.9	1	2.2	-	-	-	-	2	1.3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1	6.3	1	0.6
라면류	3	11.5	-	-	1	2.2	4	8.2	-	-	8	5.2
생면류	-	-	-	-	-	-	-	-	-	-	-	-
다류	-	-	-	-	1	2.2	4	8.2	-	-	5	3.2
커피	-	-	-	-	1	2.2	2	4.1	-	-	3	1.9
탄산음료류	-	-	-	-	1	2.2	-	-	-	-	1	0.6
과·채음료류	-	-	-	-	-	-	2	4.1	-	-	2	1.3
생수	-	-	-	-	-	-	1	2.0	-	-	1	0.6
특수용도식품	-	-	-	-	-	-	-	-	-	-	-	-
이유식	1	3.8	-	-	1	2.2	1	2.0	-	-	3	1.9
장류	-	-	-	-	-	-	1	2.0	-	-	1	0.6
소스류	-	-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	-
조림식품	-	-	-	-	2	4.3	-	-	-	-	2	1.3
소주	-	-	-	-	2	4.3	-	-	-	-	2	1.3
맥주	-	-	-	-	1	2.2	-	-	2	12.5	3	1.9
탁약주	-	-	-	-	-	-	2	4.1	-	-	2	1.3
건포류	-	-	-	-	-	-	-	-	-	-	-	-
건강식품	-	-	2	11.8	2	4.3	2	4.1	2	12.5	8	5.2
즉석식품	-	-	-	-	1	2.2	2	4.1	-	-	3	1.9
쇠고기	-	-	-	-	3	6.5	-	-	-	-	3	1.9

돼지고기	-	-	1	5.9	-	-	-	-	-	-	1	0.6
닭고기	1	3.8	1	5.9	1	2.2	-	-	-	-	3	1.9
알류	-	-	-	-	-	-	-	-	-	-	-	-
곡류	4	15.4	-	-	1	2.2	-	-	-	-	5	3.2
채소류	1	3.8	-	-	-	-	-	-	-	-	1	0.6
과일류	-	-	-	-	2	4.3	-	-	-	-	2	1.3
생선류	-	-	-	-	1	2.2	1	2.0	-	-	2	1.3
어패류	1	3.8	-	-	2	4.3	1	2.0	1	6.3	5	3.2
해조류	-	-	-	-	2	4.3	-	-	-	-	2	1.3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	-
나물류	-	-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	-	-	-
견과류	3	11.5	-	-	-	-	-	-	1	6.3	4	2.6
조미료	-	-	-	-	-	-	2	4.1	-	-	2	1.3
고추가루	-	-	-	-	-	-	-	-	-	-	-	-
한식	1	3.8	-	-	-	-	-	-	-	-	1	0.6
양식	1	3.8	-	-	1	2.2	-	-	-	-	2	1.3
일식	-	-	-	-	-	-	-	-	-	-	-	-
중식	-	-	-	-	-	2.2	-	-	-	-	1	0.6
분식	-	-	-	-	-	-	-	-	2	12.5	2	1.3
패스트푸드점	-	-	1	5.9	3	6.5	-	-	-	-	4	2.6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	-
기타식품류	1	3.8	-	-	-	-	-	-	-	-	1	0.6
총합계	26	100.0	17	100.0	46	100.0	49	100.0	16	100.0	154	100.0

○ 3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183건으로 빵류가 19건(10.4%)으로 가장 높고, 분유류가 11건(6.0%), 기타육류가공품과 건강식품이 각각 10건(5.5%), 과자류가 8건(4.4%)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3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5	11.4	6	24.0	4	8.7	4	7.7	-	-	19	10.4
케익류	2	4.5	2	8.0	-	-	-	-	-	-	4	2.2
떡류	1	2.3	-	-	2	4.3	2	3.8	-	-	5	2.7
과자류	2	4.5	-	-	2	4.3	4	7.7	-	-	8	4.4
코코아가공품류	1	2.3	-	-	1	2.2	1	1.9	-	-	3	1.6
잼류	-	-	-	-	-	-	-	-	-	-	-	-
설탕	-	-	-	-	-	-	-	-	-	-	-	-
꿀	-	-	-	-	-	-	1	1.9	1	6.3	2	1.1
엿류	-	-	-	-	1	2.2	-	-	-	-	1	0.5
아이스크림류	-	-	-	-	-	-	1	1.9	-	-	1	0.5
우유로	-	-	-	-	2	4.3	3	5.8	2	12.5	7	3.8
발효유류	-	-	-	-	-	-	-	-	-	-	-	-
분유류	2	4.5	1	4.0	-	-	5	9.6	3	18.8	11	6.0
치즈·버터류	-	-	1	4.0	-	-	-	-	-	-	1	0.5
햄 및 소시지류	1	2.3	1	4.0	2	4.3	-	-	-	-	4	2.2
치킨류	1	2.3	3	12.0	1	2.2	-	-	-	-	5	2.7
기타육류가공품	1	2.3	1	4.0	4	8.7	4	7.7	-	-	10	5.5
알가공품	-	-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	-
라면류	2	4.5	1	4.0	2	4.3	2	3.8	-	-	7	3.8
건면류	-	-	-	-	-	-	-	-	-	-	-	-
다류	-	-	-	-	-	-	1	1.9	-	-	1	0.5
커피	2	4.5	1	4.0	-	-	2	3.8	-	-	5	2.7
탄산음료류	-	-	1	4.0	-	-	-	-	1	6.3	2	1.1
과·채음료류	-	-	-	-	2	4.3	2	3.8	-	-	4	2.2
생수	-	-	-	-	-		1	1.9	1	6.3	2	1.1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	-
이유식	-	-	2	8.0	-	-	-	-	-	-	2	1.1
장류	1	2.3	2	8.0	-	-	-	-	-	-	3	1.6
소스류	-	-	-	-	1	2.2	-	-	-	-	1	0.5
드레싱류	-	-	-	-	-	-	-	-	-	-	-	-
김치류	5	11.4	-	-	-	-	2	3.8	-	-	7	3.8
젓갈류	-	-	-	-	-	-	-	-	-	-	-	-
절임식품	1	2.3	-	-	-	-	-	-	-	-	1	0.5
절임배추	-	-	-	-	-	-	-	-	-	-	-	-
조림식품	1	2.3	-	-	-	-	3	5.8	-	-	4	2.2
소주	-		-		1	2.2	-	-	1	6.3	2	1.1
맥주	-		-		1	2.2	-	-	1	6.3	2	1.1
포도주	-	-	-	-		-	-	-	-	-	-	-
탁약주	-	-	-	-	1	2.2	-	-	-	-	1	0.5
건포류	-	-	1	4.0	-	-	-	-	-	-	1	0.5

건강식품	2	4.5	-	-	3	6.5	2	3.8	3	18.8	10	5.5
즉석식품	3	6.8	-	-	3	6.5	2	3.8	-	-	8	4.4
쇠고기	-	-	-	-	-	-	-	-	-	-	-	-
돼지고기	-	-	-	-	-	-	-	-	-	-	-	-
닭고기	-	-	1	4.0	-	-	-	-	-	-	1	0.5
오리고기	-	-	-	-	-	-	-	-	-	-	-	-
알류	-	-	-	-	-	-	-	-	-	-	-	-
곡류	2	4.5	-	-	-	-	-	-	-	-	3	1.6
채소류	1	2.3	-	-	1	2.2	1	1.9	1	6.3	4	2.2
과일류	-	-	-	-	-	-	-	-	-	-	-	-
생선류	1	2.3	-	-	2	4.3	-	-	-	-	3	1.6
어패류	1	2.3	-	-	-	-	1	1.9	-	-	2	1.1
해조류	-	-	-	-	2	4.3	1	1.9	-	-	3	1.6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	-
나물류	-	-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1	1.9	-	-	1	0.5
견과류	1	2.3	-	-	1	2.2	1	1.9	-	-	3	1.6
조미료	-	-	-	-	-	-	4	7.7	1	6.3	5	2.7
고추가루	-	-	-	-	-	-	-	-	-	-	-	-
한식	-	-	-	-	1	2.2	-	-	1	6.3	2	1.1
일식	-	-	-	-	-	-	-	-	-	-	-	-
중식	-	-	1	4.0	-	-	1	1.9	-	-	2	1.1
분식	-	-	-	-	1	2.2	-	-	-	-	1	0.5
노점상	-	-	-	-	1	2.2	-	-	-	-	1	0.5
패스트푸드점	2	4.5	-	-	2	4.3	-	-	-	-	4	2.2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	-
기타주류	-	-	-	-	-	-	-	-	-	-	-	-
기타육류	-	-	-	-	1	2.2	-	-	-	-	1	0.5
기타식품류	3	6.8	-	-	-	-	-	-	-	-	3	1.6
합계	44	100.0	25	100.0	46	100.0	52	100.0	16	100.0	183	100.0

○ 4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150건으로 건강식품 16건(10.7%)으로 가장 높고, 과자류가 13건(8.7%), 빵류 12건(8.0%), 즉석식품과 커피가 각각 8건(5.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4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3	12.5	-	-	4	10.3	5	7.8	-	-	12	8.0
케익류	1	4.2	1	7.1	1	2.6	-	-	-	-	3	2.0
떡류	-	-	-	-	1	2.6	1	1.6	-	-	2	1.3
과자류	1	4.2	3	21.4	1	2.6	8	12.5	-	-	13	8.7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	–
설탕	-	-	-	-	-	-	-	-	-	-	-	–
꿀	-	-	-	-	-	-	-	-	-	-	-	–
엿류	-	-	-	--	1	2.6	-	-	-	-	1	0.7
아이스크림류	1	4.2	-	-	1	2.6	1	1.6	-	-	3	2.0
빙과류	-	-	-	-	-	-	-	-	-	-	-	–
우유류	-	-	-	-	1	2.6	4	6.3	1	11.1	6	4.0
발효유류	-	-	-	-	-	-	-	-	-	-	-	–
분유류	2	8.3	-	-	-	-	3	4.7	-	-	5	3.3
치즈·버터류	-	-	-	-	-	-	1	1.6	-	-	1	0.7
햄 및 소시지류	-	-	-	-	-	-	2	3.1	-	-	2	1.3
치킨류	-	-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	-	1	7.1	-	-	2	3.1	-	-	3	2.0
알가공품	-	-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1	2.6	-	-	-	-	1	0.7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1	1.6	-	-	1	0.7
라면류	-	-	-	-	1	2.6	5	7.8	-	-	6	4.0
건면류	-	-	1	7.1	1	2.6	-	-	-	-	2	1.3
생면류	1	4.2	-	-	-	-	-	-	-	-	1	0.7
다류	-	-	-	-	-	-	-	-	-	-	-	–
커피	2	8.3	-	-	-	-	4	6.3	2	22.2	8	5.3
탄산음료류	-	-	1	7.1	1	2.6	2	3.1	-	-	4	2.7
과·채음료류	-	-	-	-	1	2.6	2	3.1	-	-	3	2.0
생수	-	-	-	-	-	-	-	-	3	33.3	3	2.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1	1.6	-	-	1	0.7
이유식	-	-	-	-	-	-	1	1.6	-	-	1	0.7
장류	-	4.2	-	-	-	-	1	1.6	-	-	2	1.3
소스류	-	-	-	-	-	-	-	-	-	-	-	–
김치류	1	4.2	-	-	-	-	1	1.6	-	-	2	1.3
젓갈류	-	-	-	-	-	-	4	6.3	-	-	4	2.7
절임식품	-	-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	–
조림식품	-	-	-	-	2	5.1	-	-	-	-	2	1.3

소주	1	4.2	-	-	1	2.6	1	1.6	1	11.1	4	2.7
맥주	-	-	1	7.1	-	-	-	-	-	-	1	0.7
건포류	-	-	-	-	1	2.6	-	-	-	-	1	0.7
건강식품	-	-	4	28.6	6	15.4	5	7.8	1	11.1	16	10.7
즉석식품	-	-	1	7.1	6	15.4	1	1.6	-	0.0	8	5.3
쇠고기	1	4.2	-	-	-	-	-	-	-	-	1	0.7
돼지고기	-	-	-	-	-	-	-	-	-	-	-	-
닭고기	-	-	-	-	1	2.6	1	1.6	-	-	2	1.3
오리고기	-	-	-	-	-	-	-	-	-	-	-	-
알류	-	-	-	-	-	-	-	-	-	-	-	-
곡류	2	8.3	-	-	3	7.7	-	-	-	-	5	3.3
채소류	2	8.3	-	-	-	-	1	1.6	-	-	3	2.0
과일류	-	-	-	-	-	-	-	-	-	-	-	-
생선류	1	4.2	-	-	-	-	-	-	-	-	1	0.7
어패류	1	4.2	-	-	1	2.6	1	1.6	-	-	3	2.0
해조류	-	-	-	-	-	-	1	1.6	-	-	1	0.7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	-	-	-
견과류	1	4.2	-	-	-	-	1	1.6	-	-	2	1.3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	-
한식	1	4.2	-	-	1	2.6	-	-	1	11.1	3	2.0
일식	-	-	-	-	-	-	-	-	-	-	-	-
중식	-	-	-	-	1	2.6	-	-	-	-	1	0.7
분식	-	-	-	-	-	-	2	3.1	-	-	2	1.3
패스트푸드점	1	4.2	1	7.1	-	-	-	-	-	-	2	1.3
뷔페	-	-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1	2.6	-	-	-	-	1	0.7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	-
무응답	-	-	-	-	-	-	1	1.6	-	-	1	0.7
총합계	24	100.0	14	100.0	39	100.0	64	100.0	9	100.0	150	100.0

○ 5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191건으로 건강식품 32건(16.8%)으로 가장 높고, 빵류와 과자류가 각각 16건(8.4%), 분유류가 14건(7.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5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	7.3	1	2.9	5	8.1	6	15.8	1	6.3	16	8.4
케익류	-	-	-	-	2	3.2	-	-	-	-	2	1.0
떡류	-	-	1	2.9		-	-	-	-	-	1	0.5
과자류	4	9.8	2	5.9	6	9.7	4	10.5	-	-	16	8.4
코코아가공품류	1	2.4	-	-	1	1.6	1	2.6	-	-	3	1.6
잼류	-	-	-	-	-	-	-	-	2	12.5	2	1.0
포도당/과당	-	-	-	-	-	-	-	-	-	-	-	-
꿀	1	2.4	-	-	-	-	-	-	-	-	1	0.5
엿류	-	-	-	-	-	-	-	-	-	-	-	-
당시럽류	-	-	1	2.9	-	-	-	-	-	-	1	0.5
올리고당류	1	2.4	-	-	-	-	-	-	-	-	1	0.5
아이스크림류	1	2.4	1	2.9	1	1.6	-	-	-	-	3	1.6
빙과류	-	-	1	2.9	1	1.6	-	-	-	-	2	1.0
우유류	1	2.4	-	-	-	-	1	2.6	-	-	2	1.0
발효유류	-	-	-	-	-	-	-	-	-	-	-	-
분유류	5	12.2	-	-	3	4.8	6	15.8	-	-	14	7.3
치즈·버터류		-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1	2.9	1	1.6	-	-	-	-	2	1.0
치킨류	-	-	-	-	1	1.6	-	-	-	-	1	0.5
기타육류가공품	-	-	3	8.8	2	3.2	4	10.5	-	-	9	4.7
알가공품	-	-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1	2.6	-	-	1	0.5
두부류 또는 묵류	1	2.4	-	-	-	-	-	-	-	-	1	0.5
식용유지류	-	-	-	-	-	-	-	-	-	-	-	-
라면류	2	4.9	-	-	4	6.5	2	5.3	-	-	8	4.2
건면류	-	-	-	-	-	-	-	-	-	-	-	-
생면류	-	-	-	-	1	1.6	-	-	-	-	1	0.5
다류	1	2.4	-	-	1	1.6	-	-	-	-	2	1.0
커피	3	7.3	-	-	-	-	-	-	-	-	3	1.6
탄산음료류	1	2.4	1	2.9	2	3.2	-	-	1	6.3	5	2.6
과·채음료류	-	-	-	-	2	3.2	-	-	-	-	2	1.0
생수	-	-	-	-	-	-	-	-	1	6.3	1	0.5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2.4	-	-	-	-	-	-	-	-	1	0.5
이유식	-	-	1	2.9	-	-	-	-	-	-	1	0.5
장류	2	4.9	-	-	1	1.6	1	2.6	-	-	4	2.1
드레싱류	-	-	-	-	-	-	-	-	1	6.3	1	0.5
김치류	-	-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1	6.3	1	0.5
소주	3	7.3	-	-	-	-	-	-	-	-	3	1.6
맥주	-	-	-	-	1	1.6	-	-	-	-	1	0.5
포도주	-	-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1	2.4	-	-	-	-	-	-	-	-	1	0.5
건포류	-	-	1	2.9	1	1.6	-	-	-	-	2	1.0
건강식품	2	4.9	14	41.2	8	12.9	4	10.5	4	25.0	32	16.8
즉석식품	-	-	1	2.9	1	1.6	2	5.3	-	-	4	2.1
쇠고기	-	-	-	-	-	-	-	-	-	-	-	-
돼지고기	-	-	1	2.9	2	3.2	1	2.6	-	-	4	2.1
닭고기	-	-	-	-	-	-	-	-	-	-	-	-
오리고기	-	-	1	2.9	-	-	-	-	-	-	1	0.5
알류	-	-	-	-	-	-	-	-	2	12.5	2	1.0
곡류	2	4.9	1	2.9	2	3.2	1	2.6	-	-	6	3.1
채소류	-	-	-	-	-	-	-	-	-	-	-	-
과일류	-	-	-	-	-	-	-	-	-	-	-	-
생선류	1	2.4	-	-	-	-	1	2.6	-	-	2	1.0
어패류	-	-	-	-	1	1.6	-	-	-	-	1	0.5
해조류	-	-	-	-	1	1.6	-	-	-	-	1	0.5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	-
나물류	-	-	-	-	-	-	-	-	-	-	-	-
약용작물류	-	-	1	2.9	-	-	-	-	-	-	1	0.5
견과류	1	2.4	-	-	1	1.6	1	2.6	-	-	3	1.6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	-
한식	-	-	1	2.9	3	4.8	2	5.3	-	-	6	3.1
양식	-	-	-	-	-	-	-	-	-	-	-	-
일식	-	-	-	-	-	-	-	-	-	-	-	-
중식	-	-	-	-	1	1.6	-	-	1	6.3	2	1.0
분식	-	-	-	-	2	3.2	-	-	-	-	2	1.0
노점상	-	-	-	-	1	1.6	-	-	-	-	1	0.5
패스트푸드점	2	4.9	-	-	2	3.2	-	-	-	-	4	2.1
뷔페	-	-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2.4	-	-	-	-	-	-	1	6.3	2	1.0
기타육류	-	-	-	-	-	-	-	-	-	-	-	-
무응답	-	-	-	-	-	-	-	-	-	-	-	-
총합계	41	100.0	34	100.0	62	100.0	38	100.0	16	100.0	191	100.0

○ 6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41건으로 건강식품이 58건(24.1%)으로 가장 높고, 분유류가 15건(6.2%), 패스트푸드점이 14건(5.8%), 빵류와 과자류가 각각 13건(5.4%)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6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5	7.0	-	-	6	14.6	2	2.3	-	-	13	5.4
케익류	-	-	-	-	-	-	-	-	-	-	-	-
떡류	-	-	-	-	1	2.4	1	1.2	-	-	2	0.8
과자류	4	5.6	1	4.8	5	12.2	2	2.3	1	4.5	13	5.4
코코아가공품류	3	4.2	-	-	-	-	-	-	-	-	3	1.2
잼류	-	-	-	-	-	-	-	-	1	4.5	1	0.4
설탕	-	-	-	-	-	-	-	-	-	-	-	-
포도당/과당	-	-	-	-	-	-	-	-	-	-	-	-
꿀	-	-	-	-	-	-	-	-	1	4.5	1	0.4
엿류	1	-	-	-	-	-	-	-	-	-	1	0.4
당시럽류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2	4.9	1	1.2	1	4.5	4	1.7
빙과류	-	-	1	4.8	1	2.4	-	-	-	-	2	0.8
우유류	-	-	-	-	1	2.4	1	1.2	1	4.5	3	1.2
발효유류	-	-	-	-	1	2.4	-	-	-	-	1	0.4
분유류	5	7.0	1	4.8	1	2.4	8	9.3	-	-	15	6.2
치즈·버터류	-	-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1	2.4	1	1.2	-	-	2	0.8
치킨류	2	2.8	-	-	-	0.0	1	1.2	-	-	3	1.2
기타육류가공품	2	2.8	-	-	1	2.4	-	-	-	-	3	1.2
알가공품	-	-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1	0.4
라면류	3	4.2	1	4.8	1	2.4	1	1.2	1	4.5	7	2.9
건면류	-	-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	-
다류	2	2.8	-	-	-	-	1	1.2	2	9.1	5	2.1
커피	5	7.0	-	-	-	-	1	1.2	2	9.1	8	3.3
탄산음료류	1	1.4	-	-	-	-	-	-	-	-	1	0.4
과·채음료류	1	1.4	-	-	-	-	2	2.3	3	13.6	6	2.5
생수	3	4.2	-	-	-	-	1	1.2	1	4.5	5	2.1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	-
이유식	-	-	1	4.8	1	2.4	-	-	-	-	2	0.8
장류	1	1.4	-	-	-	-	-	-	-	-	1	0.4
소스류	-	-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	-
김치류	1	1.4	-	-	-	-	-	-	-	-	1	0.4
젓갈류	-	-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1	4.5	1	0.4
절임배추	-	-	-	-	-	-	-	-	-	-	-	-

조림식품	3	4.2	-	-	3	7.3	1	1.2	1	4.5	8	3.3
소주	-	-	-	-	-	-	1	1.2	-	-	1	0.4
맥주	-	-	-	-	-	-	1	1.2	-	-	1	0.4
포도주	-	-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	-
건포류	-	-	-	-	-	-	-	-	-	-	-	-
건강식품	1	1.4	1	4.8	2	4.9	52	60.5	2	9.1	58	24.1
즉석식품	1	1.4	1	4.8	1	2.4	-	-	-	-	3	1.2
쇠고기	1	1.4	-	-	-	-	-	-	-	-	1	0.4
돼지고기	-	-	-	-	-	-	-	-	-	-	-	-
닭고기	1	1.4	1	4.8	1	2.4	-	-	1	4.5	4	1.7
오리고기	-	-	1	4.8	-	-	-	-	-	-	1	0.4
알류	-	-	-	-	-	-	-	-	-	-	-	-
곡류	8	11.3	1	4.8	-	-	2	2.3	-	-	11	4.6
채소류	3	4.2	2	9.5	2	4.9	-	-	-	-	7	2.9
과일류	2	2.8	1	4.8	1	2.4	-	-	-	-	4	1.7
생선류	-	-	-	-	-	-	-	-	-	-	-	-
어패류	2	2.8	-	-	-	-	-	-	1	4.5	3	1.2
해조류	-	-	1	4.8	-	-	-	-	-	-	1	0.4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1	4.5	1	0.4
약용작물류	-	-	-	-	-	-	1	1.2	-	-	1	0.4
견과류	2	2.8	-	0.0	1	2.4	-	-	1	4.5	4	1.7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	-
한식	2	2.8	1	4.8	2	4.9	3	3.5	-	-	8	3.3
양식	-	-	-	-	-	-	-	-	-	-	-	-
일식	-	-	-	-	-	-	-	-	-	-	-	-
중식	1	1.4	-	-	-	-	-	-	-	-	1	0.4
분식	-	-	-	-	1	2.4	-	-	-	-	1	0.4
노점상	-	-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4	5.6	6	28.6	4	9.8	-	-	-	-	14	5.8
복합조미식품	1	1.4	-	-	-	-	-	-	-	-	1	0.4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	-
기타육류	-	-	-	-	1	2.4	-	-	-	-	1	0.4
미기재	-	-	-	-	-	-	1	1.2	-	-	1	0.4
총합계	71	100.0	21	100.0	41	100.0	86	100.0	22	100.0	241	100.0

○ 7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08건으로 과자류가 14건(6.7%)으로 가장 높고, 곡류과 한식이 각각 12건(5.8%), 분유류가 10건(4.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7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2.8	3	14.3	4	6.5	-	-	-	-	9	4.3
케익류	-	-	-	-	-	-	-	-	-	-	-	-
떡류	-	-	-	-	-	-	1	2.4	-	-	1	0.5
과자류	5	7.0	1	4.8	7	11.3	1	2.4	-	-	14	6.7
코코아가공품류	3	4.2	1	4.8	2	3.2	-	-	-	-	6	2.9
설탕	-	-	-	-	1	1.6	-	-	-	-	1	0.5
꿀	-	-	-	-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1	1.4	-	-	-	-	-	-	-	-	5	2.4
빙과류	1	1.4	-	-	1	1.6	1	2.4	-	-	3	1.4
우유류	1	1.4	1	4.8	2	3.2	2	4.8	1	8.3	7	3.4
발효유류	-	-	-	-	-	-	-	-	-	-	-	-
분유류	5	7.0	1	4.8	1	1.6	-	-	3	25.0	10	4.8
치즈·버터류	-	-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4	19.0	1	1.6	4	9.5	-	-	9	4.3
치킨류	-	-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1	1.4	2	9.5	-	-	1	2.4	-	-	4	1.9
알가공품	-	-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1	1.4	-	-	-	-	1	2.4	1	8.3	3	1.4
식용유지류	-	-	-	-	-	-	-	-	-	-	-	-
라면류	3	4.2	-	-	-	-	-	-	1	8.3	4	1.9
건면류	1	1.4	-	-	2	3.2	-	-	-	-	3	1.4
생면류	-	-	-	-	-	-	2	4.8	-	-	2	1.0
다류	1	1.4	-	-	2	3.2	2	4.8	-	-	5	2.4
커피	6	8.5	-	-	1	1.6	-	-	-	-	7	3.4
탄산음료류	-	-	-	-	2	3.2	2	4.8	-	-	4	1.9
과·채음료류	-	-	-	-	4	6.5	2	4.8	1	8.3	7	3.4
생수	-	-	-	-	-	-	1	2.4	2	16.7	3	1.4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	-
이유식	1	1.4	-	-	1	1.6	-	-	-	-	2	1.0
장류	1	1.4	-	-	1	1.6	1	2.4	-	-	3	1.4
소스류	-	-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	-
김치류	4	5.6	-	-	-	-	2	4.8	-	-	6	2.9
젓갈류	-	-	-	-	-	-	-	-	-	-	-	-
절임식품	1	1.4	-	-	-	-	-	-	-	-	1	0.5
조림식품	1	1.4	1	4.8	1	1.6	-	-	-	-	3	1.4
소주	3	4.2	-	-	1	1.6	-	-	2	16.7	6	2.9
맥주	1	1.4	2	9.5	-	-	1	2.4	-	-	4	1.9
탁약주(막걸리)	1	1.4	-	-	-	-	1	2.4	-	-	2	1.0
건포류	-	-	-	-	1	1.6	-	-	-	-	1	0.5

건강식품	1	1.4	-	-	5	8.1	3	7.1	-	-	9	4.3
즉석식품	-	-	1	4.8	4	6.5	-	-	-	-	5	2.4
쇠고기	-	-	-	-	-	-	-	-	-	-	-	-
돼지고기	-	-	-	-	-	-	-	-	-	-	-	-
닭고기	1	1.4	-	-	1	1.6	-	-	-	-	2	1.0
오리고기	-	-	-	-	1	1.6	-	-	-	-	1	0.5
알류	-	-	-	-	-	-	1	2.4	-	-	1	0.5
곡류	9	12.7	-	-	1	1.6	2	4.8	-	-	12	5.8
채소류	4	5.6	-	-	1	1.6	-	-	-	-	5	2.4
과일류	5	7.0	-	-	1	1.6	1	2.4	1	8.3	8	3.8
생선류	-	-	-	-	1	1.6	-	-	-	-	1	0.5
어패류	-	-	-	-	-	-	-	-	-	-	-	-
해조류	-	-	-	-	2	3.2	-	-	-	-	2	1.0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	-
약용작물류	-	-	1	4.8	1	1.6	-	-	-	-	2	1.0
견과류	3	4.2	-	-	1	1.6	-	-	-	-	4	1.9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	-
한식	3	4.2	2	9.5	2	3.2	5	11.9	-	-	12	5.8
양식	-	-	-	-	-	-	-	-	-	-	-	-
일식	-	-	-	-	-	-	-	-	-	-	-	-
중식	-	-	-	-	2	3.2	-	-	-	-	2	1.0
분식	-	-	-	-	1	1.6	1	2.4	-	-	2	1.0
패스트푸드점	1	1.4	1	4.8	-	-	1	2.4	-	-	3	1.4
뷔페	-	-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2	4.8	-	-	2	1.0
기타육류	-	-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	-
총합계	71	100.0	21	100.0	62	100.0	42	100.0	12	100.0	208	100.0

○ 8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21건으로 과자류가 21건(9.5%)으로 가장 높고, 빵류가 17건(7.7%), 곡류가 15건(6.8%), 커피가 10건(4.5%)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8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	3.7	-	-	7	13.7	6	11.3	1	5.6	17	7.7
케익류	1	1.2	1	5.6	1	2.0	-	-	-	-	3	1.4
떡류	-	-	1	5.6	1	2.0	2	3.8	-	-	4	1.8
과자류	4	4.9	2	11.1	6	11.8	8	15.1	1	5.6	21	9.5
코코아가공품류	4	4.9	-	-	-	-	-	-	-	-	4	1.8
설탕	-	-	-	-	-	-	-	-	-	-	-	-
꿀	-	-	-	-	-	-	-	-	-	-	-	-
엿류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2	2.5	-	-	4	7.8	-	-	-	-	6	2.7
빙과류	-	-	1	5.6	-	-	-	-	1	5.6	2	0.9
우유류	2	2.5	-	-	-	-	3	5.7	1	5.6	6	2.7
발효유류	2	2.5	4	22.2	-	-	2	3.8	-	-	8	3.6
분유류	5	6.2	-	-	-	-	2	3.8	1	5.6	8	3.6
치즈·버터류	2	2.5	-	-	-	-	-	-	-	-	2	0.9
햄 및 소시지류	-	-	-	-	-	-	2	3.8	-	-	2	0.9
치킨류	-	-	-	-	-	-	1	1.9	-	-	1	0.5
기타육류가공품	1	1.2	1	5.6	4	7.8	1	1.9	-	-	7	3.2
알가공품	-	-	-	-	-	-	-	-	-	-	-	-
어묵제품류	1	1.2	-	-	-	-	-	-	-	-	-	0.5
두부류 또는 묵류	-	-	1	5.6	-	-	-	-	-	-	1	0.5
식용유지류	-	-	-	-	-	-	-	-	1	5.6	1	0.5
라면류	4	4.9	-	-	2	3.9	1	1.9	-	-	7	3.2
건면류	1	1.2	-	-	-	-	-	-	-	-	1	0.5
생면류	-	-	-	-	-	-	-	-	-	-	-	-
다류	3	3.7	-	-	-	-	-	-	-	-	3	1.4
커피	5	6.2	-	-	-	-	3	5.7	2	11.1	10	4.5
탄산음료류	1	1.2	-	-	-	-	1	1.9	1	5.6	3	1.4
과·채음료류	2	2.5	1	5.6	2	3.9	-	-	1	5.6	6	2.7
생수	-	-	-	-	-	-	-	-	3	16.7	3	1.4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	-
이유식	-	-	-	-	-	-	-	-	1	5.6	1	0.5
장류	1	1.2	-	-	-	-	-	-	-	-	1	0.5
소스류	-	-	-	-	1	2.0	1	1.9	-	-	2	0.9
드레싱류	-	-	-	-	-	-	-	-	1	5.6	1	0.5
김치류	2	2.5	-	-	-	-	-	-	-	-	2	0.9
젓갈류	-	-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	–
조림식품	1	1.2	1	5.6	2	3.9	-	-	-	-	4	1.8
소주	2	2.5	-	-	3	5.9	1	1.9	-	-	6	2.7
맥주	-	-	-	-	-	-	-	-	-	-	-	–
포도주	-	-	-	-	1	-	-	-	-	-	1	0.5
탁약주(막걸리)	2	2.5	-	-	-	-	-	-	-	-	2	0.9
건포류	-	-	1	5.6	1	2.0	-	-	-	-	2	0.9
건강식품	1	1.2	1	5.6	-	-	3	5.7	2	11.1	7	3.2
즉석식품	-		-	-	3	5.9	3	5.7	-	-	6	2.7
쇠고기	1	1.2	-	-	-	-	-	-	-	-	1	0.5
돼지고기	-	-	-	-	-	-	1	1.9	-	-	1	0.5
닭고기	-	-	1	5.6	-	-	-	-	-	-	1	0.5
오리고기	-	-	-	-	-	-	-	-	-	-	-	–
알류	-	-	-	-	-	-	-	-	-	-	-	–
곡류	13	16.0	-	-	-	-	1	1.9	1	5.6	15	6.8
채소류	-	-	-	-	-	-	1	1.9	-	-	1	0.5
과일류	1	1.2	-	-	1	2.0	1	1.9	-	-	3	1.4
생선류	4	4.9	-	-	-	-	-	-	-	-	4	1.8
어패류	1	1.2	-	-	-	-	-	-	-	-	1	0.5
해조류	1	1.2	-	-	-	-	2	3.8	-	-	3	1.4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	–
나물류	-	-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	-	-	–
견과류	1	1.2	-	-	-	-	2	3.8	-	-	3	1.4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	–
고추가루	-	-	-	-	1	2.0	-	-	-	-	1	0.5
한식	2	2.5	-	-	4	7.8	-	-	-	-	6	2.7
일식	-	-	-	-	-	-	1	1.9	-	-	1	0.5
중식	1	1.2	-	-	1	2.0	-	-	-	-	2	0.9
분식	-	-	-	-	3	5.9	-	-	-	-	3	1.4
패스트푸드점	2	2.5	1	5.6	3	5.9	3	5.7	-	-	9	4.1
복합조미식품	1	1.2	-	-	-	-	-	-	-	-	1	0.5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	–
기타식품류	1	1.2	1	5.6	-	-	1	1.9	-	-	3	1.4
총합계	81	100.0	18	100.0	51	100.0	53	100.0	18	100.0	221	100.0

❍ 9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26건으로 곡류가 22건(9.7%) 으로 가장 높고, 과자류 19건(8.4%), 분유류 18건(8.0%), 빵류 13건(5.8%), 기타육류가공품, 라면류가 각각 11건(4.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9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5	5.2	1	6.3	4	8.5	3	6.0	-	-	13	5.8
케익류	-	-	-	-	-	-	-	-	-	-	-	–
떡류	-	-	-	-	2	4.3	-	-	-	-	2	0.9
과자류	12	12.4	-	-	3	6.4	3	6.0	1	6.3	19	8.4
코코아가공품류	3	3.1	-	-	-	-	1	2.0	-	-	4	1.8
설탕	-	-	-	-	-	-	-	-	-	-	-	–
꿀	-	-	-	-	-	-	-	-	-	-	-	–
엿류	-	-	-	-	1	2.1	-	-	-	-	1	0.4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	–
우유류	1	1.0	-	-	-	-	1	2.0	-	-	2	0.9
발효유류	2	2.1	-	-	-	-	3	6.0	-	-	5	2.2
분유류	9	9.3	1	6.3	-	-	5	10.0	3	18.8	18	8.0
치즈·버터류	-	-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1	6.3	1	2.1	-	-	-	-	2	0.9
치킨류	-	-	-	-	1	2.1	-	-	-	-	1	0.4
기타육류가공품	2	2.1	-	-	6	12.8	3	6.0	-	-	11	4.9
어묵제품류	-	-	-	-	-	-	2	4.0	-	-	2	0.9
두부류 또는 묵류	-	-	-	-	1	2.1	1	2.0	-	-	2	0.9
식용유지류	-	-	-	-	-	-	1	2.0	-	-	1	0.4
라면류	8	8.2	-	-	2	4.3	1	2.0	-	-	11	4.9
건면류	1	1.0	-	-	-	-	-	-	-	-	1	0.4
생면류	-	-	-	-	-	-	-	-	-	-	-	–
다류	-	-	1	6.3	-	-	-	-	-	-	1	0.4
커피	3	3.1	-	-	1	2.1	5	10.0	-	-	9	4.0
탄산음료류	1	1.0	1	6.3	-	-	-	-	-	-	2	0.9
과·채음료류	2	2.1	-	-	-	-	1	2.0	-	-	3	1.3
생수	-	-	-	-	-	-	-	-	2	12.5	2	0.9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	–
장류	-	-	1	6.3	-	-	-	-	-	-	1	0.4
소스류	-	-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	–
김치류	2	2.1	-	-	2	4.3	-	-	-	-	4	1.8
젓갈류	-	-	-	-	-	-	-	-	-	-	-	–
절임식품	-	-	-	-	1	2.1	-	-	-	-	1	0.4
절임배추	1	1.0	-	-	-	-	-	-	-	-	1	0.4
조림식품	-	-	-	-	-	-	-	-	-	-	-	–
소주	-	-	-	-	1	2.1	-	-	1	6.3	2	0.9
맥주	-	-	-	-	1	2.1	-	-	1	6.3	2	0.9
포도주	-	-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2	2.1	-	-	-	-	-	-	1	6.3	3	1.3

건포류	1	1.0	-	-	1	2.1	1	2.0	-	-	3	1.3
건강식품	5	5.2	2	12.5	2	4.3	5	10.0	2	12.5	16	7.1
즉석식품	-	-	-	-	1	2.1	2	4.0	1	6.3	4	1.8
쇠고기	1	1.0	-	-	2	4.3	-	-	-	-	3	1.3
돼지고기	1	1.0	-	-	-	-	-	-	-	-	1	0.4
닭고기	-	-	1	6.3	2	4.3	-	-	-	-	3	1.3
오리고기	1	1.0	-	-	-	-	-	-	-	-	1	0.4
알류	1	1.0	-	-	-	-	-	-	-	-	1	0.4
곡류	17	17.5	-	-	1	2.1	3	6.0	1	6.3	22	9.7
채소류	3	3.1	1	6.3	-	-	-	-	-	-	4	1.8
과일류	-	-	-	-	1	2.1	-	-	-	-	1	0.4
생선류	3	3.1	-	-	2	4.3	1	2.0	-	-	6	2.7
어패류	1	1.0	1	6.3	-	-	-	-	-	-	2	0.9
해조류	1	1.0	1	6.3	2	4.3	1	2.0	1	6.3	6	2.7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	-	-	–
견과류	5	5.2	-	-	-	-	1	2.0	-	-	6	2.7
조미료(향신료	1	1.0	-	-	-	-	-	-	-	-	1	0.4
고추가루	-	-	-	-	-	-	1	2.0	1	6.3	2	0.9
한식	-	-	-	-	1	2.1	1	2.0	1	6.3	3	1.3
일식	-	-	-	-	-	-	-	-	-	-	-	–
중식	1	1.0	-	-	1	2.1	1	2.0	-	-	3	1.3
분식	-	-	2	12.5	1	2.1	1	2.0	-	-	4	1.8
패스트푸드점	1	1.0	2	12.5	2	4.3	1	2.0	-	-	6	2.7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	–
기타육류	-	-	-	-	1	2.1	-	-	-	-	1	0.4
기타식품류	-	-	-	-	-	-	1	2.0	-	-	1	0.4
총합계	97	100.0	16	100.0	47	100.0	50	100.0	16	100.0	226	100.0

○ 10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04건으로 곡류가 15건(7.4%). 라면류가 12건(5.9%), 즉석식품 10건(4.9%), 과자류와 분유류가 각각 11건(5.4%)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10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4	4.8	-	–	–	–	5	10.6	–	–	9	4.4
케익류	1	1.2	-	–	–	–	–	-	–	–	1	0.5
떡류	-	-	1	7.1	3	7.1	3	6.4	–	–	7	3.4
과자류	5	6.0	-	-	3	7.1	2	4.3	1	5.9	11	5.4
코코아가공품류	2	2.4	1	7.1	–	–	1	2.1	1	5.9	5	2.5
설탕	-	-	-	-	–	–	–	-	–	–	-	–
포도당/과당	1	1.2	-	-	–	–	–	-	–	–	1	0.5
꿀	-	-	-	-	–	–	–	-	–	–	-	–
엿류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1	7.1	1	2.4	2	4.3	–	–	4	2.0
빙과류	-	-	-	-	–	–	–	-	–	–	-	–
우유류	2	2.4	-	-	4	9.5	–	-	2	11.8	8	3.9
발효유류	-	-	-	-	–	–	–	-	1	5.9	1	0.5
분유류	8	9.5	-	-	1	2.4	2	4.3	–	–	11	5.4
치즈·버터류	-	-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1	1.2	-	-	2	4.8	1	2.1	–	–	4	2.0
치킨류	-	-	-	-	1	2.4	1	2.1	–	–	2	1.0
기타육류가공품	2	2.4	1	7.1	3	7.1	2	4.3	–	–	8	3.9
알가공품	-	-	-	-	–	–	–	-	–	–	-	–
어묵제품류	1	1.2	-	-	–	–	–	-	–	–	1	0.5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1	2.1	–	–	1	0.5
라면류	9	10.7	1	7.1	2	4.8	–	-	–	–	12	5.9
건면류	2	2.4	-	-	–	–	–	-	–	–	2	1.0
생면류	2	2.4	-	-	–	–	–	-	–	–	2	1.0
다류	-	-	-	-	–	–	1	2.1	–	–	1	0.5
커피	5	6.0	-	-	–	–	2	4.3	–	–	7	3.4
탄산음료류	1	1.2	-	-	1	2.4	–	-	1	5.9	3	1.5
과·채음료류	2	2.4	-	-	–	–	–	-	–	–	2	1.0
생수	-	-	-	-	–	–	1	2.1	1	5.9	2	1.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1.2	-	-	–	–	–	-	–	–	1	0.5
이유식	-	-	-	-	–	–	–	-	–	–	-	–
장류	1	1.2	-	-	1	2.4	–	-	–	–	2	1.0
소스류	-	-	-	-	–	–	2	4.3	–	–	2	1.0
김치류	2	2.4	-	-	–	–	1	2.1	–	–	3	1.5
젓갈류	1	1.2	-	-	–	–	1	2.1	–	–	2	1.0
절임식품	-	-	-	-	1	2.4	–	-	–	–	1	0.5
조림식품	2	2.4	1	7.1	1	2.4	1	2.1	–	–	5	2.5
소주	-	-	-	-	–	-	–	-	1	5.9	1	0.5
맥주	-	-	-	-	–	-	–	-	–	–	-	–

포도주	-	-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1	5.9	1	0.5
건포류	1	1.2	1	7.1	1	2.4	1	2.1	–	–	4	2.0
건강식품	-	-	-	-	2	4.8	3	6.4	3	17.6	8	3.9
즉석식품	3	3.6	3	21.4	1	2.4	3	6.4	–	–	10	4.9
쇠고기	1	1.2	-	-	–	-	1	2.1	–	–	2	1.0
돼지고기	-	-	-	-	–	-	–	-	–	–	-	–
닭고기	1	1.2	1	7.1	–	-	–	-	–	–	2	1.0
오리고기	-	-	-	-	–	-	–	-	–	–	-	–
알류	1	1.2	-	-	–	-	–	-	–	–	1	0.5
곡류	11	13.1	1	7.1	1	2.4	2	4.3	–	–	15	7.4
채소류	-	-	-	-	–	-	1	2.1	–	–	1	0.5
과일류	-	-	-	-	1	2.4	–	-	–	–	1	0.5
생선류	2	2.4	-	-	–	-	1	2.1	–	–	3	1.5
어패류	2	2.4	-	-	–	-	1	2.1	–	–	3	1.5
해조류	1	1.2	-	-	1	2.4	–	-	–	–	2	1.0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	–	-	–
견과류	2	2.4	-	-	1	2.4	–	-	–	–	3	1.5
조미료(향신료	-	-	1	7.1	–	-	1	2.1	1	5.9	3	1.5
고추가루	-	-	-	-	–	-	–	-	–	–	-	–
한식	-	-	1	7.1	2	4.8	2	4.3	1	5.9	6	2.9
일식	1	1.2	-	-	–	-	–	-	–	–	1	0.5
중식	-	-	-	-	–	-	–	-	1	5.9	1	0.5
분식	-	-	-	-	–	-	–	-	1	5.9	1	0.5
노점상	-	-	-	-	–	-	–	-	1	5.9	1	0.5
패스트푸드점	2	2.4	-	-	5	11.9	1	2.1	–	–	8	3.9
복합조미식품	-	-	-	-	1	2.4	–	-	–	–	1	0.5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1.2	-	-	1	2.4	–	-	–	–	2	1.0
기타육류	-	-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1	2.4	1	2.1	–	–	2	1.0
총합계(중복응답)	84	100.0	14	100.0	42	100.0	47	100.0	17	100.0	204	100.0

○ 11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48건으로 과자류가 21건(8.5%). 곡류가 16건(6.5%), 라면류가 15건(6.0%), 건강식품과 즉석식품이 각각 12건(4.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11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1.9	2	8.7	2	3.5	5	10.6	-	-	11	4.4
케익류	-	-	-	-	1	1.8	-	-	-	-	1	0.4
떡류	1	1.0	1	4.3	2	3.5	-	-	-	-	4	1.6
과자류	15	14.6	1	4.3	3	5.3	1	2.1	1	5.6	21	8.5
코코아가공품류	5	4.9	1	4.3	-	-	-	-	-	-	6	2.4
잼류	1	1.0	-	-	-	-	-	-	-	-	1	0.4
꿀	-	-	-	-	-	-	-	-	-	-	-	-
엿류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2	1.9	-	-	-	-	1	2.1	-	-	3	1.2
우유류	1	1.0	-	-	1	1.8	3	6.4	-	-	5	2.0
발효유류	-	-	-	-	1	1.8	-	-	-	-	1	0.4
분유류	3	2.9	1	4.3	2	3.5	2	4.3	2	11.1	10	4.0
치즈·버터류	-	-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1	4.3	2	3.5	1	2.1	-	-	4	1.6
치킨류	-	-	-	-	1	1.8	-	-	-	-	1	0.4
기타육류가공품	2	1.9	1	4.3	3	5.3	1	2.1	-	-	7	2.8
어묵제품류	-	-	-	-	1	1.8	-	-	-	-	1	0.4
두부류 또는 묵류	1	1.0	1	4.3	-	-	-	-	-	-	2	0.8
식용유지류	-	-	-	-	-	-	-	-	-	-	-	-
라면류	9	8.7	1	4.3	2	3.5	3	6.4	-	-	15	6.0
건면류	-	-	1	4.3	-	-	-	-	-	-	1	0.4
생면류	-	-	-	-	-	-	-	-	-	-	-	-
다류	3	2.9	-	-	-	-	1	2.1	-	-	4	1.6
커피	1	1.0	1	4.3	1	1.8	2	4.3	2	11.1	7	2.8
탄산음료류	2	1.9	-	-	1	1.8	-	-	1	5.6	4	1.6
과·채음료류	3	2.9	-	-	2	3.5	2	4.3	4	22.2	11	4.4
생수	-	-	-	-	-	-	-	-	2	11.1	2	0.8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	-
이유식	2	1.9	-	-	1	1.8	-	-	-	-	3	1.2
장류	1	1.0	-	-	-	-	-	-	-	-	1	0.4
소스류	-	-	-	-	1	1.8	-	-	-	-	1	0.4
김치류	2	1.9	-	-	2	3.5	3	6.4	-	-	7	2.8
젓갈류	-	-	1	4.3	-	-	1	2.1	-	-	2	0.8
절임식품	3	2.9	-	-	-	-	-	-	-	-	3	1.2
절임배추	-	-	-	-	-	-	-	-	-	-	-	-
조림식품	1	1.0	-	-	1	1.8	1	2.1	-	-	3	1.2
소주	2	1.9	-	-	-	-	-	-	1	5.6	3	1.2
맥주	1	1.0	-	-	4	7.0	-	-	-	-	5	2.0
포도주	1	1.0	-	-	-	-	-	-	1	5.6	2	0.8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	-
건포류	1	1.0	-	-	2	3.5	1	2.1	-	-	4	1.6
건강식품	5	4.9	1	4.3	2	3.5	3	6.4	1	5.6	12	4.8
즉석식품	2	1.9	-	-	2	3.5	8	17.0	-	-	12	4.8
쇠고기	1	1.0	-	-	-	-	-	-	-	-	1	0.4
돼지고기	-	-	-	-	-	-	-	-	-	-	-	-
닭고기	2	1.9	-	-	1	1.8	-	-	-	-	3	1.2
오리고기	-	-	-	-	-	-	-	-	-	-	-	-
알류	-	-	-	-	-	-	-	-	-	-	-	-
곡류	12	11.7	-	-	1	1.8	3	6.4	-	-	16	6.5
채소류	6	5.8	2	8.7	-	-	1	2.1	-	-	9	3.6
과일류	-	-	-	-	-	-	-	-	-	-	-	-
생선류	4	3.9	-	-	3	5.3	-	-	-	-	7	2.8
어패류	1	1.0	-	-	1	1.8	-	-	1	5.6	3	1.2
해조류	1	1.0	-	-	-	-	-	-	-	-	1	0.4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	-
나물류	-	-	-	-	-	-	-	-	-	-	-	-
약용작물류	1	1.0	-	-	-	-	-	-	-	-	1	0.4
견과류	2	1.9	-	-	-	-	1	2.1	-	-	3	1.2
조미료(향신료	-	-	-	-	1	1.8	-	-	-	-	1	0.4
고추가루	-	-	-	-	-	-	-	-	-	-	-	-
한식	-	-	2	8.7	3	5.3	2	4.3	-	-	7	2.8
일식	-	-	-	-	-	-	-	-	-	-	-	-
중식	-	-	-	-	-	-	-	-	-	-	-	-
분식	-	-	-	-	1	1.8	-	-	-	-	1	0.4
패스트푸드점	-	-	5	21.7	4	7.0	-	-	-	-	9	3.6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1.0	-	-	-	-	-	-	1	5.6	2	0.8
기타육류	-	-	-	-	1	1.8	-	-	-	-	1	0.4
기타식품류	-	-	-	-	1	1.8	1	2.1	1	5.6	3	1.2
총합계	103	100.0	23	100.0	57	100.0	47	100.0	18	100.0	248	100.0

○ 12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01건으로 곡류가 14건(7.0%), 빵 13건(6.5%), 한식 12건(6.0%), 분유류 10건(5.0%) 코코아가공품과 패스트푸드점이 각각 9건(4.5%)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12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3.4	-	-	9	14.8	1	2.2	1	4.2	13	6.5
케익류	3	5.2	-	-	-	-	1	2.2	-	-	4	2.0
떡류	1	1.7	-	-	2	3.3	-	-	-	-	3	1.5
과자류	2	3.4	-	-	3	4.9	1	2.2	1	4.2	7	3.5
코코아가공품류	5	8.6	-	-	2	3.3	2	4.4	-	-	9	4.5
잼류	-	-	-	-	-	-	-	-	-	-	-	-
설탕	-	-	-	-	-	-	1	2.2	-	-	1	0.5
꿀	-	-	-	-	-	-	-	-	-	-	-	-
엿류	-	-	-	-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1	1.7	-	-	5	8.2	2	4.4	-	-	8	4.0
빙과류	-	-	-	-	-	-	-	-	-	-	-	-
우유류	-	-	-	-	1	1.6	-	-	1	4.2	2	1.0
발효유류	-	-	-	-	-	-	1	2.2	3	12.5	4	2.0
분유류	-	-	2	15.4	1	1.6	4	8.9	3	12.5	10	5.0
치즈·버터류	-	-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2	3.3	1	2.2	-	-	3	1.5
치킨류	1	1.7	-	-	1	1.6	1	2.2	-	-	3	1.5
기타육류가공품	-	-	-	-	1	1.6	1	2.2	1	4.2	3	1.5
어묵제품류	-	-	-	-	-	-	1	2.2	-	-	1	0.5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1	4.2	1	0.5
라면류	3	5.2	1	7.7	2	3.3	1	2.2	-	-	7	3.5
건면류	-	-	-	-	3	4.9	-	-	-	-	3	1.5
생면류	-	-	-	-	1	1.6	-	-	-	-	1	0.5
다류	1	1.7	-	-	-	-	-	-	-	-	1	0.5
커피	3	5.2	-	-	2	3.3	2	4.4	-	-	7	3.5
탄산음료류	-	-	-	-	-	-	-	-	-	-	-	-
과·채음료류	-	-	-	-	2	3.3	2	4.4	3	12.5	7	3.5
생수	1	1.7	-	-	-	-	1	2.2	3	12.5	5	2.5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	-
이유식	-	-	1	7.7	-	-	-	-	-	-	1	0.5
장류	-	-	-	-	-	-	-	-	-	-	-	-
소스류	1	1.7	-	-	-	-	-	-	-	-	1	0.5
김치류	1	1.7	-	-	1	1.6	-	-	-	-	2	1.0
젓갈류	-	-	-	-	-	-	2	4.4	-	-	2	1.0
절임배추	-	-	-	-	-	-	-	-	-	-	-	-
조림식품	-	-	-	-	2	3.3	4	8.9	-	-	6	3.0
소주	-	-	-	-	1	1.6	-	-	1	4.2	2	1.0

맥주	-	-	-	-	1	1.6	-	-	2	8.3	3	1.5
포도주	-	-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1	1.7	1	7.7	-	-	-	-	-	-	2	1.0
건포류	-	-	-	-	-	-	-	-		-	-	-
건강식품	3	5.2	-	-	-	-	1	2.2	3	12.5	7	3.5
즉석식품	1	1.7	-	-	2	3.3	3	6.7	-	-	6	3.0
쇠고기	-	-	1	7.7	-	-	-	-	-	-	1	0.5
돼지고기	2	3.4	-	-	-	-	-	-	-	-	2	1.0
닭고기	-	-	1	7.7	1	1.6	-	-	-	-	2	1.0
오리고기	-	-	-	-	-	-	-	-	-	-	-	-
알류	-	-	-	-	-	-	-	-	-	-	-	-
곡류	9	15.5	-	-	3	4.9	1	2.2	1	4.2	14	7.0
채소류	2	3.4	-	-	1	1.6	-	-	-	-	3	1.5
과일류	3	5.2	-	-	-	-	-	-	-	-	3	1.5
생선류	1	1.7	-	-	1	1.6	2	4.4	-	-	4	2.0
어패류	-	-	-	-	1	1.6	-	-	-	-	1	0.5
해조류	1	1.7	-	-	-	-	2	4.4	-	-	3	1.5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1	1.6	-	-	-	-	1	0.5
견과류	4	6.9	-	-	-	-	1	2.2	-	-	5	2.5
조미료(향신료	1	1.7	-	-	-	-	-	-	-	-	1	0.5
고추가루	-	-	-	-	-	-	-	-	-	-	-	-
한식	4	6.9	1	7.7	4	6.6	3	6.7	-	-	12	6.0
양식	-	-	-	-	-	-	-	-	-	-	-	-
일식	-	-	-	-	-	-	-	-	-	-	-	-
중식	-	-	-	-	-	-	1	2.2	-	-	1	0.5
분식	-	-	-	-	1	1.6	-	-	-	-	1	0.5
패스트푸드점	1	1.7	5	38.5	2	3.3	1	2.2	-	-	9	4.5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2	3.3	1	2.2	-	-	3	1.5
총합계(중복응답)	58	100.0	13	100.0	61	100.0	45	100.0	24	100.0	201	100.0

(2) 이상증세

○ 1월~12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2,420건으로 건강식품 955건(39.46%), 우유류 129건(5.33%), 빵 109건(4.50%). 과자류 86건(3.55%)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1월~12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 이상증세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68	5.0	-	-	28	9.8	11	2.4	2	3.4	-	-	109	4.50
케익류	12	0.9	-	-	4	1.4	3	0.6	1	1.7	-	-	20	0.83
떡류	6	0.4	1	0.5	8	2.8	4	0.9	0	0.0	-	-	19	0.79
과자류	31	2.3	1	0.5	46	16.1	7	1.5	1	1.7	-	-	86	3.55
코코아가공품류	6	0.4	-	-	12	4.2	2	0.4	-	-	-	-	20	0.83
잼류	1	0.1	-	-	1	0.3	-	-	-	-	-	-	2	0.08
설탕	-	-	-	-	2	0.7	-	-	-	-	-	-	2	0.08
포도당/과당	-	-	-	-	-	-	-	-	-	-	-	-		
꿀	1	0.1	1	0.5	-	-	3	0.6	-	-	-	-	5	0.21
엿류	-	-	-	-	1	0.3	-	-	-	-	-	-	1	0.04
당시럽류	1	0.1	-	-	-	-	-	-	-	-	-	-	1	0.04
올리고당류	-	-	-	-	-	-	-	-	-	-	-	-	0	0.00
아이스크림류	20	1.5	1	0.5	17	5.9	1	0.2	-	-	-	-	39	1.61
빙과류	4	0.3	-	-	1	0.3	-	-	-	-	-	-	5	0.21
우유류	110	8.1	3	1.5	1	0.3	12	2.6	2	3.4	1	1.7	129	5.33
발효유류	15	1.1	-	-	-	-	2	0.4	-	-	-	-	17	0.70
분유류	19	1.4	-	-	-	-	4	0.9	1	1.7	-	-	24	0.99
치즈·버터류	4	0.3	-	-	-	-	5	1.1	1	1.7	-	-	10	0.41
햄 및 소시지류	10	0.7	2	1.0	2	0.7	1	0.2	1	1.7	-	-	16	0.66
치킨류	10	0.7	-	-	4	1.4	3	0.6			-	-	17	0.70
기타육류가공품	38	2.8	-	-	11	3.8	3	0.6	2	3.4	-	-	54	2.23
알가공품	1	0.1	-	-	1	0.3			-	-	-	-	2	0.08
어묵제품류	8	0.6	-	-	4	1.4	3	0.6	-	-	-	-	15	0.62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1	0.2	-	-	-	-	1	0.04
식용유지류	2	0.1	-	-			1	0.2	-	-	-	-	3	0.12
라면류	17	1.3	-	-	1	0.3	1	0.2	1	1.7	-	-	20	0.83
건면류	4	0.3	-	-	1	0.3	1	0.2	-	-	-	-	6	0.25
생면류	5	0.4	-	-	1	0.3	-	-	-	-	-	-	6	0.25
다류	7	0.5	-	-	-	-	-	-	2	3.4	-	-	9	0.37
커피	18	1.3	-	-	1	0.3	3	0.6	-	-	-	-	22	0.91
탄산음료류	17	1.3	-	-	-	-	3	0.6	-	-	-	-	20	0.83
과·채음료류	23	1.7	-	-	-	-	6	1.3	-	-	-	-	29	1.20
생수	3	0.2	-	-	1	0.3	0	0.0	-	-	-	-	4	0.17
특수용도식품(환자식)	7	0.5	1	0.5	-	-	4	0.9	-	-	-	-	12	0.50
이유식	9	0.7	-	-	-	-	2	0.4	-	-	-	-	11	0.45
장류	6	0.4	-	-	-	-	1	0.2	-	-	-	-	7	0.29
소스류	1	0.1	-	-	1	0.3	-	-	-	-	-	-	2	0.08
드레싱류	-	-	-	-	-	-	-	-	-	-	-	-	-	-
김치류	1	0.1	-	-	4	1.4	1	0.2	-	-	-	-	6	0.25
젓갈류	5	0.4	-	-	1	0.3	-	-	-	-	-	-	6	0.25
절임식품	2	0.1	-	-	-	-	-	-	-	-	-	-	2	0.08

절임배추	-	-	-	-	-	-	-	-	-	-	-	-	0	0.00
조림식품	8	0.6	-	-	4	1.4	6	1.3	-	-	-	-	18	0.74
소주	2	0.1	-	-	1	0.3	1	0.2	-	-	-	-	4	0.17
맥주	4	0.3	-	-	-	-	1	0.2	-	-	-	-	5	0.21
포도주	-	-	-	-	-	-	1	0.2	-	-	-	-	1	0.04
탁약주(막걸리)	6	0.4	-	-	-	-	1	0.2	-	-	-	-	7	0.29
건포류	12	0.9	-	-	10	3.5	-	-	-	-	-	-	22	0.91
건강식품	418	30.9	172	87.8	3	1.0	301	64.5	3	5.2	58	96.7	955	39.46
즉석식품	33	2.4	2	1.0	9	3.1	5	1.1	2	3.4	-	-	51	2.11
쇠고기	17	1.3	-	-	6	2.1	-	-	3	5.2	-	-	26	1.07
돼지고기	7	0.5	2	1.0	9	3.1	5	1.1	2	3.4	-	-	25	1.03
닭고기	12	0.9	-	-	3	1.0	5	1.1	3	5.2	-	-	23	0.95
오리고기	1	0.1	-	-	-	-	1	0.2	-	-	-	-	2	0.08
알류	10	0.7	-	-	-	-	-	-	-	-	-	-	10	0.41
곡류	8	0.6	1	0.5	8	2.8	3	0.6	-	-	-	-	20	0.83
채소류	13	1.0	1	0.5	1	0.3	7	1.5	-	-	-	-	22	0.91
과일류	18	1.3	-		5	1.7	3	0.6	-	-	-	-	26	1.07
생선류	44	3.3	2	1.0	3	1.0	5	1.1	6	10.3	-	-	60	2.48
어패류	40	3.0	1	0.5	4	1.4	7	1.5	3	5.2	-	-	55	2.27
해조류	6	0.4	-		7	2.4	2	0.4			-	-	15	0.62
식용종자·버섯류	7	0.5	1	0.5	-	-	6	1.3	1	1.7	-	-	15	0.62
나물류	-	-	-	-	-	-	-	-	-	-	-	-	-	-
약용작물류	9	0.7	2	1.0	2	0.7	5	1.1	-	-	-	-	18	0.74
견과류	12	0.9	1	0.5	5	1.7	3	0.6	-	-	-	-	21	0.87
조미료(향신료	2	0.1	-	-	1	0.3	-	-	-	-	-	-	3	0.12
고추가루	1	0.1	-	-	-	-	-	-	-	-	-	-	1	0.04
한식	35	2.6	-	-	24	8.4	3	0.6	13	22.4	-	-	75	3.10
양식	3	0.2	-	-	1	0.3	-	-	-	0.0	-	-	4	0.17
일식	51	3.8	-	-			2	0.4	3	5.2	-	-	56	2.31
중식	4	0.3	-	-	1	0.3	-	-	-	-	-	-	5	0.21
분식	11	0.8	-	-	7	2.4	1	0.2	1	1.7	-	-	20	0.83
노점상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47	3.5	1	0.5	14	4.9	2	0.4	4	6.9	-	-	68	2.81
뷔페	2	0.1	-	-	-	-	-	-	-	-	-	-	2	0.08
복합조미식품	3	0.2	-	-	1	0.3	-	-	-	-	-	-	4	0.17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0.1	-	-	-	-	-	-	-	-	-	-	1	0.04
기타육류	3	0.2	-	-	-	-	-	-	-	-	-	-	3	0.12
기타식품류	8	0.6	-	-	3	1.0	3	0.6	-	-	1	1.7	15	0.62
미기재	3	0.2	-	-	-	-	-	-	-	-	-	-	3	0.12
총합계(중복응답)	1353	100.00	196	100.00	286	100.00	467	100.00	58	100.00	60	100.00	2420	100.00

○ 1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197건으로 건강식품 41건(20.8%), 어패류 14건(7.1%), 패스트푸드점이 12건(6.1%), 빵류와 과자류, 한식이 각각 10건(5.1%)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1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6	4.3	-	-	3	14.3	1	6.7	-	-	10	5.1
케익류	2	1.4	-	-	-	-	-	-	-	-	2	1.0
떡류	1	0.7	1	6.7	1	4.8	-	-	-	-	3	1.5
과자류	7	5.0	-	-	3	14.3	-	-	-	-	10	5.1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2	1.4	-	-	1	4.8	-	-	-	-	3	1.5
잼류	-	-	-	-	-	-	-	-	-	-	-	-
설탕	-	-	-	-	-	-	-	-	-	-	-	-
꿀	-	-	-	-	-	-	-	-	-	-	-	-
엿류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2	1.4	-	-	1	4.8	-	-	-	-	3	1.5
우유류	8	5.7	-	-	-	-	-	-	-	-	8	4.1
발효유류	1	0.7	-	-	-	-	-	-	-	-	1	0.5
분유류	2	1.4	-	-	-	-	-	-	-	-	2	1.0
치즈버터류	-	-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2	1.4	-	-	-	-	-	-	-	-	2	1.0
치킨류	1	0.7	-	-	-	-	-	-	-	-	1	0.5
기타육류가공품	3	2.1	-	-	1	-	-	-	-	-	4	2.0
알가공품	-	-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2	13.3	-	-	2	1.0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	-
라면류	1	0.7	-	-	-	-	-	-	-	-	1	0.5
건면류	1	0.7	-	-	-	-	-	-	-	-	1	0.5
생면류	-	-	-	-	-	-	-	-	-	-	-	-
다류	2	1.4	-	-	-	-	-	-	-	-	2	1.0
커피	3	2.1	-	-	-	-	-	-	-	-	3	1.5
과채음료류	-	-	-	-	-	-	-	-	-	-	-	-
생수	-	-	-	-	-	-	-	-	-	-	-	-
특수용도식품	1	0.7	-	-	-	-	-	-	-	-	1	0.5
이유식	2	1.4	-	-	-	-	-	-	-	-	2	1.0
장류	-	-	-	-	-	-	-	-	-	-	-	-
소스류	-	-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	-
절임식품	2	1.4	-	-	-	-	-	-	-	-	2	1.0
절임배추	-	-	-	-	-	-	-	-	-	-	-	-
조림식품	1	0.7	-	-	-	-	-	-	-	-	1	0.5

소주	1	0.7	-	-	-	-	-	-	-	-	1	0.5
맥주	-	-	-	-	-	-	-	-	-	-	-	–
건포류	1	0.7	-	-	-	-	-	-	-	-	1	0.5
건강식품	18	12.8	14	93.3	-	-	9	60.0	-	-	41	20.8
즉석식품	8	5.7	-	-	-	-	1	6.7	-	-	9	4.6
쇠고기	1	0.7	-	-	-	-	-	-	1	20.0	2	1.0
돼지고기	2	1.4	-	-	2	9.5	-	-	-	-	4	2.0
닭고기	4	2.8	-	-	-	-	-	-	-	-	4	2.0
알류	2	1.4	-	-	-	-	-	-	-	-	2	1.0
곡류	1	0.7	-	-	1	4.8	-	-	-	-	2	1.0
채소류	2	1.4	-	-	-	-	-	-	-	-	2	1.0
과일류	3	2.1	-	-	1	-	-	-	-	-	4	2.0
생선류	3	2.1	-	-	-	-	1	-	2	-	6	3.0
어패류	13	9.2	-	-	-	-	-	-	1	-	14	7.1
해조류	-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1	0.7	-	-	-	-	-	-	-	-	1	0.5
약용작물류	1	0.7	-	-	1	4.8	1	6.7	-	-	3	1.5
견과류	2	1.4	-	-	-	-	-	-	-	-	2	1.0
조미료	-	-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	–
한식	6	4.3	-	-	3	14.3	-	-	1	20.0	10	5.1
양식	1	0.7	-	-	-	-	-	-	-	-	1	0.5
일식	6	4.3	-	-	-	-	-	-	-	-	6	3.0
중식	1	0.7	-	-	-	-	-	-	-	-	1	0.5
분식	2	1.4	-	-	-	-	-	-	-	-	2	1.0
패스트푸드점	9	6.4	-	-	3	-	-	-	-	-	12	6.1
복합조미식품	2	1.4	-	-	-	-	-	-	-	-	2	1.0
기타주류	-	-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	–
기타식품류	1	0.7	-	-	-	-	-	-	-	-	1	0.5
비어 있음	-	-	-	-	-	-	-	-	-	-	-	–
총합계	141	100.0	15	100.0	21	100.0	15	100.0	5	100.0	197	100.0

○ 2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145건으로 건강식품 42건(29.0%), 빵류 9건(6.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2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5	5.8	-	-	3	15.8	1	4.2	-	-	9	6.2
케익류	4	4.7	-	-	-	-	-	-	1	16.7	5	3.4
떡류	-	-	-	-	1	5.3	1	4.2	-	-	2	1.4
과자류	1	1.2	-	-	3	15.8	1	4.2	1	16.7	6	4.1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	-
잼류	-	-	-	-	-	-	-	-	-	-	-	-
설탕	-	-	-	-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4	4.7	-	-	1	5.3	1	4.2	-	-	6	-
빙과류	-	-	-	-	-	-	-	-	-	-	-	-
우유류	5	5.8	-	-	-	-	2	8.3	-	-	7	4.8
발효유류	1	1.2	-	-	-	-	-	-	-	-	1	0.7
분유류	-	-	-	-	-	-	-	-	-	-	-	-
치즈·버터류	-	-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1	4.2	-	-	1	0.7
치킨류	-	-	-	-	1	5.3	-	-	-	-	1	0.7
기타육류가공품	2	2.3	-	-	-	-	-	-	1	16.7	3	2.1
어묵제품류	2	2.3	-	-	2	10.5	-	-	-	-	4	2.8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	-
라면류	-	-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	-
다류	-	-	-	-	-	-	-	-	-	-	-	-
커피	2	2.3	-	-	-	-	-	-	-	-	2	1.4
탄산음료류	2	2.3	-	-	-	-	-	-	-	-	2	1.4
과·채음료류	2	2.3	-	-	-	-	-	-	-	-	2	1.4
생수	-	-	-	-	-	-	-	-	-	-	-	-
특수용도식품	-	-	-	-	-	-	-	-	-	-	-	-
이유식	-	-	-	-	-	-	-	-	-	-	-	-
장류	-	-	-	-	-	-	-	-	-	-	-	-
소스류	-	-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	-
소주	-	-	-	-	-	-	-	-	-	-	-	-
맥주	1	1.2	-	-	-	-	-	-	-	-	1	0.7

탁약주	-	-	-	-	-	-	-	-	-	-		–
건포류	2	2.3	-	-	-	-	-	-	-	-	2	1.4
건강식품	22	25.6	8	80.0	-	-	12	50.0	-	-	42	29.0
즉석식품	3	3.5	-	-	-	-	-	-	1	16.7	4	2.8
쇠고기	5	5.8	-	-	-	-	-	-	-	-	5	3.4
돼지고기	-	-	-	-	-	-	-	-	1	16.7	1	0.7
닭고기	1	1.2	-	-	1	5.3	-	-	-	-	2	1.4
알류	-	-	-	-	-	-	-	-	-	-	-	–
곡류	1	1.2	-	-	2	10.5	-	-	-	-	3	2.1
채소류	-	-	-	-	-	-	-	-	-	-	-	–
과일류	2	2.3	-	-	-	-	1	4.2	-	-	3	2.1
생선류	1	1.2	-	-	2	10.5	-	-	1	16.7	4	2.8
어패류	5	5.8	-	-	-	-	-	-	-	-	5	3.4
해조류	1	1.2	-	-	-	-	-	-	-	-	1	0.7
식용종자·버섯류	-	-	-	-	-	-	2	8.3	-	-	2	1.4
나물류	-	-	-	-	-	-	-	-	-	-	-	–
약용작물류	1	1.2	2	20.0	-	-	1	4.2	-	-	4	2.8
견과류	1	1.2	-	-	-	-	-	-	-	-	1	0.7
조미료	-	-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	–
한식	2	2.3	-	-	1	5.3	-	-	-	-	3	2.1
양식	-	-	-	-	-	-	-	-	-	-	-	–
일식	1	1.2	-	-	-	-	-	-	-	-	1	0.7
중식	2	2.3	-	-	1	5.3	-	-	-	-	3	2.1
분식	-	-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4	4.7	-	-	1	5.3	-	-	-	-	5	3.4
복합조미식품	1	1.2	-	-	-	-	-	-	-	-	1	0.7
기타식품류	-	-	-	-	-	-	1	4.2	-	-	1	0.7
총합계	86	100.0	10	100.0	19	100.0	24	100.0	6	100.0	145	100.0

○ 3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189건으로 건강식품 55건(29.1%), 빵류가 12건(6.3%), 과자류가 10건(5.3%), 생선류와 우유류가 각각 8건(4.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3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5	4.2	-	-	6	16.2	1	4.0	-	-	12	6.3
케익류	1	0.8	-	-	-	-	1	4.0	-	-	2	1.1
떡류	1	0.8	-	-	-	-	-	-	-	-	1	0.5
과자류	3	2.5	-	-	7	18.9	-	-	-	-	10	5.3
코코아가공품류	2	1.7	-	-	2	5.4	-	-	-	-	4	2.1
잼류	-	-	-	-	1	2.7	-	-	-	-	1	0.5
설탕	-	-	-	-	-	-	-	-	-	-	-	-
꿀	-	-	-	-	-	-	-	-	-	-	-	-
엿류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5	4.2	-	-	2	5.4	-	-	-	-	7	3.7
우유로	7	5.9	-	-	-	-	1	4.0	-	-	8	4.2
발효유류	2	1.7	-	-	-	-	-	-	-	-	2	1.1
분유류	3	2.5	-	-	-	-	1	4.0	-	-	4	2.1
치즈·버터류	-	-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2	1.7	-	-	-	-	-	-	-	-	2	1.1
치킨류	1	0.8	-	-	-	-	1	4.0	-	-	2	1.1
기타육류가공품	4	3.4	-	-	2	5.4	-	-	-	-	6	3.2
알가공품	-	-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1	2.7	-	-	-	-	1	0.5
식용유지류	-	-	-	-	-	-	-	-	-	-	-	-
라면류	1	0.8	-	-	-	-	-	-	1	100.0	2	1.1
건면류	-	-	-	-	-	-	-	-	-	-	-	-
다류	-	-	-	-	-	-	-	-	-	-	-	-
커피	3	2.5	-	-	-	-	-	-	-	-	3	1.6
탄산음료류	-	-	-	-	-	-	-	-	-	-	-	-
과·채음료류	1	0.8	-	-	-	-	-	-	-	-	1	0.5
생수	-	-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	-
이유식	1	0.8	-	-	-	-	-	-	-	-	1	0.5
장류	1	0.8	-	-	-	-	-	-	-	-	1	0.5
소스류	-	-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	-
조림식품	1	0.8	-	-	1	2.7	-	-	-	-	2	1.1

소주	-	-	-	-	-	-	-	-	-	-	-	-
맥주	-	-	-	-	-	-	-	-	-	-	-	-
포도주	-	-	-	-	-	-	-	-	-	-	-	-
탁약주	1	0.8	-	-	-	-	-	-	-	-	1	0.5
건포류	-	-	-	-	3	8.1	-	-	-	-	3	1.6
건강식품	34	28.6	7	100.0	-	-	14	56.0	-	-	55	29.1
즉석식품	7	5.9	-	-	1	2.7	-	-	-	-	8	4.2
쇠고기	1	0.8	-	-	-	-	-	-	-	-	1	0.5
돼지고기	-	-	-	-	2	5.4	-	-	-	-	2	1.1
닭고기	-	-	-	-	-	-	-	-	-	-	-	-
오리고기	-	-	-	-	-	-	1	4.0	-	-	1	0.5
알류	2	1.7	-	-	-	-	-	-	-	-	2	1.1
곡류	-	-	-	-	2	5.4	1	4.0	-	-	3	1.6
채소류	-	-	-	-	-	-	1	4.0	-	-	1	0.5
과일류	4	3.4	-	-	-	-	-	-	-	-	4	2.1
생선류	8	6.7	-	-	-	-	-	-	-	-	8	4.2
어패류	3	2.5	-	-	-	-	-	-	-	-	3	1.6
해조류	1	0.8	-	-	3	8.1	1	4.0	-	-	5	2.6
식용종자·버섯류	-	-	-	-	-	-	1	4.0	-	-	1	0.5
나물류	-	-	-	-	-	-	-	-	-	-	-	-
약용작물류	1	0.8	-	-	-	-	1	4.0	-	-	2	1.1
견과류	1	0.8	-	-	-	-	-	-	-	-	1	0.5
조미료	-	-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	-
한식	4	3.4	-	-	-	-	-	-	-	-	6	3.2
일식	1	0.8	-	-	-	-	-	-	-	-	1	0.5
중식	-	-	-	-	-	-	-	-	-	-	-	-
분식	-	-	-	-	-	-	-	-	-	-	-	-
노점상	-	-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5	4.2	-	-	1	2.7	-	-	-	-	6	3.2
복합조미식품	-	-	-	-	1	2.7	-	-	-	-	1	0.5
기타주류	-	-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	-
기타식품류	2	1.7	-	-	-	-	-	-	-	-	2	1.1
합계	119	100.0	7	100.0	37	100.0	25	100.0	1	100.0	189	100.0

○ 4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187건으로 건강식품 80건(42.8%), 빵류12건(6.4%), 기타육류가공품 6건(3.2%), 생선류 5건(2.7%)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4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7	7.4	-	-	4	20	1	1.8	-	-	12	6.4
케익류	2	2.1	-	-	-	-	-	-	-	-	2	1.1
떡류	2	2.1	-	-	1	5	-	-	-	-	3	1.6
과자류	1	1.1	1	6.3	-	-	2	3.6	-	-	4	2.1
코코아가공품류	-	-	-	-	2	10	1	1.8	-	-	3	1.6
설탕	-	-	-	-	2	10	-	-	-	-	2	1.1
꿀	-	-	-	-	-	-	-	-	-	-	-	-
엿류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	-
빙과류	1	1.1	-	-	-	-	-	-	-	-	1	0.5
우유류	6	6.3	1	6.3	-	-	1	1.8	-	-	8	4.3
발효유류	-	-	-	-	-	-	-	-	-	-	-	-
분유류	-	-	-	-	-	-	1	1.8	-	-	1	0.5
치즈·버터류	2	2.1	-	-	-	-	-	-	-	-	2	1.1
햄 및 소시지류	1	1.1	1	6.3	-	-	-	-	-	-	2	1.1
치킨류	1	1.1	-	-	-	-	-	-	-	-	1	0.5
기타육류가공품	3	3.2	-	-	3	15	-	-	-	-	6	3.2
알가공품	-	-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	-
라면류	-	-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	-
다류	-	-	-	-	-	-	-	-	-	-	-	1.1
커피	2	2.1	-	-	-	-	-	-	-	-	2	1.1
탄산음료류	4	4.2	-	-	-	-	-	-	-	-	4	2.1
과·채음료류	1	1.1	-	-	-	-	-	-	-	-	1	0.5
생수	-	-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2	3.6	-	-	2	1.1
이유식	-	-	-	-	-	-	-	-	-	-	-	-
장류	1	1.1	-	-	-	-	-	-	-	-	1	0.5
소스류	-	-	-	-	-	-	-	-	-	-	-	-
김치류	1	1.1	-	-	-	-	-	-	-	-	1	0.5
젓갈류	1	1.1	-	-	-	-	-	-	-	-	1	0.5
절임식품	-	-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	-

조림식품	2	2.1	-	-	-	-	-	-	-	-	2	1.1
소주	-	-	-	-	-	-	-	-	-	-	-	–
맥주	-	-	-	-	-	-	-	-	-	-	-	–
건포류	-	-	-	-	2	10	-	-	-	-	2	1.1
건강식품	29	30.5	12	75.0	-	-	39	70.9	-	-	80	42.8
즉석식품	1	1.1	-	-	1	5	1	1.8	-	-	3	1.6
쇠고기	1	1.1	-	-	1	5	-	-	-	-	2	1.1
돼지고기	-	0.0	1	6.3	-	-	-	-	-	-	1	0.5
닭고기	1	1.1	-	-	-	-	1	1.8	1	100.0	3	1.6
오리고기	-	-	-	-	-	-	-	-	-	-	-	–
알류	-	-	-	-	-	-	-	-	-	-	-	–
곡류	-	-	-	-	1	5	-	-	-	-	1	0.5
채소류	1	1.1	-	-	-	-	2	3.6	-	-	3	1.6
과일류	3	3.2	-	-	-	-	-	-	-	-	3	1.6
생선류	4	4.2	-	-	-	-	1	1.8	-	-	5	2.7
어패류	1	1.1	-	-	-	-	-	-	-	-	1	0.5
해조류	1	1.1	-	-	-	-	1	1.8	-	-	2	1.1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	-	-	–
견과류	-	-	-	-	-	-	-	-	-	-	-	–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	–
한식	3	3.2	-	-	1	5	-	-	-	-	4	2.1
일식	3	3.2	-	-	-	-	1	1.8	-	-	4	2.1
중식			-	-	-	-	-	-	-	-	-	–
분식	2	2.1	-	-	1	5	-	-	-	-	3	1.6
패스트푸드점	2	2.1	-	-	1	5	1	1.8	-	-	4	2.1
뷔페	1	1.1	-	-	-	-	-	-	-	-	1	0.5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	–
무응답	2	2.1	-	-	-	-	-	-	-	-	2	1.1
총합계	95	100.0	16	100.0	20	100.0	55	100.0	1	100.0	187	100.0

○ 5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187건으로 건강식품 80건(42.8%), 빵류 12건(6.4%), 우유류 8건(4.3%), 기타육류가공품 6건(3.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5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7	7.4	-	-	4	20	1	1.8	-	-	12	6.4
케익류	2	2.1	-	-	-	-	-	-	-	-	2	1.1
떡류	2	2.1	-	-	1	5	-	-	-	-	3	1.6
과자류	1	1.1	1	6.3	-	-	2	3.6	-	-	4	2.1
코코아가공품류	-	-	-	-	2	10	1	1.8	-	-	3	1.6
설탕	-	-	-	-	2	10	-	-	-	-	2	1.1
꿀	-	-	-	-	-	-	-	-	-	-	-	-
엿류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	-
빙과류	1	1.1	-	-	-	-	-	-	-	-	1	0.5
우유류	6	6.3	1	6.3	-	-	1	1.8	-	-	8	4.3
발효유류	-	-	-	-	-	-	-	-	-	-	-	-
분유류	-	-	-	-	-	-	1	1.8	-	-	1	0.5
치즈·버터류	2	2.1	-	-	-	-	-	-	-	-	2	1.1
햄 및 소시지류	1	1.1	1	6.3	-	-	-	-	-	-	2	1.1
치킨류	1	1.1	-	-	-	-	-	-	-	-	1	0.5
기타육류가공품	3	3.2	-	-	3	15	-	-	-	-	6	3.2
알가공품	-	-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	-
라면류	-	-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	-
다류	2	2.1	-	-	-	-	-	-	-	-	2	1.1
커피	2	2.1	-	-	-	-	-	-	-	-	2	1.1
탄산음료류	4	4.2	-	-	-	-	-	-	-	-	4	2.1
과·채음료류	1	1.1	-	-	-	-	-	-	-	-	1	0.5
생수	-	-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2	3.6	-	-	2	1.1
이유식	-	-	-	-	-	-	-	-	-	-	-	-
장류	1	1.1	-	-	-	-	-	-	-	-	1	0.5
소스류	-	-	-	-	-	-	-	-	-	-	-	-
김치류	1	1.1	-	-	-	-	-	-	-	-	1	0.5
젓갈류	1	1.1	-	-	-	-	-	-	-	-	1	0.5
절임식품	-	-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	-

조림식품	2	2.1	-	-	-	-	-	-	-	-	2	1.1
소주	-	-	-	-	-	-	-	-	-	-	-	–
맥주	-	-	-	-	-	-	-	-	-	-	-	–
건포류	-	-	-	-	2	10	-	-	-	-	2	1.1
건강식품	29	30.5	12	75.0	-	-	39	70.9	-	-	80	42.8
즉석식품	1	1.1	-	-	1	5	1	1.8	-	-	3	1.6
쇠고기	1	1.1	-	-	1	5	-	-	-	-	2	1.1
돼지고기	-	-	1	6.3	-	-	-	-	-	-	1	0.5
닭고기	1	1.1	-	-	-	-	1	1.8	-	-	3	1.6
오리고기	-	-	-	-	-	-	-	-	-	-	-	–
알류	-	-	-	-	-	-	-	-	-	-	-	–
곡류	-	-	-	-	1	5	-	-	-	-	1	0.5
채소류	1	1.1	-	-	-	-	2	3.6	-	-	3	1.6
과일류	3	3.2	-	-	-	-	-	-	-	-	3	1.6
생선류	4	4.2	-	-	-	-	1	1.8	-	-	5	2.7
어패류	1	1.1	-	-	-	-	-	-	-	-	1	0.5
해조류	1	1.1	-	-	-	-	1	1.8	-	-	2	1.1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	-	-	–
견과류	-	-	-	-	-	-	-	-	-	-	-	–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	–
한식	3	3.2	-	-	1	5	-	-	-	-	4	2.1
일식	3	3.2	-	-	-	-	1	1.8	-	-	4	2.1
중식	-	-	-	-	-	-	-	-	-	-	-	–
분식	2	2.1	-	-	1	5	-	-	-	-	3	1.6
패스트푸드점	2	2.1	-	-	1	5	1	1.8	-	-	4	2.1
뷔페	1	1.1	-	-	-	-	-	-	-	-	1	0.5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	–
무응답	2	2.1	-	-	-	-	-	-	-	-	2	1.1
총합계	95	100.0	16	100.0	20	100.0	55	100.0	1	100.0	187	100.0

○ 6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235건으로 건강식품 131건(55.7%), 우유류 16건(6.8%), 빵류가 9건(3.8%), 과자류가 8건(3.4%), 패스트푸드점 6건(2.6%)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6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이상증세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6	4.7	-	-	2	10.5	1	2.2	-	-	-	-	9	3.8
케익류	3	2.3	-	-	-	-	-	-	-	-	-	-	3	1.3
떡류	-	-	-	-	-	-	-	-	-	-	-	-	-	-
과자류	3	2.3	-	-	5	26.3	-	-	-	-	-	-	8	3.4
코코아가공품류	-	-	-	-	2	10.5	-	-	-	-	-	-	2	0.9
잼류	-	-	-	-	-	-	-	-	-	-	-	-	-	-
설탕	-	-	-	-	-	-	-	-	-	-	-	-	-	-
포도당/과당	-	-	-	-	-	-	-	-	-	-	-	-	-	-
꿀	-	-	1	4	-	-	-	-	-	-	-	-	1	0.4
엿류	-	-	-	-	-	-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1	0.8	-	-	-	-	-	-	-	-	-	-	1	0.4
빙과류	-	-	-	-	1	5.3	-	-	-	-	-	-	1	0.4
우유류	14	10.9	-	-	-	-	1	2.2	1	14.3	-	-	16	6.8
발효유류	-	-	-	-	-	-	1	2.2	-	-	-	-	1	0.4
분유류	1	0.8	-	-	-	-	-	-	-	-	-	-	1	0.4
치즈·버터류	-	-	-	-	-	-	-	-	1	14.3	-	-	1	0.4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1	14.3	-	-	1	0.4
치킨류	1	0.8	-	-	-	-	-	-	-	-	-	-	1	0.4
기타육류가공품	-	-	-	-	-	-	-	-	-	-	-	-	-	-
알가공품	-	-	-	-	-	-	-	-	-	-	-	-	-	-
어묵제품류	3	2.3	-	-	1	5.3	-	-	-	-	-	-	4	1.7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	-	-	-
라면류	1	0.8	-	-	-	-	-	-	-	-	-	-	1	0.4
건면류	-	-	-	-	-	-	-	-	-	-	-	-	-	-
생면류	1	0.8	-	-	-	-	-	-	-	-	-	-	1	0.4
다류	-	-	-	-	-	-	-	-	-	-	-	-	-	-
커피	1	0.8	-	-	-	-	-	-	-	-	-	-	1	0.4
탄산음료류	-	-	-	-	-	-	-	-	-	-	-	-	-	-
과·채음료류	-	-	-	-	-	-	2	4.3	-	-	-	-	2	0.9
생수	-	-	-	-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0.8	-	-	-	-	-	-	-	-	-	-	1	0.4
이유식	-	-	-	-	-	-	1	2.2	-	-	-	-	1	0.4
장류	-	-	-	-	-	-	-	-	-	-	-	-	-	-

소스류	-	-	-	-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	-	-	-
젓갈류	1	0.8	-	-	-	-	-	-	-	-	-	-	1	0.4
절임식품	-	-	-	-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	-	-	-
조림식품	1	0.8	-	-	-	-	1	2.2	-	-	-	-	2	0.9
소주	-	-	-	-	-	-	-	-	-	-	-	-	-	-
맥주	1	0.8	-	-	-	-	-	-	-	-	-	-	1	0.4
포도주	-	-	-	-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	-	-	-
건포류	2	1.6	-	-	-	-	-	-	-	-	-	-	2	0.9
건강식품	61	47.3	24	96	1	5.3	36	78.3	-	-	9	100	131	55.7
즉석식품	4	3.1	-	-	-	-	-	-	1	14.3	-	-	5	2.1
쇠고기	2	1.6	-	-	-	-	-	-	-	-	-	-	2	0.9
돼지고기	1	0.8	-	-	-	-	-	-	-	-	-	-	1	0.4
닭고기	1	0.8	-	-	-	-	1	2.2	-	-	-	-	2	0.9
오리고기	-	-	-	-	-	-	-	-	-	-	-	-	-	-
알류	-	-	-	-	-	-	-	-	-	-	-	-	-	-
곡류	1	0.8	-	-	1	5.3	-	-	-	-	-	-	2	0.9
채소류	2	1.6	-	-	-	-	-	-	-	-	-	-	2	0.9
과일류	-	-	-	-	-	-	-	-	-	-	-	-	-	-
생선류	4	3.1	-	-	-	-	-	-	-	-	-	-	4	1.7
어패류	1	0.8	-	-	-	-	1	2.2	-	-	-	-	2	0.9
해조류	-	-	-	-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	-	-	-	-	-
견과류	1	0.8	-	-	2	10.5	1	2.2	-	-	-	-	4	1.7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	-	-	-
한식	2	1.6	-	-	1	5.3	-	-	1	14.3	-	-	4	1.7
양식	1	0.8	-	-	1	5.3	-	-	-	-	-	-	2	0.9
일식	2	1.6	-	-	-	-	-	-	1	14.3	-	-	3	1.3
중식	-	-	-	-	-	-	-	-	-	-	-	-	-	-
분식	1	0.8	-	-	1	5.3	-	-	-	-	-	-	2	0.9
노점상	-	-	-	-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4	3.1	-	-	1	5.3	-	-	1	14.3	-	-	6	2.6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	-	-	-
미기재	-	-	-	-	-	-	-	-	-	-	-	-	-	-
총합계	129	100.0	25	100.0	19	100.0	46	100.0	7	100.0	9	100.0	235	100.0

○ 7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177건으로 건강식품이 57건(32.2%)으로 가장 많고, 우우류가 16건(9.0%), 기타육류가공품이 8건(4.5%), 한식과 닭고기가 각각 5건(2.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7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이상증세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8	7.4	-	-	-	-	1	2.7	1	16.7	-	-	10	5.6
케익류	-	-	-	-	1	8.3	-	-	-	-	-	-	1	0.6
떡류	1	0.9	-	-	-	-	2	5.4	-	-	-	-	3	1.7
과자류	2	1.9	-	-	-	-	1	2.7	-	-	-	-	3	1.7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	-	-	-
설탕	-	-	-	-	-	-	-	-	-	-	-	-	-	-
꿀	-	-	-	-	-	-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3	2.8	-	-	1	8.3	-	-	-	-	-	-	4	2.3
빙과류	1	0.9	-	-	-	-	-	-	-	-	-	-	1	0.6
우유류	13	12.0	-	-	-	-	3	8.1	-	-	-	-	16	9.0
발효유류	2	1.9	-	-	-	-	1	2.7	-	-	-	-	3	1.7
분유류	2	1.9	-	-	-	-	-	-	-	-	-	-	2	1.1
치즈·버터류	1	0.9	-	-	-	-	-	-	-	-	-	-	1	0.6
햄 및 소시지류	-	-	1	7.7	-	-	-	-	-	-	-	-	1	0.6
치킨류	1	0.9	-	-	-	-	-	-	-	-	-	-	1	0.6
기타육류가공품	6	5.6	-	-	1	8.3	-	0.0	1	16.7	-	-	8	4.5
알가공품	1	0.9	-	-	-	-	-	-	-	-	-	-	1	0.6
어묵제품류	-	-	-	-	-	-	1	2.7	-	-	-	-	1	0.6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	-	-
식용유지류	1	0.9	-	-	-	-	-		-	-	-	-	1	0.6
라면류	1	0.9	-	-	-	-	-		-	-	-	-	1	0.6
건면류	2	1.9	-	-	-	-	1	2.7	-	-	-	-	3	1.7
생면류	1	0.9	-	-	1	8.3	-		-	-	-	-	2	1.1
다류	1	0.9	-	-	-	-	-		-	-	-	-	1	0.6
커피	-	-	-	-	-	-	1	2.7	-	-	-	-	1	0.6
탄산음료류	-	-	-	-	-	-	2	5.4	-	-	-	-	2	1.1
과·채음료류	2	1.9	-	-	-	-	2	5.4	-	-	-	-	4	2.3
생수	-	-	-	-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1	7.7	-	-	-	-	-	-	-	-	1	0.6
이유식	-	-	-	-	-	-	-	-	-	-	-	-	-	-
장류	-	-	-	-	-	-	-	-	-	-	-	-	-	-
소스류	-	-	-	-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	-	-	-
젓갈류	1	0.9	-	-	-	-	-	-	-	-	-	-	1	0.6

절임식품	1	0.9	-	-	-	-	-	-	-	-	-	-	1	0.6
조림식품	-	-	-	-	-	-	1	2.7	-	-	-	-	1	0.6
소주	1	0.9	-	-	-	-	1	2.7	-	-	-	-	2	1.1
맥주	-	-	-	-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2	1.9	-	-	-	-	-	-	-	-	-	-	2	1.1
건포류	2	1.9	-	-	1	8.3	-	-	-	-	-	-	3	1.7
건강식품	26	24.1	10	76.9	1	8.3	17	45.9	2	33.3	1	100	57	32.2
즉석식품	2	1.9	-	-	2	16.7	1	2.7	-	-	-	-	5	2.8
쇠고기	-	-	-	-	1	8.3	-	-	-	-	-	-	1	0.6
돼지고기	3	2.8	-	-	-	-	-	-	-	-	-	-	3	1.7
닭고기	3	2.8	-	-	-	-	1	2.7	1	16.7	-	-	5	2.8
오리고기	-	-	-	-	-	-	-	-	-	-	-	-	-	–
알류	-	-	-	-	-	-	-	-	-	-	-	-	-	–
곡류	-	-	-	-	-	-	-	-	-	-	-	-	-	–
채소류	1	0.9	1	7.7	-	-	1	2.7	-	-	-	-	3	1.7
과일류	1	0.9	-	-	-	-	-	-	-	-	-	-	1	0.6
생선류	2	1.9	-	-	1	8.3	-	-	-	-	-	-	3	1.7
어패류	3	2.8	-	-	-	-	-	-	-	-	-	-	3	1.7
해조류	1	0.9	-	-	1	8.3	-	-	-	-	-	-	2	1.1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	-	-	-	-	–
견과류	-	-	-	-	1	8.3	-	-	-	-	-	-	1	0.6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	-	-	–
한식	4	3.7	-	-	-	-	-	-	1	16.7	-	-	5	2.8
양식	-	-	-	-	-	-	-	-	-	-	-	-	-	–
일식	2	1.9	-	-	-	-	-	-	-	-	-	-	2	1.1
중식	-	-	-	-	-	-	-	-	-	-	-	-	-	–
분식	1	0.9	-	-	-	-	-	-	-	-	-	-	1	0.6
패스트푸드점	1	0.9	-	-	-	-	-	-	-	-	-	-	1	0.6
뷔페	1	0.9	-	-	-	-	-	-	-	-	-	-	1	0.6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	-	-	–
기타식품류	1	0.9	-	-	-	-	-	-	-	-	-	-	1	0.6
총합계	108	100.0	13	100.0	12	100.0	37	100.0	6	100.0	1	100.0	177	100.0

○ 8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204건으로 건강식품이 54건(26.5%)으로 가장 많고, 우유류 20건(9.8%), 빵류가 10건(4.9%), 기타육류가공품이 9건(4.4%), 일식과 과자류가 각각 8건(3.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8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이상증세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8	6.1	-	-	-	-	2	5.4	-	-	-	-	10	4.9
케익류	1	0.8	-	-	-	-			-	-	-	-	1	0.5
떡류	-	-	-	-	1	5.6			-	-	-	-	1	0.5
과자류	2	1.5	-	-	5	27.8	1	2.7	-	-	-	-	8	3.9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	-	-	-
설탕	-	-	-	-	-	-	-	-	-	-	-	-	-	-
꿀	-	-	-	-	-	-	-	-	-	-	-	-	-	-
엿류	-	-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2	1.5	-	-	-	-	-	-	-	-	-	-	2	1.0
빙과류	-	-	-	-	-	-	-	-	-	-	-	-	-	-
우유류	18	13.6	-	-	-	-	1	2.7	-	-	1	50.0	20	9.8
발효유류	3	2.3	-	-	-	-	-	-	-	-	-	-	3	1.5
분유류	3	2.3	-	-	-	-	-	-	-	-	-	-	3	1.5
치즈·버터류	1	0.8	-	-	-	-	1	2.7	-	-	-	-	2	1.0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	-	-	-
치킨류	2	1.5	-	-	1	5.6	1	2.7	-	-	-	-	4	2.0
기타육류가공품	7	5.3	-	-	2	11.1	-	-	-	-	-	-	9	4.4
알가공품	-	-	-	-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1	2.7	-	-	-	-	1	0.5
식용유지류	1	0.8	-	-	-	-	-	-	-	-	-	-	1	0.5
라면류	2	1.5	-	-	-	-	-	-	-	-	-	-	2	1.0
건면류	-	-	-	-	-	-	-	-	-	-	-	-	-	-
생면류	1	0.8	-	-	-	-	-	-	-	-	-	-	1	0.5
다류	2	1.5	-	-	-	-	-	-	1	33.3	-	-	3	1.5
커피	3	2.3	-	-	-	-	-	-	-	-	-	-	3	1.5
탄산음료류	4	3.0	-	-	-	-	-	-	-	-	-	-	4	2.0
과·채음료류	3	2.3	-	-	-	-	1	2.7	-	-	-	-	4	2.0
생수	-	-	-	-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0.8	-	-	-	-	1	2.7	-	-	-	-	2	1.0
이유식	1	0.8	-	-	-	-	-	-	-	-	-	-	1	0.5
장류	2	1.5	-	-	-	-	-	-					2	1.0
소스류	-	-	-	-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	-	-	-
김치류	-	-	-	-	-	-	1	2.7	-	-	-	-	1	0.5
젓갈류	-	-	-	-	1	5.6	-	-	-	-	-	-	1	0.5

절임식품	-	-	-	-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	-	–	–
조림식품	1	0.8	-	-	1	5.6	-	-	-	-	-	-	2	1.0
소주	-	-	-	-	1	5.6	-	-	-	-	-	-	1	0.5
맥주	-	-	-	-	-	-	1	2.7	-	-	-	-	1	0.5
포도주	-	-	-	-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1	0.8	-	-	-	-	1	2.7	-	-	-	-	2	1.0
건포류	1	0.8	-	-	-	-	-	-	-	-	-	-	1	0.5
건강식품	28	21.2	12	100.0	-	-	14	37.8	-	-	-	-	54	26.5
즉석식품	2	1.5	-	-	-	-	-	-	-	-	-	-	2	1.0
쇠고기	-	-	-	-	-	-	-	-	-	-	-	-	–	–
돼지고기	1	0.8	-	-	-	-	3	8.1	-	-	-	-	4	2.0
닭고기	-	-	-	-	-	-	1	2.7	-	-	-	-	1	0.5
오리고기	-	-	-	-	-	-	-	-	-	-	-	-	-	-
알류	1	0.8	-	-	-	-	-	-	-	-	-	-	1	0.5
곡류	2	1.5	-	-	-	-	1	2.7	-	-	-	-	3	1.5
채소류	2	1.5	-	-	1	5.6	1	2.7	-	-	-	-	4	2.0
과일류	2	1.5	-	-	-	-	1	2.7	-	-	-	-	3	1.5
생선류	5	3.8	-	-	-	-	2	5.4	-	-	-	-	7	3.4
어패류	3	2.3	-	-	-	-	-	-	-	-	-	-	3	1.5
해조류	-	-	-	-	-	-	-	-	-	-	-	-		0.0
식용종자·버섯류	-	-	-	-	-	-	1	2.7	-	-	-	-	1	0.5
나물류	-	-	-	-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	-	-	-	–	–
견과류	2	1.5	-	-	-	-	-	-	-	-	-	-	2	1.0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	-	-	-
한식	1	0.8	-	-	3	16.7	1	2.7	1	33.3	-	-	-	-
일식	7	5.3	-	-	-	-	-	-	1	33.3	-	-	8	3.9
중식	-	-	-	-	-	-	-	-	-	-	-	-	–	–
분식	-	-	-	-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3	2.3	-	-	2	11.1	-	-	-	-	-	-	5	2.5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	-	–	–
기타육류	1	0.8	-	-	-	-	-	-	-	-	-	-	1	0.5
기타식품류	2	1.5	-	-	-	-	-	-	-	-	1	50.0	3	1.5
총합계	132	100.0	12	100.0	18	100.0	37	100.0	3	100.0	2	100.0	204	100.0

○ 9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203건으로 건강식품이 75건(36.9%)으로 가장 많고, 우유류 18건(8.9%), 빵류 9건(4.4%), 생선류와 일식이 각각 7건(3.4%)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9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이상증세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8	6.1	-	-	1	4.3	-	-	-	-	-	-	9	4.4
케익류	-	-	-	-	-	-	-	-	-	-	-	-	-	-
떡류	-	-	-	-	1	4.3	1	3.2	-	-	-	-	2	1.0
과자류	1	0.8	-	-	2	8.7	-	-	-	-	-	-	3	1.5
코코아가공품류	1	0.8	-	-	1	4.3	-	-	-	-	-	-	2	1.0
설탕	-	-	-	-	-	-	-	-	-	-	-	-	-	-
꿀	-	-	-	-	-	-	-	-	-	-	-	-	-	-
엿류	-	-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4	3.0	-	-	2	8.7	-	-	-	-	-	-	6	3.0
우유류	16	12.1	-	-	-	-	2	6.5	-	-	-	-	18	8.9
발효유류	1	0.8	-	-	-	-	-	-	-	-	-	-	1	0.5
분유류	-	-	-	-	-	-	-	-	-	-	-	-	-	-
치즈·버터류	-	-	-	-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1	0.8	-	-	-	-	-	-	-	-	-	-	1	0.5
치킨류	-	-	-	-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4	3.0	-	-	2	8.7	-	-	-	-	-	-	6	3.0
어묵제품류	-	-	-	-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	-	-	-
라면류	4	3.0	-	-	-	-	-	-	-	-	-	-	4	2.0
건면류	-	-	-	-	-	-	-	-	-	-	-	-	-	-
생면류	1	0.8	-	-	-	-	-	-	-	-	-	-	1	0.5
다류	1	0.8	-	-	-	-	-	-	-	-	-	-	1	0.5
커피	-	-	-	-	-	-	-	-	-	-	-	-	-	-
탄산음료류	4	3.0	-	-	-	-	-	-	-	-	-	-	4	2.0
과·채음료류	4	3.0	-	-	-	-	-	-	-	-	-	-	4	2.0
생수	2	1.5	-	-	-	-	-	-	-	-	-	-	2	1.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0.8	-	-	-	-	-	-	-	-	-	-	1	0.5
장류	1	0.8	-	-	-	-	-	-	-	-	-	-	1	0.5
소스류	1	0.8	-	-	-	-	-	-	-	-	-	-	1	0.5
드레싱류	-	-	-	-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	-	-	-
조림식품	1	0.8	-	-	-	-	1	3.2	-	-	-	-	2	1.0

소주	-	-	-	-	-	-	-	-	-	-	-	-	–	–
맥주	-	-	-	-	-	-	-	-	-	-	-	-	–	–
포도주	-	-	-	-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	-	–	–
건포류	1	0.8	-	-	2	8.7	-	-	-	-	-	-	3	1.5
건강식품	41	31.1	12	75.0	-	-	21	67.7	-	-	1	100.0	75	36.9
즉석식품	1	0.8	-	-	-	-	-	-	-	-	-	-	1	0.5
쇠고기	1	0.8	-	-	1	4.3	-	-	-	-	-	-	2	1.0
돼지고기	-	-	1	6.3	2	8.7	-	-	-	-	-	-	3	1.5
닭고기	1	0.8	-	-	1	4.3	-	-	-	-	-	-	2	1.0
오리고기	-	-	-	-	-	-	-	-	-	-	-	-	–	–
알류	2	1.5	-	-	-	-	-	-	-	-	-	-	2	1.0
곡류	-	-	-	-	-	-	-	-	-	-	-	-	–	–
채소류	2	1.5	-	-	-	-	-	-	-	-	-	-	2	1.0
과일류	2	1.5	-	-	-	-	-	-	-	-	-	-	2	1.0
생선류	5	3.8	1	6.3	-	-	1	3.2	-	-	-	-	7	3.4
어패류	3	2.3	-	-	1	4.3	1	3.2	-	-	-	-	5	2.5
해조류	2	1.5	-	-	1	4.3	-	-	-	-	-	-	3	1.5
식용종자·버섯류	2	1.5	1	6.3	-	-	-	-	-	-	-	-	3	1.5
약용작물류	-	-	-	-	1	4.3	1	3.2	-	-	-	-	2	1.0
견과류	-	-	-	-	-	-	-	-	-	-	-	-	–	–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	-	–	–
한식	3	2.3	-	-	3	13.0	-	-	-	-	-	-	6	3.0
일식	7	5.3	-	-	-	-	-	-	-	-	-	-	7	3.4
중식	-	-	-	-	-	-	-	-	-	-	-	-	–	–
분식	-	-	-	-	2	8.7	1	3.2	-	-	-	-	3	1.5
패스트푸드점	2	1.5	1	6.3	-	-	1	3.2	-	-	-	-	4	2.0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0.8	-	-	-	-	-	-	-	-	-	-	1	0.5
기타육류	-	-	-	-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1	3.2	-	-	-	-	1	0.5
총합계	132	100.0	16	100.0	23	100.0	31	100.0	0	0	1	100.0	203	100.0

○ 10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177건으로 건강식품이 54건(30.5%)으로 가장 많고, 우유류가 10건(5.6%), 한식과 일식이 각각 9건(5.1%), 빵류와 과자류가 각각 8건(4.5%) 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10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이상증세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5	4.5	-	-	3	12.0	-	-	-	-	-	-	8	4.5
케익류	-	-	-	-	-	-	-	-	-	-	-	-	-	-
떡류	-	-	-	-	2	8.0	-	-	-	-	-	-	2	1.1
과자류	4	3.6	-	-	4	16.0	-	-	-	-	-	-	8	4.5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	-	-	-
설탕	-	-	-	-	-	-	-	-	-	-	-	-	-	-
포도당/과당	-	-	-	-	-	-	-	-	-	-	-	-	-	-
꿀	1	0.9	-	-	-	-	-	-	-	-	-	-	1	0.6
엿류	-	-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3	2.7	-	-	2	8.0	-	-	-	-	-	-	5	2.8
빙과류	1	0.9	-	-	-	-	-		-	-	-	-	1	0.6
우유류	9	8.0	-	-	-	-	1	4.2	-	-	-	-	10	5.6
발효유류	4	3.6	-	-	-	-	-		-	-	-	-	4	2.3
분유류	1	0.9	-	-	-	-	-		1	16.7	-	-	2	1.1
치즈·버터류	-	-	-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2	8.0	-		-	-	-	-	2	1.1
치킨류	1	0.9	-	-	-	-	-		-	-	-	-	1	0.6
기타육류가공품	2	1.8	-	-	-	-	1	4.2	-	-	-	-	3	1.7
알가공품	-	-	-	-	-	-	-	-	-	-	-	-	-	-
어묵제품류	1	0.9	-	-	-	-	-	-	-	-	-	-	1	0.6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	-	-	-
라면류	1	0.9	-	-	-	-	-	-	-	-	-	-	1	0.6
건면류	-	-	-	-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	-	-	-
다류	-	-	-	-	-	-	-	-	-	-	-	-	-	-
커피	3	2.7	-	-	-	-	-	-	-	-	-	-	3	1.7
탄산음료류	1	0.9	-	-	-	-	-	-	-	-	-	-	1	0.6
과·채음료류	1	0.9	-	-	-	-	-	-	-	-	-	-	1	0.6
생수	-	-	-	-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	-	-	-
이유식	2	1.8	-	-	-	-	-	-	-	-	-	-	2	1.1
장류	1	0.9	-	-	-	-	-	-	-	-	-	-	1	0.6
소스류	-	-	-	-	1	4.0	-	-	-	-	-	-	1	0.6
김치류	-	-	-	-	1	4.0	-	-	-	-	-	-	1	0.6
젓갈류	-	-	-	-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	-	–	–
조림식품	–	–	-	-	1	4.0	2	8.3	-	-	-	-	3	1.7
소주	–	–	-	-	-	-	–		-	-	-	-	–	–
맥주	1	0.9	-	-	-	-	–		-	-	-	-	1	0.6
포도주	–	–	-	-	-	-	–		-	-	-	-	–	–
탁약주 (막걸리)	–	–	-	-	-	-	–		-	-	-	-	–	–
건포류	–	–	-	-	1	4.0	–		-	-	-	-	1	0.6
건강식품	25	22.3	10	100.0	-	-	19	79.2	–	–	-	-	54	30.5
즉석식품	5	4.5	-	-	-	-	-	-	–	–	-	-	5	2.8
쇠고기	3	2.7	-	-	-	-	-	-	1	16.7	-	-	4	2.3
돼지고기	–	–	-	-	-	-	-	-	–	–	-	-	–	–
닭고기	1	0.9	-	-	-	-	-	-	1	16.7	-	-	2	1.1
오리고기	1	0.9	-	-	-	-	-	-	–	–	-	-	1	0.6
알류	3	2.7	-	-	-	-	-	-	–	–	-	-	3	1.7
곡류	3	2.7	-	-	-	-	-	-	–	–	-	-	3	1.7
채소류	–	–	-	-	-	-	-	-	–	–	-	-	–	–
과일류	–	–	-	-	1	4.0	-	-	–	–	-	-	1	0.6
생선류	4	3.6	-	-	1	4.0	-	-	1	16.7	-	-	6	3.4
어패류	1	0.9	-	-	-	-	1	4.2	-	-	-	-	2	1.1
해조류	–	–	-	-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	-	-	-	–	–
견과류	3	2.7	-	-	1	4.0	-	-	-	-	-	-	4	2.3
조미료(향신료	2	1.8	-	-	-	-	-	-	-	-	-	-	2	1.1
고추가루	–	–	-	-	-	-	-	-	-	-	-	-	–	–
한식	5	4.5	-	-	3	12.0	-	-	1	16.7	-	-	9	5.1
일식	9	8.0	-	-	-	-	-	-	–	–	-	-	9	5.1
중식	1	0.9	-	-	-	-	-	-	–	–	-	-	1	0.6
분식	–	–	-	-	-	-	-	-	1	16.7	-	-	1	0.6
노점상	–	–	-	-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3	2.7	-	-	2	8.0	-	-	-	-	-	-	5	2.8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	-	–	–
기타주류 (양주, 청주 등)	–	–	-	-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	-	–	–
기타식품류	1	0.9	–	–	-	-	-	-	-	-	-	-	1	0.6
총합계	112	100.0	10	100.0	25	100.0	24	100.0	6	100.0	0	0	177	100.0

○ 11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169건으로 건강식품이 36건(21.3%)으로 가장 많고, 한식이 14건(8.4%), 과자류 13건(7.7%), 빵류 8건(4.7%), 어패류 7건(4.1%) 순 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11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이상증세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5	5.7	-	-	3	9.4	-	-	-	-	-	-	8	4.7
케익류	-	-	-	-	-	-	-	-	-	-	-	-	-	-
떡류	-	-	-	-	-	-	-	-	-	-	-	-	-	-
과자류	4	4.6	-	-	9	28.1	-	-	-	-	-	-	13	7.7
코코아가공품류	2	2.3	-	-	1	3.1	1	2.9	-	-	-	-	4	2.4
잼류	-	-	-	-	-	-	-	-	-	-	-	-	-	-
꿀	-	-	-	-	-	-	-	-	-	-	-	-	-	-
엿류	-	-	-	-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1	1.1	-	-	2	6.3	-	-	-	-	-	-	3	1.8
우유류	6	6.9	-	-	-	-	-	-	-	-	-	-	6	3.6
발효유류	-	-	-	-	-	-	-	-	-	-	-	-	-	-
분유류	5	5.7	-	-	-	-	-	-	-	-	-	-	5	3.0
치즈·버터류	-	-	-	-	-	-	1	2.9	-	-	-	-	1	0.6
햄 및 소시지류	1	1.1	-	-	-	-	-	-	-	-	-	-	1	0.6
치킨류	1	1.1	-	-	1	3.1	1	2.9	-	-	-	-	3	1.8
기타육류가공품	-	-	-	-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	-	-	-
라면류	3	3.4	-	-	1	3.1	1	2.9	-	-	-	-	5	3.0
건면류	-	-	-	-	1	3.1		0.0	-	-	-	-	1	0.6
생면류	-	-	-	-	-	-	-	-	-	-	-	-	-	-
다류	-	-	-	-	-	-	-	-	-	-	-	-	-	-
커피	1	1.1	-	-	-	-	2	5.9	-	-	-	-	3	1.8
탄산음료류	1	1.1	-	-	-	-	1	2.9	-	-	-	-	2	1.2
과·채음료류	4	4.6	-	-	-	-	1	2.9	-	-	-	-	5	3.0
생수	1	1.1	-	-	-	-	-	-	-	-	-	-	1	0.6
특수용도식품(환자식)	2	2.3	-	-	-	-	-	-	-	-	-	-	2	1.2
이유식	1	1.1	-	-	-	-	-	-	-	-	-	-	1	0.6
장류	-	-	-	-	-	-	-	-	-	-	-	-	-	-
소스류	-	-	-	-	-	-	-	-	-	-	-	-	-	-
김치류	-	-	-	-	1	3.1	-	-	-	-	-	-	1	0.6
젓갈류	2	2.3	-	-	-	-	-	-	-	-	-	-	2	1.2
절임식품	-	-	-	-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	-	-	-
소주	-	-	-	-	-	-	-	-	-	-	-	-	-	-
맥주	-	-	-	-	-	-	-	-	-	-	-	-	-	-
포도주	-	-	-	-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2	2.3	-	-	-	-	-	-	-	-	-	-	2	1.2

건포류	1	1.1	-	-	1	3.1	-	-	-	-	-	-	2	1.2
건강식품	14	16.1	7	100.0	-	-	15	44.1	-	-	-	-	36	21.3
즉석식품	1	1.1	-	-	-	-	3	8.8	-	-	-	-	4	2.4
쇠고기	3	3.4	-	-	1	3.1	-	-	-	-	-	-	4	2.4
돼지고기	-	-	-	-	1	3.1	1	2.9	1	11.1	-	-	3	1.8
닭고기	-	-	-	-	-	-	-	-	-	-	-	-	-	-
오리고기	-	-	-	-	-	-	-	-	-	-	-	-	-	-
알류	-	-	-	-	-	-	-	-	-	-	-	-	-	-
곡류	-	-	-	-	-	-	1	2.9	-	-	-	-	1	0.6
채소류	-	-	-	-	-	-	1	2.9	-	-	-	-	1	0.6
과일류	-	-	-	-	-	-	1	2.9	-	-	-	-	1	0.6
생선류	1	1.1	-	-	-	-	-	-	1	11.1	-	-	2	1.2
어패류	2	2.3	-	-	3	9.4	1	2.9	1	11.1	-	-	7	4.1
해조류	-	-	-	-	1	3.1	-	-	-	-	-	-	1	0.6
식용종자·버섯류	1	1.1	-	-	-	-	-	-	-	-	-	-	1	0.6
나물류	-	-	-	-	-	-	-	-	-	-	-	-	-	-
약용작물류	3	3.4	-	-	-	-	-	-	-	-	-	-	3	1.8
견과류	-	-	-	-	-	-	1	2.9	-	-	-	-	1	0.6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	-	-	-
고추가루	1	1.1	-	-	-	-	-	-	-	-	-	-	1	0.6
한식	4	4.6	-	-	5	15.6	-	-	5	55.6	-	-	14	8.3
일식	5	5.7	-	-	-	-	-	-	1	11.1	-	-	6	3.6
중식	-	-	-	-	-	-	-	-	-	-	-	-	-	-
분식	1	1.1	-	-	-	-	-	-	-	-	-	-	1	0.6
패스트푸드점	6	6.9	-	-	-	-	-	-	-	-	-	-	6	3.6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	-	-	-
기타육류	1	1.1	-	-	-	-	-	-	-	-	-	-	1	0.6
기타식품류	1	1.1	-	-	-	-	-	-	-	-	-	-	2	1.2
총합계	87	100.0	7	100.0	32	100.0	34	-	-	-	-	-	169	100.0

○ 12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155건으로 건강식품이 29건(18.7%)으로 가장 많고, 빵 10건(6.5%), 어패류 9건(5.8%), 우유류 8건(5.2%), 한식과 패스트푸드점, 과자류가 각각 7건(4.5%)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12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이상증세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	4.0	-	-	4	12.1	2	6.3	1	11.1	-	-	10	6.5
케익류	1	1.3	-	-	2	6.1	1	3.1	-	-	-	-	4	2.6
떡류	1	1.3	-	-	1	3.0	-	-	-	-	-	-	2	1.3
과자류	-	-	-	-	6	18.2	1	3.1	-	-	-	-	7	4.5
코코아가공품류	1	1.3	-	-	-	-	-	-	-	-	-	-	1	0.6
잼류	-	-	-	-	-	-	-	-	-	-	-	-	-	-
설탕	-	-	-	-	-	-	-	-	-	-	-	-	-	-
꿀	-	-	-	-	-	-	1	3.1	-	-	-	-	1	0.6
엿류	-	-	-	-	1	3.0	-	-	-	-	-	-	1	0.6
당시럽류	1	1.3	-	-	-	-	-	-	-	-	-	-	1	0.6
아이스크림류	-	-	-	-	4	12.1	-	-	-	-	-	-	4	2.6
빙과류	1	1.3	-	-	-	-	-	-	-	-	-	-	1	0.6
우유류	7	9.3	1	16.7	-	-	-	-	-	-	-	-	8	5.2
발효유류	1	1.3	-	-	-	-	-	-	-	-	-	-	1	0.6
분유류	2	2.7	-	-	-	-	1	3.1	-	-	-	-	3	1.9
치즈·버터류	-	-	-	-	-	-	1	3.1	-	-	-	-	1	0.6
햄 및 소시지류	3	4.0	-	-	-	-	-	-	-	-	-	-	3	1.9
치킨류	-	-	-	-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2	2.7	-	-	-	-	-	-	-	-	-	-	2	1.3
어묵제품류	1	1.3	-	-	-	-	-	-	-	-	-	-	1	0.6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1	3.1	-	-	-	-	1	0.6
라면류	3	4.0	-	-	-	-	-	-	-	-	-	-	3	1.9
건면류	-	-	-	-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	-	-	-
다류	-	-	-	-	-	-	-	-	1	11.1	-	-	1	0.6
커피	-	-	-	-	-	-	-	-	-	-	-	-	-	-
탄산음료류	-	-	-	-	-	-	-	-	-	-	-	-	-	-
과·채음료류	2	2.7	-	-	-	-	-	-	-	-	-	-	2	1.3
생수	-	-	-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1	3.1	-	-	-	-	1	0.6
이유식	2	2.7	-	-	-	-	1	3.1	-	-	-	-	3	1.9
장류	-	-	-	-	-	-	-	-	-	-	-	-	-	-
소스류	-	-	-	-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	-	-	-
소주	-	-	-	-	-	-	-	-	-	-	-	-	-	-
맥주	1	1.3	-	-	-	-	-	-	-	-	-	-	1	0.6
포도주	-	-	-	-	-	-	1	3.1	-	-	-	-	1	0.6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	-	-	-
건포류	3	4.0	-	-	-	-	-	-	-	-	-	-	3	1.9
건강식품	12	16.0	4	66.7	-	-	13	40.6	-	-	-	-	29	18.7
즉석식품	3	4.0	-	-	1	3.0	-	-	-	-	-	-	4	2.6
쇠고기	1	1.3	-	-	2	6.1	-	-	-	-	-	-	3	1.9
돼지고기	-	-	-	-	1	3.0	1	3.1	-	-	-	-	2	1.3
닭고기	-	-	-	-	1	3.0	1	3.1	-	-	-	-	2	1.3
오리고기	-	-	-	-	-	-	-	-	-	-	-	-	-	-
알류	-	-	-	-	-	-	-	-	-	-	-	-	-	-
곡류	-	-	-	-	1	3.0	-	-	-	-	-	-	1	0.6
채소류	1	1.3	-	-	-	-	-	-	-	-	-	-	1	0.6
과일류	1	1.3	-	-	2	6.1	-	-	-	-	-	-	3	1.9
생선류	3	4.0	-	-	-	-	-	-	1	11.1	-	-	4	2.6
어패류	5	6.7	1	16.7	-	-	2	6.3	1	11.1	-	-	9	5.8
해조류	-	-	-	-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1	1.3	-	-	-	-	1	3.1	-	-	-	-	2	1.3
약용작물류	1	1.3	-	-	-	-	1	3.1	-	-	-	-	2	1.3
견과류	1	1.3	-	-	-	-	-	-	-	-	-	-	1	0.6
조미료(향신료	-	-	-	-	1	3.0	-	-	-	-	-	-	1	0.6
고추가루	-	-	-	-	-	-	-	-	-	-	-	-	-	-
한식	1	1.3	-	-	2	6.1	1	3.1	3	33.3	-	-	7	4.5
양식	-	-	-	-	-	-	-	-	-	-	-	-	-	-
일식	4	5.3	-	-	-	-	1	3.1	-	-	-	-	5	3.2
중식	-	-	-	-	-	-	-	-	-	-	-	-	-	-
분식	1	1.3	-	-	1	3.0	-	-	-	-	-	-	2	1.3
패스트푸드점	4	5.3	-	-	1	3.0	-	-	2	22.2	-	-	7	4.5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	-	-	-
기타식품류	1	1.3	-	-	2	6.1	-	-	-	-	-	-	3	1.9
총합계(중복응답)	75	100.0	6	100.0	33	100.0	32	100.0	9	100.0	-	0	155	100.0

(3) 유통기한

○ 1월~12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906건으로 과자류가 83건(9.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빵이 79건(8.7%), 우유류 70건(7.7%), 건강식품이 62건(6.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1월~12월)

품목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70	9.1	9	6.5	79	8.7
케익류	6	0.8	4	2.9	10	1.1
떡류	5	0.7	3	2.2	8	0.9
과자류	79	10.3	4	2.9	83	9.2
코코아가공품류	24	3.1	2	1.4	26	2.9
잼류			1	0.7	1	0.1
설탕	2	0.3	1	0.7	3	0.3
포도당/과당	2	0.3	-	-	2	0.2
꿀	0	0.0	-	-	-	-
엿류	1	0.1	-	-	1	0.1
당시럽류	2	0.3	1	0.7	3	0.3
올리고당류	-	-	-	-	-	-
아이스크림류	13	1.7	15	10.9	28	3.1
빙과류	1	0.1	2	1.4	3	0.3
우유류	68	8.9	2	1.4	70	7.7
발효유류	18	2.3	2	1.4	20	2.2
분유류	8	1.0	2	1.4	10	1.1
치즈·버터류	14	1.8	3	2.2	17	1.9
햄 및 소시지류	23	3.0	2	1.4	25	2.8
치킨류	1	0.1	-	-	1	0.1
기타육류가공품	29	3.8	5	3.6	34	3.8
알가공품	4	0.5	-	-	4	0.4
어묵제품류	10	1.3	2	1.4	12	1.3
두부류 또는 묵류	5	0.7			5	0.6
식용유지류	4	0.5	2	1.4	6	0.7
라면류	40	5.2	0	0.0	40	4.4
건면류	5	0.7	0	0.0	5	0.6
생면류	3	0.4	1	0.7	4	0.4
다류	2	0.3	2	1.4	4	0.4
커피	23	3.0	3	2.2	26	2.9
탄산음료류	28	3.6	2	1.4	30	3.3
과·채음료류	51	6.6	4	2.9	55	6.1
생수	2	0.3	2	1.4	4	0.4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이유식	1	0.1	-	-	1	0.1
장류	9	1.2	-	-	9	1.0
소스류	4	0.5	1	0.7	5	0.6
드레싱류	1	0.1		-	1	0.1
김치류	4	0.5	1	0.7	5	0.6
젓갈류	2	0.3	1	0.7	3	0.3
절임식품	3	0.4	-	-	3	0.3
절임배추	-	-	-	-		
조림식품	6	0.8	-	-	6	0.7
소주	-	-	-	-	-	-

맥주	8	1.0	-	-	8	0.9
포도주	-	-	-	-	-	-
탁약주(막걸리)	4	0.5	4	2.9	8	0.9
건포류	9	1.2	5	3.6	14	1.5
건강식품	50	6.5	12	8.7	62	6.8
즉석식품	22	2.9	4	2.9	26	2.9
쇠고기	3	0.4	1	0.7	4	0.4
돼지고기	5	0.7	2	1.4	7	0.8
닭고기	3	0.4	-	-	3	0.3
오리고기	2	0.3	-	-	2	0.2
알류	8	1.0	-	-	8	0.9
곡류	10	1.3	7	5.1	17	1.9
채소류	10	1.3	4	2.9	14	1.5
과일류	2	0.3	3	2.2	5	0.6
생선류	2	0.3	5	3.6	7	0.8
어패류	7	0.9	2	1.4	9	1.0
해조류	5	0.7	2	1.4	7	0.8
식용종자·버섯류	-	-	1	0.7	1	0.1
나물류	1	0.1	-	-	1	0.1
약용작물류	6	0.8	-	-	6	0.7
견과류	6	0.8	1	0.7	7	0.8
조미료(향신료	2	0.3	3	2.2	5	0.6
고추가루	-	-	1	0.7	1	0.1
한식	1	0.1	-	-	1	0.1
양식	2	0.3	-	-	2	0.2
일식	1	0.1	-	-	1	0.1
중식	-	-	-	-	-	-
분식	-	-	-	-	-	-
노점상	1	0.1	-	-	1	0.1
패스트푸드점	4	0.5	-	-	4	0.4
뷔페	1	0.1	-	-	1	0.1
복합조미식품	3	0.4	1	0.7	4	0.4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0.1	1	0.7	2	0.2
기타육류	1	0.1	-	-	1	0.1
기타식품류	5	0.7	-	-	5	0.6
미기재	10	1.3	-	-	10	1.1
총합계(중복응답)	768	100.0	138	100.0	906	100.0

○ 1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75건으로 건강식품과 과자류가 각각 9건(12.0%), 빵류가 6건(8.0%), 치즈버터류, 기타육류가공품이 각각 4건(5.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1월)

품목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6	10.5	-	-	6	8.0
케익류	1	1.8	2	11.1	3	4.0
떡류	-	-	-	-	-	-
과자류	9	15.8	-	-	9	12.0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	5.3	-	-	3	4.0
잼류	-	-	-	-	-	-
설탕	-	-	-	-	-	-
꿀	-	-	-	-	-	-
엿류	-	-	-	-	-	-
아이스크림류	1	1.8	-	-	1	1.3
우유류	2	3.5	-	-	2	2.7
발효유류	1	1.8	-	-	1	1.3
분유류	-	-	-	-	-	-
치즈버터류	3	5.3	1	5.6	4	5.3
햄 및 소시지류	1	1.8	-	-	1	1.3
치킨류	-	-	-	-	-	-
기타육류가공품	3	5.3	1	5.6	4	5.3
알가공품	1	1.8	-	-	1	1.3
어묵제품류	1	1.8	-	-	1	1.3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식용유지류	2	3.5	-	-	2	2.7
라면류	3	5.3	-	-	3	4.0
건면류	-	-	-	-	-	-
생면류	-	-	-	-	-	-
다류	-	-	-	-	-	-
커피	2	3.5	1	5.6	3	4.0
과채음료류	1	1.8	1	5.6	2	2.7
생수	-	-	-	-	-	-
특수용도식품	-	-	-	-	-	-
이유식	-	-	-	-	-	-
장류	-	-	-	-	-	-
소스류	1	1.8	1	5.6	2	2.7
김치류	-	-	-	-	-	-
젓갈류	-	-	3	16.7	3	4.0
절임식품	1	1.8	-	-	1	1.3
절임배추	-	-	-	-	-	-
조림식품	1	1.8	-	-	1	1.3
소주	-	-	-	-	-	-
맥주	1	1.8	-	-	1	1.3
건포류	-	-	-	-	-	-
건강식품	6	10.5	3	16.7	9	12.0
즉석식품	-	-	1	5.6	1	1.3
쇠고기	-	-	-	-	-	-
돼지고기	1	1.8	-	-	1	1.3
닭고기	-	-	-	-	-	-

알류	-	-	-	-	-	-
곡류	-	-	2	11.1	2	2.7
채소류	3	5.3	-	-	3	4.0
과일류	-	-	-	-	-	-
생선류	-	-	-	-	-	-
어패류	-	-	1	5.6	1	1.3
해조류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약용작물류	1	1.8	-	-	1	1.3
견과류	-	-	-	-	-	-
조미료	-	-	-	-	-	-
고추가루	-	-	-	-	-	-
한식	-	-	-	-	-	-
양식	-	-	-	-	-	-
일식	-	-	-	-	-	-
중식	-	--	-	-	-	-
분식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복합조미식품	-	-	1	5.6	1	1.3
기타주류	-	-	-	-	-	-
기타육류	-	-	-	-	-	-
기타식품류	-	-	-	-	-	-
비어 있음	2	3.5	-	-	2	2.7
총합계	57	100.0	18	100.0	75	100.0

○ 2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59건으로 과자류가 9건(15.3%)으로 가장 많았고, 우유류가 6건(10.2%), 빵류가 5건(8.5%)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2월)

품목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2	4.7	3	18.8	5	8.5
케익류	-	-	-	-	-	-
떡류	-	-	-	-	-	-
과자류	7	16.3	2	12.5	9	15.3
코코아가공품류	1	2.3	2	12.5	3	5.1
잼류	-	-	-	-	-	-
설탕	-	-	-	-	-	-
당시럽류	1	2.3	-	-	1	1.7
아이스크림류	-	-	2	12.5	2	3.4
빙과류	-	-	1	6.3	1	1.7
우유류	6	14.0	-	-	6	10.2
발효유류	2	4.7	-	-	2	3.4
분유류	1	2.3	-	-	1	1.7
치즈·버터류	-	-	-	-	-	-
햄 및 소시지류	1	2.3	1	6.3	2	3.4
치킨류	-	-	-	-	-	-
기타육류가공품	1	2.3	-	-	1	1.7
어묵제품류	1	2.3	1	6.3	2	3.4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식용유지류	-	-	-	-	-	-
라면류	3	7.0	-	-	3	5.1
생면류	-	-	-	-	-	-
다류	-	-	-	-	-	-
커피	2	4.7	-	-	2	3.4
탄산음료류	1	2.3	-	-	1	1.7
과·채음료류	3	7.0	-	-	3	5.1
생수	-	-	-	-	-	-
특수용도식품	-	-	-	-	-	-
이유식	-	-	-	-	-	-
장류	-	-	-	-	-	-
소스류	-	-	-	-	-	-
김치류	-	-	-	-	-	-
젓갈류	-	-	-	-	-	-
절임식품	-	-	-	-	-	-
절임배추	-	-	-	-	-	-
조림식품	1	2.3	-	-	1	1.7
소주	-	-	-	-	-	-
맥주	-	-	-	-	-	-
탁약주	1	2.3	-	-	1	1.7
건포류	-	-	-	-	-	-
건강식품	-	7.0	-	-	3	5.1
즉석식품	-	-	-	-	1	1.7
쇠고기	1	2.3	-	-	1	1.7
돼지고기	-	-	-	-	-	-

닭고기	-	-	-	-	-	-
알류	1	2.3	-	-	1	1.7
곡류	-	-	-	-	-	-
채소류	1	2.3	-	-	1	1.7
과일류	-	-	-	-	-	-
생선류	-	-	-	-	-	-
어패류	-	-	-	-	-	-
해조류	-	-	1	6.3	1	1.7
식용종자·버섯류	-	-	-	-	-	-
나물류	-	-	-	-	-	-
약용작물류	1	2.3	-	-	1	1.7
견과류	-	-	1	6.3	1	1.7
조미료	1	2.3	1	6.3	2	3.4
고추가루	-	-	-	-	-	-
한식	-	-	-	-	-	-
양식	-	-	-	-	-	-
일식	-	-	-	-	-	-
중식	-	-	-	-	-	-
분식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기타식품류	1	2.3	-	-	1	1.7
총합계	43	100.0	16	100.0	59	100.0

○ 3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83건으로 건강식품 9건(10.8%)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류가 8건(9.6%), 과·채음료류와 빵류. 라면류는 각각 5건(6.0%)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3월)

품목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5	7.4	-	-	5	6.0
케익류	1	1.5	-	-	1	1.2
떡류	-	-	1	6.7	1	1.2
과자류	8	11.8	-	-	8	9.6
코코아가공품류	1	1.5	-	-	1	1.2
잼류	-	-	-	-	-	-
설탕	-	-	-	-	-	-
꿀	-	-	-	-	-	-
엿류	-	-	-	-	-	-
아이스크림류	2	2.9	1	6.7	3	3.6
우유로	4	5.9	-	-	4	4.8
발효유류	3	4.4	-	-	3	3.6
분유류	-	-	2	13.3	2	2.4
치즈·버터류	1	1.5	-	-	1	1.2
햄 및 소시지류	5	7.4	-	-	5	6.0
치킨류	-	-	-	-	-	
기타육류가공품	2	2.9	1	6.7	3	3.6
알가공품	1	1.5	-	-	1	1.2
어묵제품류	-	-	1	6.7	1	1.2
식용유지류	-	-	1	6.7	1	1.2
라면류	5	7.4	-	-	5	6.0
건면류	-	-	-	-	-	-
다류	-	-	-	-	-	-
커피	3	4.4	-	-	3	3.6
탄산음료류	4	5.9	-	-	4	4.8
과·채음료류	5	7.4	-	-	5	6.0
생수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이유식	-	-	-	-	-	-
장류	-	-	-	-	-	-
소스류	-	-	-	-	-	-
드레싱류	-	-	-	-	-	-
김치류	1	1.5	-	-	1	1.2
젓갈류	-	-	-	-	-	-
절임식품	-	-	-	-	-	-
절임배추	-	-	-	-	-	-
조림식품	2	2.9	-	-	2	2.4
소주	-	-	-	-	-	-
맥주	-	-	-	-	-	-
포도주	-	-	-	-	-	-
탁약주	-	-	-	-	-	-
건포류	-	-	-	-	-	-
건강식품	4	5.9	5	33.3	9	10.8
즉석식품	2	2.9	-	-	2	2.4
쇠고기	-	-	-	-	-	-

돼지고기	-	-	-	-	-	-
닭고기	-	-	-	-	-	-
오리고기	-	-	-	-	-	-
알류	2	2.9	-	-	2	2.4
곡류	-	-	1	6.7	1	1.2
채소류	-	-	-	-	-	-
과일류	-	-	-	-	-	-
생선류	-	-	-	-	-	-
어패류	2	2.9	-	-	2	2.4
해조류	-	-	1	6.7	1	1.2
식용종자·버섯류	-	-	1	6.7	1	1.2
나물류	1	1.5	-	-	1	1.2
약용작물류	1	1.5	-	-	1	1.2
견과류	-	-	-	-	-	-
조미료	1	1.5	-	-	1	1.2
고추가루	-	-	-	-	-	-
한식	-	-	-	-	-	-
일식	-	-	-	-	-	-
중식	-	-	-	-	-	-
분식	-	-	-	-	-	-
노점상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기타주류	-	-	-	-	-	-
기타육류	-	-	-	-	-	-
기타식품류	2	2.9	-	-	2	2.4
총합계	68	100.0	15	100.0	83	100.0

○ 4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65건으로 과·채음료류가 9건(13.8%)으로 가장 많았고, 곡류가 5건(7.7%), 탄산음료류, 건강식품, 즉석식품이 각각 4건(6.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4월)

품목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2	3.5	-	-	2	3.1
케익류	-	-	-	-	-	0.0
떡류	1	1.8	-	-	1	1.5
과자류	3	5.3	-	-	3	4.6
코코아가공품류	1	1.8	-	-	1	1.5
설탕	-	-	-	-	-	-
꿀	-	-	-	-	-	-
엿류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빙과류	-	-	-	-	-	-
우유류	3	5.3	-	-	3	4.6
발효유류	-	-	-	-	-	-
분유류	2	3.5	-	-	2	3.1
치즈·버터류	2	3.5	-	-	2	3.1
햄 및 소시지류	-	-	-	-	-	-
치킨류	-	-	-	-	-	-
기타육류가공품	-	-	-	-	-	-
알가공품	-	-	-	-	-	-
어묵제품류	2	3.5	-	-	2	3.1
두부류 또는 묵류	1	1.8	-	-	1	1.5
식용유지류	-	-	-	-	-	-
라면류	2	3.5	-	-	2	3.1
건면류	1	1.8	-	-	1	1.5
생면류	-	-	-	-	-	-
다류	-	-	-	-	-	-
커피	2	3.5	-	-	2	3.1
탄산음료류	3	5.3	1	12.5	4	6.2
과·채음료류	8	14.0	1	12.5	9	13.8
생수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이유식	-	-	-	-	-	-
장류	1	1.8	-	-	-	-
소스류	1	1.8	-	-	-	-
김치류	-	-	-	-	-	-
젓갈류	-	-	-	-	-	-
절임식품	-	-	-	-	-	-
절임배추	-	-	-	-	-	-

조림식품	1	1.8	-	-	1	1.5
소주	-	-	-	-	-	–
맥주	-	-	-	-	-	–
건포류	-	-	-	-	-	–
건강식품	2	3.5	2	25	4	6.2
즉석식품	3	5.3	1	12.5	4	6.2
쇠고기	-	-	-	-	-	–
돼지고기	-	-	-	-	-	–
닭고기	1	1.8	-	-	1	1.5
오리고기	-	-	-	-	-	–
알류	-	-	-	-	-	–
곡류	4	7.0	1	12.5	5	7.7
채소류	-	-	1	12.5	1	1.5
과일류	-	-	1	12.5	1	1.5
생선류	-	-	-	-		–
어패류	3	5.3	-	-	3	4.6
해조류	2	3.5	-	-	2	3.1
식용종자·버섯류	-	-	-	-	-	–
약용작물류	-	-	-	-	-	–
견과류	-	-	-	-	-	–
조미료(향신료	-	-	-	-	-	–
고추가루	-	-	-	-	-	–
한식	-	-	-	-	-	–
일식	-	-	-	-	-	–
중식	-	-	-	-	-	–
분식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뷔페	-	-	-	-	-	–
복합조미식품	1	1.8	-	-	1	1.5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무응답	5	8.8	-	-	5	7.7
총합계	57	100.0	8	100	65	100.0

○ 5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84건으로 과자류가 8건(9.5%)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 과채음료류, 라면류, 빵류가 각각 7건(8.3%), 탄산음료류가 5건(6.0%)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5월)

품목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6	8.7	1	6.7	7	8.3
케익류	-	-	1	6.7	1	1.2
떡류	2	2.9	-	-	2	2.4
과자류	8	11.6	-	-	8	9.5
코코아가공품류	-	-	-	-	-	-
잼류	-	-	-	-	-	-
포도당/과당	1	1.4	-	-	1	1.2
꿀	-	-	-	-	-	-
엿류	1	1.4	-	-	1	1.2
당시럽류	-	-	-	-	-	-
올리고당류	-	-	-	-	-	-
아이스크림류	1	1.4	2	13.3	3	3.6
빙과류	-	-	1	6.7	1	1.2
우유류	4	5.8	-	-	4	4.8
발효유류	4	5.8	-	-	4	4.8
분유류	-	-	-	-	-	-
치즈·버터류	-	-	-	-	-	-
햄 및 소시지류	1	1.4	1	6.7	2	2.4
치킨류	-	-	-	-	-	-
기타육류가공품	2	2.9	-	-	2	2.4
알가공품	1	1.4	-	-	1	1.2
어묵제품류	2	2.9	-	-	2	2.4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식용유지류	-	-	-	-	-	-
라면류	7	10.1	-	-	7	8.3
건면류	-	-	-	-	-	-
생면류	-	-	-	-	-	-
다류	-	-	-	-	-	-
커피	2	2.9	-	-	2	2.4
탄산음료류	5	7.2	-	-	5	6.0
과·채음료류	7	10.1	-	-	7	8.3
생수	-	-	1	6.7	1	1.2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이유식	-	-	-	-	-	-
장류	1	1.4	-	-	1	1.2
드레싱류	2	2.9	-	-	2	2.4
김치류	1	1.4	-	-	1	1.2
젓갈류	-	-	-	-	-	-
절임식품	-	-	-	-	-	-
절임배추	-	-	-	-	-	-
조림식품	-	-	-	-	-	-
소주	-	-	-	-	-	-
맥주	-	-	-	-	-	-

포도주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건포류	-	-	1	6.7	1	1.2
건강식품	5	7.2	2	13.3	7	8.3
즉석식품	-	-	1	6.7	1	1.2
쇠고기	-	-	-	-	-	0.0
돼지고기	-	-	1	6.7	1	1.2
닭고기	-	-	-	-	-	–
오리고기	-	-	-	-	-	–
알류	-	-	-	-	-	–
곡류	-	-	-	-	-	–
채소류	2	2.9	1	6.7	3	3.6
과일류	-	-				–
생선류	-	-	1	6.7	1	1.2
어패류	-	-	1	6.7	1	1.2
해조류	1	1.4	-	-	1	1.2
식용종자·버섯류	-	-	-	-	-	–
나물류	-	-	-	-	-	–
약용작물류	-	-	-	-	-	–
견과류	-	-	-	-	-	–
조미료(향신료	-	-	-	-	-	–
고추가루	-	-	-	-	-	–
한식	-	-	-	-	-	–
양식	-	-	-	-	-	–
일식	-	-	-	-	-	–
중식	-	-	-	-	-	–
분식	-	-	-	-	-	–
노점상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뷔페	-	-	-	-	-	–
복합조미식품	1	1.4	-	-	1	1.2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기타육류	-	-	-	-	-	–
무응답	2	2.9	-	-	2	2.4
총합계	69	100.0	15	100.0	84	100.0

○ 6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93건으로 빵류가 9건(9.7%) 으로 가장 많았고, 우유류가 8건(8.6%), 건강식품이 7건(7.5%), 과자류가 5건(5.4%)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6월)

품목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6	7.2	3	30	9	9.7
케익류	1	1.2	-	-	1	1.1
떡류	-	-	-	-	-	-
과자류	5	6.0	-	-	5	5.4
코코아가공품류	-	-	-	-	-	-
잼류	-	-	-	-	-	-
설탕	2	2.4	-	-	2	2.2
포도당/과당	-	-	-	-	-	-
꿀	-	-	-	-	-	-
엿류	-	-	-	-	-	-
당시럽류	1	1.2	-	-	1	1.1
아이스크림류	-	-	2	20	2	2.2
빙과류	-	-	-	-	-	0.0
우유류	8	9.6	-	-	8	8.6
발효유류	1	1.2	-	-	1	1.1
분유류	-	-	-	-	-	-
치즈·버터류	2	2.4	-	-	2	2.2
햄 및 소시지류	4	4.8	-	-	4	4.3
치킨류	1	1.2	-	-	1	1.1
기타육류가공품	1	1.2	-	-	1	1.1
알가공품	-	-	-	-	-	-
어묵제품류	2	2.4	-	-	2	2.2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식용유지류	-	-	-	-	-	-
라면류	4	4.8	-	-	4	4.3
건면류	1	1.2	-	-	1	1.1
생면류	1	1.2	1	10	2	2.2
다류	1	1.2	-	-	1	1.1
커피	2	2.4	-	-	2	2.2
탄산음료류	3	3.6	-	-	3	3.2
과·채음료류	4	4.8	-	-	4	4.3
생수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이유식	1	1.2	-	-	1	1.1
장류	1	1.2	-	-	1	1.1
소스류	-	-	-	-	-	-
드레싱류	-	-	-	-	-	-
김치류	-	-	-	-	-	-
젓갈류	-	-	-	-	-	-
절임식품	-	-	-	-	-	-
절임배추	-	-	-	-	-	-
조림식품	-	-	-	-	-	-
소주	-	-	-	-	-	-
맥주	2	2.4	-	-	2	2.2
포도주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1	1.1

건포류	1	1.2	-	-	1	1.1
건강식품	6	7.2	1	10	7	7.5
즉석식품	3	3.6	-	-	3	3.2
쇠고기	1	1.2	-	-	1	1.1
돼지고기	1	1.2	-	-	1	1.1
닭고기	1	1.2	-	-	1	1.1
오리고기	1	1.2	-	-	1	1.1
알류	4	4.8	-	-	4	4.3
곡류	2	2.4	-	-	2	2.2
채소류	-	-	-	-	-	–
과일류	-	-	-	-	-	–
생선류	-	-	2	20	2	2.2
어패류	1	1.2	-	-	1	1.1
해조류	1	1.2	-	-	1	1.1
식용종자·버섯류	-	-	-	-	-	–
약용작물류	-	-	-	-	-	–
견과류	1	1.2	-	-	1	1.1
조미료(향신료	-	-	-	-	-	–
고추가루	-	-	-	-	-	–
한식	-	-	-	-	-	–
양식	-	-	-	-	-	–
일식	1	1.2	-	-	1	1.1
중식	-	-	-	-	-	–
분식	-	-	-	-	-	–
노점상	1	1.2	-	-	1	1.1
패스트푸드점	2	2.4	-	-	2	2.2
복합조미식품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1.2	-	-	1	1.1
기타육류	-	-	-	-	-	–
미기재	1	1.2	-	-	1	1.1
총합계	83	100.0	10	100	93	100.0

○ 7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77건으로 빵류와 우유류가 각각 8건(10.4%). 아이스크림류가 7건(9.1%), 기타육류가공품과 과·채음료류가 각각 6건(7.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7월)

품목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7	11.3	1	6.7	8	10.4
케익류	1	1.6	-	-	1	1.3
떡류		-	-	-	-	–
과자류	1	1.6	1	6.7	2	2.6
코코아가공품류	1	1.6	-	-	1	1.3
설탕	-	-	-	-	-	–
꿀	-	-	-	-	-	–
당시럽류	-	-	1	6.7	1	1.3
아이스크림류	2	3.2	5	33.3	7	9.1
빙과류	1	1.6		0.0	1	1.3
우유류	7	11.3	1	6.7	8	10.4
발효유류	-	-	2	13.3	2	2.6
분유류	1	1.6	-	-	1	1.3
치즈·버터류	1	1.6	-	-	1	1.3
햄 및 소시지류	3	4.8	-	-	3	3.9
치킨류	-	-	-	-	-	–
기타육류가공품	6	9.7	-	-	6	7.8
알가공품	-	-	-	-	-	–
어묵제품류	1	1.6	-	-	1	1.3
두부류 또는 묵류	2	3.2	-	-	2	2.6
식용유지류	1	1.6	-	-	1	1.3
라면류	3	4.8	-	-	3	3.9
건면류	1	1.6	-	-	1	1.3
생면류	1	1.6	-	-	1	1.3
다류	-	-	-	-	-	–
커피	2	3.2	-	-	2	2.6
탄산음료류	-	-	-	-	-	–
과·채음료류	6	9.7	-	-	6	7.8
생수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이유식	-	-	-	-	-	–
장류	1	1.6	-	-	1	1.3
소스류	-	-	-	-	-	–
드레싱류	-	-	-	-	-	–
김치류	-	-	-	-	-	–
젓갈류	-	-	-	-	-	–
절임식품	-	-	-	-	-	–
조림식품	-	-	-	-	-	–
소주	-	-	-	-	-	–
맥주	-	-	-	-	-	–
탁약주(막걸리)	-	-	1	6.7	1	1.3
건포류	-	-	2	13.3	2	2.6

건강식품	3	4.8	-	-	3	3.9
즉석식품	1	1.6	-	-	1	1.3
쇠고기	-	-	-	-	-	-
돼지고기	-	-	-	-	-	-
닭고기	1	1.6	-	-	1	1.3
오리고기	-	-	-	-	-	-
알류	-	-	-	-	-	-
곡류	1	1.6	-	-	1	1.3
채소류	-	-	-	-	-	-
과일류	-	-	-	-	-	-
생선류	-	-	-	-	-	-
어패류	-	-	-	-	-	-
해조류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약용작물류	1	1.6	-	-	1	1.3
견과류	2	3.2	-	-	2	2.6
조미료(향신료	-	-	1	6.7	1	1.3
고추가루	-	-	-	-	-	-
한식	-	-	-	-	-	-
양식	1	1.6	-	-	1	1.3
일식	-	-	-	-	-	-
중식	-	-	-	-	-	-
분식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뷔페	1	1.6	-	-	1	1.3
복합조미식품	1	1.6	-	-	1	1.3
기타육류	1	1.6	-	-	1	1.3
기타식품류	-	-	-	-	-	-
총합계	62	100.0	15	100.0	77	100.0

○ 8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총 71건으로 건강식품 10건(14.1%)으로 가장 많았고, 빵류가 8건(11.3%), 우유류가 7건(9.9%), 과자류가 6건(8.5%)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8월)

품목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8	11.8	-	-	8	11.3
케익류	-	-	-	-	-	-
떡류	-	-	-	-	-	-
과자류	6	8.8	-	-	6	8.5
코코아가공품류	2	2.9	-	-	2	2.8
설탕	-	-	-	-	-	-
꿀	-	-	-	-	-	-
엿류	-	-	-	-	-	-
아이스크림류	3	4.4	-	-	3	4.2
빙과류	-	-	-	-	-	-
우유류	7	10.3	-	-	7	9.9
발효유류	3	4.4	-	-	3	4.2
분유류	2	2.9	-	-	2	2.8
치즈·버터류	-	-	-	-	-	-
햄 및 소시지류	1	1.5	-	-	1	1.4
치킨류	-	-	-	-	-	-
기타육류가공품	1	1.5	-	-	1	1.4
알가공품	-	-	-	-	-	-
어묵제품류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식용유지류	1	1.5	-	-	1	1.4
라면류	3	4.4	-	-	3	4.2
건면류	1	1.5	-	-	1	1.4
생면류	-	-	-	-	-	-
다류	1	1.5	1	33.3	2	2.8
커피	2	2.9	-	-	2	2.8
탄산음료류	2	2.9	-	-	2	2.8
과·채음료류	3	4.4	-	-	3	4.2
생수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이유식	-	-	-	-	-	-
장류	1	1.5	-	-	1	1.4
소스류	-	-	-	-	-	-
드레싱류	-	-	-	-	-	-
김치류	-	-	-	-	-	-
젓갈류	-	-	-	-	-	-
절임식품	-	-	-	-	-	-
절임배추	-	-	-	-	-	-
조림식품	-	-	-	-	-	-
소주	-	-	-	-	-	-
맥주	2	2.9	-	-	2	2.8
포도주	-	-	-	-	-	-
탁약주(막걸리)	1	1.5	1	33.3	2	2.8
건포류	1	1.5	1	33.3	2	2.8
건강식품	10	14.7	-	-	10	14.1

즉석식품	-	-	-	-	-	–
쇠고기	1	1.5	-	-	1	1.4
돼지고기	1	1.5	-	-	1	1.4
닭고기	-	-	-	-	-	–
오리고기	1	1.5	-	-	1	1.4
알류	-	-	-	-	-	–
곡류	1	1.5	-	-	1	1.4
채소류	-	-	-	-	-	–
과일류	1	1.5	-	-	1	1.4
생선류	-	-	-	-	-	–
어패류	-	-	-	-	-	–
해조류	1	1.5	-	-	1	1.4
식용종자·버섯류	-	-	-	-	-	–
나물류	-	-	-	-	-	–
약용작물류	-	-	-	-	-	–
견과류	-	-	-	-	-	–
조미료(향신료	-	-	-	-	-	–
고추가루	-	-	-	-	-	–
한식	-	-	-	-	-	–
일식	-	-	-	-	-	–
중식	-	-	-	-	-	–
분식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기타육류	-	-	-	-	-	–
기타식품류	1	1.5	-	-	1	1.4
총합계	68	100.0	3	100.0	71	100.0

❍ 9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56건으로 우유류과 건강식품이 각각 6건(10.7%)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류와 라면류, 과·채음료류가 각각 5건(8.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9월)

품목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	5.8	-	-	3	5.4
케익류	-	-	-	-	-	-
떡류	-	-	-	-	-	-
과자류	5	9.6	-	-	5	8.9
코코아가공품류	1	1.9	-	-	1	1.8
설탕	-	-	-	-	-	-
꿀	-	-	-	-	-	-
엿류	-	-	-	-	-	-
아이스크림류	2	3.8	-	-	2	3.6
우유류	6	11.5	-	-	6	10.7
발효유류	-	-	-	-	-	-
분유류	-	-	-	-	-	-
치즈·버터류	-	-	-	-	-	-
햄 및 소시지류	2	3.8	-	-	2	3.6
치킨류	-	-	-	-	-	-
기타육류가공품	2	3.8	1	25.0	3	5.4
어묵제품류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1	1.9	-	-	1	1.8
식용유지류	-	-	-	-	-	-
라면류	5	9.6	-	-	5	8.9
건면류	-	-	-	-	-	-
생면류	-	-	-	-	-	-
다류	-	-	-	-	-	-
커피	-	-	-	-	-	-
탄산음료류	4	7.7	-	-	4	7.1
과·채음료류	5	9.6	-	-	5	8.9
생수	1	1.9	1	25.0	2	3.6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장류	1	1.9	-	-	1	1.8
소스류	-	-	-	-	-	-
드레싱류	-	-	-	-	-	-
김치류	-	-	-	-	-	-
젓갈류	1	1.9	-	-	1	1.8
절임식품	-	-	-	-	-	-
절임배추	-	-	-	-	-	-
조림식품	-	-	-	-	-	-
소주	-	-	-	-	-	-
맥주	1	1.9	-	-	1	1.8
포도주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건포류	1	1.9	-	-	1	1.8
건강식품	6	11.5	-	-	6	10.7
즉석식품	3	5.8	-	-	3	5.4
쇠고기	-	-	-	-	-	-

돼지고기	-	-	-	-	-	–
닭고기	-	-	-	-	-	–
오리고기	-	-	-	-	-	–
알류	-	-	-	-	-	–
곡류	-	-	-	-	-	–
채소류	2	3.8	-	-	2	3.6
과일류	-	-	-	-		–
생선류	-	-	1	25.0	1	1.8
어패류	-	-	-	-	-	–
해조류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약용작물류	-	-	-	-	-	–
견과류	-	-	-	-	-	–
조미료(향신료	-	-	1	25.0	1	1.8
고추가루	-	-	-	-	-	–
한식	-	-	-	-	-	–
일식	-	-	-	-	-	–
중식	-	-	-	-	-	–
분식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기타육류	-	-	-	-	-	–
기타식품류	-	-	-	-	-	–
총합계	52	100.0	4	100.0	56	100.0

○ 10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83건으로 우유류와 기타육류가공품이 각각 9건(10.8%)으로 가장 많았고, 빵류가 8건(9.6%), 코코아가공품류와 과자류가 각각 6건(7.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10월)

품목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8	11.6	–	–	8	9.6
케익류	1	1.4	–	–	1	1.2
떡류	1	1.4	–	–	1	1.2
과자류	6	8.7	–	–	6	7.2
코코아가공품류	6	8.7	–	–	6	7.2
설탕	-	-	1	7.1	1	1.2
포도당/과당	1	1.4	-	–	1	1.2
꿀	-	-	-	–	–	–
엿류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빙과류	-	-	–	-	–	–
우유류	8	11.6	1	7.1	9	10.8
발효유류	2	2.9	–	-	2	2.4
분유류	-	-	–	-	-	–
치즈·버터류	1	1.4	1	7.1	2	2.4
햄 및 소시지류	1	1.4	–	-	1	1.2
치킨류	-	-	–	-	-	0.0
기타육류가공품	7	10.1	2	14.3	9	10.8
알가공품	1	1.4	–	-	1	1.2
어묵제품류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1	1.4	–	-	1	1.2
식용유지류	-	-	-	7.1	1	1.2
라면류	2	2.9	–	-	2	2.4
건면류	-	-	–	-	-	–
생면류	-	-	–	-	-	–
다류	-	-	–	-	-	–
커피	3	4.3	1	7.1	4	4.8
탄산음료류	2	2.9	1	7.1	3	3.6
과·채음료류	2	2.9	1	7.1	3	3.6
생수	1	1.4	–	-	1	1.2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이유식	-	-	-	-	-	–
장류	-	-	-	-	-	–
소스류	-	-	-	-	-	–
김치류	2	2.9	-	-	2	2.4
젓갈류	-	-	-	-	–	–
절임식품	1	1.4	-	-	1	1.2
조림식품	1	1.4	-	-	1	1.2
소주	-	-	-	-	–	–
맥주	1	1.4	-	-	1	1.2
포도주	-	-	-	-	–	–
탁약주(막걸리)	1	1.4	1	7.1	2	2.4
건포류	2	2.9	1	7.1	3	3.6
건강식품	4	5.8	1	7.1	5	6.0
즉석식품	1	1.4	-	-	1	1.2

쇠고기	-	-	-	-	-	–
돼지고기	-	-	-	-	-	–
닭고기	-	-	-	-	-	–
오리고기	-	-	-	-	-	–
알류	-	-	-	-	-	–
곡류	1	1.4	1	7.1	2	2.4
채소류	-	-	–		-	–
과일류	-	-	1	7.1	1	1.2
생선류	-	-	-	-	-	–
어패류	-	-	-	-	-	–
해조류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약용작물류	-	-	-	-	-	–
견과류	1	1.4	-	-	1	1.2
조미료(향신료	-	-	-	-	-	–
고추가루	-	-	-	-	-	–
한식	-	-	-	-	-	–
일식	-	-	-	-	-	–
중식	-	-	-	-	-	–
분식	-	-	-	-	-	–
노점상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기타육류	-	-	-	-	-	–
기타식품류	-	-	-	-	-	–
총합계	69	100.0	14	100.0	83	100.0

○ 11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73건으로 빵류 8건(11.0%)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류가 7건(9.6%), 코코아가공품류와 우유류, 과채음료류가 각각 5건(6.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11월)

품목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7	10.9	1	11.1	8	11.0
케익류	1	1.6	1	11.1	2	2.7
떡류	1	1.6	-	-	1	1.4
과자류	7	10.9	-	-	7	9.6
코코아가공품류	5	7.8	-	-	5	6.8
잼류	-	-	1	11.1	1	1.4
꿀	-	-	-	-	-	-
엿류	-	-	-	-	-	-
아이스크림류	-	-	1	11.1	1	1.4
우유류	5	7.8	-	-	5	6.8
발효유류	1	1.6	-	-	1	1.4
분유류	1	1.6	-	-	1	1.4
치즈·버터류	1	1.6	-	-	1	1.4
햄 및 소시지류	-	-	-	-	-	-
치킨류	-	-	-	-	-	-
기타육류가공품	4	6.3	-	-	4	5.5
어묵제품류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식용유지류	-	-	-	-	-	-
라면류	2	3.1	-	-	2	2.7
건면류	-	-	-	-	-	-
생면류	1	1.6	-	-	1	1.4
다류	-	-	-	-	-	-
커피	-	-	1	11.1	1	1.4
탄산음료류	2	3.1	-	-	2	2.7
과·채음료류	5	7.8	-	-	5	6.8
생수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이유식	-	-	-	-	-	-
장류	1	1.6	-	-	1	1.4
소스류	-	-	-	-	-	-
김치류	-	-	-	-	-	-
젓갈류	1	1.6	-	-	1	1.4
절임식품	-	-	-	-	-	-
절임배추	-	-	-	-	-	-
조림식품	-	-	-	-	-	-
소주	-	-	-	-	-	-
맥주	-	-	-	-	-	-
포도주	-	-	-	-	-	-
탁약주(막걸리)	1	1.6	-	-	1	1.4
건포류	1	1.6	-	-	1	1.4
건강식품	1	1.6	-	-	1	1.4
즉석식품	2	3.1	-	-	2	2.7
쇠고기	-	-	1	11.1	1	1.4
돼지고기	1	1.6	-	-	1	1.4

닭고기	-	-	-	-	-	-
오리고기	-	-	-	-	-	-
알류	-	-	-	-	-	-
곡류	-	-	1	11.1	1	1.4
채소류	3	4.7	-	-	3	4.1
과일류	1	1.6	-	-	1	1.4
생선류	2	3.1	-	-	2	2.7
어패류	1	1.6	-	-	1	1.4
해조류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나물류	-	-	-	-	-	-
약용작물류	2	3.1	-	-	2	2.7
견과류	1	1.6	-	-	1	1.4
조미료(향신료	-	-	-	-	-	-
고추가루	-	-	1	11.1	1	1.4
한식	1	1.6	-	-	1	1.4
일식	-	-	-	-	-	-
중식	-	-	-	-	-	-
분식	-	-	-	-	-	-
패스트푸드점	2	3.1	-	-	2	2.7
복합조미식품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1	11.1	1	1.4
기타육류	-	-	-	-	-	-
기타식품류	-	-	-	-	-	-
총합계(중복응답)	64	100.0	9	100.0	73	100.0

○ 12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74건으로 과자류가 15건(20.3%), 빵류 10건(13.5%), 우유류 7건(9.5%), 즉석식품과 치즈·버터류가 각각 4건(5.4%)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12월)

품목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0	16.1	-	-	10	13.5
케익류	-	-	-	-	-	-
떡류	-	-	2	16.7	2	2.7
과자류	14	22.6	1	8.3	15	20.3
코코아가공품류	1	1.6	-	-	1	1.4
잼류	-	-	-	-	-	-
설탕	-	-	-	-	-	-
꿀	-	-	-	-	-	-
엿류	-	-	-	-	-	-
당시럽류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빙과류	-	-	-	-	-	-
우유류	7	11.3	-	-	7	9.5
발효유류	1	1.6	-	-	1	1.4
분유류	1	1.6	-	-	1	1.4
치즈·버터류	3	4.8	1	8.3	4	5.4
햄 및 소시지류	3	4.8	-	-	3	4.1
치킨류	-	-	-	-	-	-
기타육류가공품	-	-	-	-	-	-
어묵제품류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식용유지류	-	-	-	-	-	-
라면류	1	1.6	-	-	1	1.4
건면류	1	1.6	-	-	1	1.4
생면류	-	-	-	-	-	-
다류	-	-	1	8.3	1	1.4
커피	1	1.6	-	-	1	1.4
탄산음료류	2	3.2	-	-	2	2.7
과·채음료류	2	3.2	1	8.3	3	4.1
생수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이유식	-	-	-	-	-	-
장류	2	3.2	-	-	2	2.7
소스류	-	-	-	-	-	-
김치류	1	1.6	1	8.3	2	2.7
젓갈류	-	-	-	-	-	-
절임배추	-	-	-	-	-	-
조림식품	-	-	-	-	-	-
소주	-	-	-	-	-	-
맥주	1	1.6	-	-	1	1.4
포도주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건포류	2	3.2	-	-	2	2.7
건강식품	-	-	-	-	-	-

즉석식품	4	6.5	-	-	4	5.4
쇠고기	-	-	-	-	-	-
돼지고기	1	1.6	1	8.3	2	2.7
닭고기	-	-	-	-	-	-
오리고기	-	-	-	-	-	-
알류	1	1.6	-	-	1	1.4
곡류	-	-	1	8.3	1	1.4
채소류	-	-	2	16.7	2	2.7
과일류	-	-	1	8.3	1	1.4
생선류	-	-	-	-	-	-
어패류	1	1.6	-	-	1	1.4
해조류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약용작물류	-	-	-	-	-	-
견과류	1	1.6	-	-	1	1.4
조미료(향신료	-	-	-	-	-	-
고추가루	-	-	-	-	-	-
한식	-	-	-	-	-	-
양식	1	1.6	-	-	1	1.4
일식	-	-	-	-	-	-
중식	-	-	-	-	-	-
분식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기타육류	-	-	-	-	-	-
기타식품류	-	-	-	-	-	-
총합계(중복응답)	62	100.0	12	100.0	74	100.0

(4) 변질

○ 1월~12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975건으로 과일류 286건(14.5%)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152건(7.7%), 곡류 130건(6.6%), 우유류 121건(6.1%) 빵류 119건(6.0%)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1월~12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42	3.3	74	15.2	3	1.5	119	6.0
케익류	11	0.9	12	2.5	3	1.5	26	1.3
떡류	21	1.6	19	3.9	4	2.0	44	2.2
과자류	21	1.6	32	6.6	6	3.0	59	3.0
코코아가공품류	9	0.7	4	0.8	-	-	13	0.7
잼류	2	0.2	2	0.4	1	0.5	5	0.3
설탕	-	-	-	-	-	-	-	-
포도당/과당	-	-	-	-	-	-	-	-
꿀	2	0.2	-	-	-	-	2	0.1
엿류	3	0.2	-	-	-	-	3	0.2
당시럽류	2	0.2	-	-	-	-	2	0.1
올리고당류	-	-	-	-	-	-	-	-
아이스크림류	5	0.4	4	0.8	2	1.0	11	0.6
빙과류	2	0.2	2	0.4	1	0.5	5	0.3
우유류	107	8.3	8	1.6	6	3.0	121	6.1
발효유류	14	1.1	1	0.2	2	1.0	17	0.9
분유류	3	0.2	0	0.0	2	1.0	5	0.3
치즈·버터류	12	0.9	29	6.0	-	-	41	2.1
햄 및 소시지류	12	0.9	7	1.4	1	0.5	20	1.0
치킨류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26	2.0	6	1.2	4	2.0	36	1.8
알가공품	7	0.5	2	0.4	0	0.0	9	0.5
어묵제품류	9	0.7	5	1.0	2	1.0	16	0.8
두부류 또는 묵류	7	0.5	-	-	1	0.5	8	0.4
식용유지류	-	-	-	-	4	2.0	4	0.2
라면류	2	0.2	11	2.3	2	1.0	15	0.8
건면류	2	0.2	4	0.8	-	-	6	0.3
생면류	4	0.3	5	1.0	2	1.0	11	0.6
다류	4	0.3	1	0.2	1	0.5	6	0.3
커피	6	0.5	2	0.4	1	0.5	9	0.5
탄산음료류	8	0.6	5	1.0	5	2.5	18	0.9
과·채음료류	14	1.1	13	2.7	-	-	27	1.4
생수	3	0.2	2	0.4	9	4.5	14	0.7
특수용도식품(환자식)	7	0.5	-	-	1	0.5	8	0.4
이유식	-	-	-	-	1	0.5	1	0.1
장류	15	1.2	9	1.9	1	0.5	25	1.3
소스류	3	0.2	2	0.4	-	-	5	0.3
드레싱류	3	0.2	-	-	-	-	3	0.2
김치류	11	0.9	-	-	2	1.0	13	0.7
젓갈류	12	0.9	-	-	2	1.0	14	0.7
절임식품	5	0.4	-	-	1	0.5	6	0.3
절임배추	8	0.6	-	-	9	4.5	17	0.9
조림식품	8	0.6	5	1.0	1	0.5	14	0.7

소주	2	0.2	1	0.2	1	0.5	4	0.2
맥주	2	0.2	-	-	3	1.5	5	0.3
포도주	2	0.2	1	0.2	-	-	3	0.2
탁약주(막걸리)	7	0.5	-	-	2	1.0	9	0.5
건포류	18	1.4	41	8.4	6	3.0	65	3.3
건강식품	44	3.4	22	4.5	16	8.0	82	4.2
즉석식품	21	1.6	10	2.1	4	2.0	35	1.8
쇠고기	33	2.6	1	0.2	8	4.0	42	2.1
돼지고기	18	1.4	1	0.2	4	2.0	23	1.2
닭고기	16	1.2	1	0.2	3	1.5	20	1.0
오리고기	3	0.2	2	0.4	-	-	5	0.3
알류	33	2.6	4	0.8	2	1.0	39	2.0
곡류	75	5.8	42	8.6	13	6.5	130	6.6
채소류	123	9.5	26	5.3	3	1.5	152	7.7
과일류	251	19.5	32	6.6	3	1.5	286	14.5
생선류	53	4.1	4	0.8	11	5.5	68	3.4
어패류	60	4.7	5	1.0	7	3.5	72	3.6
해조류	13	1.0	1	0.2	6	3.0	20	1.0
식용종자·버섯류	6	0.5	3	0.6	-	-	9	0.5
나물류	1	0.1	1	0.2	-	-	2	0.1
약용작물류	8	0.6	2	0.4	-	-	10	0.5
견과류	16	1.2	11	2.3	13	6.5	40	2.0
조미료(향신료	1	0.1	1	0.2	1	0.5	3	0.2
고추가루	1	0.1	1	0.2	2	1.0	4	0.2
한식	18	1.4	2	0.4	1	0.5	21	1.1
양식	-	-	-	-	-	-	-	-
일식	6	0.5	-	-	1	0.5	7	0.4
중식	-	-	-	-	-	-	-	-
분식	3	0.2	-	-	1	0.5	4	0.2
노점상	0	0.0	-	-	-	-	-	-
패스트푸드점	10	0.8	3	0.6	4	2.0	17	0.9
뷔페	1	0.1	-	-	-	-	1	0.1
복합조미식품	2	0.2	-	-	2	1.0	4	0.2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5	0.4	-	-	-	-	5	0.3
기타육류	3	0.2	-	-	1	0.5	4	0.2
기타식품류	2	0.2	2	0.4	1	0.5	5	0.3
미기재	1	0.1	-	-	-	-	1	0.1
총합계(중복응답)	1290	100.0	486	100.0	199	100.0	1975	100.0

○ 1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23건으로 채소류가 20건(16.3%)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가 18건(14.6%), 곡류가 9건(7.3%), 우유류와 장류, 건포류가 각각 6건(4.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1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	-	1	4.0	-	-	1	0.8
케익류	2	2.2	-	-	2	25.0	4	3.3
떡류	1	1.1	-	-	-	-	1	0.8
과자류	3	3.3	-	-	1	12.5	4	3.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1	1.1	1	4.0	-	-	2	1.6
잼류	-	-	1	4.0	-	-	1	0.8
설탕	-	-	-	-	-	-	-	-
꿀	-	-	-	-	-	-	-	-
엿류	1	1.1	-	-	-	-	1	0.8
아이스크림류	1	1.1	-	-	-	-	1	0.8
우유류	5	5.6	1	4.0	-	-	6	4.9
발효유류	-	-	-	-	-	-	-	-
분유류	-	-	-	-	-	-	-	-
치즈버터류	2	2.2	1	4.0	-	-	3	2.4
햄 및 소시지류	3	3.3	-	-	-	-	3	2.4
치킨류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	-	-	-	-	-	-	-
알가공품	2	2.2	-	-	-	-	2	1.6
어묵제품류	1	1.1	-	-	-	-	1	0.8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라면류	-	-	1	4.0	-	-	1	0.8
건면류	-	-	-	-	-	-	-	-
생면류	1	1.1	-	-	-	-	1	0.8
다류	-	-	-	-	-	-	-	-
커피	1	1.1	-	-	-	-	1	0.8
과채음료류	1	1.1	1	4.0	-	-	2	1.6
생수	-	-	-	-	-	-	-	-
특수용도식품	1	1.1	-	-	-	-	1	0.8
이유식	-	-	-	-	-	-	-	-
장류	6	6.7	-	-	-	-	6	4.9
소스류	-	-	-	-	-	-	-	-
김치류	1	1.1	-	-	-	-	1	0.8
젓갈류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절임배추	-	-	-	-	1	12.5	1	0.8
조림식품	2	2.2	1	4.0	-	-	3	2.4
소주	-	-	1	4.0	-	-	1	0.8
맥주	-	-	-	-	-	-	-	-
건포류	2	2.2	4	16.0	-	-	6	4.9
건강식품	3	3.3	-	-	-	-	3	2.4
즉석식품	1	1.1	1	4.0	-	-	2	1.6
쇠고기	-	-	-	-	-	-	-	-

돼지고기	2	2.2	-	-	-	-	2	1.6
닭고기	2	2.2	-	-	-	-	2	1.6
알류	-	-	-	-	-	-	-	-
곡류	6	6.7	3	12.0	-	-	9	7.3
채소류	16	17.8	3	12.0	1	12.5	20	16.3
과일류	13	14.4	4	16.0	1	12.5	18	14.6
생선류	2	2.2	-	-	-	-	2	1.6
어패류	4	4.4	-	-	1	12.5	5	4.1
해조류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약용작물류	2	2.2	-	-	-	-	2	1.6
견과류	1	1.1	-	-	1	12.5	2	1.6
조미료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한식	-	-	-	-	-	-	-	-
양식	-	-	-	-	-	-	-	-
일식	-	-	-	-	-	-	-	-
중식	-	-	-	-	-	-	-	-
분식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1	-	-	-	1	0.8
복합조미식품	-	-	-	-	-	-	-	-
기타주류	-	-	-	-	-	-	-	-
기타육류	1	1.1	-	-	-	-	1	0.8
기타식품류	-	-	-	-	-	-	-	-
비어 있음	-	-	-	-	-	-	-	-
총합계	90	100.0	25	100.0	8	100.0	123	100.0

○ 2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51건으로 과일류 38건(25.2%)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16건(10.6%), 어패류, 쇠고기, 건강식품이 각각 10건(6.6%), 곡류가 8건(5.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2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1	0.9	-	-	1	6.7	2	1.3
케익류	2	1.8	-	-	-	-	2	1.3
떡류	1	0.9	3	13.6	-	-	4	2.6
과자류	1	0.9	-	-	-	-	1	0.7
코코아가공품류	1	0.9	-	-	-	-	1	0.7
잼류	-	-	-	-	-	-	-	-
설탕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빙과류	-	-	-	-	-	-	-	-
우유류	1	0.9	-	-	1	6.7	2	1.3
발효유류	2	1.8	-	-	-	-	2	1.3
분유류	-	-	-	-	-	-	-	-
치즈·버터류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1	0.9	-	-	-	-	1	0.7
치킨류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1	0.9	-	-	-	-	1	0.7
어묵제품류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1	0.9	-	-	-	-	1	0.7
식용유지류	-	-	-	-	-	-	-	-
라면류	-	-	1	4.5	-	-	1	0.7
생면류	2	1.8	1	4.5	-	-	3	2.0
다류	-	-	1	4.5	-	-	1	0.7
커피	-	-	1	4.5	-	-	1	0.7
탄산음료류	1	0.9	-	-	1	6.7	2	1.3
과·채음료류	-	-	-	-	-	-	-	-
생수	-	-	-	-	3	20.0	3	2.0
특수용도식품	-	-	-	-	-	-	-	-
이유식	-	-	-	-	-	-	-	-
장류	3	2.6	-	-	-	-	3	2.0
소스류	-	-	-	-	-	-	-	-
김치류	1	0.9	-	-	-	-	1	0.7
젓갈류	-	-	-	-	-	-	-	-
절임식품	3	2.6	-	-	-	-	3	2.0
절임배추	1	0.9	-	-	-	-	1	0.7
조림식품	-	-	1	4.5	-	-	1	0.7
소주	-	-	-	-	-	-	-	-
맥주	-	-	-	-	-	-	-	-
탁약주	1	0.9	-	-	-	-	1	0.7
건포류	-	-	1	4.5	1	6.7	2	1.3
건강식품	8	7.0	2	9.1	-	-	10	6.6
즉석식품	-	-	1	4.5	-	-	1	0.7
쇠고기	8	7.0	-	-	2	13.3	10	6.6
돼지고기	1	0.9	-	-	-	-	1	0.7

닭고기	1	0.9	-	-	-	-	1	0.7
알류	1	0.9	-	-	-	-	1	0.7
곡류	5	4.4	1	4.5	2	13.3	8	5.3
채소류	14	12.3	2	9.1	-	-	16	10.6
과일류	33	28.9	5	22.7	-	-	38	25.2
생선류	4	3.5	-	-	-	-	4	2.6
어패류	8	7.0	-	-	2	13.3	10	6.6
해조류	1	0.9	-	-	-	-	1	0.7
식용종자·버섯류	1	0.9	-	-	-	-	1	0.7
나물류	-	-	-	-	-	-	-	–
약용작물류	1	0.9	1	4.5	-	-	2	1.3
견과류	-	-	1	4.5	-	-	1	0.7
조미료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한식	1	0.9	-	-	1	6.7	2	–
양식	-	-	-	-	-	-	-	–
일식	-	-	-	-	-	-	-	–
중식	-	-	-	-	-	-	-	–
분식	1	0.9	-	-	-	-	1	0.7
패스트푸드점	2	1.8	-	-	1	6.7	3	2.0
복합조미식품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총합계	114	100.0	22	100.0	15	100.0	151	100.0

○ 3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22건으로 과일류 16건(13.1%)으로 가장 많았고, 곡류와 채소류가 각각 9건(7.4%)씩 떡류가 8건(6.6%)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3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2	2.6	2	6.7	–	–	4	3.3
케익류	4	5.3	1	3.3	1	6.3	6	4.9
떡류	4	5.3	3	10.0	1	6.3	8	6.6
과자류	-	-	1	3.3	-	-	1	0.8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잼류	-	-	-	-	-	-	-	–
설탕	-	-	-	-	-	-	-	–
꿀	-	-	-	-	-	-	-	–
엿류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우유로	2	2.6	-	-	1	6.3	3	2.5
발효유류	1	1.3	1	3.3			2	1.6
분유류	1	1.3			1	6.3	2	1.6
치즈·버터류	2	2.6	1	3.3	-	-	3	2.5
햄 및 소시지류	3	3.9	-	-	-	-	3	2.5
치킨류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1	1.3	1	3.3	-	-	2	1.6
알가공품	1	1.3	-	-	-	-	1	0.8
어묵제품류	1	1.3	-	-	-	-	1	0.8
식용유지류	-	-	-	-	1	6.3	1	0.8
라면류	1	1.3	1	3.3	-	-	2	1.6
건면류	-	-	1	3.3	-	-	1	0.8
다류	-	-	-	-	-	-	-	–
커피	2	2.6	-	-	-	-	2	1.6
탄산음료류	-	-	1	3.3	-	-	1	0.8
과·채음료류	1	1.3	1	3.3	-	-	2	1.6
생수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1.3	-	-	-	-	1	0.8
이유식	-	-	-	-	1	6.3	1	0.8
장류	3	3.9	1	3.3	-	-	4	3.3
소스류	-	-	-	-	-	-	-	–
드레싱류	1	1.3	-	-	-	-	1	0.8
김치류	1	1.3	-	-	-	-	1	0.8
젓갈류	2	2.6	-	-	-	-	2	1.6
절임식품	-	-	-	-	-	-	-	–
절임배추	-	-	-	-	1	6.3	1	0.8
조림식품	-	-	1	3.3	-	-	1	0.8
소주	-	-	-	-	-	-	-	–
맥주	-	-	-	-	-	-	-	–
포도주	-	-	-	-	-	-	-	–
탁약주	-	-	-	-	-	-	-	–
건포류	1	1.3	3	10.0	1	6.3	5	4.1
건강식품	2	2.6	2	6.7	-	0.0	4	3.3
즉석식품	-	-			-	-	-	–

쇠고기	2	2.6	1	3.3	3	18.8	6	4.9
돼지고기	1	1.3	-	-	-	-	1	0.8
닭고기	1	1.3	-	-	1	6.3	2	1.6
오리고기	-	-	-	-	-	-	-	–
알류	-	-	-	-	-	-	-	–
곡류	6	7.9	3	10.0	-	-	9	7.4
채소류	7	9.2	2	6.7	-	-	9	7.4
과일류	13	17.1	1	3.3	2	12.5	16	13.1
생선류	3	3.9	-	-	-	-	3	2.5
어패류	1	1.3	-	-	-	-	1	0.8
해조류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나물류	-	-	-	-	-	-	-	–
약용작물류	1	1.3	-	-	-	-	1	0.8
견과류	2	2.6	1	3.3	2	12.5	5	4.1
조미료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한식	1	1.3	1	3.3	-	-	2	1.6
일식	-	-	-	-	-	-	-	–
중식	-	-	-	-	-	-	-	–
분식	-	-	-	-	-	-	-	–
노점상	-	-	-	-	-	-	-	–
패스트푸드점	1	1.3	-	-	-	-	1	0.8
복합조미식품	-	-	-	-	-	-	-	–
기타주류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합계	76	100.0	30	100.0	16	100.0	122	100.0

○ 4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96건으로 과일류 18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가 8건(8.3%), 곡류가 7건(7.3%), 빵류가 6건(6.3%)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4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1	1.6	5	18.5	-	-	6	6.3
케익류	-	-	-	-	-	-	-	-
떡류	-	-	1	3.7	-	-	1	1.0
과자류	1	1.6	2	7.4	-	-	3	3.1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설탕	-	-	-	-	-	-	-	-
꿀	-	-	-	-	-	-	-	-
엿류	1	1.6	-	-	-	-	1	1.0
아이스크림류	-	-	-	-	-	-	-	-
빙과류	-	-	1	3.7	-	-	1	1.0
우유류	3	4.7	-	-	-	-	3	3.1
발효유류	-	-	-	-	-	-	-	-
분유류	-	-	-	-	-	-	-	-
치즈·버터류	1	1.6	2	7.4	-	-	3	3.1
햄 및 소시지류	-	-	1	3.7	-	-	1	1.0
치킨류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2	3.1	1	3.7	-	-	3	3.1
알가공품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라면류	1	1.6	-	-	-	-	1	1.0
건면류	-	-	-	-	-	-	-	-
생면류	-	-	-	-	-	-	-	-
다류	-	-	-	-	-	-	-	-
커피	-	-	-	-	-	-	-	-
탄산음료류	-	-	-	-	-	-	-	-
과·채음료류	1	1.6	-	-	-	-	1	1.0
생수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이유식	-	-	-	-	-	-	-	-
장류	1	1.6	1	3.7	-	-	2	2.1
소스류	-	-	-	-	-	-	-	-
김치류	-	-	-	-	-	-	-	-
젓갈류	1	1.6	-	-	-	-	1	1.0
절임식품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조림식품	3	4.7	-	-	-	-	3	3.1
소주	-	-	-	-	-	-	-	-
맥주	-	-	-	-	-	-	-	-
건포류	3	4.7	2	7.4	2	40	7	7.3
건강식품	1	1.6	1	3.7	1	20	3	3.1
즉석식품	4	6.3	1	3.7	-	-	5	5.2
쇠고기	2	3.1	-	-	1	20	3	3.1

돼지고기	-	-	-	-	1	20	1	1.0
닭고기	1	1.6	-	-	-	-	1	1.0
오리고기	-	-	-	-	-	-	-	–
알류	-	-	-	-	-	-	-	–
곡류	5	7.8	2	7.4	-	-	7	7.3
채소류	6	9.4	2	7.4	-	-	8	8.3
과일류	14	21.9	4	14.8	-	-	18	18.8
생선류	2	3.1	-	-	-	-	2	2.1
어패류	6	9.4	-	-	-	-	6	6.3
해조류	1	1.6	-	-	-	-	1	1.0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견과류	1	1.6	1	3.7	-	-	2	2.1
조미료(향신료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한식	-	-	-	-	-	-	-	–
일식	-	-	-	-	-	-	-	–
중식	-	-	-	-	-	-	-	–
분식	-	-	-	-	-	-	-	–
패스트푸드점	1	1.6	-	-	-	-	1	1.0
뷔페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1.6	-	-	-	-	1	1.0
무응답	-	-	-	-	-	-	-	–
총합계	64	100.0	27	100.0	5	100	96	100.0

○ 5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42건으로 과일류가 13건(9.2%), 우유류가 12건(8.5%), 빵류가 11건(7.7%), 건강식품 10건(7.0%)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5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	3.7	8	16.7	-	-	11	7.7
케익류	1	1.2	1	2.1	-	-	2	1.4
떡류	1	1.2	1	2.1	-	-	2	1.4
과자류	2	2.5	2	4.2	-	-	4	2.8
코코아가공품류	-	-	1	2.1	-	-	1	0.7
잼류	1	1.2	1	2.1	-	-	2	1.4
포도당/과당	-	-	-	-	-	-	-	-
꿀	-	-	-	-	-	-	-	-
엿류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올리고당류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2	4.2	-	-	2	1.4
빙과류	-	-	-	-	-	-	-	-
우유류	11	13.6	-	-	1	7.7	12	8.5
발효유류	3	3.7	-	-	-	-	3	2.1
분유류	1	1.2	-	-	-	-	1	0.7
치즈·버터류			3	6.3	-	-	3	2.1
햄 및 소시지류	1	1.2	3	6.3	-	-	4	2.8
치킨류	-	0.0	-	0.0	-	-	-	-
기타육류가공품	2	2.5	1	2.1	-	-	3	2.1
알가공품	1	1.2	-	-	-	-	1	0.7
어묵제품류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라면류	-	-	-	-	-	-	-	-
건면류	-	-	-	-	-	-	-	-
생면류	-	-	-	-	-	-	-	-
다류	2	2.5	-	-	-	-	2	1.4
커피	1	1.2	-	-	1	7.7	2	1.4
탄산음료류	3	3.7	2	4.2	-	-	5	3.5
과·채음료류	1	1.2	3	6.3	-	-	4	2.8
생수	1	1.2	-	-	-	-	1	0.7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이유식	-	-	-	-	-	-	-	-
장류	2	2.5	-	-	-	-	2	1.4
드레싱류	-	-	1	2.1	-	-	1	0.7
김치류	1	1.2	-	-	-	-	1	0.7
젓갈류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절임배추	1	1.2	-	-	-	-	1	0.7
조림식품	-	-	-	-	-	-	-	-
소주	2	2.5	-	-	-	-	2	1.4
맥주	1	1.2	-	-	-	-	1	0.7

포도주	-	-	-	-	-	-	-	–
탁약주(막걸리)	1	1.2	-	-	-	-	1	0.7
건포류	-	-	5	10.4	-	-	5	3.5
건강식품	2	2.5	3	6.3	5	38.5	10	7.0
즉석식품	2	2.5	1	2.1	-	-	3	2.1
쇠고기	2	2.5	-	-	-	-	2	1.4
돼지고기	1	1.2	1	2.1	-	-	2	1.4
닭고기	3	3.7	-	-	-	-	3	2.1
오리고기	-	-	-	-	-	-	-	–
알류	2	2.5	-	-	-	-	2	1.4
곡류	-	-	3	6.3	1	7.7	4	2.8
채소류	2	2.5			-	-	2	1.4
과일류	12	14.8	1	2.1	-	-	13	9.2
생선류	4	4.9	-	-	-	-	4	2.8
어패류	1	1.2	-	-	-	-	1	0.7
해조류	1	1.2	-	-	-	-	1	0.7
식용종자·버섯류	1	1.2	3	6.3	-	-	4	2.8
나물류	1	1.2	-	-	-	-	1	0.7
약용작물류	2	2.5	-	-	-	-	2	1.4
견과류	1	1.2	2	4.2	4	30.8	7	4.9
조미료(향신료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한식	-	-	-	-	-	-	-	–
양식	-	-	-	-	-	-	-	–
일식	-	-	-	-	-	-	-	–
중식	-	-	-	-	-	-	-	–
분식	-	-	-	-	-	-	-	–
노점상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1	7.7	1	0.7
뷔페	1	1.2	-	-	-	-	1	0.7
복합조미식품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무응답	-	-	-	-	-	-	-	–
총합계	81	100.0	48	100.0	13	100.0	142	100.0

○ 6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70건으로 과일류가 20건(11.8%)으로 가장 많았고, 곡류가 17건(11.0%), 우유류 15건(8.8%), 채소류 14건(8.2%)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6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8	6.3	4	13.3	-	-	12	7.1
케익류	1	0.8	2	6.7	-	-	3	1.8
떡류	2	1.6	-	-	-	-	2	1.2
과자류	1	0.8	1	3.3	-	-	2	1.2
코코아가공품류	1	0.8	-	-	-	-	1	0.6
잼류	-	-	-	-	1	7.1	1	0.6
설탕	-	-	-	-	-	-	-	-
포도당/과당	-	-	-	-	-	-	-	-
꿀	-	-	-	-	-	-	-	-
엿류	1	0.8	-	-	-	-	1	0.6
당시럽류	1	0.8	-	-	-	-	1	0.6
아이스크림류	1	0.8	-	-	-	-	1	0.6
빙과류			-	-	-	-	-	-
우유류	13	10.3	-	-	2	14.3	15	8.8
발효유류	3	2.4	-	-	-	-	3	1.8
분유류			-	-	-	-	-	-
치즈·버터류	1	0.8	2	6.7	-	-	3	1.8
햄 및 소시지류	2	1.6	2	6.7	-	-	4	2.4
치킨류			-	-	-	-	-	-
기타육류가공품	1	0.8	-	-	-	-	1	0.6
알가공품	1	0.8	-	-	-	-	1	0.6
어묵제품류			-	-	1	7.1	1	0.6
두부류 또는 묵류	1	0.8	-	-	-	0.0	1	0.6
식용유지류	-	-	-	-	-	0.0	-	-
라면류	-	-	-	-	1	7.1	1	0.6
건면류	1	0.8	-	-	-	-	1	0.6
생면류	-	-	-	-	-	-	-	-
다류	-	-	-	-	-	-	-	-
커피	1	0.8	-	-	-	-	1	0.6
탄산음료류	1	0.8	1	3.3	-	-	2	1.2
과·채음료류	-	-	-	-	-	-	-	-
생수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2	1.6	-	-	1	7.1	3	1.8
이유식	-	-	-	-	-	-	-	-
장류	2	1.6	-	-	-	-	2	1.2
소스류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김치류	1	0.8	-	-	-	-	1	0.6
젓갈류	1	0.8	-	-	-	-	1	0.6

절임식품	1	0.8	-	-	-	-	1	0.6
절임배추	1	0.8	-	-	-	-	1	0.6
조림식품	-	-	-	-	-	-	-	–
소주	-	-	-	-	-	-	-	–
맥주	-	-	-	-	-	-	-	–
포도주	1	0.8	-	-	-	-	1	0.6
탁약주(막걸리)	-	-	-	-	-	-	-	–
건포류	-	-	4	13.3	-	-	4	2.4
건강식품	7	5.6	3	10.0	1	7.1	11	6.5
즉석식품	2	1.6	3	10.0	-	0.0	5	2.9
쇠고기	4	3.2	-	-	-	0.0	4	2.4
돼지고기	3	2.4	-	-	-	0.0	3	1.8
닭고기	2	1.6	-	-	1	7.1	3	1.8
오리고기	-	-	-	-	-	-	-	–
알류	3	2.4	-	-	-	-	3	1.8
곡류	11	8.7	4	13.3	2	14.3	17	10.0
채소류	14	11.1	-	-	-	-	14	8.2
과일류	18	14.3	2	6.7	-	-	20	11.8
생선류	2	1.6	-	0.0	-	-	2	1.2
어패류	2	1.6	1	3.3	1	7.1	4	2.4
해조류	-	-	-	-	1	7.1	1	0.6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약용작물류	-	-	1	3.3	-	-	1	0.6
견과류	2	1.6	-	-	1	7.1	3	1.8
조미료(향신료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한식	1	0.8	-	-	-	-	1	0.6
양식	-	-	-	-	-	-	-	–
일식	1	0.8	-	-	-	-	1	0.6
중식	-	-	-	-	-	-	-	–
분식	-	-	-	-	-	-	-	–
노점상	-	-	-	-	-	-	-	–
패스트푸드점	2	1.6	-	-	1	7.1	3	1.8
복합조미식품	2	1.6	-	-	-	-	2	1.2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미기재	-	-	-	-	-	-	-	–
총합계	126	100.0	30	100.0	14	100.0	170	100.0

○ 7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63건으로 우유류가 19건(11.7%)으로 가장 많았고, 빵류가 17건(10.4%), 과일류 16건(9.8%), 알류가 12건(7.4%), 채소류가 11건(6.7%)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7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0	8.5	7	21.9	-	-	17	10.4
케익류	-	-	-	-	-	-	-	-
떡류	3	2.5		0.0	-	-	3	1.8
과자류			2	6.3	-	-	2	1.2
코코아가공품류	2	1.7	-	-	-	-	2	1.2
설탕	-	-	-	-	-	-	-	-
꿀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2	15.4	2	1.2
빙과류	-	-	-	-	-	-	-	-
우유류	18	15.3	1	3.1	-	-	19	11.7
발효유류	-	-	-	-	-	-	-	-
분유류	-	-	-	-	-	-	-	-
치즈·버터류	2	1.7	2	6.3	-	-	4	2.5
햄 및 소시지류	1	0.8	1	3.1	-	-	2	1.2
치킨류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5	4.2	-	-	-	-	5	3.1
알가공품	-	-	1	3.1	-	-	1	0.6
어묵제품류	1	0.8	1	3.1	-	-	2	1.2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라면류	-	-	1	3.1	-	-	1	0.6
건면류	-	-	1	3.1	-	-	1	0.6
생면류	-	-	-	-	-	-	-	-
다류	1	0.8	-	-	-	-	1	0.6
커피	-	-	-	-	-	-	-	-
탄산음료류	-	-	-	-	1	7.7	1	0.6
과·채음료류	2	1.7	-	-	-	-	2	1.2
생수		0.0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0.8	-	-	-	-	1	0.6
이유식	-	-	-	-	-	-	-	-
장류	-	-	1	3.1	-	-	1	0.6
소스류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김치류	1	0.8	-	-	-	-	1	0.6
젓갈류	2	1.7	-	-	-	-	2	1.2
절임식품	1	0.8	-	-	-	-	1	0.6
조림식품	1	0.8	-	-	-	-	1	0.6
소주	-	-	-	-	-	-	-	-
맥주	-	-	-	-	-	-	-	-
탁약주(막걸리)	1	0.8	-	-	-	-	1	0.6
건포류	4	3.4	6	18.8	-	-	10	6.1

건강식품	2	1.7	-	-	-	-	3	1.8
즉석식품	3	2.5	-	-	1	7.7	4	2.5
쇠고기	4	3.4	-	-	-	-	4	2.5
돼지고기	-	-	-	-	-	-	-	–
닭고기	1	0.8	-	-	-	-	1	0.6
오리고기	-	-	-	-	-	-	-	–
알류	10	8.5	-	-	2	15.4	12	7.4
곡류	3	2.5	2	6.3			5	3.1
채소류	8	6.8	2	6.3	1	7.7	11	6.7
과일류	14	11.9	2	6.3			16	9.8
생선류	3	2.5	-	-	1	7.7	4	2.5
어패류	5	4.2	-	-	-	-	5	3.1
해조류	3	2.5	-	-	-	-	3	1.8
식용종자·버섯류	1	0.8	-	-	-	-	1	0.6
약용작물류	-	-	-	-	-	-	-	–
견과류	2	1.7	1	3.1	1	7.7	4	2.5
조미료(향신료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한식	1	0.8	-	-	-	-	1	0.6
양식	-	-	-	-	-	-	-	–
일식	-	-	-	-	-	-	-	–
중식	-	-	-	-	-	-	-	–
분식	-	-	-	-	1	7.7	1	0.6
패스트푸드점	1	0.8	1	3.1	-	-	2	1.2
뷔페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기타육류	1	0.8	-	-	1	7.7	2	1.2
기타식품류	-	-	-	-	1	7.7	1	0.6
총합계	118	100.0	32	100.0	13	100.0	163	100.0

○ 8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99건으로 우유류와 빵류가 22건(11.1%)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가 18건(9.0%), 곡류가 17건(8.5%), 생선류가 11건(5.5%)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8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4	3.3	18	30.5	-	-	22	11.1
케익류	1	0.8	1	1.7	-	-	2	1.0
떡류	4	3.3	2	3.4	-	-	6	3.0
과자류	2	1.7	-	-	-	-	2	1.0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설탕	-	-	-	-	-	-	-	-
꿀	-	-	-	-	-	-	-	-
엿류	-	-	-	-	-	-	-	-
아이스크림류	3	2.5	-	-	-	-	3	1.5
빙과류	2	1.7	-	-	1	5.3	3	1.5
우유류	21	17.4	-	-	1	5.3	22	11.1
발효유류	1	0.8	-	-	1	5.3	2	1.0
분유류			-	-	-	-	-	-
치즈·버터류	1	0.8	3	5.1	-	-	4	2.0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치킨류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4	3.3	1	1.7	-	-	5	2.5
알가공품	-	-	-	-	-	-	-	-
어묵제품류	1	0.8	2	3.4	-	-	3	1.5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라면류	-	-	-	-	-	-	-	-
건면류	1	0.8	1	1.7	-	-	2	1.0
생면류	-	-	2	3.4	1	5.3	3	1.5
다류	-	-	-	-	-	-	-	-
커피	1	0.8	-	-	-	-	1	0.5
탄산음료류			-	-	-	-	-	-
과·채음료류	2	1.7	3	5.1	-	-	5	2.5
생수	-	-	-	-	1	5.3	1	0.5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이유식	-	-	-	-	-	-	-	-
장류	-	-	1	1.7	-	-	1	0.5
소스류	2	1.7	-	-	-	-	2	1.0
드레싱류			-	-	-	-	-	-
김치류	1	0.8	-	-	1	5.3	2	1.0
젓갈류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절임배추	-	-	-	-	1	5.3	1	0.5
조림식품	-	-	-	-	-	-	-	-
소주	-	-	-	-	-	-	-	-
맥주	-	-	-	-	1	5.3	1	0.5
포도주	-	-	-	-	-	-	-	-
탁약주(막걸리)	1	0.8	-	-	-	-	1	0.5

건포류	2	1.7	2	3.4	-	-	4	2.0
건강식품	2	1.7	3	5.1	2	10.5	7	3.5
즉석식품	2	1.7	1	1.7	-	-	3	1.5
쇠고기	2	1.7	-	-	-	-	2	1.0
돼지고기	3	2.5	-	-	1	5.3	4	2.0
닭고기	3	2.5	-	-	1	5.3	4	2.0
오리고기	-	-	-	-	-	-	–	–
알류	6	5.0	2	3.4	-	-	8	4.0
곡류	6	5.0	9	15.3	2	10.5	17	8.5
채소류	8	6.6	1	1.7	-	-	9	4.5
과일류	16	13.2	2	3.4	-	-	18	9.0
생선류	9	7.4	1	1.7	1	5.3	11	5.5
어패류	4	3.3	1	1.7	2	10.5	7	3.5
해조류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1	1.7	-	-	1	0.5
나물류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견과류	1	0.8	-	-	1	5.3	2	1.0
조미료(향신료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한식	3	2.5	1	1.7	-	-	4	2.0
일식	1	0.8	-	-	1	5.3	2	1.0
중식	-	-	-	-	-	-	-	–
분식	-	-	-	-	-	-	-	–
패스트푸드점	1	0.8	-	-	-	-	1	0.5
복합조미식품	-	-	-	-	-	-	-	–
기타주류 (양주, 청주 등)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기타식품류	-	-	1	1.7	-	-	1	0.5
총합계	121	100.0	59	100.0	19	100.0	199	100.0

○ 9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233건으로 과일류가 55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곡류가 22건(9.4%), 우유류가 18건(7.7%), 빵류가 15건(6.4%), 과자류가 14건(6.0%), 생선류가 10건(4.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9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4	2.4	11	18.3	-	-	15	6.4
케익류	-	-	1	1.7			1	0.4
떡류	2	1.2	4	6.7	1	16.7	7	3.0
과자류	6	3.6	8	13.3	-	-	14	6.0
코코아가공품류	2	1.2	1	1.7	-	-	3	1.3
설탕	-	-	-	-	-	-	-	-
꿀	-	-	-	-	-	-	-	-
엿류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2	3.3	-	-	2	0.9
우유류	18	10.8	-	-	-	-	18	7.7
발효유류	2	1.2	-	-	-	-	2	0.9
분유류	-	-	-	-	-	-	-	-
치즈·버터류	-	-	2	3.3	-	-	2	0.9
햄 및 소시지류	1	0.6	-	-	-	-	1	0.4
치킨류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3	1.8	2	3.3	-	-	5	2.1
어묵제품류	1	0.6	-	-	-	-	1	0.4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라면류	-	-	1	1.7	-	-	1	0.4
건면류	-	-	1	1.7	-	-	1	0.4
생면류	1	0.6	1	1.7	-	-	2	0.9
다류	-	-	-	-	-	-	-	-
커피	-	-	-	-	-	-	-	-
탄산음료류	-	-	-	-	-	-	-	-
과·채음료류	2	1.2	1	1.7	-	--	3	1.3
생수	-	-	-	-	1	16.7	1	0.4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0.6	-	-	-	-	1	0.4
장류	-	-	1	1.7	-	-	1	0.4
소스류	-	-	-	-	-	-	-	-
드레싱류	1	0.6	-	-	-	-	1	0.4
김치류	-	-	-	-	-	-	-	-
젓갈류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소주	-	-	-	-	-	-	-	-
맥주	1	0.6	-	-	-	-	1	0.4
포도주	1	0.6	-	-	-	-	1	0.4
탁약주(막걸리)	1	0.6	-	-	-	-	1	0.4
건포류	-	-	3	5.0	-	-	3	1.3
건강식품	8	4.8			-	-	8	3.4
즉석식품	1	0.6	1	1.7	1	16.7	3	1.3

쇠고기	6	3.6	-	-	1	16.7	7	3.0
돼지고기	2	1.2	-	-	-	-	2	0.9
닭고기	-	-	-	-	-	-	-	–
오리고기	-	-	-	-	-	-	-	–
알류	5	3.0	2	3.3	-	-	7	3.0
곡류	16	9.6	5	8.3	1	16.7	22	9.4
채소류	4	2.4	3	5.0	-	-	7	3.0
과일류	49	29.3	6	10.0	-	-	55	23.6
생선류	8	4.8	1	1.7	1	16.7	10	4.3
어패류	6	3.6	1	1.7	-	-	7	3.0
해조류	2	1.2	-	-	-	-	2	0.9
식용종자·버섯류	3	1.8	-	-	-	-	3	1.3
약용작물류	-	-	-	-	-	-	-	–
견과류	3	1.8	1	1.7	-	-	4	1.7
조미료(향신료	-	-	-	-	-	-	-	–
고추가루	-	-	1	1.7	-	-	1	0.4
한식	2	1.2	-	-	-	-	2	0.9
일식	1	0.6	-	-	-	-	1	0.4
중식	-	-	-	-	-	-	-	–
분식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기타주류 (양주, 청주 등)	2	1.2	-	-	-	-	2	0.9
기타육류	1	0.6	-	-	-	-	1	0.4
기타식품류	1	0.6	-	-	-	-	1	0.4
총합계	167	100.0	60	100.0	6	100.0	233	100.0

○ 10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239건으로 과일류가 48건(20.1%)으로 가장 많았고, 생선류가 15건(6.3%), 곡류와 어패류가 각각 13건(5.4%), 우유류가 12건(5.0%), 빵류가 11건(4.6%)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10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1.3	8	15.1	1	3.6	11	4.6
케익류	1	0.6	1	1.9	–	–	2	0.8
떡류	3	1.9	–	–	1	3.6	4	1.7
과자류	1	0.6	6	11.3	1	3.6	8	3.3
코코아가공품류	1	0.6	–	–	–	–	1	0.4
설탕	-	-	-	-	-	-	-	–
포도당/과당	-	-	-	-	-	-	-	–
꿀	-	-	-	-	-	-	-	–
엿류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빙과류			1	1.9	-	-	1	0.4
우유류	8	5.1	4	7.5	-	-	12	5.0
발효유류	-	-	-	-	1	3.6	1	0.4
분유류	-	-	-	-	1	3.6	1	0.4
치즈·버터류	-	-	4	7.5	–	–	4	1.7
햄 및 소시지류	-	-	-	-	1	3.6	1	0.4
치킨류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6	3.8	-	-	1	3.6	7	2.9
알가공품	3	1.9	1	1.9	-	-	4	1.7
어묵제품류	–	–	2	3.8	-	-	2	0.8
두부류 또는 묵류	3	1.9	-	-	-	-	3	1.3
식용유지류	-	-	-	-	-	-	–	–
라면류	-	-	4	7.5	1	3.6	5	2.1
건면류	-	-	-	-	-	-	-	0.0
생면류	-	-	-	-	-	-	-	0.0
다류	-	-	-	-	1	3.6	1	0.4
커피	-	-	1	1.9	-	-	1	0.4
탄산음료류	1	0.6	–	–	-	-	1	0.4
과·채음료류	2	1.3	1	1.9	-	-	3	1.3
생수	-	-	-	-	-	-	-	–
특수용도식품 (환자식)	-	-	-	-	-	-	-	–
이유식	-	-	-	-	-	-	-	–
장류	-	-	-	-	-	-	-	–
소스류	–	–	1	1.9	-	-	1	0.4
김치류	1	0.6	-	-	-	-	1	0.4
젓갈류	2	1.3	-	-	-	-	2	0.8
절임식품	1	0.6	-	-	-	-	1	0.4
조림식품	–	–	-	-	1	3.6	1	0.4
소주	–	–	-	-	1	3.6	1	0.4
맥주	–	–	-	-	1	3.6	1	0.4
포도주	-	-	-	-	-	-	-	–
탁약주(막걸리)	1	0.6	-	-	2	7.1	3	1.3
건포류	4	2.5	4	7.5	1	3.6	9	3.8

건강식품	4	2.5	1	1.9	1	3.6	6	2.5
즉석식품	2	1.3	1	1.9	-	-	3	1.3
쇠고기	1	0.6	-	-	-	-	1	0.4
돼지고기	2	1.3	-	-	-	-	2	0.8
닭고기	2	1.3	1	1.9	-	-	3	1.3
오리고기	2	1.3	-	-	-	-	2	0.8
알류	2	1.3	-	-	-	-	2	0.8
곡류	8	5.1	4	7.5	1	3.6	13	5.4
채소류	9	5.7	-	-	-	-	9	3.8
과일류	45	28.5	2	3.8	1	3.6	48	20.1
생선류	11	7.0	–	–	4	14.3	15	6.3
어패류	11	7.0	2	3.8			13	5.4
해조류	2	1.3	1	1.9	2	7.1	5	2.1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약용작물류	1	0.6	-	-	-	-	1	0.4
견과류	2	1.3	1	1.9	1	3.6	4	1.7
조미료(향신료	–	–	-	-	–	–	–	–
고추가루	1	0.6	-	-	2	7.1	3	1.3
한식	6	3.8	-	-	-	-	6	2.5
일식	2	1.3	-	-	-	-	2	0.8
중식	-	-	-	-	-	-	-	–
분식	1	0.6	-	-	-	-	1	0.4
노점상	-	-	-	-	-	-	-	0.0
패스트푸드점	1	0.6	1	1.9	1	3.6	3	1.3
복합조미식품	–	–	-	-	-	-	-	–
기타주류 (양주, 청주 등)	2	1.3	-	-	-	-	2	0.8
기타육류	-	-	-	-	-	-	-	–
기타식품류	1	0.6	1	1.9	-	-	2	0.8
총합계 (중복응답)	158	100.0	53	100.0	28	100.0	239	100.0

○ 11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71건으로 채소류가 26건(15.2%)으로 가장 많았고, 생선류가 11건(6.4%), 빵이 11건(6.4%), 과일류 10건(5.8%) 과자류와 곡류가 각각 9건(5.3%), 절임배추와 건강식품이 각각 8건(4.7%)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11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	3.0	7	14.9	1	4.0	11	6.4
케익류	1	1.0	-	-	-	-	1	0.6
떡류	-	-	4	8.5	-	-	4	2.3
과자류	3	3.0	4	8.5	2	8.0	9	5.3
코코아가공품류	-	-	1	2.1	-	-	1	0.6
잼류	-	-	-	-	-	-	-	-
꿀	2	2.0	-	-	-	-	2	1.2
엿류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우유류	4	4.0	1	2.1	-	-	5	2.9
발효유류	1	1.0	-	-	-	-	1	0.6
분유류	-	-	-	-	-	-	-	-
치즈·버터류	1	1.0	4	8.5	-	-	5	2.9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치킨류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1	1.0	-	-	-	-	1	0.6
어묵제품류	3	3.0	-	-	-	-	3	1.8
두부류 또는 묵류	1	1.0	-	-	-	-	1	0.6
식용유지류	-	-	-	-	1	4.0	1	0.6
라면류	-	-	1	2.1	-	-	1	0.6
건면류	-	-	-	-	-	-	-	-
생면류	-	-	1	2.1	-	-	1	0.6
다류	1	1.0	-	-	-	-	1	0.6
커피	-	-	-	-	-	-	-	-
탄산음료류	-	-	-	-	-	-	-	-
과·채음료류	2	2.0	2	4.3	-	-	4	2.3
생수	2	2.0	2	4.3	3	12.0	7	4.1
특수용도식품 (환자식)	1	1.0	-	-	-	-	1	0.6
이유식	-	-	-	-	-	-	-	-
장류	1	1.0	-	-	1	4.0	2	1.2
소스류	1	1.0	-	-	-	-	1	0.6
김치류	2	2.0	-	-	1	4.0	3	1.8
젓갈류	4	4.0	-	-	1	4.0	5	2.9
절임식품	-	-	-	-	-	-	-	-
절임배추	4	4.0			4	16.0	8	4.7
조림식품	-	-	-	-	-	-	-	-
소주	-	-	-	-	-	-	-	-
맥주	-	-	-	-	1	4.0	1	0.6
포도주	-	-	1	2.1	-	-	1	0.6
탁약주(막걸리)	-	-	-	-	-	-	-	-
건포류	1	1.0	5	10.6	-	-	6	3.5
건강식품	2	2.0	4	8.5	2	8.0	8	4.7
즉석식품	2	2.0	-	-	1	4.0	3	1.8

쇠고기	1	1.0	-	-	-	-	1	0.6
돼지고기	2	2.0	-	-	1	4.0	3	1.8
닭고기	-	-	-	-	-	-	-	-
오리고기	-	-	1	2.1	-	-	1	0.6
알류	3	3.0	-	-	-	-	3	1.8
곡류	3	3.0	3	6.4	3	12.0	9	5.3
채소류	23	23.2	3	6.4	-	-	26	15.2
과일류	10	10.1	-	-	-	-	10	5.8
생선류	1	1.0	1	2.1	1	4.0	3	1.8
어패류	6	6.1	-	-	-	-	6	3.5
해조류	3	3.0	-	-	2	8.0	5	2.9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나물류	-	-	1	2.1	-	-	1	0.6
약용작물류	-	-	-	-	-	-	-	-
견과류	1	1.0	-	-	-	-	1	0.6
조미료(향신료	-	-	1	2.1	-	-	1	0.6
고추가루	-	-	-	-	-	-	-	-
한식	2	2.0	-	-	-	-	2	1.2
일식	1	1.0	-	-	-	-	1	0.6
중식	-	-	-	-	-	-	-	-
분식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기타주류 (양주, 청주 등)	-	-		-	-	-	-	-
기타육류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총합계 (중복응답)	99	100.0	47	100.0	25	100.0	171	100.0

○ 12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65건으로 채소류가 21건(12.7%)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가 19건(11.5%), 곡류 10건(6.1%), 과자류 9건(5.5%), 빵류와 치즈·버터류, 어패류, 건강식품이 각각 7건(4.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12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4	4.8	3	6.7	-	-	7	4.2
케익류	-	-	2	4.4	-	-	2	1.2
떡류	-	-	1	2.2	1	2.7	2	1.2
과자류	1	1.2	6	13.3	2	5.4	9	5.5
코코아가공품류	1	1.2	-	-	-	-	1	0.6
잼류	1	1.2	-	-	-	-	1	0.6
설탕	-	-	-	-	-	-	-	-
꿀	-	-	-	-	-	-	-	-
엿류	-	-	-	-	-	-	-	-
당시럽류	1	1.2	-	-	-	-	1	0.6
아이스크림류	-	-	-	-	-	-	-	-
빙과류	-	-	-	-	-	-	-	-
우유류	3	3.6	1	2.2	-	-	4	2.4
발효유류	1	1.2	-	-	-	-	1	0.6
분유류	1	1.2	-	-	-	-	1	0.6
치즈·버터류	2	2.4	5	11.1	-	-	7	4.2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치킨류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	-	-	-	3	8.1	3	1.8
어묵제품류	1	1.2	-	-	1	2.7	2	1.2
두부류 또는 묵류	1	1.2	-	-	1	2.7	2	1.2
식용유지류	-	-	-	-	2	5.4	2	1.2
라면류	-	-	1	2.2	-	-	1	0.6
건면류	-	-	-	-	-	-	-	-
생면류	-	-	-	-	1	2.7	1	0.6
다류	-	-	-	-	-	-	-	-
커피	-	-	-	-	-	-	-	-
탄산음료류	1	1.2	1	2.2	3	8.1	5	3.0
과·채음료류	-	-	1	2.2	-	-	1	0.6
생수	-	-	-	-	2	5.4	2	1.2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이유식	-	-	-	-	-	-	-	-
장류	-	-	2	4.4	-	-	2	1.2
소스류	-	-	-	-	-	-	-	-
김치류	2	2.4	-	-	-	-	2	1.2
젓갈류	-	-	-	-	1	2.7	1	0.6
절임배추	2	2.4	-	-	2	5.4	4	2.4
조림식품	1	1.2	1	2.2	-	-	2	1.2
소주	1	1.2	-	-	-	-	1	0.6
맥주	1	1.2	-	-	-	-	1	0.6
포도주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건포류	2	2.4	2	4.4	-	-	4	2.4
건강식품	2	2.4	2	4.4	3	8.1	7	4.2

즉석식품	1	1.2	-	-	1	2.7	2	1.2
쇠고기	1	1.2	-	-	1	2.7	2	1.2
돼지고기	1	1.2	-	-	1	2.7	2	1.2
닭고기	-	-	-	-	-	-	-	-
오리고기	1	1.2	1	2.2	-	-	2	1.2
알류	1	1.2	-	-	-	-	1	0.6
곡류	6	7.2	3	6.7	1	2.7	10	6.1
채소류	14	16.9	6	13.3	1	2.7	21	12.7
과일류	16	19.3	3	6.7	-	-	19	11.5
생선류	2	2.4	1	2.2	3	8.1	6	3.6
어패류	6	7.2	-	-	1	2.7	7	4.2
해조류	-	-	-	-	1	2.7	1	0.6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약용작물류	1	1.2	-	-	-	-	1	0.6
견과류	-	-	3	6.7	2	5.4	5	3.0
조미료(향신료	1	1.2	-	-	1	2.7	2	1.2
고추가루	-	-	-	-	-	-	-	-
한식	1	1.2	-	-	-	-	1	0.6
양식	-	-	-	-	-	-	-	-
일식	-	-	-	-	-	-	-	-
중식	-	-	-	-	-	-	-	-
분식	1	1.2	-	-	-	-	1	0.6
패스트푸드점	1	1.2	-	-	-	-	1	0.6
복합조미식품	-	-	-	-	2	5.4	2	1.2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총합계(중복응답)	83	100.0	45	100.0	37	100.0	165	100.0

(5) 검사요청

○ 1월~12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6,097건으로 약용작물류가 1,004건(16.47%) 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 4,487건(73.53%). 쇠고기 48건(0.7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1월~12월)

품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8	0.16	-	-	-	-	2	2.8	10	0.16
케익류	-	-	-	-	-	-	-	-	-	-
떡류	3	0.06	-	-	1	0.1	3	4.2	7	0.11
과자류	11	0.22	-	-	-	-	1	1.4	12	0.20
코코아가공품류	1	0.02	2	1.1	-	-	1	1.4	4	0.07
잼류	-	-	1	0.5	-	-	-	-	1	0.02
설탕	2	0.04	-	-	1	0.1	-	-	3	0.05
포도당/과당	-	-	-	-	-	-	-	-	0	0.00
꿀	21	0.42	-	-	10	1.2	-	-	31	0.51
엿류	-	-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	-
올리고당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1	0.02	-	-	-	-	-	-	1	0.02
빙과류	-	-	-	-	-	-	1	1.4	1	0.02
우유류	9	0.18	1	0.5	-	-	2	2.8	12	0.20
발효유류	3	0.06	-	-	-	-			3	0.05
분유류	15	0.30	-	-	-	-	1	1.4	16	0.26
치즈·버터류	2	0.04	1	0.5	1	0.1			4	0.07
햄 및 소시지류	-	-	-	-	-	-	1	1.4	1	0.02
치킨류	1	0.02	-	-	-	-	-	-	1	0.02
기타육류가공품	8	0.16	4	2.1	3	0.4	1	1.4	16	0.26
알가공품	1	0.02	-	-	-	-	-	-	1	0.02
어묵제품류	1	0.02	-	-	-	-	2	2.8	3	0.05
두부류 또는 묵류	3	0.06	2	1.1	-	-	1	1.4	6	0.10
식용유지류	20	0.40	3	1.6	5	0.6	1	1.4	29	0.48
라면류	2	0.04	-	-	-	-	-	-	2	0.03
건면류	2	0.04	-	-	-	-	-	-	2	0.03
생면류			-	-	1	0.1	1	1.4	2	0.03
다류	7	0.14	-	-	1	0.1			8	0.13
커피	3	0.06	-	-	-	-	1	1.4	4	0.07
탄산음료류	9	0.18	-	-	1	0.1	3	4.2	13	0.21
과·채음료류	2	0.04	1	0.5	-	-			3	0.05
생수	16	0.32	-	-	-	-	1	1.4	17	0.28
특수용도식품(환자식)	3	0.06	-	-	2	0.2	-	-	5	0.08
이유식	-	-	-	-	-	-	1	1.4	1	0.02
장류	7	0.14	5	2.6	-	-	-	-	12	0.20
소스류	3	0.06	-	-	-	-	-	-	3	0.05
드레싱류	1	0.02	-	-	-	-	-	-	1	0.02
김치류	3	0.06	1	0.5	-	-	1	1.4	5	0.08
젓갈류	2	0.04	3	1.6	3	0.4	-	-	8	0.13
절임식품	1	0.02	-	-	-	-	-	-	1	0.02
절임배추	-	-	2	1.1	-	-	1	1.4	3	0.05
조림식품	5	0.10	1	0.5	-	-	-	-	6	0.10

소주	3	0.06	-	-	1	0.1	-	-	4	0.07
맥주	2	0.04	2	1.1	-	-	1	1.4	5	0.08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1	0.02	1	0.5	1	0.1	-	-	3	0.05
건포류	2	0.04	3	1.6	1	0.1	-	-	6	0.10
건강식품	4219	84.23	12	6.3	244	29.5	8	11.3	4483	73.53
즉석식품	-	-	-	-	-	-	1	1.4	1	0.02
쇠고기	12	0.24	23	12.1	11	1.3	3	4.2	49	0.80
돼지고기	2	0.04	7	3.7	6	0.7	-	-	15	0.25
닭고기	3	0.06	1	0.5	-	-	2	2.8	6	0.10
오리고기	-	-	-	-	-	-	1	1.4	1	0.02
알류	-	-	-	-	1	0.1	-	-	1	0.02
곡류	17	0.34	23	12.1	6	0.7	2	2.8	48	0.79
채소류	14	0.28	19	10.0	5	0.6	3	4.2	41	0.67
과일류	16	0.32	10	5.3	7	0.8	1	1.4	34	0.56
생선류	6	0.12	27	14.2	8	1.0	2	2.8	43	0.71
어패류	1	0.02	4	2.1	2	0.2	2	2.8	9	0.15
해조류	4	0.08	-	-	-	-	-	-	4	0.07
식용종자·버섯류	6	0.12	2	1.1	2	0.2	-	-	10	0.16
나물류	-	-	1	0.5	-	-	-	-	1	0.02
약용작물류	500	9.98	4	2.1	500	60.5	-	-	1004	16.47
견과류	2	0.04	5	2.6	0	0.0	2	2.8	9	0.15
조미료(향신료	10	0.20	8	4.2	1	0.1	-	-	19	0.31
고추가루	7	0.14	4	2.1	-	-	1	1.4	12	0.20
한식	-	-	4	2.1	-	-	8	11.3	12	0.20
양식	-	-	-	-	-	-	-	-	-	-
일식	-	-	-	-	1	0.1			1	0.02
중식	-	-	-	-			1	1.4	1	0.02
분식	-	-	-	-	-	-	-	-	-	-
노점상	-	-	-	-	-	-	1	1.4	1	0.02
패스트푸드점	-	-	1	0.5	-	-	5	7.0	6	0.10
뷔페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2	0.04	-	-	-	-	-	-	2	0.03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3	0.06	-	-	1	0.1	1	1.4	5	0.08
기타육류	-	-	1	0.5	-	-	-	-	1	0.02
기타식품류	1	0.02	1	0.5	-	-	-	-	2	0.03
미기재	-	-	-	-	-	-	-	-	-	-
총합계(중복응답)	5009	100.0	190	100.0	827	100.0	71	100.0	6097	100.0

○ 1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72건으로 건강식품 27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와 곡류가 각각 6건(8.3%). 과일류와 기타육류가공품이 각각 3건(4.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1월)

품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1	2.3	-	-	-	-	1	50.0	2	2.8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	-	-	-	-	-
과자류	1	2.3	-	-	-	-	-	-	1	1.4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	-	-	-	-	-	-	-	-
잼류	-	-	-	-	-	-	-	-	-	-
설탕	-		-	-	1	14.3	-	-	1	1.4
꿀	1	2.3	-	-	1	14.3	-	-	2	2.8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1	2.3	-	-	-	-	-	-	1	1.4
우유류	-	-	-	-	-	-	-	-	-	-
발효유류	1	2.3	-	-	-	-	-	-	1	1.4
분유류	1	2.3	-	-	-	-	-	-	1	1.4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3	6.8	-	-	-	-	-	-	3	4.2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1	2.3	-	-	-	-	-	-	1	1.4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1	14.3	-	-	1	1.4
다류	1	2.3	-	-	-	-	-	-	1	1.4
커피	1	2.3	-	-	-	-	-	-	1	1.4
과채음료류	1	2.3	-	-	-	-	-	-	1	1.4
생수	-	-	-	-	-	-	-	-	-	-
특수용도식품	-	-	-	-	-	-	-	-	-	-
이유식	-	-	-	-	-	-	-	-	-	-
장류	-	-	2	10.5	-	-	-	-	2	2.8
소스류	-	-	-	-	-	-	-	-	-	-
김치류	1	2.3	-	-	-	-	-	-	1	1.4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	-	-	-	-	-	-	-
맥주	1	2.3	-	-	-	-	-	-	1	1.4
건포류	-	-	-	-	-	-	-	-	-	-
건강식품	22	50.0	2	10.5	3	42.9	-	-	27	37.5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1	2.3	5	26.3	-	-	-	-	6	8.3
돼지고기	-	-	2	10.5	-	-	-	-	2	2.8
닭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2	4.5	4	21.1	-	-	-	-	6	8.3
채소류	-	-	1	5.3	-	-	-	-	1	1.4
과일류	-	-	3	15.8	-	-	-	-	3	4.2
생선류	-	-	-	-	-	-	-	-	-	–
어패류	-	-	-	-	-	-	-	-	-	–
해조류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2	4.5	-	-	-	-	-	-	2	2.8
약용작물류	-	-	-	-	1	14.3	-	-	1	1.4
견과류	-	-	-	-	-	-	-	-	-	–
조미료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한식	-	-	-	-	-	-	-	-	-	–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1	50.0	1	1.4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	2	4.5	-		-	-	-		2	2.8
기타육류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비어 있음	-	-	-	-	-	-	-	-	-	–
총합계	44	100.0	19	100.0	7	100.0	2	100.0	72	100.0

○ 2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105건으로 건강식품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가 14건(13.3%). 생선류가 9건(8.6%), 기타육류가공품이 6건(5.7%)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2월)

품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1	2.1	-	-	-	-	-	-	1	1.0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	-	-	-	-	-
과자류	-	-	-	-	-	-	-	-	-	-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잼류	-	-	1	3.6			-	-	1	1.0
설탕	3	6.3	-	-	1	3.7	-	-	4	3.8
당시럽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2	4.2	-	-	-	-	-	-	2	1.9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1	2.1	-	-	-	-	-	-	1	1.0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3	6.3	1	3.6	2	7.4	-	-	6	5.7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1	2.1	1	3.6	-	-	-	-	2	1.9
식용유지류	1	2.1	-	-	1	3.7	-	-	2	1.9
라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	-	-	-	-	-
커피	-	-	-	-	-	-	-	-	-	-
탄산음료류	-	-	-	-	-	-	-	-	-	-
과·채음료류	-	-	-	-	-	-	-	-	-	-
생수	1	2.1	-	-	-	-	-	-	1	1.0
특수용도식품	-	-	-	-	-	-	-	-	-	-
이유식	-	-	-	-	-	-	-	-	-	!
장류	-	-	1	3.6	-	-	-	-	1	1.0
소스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3	6.3	-	-	-	-	-	-	3	2.9
소주	1	2.1	-	-	1	3.7	-	-	2	1.9
맥주	-	-	-	-	-	-	-	-	-	-
탁약주	-	-	-	-	-	-	-	-	-	-
건포류	-	-	1	3.6	-	-	-	-	1	1.0
건강식품	16	33.3	1	3.6	13	48.1	-	-	30	28.6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3	6.3	5	17.9	5	18.5	1	50.0	14	13.3

돼지고기	2	4.2	-	-	1	3.7	-	-	3	2.9
닭고기	2	4.2	1	3.6	-	-	-	-	3	2.9
알류	-	-	-	-	-	-	-	-	-	-
곡류	-	-	3	10.7	-	-	-	-	3	2.9
채소류	-	-	1	3.6	-	-	1	50.0	2	1.9
과일류	1	2.1	1	3.6	-	-	-	-	2	1.9
생선류	2	4.2	7	25.0	-	-	-	-	9	8.6
어패류	-	-	1	3.6	-	-	-	-	1	1.0
해조류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나물류	-	-	1	3.6	-	-	-	-	1	1.0
약용작물류	2	4.2	-	-	3	11.1	-	-	5	4.8
견과류	-	-	1	3.6	-	-	-	-	1	1.0
조미료	2	4.2	1	3.6	-	-	-	-	3	2.9
고추가루	1	2.1	-	-	-	-	-	-	1	1.0
한식	-	-	-	-	-	-	-	-	-	-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	48	100.0	28	100.0	27	100.0	2	100.0	105	100.0

○ 3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82건으로 건강식품 25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곡류가 6건(7.3%), 쇠고기와 식용유지류, 과일류, 생선류가 각각 5건(6.1%)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3월)

품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	-	-				1	33.3	1	1.2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	-	-	-	-	-
과자류	-	-	-	-	-	-	-	-	-	-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잼류	-	-	-	-	-	-	-	-	-	-
설탕	1	2.4	-	-	-	-	-	-	1	1.2
꿀	-	-	-	-	1	6.7	-	-	1	1.2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우유로	-	-	-	-	-	-	-	-	-	-
발효유류	1	2.4	-	-	-	-	-	-	1	1.2
분유류	-	-	-	-	-	-	-	-	-	-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2	4.9	-	-	-	-	-	-	2	2.4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4	9.8	1	4.3	-	-	-	-	5	6.1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다류	1	2.4	-	-	-	-	-	-	1	1.2
커피	1	2.4	-	-	-	-	-	-	1	1.2
탄산음료류	-	-	-	-	-	-	-	-	-	-
과·채음료류	-	-	-	-	-	-	-	-	-	-
생수	1	2.4	-	-	-	-	-	-	1	1.2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이유식	-	-	-	-	-	-	1	33.3	1	1.2
장류	-	-	2	8.7	-	-	-	-	2	2.4
소스류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	-			1	6.7	-	-	1	1.2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1	2.4	-	-	-	-	-	-	1	1.2
소주	1	2.4	-	-	-	-	-	-	1	1.2
맥주	-	-	2	8.7	-	-	-	-	2	2.4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	-	-	-	-	-	-	-	-	-	–
건포류	-	-	1	4.3	-	-	-	-	1	1.2
건강식품	17	41.5		0.0	8	53.3	-	-	25	30.5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3	7.3	2	8.7	-	-	-	-	5	6.1
돼지고기	-	-	3	13.0	1	6.7	-	-	4	4.9
닭고기	-	-	-	-	-	-	-	-	-	–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2	4.9	4	17.4		0.0	-	-	6	7.3
채소류	1	2.4	-	-	1	6.7	-	-	2	2.4
과일류	2	4.9	3	13.0	-	-	-	-	5	6.1
생선류	-	-	3	13.0	2	13.3	-	-	5	6.1
어패류	-	-	-	-	1	6.7	-	-	1	1.2
해조류	1	2.4	-	-	-	-	-	-	1	1.2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나물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1	2.4	1	4.3	-	-	-	-	2	2.4
견과류	-	-	1	4.3	-	-	-	-	1	1.2
조미료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한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노점상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1	33.3	1	1.2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기타식품류	1	2.4							1	1.2
총합계	41	100.0	23	100.0	15	100.0	3	100.0	82	100.0

○ 4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1697건으로 약용작물류가 975건(57.5%) 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 679건(40.0%)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4월)

품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	-	-	-	-	-	-	-	-	-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	-	-	-	-	-
과자류	1	0.1	-	-	-	-	-	-	1	0.1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설탕	-	-	-	-	-	-	-	-	-	-
꿀	1	0.1	-	-	-	-	-	-	1	0.1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	-	-	-	-	-	-	-	-	-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	-	-	-	-	-	-	-	-	-
치즈·버터류	-	-	1	6.7					1	0.1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1	0.1	1	6.7	-	-	-	-	2	0.1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3	0.3	-	-	1	0.2			4	0.2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1	0.1	-	-	-	-			1	0.1
커피	-	-	-	-	-	-	-	-	-	-
탄산음료류	-	-	-	-	-	-	-	-	-	-
과·채음료류	1	0.1	-	-	-	-	-	-	1	0.1
생수	1	0.1	-	-	-	-	-	-	1	0.1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0.1	-	-	-	-	-	-	1	0.1
이유식	-	-	-	-	-	-	-	-	-	-
장류	2	0.2	-	-	-	-	-	-	2	0.1
소스류	1	0.1	-	-	-	-	-	-	1	0.1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	-	-	-
건포류	-	-	-	-	-	-	-	-	-	-

건강식품	591	53.8	-	-	88	15.2			679	40.0
즉석식품	-	-	-	-	-	-	1	25	1	0.1
쇠고기	-	-	1	6.7	-	-	-	-	1	0.1
돼지고기	-	-	1	6.7	1	0.2	-	-	2	0.1
닭고기	-	-	-	-	-	-	-	-	–	–
오리고기	-	-	-	-	-	-	1	25	1	0.1
알류	-	-	-	-	-	-	-	-	–	–
곡류	-	-	3	20.0	-	-	-	-	3	0.2
채소류	1	0.1	5	33.3	1	0.2	1	25	8	0.5
과일류	1	0.1	-	-	1	0.2	-	-	2	0.1
생선류	-	-	1	6.7	-	-	-	-	1	0.1
어패류	1	0.1	-	-	-	-	-	-	1	0.1
해조류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2	0.2	-	-	1	0.2	-	-	3	0.2
약용작물류	488	44.4	-	-	487	84.0	-	-	975	57.5
견과류	1	0.1	-	-	-	-	-	-	1	0.1
조미료(향신료	-	-	1	6.7	-	-	-	-	1	0.1
고추가루	-	-	-	-	-	-	-	-	–	–
한식	-	-	-	-	-	-	1	25	1	0.1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1	6.7	-	-	-	-	1	0.1
뷔페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무응답	-	-	-	-	-	-	-	-	-	–
총합계	1098	100.0	15	100.0	580	100.0	4	100	1697	100.0

❍ 5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2,842건으로 건강식품이 2,787건(98.06%)으로 가장 많았음.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5월)

품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0.04	-	-	-	-	-	-	1	0.04
케익류	-	-	-	-	-	-	-	-	-	-
떡류	1	0.04	-	-	-	-	-	-	1	0.04
과자류	-	-	-	-	-	-	-	-	-	-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잼류	-	-	-	-	-	-	-	-	-	-
포도당/과당	-	-	-	-	-	-	-	-	-	-
꿀	3	0.11	-	-	1	1.6	-	-	4	0.14
엿류	-	-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	-
올리고당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1	0.04	-	-	-	-	-	-	1	0.04
발효유류		0.00	-	-	-	-	-	-	-	-
분유류	2	0.07	-	-	-	-	-	-	2	0.07
치즈·버터류	-	-	-	-	1	1.6	-	-	1	0.04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	-	-	-	-	-	-	-	-	-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2	0.07	-	-	1	1.6	-	-	3	0.11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1	0.04	-	-	-	-	-	-	1	0.04
커피	1	0.04	-	-	-	-	-	-	1	0.04
탄산음료류	-	-	-	-	-	-	1	12.5	1	0.04
과·채음료류	-	-	-	-	-	-	-	-	-	-
생수	1	0.04	-	-	-	-	-	-	1	0.04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이유식	-	-	-	-	-	-	-	-	-	-
장류	2	0.07	-	-	-	-	-	-	2	0.07
드레싱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1	0.04	-	-	-	-	-	-	1	0.04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1	9.1	-	-	-	-	1	0.04
맥주	-	-	-	-	-	-	-	-	-	-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1	1.6	-	-	1	0.04
건포류	-	-	-	-	-	-	-	-	–	–
건강식품	2732	99.02	-	-	53	82.8	2	25	2787	98.06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	-	3	27.3	-	-	1	12.5	4	0.14
돼지고기	-	-	-	-	1	1.6	-	-	1	0.04
닭고기	-	-	-	-	-	-	-	-	-	–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1	0.04	-	-	2	3.1	-	-	3	0.11
채소류	3	0.11	3	27.3	-	-	-	-	6	0.21
과일류	2	0.07	-	-	-	-	-	-	2	0.07
생선류	-	-	1	9.1	2	3.1	-	-	3	0.11
어패류	-	-	-	-	-	-	-	-	–	–
해조류	1	0.04	-	-	-	-	-	-	1	0.04
식용종자·버섯류	1	0.04	-	-	-	-	-	-	1	0.04
나물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3	0.11	2	18.2	1	1.6	-	-	6	0.21
견과류	-	-	-	-	-	-	1	12.5	1	0.04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한식	-	-	1	9.1	-	-	3	37.5	4	0.14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노점상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	-	-	–
뷔페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1	1.6	-	-	1	0.04
기타육류	-	-	-	-	-	-	-	-	-	-
무응답	-	-	-	-	-	-	-	-	-	-
총합계	2759	100.0	11	100.0	64	100.0	8	100	2842	100.0

○ 6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644건으로 건강식품이 614건(92.5%)으로 가장 많았음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6월)

품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	-	-	-	-	-	-	-	-	-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	-	-	-	-	-
과자류	1	0.2	-	-	-	-	-	-	1	0.2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잼류	-	-	-	-	-	-	-	-	-	-
설탕	-	-	-	-	-	-	-	-	-	-
포도당/과당	-	-	-	-	-	-	-	-	-	-
꿀	2	0.3	-	-	-	-	-	-	2	0.3
엿류	-	-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2	0.3	-	-	-	-	1	9.1	3	0.5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4	0.7	-	-	-	-	-	-	4	0.6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1	0.2	-	-	-	-	1	9.1	2	0.3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1	0.2	-	-	-	-	1	9.1	2	0.3
식용유지류	1	0.2	-	-	-	-	-	-	1	0.2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1	0.2	-	-	-	-	-	-	1	0.2
생면류	-	-	-	-	-	-	1	9.1	1	0.2
다류	-	-	-	-	-	-	-	-	-	-
커피	-	-	-	-	-	-	1	9.1	1	0.2
탄산음료류	1	0.2	-	-	-	-	-	-	1	0.2
과·채음료류		0.0	-	-	-	-	-	-	-	-
생수	2	0.3	-	-	-	-	-	-	2	0.3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이유식	-	-	-	-	-	-	-	-	-	-
장류	-	-	-	-	-	-	-	-	-	-
소스류	1	0.2	-	-	-	-	-	-	1	0.2
드레싱류	1	0.2	-	-	-	-	-	-	1	0.2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1	11.1	-	-	-	-	1	0.2
조림식품	-	-	-	-	-	-	-	-	1	0.2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	-	-	-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	-	-	-	1	2.4	-	-	1	0.2
건강식품	576	95.5	-	-	36	87.8	2	18.2	614	92.5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	-	1	11.1	1	2.4	-	-	2	0.3
돼지고기	-	-	1	11.1	-	-	-	-	1	0.2
닭고기	-	-	-	-	-	-	1	9.1	1	0.2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4	0.7	-	-	-	-	-	-	4	0.6
채소류	1	0.2	1	11.1	1	2.4	1	9.1	4	0.6
과일류	1	0.2	1	11.1	1	2.4		0.0	3	0.5
생선류	-	-	3	33.3	-	-	-	-	3	0.5
어패류	-	-	-	-	-	-	-	-	-	–
해조류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1	11.1	-	-	-	-	1	0.2
약용작물류	1	0.2	-	-	1	2.4	-	-	2	0.3
견과류	-	-	-	-	-	-	1	9.1	1	0.2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고추가루	1	0.2	-	-	-	-	-	-	1	0.2
한식	-	-	-	-	-	-	-	-	-	–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노점상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1	9.1	1	0.2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0.2	-	-	-	-	-	-	1	0.2
기타육류	-	-	-	-	-	-	-	-	-	–
미기재	-	-	-	-	-	-	-	-	-	–
총합계	603	100.0	9	100.0	41	100.0	11	100.0	664	100.0

○ 7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196건으로 건강식품이 143건(73.0%)으로 가장 많았고, 식용유지류가 7건(3.6%)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7월)

품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	-	-	-	-	-	-	-	-	-
케익류	-	-	-	-	-	-	-	-	-	-
떡류	1	0.6	-	-	-	-	3	27.3	4	2.0
과자류	-	-	-	-	-	-	-	-	-	-
코코아가공품류	-	-	1	9.1	-	-	1	9.1	2	1.0
설탕	1	0.6	-	-	-	-	-	-	1	0.5
꿀	2	1.3	-	-	-	-	-	-	2	1.0
당시럽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빙과류	-	-	-	-	-	-	1	9.1	1	0.5
우유류	-	-	-	-	-	-	-	-	-	-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	-	-	-	-	-	-	-	-	-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	-	-	-	-	-	-	-	-	-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1	9.1	1	0.5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6	3.9	-	-	1	5.3	-	-	7	3.6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	-	-	-	-	-
커피	-	-	-	-	-	-	-	-	-	-
탄산음료류	-	-	-	-	-	-	-	-	-	-
과·채음료류	-	-	-	-	-	-	-	-	-	-
생수	1	0.6	-	-	-	-	-	-	1	0.5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0.6	-	-	1	5.3	-	-	2	1.0
이유식	-	-	-	-	-	-	-	-	-	-
장류	-	-	-	-	-	-	-	-	-	-
소스류	1	0.6	-	-	-	-	-	-	1	0.5
드레싱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1	0.6	-	-	-	-	-	-	1	0.5
조림식품	2	1.3	-	-	-	-	-	-	2	1.0
소주	1	0.6	-	-	-	-	-	-	1	0.5
맥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1	0.6	-	-	-	-	-	-	1	0.5

건강식품	129	83.2	3	27.3	9	47.4	2	18.2	143	73.0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	-	-	-	1	5.3	-	-	1	0.5
돼지고기	-	-	-	-	2	10.5	-	-	2	1.0
닭고기	-	-	-	-	-	-	-	-	-	–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1	5.3	-	-	1	0.5
곡류	1	0.6	1	9.1	-	-	-	-	2	1.0
채소류	1	0.6	3	27.3	-	-	-	-	4	2.0
과일류	3	1.9	-	-	2	10.5	1	9.1	6	3.1
생선류	1	0.6	2	18.2	-	-	-	-	3	1.5
어패류	-	-	1	9.1	-	-	-	-	1	0.5
해조류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1	5.3	-	-	1	0.5
약용작물류	-	-	-	-	-	-	-	-	-	–
견과류	-	-	-	-	-	-	-	-	-	–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한식	-	-	-	-	-	-	-	-	-	–
양식	-	-	-	-	-	-	-	-	-	–
일식	-	-	-	-	1	5.3	-	-	1	0.5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2	18.2	2	1.0
뷔페	-	-	-	-	-	-	-	-		–
복합조미식품	2	1.3	-	-	-	-	-	-	2	1.0
기타육류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	155	100.0	11	100.0	19	100.0	11	100.0	196	100.0

○ 8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91건으로 건강식품 45건(49.5%)으로 가장 많았고, 탄산음료류와 과자류, 생선류, 쇠고기, 약용작물류, 조미료 가 각각 3건(3.3%)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8월)

품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	-	-	-	-	-	-	-	-	-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	-	-	-	-	-
과자류	3	4.4	-	-	-	-	-	-	3	3.3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설탕	-	-	-	-	-	-	-	-	-	-
꿀	1	1.5	-	-	-	-	-	-	1	1.1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3	4.4	-	-	-	-	-	-	3	3.3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	-	-	-	-	-	-	-	-	-
치즈·버터류	1	1.5							1	1.1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1	1.5	-	-	-	-	-	-	1	1.1
기타육류가공품	-	-	-	-	1	14.3	-	-	1	1.1
알가공품	1	1.5	-	-					1	1.1
어묵제품류	-	-	-	-	-	-	1	14.3	1	1.1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1	1.5	-	-	-	-	-	-	1	1.1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1	1.5	-	-	-	-	-	-	1	1.1
커피	-	-	-	-	-	-	-	-	-	-
탄산음료류	2	2.9	-	-	-	-	1	14.3	3	3.3
과·채음료류	-	-	-	-	-	-	-	-	-	-
생수	1	1.5	-	-	-	-	1	14.3	2	2.2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이유식	-	-	-	-	-	-	-	-	-	-
장류	2	2.9	-	-	-	-	-	-	2	2.2
소스류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1	14.3	1	1.1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	-	-	-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	-	-	-	-	-	-	-	-	–
건강식품	41	60.3	-	-	4	57.1	-	-	45	49.5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1	1.5	2	22.2	-	-	-	-	3	3.3
돼지고기	-	-	-	-	-	-	-	-	-	–
닭고기	-	-	-	-	-	-	-	-	-	–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3	4.4	-	-	-	-	1	14.3	4	4.4
채소류	1	1.5	-	-	1	14.3			2	2.2
과일류	-	-	-	-	-	-	-	-	-	–
생선류	-	-	3	33.3	-	-	-	-	3	3.3
어패류	-	-	1	11.1	-	-	-	-	1	1.1
해조류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나물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2	2.9	-	-	1	14.3	-	-	3	3.3
견과류	-	-	2	22.2	.-	-	-	-	2	2.2
조미료(향신료	2	2.9	1	11.1	-	-	-	-	3	3.3
고추가루	1	1.5	-	-	-	-	-	-	1	1.1
한식	-	-	-	-	-	-	1	14.3	1	1.1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1	14.3	1	1.1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	68	100.0	9	100.0	7	100.0	7	100.0	91	100.0

○ 9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94건으로 건강식품 54건(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6건(6.4%), 생선류 4건(4.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9월)

품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1.7	-	-	-	-	-	-	1	1.1
케익류	-	-	-	-	-	-	-	-	-	-
떡류	1	1.7	-	-	-	-	-	-	1	1.1
과자류	-	-	-	-	-	-	1	25.0	1	1.1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설탕	-	-	-	-	-	-	-	-	-	-
꿀	1	1.7	-	-	1	5.6	-	-	2	2.1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우유류	1	1.7	-	-	-	-	1	25.0	2	2.1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	-	-	-	-	-	-	-	-	-
치즈·버터류	1	1.7					-	-	1	1.1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	-	-	-	-	-
커피	-	-	-	-	-	-	-	-	-	-
탄산음료류	1	1.7	-	-	-	-	-	-	1	1.1
과·채음료류	-	-	-	-	-	-	-	-	-	-
생수	1	1.7	-	-	-	-	-	-	1	1.1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1.7	-	-	-	-	-	-	1	1.1
장류	-	-	-	-	-	-	-	-	-	-
소스류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	-	-	-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	-	-	-	-	-	-	-	-	-
건강식품	46	76.7	-	-	8	44.4	-	-	54	57.4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2	3.3	2	16.7	2	11.1	-	-	6	6.4
돼지고기	-	-	-	-	-	-	-	-	-	–
닭고기	1	1.7	-	-	-	-	-	-	1	1.1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	-	-	-	2	11.1	-	-	2	2.1
채소류	-	-	2	16.7	-	-	-	-	2	2.1
과일류	-	-	-	-	2	11.1	-	-	2	2.1
생선류	1	1.7	2	16.7	-	-	1	25.0	4	4.3
어패류	-	-	–	–	1	5.6	1	25.0	2	2.1
해조류	1	1.7	-	-	-	-	-	-	1	1.1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2	11.1	-	-	2	2.1
견과류	-	-	1	8.3	-	-	-	-	1	1.1
조미료(향신료	-	-	2	16.7	-	-	-	-	2	2.1
고추가루	1	1.7	1	8.3	-	-	-	-	2	2.1
한식	-	-	1	8.3	-	-	-	-	1	1.1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기타식품류	-	-	1	8.3	-	-	-	-	1	1.1
총합계	60	100.0	12	100.0	18	100.0	4	100.0	94	100.0

○ 10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90건으로 건강식품 37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곡류 6건(6.7%)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10월)

품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	-	-	-	-	-	-	-	-	-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	-	-	-	-	-
과자류	3	6.4	-	-	-	-	-	-	3	3.3
코코아가공품류	-	-	1	5.0	-	-	-	-	1	1.1
설탕	-	-	-	-	-	-	-	-	-	-
포도당/과당	-	-	-	-	-	-	-	-	-	-
꿀	3	6.4	-	-	1	7.1	-	-	4	4.4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	-	-	-	-	-	-	-	-	-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1	2.1	-	-	-	-	1	11.1	2	2.2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1	11.1	1	1.1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	-	-	-	-	-	-	-	-	-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	-	1	5.0	1	7.1	-	-	2	2.2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1	2.1	-	-	-	-	-	-	1	1.1
커피	-	-	-	-	-	-	-	-	-	-
탄산음료류	2	4.3	-	-	1	7.1	-	-	3	3.3
과·채음료류	-	-	-	-	-	-	-	-	-	-
생수	3	6.4	-	-	-	-	-	-	3	3.3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이유식	-	-	-	-	-	-	-	-	-	-
장류	-	-	-	-	-	-	-	-	-	-
소스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1	5.0	-	-	-	-	1	1.1
절임식품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1	11.1	1	1.1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1	5.0	-	-	-	-	1	1.1

건포류	-	-	-	-	-	-	-	-	-	-
건강식품	29	61.7	3	15.0	5	35.7	-	-	37	41.1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	-	2	10.0	1	7.1	-	-	3	3.3
돼지고기	-	-	-	-	-	-	-	-	-	-
닭고기							1	11.1	1	1.1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1	2.1	3	15.0	1	7.1	1	11.1	6	6.7
채소류	1	2.1	2	10.0	1	7.1	-	-	4	4.4
과일류	1	2.1	-	-	1	7.1	-	-	2	2.2
생선류	1	2.1	1	5.0	-	-	1	11.1	3	3.3
어패류	-	-	-	-	-	-	-	-	-	-
해조류	1	2.1	-	-	-	-	-	-	1	1.1
식용종자·버섯류	-	-	1	5.0	-	-	-	-	1	1.1
약용작물류	-	-	1	5.0	1	7.1	-	-	2	2.2
견과류	-	-	-	-	-	-	-	-	-	-
조미료(향신료	-	-	-	-	1	7.1	-	-	1	1.1
고추가루	-	-	2	10.0	-	-	-	-	2	2.2
한식	-	-	1	5.0	-	-	2	22.2	3	3.3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노점상	-	-	-	-	-	-	1	11.1	1	1.1
패스트푸드점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 (중복응답)	47	100.0	20	100.0	14	100.0	9	100.0	90	100.0

○ 11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85건으로 건강식품 31건(36.5%) 으로 가장 많았고, 곡류 5건(5.9%), 꿀과 생선류가 각각 4건(4.7%), 채소류와 과일류, 약용작물류가 각각 3건(3.5%)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11월)

품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2.5	-	-	-	-	-	-	1	1.2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	-	-	-	-	-
과자류	-	-	-	-	-	-	-	-	-	-
코코아가공품류	1	2.5	-	-	-	-	-	-	1	1.2
잼류	-	-	-	-	-	-	-	-	-	-
꿀	2	5	-	-	2	9.5	-	-	4	4.7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우유류	-	-	1	4.8	-	-	-	-	1	1.2
발효유류	1	2.5	-	-	-	-	-	-	1	1.2
분유류	2	5	-	-	-	-	-		2	2.4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1	2.5	-	-	-	-	-	-	1	1.2
두부류 또는 묵류	-	-	1	4.8	-	-	-	-	1	1.2
식용유지류	-	-	1	4.8	-	-	-	-	1	1.2
라면류	1	2.5	-	-	-	-	-	-	1	1.2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1	4.8	-	-	1	1.2
커피	-	-	-	-	-	-	-	-	-	-
탄산음료류	2	5	-	-	-	-	-	-	2	2.4
과·채음료류	-	-	1	4.8	-	-	-	-	1	1.2
생수	1	2.5	-	-	-	-	-	-	1	1.2
특수용도식품 (환자식)	-	-	-	-	1	4.8	-	-	1	1.2
이유식	-	-	-	-	-	-	-	-	-	-
장류	-	-	-	-	-	-	-	-	-	-
소스류	-	-	-	-	-	-	-	-	-	-
김치류	-	-	1	4.8	-	-	-	-	1	1.2
젓갈류	-	-	1	4.8	1	4.8	-	-	2	2.4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1	4.8	-	-	1	33.3	2	2.4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	-	-	-
포도주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	-	1	4.8	-	-	-	-	1	1.2
건강식품	17	42.5	2	9.5	12	57.1	-	-	31	36.5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1	2.5	1	4.8	-	-	-	-	2	2.4
돼지고기	-	-	-	-	-	-	-	-	-	-
닭고기	-	-	-	-	-	-	-	-	-	-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2	5	2	9.5	1	4.8	-	-	5	5.9
채소류	2	5	1	4.8	-	-	-	-	3	3.5
과일류	2	5	1	4.8	-	-	-	-	3	3.5
생선류	-	-	3	14.3	1	4.8	-	-	4	4.7
어패류	-	-	-	-	-	-	-	-	-	-
해조류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나물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1	2.5	-	-	2	9.5	-	-	3	3.5
견과류	1	2.5	-	-	-	-	-	-	1	1.2
조미료(향신료	1	2.5	1	4.8	-	-	-	-	2	2.4
고추가루	1	2.5	-	-	-	-	1	33.3	2	2.4
한식	-	-	1	4.8	-	-	-	-	1	1.2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1	33.3	1	1.2
기타육류	-	-	1	4.8	-	-	-	-	1	1.2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 (중복응답)	40	100.0	21	100.0	21	100.0	3	100.0	85	100.0

○ 12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73건으로 건강식품이 19건(26.0%)으로 가장 많았고, 조미료(향신료)가 7건(9.6%)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12월)

품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2.0	-	-	-	-	-	-	1	1.4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1	12.5	-	-	1	1.4
과자류	2	4.1	-	-	-	-	-	-	2	2.7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잼류	-	-	-	-	-	-	-	-	-	-
설탕	-	-	-	-	-	-	-	-	-	-
꿀	3	6.1	-	-	-	-	-	-	3	4.1
엿류	-	-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	-	-	-	-	-	-	-	-	-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2	4.1	-	-	-	-	-	-	2	2.7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1	2.0	-	-	-	-	-	-	1	1.4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1	2.0	-	-	-	-	-	-	1	1.4
식용유지류	1	2.0	-	-	-	-	1	20	2	2.7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1	2.0	-	-	-	-	-	-	1	1.4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	-	-	-	-	-
커피	-	-	-	-	-	-	-	-	-	-
탄산음료류	1	2.0	-	-	-	-	1	20	2	2.7
과·채음료류	-	-	-	-	-	-	-	-	-	-
생수	2	4.1	-	-	-	-	-	-	2	2.7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이유식	-	-	-	-	-	-	-	-	-	-
장류	1	2.0	-	-	-	-	-	-	1	1.4
소스류	-	-	-	-	-	-	-	-	-	-
김치류	1	2.0	-	-	-	-	-	-	1	1.4
젓갈류	1	2.0	-	-	1	12.5	-	-	2	2.7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	-	-	-	-	-	-	-
맥주	1	2.0	-	-	-	-	-	-	1	1.4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1	2.0	-	-	-	-	-	-	1	1.4
건강식품	13	26.5	-	-	4	50	2	40	19	26.0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	-	1	9.1	-	-	-	-	1	1.4
돼지고기	-	-	-	-	-	-	-	-	-	-
닭고기	-	-	-	-	-	-	-	-	-	-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1	2.0	2	18.2	-	-	-	-	3	4.1
채소류	3	6.1	-	-	-	-	-	-	3	4.1
과일류	-	-	1	9.1	-	-	-	-	1	1.4
생선류	1	2.0	3	27.3	1	12.5	-	-	5	6.8
어패류	-	-	1	9.1	-	-	-	-	1	1.4
해조류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1	2.0	-	-	-	-	-	-	1	1.4
약용작물류	2	4.1	-	-	1	12.5	-	-	3	4.1
견과류	-	-	-	-	-	-	-	-	-	-
조미료(향신료)	5	10.2	2	18.2	-	-	-	-	7	9.6
고추가루	2	4.1	1	9.1	-	-	-	-	3	4.1
한식	-	-	-	-	-	-	1	20	1	1.4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2.0	-	-	-	-	-	-	1	1.4
기타육류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중복응답)	49	100.0	11	100.0	8	100	5	100	73	100.0

(6) 품질불량

○ 1월~12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8,017건으로 건강식품 5763건(71.88%) 68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약용작물류 515건(6.42%), 과일류 232건(2.89%), 채소류 166건(2.07%)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1월~12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6	0.34	-	-	2	1.3	-	-	28	0.35
케익류	8	0.10	-	-	2	1.3	1	1.7	11	0.14
떡류	25	0.32	-	-	1	0.6	-	-	26	0.32
과자류	39	0.51	1	1.3	7	4.4	3	5.0	50	0.62
코코아가공품류	6	0.08	1	1.3	3	1.9	-	-	10	0.12
잼류	2	0.03	-	-	1	0.6	-	-	3	0.04
설탕	1	0.01	-	-	-	-	-	-	1	0.01
포도당/과당	-	-	-	-	-	-	-	-	-	-
꿀	11	0.14	-	-	2	1.3	-	-	13	0.16
엿류	4	0.05	-	-	1	0.6	-	-	5	0.06
당시럽류	1	0.01	1	1.3	-	-	-	-	2	0.02
올리고당류	-	-	-	-	-	-	-	-		
아이스크림류	7	0.09	-	-	-	-	3	5.0	10	0.12
빙과류	1	0.01	-	-	-	-			1	0.01
우유류	29	0.38	2	2.6	7	4.4	1	1.7	39	0.49
발효유류	6	0.08	-	-	1	0.6	2	3.3	9	0.11
분유류	20	0.26	9	11.7	10	6.3	-	-	39	0.49
치즈·버터류	9	0.12	-	-	-	-	-	-	9	0.11
햄 및 소시지류	8	0.10	-	-	3	1.9	2	3.3	13	0.16
치킨류	8	0.10	-	-	-	-	-	-	8	0.10
기타육류가공품	58	0.75	1	1.3	3	1.9	0	0.0	62	0.77
알가공품	2	0.03	-	-	-	-	1	1.7	3	0.04
어묵제품류	3	0.04	1	1.3	2	1.3	2	3.3	8	0.10
두부류 또는 묵류	7	0.09	-	-	1	0.6	-	-	8	0.10
식용유지류	19	0.25	-	-	1	0.6	-	-	20	0.25
라면류	12	0.16	1	1.3	-	-	-	-	13	0.16
건면류	5	0.06	-	-	-	-	-	-	5	0.06
생면류	4	0.05	-	-	-	-	-	-	4	0.05
다류	18	0.23	2	2.6	4	2.5	3	5.0	27	0.34
커피	20	0.26	1	1.3	5	3.1	4	6.7	30	0.37
탄산음료류	6	0.08	4	5.2	4	2.5	6	10.0	20	0.25
과·채음료류	16	0.21	2	2.6	4	2.5	6	10.0	28	0.35
생수	8	0.10	3	3.9	1	0.6	3	5.0	15	0.19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1	0.14	1	1.3	-	-	-	-	12	0.15
이유식	1	0.01	-	-	-	-	-	-	1	0.01
장류	15	0.19	-	-	1	0.6	-	-	16	0.20
소스류	1	0.01	1	1.3		-	1	1.7	3	0.04
드레싱류	2	0.03	-	-	-	-	-	-	2	0.02
김치류	17	0.22	1	1.3	3	1.9	-	-	21	0.26
젓갈류	14	0.18	-	-	1	0.6	1	1.7	16	0.20
절임식품	5	0.06	2	2.6	1	0.6	-	-	8	0.10
절임배추	41	0.53	-	-	1	0.6	-	-	42	0.52

조림식품	7	0.09	2	2.6	7	4.4	6	10.0	22	0.27
소주	1	0.01	5	6.5	4	2.5	2	3.3	12	0.15
맥주	5	0.06	7	9.1	5	3.1	1	1.7	18	0.22
포도주	5	0.06	2	2.6	1	0.6	1	1.7	9	0.11
탁약주(막걸리)	4	0.05	1	1.3	1	0.6	-	-	6	0.07
건포류	17	0.22	-	-	-	-	1	1.7	18	0.22
건강식품	5726	74.16	9	11.7	25	15.7	3	5.0	5763	71.88
즉석식품	21	0.27	1	1.3	1	0.6	3	5.0	26	0.32
쇠고기	88	1.14	-	-	5	3.1	-	-	93	1.16
돼지고기	46	0.60	-	-	1	0.6	-	-	47	0.59
닭고기	16	0.21	-	-	-	-	-	-	16	0.20
오리고기	5	0.06	-	-	-	-	-	-	5	0.06
알류	17	0.22	-	-	-	-	1	1.7	18	0.22
곡류	85	1.10	-	-	3	1.9	1	1.7	89	1.11
채소류	163	2.11	-	-	3	1.9	-	-	166	2.07
과일류	215	2.78	5	6.5	11	6.9	1	1.7	232	2.89
생선류	72	0.93			2	1.3	-	-	74	0.92
어패류	49	0.63	2	2.6	2	1.3	-	-	53	0.66
해조류	9	0.12	1	1.3	3	1.9	-	-	13	0.16
식용종자·버섯류	7	0.09	1	1.3	-	-	-	-	8	0.10
나물류	1	0.01			-	-	-	-	1	0.01
약용작물류	512	6.63	1	1.3	2	1.3	-	-	515	6.42
견과류	33	0.43	-	-	1	0.6	-	-	34	0.42
조미료(향신료	9	0.12	-	-	2	1.3	-	-	11	0.14
고추가루	20	0.26	-	-	-	-	-	-	20	0.25
한식	28	0.36	-	-	-	-	1	1.7	29	0.36
양식	-	-	-	-	-	-	-	-	-	-
일식	3	0.04	-	-	-	-	-	-	3	0.04
중식	4	0.05	-	-	1	0.6	-	-	5	0.06
분식	6	0.08	-	-	-	-	-	-	6	0.07
노점상	-	-	-	-	-	-	-	-	0	0.00
패스트푸드점	32	0.41	1	1.3	4	2.5	-	-	37	0.46
뷔페	-	-	-	-	-	-	-	-		
복합조미식품	1	0.01			1	0.6	-	-	2	0.02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5	0.06	5	6.5	1	0.6	-	-	11	0.14
기타육류	10	0.13	-	-	-	-	-	-	10	0.12
기타식품류	-	-	-	-	1	0.6	-	-	1	0.01
미기재	3	0.04	-	-	-	-	-	-	3	0.04
총합계(중복응답)	7721	100.00	77	100.0	159	100.0	60	100.0	8017	100.00

○ 1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192건으로 건강식품이 68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13건(6.8%), 과일류가 11건(5.7%), 패스트푸드점이 10건(5.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1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1	0.6	-	-	-	-	-	-	1	0.5
케익류	-	-	-	-	-	-	-	-	-	-
떡류	3	1.7	-	-	-	-	-	-	3	1.6
과자류	5	2.8	-	-	1	11.1	-	-	6	3.1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1	0.6	-	-	-	-	-	-	1	0.5
잼류	-	-	-	-	-	-	-	-	-	-
설탕	-	-	-	-	-	-	-	-	-	-
꿀	1	0.6	-	-	-	-	-	-	1	0.5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우유류	1	0.6	-	-	-	-	-	-	1	0.5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1	0.6	1	14.3	-	-	-	-	2	1.0
치즈버터류	2	1.1	-	-	-	-	-	-	2	1.0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2	1.1	-	-	-	-	-	-	2	1.0
기타육류가공품	3	1.7	-	-	-	-	-	-	3	1.6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1	14.3	-	-	-	-	1	0.5
두부류 또는 묵류	2	1.1	-	-	-	-	-	-	2	1.0
식용유지류	-	-	-	-	-	-	-	-	-	-
라면류	1	0.6	-	-	-	-	-	-	1	0.5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1	0.6	-	-	-	-	-	-	1	0.5
다류	3	1.7	1	14.3	1	11.1	-	-	5	2.6
커피	2	1.1	1	14.3	1	11.1	-	-	4	2.1
과채음료류	-	-	-	-	-	-	-	-	-	-
생수	-	-	-	-	-	-	-	-	-	-
특수용도식품	-	-	-	-	-	-	-	-	-	-
이유식	-	-	-	-	-	-	-	-	-	-
장류	1	0.6	-	-	-	-	-	-	1	0.5
소스류	-	-	-	-	-	-	-	-	-	-
김치류	1	0.6	1	14.3	-	-	-	-	2	1.0
젓갈류	-	-	-	-	1	11.1	-	-	1	0.5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3	1.7	-	-	-	-	-	-	3	1.6
조림식품	1	0.6	-	-	1	11.1	-	-	2	1.0

소주	1	0.6	-	-	-	-	-	-	1	0.5
맥주	-	-	1	14.3	-	-	-	-	1	0.5
건포류	2	1.1	-	-	-	-	-	-	2	1.0
건강식품	68	38.6	-	-	-	-	-	-	68	35.4
즉석식품	1	0.6	-	-	1	11.1	-	-	2	1.0
쇠고기	8	4.5	-	-	-	-	-	-	8	4.2
돼지고기	3	1.7	-	-	-	-	-	-	3	1.6
닭고기	-	-	-	-	-	-	-	-	-	-
알류	1	0.6	-	-	-	-	-	-	1	0.5
곡류	8	4.5	-	-	-	-	-	-	8	4.2
채소류	13	7.4	-	-	-	-	-	-	13	6.8
과일류	11	6.3	-	-	-	-	-	-	11	5.7
생선류	1	0.6	-	-	1	11.1	-	-	2	1.0
어패류	2	1.1	-	-	-	-	-	-	2	1.0
해조류	-	-	1	14.3	-	-	-	-	1	0.5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2	1.1	-	-	-	-	-	-	2	1.0
견과류	3	1.7	-	-	-	-	-	-	3	1.6
조미료	1	0.6	-	-	-	-	-	-	1	0.5
고추가루	1	0.6	-	-	-	-	-	-	1	0.5
한식	5	2.8	-	-	-	-	-	-	5	2.6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1	0.6	-	-	-	-	-	-	1	0.5
패스트푸드점	8	4.5	-	-	2	22.2	-	-	10	5.2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비어 있음	1	0.6	-	-	-	-	-	-	1	0.5
총합계	176	100.0	7	100.0	9	100.0	0	0	192	100.0

○ 2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200건으로 건강식품이 58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 29건(14.5%), 쇠고기 16건(8.0%), 어패류가 9건(4.5%)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2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4	2.3	-	-	-	-	-	-	4	2.0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	-	-	-	-	-
과자류	2	1.1	-	-	-	-	-	-	2	1.0
코코아가공품류	-	-	-	-	2	14.3	-	-	2	1.0
잼류	1	0.6	-	-	-	-	-	-	1	0.5
설탕	-	-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	-	-	-	-	-	-	-	-	-
발효유류	-	-	-	-	1	7.1	-	-	1	0.5
분유류	2	1.1	2	20.0	-	-	-	-	4	2.0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1	0.6	-	-	-	-	-	-	1	0.5
기타육류가공품	3	1.7	-	-	-	-	-	-	3	1.5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1	0.6	-	-	-	-	-	-	1	0.5
라면류	1	0.6	-	-	-	-	-	-	1	0.5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	-	-	-	-	-
커피	1	0.6	-	-	-	-	-	-	1	0.5
탄산음료류	-	-	-	-	-	-	-	-	-	-
과·채음료류	2	1.1		0.0	1	7.1	1	50.0	4	2.0
생수	1	0.6	2	20.0		0.0	1	50.0	4	2.0
특수용도식품	1	0.6	-	-	-	-	-	-	1	0.5
이유식	-	-	-	-	-	-	-	-	-	-
장류	1	0.6	-	-	-	-	-	-	1	0.5
소스류	-	-	-	-	-	-	-	-	-	-
김치류	4	2.3	-	-	-	-	-	-	4	2.0
젓갈류	1	0.6	-	-	-	-	-	-	1	0.5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2	20.0	1	7.1	-	-	3	1.5
맥주	2	1.1	-	-	-	-	-	-	2	1.0
탁약주	3	1.7	1	10.0	-	-	-	-	4	2.0
건포류	4	2.3	-	-	-	-	-	-	4	2.0
건강식품	54	31.0	-	-	4	28.6	-	-	58	29.0
즉석식품	1	0.6	-	-	-	-	-	-	1	0.5

쇠고기	15	8.6	-	-	1	7.1	-	-	16	8.0
돼지고기	6	3.4	-	-	-	-	-	-	6	3.0
닭고기	2	1.1	-	-	-	-	-	-	2	1.0
알류	-	-	-	-	-	-	-	-	-	–
곡류	6	3.4	-	-	1	7.1	-	-	7	3.5
채소류	5	2.9	-	-	-	-	-	-	5	2.5
과일류	25	14.4	3	30.0	1	7.1	-	-	29	14.5
생선류	7	4.0	-	-	-	-	-	-	7	3.5
어패류	9	5.2	-	-	-	-	-	-	9	4.5
해조류	1	0.6	-	-	1	7.1	-	-	2	1.0
식용종자·버섯류	2	1.1	-	-	-	-	-	-	2	1.0
나물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2	1.1	-	-	1	7.1	-	-	3	1.5
견과류	1	0.6	-	-	-	-	-	-	1	0.5
조미료	1	0.6	-	-	-	-	-	-	1	0.5
고추가루	1	0.6	-	-	-	-	-	-	1	0.5
한식	1	0.6	-	-	-	-	-	-	1	0.5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	174	100.0	10	100.0	14	100.0	2	100	200	100.0

○ 3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207건으로 건강식품이 84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가 10건(4.8%), 과일류 7건(3.4%)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3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3	1.7	-	-	-	-	-	-	3	1.4
케익류	-	-	-	-	-	-	1	12.5	1	0.5
떡류	2	1.1	-	-	-	-	-	-	2	1.0
과자류	3	1.7	-	-	1	7.7	-	-	4	1.9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잼류	-	-	-	-	1	7.7	-	-	1	0.5
설탕	-	-	-	-	-	-	-	-	-	-
꿀	3	1.7	-	-	-	-	-	-	3	1.4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우유로	-	-	-	-	-	-	-	-	-	-
발효유류	-	-	-	-	-	-	1	12.5	1	0.5
분유류	1	0.6	4	57.1	-	-	-	-	5	2.4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2	1.1	-	-	-	-	1	12.5	3	1.4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8	4.5	-	-	-	-	-	-	8	3.9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1	0.6	-	-	-	-	-	-	1	0.5
라면류	3	1.7	-	-	-	-	-	-	3	1.4
건면류	-	-	-	-	-	-	-	-	-	-
다류	3	1.7	-	-	1	7.7	-	-	4	1.9
커피	1	0.6	-	-	1	7.7	2	25	4	1.9
탄산음료류	-	-	-	-	-	-	-	-	-	-
과·채음료류	1	0.6	-	-	1	7.7	-	-	2	1.0
생수	1	0.6	-	-	-	-	-	-	1	0.5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1	14.3	-	-	-	-	1	0.5
이유식	-	-	-	-	-	-	-	-	-	-
장류	2	1.1	-	-	-	-	-	-	2	1.0
소스류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김치류	1	0.6	-	-	-	-	-	-	1	0.5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1	14.3	1	7.7	-	-	2	1.0
소주	-	-	-	-	-	-	-	-	-	-
맥주	1	0.6	1	14.3	-	-	-	-	2	1.0
포도주	-	-	-	-		0.0	1	12.5	1	0.5
탁약주	-	-	-	-	-	-	-	-	-	-
건포류	-	-	-	-	-	-	-	-	-	-
건강식품	80	44.7	-	-	4	30.8	-	-	84	40.6

즉석식품	4	2.2	-	-	-	-	-	-	4	1.9
쇠고기	9	5.0	-	-	-	-	-	-	9	4.3
돼지고기	3	1.7	-	-	-	-	-	-	3	1.4
닭고기	1	0.6	-	-	-	-	-	-	1	0.5
오리고기	2	1.1	-	-	-	-	-	-	2	1.0
알류	1	0.6	-	-	-	-	-	-	1	0.5
곡류	2	1.1	-	-	1	7.7	1	12.5	4	1.9
채소류	10	5.6	-	-	-	-	-	-	10	4.8
과일류	7	3.9	-	-	-	-	-	-	7	3.4
생선류	2	1.1	-	-	-	-	-	-	2	1.0
어패류	7	3.9	-	-	-	-	-	-	7	3.4
해조류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나물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2	1.1	-	-	-	-	-	-	2	1.0
견과류	2	1.1	-	-	-	-	-	-	2	1.0
조미료	1	0.6	-	-	-	-	-	-	1	0.5
고추가루	1	0.6	-	-	-	-	-	-	1	0.5
한식	2	1.1	-	-	-	-	1	12.5	3	1.4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1	0.6	-	-	-	-	-	-	1	0.5
노점상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6	3.4	-	-	1	7.7	-	-	7	3.4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	-	-	-	-	1	7.7	-	-	1	0.5
기타육류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	179	100.0	7	100.0	13	100.0	8	100	207	100.0

○ 4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1,046건으로 약용작물류가 487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 457건(43.7%) 곡류가 9건(0.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4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	-	-	-	-	-	-	-	-	-
케익류	-	-	-	-	-	-	-	-	-	-
떡류	4	0.4	-	-	-	-	-	-	4	0.4
과자류	5	0.5	-	-	-	-	1	25	6	0.6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설탕	-	-	-	-	-	-	-	-	-	-
꿀	-	-	-	-	1	7.7	-	-	1	0.1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1	0.1	-	-	-	-	1	25	2	0.2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	-	-	-	-	-	-	-	-	0.2
발효유류	1	0.1	-	-	-	-	-	-	1	0.1
분유류	-	-	-	-	-	-	-	-	-	-
치즈·버터류	1	0.1	-	-	-	-	-	-	1	0.1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3	0.3	-	-	1	7.7	-	-	4	0.4
알가공품	1	0.1	-	-	-	-	-	-	1	0.1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3	0.3	-	-	-	-	-	-	3	0.3
커피	-	-	-	-	-	-	-	-	-	-
탄산음료류	1	0.1	-	-	2	15.4	-	-	3	0.3
과·채음료류	-	-	-	-	1	7.7	1	25	2	0.2
생수	2	0.2	-	-	1	7.7	-	-	3	0.3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이유식	-	-	-	-	-	-	-	-	-	-
장류	-	-	-	-	-	-	-	-	-	-
소스류	-	-	1	100	-	-	-	-	1	0.1
김치류	2	0.2	-	-	-	-	-	-	2	0.2
젓갈류	1	0.1	-	-	-	-	-	-	1	0.1
절임식품	1	0.1	-	-	-	-	-	-	1	0.1
절임배추	1	0.1	-	-	-	-	-	-	1	0.1
조림식품	1	0.1	-	-	-	-	1	25	2	0.2
소주	-	-	-	-	-	-	-	-	-	-
맥주	1	0.1	-	-	-	-	-	-	1	0.1
건포류	1	0.1	-	-	-	-	-	-	1	0.1

건강식품	456	44.4	-	-	1	7.7	-	-	457	43.7
즉석식품	1	0.1	-	-	-	-	-	-	1	0.1
쇠고기	2	0.2	-	-	1	7.7	-	-	3	0.3
돼지고기	1	0.1	-	-	-	-	-	-	1	0.1
닭고기	4	0.4	-	-	-	-	-	-	4	0.4
오리고기	1	0.1	-	-	-	-	-	-	1	0.1
알류	2	0.2	-	-	-	-	-	-	2	0.2
곡류	8	0.8	-	-	1	7.7	-	-	9	0.9
채소류	7	0.7	-	-	-	-	-	-	7	0.7
과일류	8	0.8	-	-	1	7.7	-	-	9	0.9
생선류	6	0.6	-	-	-	-	-	-	6	0.6
어패류	4	0.4	-	-	-	-	-	-	4	0.4
해조류	1	0.1	-	-	-	-	-	-	1	0.1
식용종자·버섯류	1	0.1	-	-	-	-	-	-	1	0.1
약용작물류	487	47.4	-	-	-	-	-	-	487	46.6
견과류	3	0.3	-	-	-	-	-	-	3	0.3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고추가루	2	0.2	-	-	-	-	-	-	2	0.2
한식	2	0.2	-	-	-	-	-	-	2	0.2
일식	-	-	-	-	-	-	-	-	-	–
중식	1	0.1	-	-	1	7.7	-	-	2	0.2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	-	-	–
뷔페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0.1	-	-	-	-	-	-	1	0.1
무응답	-	-	-	-	-	-	-	-	-	–
총합계	1028	100.0	1	100.0	13	100.0	4	100.0	1046	100.0

○ 5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3,865건으로 건강식품 3,739건(96.74%)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 14건(0.36%), 채소류가 10건(0.26%)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5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	-	-	-	1	12.5	-	-	1	0.03
케익류	1	0.03	-	-	-	-	-	-	1	0.03
떡류	1	0.03	-	-	-	-	-	-	1	0.03
과자류	6	0.16	1	11.1	-	-	-	-	7	0.18
코코아가공품류	1	0.03	-	-	-	-	-	-	1	0.03
잼류	-	-	-	-	-	-	-	-	-	-
포도당/과당	-	-	-	-	-	-	-	-	-	-
꿀	2	0.05	-	-	-	-	-	-	2	0.05
엿류	1	0.03	-	-	-	-	-	-	1	0.03
당시럽류	-	-	-	-	-	-	-	-	-	-
올리고당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2	0.05	-	-	-	-	-	-	2	0.05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3	0.08	-	-	1	12.5	-	-	4	0.10
발효유류	1	0.03	-	-	-	-	-	-	1	0.03
분유류	3	0.08	-	-	1	12.5	-	-	4	0.10
치즈·버터류	1	0.03	-	-	-	-	-	-	1	0.03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0.03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3	0.08	-	-	-	-	-	-	3	0.08
알가공품	1	0.03	-	-	-	-	-	-	1	0.03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1	0.03	-	-	1	12.5	-	-	2	0.05
라면류	2	0.05	-	-	-	-	-	-	2	0.05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1	0.03	-	-	-	-	-	-	1	0.03
커피	1	0.03	-	-	-	-	-	-	1	0.03
탄산음료류	1	0.03	1	11.1	1	12.5	1	25	4	0.10
과·채음료류	2	0.05	-	-	-	-	1	25	3	0.08
생수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0.03	-	-	-	-	-	-	1	0.03
이유식	-	-	-	-	-	-	-	-	-	-
장류	3	0.08	-	-	-	-	-	-	3	0.08
드레싱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1	0.03	-	-	-	-	-	-	1	0.03
절임식품	2	0.05	-	-	-	-	-	-	2	0.05
절임배추	-	-	1	11.1	-	-	-	-	1	0.03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1	0.03	-	-	1	12.5	1	25	3	0.08
맥주	-	-	1	11.1	-	-	1	25	2	0.05

포도주	1	0.03	-	-	-	-	-	-	1	0.03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	-	-	-	-	-	-	-	-	–
건강식품	3,737	97.2	2	22.2	-	-	-	-	3,739	96.74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4	0.10	-	-	-	-	-	-	4	0.10
돼지고기	6	0.16	-	-	-	-	-	-	6	0.16
닭고기	-	-	-	-	-	-	-	-	-	–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4	0.10	-	-	-	-	-	-	4	0.10
채소류	10	0.26	-	-	-	-	-	-	10	0.26
과일류	13	0.34	1	11.1	-	-	-	-	14	0.36
생선류	3	0.08	-	-	-	-	-	-	3	0.08
어패류	6	0.16	-	-	-	-	-	-	6	0.16
해조류	1	0.03	-	-	-	-	-	-	1	0.03
식용종자·버섯류	-	-	1	11.1	-	-	-	-	1	0.03
나물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5	0.13	-	-	-	-	-	-	5	0.13
견과류	3	0.08	-	-	-	-	-	-	3	0.08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고추가루	1	0.03	-	-	-	-	-	-	1	0.03
한식	3	0.08	-	-	-	-	-	-	3	0.08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1	0.03	-	-	-	-	-	-	1	0.03
분식	-	-	-	-	-	-	-	-	-	–
노점상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2	0.05	1	11.1	-	-	-	-	3	0.08
뷔페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 (양주, 청주 등)	-	-	-	-	-	-	-	-	-	–
기타육류	2	0.05	-	-	-	-	-	-	2	0.05
무응답	-	-	-	-	-	-	-	-	-	–
총합계	3844	100.0	9	100.0	8	100.0	4	100	3,865	100.0

○ 6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994건으로 건강식품이 819건(82.4%)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 23건(2.3%), 채소류 18건(1.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6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0.2	-	-	-	-	-	-	2	0.2
케익류	1	0.1	-	-	2	10.5	-	-	3	0.3
떡류	2	0.2	-	-	-	-	-	-	2	0.2
과자류	3	0.3	-	-	-	-	-	-	3	0.3
코코아가공품류	1	0.1	-	-	-	-	-	-	1	0.1
잼류	-	-	-	-	-	-	-	-	-	-
설탕	-	-	-	-	-	-	-	-	-	-
포도당/과당	-	-	-	-	-	-	-	-	-	-
꿀	-	-	-	-	1	5.3	-	-	1	0.1
엿류	-	-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1	11.1	1	0.1
빙과류	1	0.1	-	-	-	-	-	-	1	0.1
우유류	3	0.3	-	-	-	-	-	-	3	0.3
발효유류	1	0.1	-	-	-	-	-	-	1	0.1
분유류	2	0.2	-	-	1	5.3	-	-	3	0.3
치즈·버터류	1	0.1	-	-	-	-	-	-	1	0.1
햄 및 소시지류	2	0.2	-	-	-	-	-	-	2	0.2
치킨류	2	0.2	-	-	-	-	-	-	2	0.2
기타육류가공품	10	1.0	-	-	1	5.3	-	-	11	1.1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1	11.1	1	0.1
두부류 또는 묵류	1	0.1	-	-	-	-	-	-	1	0.1
식용유지류	-	-	-	-	-	-	-	-	-	-
라면류	1	0.1	1	33.3	-	-	-	-	2	0.2
건면류	1	0.1	-	-	-	-	-	-	1	0.1
생면류	1	0.1	-	-	-	-	-	-	1	0.1
다류	2	0.2	-	-	-	-	1	11.1	3	0.3
커피	5	0.5	-	-	1	5.3	-	-	6	0.6
탄산음료류	-	-	-	-	-	-	2	22.2	2	0.2
과·채음료류	1	0.1	-	-	1	5.3	-	-	2	0.2
생수	2	0.2	-	-	-	-	1	11.1	3	0.3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0.1	-	-	-	-	-	-	1	0.1
이유식	-	-	-	-	-	-	-	-	-	-
장류	1	0.1	-	-	-	-	-	-	1	0.1
소스류	-	-	-	-	-	-	1	11.1	1	0.1
드레싱류	1	0.1	-	-	-	-	-	-	1	0.1
김치류	5	0.5	-	-	-	-	-	-	5	0.5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1	0.1	-	-	-	-	-	-	1	0.1

절임배추	-	-	-	-	1	5.3	-	-	1	0.1
조림식품	2	0.2	-	-	1	5.3	1	11.1	4	0.4
소주	-	-	1	33.3	1	5.3	-	-	2	0.2
맥주	-	-	-	-	1	5.3	-	-	1	0.1
포도주	4	0.4	-	-	-	-	-	-	4	0.4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2	0.2	-	-	-	-	-	-	2	0.2
건강식품	815	84.6	-	-	4	21.1	-	-	819	82.4
즉석식품	1	0.1	-	-	-	-	1	11.1	2	0.2
쇠고기	6	0.6	-	-	1	5.3	-	-	7	0.7
돼지고기	5	0.5	-	-	-	-	-	-	5	0.5
닭고기	2	0.2	-	-	-	-	-	-	2	0.2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4	0.4	-	-	-	-	-	-	4	0.4
곡류	5	0.5	-	-	-	-	-	-	5	0.5
채소류	17	1.8	-	-	-	-	-	-	18	1.8
과일류	20	2.1	1	33.3	2	0.5	-	-	23	2.3
생선류	6	0.6	-	-	-	-	-	-	6	0.6
어패류	2	0.2	-	-	-	-	-	-	2	0.2
해조류	1	0.1	-	-	-	-	-	-	1	0.1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3	0.3	-	-	-	-	-	-	3	0.3
견과류	3	0.3	-	-	-	-	-	-	3	0.3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고추가루	1	0.1	-	-	-	-	-	-	1	0.1
한식	4	0.4	-	-	-	-	-	-	4	0.4
양식	-	-	-	-	-	-	-	-	-	-
일식	1	0.1	-	-	-	-	-	-	1	0.1
중식	1	0.1	-	-	-	-	-	-	1	0.1
분식	-	-	-	-	-	-	-	-	-	-
노점상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2	0.2	-	-	-	-	-	-	2	0.2
기타육류	-	-	-	-	-	-	-	-	-	-
미기재	2	0.2	-	-	-	-	-	-	2	0.2
총합계	963	100.0	3	100.0	19	100.0	9	100.0	994	100.0

○ 7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306건으로 건강식품 162건(52.9%)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 22건(7.2%), 채소류 15건(4.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7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0.4	-	-	-	-	-	-	1	0.3
케익류	-	-	-	-	-	-	-	-	-	-
떡류	4	1.4	-	-	-	-	-	-	4	1.3
과자류	1	0.4			2	12.5	1	20	4	1.3
코코아가공품류	2	0.7	-	-	-	-	-	-	2	0.7
설탕	1	0.4	-	-	-	-	-	-	1	0.3
꿀	2	0.7	-	-	-	-	-	-	2	0.7
당시럽류	1	0.4	-	-	-	-	-	-	1	0.3
아이스크림류	2	0.7	-	-	-	-	-	-	2	0.7
빙과류		0.0	-	-	-	-	-	-	-	-
우유류	5	1.8	-	-	1	6.3	-	-	6	2.0
발효유류	3	1.1	-	-	-	-	-	-	3	1.0
분유류	3	1.1	2	33.3	4	25.0	-	-	9	2.9
치즈·버터류	1	0.4	-	-	-	-	-	-	1	0.3
햄 및 소시지류	3	1.1	-	-	-	-	-	-	3	1.0
치킨류	3	1.1	-	-	-	-	-	-	3	1.0
기타육류가공품	4	1.4	-	-	-	-	-	-	4	1.3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1	0.4	-	-	-	-	-	-	1	0.3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2	0.7	-	-	-	-	-	-	2	0.7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1	0.4	-	-	-	-	-	-	1	0.3
커피	3	1.1	-	-	-	-	-	-	4	1.3
탄산음료류	-	-	1	16.7	-	-	-	-	1	0.3
과·채음료류	2	0.7	-	-	-	-	1	20	3	1.0
생수	1	0.4	-	-	-	-	1	20	2	0.7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0.4	-	-	-	-	-	-	1	0.3
이유식	1	0.4	-	-	-	-	-	-	1	0.3
장류	-	-	-	-	1	6.3	-	-	1	0.3
소스류	-	-	-	-	-	-	-	-	-	-
드레싱류	1	0.4	-	-	-	-	-	-	1	0.3
김치류	1	0.4	-	-	1	6.3	-	-	2	0.7
젓갈류	1	0.4	-	-	-	-	-	-	1	0.3
절임식품	-	-	-	-	1	6.3	-	-	1	0.3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1	0.4	-	-	-	-	-	-	1	0.3
건강식품	159	57.0	2	33.3	-	-	1	20	162	52.9
즉석식품	2	0.7	-	-	-	-	1	20	3	1.0
쇠고기	5	1.8	-	-	1	6.3	-	-	6	2.0
돼지고기	4	1.4	-	-	1	6.3	-	-	5	1.6
닭고기	-	-	-	-	-	-	-	-	-	–
오리고기	1	0.4	-	-	-	-	-	-	1	0.3
알류	1	0.4	-	-	-	-	-	-	1	0.3
곡류	2	0.7	-	-	-	-	-	-	2	0.7
채소류	15	5.4	-	-	-	-	-	-	15	4.9
과일류	21	7.5	1	16.7	-	-	-	-	22	7.2
생선류	5	1.8	-	-	-	-	-	-	5	1.6
어패류	2	0.7	-	-	-	-	-	-	2	0.7
해조류	1	0.4	-	-	1	6.3	-	-	2	0.7
식용종자·버섯류	1	0.4	-	-	-	-	-	-	1	0.3
약용작물류	1	0.4	-	-	-	-	-	-	1	0.3
견과류	2	0.7	-	-	-	-	-	-	2	0.7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고추가루	2	0.7	-	-	-	-	-	-	2	0.7
한식	-	-	-	-	-	-	-	-	-	–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2	0.7	-	-	1	6.3	-	-	3	1.0
뷔페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1	0.4	-	-	1	6.3	-	-	2	0.7
기타육류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	279	100.0	6	100.0	16	100.0	5	100	306	100.0

○ 8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220건으로 건강식품 75건(34.1%)으로 가장 많았고, 우유류가 15건(6.8%), 과일류 14건(6.4%), 채소류가 12건(5.5%), 곡류 10건(4.5%)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8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	1.6	-	-	-	-	-	-	3	1.4
케익류	-	-	-	-	-	-	-	-	-	-
떡류	2	1.1	-	-	1	5.6	-	-	3	1.4
과자류	3	1.6	-	-	2	11.1	1	20.0	6	2.7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설탕	-	-	-	-	-	-	-	-	-	-
꿀	-	-	-	-	-	-	-	-	-	-
엿류	-	-	-	-	1	5.6	-	-	1	0.5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11	5.9	1	11.1	2	11.1	1	20.0	15	6.8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2	1.1	-	-	-	-	-	-	2	0.9
치즈·버터류	2	1.1	-	-	-	-	-	-	2	0.9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6	3.2	1	11.1	-	-	-	-	7	3.2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1	5.6	-	-	1	0.5
두부류 또는 묵류	2	1.1	-	-	-	-	-	-	2	0.9
식용유지류	1	0.5	-	-	-	-	-	-	1	0.5
라면류	0	0.0	-	-	-	-	-	-	-	-
건면류	3	1.6	-	-	-	-	-	-	3	1.4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	-	-	-	-	-
커피	2	1.1	-	-	-	-	-	-	2	0.9
탄산음료류	3	1.6	2	22.2	-	-	-	-	5	2.3
과·채음료류	4	2.1	-	-	-	-	-	-	4	1.8
생수	-	-	1	11.1	-	-	-	-	1	0.5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이유식	-	-	-	-	-	-	-	-	-	-
장류	1	0.5	-	-	-	-	-	-	1	0.5
소스류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김치류	-	-	-	-	1	5.6	-	-	1	0.5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1	0.5	-	-	-	-	-	-	1	0.5
조림식품	-	-	-	-	2	11.1	1	20.0	3	1.4
소주	-	-	-	-	-	-	-	-	-	-
맥주	-	-	1	11.1	-	-	-	-	1	0.5

포도주	-	-	-	-	1	5.6	-	-	1	0.5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	-	-	-	-	-	-	-	-	–
건강식품	73	38.8	-	-	1	5.6	1	20.0	75	34.1
즉석식품	3	1.6	-	-	-	-	1	20.0	4	1.8
쇠고기	5	2.7	-	-	1	5.6	-	-	6	2.7
돼지고기	4	2.1	-	-	-	-	-	-	4	1.8
닭고기	-	-	-	-	-	-	-	-	-	–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2	1.1	-	-	-	-	-	-	2	0.9
곡류	10	5.3	-	-	-	-	-	-	10	4.5
채소류	11	5.9	-	-	1	5.6	-	-	12	5.5
과일류	11	5.9	-	-	3	16.7	-	-	14	6.4
생선류	7	3.7	-	-	0	0.0	-	-	7	3.2
어패류	2	1.1	-	-	1	5.6	-	-	3	1.4
해조류	1	0.5	-	-	-	-	-	-	1	0.5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나물류	1	0.5	-	-	-	-	-	-	1	0.5
약용작물류	2	1.1	1	11.1	-	-	-	-	3	1.4
견과류	2	1.1	-	-	-	-	-	-	2	0.9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고추가루	2	1.1	-	-	-	-	-	-	2	0.9
한식	3	1.6	-	-	-	-	-	-	3	1.4
일식	1	0.5	-	-	-	-	-	-	1	0.5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2	1.1	-	-	-	-	-	-	2	0.9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2	22.2	-	-	-	-	2	0.9
기타육류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	188	100.0	9	100.0	18	100.0	5	100.0	220	100.0

○ 9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281건으로 건강식품 91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 44건(15.7%), 채소류가 21건(7.5%), 쇠고기가 17건(6.0%), 생선류 13건(4.6%), 곡류 10건(3.6%)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9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	1.2	-	-	2	10.5	-	-	5	1.8
케익류	-	-	-	-	-	-	-	-	-	-
떡류	2	0.8	-	-	-	-	-	-	2	0.7
과자류	3	1.2	-	-	-	-	-	-	3	1.1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설탕	-	-	-	-	-	-	-	-	-	-
꿀	1	0.4	-	-	-	-	-	-	1	0.4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우유류	4	1.6	-	-	-	-	-	-	4	1.4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1	0.4	-	-	1	5.3	-	-	2	0.7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0.7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3	1.2	-	-	1	5.3	-	-	4	1.4
어묵제품류	-	-	-	-	-	-	1	25.0	1	0.4
두부류 또는 묵류	1	0.4	-	-	-	-	-	-	1	0.4
식용유지류	2	0.8	-	-	-	-	-	-	2	0.7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1	0.4	-	-	-	-	-	-	1	0.4
생면류	1	0.4	-	-	-	-	-	-	1	0.4
다류	1	0.4	-	-	-	-	-	-	1	0.4
커피	-	-	-	-	1	5.3	1	25.0	2	0.7
탄산음료류	-	-	-	-	1	5.3	-	-	1	0.4
과·채음료류	2	0.8	1	20.0	-	-	-	-	3	1.1
생수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3	1.2	-	-	-	-	-	-	3	1.1
장류	-	-	-	-	-	-	-	-	-	-
소스류	1	0.4	-	-	-	-	-	-	1	0.4
드레싱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0.4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1	0.4	-	-	-	-	-	-	1	0.4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0.4
소주	-	-	-	-	-	-	-	-	-	-
맥주	1	0.4	2	40.0	2	10.5	0		5	1.8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1	0.4	-	-	-	-	-	-	1	0.4
건포류	2	0.8	-	-	-	-	-	-	2	0.7

건강식품	86	34.0	2	40.0	3	15.8	-	-	91	32.4
즉석식품	1	0.4	-	-	-	-	-	-	1	0.4
쇠고기	17	6.7	-	-	-	-	-	-	17	6.0
돼지고기	1	0.4	-	-	-	-	-	-	1	0.4
닭고기	2	0.8	-	-	-	-	-	-	2	0.7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5	2.0	-	-	-	-	1	25.0	6	2.1
곡류	10	4.0	-	-	-	-	-	-	10	3.6
채소류	21	8.3	-	-	-	-	-	-	21	7.5
과일류	42	16.6	-	-	1	5.3	1	25.0	44	15.7
생선류	13	5.1	-	-	-	-	-	-	13	4.6
어패류	3	1.2	-	-	-	-	-	-	3	1.1
해조류	1	0.4	-	-	-	-	-	-	1	0.4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2	0.8	-	-	-	-	-	-	2	0.7
견과류	4	1.6	-	-	1	5.3	-	-	5	1.8
조미료(향신료	3	1.2	-	-	1	5.3	-	-	4	1.4
고추가루	2	0.8	-	-	-	-	-	-	2	0.7
한식	1	0.4	-	-	-	-	-	-	1	0.4
일식	1	0.4	-	-	-	-	-	-	1	0.4
중식	-	-	-	-	-	-	-	-	-	–
분식	1	0.4	-	-	-	-	-	-	1	0.4
패스트푸드점	1	0.4	-	-	-	-	-	-	1	0.4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기타육류	2	0.8	-	-	-	-	-	-	2	0.7
기타식품류	-	-	-	-	-	-	-	-	-	0.4
총합계	253	100.0	5	100.0	19	100.0	4	100.0	281	100.0

○ 10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231건으로 건강식품 71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 25건(10.8%), 생선류 13건(5.6%) .채소류 12건(5.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10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	1.4	-	-	-	-	-	-	3	1.3
케익류	2	1.0	-	-	-	-	-	-	2	0.9
떡류	2	1.0	-	-	-	-	-	-	2	0.9
과자류	1	0.5	-	-	-	-	-	-	1	0.4
코코아가공품류	-	-	-	-	1	14.3	-	-	1	0.4
설탕	-	-	-	-	-	-	-	-	-	-
포도당/과당	-	-	-	-	-	-	-	-	-	-
꿀	1	0.5	-	-	-	-	-	-	1	0.4
엿류	2	1.0	-	-	-	-	-	-	2	0.9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1	0.5	-	-					1	0.4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	-	-	-	-	-	-	-	-	-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1	12.5	1	0.4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4	1.9							4	1.7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1	0.5	-	-	1	14.3	-	-	2	0.9
식용유지류	4	1.9	-	-	-	-	-	-	4	1.7
라면류	3	1.4	-	-	-	-	-	-	3	1.3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1	0.5	-	-	-	-	-	-	1	0.4
다류	2	1.0	1	14.3	-	-	1	12.5	4	1.7
커피	2	1.0	-	-	-	-			2	0.9
탄산음료류	-	-	-	-	-	-	2	25	2	0.9
과·채음료류	2	1.0	-	-	-	-	-	-	2	0.9
생수	1	0.5	-	-	-	-	-	-	1	0.4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이유식	-	-	-	-	-	-	-	-	-	-
장류	3	1.4	-	-	-	-	-	-	3	1.3
소스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4	1.9	-	-	-	-	-	-	4	1.7
절임식품	1	0.5	-	-	-	-	-	-	1	0.4
조림식품	1	0.5	-	-	-	-	1	12.5	2	0.9
소주	-	-	-	-	-	-	1	12.5	1	0.4
맥주	-	-	1	14.3	-	-	1	12.5	2	0.9
포도주	-	-	1	14.3	-	-	-	-	1	0.4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3	1.4	-	-	-	-	1	12.5	4	1.7
건강식품	65	31.1	2	28.6	4	57.1	-	-	71	30.7
즉석식품	3	1.4	-	-	-	-	-	-	3	1.3
쇠고기	5	2.4	-	-	-	-	-	-	5	2.2
돼지고기	5	2.4	-	-	-	-	-	-	5	2.2
닭고기	3	1.4	-	-	-	-	-	-	3	1.3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9	4.3	-	-	-	-	-	-	9	3.9
채소류	12	5.7	-	-	-	-	-	-	12	5.2
과일류	24	11.5			1	14.3			25	10.8
생선류	13	6.2	-	-	-	-	-	-	13	5.6
어패류	4	1.9	-	-	-	-	-	-	4	1.7
해조류	2	1.0	-	-	-	-	-	-	2	0.9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4	1.9	-	-	-	-	-	-	4	1.7
견과류	5	2.4	-	-	-	-	-	-	5	2.2
조미료(향신료	1	0.5	-	-	-	-	-	-	1	0.4
고추가루	4	1.9	-	-	-	-	-	-	4	1.7
한식	1	0.5	-	-	-	-	-	-	1	0.4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1	0.5	-	-	-	-	-	-	1	0.4
노점상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1	0.5	-	-	-	-	-	-	1	0.4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0.5	2	28.6	-	-	-	-	3	1.3
기타육류	2	1.0	-	-	-	-	-	-	2	0.9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중복응답)	209	100.0	7	100.0	7	100.0	8	100	231	100.0

○ 11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243건으로 건강식품 7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절임배추와 과일류가 각각 21건(8.6%), 채소류 18건(7.4%). 곡류 12건(4.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11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0.5	-	-	-	-	-	-	1	0.4
케익류	1	0.5	-	-	-	-	-	-	1	0.4
떡류	1	0.5	-	-	-	-	-	-	1	0.4
과자류	5	2.3	-	-	1	9.1	-	-	6	2.5
코코아가공품류	1	0.5	1	16.7	-	-	-	-	2	0.8
잼류	-	-	-	-	-	-	-	-	-	-
꿀	-	-	-	-	-	-	-	-	-	-
엿류	1	0.5	-	-	-	-	-	-	1	0.4
아이스크림류	1	0.5	-	-	-	-	1	16.7	2	0.8
우유류	1	0.5	-	-	-	-	-	-	1	0.4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1	0.5	-	-	-	9.1	-	-	2	0.8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1	0.5	-	-	-	-	-	-	1	0.4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5	2.3	-	-	-	-	-	-	5	2.1
어묵제품류	1	0.5	-	-	-	9.1	-	-	2	0.8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6	2.7	-	-	-	-	-	-	6	2.5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1	9.1	1	16.7	2	0.8
커피	2	0.9	-	-	-	-	1	16.7	3	1.2
탄산음료류	1	0.5	-	-	-	-	1	16.7	2	0.8
과·채음료류	-	-	1	16.7	-	-	1	16.7	2	0.8
생수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0.5	-	-	-	-	-	-	1	0.4
이유식	-	-	-	-	-	-	-	-	-	-
장류	2	0.9	-	-	-	-	-	-	2	0.8
소스류	-	-	-	-	-	-	-	-	-	-
김치류	1	0.5	-	-	-	-	-	-	1	0.4
젓갈류	2	0.9	-	-	-	-	-	-	2	0.8
절임식품	-	-	1	16.7	-	-	-	-	1	0.4
절임배추	21	9.5	-	-	-	-	-	-	21	8.6
조림식품	-	-	1	16.7	-	-	-	-	1	0.4
소주	-	-	-	-	1	9.1	-	-	1	0.4
맥주	-	-	-	-	1	9.1	-	-	1	0.4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1	0.5	-	-	-	-	-	-	1	0.4
건포류	1	0.5	-	-	-	-	-	-	1	0.4
건강식품	72	32.7	1	16.7	2	18.2	1	16.7	76	31.3
즉석식품	1	0.5	-	-	-	-	-	-	1	0.4
쇠고기	7	3.2	-	-	-	-	-	-	7	2.9

돼지고기	5	2.3	-	-	-	-	-	-	5	2.1
닭고기	-	-	-	-	-	-	-	-	-	-
오리고기	1	0.5	-	-	-	-	-	-	1	0.4
알류	-	-	-	-	-	-	-	-	-	-
곡류	12	5.5	-	-	-	-	-	-	12	4.9
채소류	17	7.7	-	-	1	9.1	-	-	18	7.4
과일류	21	9.5	-	-	-	-	-	-	21	8.6
생선류	4	1.8	-	-	1	9.1	-	-	5	2.1
어패류	3	1.4	-	-	-	-	-	-	3	1.2
해조류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나물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1	0.5	-	-	1	9.1	-	-	2	0.8
견과류	5	2.3	-	-	-	-	-	-	5	2.1
조미료(향신료	1	0.5	-	-	-	-	-	-	1	0.4
고추가루	2	0.9	-	-	-	-	-	-	2	0.8
한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1	0.5	-	-	-	-	-	-	1	0.4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8	3.6	-	-	-	-	-	-	8	3.3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1	16.7	-	-	-	-	1	0.4
기타육류	1	0.5	-	-	-	-	-	-	1	0.4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중복응답)	220	100.0	6	100.0	11	100.0	6	100.0	243	100.0

○ 12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235건으로 건강식품 65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24건(10.2%), 절임배추 15건(6.4%), 과일류 13건(5.5%), 곡류 10건(4.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12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4	1.9	-	-	-	-	-	-	4	1.7
케익류	3	1.4	-	-	-	-	-	-	3	1.3
떡류	2	0.9	-	-	-	-	-	-	2	0.9
과자류	2	0.9	-	-	-	-	-	-	2	0.9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잼류	1	0.5	-	-	-	-	-	-	1	0.4
설탕	-	-	-	-	-	-	-	-		
꿀	1	0.5	-	-	-	-	-	-	1	0.4
엿류	-	-	-	-	-	-	-	-	-	-
당시럽류	-	-	1	10.0	-	-	-	-	1	0.4
아이스크림류	1	0.5	-	-	-	-	-	-	1	0.4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	-	1	10.0	1	10.0	-	-	2	0.9
발효유류	-	-	-	-	-	-	1	25.0	1	0.4
분유류	4	1.9	2	20.0	-	-	-	-	6	2.6
치즈·버터류	1	0.5	-	-	-	-	-	-	1	0.4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6	2.8	-	-	-	-	-	-	6	2.6
어묵제품류	1	0.5	-	-	-	-	-	-	1	0.4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	-	-	-	-	-	-	-
식용유지류	1	0.5	-	-	-	-	-	-	1	0.4
라면류	2	0.9	-	-	-	-	-	-	2	0.9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2	0.9	-	-	1	10.0	-	-	3	1.3
커피	1	0.5	-	-	-	-	-	-	1	0.4
탄산음료류	-	-	-	-	-	-	-	-	-	-
과·채음료류	-	-	-	-	-	-	1	25.0	1	0.4
생수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3	1.4			-	-	-	-	3	1.3
이유식	-	-	-	-	-	-	-	-	-	-
장류	1	0.5	-	-	-	-	-	-	1	0.4
소스류	-	-	-	-	-	-	-	-	-	-
김치류	1	0.5	-	-	-	-	-	-	1	0.4
젓갈류	3	1.4	-	-	-	-	1	25.0	4	1.7
절임배추	15	7.1	-	-	-	-	-	-	15	6.4
조림식품	1	0.5	-	-	-	-	1	25.0	2	0.9
소주	-	-	1	10.0	1	10.0	-	-	2	0.9
맥주	-	-	1	10.0	-	-	-	-	1	0.4
포도주	-	-	1	10.0	-	-	-	-	1	0.4
탁약주(막걸리)	1	0.5	-	-	1	10.0	-	-	2	0.9
건포류	1	0.5	-	-	-	-	-	-	1	0.4
건강식품	63	29.9	-	-	2	20.0	-	-	65	27.7
즉석식품	3	1.4	1	10.0	-	-	-	-	4	1.7

쇠고기	4	1.9	-	-	-	-	-	-	4	1.7
돼지고기	4	1.9	-	-	-	-	-	-	4	1.7
닭고기	2	0.9	-	-	-	-	-	-	2	0.9
오리고기			-	-	-	-	-	-	-	-
알류	1	0.5	-	-	-	-	-	-	1	0.4
곡류	10	4.7	-	-	-	-	-	-	10	4.3
채소류	24	11.4	-	-	-	-	-	-	24	10.2
과일류	12	5.7	-	-	1	10.0	-	-	13	5.5
생선류	5	2.4	-	-	-	-	-	-	5	2.1
어패류	6	2.8	2	20.0	1	10.0	-	-	9	3.8
해조류	-	-	-	-	1	10.0	-	-	1	0.4
식용종자·버섯류	3	1.4	-	-	-	-	-	-	3	1.3
약용작물류	1	0.5	-	-	-	-	-	-	1	0.4
견과류	-	-	-	-	-	-	-	-	-	-
조미료(향신료	1	0.5	-	-	1	10.0	-	-	2	0.9
고추가루	1	0.5	-	-	-	-	-	-	1	0.4
한식	6	2.8	-	-	-	-	-	-	6	2.6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2	0.9	-	-	-	-	-	-	2	0.9
패스트푸드점	2	0.9	-	-	-	-	-	-	2	0.9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기타육류	3	1.4	-	-	-	-	-	-	3	1.3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중복응답)	211	100.0	10	100.0	10	100.0	4	100.0	235	100.0

(7) 표시광고·규격

○ 1월~12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2,198건으로 건강식품이 1,479건(67.29%)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 84건(3.82%). 생선류가 56건(2.55%)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1월~12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0.2	5	13.9	2	0.4	2	0.3	11	0.50
케익류	2	0.2	-	-	1	0.2	1	0.1	4	0.18
떡류	2	0.2	-	-	1	0.2	4	0.6	7	0.32
과자류	9	1.0	4	11.1	3	0.6	17	2.5	33	1.50
코코아가공품류	3	0.3	1	2.8	1	0.2	3	0.4	8	0.36
잼류	1	0.1	-	-	-	-	-	-	1	0.05
설탕	1	0.1	1	2.8	-	-	3	0.4	5	0.23
포도당/과당	-	-	-	-	-	-	1	0.1	1	0.05
꿀	2	0.2	-	-	2	0.4	1	0.1	5	0.23
엿류	-	-	-	-	-	-	1	0.1	1	0.05
당시럽류	-	-	-	-	-	-	1	0.1	1	0.05
올리고당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2	5.6	1	0.2	5	0.7	8	0.36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3	0.3	2	5.6	1	0.2	7	1.0	13	0.59
발효유류	7	0.7	-	-	1	0.2	-	-	8	0.36
분유류	2	0.2	1	2.8	4	0.7	1	0.1	8	0.36
치즈·버터류	-	-	-	-	1	0.2	-	-	1	0.05
햄 및 소시지류	2	0.2	-	-	0	0.0	4	0.6	6	0.27
치킨류	-	-	-	-	-	-	2	0.3	2	0.09
기타육류가공품	7	0.7	-	-	2	0.4	10	1.5	19	0.86
알가공품	1	0.1	-	-	-	-	-	-	1	0.05
어묵제품류	-	-	-	-	1	0.2	-	-	1	0.05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2	0.3	2	0.09
식용유지류	2	0.2	-	-	1	0.2	4	0.6	7	0.32
라면류	4	0.4	-	-	1	0.2	3	0.4	8	0.36
건면류	-	-	-	-	-	-	1	0.1	1	0.05
생면류	-	-	-	-	-	-	-	-	-	-
다류	3	0.3	-	-	-	-	4	0.6	7	0.32
커피	2	0.2	1	2.8	1	0.2	9	1.3	13	0.59
탄산음료류	1	0.1	2	5.6	1	0.2	5	0.7	9	0.41
과·채음료류	2	0.2	-	-	2	0.4	4	0.6	8	0.36
생수	-	-	2	5.6	-	-	-	-	2	0.09
특수용도식품(환자식)	22	2.3	-	-	-	-	-	-	22	1.00
이유식	2	0.2	-	-	-	-	-	-	2	0.09
장류	1	0.1	-	-	1	0.2	2	0.3	4	0.18
소스류	-	-	-	-	-	-	1	0.1	1	0.05
드레싱류	-	-	-	-	-	-	-	-	-	-
김치류	-	-	-	-	1	0.2	3	0.4	4	0.18
젓갈류	-	-	-	-	1	0.2	5	0.7	6	0.27
절임식품	1	0.1	-	-	-	-	-	-	1	0.05
절임배추	-	-	-	-	-	-	1	0.1	1	0.05

조림식품	1	0.1	-	-	-	-	2	0.3	3	0.14
소주	-	-	2	5.6	-	-			2	0.09
맥주	-	-	-	-	-	-	2	0.3	2	0.09
포도주	-	-	-	-	-	-	1	0.1	1	0.05
탁약주(막걸리)	-	-	-	-	1	0.2	1	0.1	2	0.09
건포류	3	0.3	-	-	-	-	5	0.7	8	0.36
건강식품	737	78.1	5	13.9	491	90.8	246	36.3	1479	67.29
즉석식품	2	0.2	-	-	2	0.4	2	0.3	6	0.27
쇠고기	9	1.0	1	2.8	-	-	23	3.4	33	1.50
돼지고기	7	0.7	1	2.8	2	0.4	16	2.4	26	1.18
닭고기	1	0.1	-	-	-	-	13	1.9	14	0.64
오리고기	2	0.2	-	-	-	-	-	-	2	0.09
알류	-	-	-	-	-	-	2	0.3	2	0.09
곡류	8	0.8	-	-	5	0.9	28	4.1	41	1.87
채소류	6	0.6	-	-	3	0.6	35	5.2	44	2.00
과일류	23	2.4	1	2.8	-	-	60	8.9	84	3.82
생선류	15	1.6	1	2.8	2	0.4	38	5.6	56	2.55
어패류	9	1.0	-	-	2	0.4	35	5.2	46	2.09
해조류	3	0.3	-	-	-	-	5	0.7	8	0.36
식용종자·버섯류	2	0.2	-	-	-	-	1	0.1	3	0.14
나물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12	1.3	-	-	-	-	6	0.9	18	0.82
견과류	3	0.3	-	-	-	-	10	1.5	13	0.59
조미료(향신료	1	0.1	-	-	1	0.2	3	0.4	5	0.23
고추가루	-	-	-	-	-	-	5	0.7	5	0.23
한식	3	0.3	1	2.8	-	-	11	1.6	15	0.68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1	0.1	1	0.05
분식	2	0.2	-	-	-	-	-	-	2	0.09
노점상	-	-	-	-	-	-	1	0.1	1	0.05
패스트푸드점	8	0.8	2	5.6	1	0.2	5	0.7	16	0.73
뷔페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4	0.6	4	0.18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1	0.2	1	0.1	2	0.09
기타육류	3	0.3	1	2.8			7	1.0	11	0.50
기타식품류	-	-	-	-	-	-	1	0.1	1	0.05
미기재	-	-	-	-	-	-	-	-	-	-
총합계(중복응답)	944	100.0	36	100.0	541	100.0	677	100.0	2198	100.00

○ 1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95건으로 건강식품이 41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어패류와 패트스푸드점이 각각 5건(5.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1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	-	2	28.6	-	-	-	-	2	2.1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	-	1	2.8	1	1.1
과자류	2	4.1	1	14.3	-	-	-	-	3	3.2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	-	-	-	-	-	-	-	-
잼류	-	-	-	-	-	-	-	-	-	-
설탕	-	-	-	-	-	-	-	-	-	-
꿀	-	-	-	-	-	-	-	-	-	-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우유류	-	-	-	-	-	-	-	-	-	-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	-	-	-	-	-	-	-	-	-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1	2.0	-	-	-	-	-	-	1	1.1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	-	-	-	-	-	-	-	-	-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1	33.3	1	2.8	2	2.1
라면류	-	-	-	-	-	-	1	2.8	1	1.1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	-	1	2.8	1	1.1
커피	-	-	-	-	-	-	-	-	-	-
과채음료류	-	-	-	-	-	-	-	-	-	-
생수	-	-	-	-	-	-	-	-	-	-
특수용도식품	1	2.0	-	-	-	-	-	-	1	1.1
이유식	-	-	-	-	-	-	-	-	-	-
장류	-	-	-	-	1	33.3	-	-	1	1.1
소스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2	28.6	-	-	-	-	2	2.1
맥주	-	-	-	-	-	-	-	-	-	-

건포류	-	-	-	-	-	-	2	5.6	2	2.1
건강식품	-	-	2	28.6	1	33.3	5	13.9	41	43.2
즉석식품	1	2.0	-	-	-	-	-	-	1	1.1
쇠고기	-	-	-	-	-	-	2	5.6	2	2.1
돼지고기	-	-	-	-	-	-	3	8.3	3	3.2
닭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1	2.0	-	-	-	-	2	5.6	3	3.2
채소류	2	4.1	-	-	-	-	2	5.6	4	4.2
과일류	-	-	-	-	-	-	3	8.3	3	3.2
생선류	1	2.0	-	-	-	-	1	2.8	2	2.1
어패류	-	-	-	-	-	-	5	13.9	5	5.3
해조류	-	-	-	-	-	-	1	2.8	1	1.1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1	2.0	-	-	-	-	1	2.8	2	2.1
견과류	-	-	-	-	-	-	2	5.6	2	2.1
조미료	-	-	-	-	-	-	1	2.8	1	1.1
고추가루	-	-	-	-	-	-	-	-	-	–
한식	2	4.1	-	-	-	-	1	2.8	3	3.2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4	8.2	-	-	-	-	1	2.8	5	5.3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비어 있음	-	-	-	-	-	-	-	-	-	
총합계	49	100.0	7	100.0	-	-	36	100.0	95	100.0

○ 2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88건으로 건강식품 25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 18건(20.5%), 쇠고기 9건(10.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2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	-	1	16.7	-	-	-	-	1	1.1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	-	-	-	-	-
과자류	-	-	1	16.7	-	-	5	14.7	6	6.8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잼류	-	-	-	-	-	-	-	-	-	-
설탕	1	2.3	-	-	-	-	-	-	1	1.1
당시럽류	-	-	-	-	-	-	1	2.9	1	1.1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	-	-	-	-	-	-	-	-	-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	-	-	-	1	20.0	-	-	1	1.1
치즈·버터류	-	-	-	-	1	20.0	-	-	1	1.1
햄 및 소시지류	1	2.3	-	-	-	-	1	2.9	2	2.3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	-	-	-	-	-	1	2.9	1	1.1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1	2.3	-	-	-	-	-	-	1	1.1
라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	-	-	-	-	-
커피	-	-	-	-	-	-	-	-	-	-
탄산음료류	-	-	2	33.3	-	-	-	-	2	2.3
과·채음료류	-	-	-	-	-	-	-	-	-	-
생수	-	-	-	-	-	-	-	-	-	-
특수용도식품	-	-	-	-	-	-	-	-	-	-
이유식	-	-	-	-	-	-	-	-	-	-
장류	-	-	-	-	-	-	-	-	-	-
소스류	-	-	-	-	-	-	1	2.9	1	1.1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1	2.9	1	1.1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	-	-	-
탁약주	-	-	-	-	-	-	-	-	-	-
건포류	-	-	-	-	-	-	-	-	-	-

건강식품	22	51.2	-	-	2	40.0	1	2.9	25	28.4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3	7.0	1	16.7	-	-	5	14.7	9	10.2
돼지고기	-	-	-	-	-	-	-	-	-	–
닭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1	2.3	-	-	-	-	1	2.9	2	2.3
채소류	1	2.3	-	-	1	20.0	1	2.9	3	3.4
과일류	8	18.6	-	-	-	-	10	29.4	18	20.5
생선류	3	7.0	-	-	-	-	4	11.8	7	8.0
어패류	1	2.3	-	-	-	-	1	2.9	2	2.3
해조류	1	2.3	-	-	-	-		0.0	1	1.1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나물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	–
견과류	-	-	-	-	-	-	-	-	-	–
조미료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1	2.9	1	1.1
한식	-	-	-	-	-	-	-	-	-	–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1	16.7	-	-	-	-	1	1.1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	43	100.0	6	100.0	5	100.0	34	100.0	88	100.0

○ 3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73건으로 건강식품이 38건(52.1%)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가 7건(9.6%), 과자류가 4건(5.5%)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3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	-	1	100	-	-	1	3.8	2	2.7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	-	-	-	-	-
과자류	3	7.1	-	-	-	-	1	3.8	4	5.5
코코아가공품류	-	-	-	-	-	-	1	3.8	1	1.4
잼류	-	-	-	-	-	-	-	-	-	-
설탕	-	-	-	-	-	-	-	-	-	-
꿀	-	-	-	-	-	-	-	-	-	-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우유로	-	-	-	-	-	-	-	-	-	-
발효유류	-	-	-	-	1	25	-	-	1	1.4
분유류	-	-	-	-	-	-	-	-	-	-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	-	-	-	-	-	-	-	-	-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다류	1	2.4	-	-	-	-	-	-	1	1.4
커피	-	-	-	-	-	-	-	-	-	-
탄산음료류	-	-	-	-	-	-	1	3.8	1	1.4
과·채음료류	-	-	-	-	-	-	-	-	-	-
생수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이유식	-	-	-	-	-	-	-	-	-	-
장류	-	-	-	-	-	-	1	3.8	1	1.4
소스류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	-	-	-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	-	-	-	-	-	-	-	-	-	-
건포류	-	-	-	-	-	-	1	3.8	1	1.4

건강식품	33	78.6	-	-	3	75	2	7.7	38	52.1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	-	-	-	-	-	2	7.7	2	2.7
돼지고기	-	-	-	-	-	-	2	7.7	2	2.7
닭고기	-	-	-	-		0	1	3.8	1	1.4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	-	-	-	-	-	1	3.8	1	1.4
채소류	-	-	-	-	-	-	1	3.8	1	1.4
과일류	4	9.5	-	-	-	-	3	11.5	7	9.6
생선류	-	-	-	-	-	-	1	3.8	1	1.4
어패류	-	-	-	-	-	-	1	3.8	1	1.4
해조류	-	-	-	-	-	-	1	3.8	1	1.4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나물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	–
견과류	-	-	-	-	-	-	1	3.8	1	1.4
조미료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한식	1	2.4			-	-	1	3.8	2	2.7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노점상	-	-	-	-	-	-	1	3.8	1	1.4
패스트푸드점	-	-	-	-	-	-	1	3.8	1	1.4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1	3.8	1	1.4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	42	100.0	1	100.0	4	100.0	26	100.0	73	100.0

○ 4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131건으로 건강식품 72건(55.0%)으로 가장 많았고, 어패류 9건(6.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4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류	-	-	1	33.3	-	-	-	-	1	0.8
케익류	-	-	-	-	-	-	1	3.0	1	0.8
떡류	-	-	-	-	-	-	-	-	-	-
과자류	1	1.4	-	-	1	4.5	-	-	2	1.5
코코아가공품류	-	-	1	33.3	-	-	1	3.0	2	1.5
설탕	-	-	-	-	-	-	-	-	-	-
꿀	-	-	-	-	-	-	-	-	-	-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1	1.4	-	-	-	-	-	-	1	0.8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	-	-	-	-	-	-	-	-	-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1	3.0	1	0.8
기타육류가공품	-	-	-	-	-	-	3	9.1	3	2.3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2	6.1	2	1.5
식용유지류	-	-	-	-	-	-	-	-	-	-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	-	-	-	-	-
커피	-	-	-	-	-	-	-	-	-	-
탄산음료류	-	-	-	-	-	-	-	-	-	-
과·채음료류	1	1.4	-	-	1	4.5	-	-	2	1.5
생수		0.0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5	6.8	-	-	-	-	-	-	5	3.8
이유식	1	1.4	-	-	-	-	-	-	1	0.8
장류	-	-	-	-	-	-	1	3.0	1	0.8
소스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	-	-	-	1	4.5	-	-	1	0.8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1	3.0	1	0.8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	-	-	-
건포류	-	-	-	-	-	-	-	-	-	-
건강식품	56	76.7	1	33.3	10	45.5	5	15.2	72	55.0
즉석식품	1	1.4	-	-	1	4.5	2	6.1	4	3.1

쇠고기	-	-	-	-	-	-	1	3.0	1	0.8
돼지고기	-	-	-	-	-	-	1	3.0	1	0.8
닭고기	-	-	-	-	-	-	3	9.1	3	2.3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	-	-	-	3	13.6	2	6.1	5	3.8
채소류	-	-	-	-	1	4.5	2	6.1	3	2.3
과일류	-	-	-	-	-	-	2	6.1	2	1.5
생선류	2	2.7	-	-	-	-	-	-	2	1.5
어패류	3	4.1	-	-	2	9.1	4	12.1	9	6.9
해조류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1	1.4	-	-	-	-	-	-	1	0.8
견과류	-	-	-	-	-	-	-	-	-	-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한식	-	-	-	-	-	-	1	3.0	1	0.8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1	1.4	-	-	-	-	-	-	1	0.8
패스트푸드점	-	-	-	-	1	4.5	-	-	1	0.8
뷔페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1	4.5	-	-	-	-
무응답	-	-	-	-	-	-	-	-	-	-
총합계	73	100.0	3	100.0	22	100.0	33	100.0	131	100.0

○ 5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595건으로 건강식품이 548건(92.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5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	-	-	-	-	-	-	-	-	-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	-	1	2.1	1	0.2
과자류	-	-	-	-	-	-	-	-	-	-
코코아가공품류	1	1.3	-	-	-	-	-	-	1	0.2
잼류	1	1.3	-	-	-	-	-	-	1	0.2
포도당/과당	-	-	-	-	-	-	-	-	-	-
꿀	-	-	-	-	-	-	-	-	-	-
엿류	-	-	-	-	-	-	1	2.1	1	0.2
당시럽류	-	-	-	-	-	-	-	-	-	-
올리고당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1	0.2	-	-	1	0.2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	-	-	-	-	-	2	4.2	2	0.3
발효유류	1	1.3	-	-	-	-	-	-	1	0.2
분유류	1	1.3			1	0.2	-	-	2	0.3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1	1.3	-	-	-	-	1	2.1	2	0.3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1	1.3	-	-	-	-	-	-	1	0.2
라면류	-	-	-	-	1	0.2	-	-	1	0.2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	-	-	-	-	-
커피	-	-	-	-	-	-	-	-	-	-
탄산음료류	-	-	-	-	-	-	-	-	-	-
과·채음료류	-	-	-	-	-	-	1	2.1	1	0.2
생수	-	-	1	50	-	-	-	-	1	0.2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이유식	-	-	-	-	-	-	-	-	-	-
장류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	-	-	-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1	0.2	-	-	1	0.2
건포류	-	-	-	-	-	-	1	2.1	1	0.2
건강식품	65	86.7	1	50	466	99.1	16	33.3	548	92.1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	-	-	-	-	-	1	2.1	1	0.2
돼지고기	1	1.3	-	-	-	-	1	2.1	2	0.3
닭고기	-	-	-	-	-	-	2	4.2	2	0.3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1	2.1	1	0.2
곡류	-	-	-	-	-	-	3	6.3	3	0.5
채소류	-	-	-	-	-	-	2	4.2	2	0.3
과일류	1	1.3	-	-	-	-	2	4.2	3	0.5
생선류	1	1.3	-	-	-	-	2	4.2	3	0.5
어패류	-	-	-	-	-	-	2	4.2	2	0.3
해조류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나물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1	1.3	-	-	-	-	1	2.1	2	0.3
견과류	-	-	-	-	-	-	3	6.3	3	0.5
조미료(향신료	-	-	-	-	-	-	1	2.1	1	0.2
고추가루	-	-	-	-	-	-	-	-	-	0.0
한식	-	-	-	-	-	-	1	2.1	1	0.2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노점상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2	4.2	2	0.3
뷔페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1	2.1	1	0.2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무응답	-	-	-	-	-	-	-	-	-	-
총합계	75	100.0	2	100	470	100.0	48	100.0	595	100.0

○ 6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550건으로 건강식품이 485건(88.2%) 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 15건(2.7%)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6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	-	-	-	-	-	-	-	-	-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	-	2	1.1	2	0.4
과자류	1	0.3	-	-	-	-	2	1.1	3	0.5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잼류	-	-	-	-	-	-	-	-	-	-
설탕	1	0.3	-	-	-	-	1	0.5	2	0.4
포도당/과당	-	-	-	-	-	-	1	0.5	1	0.2
꿀	-	-	-	-	-	-	-	-	-	-
엿류	-	-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1	0.5	1	0.2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1	0.3	-	-	-	-	-	-	1	0.2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	-	1	33.3	1	16.7	-	-	2	0.4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1	0.3	-	-	-	-	-	-	1	0.2
알가공품	1	0.3	-	-	-	-	-	-	1	0.2
어묵제품류	-	-	-	-	1	16.7	-	-	1	0.2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1	0.5	1	0.2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	-	-	-	-	-	1	0.5	1	0.2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	-	-	-	-	-
커피	-	-	-	-	-	-	2	1.1	2	0.4
탄산음료류	-	-	-	-	-	-		0.0	-	-
과·채음료류	-	-	-	-	-	-	1	0.5	1	0.2
생수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0.3	-	-	-	-	-	-	1	0.2
이유식	-	-	-	-	-	-	-	-	-	-
장류	-	-	-	-	-	-	-	-	-	-
소스류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1	0.5	1	0.2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2	0.6	-	-	-	-		0.0	2	0.4
건강식품	334	94.9	-	-	4	66.7	147	77.8	485	88.2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	-	-	-	-	-	1	0.5	1	0.2
돼지고기	-	-	1	33.3		0.0	2	1.1	3	0.5
닭고기	-	-	-	-	-	-	1	0.5	1	0.2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	-	-	-	-	-	4	2.1	4	0.7
채소류	1	0.3		0.0		0.0	6	3.2	7	1.3
과일류	7	2.0	1	33.3		0.0	7	3.7	15	2.7
생선류	1	0.3		0.0		0.0	2	1.1	3	0.5
어패류	-	-	-	-	-	-	1	0.5	1	0.2
해조류	-	-	-	-	-	-	1	0.5	1	0.2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	–
견과류	-	-	-	-	-	-	-	-	-	–
조미료(향신료	-	-	-	-	-	-	1	0.5	1	0.2
고추가루	-	-	-	-	-	-	-	-	-	–
한식	-	-	-	-	-	-	1	0.5	1	0.2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1	0.3	-	-	-	-	-	-	1	–
노점상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1	0.5	1	0.2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1	0.5	1	0.2
미기재	-	-	-	-	-	-	-	-	-	–
총합계	352	100.0	3	100.0	6	100.0	189	100.0	550	100.0

○ 7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120건으로 건강식품이 61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곡류가 6건(5.0%), 아이스크림류와 생선류가 각각 5건(4.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7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2.0	-	-	-	-	-	-	1	0.8
케익류	-	-	-	-	-	-	-	-	-	-
떡류	1	2.0	-	-	-	-	-	-	1	0.8
과자류	-	-	1	10	-	-	2	3.4	3	2.5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설탕	-	-	-	-	-	-	-	-	-	-
꿀	-	-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2	20	-	-	3	5.1	5	4.2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	-	2	20	-	-	1	1.7	3	2.5
발효유류	1	2.0	-	-	-	-	-	-	1	0.8
분유류	-	-	-	-	-	-	-	-	-	-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	-	-	-	-	-	1	1.7	1	0.8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	-	-	-	-	-
커피	1	2.0	1	10	-	-	2	3.4	4	3.3
탄산음료류	-	-	-	-	-	-	-	-	-	-
과·채음료류	-	-	-	-	-	-	1	1.7	1	0.8
생수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2.0	-	-	-	-	-	-	1	0.8
이유식	-	-	-	-	-	-	-	-	-	-
장류	-	-	-	-	-	-	-	-	-	-
소스류							-	-	-	-
드레싱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2	3.4	2	1.7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	-	-	-	-	-	1	1.7	1	0.8

건강식품	36	70.6	1	10	-	-	24	40.7	61	50.8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1	2.0	-	-	-	-	2	3.4	3	2.5
돼지고기	-	-	-	-	-	-	1	1.7	1	0.8
닭고기	-	-	-	-	-	-	1	1.7	1	0.8
오리고기	1	2.0	-	-	-	-	-	-	1	0.8
알류	-	-	-	-	-	-	-	-	–	–
곡류	2	3.9	-	-	-	-	4	6.8	6	5.0
채소류	1	2.0	-	-	-	-	2	3.4	3	2.5
과일류	-	-	-	-	-	-	3	5.1	3	2.5
생선류	1	2.0	1	10	-	-	3	5.1	5	4.2
어패류	-	-	-	-	-	-	3	5.1	3	2.5
해조류	1	2.0	-	-	-	-	-	-	1	0.8
식용종자·버섯류	1	2.0	-	-	-	-	-	-	1	0.8
약용작물류	-	-	-	-	-	-	1	1.7	1	0.8
견과류	1	2.0	-	-	-	-	1	1.7	2	1.7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한식	-	-	-	-	-	-	1	1.7	1	0.8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1	10	-	-	-	-	1	0.8
뷔페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육류	1	2.0	1	10	-	-	-	-	2	1.7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	51	100.0	10	100.0	-		59	100.0	120	100.0

○ 8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103건으로 건강식품이 41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가7건(6.8%), 채소류와 생선류가 각각 6건(5.8%), 어패류가 5건(4.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8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	-	-	-	1	100.0	1	1.9	2	1.9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	-	-	-	-	-
과자류	-	-	-	-	-	-	1	1.9	1	1.0
코코아가공품류	1	2.0	-	-	-	-	-	-	1	1.0
설탕	-	-	-	-	-	-	1	1.9	1	1.0
꿀	-	-	-	-	-	-	1	1.9	1	1.0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	-	-	-	-	-	-	-	-	-
발효유류	1	2.0	-	-	-	-	-	-	1	1.0
분유류	-	-	-	-			-	-	-	-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1	1.9	1	1.0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	-	-	-	-	-	1	1.9	1	1.0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라면류	1	2.0	-	-	-	-	1	1.9	2	1.9
건면류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	-	1	1.9	1	1.0
커피	-	-	-	-			2	3.8	2	1.9
탄산음료류	-	-	-	-	-	-	1	1.9	1	1.0
과·채음료류	-	-	-	-			-	-	-	-
생수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4	8.2	-	-	-	-	-	-	4	3.9
이유식	-	0.0	-	-	-	-	-	-	-	-
장류	1	2.0	-	-	-	-	-	-	1	1.0
소스류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1	2.0	-	-	-	-	-	-	1	1.0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1	2.0	-	-	-	-	-	-	1	1.0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	-	-	–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	-	-	-	-	-	-	-	-	–
건강식품	30	61.2	-	-	-	-	11	21.2	41	39.8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1	2.0	-	-	-	-	3	5.8	4	3.9
돼지고기	-	-	-	-	-	-	-	-	-	1.9
닭고기	-	-	-	-	-	-	-	-	-	–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2	4.1	-	-	-	-	1	1.9	3	2.9
채소류	1	2.0	-	-	-	-	5	9.6	6	5.8
과일류	1	2.0	-	-	-	-	6	11.5	7	6.8
생선류	1	2.0	-	-	-	-	5	9.6	6	5.8
어패류	2	4.1	-	-	-	-	3	5.8	5	4.9
해조류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나물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	-	-	–
견과류	-	-	-	-	-	-	-	-	-	–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1	1.9	1	1.0
한식	-	-	1	100.0	-	-	2	3.8	3	2.9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1	2.0	-	-	-	-	-	-	1	1.0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2	3.8	2	1.9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	49	100.0	1	100.0	1	100.0	52	100.0	103	100.0

○ 9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146건으로 건강식품이 50건(34.2%)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가 17건(11.6%), 생선류가 13건(8.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9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	-	-	-	-	-	-	-	-	-
케익류	-	-	-	-	-	-	-	-	-	-
떡류	1	1.7	-	-	-	-	-	-	1	0.7
과자류	-	-	-	-	-	-	-	-	-	-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설탕	-	-	-	-	-	-	1	1.3	1	0.7
꿀	-	-	-	-	1	12.5	-	-	1	0.7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1	1.3	1	0.7
우유류	-	-	-	-	-	-	-	-	-	-
발효유류	4	6.7	-	-	-	-	-		4	2.7
분유류	-	-	-	-	1	12.5	-	-	1	0.7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1	1.3	1	0.7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2	3.3	-	-	1	12.5	2	2.6	5	3.4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라면류	-	-	-	-	-	-	1	1.3	1	0.7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	-	1	1.3	1	0.7
커피	-	-	-	-	-	-	-	-	-	-
탄산음료류	-	-	-	-	-	-	-	-	-	-
과·채음료류	-	-	-	-	1	12.5	-	-	1	0.7
생수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6	10.0	-	-	-	-	-	-	6	4.1
장류	-	-	-	-	-	-	-	-	-	-
소스류	-	-	-	-	-	-	-	-	-	-
드레싱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	-	-	-	-	-	2	2.6	2	1.4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	-	-	-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1	1.3	1	0.7
건포류	-	-	-	-	-	-	-	-	-	-

건강기능식품	30	50.0	-	-	2	25	18	23.1	50	34.2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2	3.3	-	-	-	-	2	2.6	4	2.7
돼지고기	1	1.7	-	-	-	-	2	2.6	3	2.1
닭고기	-	-	-	-	-	-	2	2.6	2	1.4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1	1.3	1	0.7
곡류	-	-	-	-	-	-	2	2.6	2	1.4
채소류	-	-	-	-	-	-	3	3.8	3	2.1
과일류	2	3.3	-	-	-	-	15	19.2	17	11.6
생선류	2	3.3	-	-	2	25	9	11.5	13	8.9
어패류	1	1.7	-	-	-	-	5	6.4	6	4.1
해조류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1	1.7	-	-	-	-	-	-	1	0.7
약용작물류	6	10.0	-	-	-	-	2	2.6	8	5.5
견과류	1	1.7	-	-	-	-	-	-	1	0.7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1	1.3	1	0.7
한식	-	-	-	-	-	-	1	1.3	1	0.7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1	1.3	1	0.7
복합조미식품	-	-	-	-	-	-	1	1.3	1	0.7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기타육류	1	1.7	-	-	-	-	2	2.6	3	2.1
기타식품류	-	-	-	-	-	-	1	1.3	1	0.7
총합계	60	100.0	-	-	8	100	78	100.0	146	100.0

○ 10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88건으로 건강식품이 24건(27.3%)으로 가장 많았고, 곡류가 7건(8.0%), 채소류와 생선류가 각각 6건(6.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규격 상담 건수(10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2.9	-	-	-	-	-	-	1	1.1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1	12.5	-	-	1	1.1
과자류	-	-	-	-	1	12.5	2	4.3	3	3.4
코코아가공품류	-	-	-	-	1	12.5	1	2.2	2	2.3
설탕	-	-	-	-	-	-	-	-	-	-
포도당/과당	-	-	-	-	-	-	-	-	-	-
꿀	1	2.9	-	-	-	-	-	-	1	1.1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	-	-	-	1	12.5	1	2.2	2	2.3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	-	-	-	-	-	-	-	-	-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1	2.2	1	1.1
치킨류	-	-	-	-	-	-	1	2.2	1	1.1
기타육류가공품	-	-	-	-	1	12.5	1	2.2	2	2.3
알가공품	-	-	-	-	-	-	-	-	-	-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라면류	-	-	-	-	-	-	-	-	-	-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1	2.9	-	-	-	-			1	1.1
커피	1	2.9	-	-	-	-	-	-	1	1.1
탄산음료류	-	-	-	-	1	12.5	1	2.2	2	2.3
과·채음료류	-	-	-	-	-	-	1	2.2	1	1.1
생수	-	-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	-	-	-	-	-	-	-	-	-
이유식	-	-	-	-	-	-	-	-	-	-
장류	-	-	-	-	-	-	-	-	-	-
소스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1	2.2	1	1.1
젓갈류	-	-	-	-	-	-	-	-	-	-
절임식품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1	2.2	1	1.1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1	2.9	-	-	-	-			1	1.1
건강식품	20	58.8	-	-	1	12.5	3	6.5	24	27.3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	-	-	-	-	-	1	2.2	1	1.1
돼지고기	-	-	-	-	-	-	1	2.2	1	1.1
닭고기	-	-	-	-	-	-	1	2.2	1	1.1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1	2.9	-	-	-	-	6	13.0	7	8.0
채소류	-	-	-	-	1	12.5	5	10.9	6	6.8
과일류	3	8.8	-	-	-	-	4	8.7	7	8.0
생선류	1	2.9	-	-	-	-	5	10.9	6	6.8
어패류	-	-	-	-	-	-	2	4.3	2	2.3
해조류	1	2.9	-	-	-	-	1	2.2	2	2.3
식용종자·버섯류	-	-	-	-	-	-	1	2.2	1	1.1
약용작물류	2	5.9	-	-	-	-	-	-	2	2.3
견과류	1	2.9	-	-	-	-	3	6.5	4	4.5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1	2.2	1	1.1
한식	-	-	-	-	-	-	1	2.2	1	1.1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노점상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	-	-	-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기타육류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 (중복응답)	34	100.0	0	0	8	100	46	100.0	88	100.0

○ 11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101건으로 건강식품이 43건(42.6%) 으로 가장 많았고, 생선류가 6건(5.9%), 어패류와 채소류, 과자류, 우유류가 각각 4건(4.0%)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규격 상담 건수(11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	-	-	-	1	14.3	-	-	1	1.0
케익류	-	-	-	-	-	-	-	-	-	-
떡류	-	-	-	-	-	-	-	-	-	-
과자류	-	-	1	100.0	-	-	3	7.3	4	4.0
코코아가공품류	1	1.9	-	-	-	-	-	-	1	1.0
잼류	-	-	-	-	-	-	-	-	-	-
꿀	-	-	-	-	-	-	-	-	-	-
엿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우유류	1	1.9	-	-	-	-	3	7.3	4	4.0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1	1.9	-	-	-	-	-	-	1	1.0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2	3.8	-	-	-	-	-	-	2	2.0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2	4.9	2	2.0
라면류	1	1.9	-	-	-	-	-	-	1	1.0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	-	-	-	1	1.0
커피	-	-	-	-	1	14.3	1	2.4	2	2.0
탄산음료류	-	-	-	-	-	-	1	2.4	1	1.0
과·채음료류	1	1.9	-	-	-	-	-	-	1	1.0
생수			-	-	-	-	-	-	-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1.9	-	-	-	-	-	-	1	1.0
이유식	-	-	-	-	-	-	-	-	-	-
장류	-	-	-	-	-	-	-	-	-	-
소스류	-	-	-	-	-	-	-	-	-	-
김치류	-	-	-	-	1	14.3	-	-	1	1.0
젓갈류	-	-	-	-	-	-	2	4.9	2	2.0
절임식품	-	-	-	-	-	-	-	-	-	-
절임배추	-	-	-	-	-	-	-	-	-	-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	-	-	-
포도주	-	-	-	-	-	-	-	-	-	-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	-	-	-	-	-	-	-	-	-

건강식품	35	67.3	-	-	1	14.3	7	17.1	43	42.6
즉석식품	-	-	-	-	-	-	-	-	-	-
쇠고기	-	-	-	-	-	-	1	2.4	1	1.0
돼지고기	2	3.8	-	-	1	14.3	-	-	3	3.0
닭고기	1	1.9	-	-	-	-	1	2.4	2	2.0
오리고기	1	1.9	-	-	-	-	-	-	1	1.0
알류	-	-	-	-	-	-	-	-	-	-
곡류	-	-	-	-	1	14.3	1	2.4	2	2.0
채소류	-	-	-	-	-	-	4	9.8	4	4.0
과일류	-	-	-	-	-	-	-	-	-	-
생선류	1	1.9	-	-	-	-	5	12.2	6	5.9
어패류	-	-	-	-	-	-	4	9.8	4	4.0
해조류	-	-	-	-	-	-	1	2.4	1	1.0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나물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	-	-	-	-	-	1	2.4	1	1.0
견과류	-	-	-	-	-	-	-	-	-	-
조미료(향신료	1	1.9	-	-	1	14.3	-	-	2	2.0
고추가루	-	-	-	-	-	-	1	2.4	1	1.0
한식	-	-	-	-	-	-	1	2.4	1	1.0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2	3.8	-	-	-	-	-	-	2	2.0
복합조미식품	-	-	-	-	-	-	1	2.4	1	1.0
기타주류 (양주, 청주 등)	-	-	-	-	-	-	1	2.4	1	1.0
기타육류	-	-	-	-	-	-	-	-	-	-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 (중복응답)	52	100.0	1	100.0	7	100.0	41	100.0	101	100.0

○ 12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94건으로 건강식품이 40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어패류가 5건(5.3%),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각각 4건(4.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규격 상담 건수(12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	-	-	-	-	-	-	-	-	-
케익류	2	3.4	-	-	1	20.0	-	-	3	3.2
떡류	-	-	-	-	-	-	-	-	-	-
과자류	2	3.4	-	-	1	20.0	1	3.4	4	4.3
코코아가공품류	-	-	-	-	-	-	-	-	-	-
잼류	-	-	-	-	-	-	-	-	-	-
설탕	-	-	1	50.0	-	-	-	-	1	1.1
꿀	-	-	-	-	1	20.0	-	-	1	1.1
엿류	-	-	-	-	-	-	-	-	-	-
당시럽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빙과류	-	-	-	-	-	-	-	-	-	-
우유류	-	-	-	-	-	-	-	-	-	-
발효유류	-	-	-	-	-	-	-	-	-	-
분유류	-	-	-	-	-	-	1	3.4	1	1.1
치즈·버터류	-	-	-	-	-	-	-	-	-	-
햄 및 소시지류	-	-	-	-	-	-	-	-	-	-
치킨류	-	-	-	-	-	-	-	-	-	-
기타육류가공품	1	1.7	-	-	-	-	-	-	1	1.1
어묵제품류	-	-	-	-	-	-	-	-	-	-
두부류 또는 묵류	-	-	-	-	-	-	-	-	-	-
식용유지류	-	-	-	-	-	-	-	-	-	-
라면류	2	3.4	-	-	-	-	-	-	2	2.1
건면류	-	-	-	-	-	-	-	-	-	-
생면류	-	-	-	-	-	-	-	-	-	-
다류	-	-	-	-	-	-	1	3.4	1	1.1
커피	-	-	-	-	-	-	2	6.9	2	2.1
탄산음료류	1	1.7	-	-	-	-	1	3.4	2	2.1
과·채음료류	-	-	-	-	-	-	-	-	-	-
생수	-	-	1	50.0	-	-	-	-	1	1.1
특수용도식품(환자식)	3	5.2	-	-	-	-	-	-	3	3.2
이유식	1	1.7	-	-	-	-	-	-	1	1.1
장류	-	-	-	-	-	-	-	-	-	-
소스류	-	-	-	-	-	-	-	-	-	-
김치류	-	-	-	-	-	-	-	-	-	-
젓갈류	-	-	-	-	-	-	1	3.4	1	1.1
절임배추	-	-	-	-	-	-	1	3.4	1	1.1
조림식품	-	-	-	-	-	-	-	-	-	-
소주	-	-	-	-	-	-	-	-	-	-
맥주	-	-	-	-	-	-	-	-	-	-
포도주	-	-	-	-	-	-	1	3.4	1	1.1
탁약주(막걸리)	-	-	-	-	-	-	-	-	-	-
건포류	-	-	-	-	-	-	-	-	-	-

건강식품	34	58.6	-	-	-	-	6	20.7	40	42.6
즉석식품	-	-	-	-	-	20.0	-	-	1	1.1
쇠고기	2	3.4	-	-	-	-	2	6.9	4	4.3
돼지고기	2	3.4	-	-	1	20.0	1	3.4	4	4.3
닭고기	-	-	-	-	-	-	1	3.4	1	1.1
오리고기	-	-	-	-	-	-	-	-	-	-
알류	-	-	-	-	-	-	-	-	-	-
곡류	1	1.7	-	-	-	-	1	3.4	2	2.1
채소류	-	-	-	-	-	-	2	6.9	2	2.1
과일류	1	1.7	-	-	-	-	1	3.4	2	2.1
생선류	1	1.7	-	-	-	-	1	3.4	2	2.1
어패류	2	3.4	-	-	-	-	3	10.3	5	5.3
해조류	-	-	-	-	-	-	-	-	-	-
식용종자·버섯류	-	-	-	-	-	-	-	-	-	-
약용작물류	1	1.7	-	-	-	-	-	-	1	1.1
견과류	-	-	-	-	-	-	-	-	-	-
조미료(향신료	-	-	-	-	-	-	-	-	-	-
고추가루	-	-	-	-	-	-	-	-	-	-
한식	-	-	-	-	-	-	-	-	-	-
양식	-	-	-	-	-	-	-	-	-	-
일식	-	-	-	-	-	-	-	-	-	-
중식	-	-	-	-	-	-	1	3.4	1	1.1
분식	-	-	-	-	-	-	-	-	-	-
패스트푸드점	1	1.7	-	-	-	-	-	-	1	1.1
복합조미식품	-	-	-	-	-	-	-	-	-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	-	-	-	-	-	-	-	-	-
기타육류	1	1.7	-	-	-	-	1	3.4	2	2.1
기타식품류	-	-	-	-	-	-	-	-	-	-
총합계(중복응답)	58	100.0	2	100.0	5	100.0	29	100.0	94	100.0

다. 의약품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 소비자단체에서 1372 통합소비자 상담망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례를 1372 의약품 분류표에 의해 전국의 소비자 불만사례를 수집하였으며, 품목별 분석은 상담접수내용을 토대로 품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음

[표] 의약품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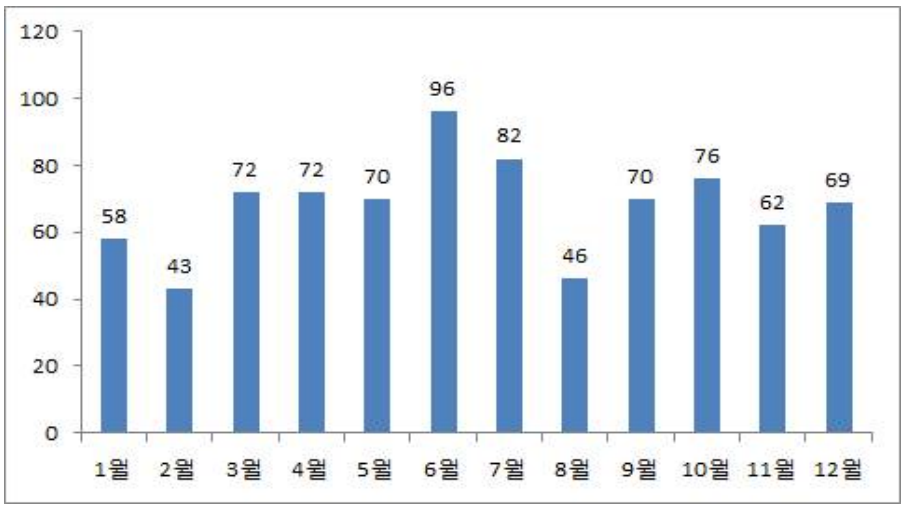
구분	품목 분류	구분	품목 분류
1	감기약	9	해열제
2	진통제	10	간장약
3	소화제	11	영양장장제
4	외피용약	12	비타민제
5	피부병약	13	소독살균제
6	안약	14	한약
7	위장약	15	동물약품
8	피임약	16	기타약품

○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약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상담건수는 전체 685건임.

[표] 의약품 월별 상담 건수

구분	사례수	비율
1월	58	7.1
2월	43	5.3
3월	72	8.8
4월	72	8.8
5월	70	8.6
6월	96	11.8
7월	82	10.0
8월	46	5.6
9월	70	8.6
10월	76	9.3
11월	62	7.6
12월	69	8.5
합계	816	100.0

[그림] 의약품 월별 상담 건수



○ 이 중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해보면, 한약이 175건(21.4%)로 가장 많았고, 비타민제 92건(11.3%), 소독살균제 33건(4.0%), 파스 31건(3.8%), 건강기능식품 28건(3.4%), 키성장제 23건(2.8%), 감기약 19건(2.3%)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월별 상담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비율 (%)
간장약	-	-	-	-	1	-	-	-	-	1	1	-	3	0.4
감기약	4	1	2	3	2	1	2	1	2	-	-	1	19	2.3
건강기능식품	3	1	-	5	1	1	3	2	1	9	2	-	28	3.4
경장영양제	1	-	-	-	-	-	-	-	-	-	-	-	1	0.1
관장약	-	1	-	1	-	-	-	-	-	-	-	1	3	0.4
관절약	-	-	-	-	-	-	1	-	2	1	-	1	5	0.6
관절연고	3	1	-	-	1	-	-	-	-	-	-	-	5	0.6
구강청결제	1	-	-	-	-	-	-	-	-	-	-	-	1	0.1
구내염약	-	-	-	1	-	-	-	-	-	-	-	-	1	0.1
금연보조제	1	-	-	1	-	-	-	-	-	-	-	-	2	0.2
기미치료제	1	1	-	-	-	-	-	-	-	-	-	-	2	0.2
기타약품	-	1	-	-	-	-	1	2	-	-	-	1	5	0.6
나프탈렌(좀약)	-	-	-	-	-	-	-	-	-	1	-	-	1	0.1
눈영양제	-	-	-	-	-	-	-	-	1	-	-	-	1	0.1
다이어트제	2	-	2	-	-	-	-	-	-	-	-	1	5	0.6
당뇨약	-	-	-	1	2	-	-	-	-	-	-	1	4	0.5
동물구충제	-	-	-	-	-	1	-	-	-	-	-	-	1	0.1
동물약품	-	-	1	-	-	1	1	2	-	1	-	1	7	0.9
두통약	-	1	-	-	-	-	-	-	-	-	-	-	1	0.1
말라리아예방약	2	-	-	1	-	-	-	-	-	-	-	-	3	0.4
머리염색약	2	-	-	-	-	-	-	-	1	-	-	-	3	0.4
모기기피제	-	-	-	-	-	-	1	-	-	-	-	-	1	0.1
무좀약	2	-	-	1	2	1	5	-	-	1	-	-	12	1.5
미기재	5	4	10	15	14	10	9	6	13	10	6	12	114	14.0
발기부전치료제	-	-	1	1	-	-	-	-	-	-	-	-	2	0.2
발모제	-	-	-	-	1	-	1	-	-	-	-	-	2	0.2
밴드	-	-	1	-	1	-	1	-	-	-	1	-	4	0.5
변비약	-	1	2	-	-	1	3	-	1	1	1	1	11	1.3
보존화용액	-	-	-	-	-	1	-	-	-	-	-	-	1	0.1
비결핵균 약	-	1	-	-	-	-	-	-	-	-	-	-	1	0.1
비타민제	3	2	8	6	10	9	7	5	11	5	12	14	92	11.3
빈혈약	-	-	-	-	-	-	-	-	1	-	-	-	1	0.1
살균소독제	-	-	-	-	-	-	1	-	-	-	-	-	1	0.1
살충제	-	-	-	-	2	3	4	1	-	-	-	-	10	1.2
생리식염수	-	-	-	-	-	-	-	1	-	-	-	-	1	0.1
생약	-	-	1	-	-	-	-	-	-	-	-	-	1	0.1
설사약	-	-	-	-	-	-	1	-	-	-	-	-	1	0.1
성기능보조제	-	-	-	1	2	3	1	-	1	-	-	-	8	1.0
소독살균기	-	-	-	-	-	7	-	1	-	3	2	1	14	1.7
소독살균서비스	-	-	-	-	-	-	-	2	1	-	-	-	3	0.4
소독살균제	-	2	2	1	3	16	3	-	1	3	1	1	33	4.0
소독약	-	-	-	-	-	-	-	-	-	-	1	-	1	0.1
소양진정제 (가려움증멎게하는약)	-	-	-	-	-	-	1	-	-	-	-	-	1	0.1

소화제	-	1	1	1	-	-	2	-	-	1	1	-	7	0.9
손 빨기 방지약	-	2	-	-	-	-	-	-	-	-	-	-	2	0.2
수면유도제	-	-	1	1	-	-	-	-	-	-	2	-	4	0.5
숙취해소제	1	-	1	-	1	-	-	-	-	-	-	-	3	0.4
시약	-	-	-	-	-	-	-	1	-	-	-	-	1	0.1
식욕억제제	-	-	-	-	1	-	-	1	-	-	-	-	2	0.2
신경치료제	-	-	-	-	-	-	-	-	-	-	1	-	1	0.1
아스피린	-	-	-	1	-	-	-	-	-	-	-	-	1	0.1
안약	-	-	1	1	-	3	-	1	-	2	-	-	8	1.0
여드름치료제	-	1	-	-	1	1	-	-	1	1	2	-	7	0.9
여성세정제	-	-	-	-	1	-	-	-	-	-	-	-	1	0.1
연고	1	1	2	1	2	-	-	-	2	3	2	1	15	1.8
엽산제	-	1	-	-	-	-	-	-	-	-	-	-	1	0.1
영양강장제	1	1	1	-	1	1	1	1	2	2	-	-	11	1.3
영양제	-	-	-	-	-	-	-	-	-	-	2	-	2	0.2
외피용약	-	-	-	-	-	2	6	3	1	-	-	2	14	1.7
위염약	-	-	-	-	-	-	-	-	-	1	-	-	1	0.1
위장약	-	1	-	1	-	-	1	-	-	-	2	-	5	0.6
유산균	-	1	-	-	-	-	2	-	-	-	-	-	3	0.4
의치접착크림	-	-	-	1	-	-	-	-	-	-	-	-	1	0.1
인슐린주사약	-	-	-	-	-	1	-	-	-	-	-	-	1	0.1
임신진단키트	-	-	-	-	-	-	-	1	-	-	-	-	1	0.1
잇몸약	1	-	2	1	-	-	2	-	-	-	-	-	6	0.7
장세척제	-	-	-	-	-	1	-	-	-	-	-	-	1	0.1
전립선 치료약	-	-	-	-	-	-	-	-	1	-	-	1	2	0.2
중이염약	-	-	-	1	-	-	-	-	-	-	-	-	1	0.1
중풍약	-	-	-	-	-	-	-	-	-	1	-	-	1	0.1
진통제	-	-	-	-	-	-	1	-	-	1	-	-	2	0.2
천식흡입기	-	-	-	-	-	1	-	-	-	-	-	-	1	0.1
철분제	1	-	-	1	1	-	1	-	1	-	1	1	7	0.9
치매약	-	-	-	-	-	-	-	-	-	1	1	-	2	0.2
치아미백제	-	-	-	-	-	-	1	-	-	-	-	-	1	0.1
칼슘제	-	-	-	-	-	-	1	-	1	-	-	-	2	0.2
케산	-	-	-	-	-	-	-	1	-	-	-	-	1	0.1
키성장제	3	3	2	5	-	-	1	2	2	1	3	1	23	2.8
탈모치료제	-	-	1	-	-	-	1	-	3	1	-	-	6	0.7
태반약	-	2	-	-	1	-	-	-	-	-	-	-	3	0.4
통증완화제	-	1	1	-	-	-	-	-	-	-	-	-	2	0.2
파스	4	-	3	2	2	4	-	-	1	7	5	3	31	3.8
피로회복제	-	-	2	1	-	-	-	-	-	-	-	-	3	0.4
피부병약	2	2	-	1	-	-	-	-	-	1	-	3	9	1.1
피임기구	-	-	-	-	-	1	-	-	-	-	-	-	1	0.1
필러	1	-	-	-	-	-	-	-	-	-	-	-	1	0.1
한약	11	9	19	12	14	23	13	9	19	17	13	16	175	21.4
한약재료	-	-	1	1	1	2	3	2	-	-	-	1	11	1.3
해열제	1	-	-	-	-	-	-	-	-	-	-	1	2	0.2
허리디스크약	-	-	1	-	-	-	-	-	-	-	-	-	1	0.1
혈압약	1	-	2	-	1	-	-	-	-	-	-	-	4	0.5
혈액순환개선제	-	-	-	2	1	-	-	1	-	-	-	1	5	0.6
호르몬약	-	-	1	-	-	-	-	-	-	-	-	-	1	0.1
화공약품	-	-	-	-	-	-	-	-	-	-	-	2	2	0.2
화상거즈	-	-	-	-	-	1	-	-	-	-	-	-	1	0.1
총합계	58	43	72	72	70	96	82	46	70	76	62	69	816	100.0

○ 1~12월 동안 의약품 소비자불만사례를 구입 장소 별로 살펴보면, 약국이 139건(1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121건,14.8%), 한의원(75건, 9.2%), 방문판매(39건, 4.8%), 병원(28건, 3.4%), 해외(25건, 3.1%), 광고지와 전화권유가 각각 (24건, 2.9%), 한약방 (15건, 1.8%), TV홈쇼핑(12건, 1.5%), 마트(10건, 1.2%)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장소별 상담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비율(%)
TV홈쇼핑	1	3	-	-	1	-	3	2	1	1	-	-	12	1.5
가정집	-	-	-	1	-	-	-	-	-	-	-	-	1	0.1
개인거래	-	-	-	1	-	-	1	-	1	-	2	2	7	0.9
건강원	2	-	2	-	-	1	-	-	1	-	-	-	6	0.7
광고지	7	2	7	2	-	1	2	-	2	-	-	1	24	2.9
국내여행	-	-	-	-	-	3	-	-	1	-	1	-	5	0.6
농장	-	-	-	-	-	-	-	1	-	-	-	-	1	0.1
다단계	1	1	1	1	-	-	1	-	-	1	-	-	6	0.7
동물병원	-	-	-	-	-	1	-	1	-	-	-	-	2	0.2
동물약국	-	-	-	-	-	1	-	-	-	-	-	-	1	0.1
마트	2	-	-	-	1	3	1	-	2	1	-	-	10	1.2
무점포	-	-	-	-	-	-	-	-	-	1	-	-	1	0.1
미기재	19	10	18	21	17	37	21	12	14	29	23	16	237	29.0
방문판매	1	3	4	2	4	5	7	2	4	4	1	2	39	4.8
백화점	-	-	-	-	1	-	-	-	-	-	1	1	3	0.4
병원	1	4	2	3	3	1	2	1	2	4	1	4	28	3.4
성인용품 판매점	-	-	-	-	-	-	-	-	1	-	-	-	1	0.1
슈퍼마켓	-	-	-	-	1	-	-	-	-	-	-	-	1	0.1
시장	-	-	-	-	1	1	-	-	-	1	1	-	4	0.5
신문광고	-	-	-	-	-	-	-	-	-	2	-	-	2	0.2
약국	7	5	12	21	14	10	24	8	13	11	9	5	139	17.0
약재상	-	-	-	-	-	1	-	-	-	-	-	1	2	0.2
약재시장	-	-	1	1	1	-	-	-	-	-	-	-	3	0.4
온라인	6	6	10	5	12	13	10	6	13	8	14	18	121	14.8
음식점	-	-	-	1	-	-	-	-	-	-	-	-	1	0.1
인터넷	-	-	-	-	-	-	-	-	-	-	-	1	1	0.1
재래시장	-	-	-	-	-	-	-	1	-	-	-	-	1	0.1
전화권유	2	-	1	4	1	1	3	4	2	3	1	2	24	2.9
지인소개	-	1	-	-	-	3	-	-	1	1	-	1	7	0.9
치과	-	-	-	-	-	-	-	-	-	-	1	-	1	0.1
편의점	-	-	-	1	-	-	-	-	-	-	-	1	2	0.2
한방병원	-	-	-	-	1	-	-	-	-	-	-	-	1	0.1
한약국	-	-	-	-	-	1	-	1	-	-	-	-	2	0.2
한약방	-	1	5	-	2	1	1	-	1	1	2	1	15	1.8
한의원	8	3	7	6	5	10	4	5	7	5	3	12	75	9.2
해외	1	4	2	2	5	2	1	2	1	2	2	1	25	3.1
홍보관	-	-	-	-	-	-	1	-	2	1	-	-	4	0.5
힌의원	-	-	-	-	-	-	-	-	1	-	-	-	1	0.1
총합계	58	43	72	72	70	96	82	46	70	76	62	69	816	100.0

○ 1~12월 동안 의약품관련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총 816건 중 부작용 198건(24.3%), 환불 83건(10.2%), 단순문의/상담 77건(9.4%), 반품 58건(7.1%), 가격/요금 55건(6.7%). 효과미흡 42건(5.1%). 배송문제, 40건(4.9%)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월별 상담이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비율 (%)
가격,요금	2	6	5	6	7	6	6	4	1	8	4	-	55	6.7
개수미달	1	-	-	-	1	-	1	-	-	-	-	-	3	0.4
거래관행	1	-	2	2	1	-	1	-	3	1	2	1	14	1.7
교환	-	-	-	-	-	-	1	-	-	-	-	-	1	0.1
내용물없음	-	1	-	-	-	-	2	-	-	-	-	-	3	0.4
단순문의, 상담	2	-	3	5	9	13	9	1	7	8	9	11	77	9.4
반품	10	10	6	6	4	3	3	5	5	2	1	3	58	7.1
배상	-	-	-	1	1	-	-	-	-	-	-	-	2	0.2
배송문제	1	6	2	1	2	5	4	1	2	6	4	6	40	4.9
부당행위	-	-	-	1	2	7	2	5	1	4	3	3	28	3.4
부작용	20	3	19	15	16	23	25	10	19	17	16	15	198	24.3
설명미흡	-	-	-	-	1	-	-	-	-	-	-	-	1	0.1
성분검사	1	2	3	5	2	3	1	1	3	1	2	2	26	3.2
약품기증	-	-	-	-	1	-	-	-	-	-	-	-	1	0.1
연락두절	2	2	2	3	2	3	-	-	-	-	4	8	26	3.2
용량미달	-	-	-	-	-	-	1	1	2	2	-	1	7	0.9
위약금	-	1	-	-	-	-	-	-	-	1	-	-	2	0.2
유효기간	2	2	5	-	2	6	2	3	3	3	-	-	28	3.4
이물질	-	1	1	1	1	1	1	-	-	1	1	3	11	1.3
이자,수수료	-	2	2	-	-	-	-	-	-	-	-	-	4	0.5
주문안한 제품	-	-	1	3	-	-	2	-	-	-	-	-	6	0.7
중량미달	1	1	-	1	-	-	-	-	-	1	-	-	4	0.5
청약철회	-	-	-	-	-	-	-	1	5	8	-	1	15	1.8
취소	-	-	1	-	-	4	4	1	2	-	-	-	12	1.5
파손	-	-	-	-	-	-	-	-	1	-	-	-	1	0.1
포장불량	1	-	-	-	1	2	-	1	-	1	1	-	7	0.9
표시,광고	1	1	3	2		4	2	4	1	2	1	-	21	2.6
품질불량	4	-	2	3	3	1	1		2	-	7	2	25	3.1
품질의심	1	-	2	1	1	5	3	1	1	-	-	-	15	1.8
환불	8	5	13	16	6	6	4	2	4	6	4	9	83	10.2
효과미흡	-	-	-	-	7	4	7	5	8	4	3	4	42	5.1
총합계	58	43	72	72	70	96	82	46	70	76	62	69	816	100.0

○ 1~12월 동안 의약품관련 상담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총 616 중 기타정보제공이 279건(34.2%)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분쟁해결기준설명 231건(28.3%), 법,제도설명 96건(11.8%), 상품정보제공 68건(8.3%)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월별 상담 처리결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비율
계약이행	1	1	-	1	-	1	-	1	-	-	-	1	6	0.7
계약해제.해지	1	-	-	-	-	-	-	-	-	-	-	-	1	0.1
교환	-	-	-	-	-	-	1	-	-	-	-	-	1	0.1
기타정보제공	13	13	28	24	28	35	26	17	27	29	16	23	279	34.2
배상	1	1	-	-	-	-	-	-	-	-	1	-	3	0.4
법.제도설명	7	10	13	10	7	11	12	5	5	5	7	4	96	11.8
부당행위시정	-	-	-	-	-	-	1	-	-	-	-	1	2	0.2
분쟁해결기준설명	22	7	22	21	19	26	24	12	16	25	21	16	231	28.3
비소비자상담처리	-	-	1	-	1	2	4	1	3	1	4	2	19	2.3
상품정보제공	5	5	2	7	6	5	5	5	9	7	4	8	68	8.3
수리보수	-	1	-	-	-	-	-	-	-	-	-	-	1	0.1
시장정보제공	2	1	2	1	5	5	4	2	2	3	1	2	30	3.7
시험결과. 의류심의의뢰	-	-	1	1	-	-	-	-	-	-	-	-	2	0.2
처리불능	-	-	1	-	1	1	-	1	1	-	6	4	15	1.8
취하.중지	-	-	-	-	-	-	-	-	-	1	-	-	1	0.1
타기관알선.이관	-	-	1	-	-	3	-	-	1	-	1	1	7	0.9
피해구제접수안내	2	2	-	4	2	2	2	-	5	1	1	3	24	2.9
합의불성립	2	1	-	2	-	4	3	-	-	1	-	2	15	1.8
환급	2	1	1	1	1	1	-	2	1	3	-	2	15	1.8
총합계	58	43	72	72	70	96	82	46	70	76	62	69	816	100.0

(1) 의약품 1월 소비자상담 분석

○ 1월 의약품 소비자불만사례 총 58건 중 품목별 분류 현황별로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부작용 (20건, 34.5%), 반품(10건, 17.2%), 환불(8건, 13.8%), 품질불량 (4건, 6.9%) 으로 나타났음.

[표] 의약품 품목별 상담이유(1월)

구분	가격/요금	개수 미달	거래관행	단순문의/상담	반품	배송문제	부작용	성분검사	연락두절	유효기간	중량미달	포장불량	품질불량	품질의심	허위/과장광고	환불	총합계
감기약	-	-	-	-	-	-	3	-	-	1	-	-	-	-	-	-	4
건강기능식품	-	-	-	-	2	-	-	-	-	-	-	-	-	-	-	-	2
경장영양제	-	1	-	-	-	-	-	-	-	-		-	-	-	-	-	1
관절연고	-	-	-	-	1	-	-	-	-	-	1	-	-	-	-	1	3
구강청결제	-	-	-	-	-	-	-	-		1	-	-	-	-	-	-	1
금연보조제	-	-	-	-	1	-	-	-	-	-	-	-	-	-	-	-	1
기미치료제	-	-	-	-	-	-	1	-	-	-	-	-	-	-	-	-	1
다이어트제	-	-	-	-	1	-	1	-	-	-	-	-	-	-	-	-	2
말라리아예방약	-	-	-	-	-	-	-	-	-	-	-	-	-	-	-	2	2
머리염색약	-	-	-	-	1	1	-	-	-	-	-	-	-	-	-	-	2
무좀약	-	-	-	-	-	-	-	-	-	-	-	-	-	-	1	1	2
비타민제	-	-	-	-	-	-	-	-	-	-	-	-	3	-	-	-	3
숙취해소제	-	-	-	-	-	-	1	-	-	-	-	-	-	-	-	-	1
연고	-	-	-	-	1	-	-	-	-	-	-	-	-	-	-	-	1
영양강장제	-	-	-	-	1	-	-	-	1	-	-	-	-	-	-	-	2
잇몸약	-	-	-	-	-	-	1	-	-	-	-	-	-	-	-	-	1
철분제	-	-	-	-	-	-	1	-	-	-	-	-	-	-	-	-	1
키성장제	-	-	-	-	-	-	-	-	-	-	-	-	1	-	-	1	3
파스	-	-	-	-	-	-	3	-	1	-	-	-	-	-	-	-	4
피부병약	-	-	-	-	-	-	1	-	-	-	-	-	-	-	-	1	2
필러	-	-	-	-	-	-	-	-	-	-	-	-	-	-	-	1	1
한약	-	-	-	-	2	-	6	1	-	-	-	-	-	1	-	1	11
해열제	-	-	-	-	-	-	-	-	-	-	-	-	-	-	-	-	1
혈압약	-	-	-	-	-	-	1	-	-	-	-	-	-	-	-	-	1
미기재	2	-	-	1	-	-	1	-	-	-	-	1	-	-	-	-	5
총합계	2	1	1	2	10	1	20	1	2	2	1	1	4	1	1	8	58

○ 2월 의약품 소비자불만사례 총 43건 중 품목별 분류 현황별로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반품 10건(90.9%), 가격/요금, 배송문제가 각각 6건(13.9%), 환불 5건(45.5%), 부작용 4건(9.1%)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상담이유(2월)

구분	가격/요금	내용물 없음	반품	배송 문제	부작용	성분 검사	연락 두절	위약금	유효 기간	이물질	총합계
감기약	1	-	-	-	-	-	-	-	-	-	1
건강기능식품	1	-	-	-	-	-	-	-	-	-	1
관장약	-	-	-	-	-	-	-	-	1	-	1
관절연고	-	-	1	-	-	-	-	-	-	-	1
기미치료제	1	-	-	-	-	-	-	-	-	-	1
기타약품	-	-	1	-	-	-	-	-	-	-	1
비결핵균약	-	-	1	-	-	-	-	-	-	-	1
두통약	-	-	1	-	-	-	-	-	-	-	1
변비약	-	-	-	-	-	-	1	-	-	-	1
비타민제	-	1	-	-	-	-	-	-	1	-	2
소독살균제	-	-	1	-	-	-	-	-	-	-	2
소화제	-	-	-	-	-	-	-	-	-	1	1
손 빨기 방지약	-	-	-	-	-	-	-	-	-	-	2
여드름치료제	-	-	-	1	-	-	-	-	-	-	1
연고	-	-	-	1	-	-	-	-	-	-	1
엽산제	-	-	1	-	-	-	-	-	-	-	1
영양강장제	-	-	-	-	-	-	-	-	-	-	1
위장약	-	-	-	1	-	-	-	-	-	-	1
유산균	-	-	-	1	-	-		-	-	-	1
키성장제	-	-	1	-	-	-	1	-	-	-	3
태반약	1	-	-	-	-	-	-	-	-	-	2
통증완화제	-	-	-	-	-	-	-	-	-	-	1
피부병약	-	-	-	-	1	-	-	-	-	-	2
한약	-	-	2	2	1	2	-	1	-	-	9
미기재	2	-	1	-	1	-	-	-	-	-	4
총합계	6	1	10	6	3	2	2	1	2	1	43

○ 3월 의약품 소비자불만사례 총 72건 중 품목별 분류 현황별로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부작용(19건, 26.4%), 환불(13건, 18.1%), 반품(6건, 8.3%), 가격/요금(5건, 6.9%)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상담이유(3월)

구분	가격/요금	거래관행	단순문의/상담	반품	배송문제	부작용	성분검사	연락두절	유통기한	유효기간	이물질	이자/수수료	주문안한제품	취소	표시/광고	품질불량	품질의심	환불	총합계
감기약	1	-	1	-	-	-	-	-	-	-	-	-	-	-	-	-	-	-	2
발기부전치료제	-	-	-	-	-	-	-	-	-	-	-	-	-	-	1	-	-	-	1
다이어트제	-	-	1	-	-	-	-	1	-	-	-	-	-	-	-	-	-	-	2
동물약품	-	-	-	-	-	-	-	-	1	-	-	-	-	-	-	-	-	-	1
밴드	-	-	-	-	-	1	-	-	-	-	-	-	-	-	-	-	-	-	1
변비약	-	-	-	-	-	-	-	-	-	-	-	-	-	-	-	-	-	2	2
비타민제	-	-	-	3	1	-	-	-	-	1	-	-	1	-	1	1	-	-	8
생약	-	-	-	-	-	1	-	-	-	-	-	-	-	-	-	-	-	-	1
소독살균제	-	-	-	-	-	-	-	-	-	-	-	-	-	-	-	-	-	2	2
소화제	-	-	-	-	-	-	-	-	1	-	-	-	-	-	-	-	-	-	1
수면유도제	-	-	-	-	-	1	-	-	-	-	-	-	-	-	-	-	-	-	1
숙취해소제	-	-	-	-	-	-	-	-	-	-	-	-	-	-	1	-	-	-	1
안약	1	-	-	-	-	-	-	-	-	-	-	-	-	-	-	-	-	-	1
연고	-	-	-	-	-	-	-	-	1	-	-	1	-	-	-	-	-	-	2
영양강장제	-	-	-	-	-	1	-	-	-	-	-	-	-	-	-	-	-	-	1
잇몸약	-	1	-	-	-	1	-	-	-	-	-	-	-	-	-	-	-	-	2
키성장제	-	-	-	1	-	-	-	1	-	-	-	-	-	-	-	-	-	-	2
탈모치료제	-	-	-	-	-	1	-	-	-	-	-	-	-	-	-	-	-	-	1
통증완화제	1	-	-	-	-	-	-	-	-	-	-	-	-	-	-	-	-	-	1
파스	-	-	-	-	-	2	-	-	-	-	-	-	-	-	-	1	-	-	3
피로회복제	1	-	-	-	-	-	-	-	-	-	1	-	-	-	-	-	-	-	2
한약	-	-	-	1	-	7	3	-	-	-	-	-	-	1	-	-	2	5	19
한약재료	-	-	-	-	-	1	-	-	-	-	-	-	-	-	-	-	-	-	1
허리디스크약	-	-	-	-	-	1	-	-	-	-	-	-	-	-	-	-	-	-	1
혈압약	-	1	-	-	-	-	-	-	-	1	-	-	-	-	-	-	-	-	2
호르몬약	-	-	-	-	-	-	-	-	-	-	-	-	-	-	-	-	-	1	1
미기재	1	-	1	1	-	2	-	-	-	-	-	1	-	-	-	-	-	3	10
총합계	5	2	3	6	2	19	3	2	3	2	1	2	1	1	3	2	2	13	72

○ 4월 의약품 소비자불만사례 총 72건 중 품목별 분류 현황별로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환불(16건, 22.2%), 부작용(15건, 20.8%), 반품(6건, 8.3%), 가격/요금(6건, 8.3%)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상담이유(4월)

구분	가격 / 요금	거래관행	단순문의/상담	반품	배상	배송문제	부당행위	부작용	성분검사	연락두절	이물질	주문안한 제품	중량미달	표시 / 광고	품질불량	품질의심	환불	총합계
감기약	2	1	-	-	-	-	-	-	-	-	-	-	-	-	-	-	-	3
건강식품	-	-	-	1	-	-	-	-	2	-	-	-	-	-	-	-	2	5
관장약	-	-	-	-	-	-	-	-	-	-	-	-	-	-	1	-	-	1
구내염약	-	-	-	-	-	-	-	1	-	-	-	-	-	-	-	-	-	1
금연보조제	-	-	-	1	-	-	-	-	-	-	-	-	-	-	-	-	-	1
당뇨약	-	-	-	-	-	-	-	-	-	-	-	-	-	-	-	-	1	1
말라리아예방약	-	-	-	-	-	-	-	-	-	-	-	-	-	-	-	-	1	1
무좀약	1	-	-	-	-	-	-	-	-	-	-	-	-	-	-	-	-	1
발기부전치료제	-	-	-	-	-	-	-	-	-	-	-	1	-	-	-	-	-	1
비타민제	-	-	2	-	-	-	-	1	-	-	-	-	-	1	-	-	2	6
성기능보조제	-	-	-	1	-	-	-	-	-	-	-	-	-	-	-	-	-	1
소독살균제	-	-	1	-	-	-	-	-	-	-	-	-	-	-	-	-	-	1
소화제	-	-	-	-	-	-	-	-	-	-	1	-	-	-	-	-	-	1
수면유도제	-	-	-	-	-	-	-	-	-	-	-	-	-	-	-	-	1	1
아스피린	-	-	-	-	-	-	-	1	-	-	-	-	-	-	-	-	-	1
안약	-	-	-	-	-	-	-	-	-	-	-	-	-	-	1	-	-	1
연고	-	-	-	-	-	-	-	-	-	-	-	-	1	-	-	-	-	1
위장약	-	-	-	-	-	-	-	-	-	-	-	-	-	-	-	-	1	1
의치접착크림	-	-	-	-	-	-	-	-	1	-	-	-	-	-	-	-	-	1
잇몸약	1	-	-	-	-	-	-	-	-	-	-	-	-	-	-	-	-	1
중이염약	-	-	-	-	-	-	1	-	-	-	-	-	-	-	-	-	-	1
철분제	-	-	-	-	-	-	-	1	-	-	-	-	-	-	-	-	-	1
키성장제	-	-	-	-	-	-	-	1	-	-	-	-	-	1	-	-	3	5
파스	-	-	-	-	-	-	-	1	-	-	-	-	-	-	-	-	1	2
피로회복제	-	-	-	-	-	-	-	1	-	-	-	-	-	-	-	-	-	1
피부병약	-	-	-	-	-	-	-	1	-	-	-	-	-	-	-	-	-	1
한약	-	1	-	2	1	1	-	3	1	-	-	-	-	-	-	-	3	12
한약재료	-	-	-	-	-	-	-	-	1	-	-	-	-	-	-	-	-	1
혈액순환개선제	-	-	-	-	-	-	-	1	-	-	-	-	-	-	1	-	-	2
미기재	2	-	2	1	-	-	-	3	-	3	-	2	-	-	-	1	1	15
총합계	6	2	5	6	1	1	1	15	5	3	1	3	1	2	3	1	16	72

○ 5월 의약품 소비자불만사례 총 70건 중 품목별 분류 현황별로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부작용(17건, 24.3%), 단순문의/상담(9건, 12.9%), 효과미흡과 가격/요금이 각각 (7건, 10.0%)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상담이유(5월)

구분	가격 / 요금	개수미달	거래관행	단순문의 / 상담	반품	배송문제	부당행위	부작용	배상	설명미흡	성분검사	약품기증	연락두절	유효기간	이물질	포장불량	품질불량	품질의심	환불	효과미흡	총합계
간장약	1	-	-	-	-	-	-	-	-	-	-	-	-	-	-	-	-	-	-	-	1
감기약	-	-	-	-	-	-	-	-	-	1	-	-	-	-	-	-	-	-	-	1	2
건강식품	-	-	-	1	-	-	-	-	-	-	-	-	-	-	-	-	-	-	-	-	1
관절연고	-	-	-	-	-	1	-	-	-	-	-	-	-	-	-	-	-	-	-	-	1
당뇨약	-	1	-	-	-	-	-	-	-	-	1	-	-	-	-	-	-	-	-	-	2
무좀약	-	-	-	1	-	-	-	-	-	-	-	-	-	-	-	-	-	-	-	1	2
발모제	-	-	-	-	-	-	-	-	-	-	-	-	-	-	-	-	-	-	-	1	1
밴드	-	-	-	-	-	-	-	-	-	-	-	-	-	-	-	-	1	-	-	-	1
비타민제	-	-	-	1	1	1	-	3	-	-	-	-	1	-	-	-	2	1	-	-	10
살충제	-	-	-	1	-	-	-	-	-	-	-	-	-	1	-	-	-	-	-	-	2
성기능보조제	-	-	-	-	-	-	-	1	-	-	-	-	1	-	-	-	-	-	-	-	2
소독살균제	-	-	-	1	-	-	1	-	1	-	-	-	-	-	-	-	-	-	-	-	3
숙취해소제	-	-	-	-	1	-	-	-	-	-	-	-	-	-	-	-	-	-	-	-	1
식욕억제제	1	-	-	-	-	-	-	-	-	-	-	-	-	-	-	-	-	-	-	-	1
여드름치료제	-	-	-	-	-	-	-	1	-	-	-	-	-	-	-	-	-	-	-	-	1
여성세정제	-	-	-	-	-	-	-	1	-	-	-	-	-	-	-	-	-	-	-	-	1
연고	1	-	-	-	-	-	-	1	-	-	-	-	-	-	-	-	-	-	-	-	2
영양강장제	-	-	-	-	-	-	-	1	-	-	-	-	-	-	-	-	-	-	-	-	1
철분제	-	-	-	-	-	-	-	-	-	-	-	-	-	-	1	-	-	-	-	-	1
태반약	-	-	-	-	-	-	1	-	-	-	-	-	-	-	-	-	-	-	-	-	1
파스	-	-	-	-	-	-	-	1	-	-	-	-	-	-	-	-	-	-	-	1	2
한약	2	-	1	-	1	-	-	5	-	-	-	-	-	-	-	-	-	-	2	3	14
한약재료	-	-	-	1	-	-	-	-	-	-	-	-	-	-	-	-	-	-	-	-	1
혈압약	-	-	-	-	-	-	-	-	-	-	-	-	-	1	-	-	-	-	-	-	1
혈액순환개선제	-	-	-	-	-	-	-	-	-	-	1	-	-	-	-	-	-	-	-	-	1
미기재	2	-	-	3	1	-	-	2	-	-	-	1	-	-	-	1	-	-	4	-	14
총합계	7	1	1	9	4	2	2	16	1	1	2	1	2	2	1	1	3	1	6	7	70

○ 6월 의약품 소비자불만사례 총 96건 중 품목별 분류 현황별로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부작용(23건, 24.0%), 단순문의, 상담(13건, 13.5%), 부당행위(7건, 7.3%), 유효기간과 환불이 각각 (6건, 6.3%)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상담이유(6월)

구분	가격、요금	단순문의、상담	반품	배송문제	부당행위	부작용	성분검사	연락두절	유효기간	이물질	취소	포장불량	표시、광고	품질불량	품질의심	환불	효과미흡	총합계
감기약	1	-	-	-	-	-	-	-	-	-	-	-	-	-	-	-	-	1
건강기능식품	-	-	-	-	-	1	-	-	-	-	-	-	-	-	-	-	-	1
동물구충제	1	-	-	-	-	-	-	-	-	-	-	-	-	-	-	-	-	1
동물약품	-	-	-	-	-	-	-	-	-	-	1	-	-	-	-	-	-	1
미기재	-	3	1	2	1	-	-	-	-	-	-	-	-	-	-	2	1	10
무좀약	-	-	-	-	-	-	-	-	-	-	-	-	-	-	1	-	-	1
변비약	-	-	-	-	-	-	-	-	-	-	-	-	-	-	-	-	1	1
보존화용액	-	-	-	-	-	1	-	-	-	-	-	-	-	-	-	-	-	1
비타민제	-	-	-	-	1	1	1	-	2	-	-	1	2	-	-	1	-	9
살균소독제	-	-	-	-	-	-	-	-	-	-	1	-	-	-	-	-	-	1
살충제	-	1	-	-	1	-	-	-	-	-	-	-	-	-	-	-	1	3
성기능보조제	-	-	1	-	-	-	1	-	-	-	-	-	-	-	1	-	-	3
소독살균기	1	5	-	-	-	-	-	1	-	-	-	-	-	-	-	-	-	7
소독살균제	-	2	-	1	2	-	-	2	2	1	1	-	2	-	-	2	-	15
안약	-	1	-	-	-	-	-	-	1	-	-	1	-	-	-	-	-	3
여드름치료제	-	-	-	-	-	1	-	-	-	-	-	-	-	-	-	-	-	1
영양강장제	1	-	-	-	-	-	-	-	-	-	-	-	-	-	-	-	-	1
외피용약	-	-	-	-	-	3	-	-	-	-	-	-	-	-	-	-	-	3
인슐린주사약	-	-	-	-	-	-	-	-	1	-	-	-	-	-	-	-	-	1
장세척제	-	-	-	-	-	1	-	-	-	-	-	-	-	-	-	-	-	1
천식흡입기	-	1	-	-	-	-	-	-	-	-	-	-	-	-	-	-	-	1
파스	-	-	-	-	-	4	-	-	-	-	-	-	-	-	-	-	-	4
피임기구	-	-	-	-	-	-	-	-	-	-	-	-	-	1	-	-	-	1
한약	2	-	-	2	2	11	1	-	-	-	1	-	-	-	3	-	1	23
한약재료	-	-	1	-	-	-	-	-	-	-	-	-	-	-	-	1	-	2
총합계	6	13	3	5	7	23	3	3	6	1	4	2	4	1	5	6	4	96

○ 7월 의약품 소비자불만사례 총 82건 중 품목별 분류 현황별로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부작용(25건, 30.0%), 단순문의/상담(9건, 11.0%), 효과미흡(7건, 8.5%), 가격/요금(6건, 7.3%)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상담이유(7월)

구분	가격、요금	개수미달	거래관행	교환	내용물없음	단순문의、상담	반품	배송문제	부당행위	부작용	성분검사	용량미달	유효기간	이물질	주문안한 제품	취소	표시、광고	품질불량	품질의심	환불	효과미흡	총합계
감기약	-	-	-	-	-	-	1	-	-	1	-	-	-	-	-	-	-	-	-	-	-	2
건강기능식품	-	1	1	-	-	1	-	-	-	-	-	-	-	-	-	-	-	-	-	-	-	3
관절약	-	-	-	-	-	-	-	-	-	-	-	-	-	-	-	1	-	-	-	-	-	1
기타약품	-	-	-	-	-	-	-	-	-	-	-	-	-	-	1	-	-	-	-	-	-	1
동물약품	-	-	-	-	-	1	-	-	-	-	-	-	-	-	-	-	-	-	-	-	-	1
모기기피제	-	-	-	-	-	-	-	-	-	-	-	-	-	-	-	-	-	-	1	-	-	1
무좀약	-	-	-	-	-	-	-	-	1	-	-	1	-	-	-	-	1	-	-	-	2	5
발모제	-	-	-	-	-	-	-	-	-	-	-	-	-	-	-	-	-	-	-	-	1	1
밴드	-	-	-	-	-	-	-	-	-	1	-	-	-	-	-	-	-	-	-	-	-	1
변비약	-	-	-	-	-	-	-	-	-	2	-	-	-	-	-	-	-	-	-	-	1	3
비타민제	-	-	-	-	-	-	-	1		2	-	-	-	-	-	1	1	-	1	1	-	7
살균소독제	-	-	-	-	-	-	-	-	-	1	-	-	-	-	-	-	-	-	-	-	-	1
살충제	-	-	-	-	-	1	-	-	-	3	-	-	-	-	-	-	-	-	-	-	-	4
설사약	-	-	-	-	-	-	-	-	-	1	-	-	-	-	-	-	-	-	-	-	-	1
성기능보조제	-	-	-	-	-	-	-	-	-	-	-	-	-	-	-	1	-	-	-	-	-	1
소독살균제	1	-	-	-	-	1	-	-	-	1	-	-	-	-	-	-	-	-	-	-	-	3
소양진정제	-	-	-	-	-	-	-	-	-	-	-	-	1	-	-	-	-	-	-	-	-	1
소화제	-	-	-	-	-	-	-	-	-	1	-	-	-	1	-	-	-	-	-	-	-	2
영양강장제	1	-	-	-	-	-	-	-	-	-	-	-	-	-	-	-	-	-	-	-	-	1
외피용약	1	-	-	-	2	-	1	1	-	2	-	-	-	-	-	-	-	-	-	-	-	7
위장약	1	-	-	-	-	-	-	-	-	-	-	-	-	-	-	-	-	-	-	-	-	1
유산균	-	-	-	-	-	1	-	-	-	-	-	-	-	-	-	-	-	-	-	-	1	2
잇몸약	-	-	-	-	-	1	-	-	-	-	-	-	-	-	-	-	-	-	-	-	-	1
진통제	-	-	-	-	-	-	-	-	-	-	-	-	-	-	-	-	-	-	-	-	1	1
철분제	-	-	-	-	-	-	-	-	-	1	-	-	-	-	-	-	-	-	-	-	-	1
치아미백제	-	-	-	-	-	-	-	-	-	1	-	-	-	-	-	-	-	-	-	-	-	1
칼슘제	1	-	-	-	-	-	-	-	-	-	-	-	-	-	-	-	-	-	-	-	-	1
키성장제	-	-	-	-	-	-	-	-	-	-	-	-	-	-	-	-	-	-	-	-	1	1
탈모치료제	-	-	-	-	-	-	-	-	-	1	-	-	-	-	-	-	-	-	-	-	-	1
한약	-	-	-	-	-	1	-	2	-	5	-	-	-	-	1	1		1	1	1	-	13
한약재료	1	-	-	-	-	1	-	-	-	-	1	-	-	-	-	-	-	-	-	-	-	3
미기재	-	-	-	1		1	1	-	1	2	-	-	1	-	-	-	-	-	-	2	-	9
총합계	6	1	1	1	2	9	3	4	2	25	1	1	2	1	2	4	2	1	3	4	7	82

○ 8월 의약품 소비자불만사례 총 46건 중 품목별 분류 현황별로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부작용(10건, 21.7%), 반품, 부당행위, 효과미흡이 각(5건, 10.9%), 가격,요금 과 표시,광고가 각 (4건, 8.7%)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상담이유(8월)

구분	가격、요금	단순문의、상담	반품	배송문제	부당행위	부작용	성분검사	용량미달	유효기간	청약철회	취소	포장불량	표시、광고	품질의심	환불	효과미흡	총합계
감기약	-	-	-	-	-	-	-	-	1	-	-	-	-	-	-	-	1
건강기능식품	-	-	-	-	-	-	1	-	-	-	-	-	-	-	1	-	2
기타약품	1	-	-	-	1	-	-	-	-	-	-	-	-	-	-	-	2
동물약품	-	-	-	-	1	-	-	-	-	-	-	-	-	-	1	-	2
미기재	-	-	1	-	-	1	-	-	2	-	-	1	-	-	-	1	6
비타민제	-	-	-	1	1	2	-	-	-	-	-	-	1	-	-	-	5
살충제	-	-	-	-	-	-	-	1	-	-	-	-	-	-	-	-	1
생리식염수	-	-	-	-	-	-	-	-	-	-	-	-	1	-	-	-	1
소독살균기	-	-	-	-	-	-	-	-	-	1	-	-	-	-	-	-	1
소독살균서비스	1	-	-	-	-	-	-	-	-	-	-	-	-	-	-	1	2
시약	-	-	1	-	-	-	-	-	-	-	-	-	-	-	-	-	1
식욕억제제	-	-		-	1	-	-	-	-	-	-	-	-	-	-	-	1
안약	-	-	1	-	-	-	-	-	-	-	-	-	-	-	-	-	1
영양강장제	-	-	-	-	-	-	-	-	-	-	-	-	-	-	-	1	1
외피용약	1	1	-	-	-	-	-	-	-	-	-	-	-	-	-	1	3
임신진단키트	-	-	-	-	-	-	-	-	-	-	-	-	-	-	-	1	1
케산	-	-	-	-	-	1	-	-	-	-	-	-	-	-	-	-	1
키성장제	-	-	-	-	-	-	-	-	-	-	-	-	1	1	-	-	2
한약	1	-	-	-	1	6	-	-	-	-	1	-	-	-	-	-	9
한약재료	-	-	1	-	-	-	-	-	-	-	-	-	1	-	-	-	2
혈액순환개선제	-	-	1	-	-	-	-	-	-	-	-	-	-	-	-	-	1
총합계	4	1	5	1	5	20	1	1	3	1	1	1	4	1	2	5	46

○ 9월 의약품 소비자불만사례 총 70건 중 품목별 분류 현황별로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부작용(19건, 27.1%), 효과미흡(8건, 11.4%), 단순문의/상담(7건, 10.0%), 반품과 청약철회가 각(6건, 7.14%)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상담이유(9월)

구분	가격、요금	거래관행	단순문의、상담	반품	배송문제	부당행위	부작용	성분검사	용량미달	유효기간	청약철회	취소	파손	표시、광고	품질불량	품질의심	환불	효과미흡	총합계
감기약	-	-	1	-	-	-	-	-	-	1	-	-	-	-	-	-	-	-	2
건강기능식품	-	-	-	-	-	-	1	-	-	-	-	-	-	-	-	-	-	-	1
관절약	-	-	1	-	-	-	-	-	-	-	-	-	-	-	-	-	-	1	2
눈영양제	-	-	1	-	-	-	-	-	-	-	-	-	-	-	-	-	-	-	1
머리염색약	-	-	-	-	-	-	-	-	-	-	-	-	-	1	-	-	-	-	1
미기재	-	2	3	2	-	1	3	-	-	-	-	1	1	-	-	-	-	-	13
변비약	-	-	-	-	-	-	-	-	-	-	1	-	-	-	-	-	-	-	1
비타민제	-	1	-	2	1	-	5	-	-	1	-	-	-	-	1	-	-	-	11
빈혈약	-	-	-	-	-	-	1	-	-	-	-	-	-	-	-	-	-	-	1
성기능보조제	-	-	-	-	-	-		1	-	-	-	-	-	-	-	-	-	-	1
소독살균서비스	-	-	-	-	-	-	-	-	-	-	1	-	-	-	-	-	-	-	1
소독살균제	-	-	-	-	-	-	-	-	-	1	-	-	-	-	-	-	-	-	1
여드름치료제	-	-	-	-	-	-	1	-	-	-	-	-	-	-	-	-	-	-	1
연고	-	-	-	-	-	-	-	-	1	-	-	-	-	-	-	-	-	1	2
영양강장제	1	-	-	1	-	-	-	-	-	-	-	-	-	-	-	-	-	-	2
외피용약	-	-	-	-	1	-	-	-	-	-	-	-	-	-	-	-	-	-	1
전립선 치료약	-	-	-	-	-	-	-	-	1	-	-	-	-	-	-	-	-	-	1
철분제	-	-	-	-	-	-	-	-	-	-	-	-	-	-	-	-	1	-	1
칼슘제	-	-	-	-	-	-	-	-	-	-	1	-	-	-	-	-	-	-	1
키성장제	-	-	-	-	-	-	-	-	-	-		-	-	-	-	1	1	-	2
탈모치료제	-	-	-	-	-	-	-	-	-	-	1	-	-	-	-	-	-	2	3
파스	-	-	-	-	-	-	1	-	-	-	-	-	-	-	-	-	-	-	1
한약	-	-	1	-	-	-	7	2	-	-	1	1	-	-	1	-	2	4	19
총합계	1	3	7	5	2	1	19	3	-	3	5	2	1	1	2	1	4	8	70

○ 10월 의약품 소비자불만사례 총 76건 중 품목별 분류 현황별로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부작용(17건, 27.1%), 가격,요금 과 단순문의/상담, 청약철회가 각각 (8건, 10.5%)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상담이유(10월)

구분	가격、요금	거래관행	단순문의、상담	반품	배송문제	부당행위	부작용	성분검사	용량미달	위약금	유효기간	이물질	중량미달	청약철회	포장불량	표시、광고	환불	효과미흡	총합계
간장약	-	-	-	-	-	-	-	-	-	-	1	-	-	-	-	-	-	-	1
건강기능식품	1	-	-	-	2	2	1	-	-	-	-	-	-	2	-	-	1	-	9
관절약	-	-	-	-	-	-	1	-	-	-	-	-	-	-	-	-	-	-	1
나프탈렌(좀약)	-	-	-	-	-	-	-	-	-	-	-	-	-	-	-	1	-	-	1
동물약품	-	-	-	-	-	-	1	-	-	-	-	-	-	-	-	-	-	-	1
무좀약	-	-	-	-	-	-	-	-	-	-	-	-	-	-	-	-	-	1	1
미기재	2	-	2	-	2	-	-	1	-	-	1	-	-	-	-	-	2	-	10
변비약	-	-	-	-	-	-	-	-	-	-	-	-	-	-	-	-	-	1	1
비타민제	1	-	1	-	2	-	-	-	-	-	-	-	-	1	-	-	-	-	5
소독살균기	-	-	-	1	-	1	-	-	-	-	-	-	-	-	1	-	-	-	3
소독살균제	1	-	1	-	-	-	-	-	-	1	-	-	-	-	-	-	-	-	3
소화제	-	-	-	-	-	-	-	-	-	-		1	-	-	-	-	-	-	1
안약	1	-	-	-	-	-	-	-	-	-	1		-	-	-	-	-	-	2
여드름치료제	-	-	-	-	-	-	1	-	-	-	-	-	-	-	-	-	-	-	1
연고	-	-	1	-	-	-	-	-	2	-	-	-	-	-	-	-	-	-	3
영양강장제	1	-	1	-	-	-	-	-	-	-	-	-	-	-	-	-	-	-	2
위염약	-	-	-	-	-	-	1	-	-	-	-	-	-	-	-	-	-	-	1
중풍약	-	-	1	-	-	-	-	-	-	-	-	-	-	-	-	-	-	-	1
진통제	-	-	-	-	-	-	-	-	-	-	-	-	-	1	-	-	-	-	1
치매약	-	-	-	-	-	-	-	-	-	-	-	-	-	1	-	-	-	-	1
키성장제	1	-	-	-	-	-	-	-	-	-	-	-	-	-	-	-	-	-	1
탈모치료제	-	-	1	-	-	-	-	-	-	-	-	-	-	-	-	-	-	-	1
파스	-	-	-	-	-	-	7	-	-	-	-	-	-	-	-	-	-	-	7
피부병약	-	-	-	-	-	-	-	-	-	-	-	-	1	-	-	-	-	-	1
한약	-	1	-	1	-	1	5	-	-	-	-	-	-	3	-	1	3	2	17
총합계	8	1	8	2	6	4	17	1	2	1	3	1	1	8	1	2	6	4	76

○ 11월 의약품 소비자불만사례 총 62건 중 품목별 분류 현황별로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부작용(16건, 25.8%), 단순문의, 상담(9건, 14.5%) 과 품질불량(7건, 11.3%)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상담이유(11월)

구분	가격、요금	거래관행	단순문의、상담	반품	배송문제	부당행위	부작용	성분검사	연락두절	이물질	포장불량	표시、광고	품질불량	환불	효과미흡	총합계
간장약	-	-	-	-	-	-	-	-	-	-	-	-	1	-	-	1
건강기능식품	-	-	-	-	-	-	1	1	-	-	-	-	-	-	-	2
미기재	2	1	-	-	1	-	1	-	-	-	-	-	-	-	1	6
밴드	-	-	-	-	-	-	1	-	-	-	-	-	-	-	-	1
변비약	-	-	1	-	-	-	-	-	-	-	-	-	-	-	-	1
비타민제	-	-	3	-	2	-	2	-	3	-	1	1	-	-	-	12
소독살균기	-	-	-	-	-	1	-	-	-	-	-	-	1	-	-	2
소독살균제	-	-	-	-	-	1	-	-	-	-	-	-	-	-	-	1
소독약	-	-	1	-	-	-	-	-	-	-	-	-	-	-	-	1
소화제	-	-	-	-	-	-	-	-	-	1	-	-	-	-	-	1
수면유도제	-	-	2	-	-	-	-	-	-	-	-	-	-	-	-	2
신경치료제	-	-	-	-	-	-	1	-	-	-	-	-	-	-	-	1
여드름치료제	-	-	-	-	-	-	1	-	-	-	-	-	-	1	-	2
연고	-	-	-	-	-	-	1	-	-	-	-	-	1	-	-	2
영양제	-	-	-	-	-	-	-	-	-	-	-	-	2	-	-	2
위장약	-	-	-	-	-	-	2	-	-	-	-	-	-	-	-	2
철분제	-	-	-	-	-	-	-	-	-	-	-	-	1	-	-	1
치매약	-	-	-	-	-	-	-	-	1	-	-	-	-	-	-	1
키성장제	-	-	-	-	-	-	-	-	-	-	-	-	-	1	2	3
파스	2	-	-	-	-	1	2	-	-	-	-	-	-	-	-	5
한약	-	1	2	1	1	-	4	1	-	-	-	-	1	2	-	13
총합계	4	2	9	1	4	3	16	2	4	1	1	1	7	4	3	62

○ 12월 의약품 소비자불만사례 총 76건 중 품목별 분류 현황별로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부작용(15건, 21.7%), 단순문의/상담(11건, 15.9%), 환불(9건,13.0$), 연락두절(8건,11.6%)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상담이유(12월)

구분	거래관행	단순문의、상담	반품	배송문제	부당행위	부작용	성분검사	연락두절	용량미달	이물질	청약철회	품질불량	환불	효과미흡	총합계
감기약	-	-	-	-	-	1	-	-	-	-	-	-	-	-	1
관장약	-	-	-	-	-	1	-	-	-	-	-	-	-	-	1
관절약	-	-	-	-	-	1	-	-	-	-	-	-	-	-	1
기타약품	-	-	-	-	-	-	-	-	-	-	-	-	1	-	1
다이어트제	-	-	-	-	-	-	-	-	-	-	-	-	-	1	1
당뇨약	-	1	-	-	-	-	-	-	-	-	-	-	-	-	1
동물약품	-	-	-	-	-	-	-	-	-	-	-	-	1	-	1
미기재	-	4	-	1	1	1	1	2	-	-	-	-	-	2	12
변비약	-	-	-	-	-	-	-	-	-	-	-	-	-	1	1
비타민제	1	2	-	1	2	-	-	4	-	1	-	1	2	-	14
소독살균기	-	-	-	-	-	-	-	1	-	-	-	-	-	-	1
소독살균제	-	1	-	-	-	-	-	-	-	-	-	-	-	-	1
연고	-	-	-	-	-	-	-	-	1	-	-	-	-	-	1
외피용약	-	1	-	-	-	-	-	-	-	-	-	1	-	-	2
전립선 치료약	-	-	-	-	-	1	-	-	-	-	-	-	-	-	1
철분제	-	-	-	1	-	-	-	-	-	-	-	-	-	-	1
키성장제	-	1	-	-	-	-	-	-	-	-	-	-	-	-	1
파스	-	-	-	-	-	1	-	1	-	-	1	-	-	-	3
피부병약	-	1	-	-	-	2	-	-	-	-	-	-	-	-	3
한약	-	-	1	3	-	6	1	-	-	-	-	-	5	-	16
한약재료	-	-	-	-	-	-	-	-	-	1	-	-	-	-	1
해열제	-	-	-	-	-	-	-	-	-	1	-	-	-	-	1
혈액순환개선제	-	-	-	-	-	1	-	-	-	-	-	-	-	-	1
화공약품	-	-	2	-	-	-	-	-	-	-	-	-	-	-	2
총합계	1	11	3	6	3	15	2	8	1	3	1	2	9	4	69

❍ 2015년(1~12월)까지 816건의 의약품의 소비자불만사례 상담사유 중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부작용(198건)에 대한 상담은 한약(66건), 파스(22건), 비타민제(16건) 순으로 나타남. 유효기간(28건)에 대한 상담은 비타민제(5건)이 가장 많았음. 성분검사(27건)에 대한 상담은 한약(12건)이 가장 많았음.

[표] 1-12월 의약품 품목별-상담이유

구분	부작용	성분 검사	유효 기간	이물질	포장 불량	표시, 광고	품질 불량	품질 의심	총합계	비율
간장약	-	-	1	-	-	-	1	-	2	0.6
감기약	5	-	3	-	-	-	-	-	8	2.4
건강기능식품	4	4	-	-	-	-	-	-	8	2.4
관장약	1	-	1	-	-	-	1	-	3	0.9
관절약	2	-	-	-	-	-	-	-	2	0.6
구강청결제	-	-	1	-	-	-	-	-	1	0.3
구내염약	1	-	-	-	-	-	-	-	1	0.3
기미치료제	1	-	-	-	-	-	-	-	1	0.3
나프탈렌(좀약)	-	-	-	-	-	1	-	-	1	0.3
다이어트제	1	-	-	-	-	-	-	-	1	0.3
당뇨약	-	1	-	-	-	-	-	-	1	0.3
동물약품	1	-	1	-	-	-	-	-	2	0.6
머리염색약	-	-	-	-	-	1	-	-	1	0.3
모기기피제	-	-	-	-	-	-	-	1	1	0.3
무좀약	-	-	-	-	-	2	-	1	3	0.9
미기재	17	2	4	-	3	-	-	1	27	8.2
발기부전치료제	-	-	-	-	-	1	-	-	1	0.3
밴드	3	-	-	-	-	-	1	-	4	1.2
변비약	2	-	-	-	-	-	-	-	2	0.6
보존화용액	1	-	-	-	-	-	-	-	1	0.3
비타민제	16	1	5	1	2	7	8	2	42	12.7
빈혈약	1	-	-	-	-	-	-	-	1	0.3
살균소독제	1	-	-	-	-	-	-	-	1	0.3
살충제	3	-	1	-	-	-	-	-	4	1.2
생리식염수	-	-	-	-	-	1	-	-	1	0.3
생약	1	-	-	-	-	-	-	-	1	0.3
설사약	1	-	-	-	-	-	-	-	1	0.3
성기능보조제	1	2	-	-	-	-	-	1	4	1.2
소독살균기	-	-	-	-	1	-	1	-	2	0.6
소독살균제	1	-	3	1	-	3	-	-	8	2.4
소양진정제 (가려움증몇게하는약)	-	-	1	-	-	-	-	-	1	0.3
소화제	1	-	1	5	-	-	-	-	7	2.1
수면유도제	1	-	-	-	-	-	-	-	1	0.3
숙취해소제	1	-	-	-	-	1	-	-	2	0.6
신경치료제	1	-	-	-	-	-	-	-	1	0.3
아스피린	1	-	-	-	-	-	-	-	1	0.3
안약	-	-	2	-	1	-	1	-	4	1.2
여드름치료제	5	-	-	-	-	-	-	-	5	1.5
여성세정제	1	-	-	-	-	-	-	-	1	0.3
연고	2	-	1	-	-	-	1	-	4	1.2
영양강장제	2	-	-	-	-	-	-	-	2	0.6
영양제	-	-	-	-	-	-	2	-	2	0.6
외피용약	4	-	-	-	-	-	1	-	5	1.5
위염약	1	-	-	-	-	-	-	-	1	0.3
위장약	2	-	-	-	-	-	-	-	2	0.6
의치접착크림	-	1	-	-	-	-	-	-	1	0.3
인슐린주사약	-	-	1	-	-	-	-	-	1	0.3

잇몸약	2	-	-	-	-	-	-	-	2	0.6
장세척제	1	-	-	-	-	-	-	-	1	0.3
전립선 치료약	1	-	-	-	-	-	-	-	1	0.3
철분제	3	-	-	1	-	-	1	-	5	1.5
치아미백제	1	-	-	-	-	-	-	-	1	0.3
케산	1	-	-	-	-	-	-	-	1	0.3
키성장제	1	-	-	-	-	-	1	2	6	1.8
탈모치료제	2	-	-	-	-	-	-	-	2	0.6
파스	22	-	-	-	-	-	1	-	23	6.9
피로회복제	1	-	-	1	-	-	-	-	2	0.6
피부병약	5	-	-	-	-	-	-	-	5	1.5
피임기구	-	-	-	-	-	-	1	-	1	0.3
한약	66	12	-	-	-	1	3	7	89	26.9
한약재료	1	2	-	1	-	1	-	-	5	1.5
해열제	-	1	-	-	-	-	-	-	1	0.3
허리디스크약	1	-	-	-	-	-	-	-	1	0.3
혈압약	1	-	-	-	-	-	-	-	3	0.9
혈액순환개선제	2	1	-	-	-	-	1	-	4	1.2
화상거즈	1	-	-	-	-	-	-	-	1	0.3
총합계	198	27	28	10	7	21	25	15	331	100.0

1) 부작용

❍ 1~12월 동안 의약품 품목별 부작용 관련 상담은 7월(25건), 6월(23건), 1월(20건) 순으로 나타남.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감기약	3	-	-	-	-	-	1	-	-	-	-	1	5
건강기능식품	-	-	-	-	-	1	-	-	1	1	1	-	4
관장약	-	-	-	-	-	-	-	-	-	-	-	1	1
관절약	-	-	-	-	-	-	-	-	-	1	-	1	2
구내염약	-	-	-	1	-	-	-	-	-	-	-	-	1
기미치료제	1	-	-	-	-	-	-	-	-	-	-	-	1
다이어트제	1	-	-	-	-	-	-	-	-	-	-	-	1
동물약품	-	-	-	-	-	-	-	-	-	1	-	-	1
미기재	1	1	2	3	2	-	2	1	3	-	1	1	17
밴드	-	-	1	-	-	-	1	-	-	-	1	-	3
변비약	-	-	-	-	-	-	2	-	-	-	-	-	2
보존화용액	-	-	-	-	-	1	-	-	-	-	-	-	1
비타민제	-	-	-	1	3	1	2	2	5	-	2	-	16
빈혈약	-	-	-	-	-	-	-	-	1	-	-	-	1
살균소독제	-	-	-	-	-	-	1	-	-	-	-	-	1
살충제	-	-	-	-	-	-	3	-	-	-	-	-	3
생약	-	-	1	-	-	-	-	-	-	-	-	-	1
설사약	-	-	-	-	-	-	1	-	-	-	-	-	1
성기능보조제	-	-	-	-	1	-	-	-	-	-	-	-	1
소독살균제	-	-	-	-	-	-	1	-	-	-	-	-	1
소화제	-	-	-	-	-	-	1	-	-	-	-	-	1
수면유도제	-	-	1	-	-	-	-	-	-	-	-	-	1
숙취해소제	1	-	-	-	-	-	-	-	-	-	-	-	1
신경치료제	-	-	-	-	-	-	-	-	-	-	1	-	1
아스피린	-	-	-	1	-	-	-	-	-	-	-	-	1
여드름치료제	-	-	-	-	1	1	-	-	1	1	1	-	5
여성세정제	-	-	-	-	1	-	-	-	-	-	-	-	1
연고	-	-	-	-	1	-	-	-	-	-	1	-	2
영양강장제	-	-	1	-	1	-	-	-	-	-	-	-	2
외피용약	-	-	-	-	-	2	2	-	-	-	-	-	4
위염약	-	-	-	-	-	-	-	-	-	1	-	-	1
위장약	-	-	-	-	-	-	-	-	-	-	2	-	2
잇몸약	1	-	1	-	-	-	-	-	-	-	-	-	2
장세척제	-	-	-	-	-	1	-	-	-	-	-	-	1
전립선 치료약	-	-	-	-	-	-	-	-	-	-	-	1	1
철분제	1	-	-	1	-	-	1	-	-	-	-	-	3
치아미백제	-	-	-	-	-	-	1	-	-	-	-	-	1
케산	-	-	-	-	-	-	-	1	-	-	-	-	1
키성장제	-	-	-	1	-	-	-	-	-	-	-	-	1
탈모치료제	-	-	1	-	-	-	1	-	-	-	-	-	2
파스	3	-	2	1	1	4	-	-	1	7	2	1	22
피로회복제	-	-	-	1	-	-	-	-	-	-	-	-	1
피부병약	1	1	-	1	-	-	-	-	-	-	-	2	5
한약	6	1	7	3	5	11	5	6	7	5	4	6	66
한약재료	-	-	1	-	-	-	-	-	-	-	-	-	1
허리디스크약	-	-	1	-	-	-	-	-	-	-	-	-	1
혈압약	1	-	-	-	-	-	-	-	-	-	-	-	1
혈액순환개선제	-	-	-	1	-	-	-	-	-	-	-	1	2
화상거즈	-	-	-	-	-	1	-	-	-	-	-	-	1
총합계	20	3	19	15	16	23	25	10	19	17	16	15	198

(1) 부작용 월별 세부 분석

○ 2015년 1월 품목별 부작용 세부증상

구분	간수치 상승	귀 웅웅거림	눈 주위 통증	다리 저림	마비	배탈	부기	체중 증가	피부 손상	혈압 상승	화상	미기재	총합계
감기약	-	-	-	-	1	-	-	-	-	-	-	2	3
기미치료제	-	-	1	-	-	-	-	-	-	-	-	-	1
다이어트제	-	-	-	-	-	-	-	1	-	-	-	-	1
미기재	-	-	-	-	-	-	-	-	-	-	-	1	1
잇몸약	-	-	-	-	-	-	1	-	-	-	-	-	1
숙취해소제	-	1	-	-	-	-	-	-	-	-	-	-	1
철분제	-	-		1	-	-	-	-	-	-	-	-	1
파스	-	-	-	-	-	-	-	-	2	-	1	-	3
피부병약	-	-	-	-	-	-	-	-	-	-	-	1	1
한약	1	-	-	-	-	1	-	-	-	1	-	3	6
혈압약		-	-	-	-	-	-	-	-	-	-	1	1
총합계	1	1	1	1	1	1	1	1	2	1	1	7	20

○ 2015년 2월 품목별 부작용 세부증상

구분	간수치 상승	미기재	총합계
피부병약	-	1	1
한약	1	-	1
미기재	-	1	1
총합계	1	2	3

○ 2015년 3월 품목별 부작용 세부증상

구분	가려움증	가슴 통증	간 부종	간기능 저하	눈 충혈	배탈	복통	부기	불면증	체중 감소	피부 손상	미기재	총합계
밴드	-	-	-	-	-	-	-	-	-	-	1	-	1
생약	-	-	-	-	-	1	-	-	-	-	-	-	1
수면유도제	-	-	-	-	-	-	-	-	-	-	-	1	1
영양강장제	-	-	-	-	-	-	-	-	-	-	-	1	1
잇몸약	1	-	-	-	-	-	-	-	-	-	-	-	1
탈모치료제	-	-	-	1	-	-	-	-	-	-	-	-	1
파스	-	-	-	-	-	-	-	-	-	-	1	1	2
한약	-	1	1	-	-	2	1	-	-	-	-	2	7
한약재료	-	-	-	-	-	-	-	-	-	1	-	-	1
허리디스크약	-	-	-	-	-	-	-	-	1	-	-	-	1
미기재	-	-	-	-	1	-	-	1	-	-	-	-	2
총합계	1	1	1	1	1	3	1	1	1	1	2	5	19

○ 2015년 4월 품목별 부작용 세부증상

구분	두드러기	두통	메스꺼움	발진	배탈	위염	피부 얇아짐	현기증	호흡가빠짐	화끈거림	미기재	총합계
구내염약	-	-	1	-	-	-	-	-	-	-	-	1
미기재	-	1	-	-	-	-	-	-	-	-	2	3
비타민제	-	-	-	-	1	-	-	-	-	-	-	1
아스피린	-	-	-	-	-	-	1	-	-	-	-	1
철분제	-	-	1	-	-	-	-	-	-	-	-	1
키성장제	-	-	-	-	-	1	-	-	-	-		1
파스	-	-	-	-	-	-	-	-	-	-	1	1
피로회복제	-	-	-	-	-	-	-	1	-	-	-	1
피부병약	-	-	-	-	-	-	-	-	-	1	-	1
한약	1	-	-	1	-	-	-	-	-	-	1	3
혈액순환개선제	-	-	-			-	-	-	1	-	-	1
총합계	1	1	2	1	1	1	1	1	1	1	4	15

○ 2015년 5월 품목별 부작용 세부증상

구분	가려움증	가슴답답	가슴통증	메스꺼움	반점	배탈	변비	복통	어지러움	저림증상	호흡가빠짐	화상	미기재	총합계
미기재	-	-	-	-	-	1	-	-	1	-	-	-	-	2
비타민제	-	1	-	-	-	-	-	-	-	-	1	-	1	3
성기능보조제	-	-	-	-	-	-	-	1	-	-	-	-	-	1
여드름치료제	-	-	-	-	-	-	-	-	-	-	-	-	1	1
여성세정제	1	-	-	-	-	-	-	-	-	-	-	-	-	1
연고	-	-	-	-	1	-		-	-	-	-	-	-	1
영양강장제	-	-	-	-	-	-	1	-	-	-	-	-	-	1
파스	-	-	-	-	-	-	-	-	-	-	-	1	-	1
한약	-	-	1	1	-	-	-	-	-	1	-	-	2	5
총합계	1	1	1	1	1	1	1	1	1	1	1	1	4	16

○ 2015년 6월 품목별 부작용 세부증상

구분	가려움증	간수치상승	구토	두근거림	두통	두피염증	메스꺼움	무응답	불면증	설사	속쓰림	증상악화	피부손상	허리통증	총합계
건강기능식품	1	-	-	-	-	-	-	-	-	-	-	-	-	-	1
보존화용액	-	-	-	-	-	-	1	-	-	-	-	-	-	-	1
비타민제	-	-	-	-	-	-	-	-	-	-	1	-	-	-	1
여드름치료제	-	-	-	-	-		-	1	-	-	-	-	-	-	1
외피용약	-	-	-	-	-	1	-	1	-	-	-	1	-	-	3
장세척제	-	-	-	-	-	-	-	-	-	-	-	-	-	1	1
파스	-	-	-	-	-	-	-	-	-	-	-	-	4	-	4
한약	-	2	2	1	1	-	-	3	1	1	-	-	-	-	11
총합계	1	2	2	1	1	1	1	5	1	1	1	1	4	1	23

○ 2015년 7월 품목별 부작용 세부증상

구분	기미	가려움증	가슴답답	가슴통증	간지러움	구토	기운없음	두통	마비	메스꺼움	목따가움	무응답	부종	설사	쓰러짐	탈모	피부손상	허리통증	화상	총합계
감기약	-	1	-	-	-	-	-	-	-	-	-	-	-	-	-	-	-	-	-	1
무응답	-	-	-	1	-	-	-	-	-	-	-	1	-	-	-	-	-	-	-	2
밴드	-	-	-	-	-	-	-	-	-	-	-	-	-	-	-	-	1	-	-	1
변비약	-	-	-	-	-	-	-	-	-	-	-	-	-	2	-	-	-	-	-	2
비타민제	-	-	-	-	-	1	-	-	-	-	-	1	-	-	-	-	-	-	-	2
살균소독제	-	-	-	-	-	1	-	-	-	-	-	-	-	-	-	-	-	-	-	1
살충제	-	2	-	-	1	-	-	-	-	-	-	-	-	-	-	-	-	-	-	3
설사약	-	-	-	-	-	-	-	-	-	-	-	-	1	-	-	-	-	-	-	1
소독살균제	-	-	-	-	-	-	-	-	-	1	-	-		-	-	-	-	-	-	1
소화제	-	-	-	-	-	-	-	-	-	-	-	-	-	-	1	-	-	-	-	1
외피용약	1	-	-	-	-	-	-	-	1	-	-	-	-	-	-	-	-	-	-	2
철분제	-	-	1	-	-	-	-	-	-	-	-	-	-	-	-	-	-	-	-	1
치아미백제	-	-	-	-	-	-	-	-	-	-	-	-	-	-	-	-	-	-	1	1
탈모치료제	-	-	-	-	-	-	-	-	-	-	-	-	-	-	-	1	-	-	-	1
한약	-	-	-	-	-	-	1	1	-	-	2	-	-	-	-	-	-	1	-	5
총합계	1	3	1	1	1	2	1	1	1	1	2	2	1	2	1	1	1	1	1	25

○ 2015년 8월 품목별 부작용 세부증상

구분	구토	뇌경색진단	두근거림	메스꺼움	미기재	부기	설사	어지러움	총합계
비타민제	-	-	-	-	-	1	1	-	2
케산	-	-	-	-	-	-	1	-	1
한약	1	1	1	-	2	-	-	1	6
미기재	-	-	-	1	-	-	-	-	1
총합계	1	1	1	1	2	1	2	1	10

○ 2015년 9월 품목별 부작용 세부증상

구분	가려움증	기침	두드러기	메스꺼움	미기재	반품	발진	설사	습포	탈모	호흡곤란	총합계
건강기능식품	-	-	-	-	-	-	-	-	-	-	1	1
미기재	-	-	-	-	1	-	1	-	-	1	-	3
비타민제	1	-	1	2	-	-	-	1	-	-	-	5
빈혈약	-	-		1	-	-	-	-	-	-	-	1
여드름치료제	-	-	-	-	-	-	-	-	1	-	-	1
파스	-	-	-	-	-	-	-	-	1	-	-	1
한약	-	1	-	1	2	1	-	2	-	-	-	7
총합계	1	1	1	4	3	1	1	3	2	1	1	19

○ 2015년 11월 품목별 부작용 세부증상

구분	간수치상승	구토	메스꺼움	물집	미기재	발진	부기	알레르기	잇몸출혈	치아손상	총합계
건강기능식품	1	-	-	-	-	-	-	-	-	-	1
미기재	-	-	-	-	1	-	-	-	-	-	1
밴드	-	-	-	-	-	-	1	-	-	-	1
비타민제	-	-	-	-	-	-	-	-	-	2	2
신경치료제	-	-	-	-	-	-	-	-	1	-	1
여드름치료제	-	-	-	-	-	1	-	-	-	-	1
연고	-	-	-	-	-	-	-	1	-	-	1
위장약	-	-	-	-	2	-	-	-	-	-	2
파스	-	-	-	1	-	1	-	-	-	-	2
한약	-	1	2	-	1	-	-	-	-	-	4
총합계	1	1	2	1	4	2	1	1	1	2	16

○ 2015년 12월 품목별 부작용 세부증상

구분	두통	미기재	발진	복통	어지러움	위궤양	전신마비	피부손상	총합계
감기약	-	-	-	-	-	-	-	1	1
관장약	-	-	-	-	-	-	1	-	1
관절약	-	1	-	-	-	-	-	-	1
미기재	-	1	-	-	-	-	-	-	1
전립선 치료약	-	-	1	-	-	-	-	-	1
파스	-	-	-	-	-	-	-	1	1
피부병약	1	-	-	-	-	-	-	1	2
한약	-	2	-	3	-	1	-	-	6
혈액순환개선제	-	-	-	-	1	-	-	-	1
총합계	1	4	1	3	1	1	1	3	15

◇ 의약품 부작용 관련 소비자불만사례

<1월>

- 소비자는 2014년 9월 목 부분에 사마귀가 발생하였음. 사마귀를 치료하기 위해 피부에 좋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함. 약을 사용한 뒤 부작용이 발생하여 제조업체에 배상을 청구하고 싶음. 피해보상처리 방법을 문의함.

- 소비자는 신신파스를 구입하여 팔꿈치 윗부분에 부착하였다가 2도 화상을 입음. 제조업체에서는 병원치료비를 배상해 주겠다고 함. 소비자 본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3일간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음. 따라서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도 청구하고 싶은데 업체 측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하여 문의함.

<2월>

- 소비자는 다이어트용 한약을 복용 한 후 간수치가 높아져 입원치료 중임. 한의원에서 지인을 통해 전화로 구매하였음. 복용 전 한의원에서는 소비자의 상태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음. 또한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고지 받지 못하였음. 이에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받고 싶어 상담을 요청함.

- 소비자는 지루성 피부염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약도 처방받아 복용했음. 그런데 연고를 바르고 부작용이 발생함. 병원에 가서 문의를 하니 소비자 본인에게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났다고 말함. 그리고 병원에서 더 강한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고 싶어 문의함.

<3월>

- 소비자는 2014년 잇몸병이 있어 약국에서 인사돌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음. 복용한지 3일 후부터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였음. 아직도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함

- 소비자는 5개월 전 보령제약에서 나오는 눈에 좋다는 약을 구입하여 복용함. 복용 후 눈이 충혈 되는 증상으로 병원 진료 받았음. 병원에서는 그 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함. 약을 먹지 않으니 증상이 사라짐. 보령제약 측에 문의하니 구입 후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함.

- 소비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3개월 치 약을 처방 받았음. 일주일동안 복용하였는데 몸이 풍선처럼 부어서 전화했더니 약을 먹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라고 함. 병원에서는 몸이 붓는 사람도 있고 붓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하였음. 소비자가 약 값을 환불해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함.

<4월>

- 소비자는 2월 말, 대구에 있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주문하여 3월 2일부터 4살 자녀 딸에게 복용시킴. 복용 후 얼굴하고 배와 가슴 쪽이 빨갛게 올라옴. 일주일 반 정도 복용 후 병원에 가서 문의하니 한약하고 상관없다고 해서 먹였으나 몸 전체에 퍼졌고, 3주 동안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음. 한의원에서는 문제없다며 계속 먹이라고 하였지만, 피부과 치료 중에는 먹이지 않고, 피부과 치료 후 나아져서 다시 한약을 복용함. 그런데 또 몸에 빨갛게 올라옴. 이에 소비자는 한약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남아있는 약에 대한 환불 원함.

- 소비자는 내과 방문 후 처방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음. 약사는 사람들에게 먹고 남은 약을 가져 오라고 함. 소비자 생각에 소비자들이 먹고 남아서 가져온 약을 아무래도 재활용을 하는 것 같음. 조제 받은 내과 약도 유통기간이 경과 된 약인 것 같음. 먹고 부작용도 발생 함. 이와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싶어 문의함.

- 소비자는 4월 25일 약국에서 입안이 헐어 약을 구매함. 약사의 처방대로 2번 복용하였음. 그런데 속이 미식거리고 구토가 나고 하여 자세히 설명서를 보니 잘못 알려준 것이었음. 설명서에는 1회 1정인데, 약사는 1회 2정을 처방해줌. 이런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음.

<5월>

- 소비자는 구매대행으로 비타민제를 구입하였음. 약 복용 후 호흡곤란이 있고 속이 메스꺼워 업체에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개봉하여 환불 불가하다고함. 이런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함.

- 소비자는 2015년 3월 약국에서 일양약품의 투헬스(눈 근육 경련 및 혈액순환개선 비타민제) 를 2박스 6개월 분량 구매하였음. 먹고 나서 심장이 답답해서 반품을 하려는데, 반품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 소비자는 광동제약 여드름 치료제를 바른 후, 부작용이 생겼음. 병원에서는 성분이 피부와 맞지 않아 생긴 트러블이라고 하였으며, 지금까지 치료비가 20만원 가량 들었음. 처음에는 제약회사에서 치료비를 배상해준다더니 이제 전액을 다 배상해줄 수는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어 상담을 요청함.

<6월>

- 소비자는 2015년 5월 초 약국에서 광동제약 여드름 치료제를 바른 후 부작용이 생김. 병원에서는 성분이 피부와 맞지 않아 생긴 트러블이라고 함. 진단서도 발급을 받았음. 지금까지 치료비가 20만원가량 들었음. 처음에는 제약회사에서 치료비 배상해준다더니 이제는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면서 전액을 다 해줄 수는 없다고 말을 바꿈. 치료비에 대해서 50% 손해배상 가능하다고 주장함. 치료비 전액 배상 가능한지 문의함.

- 상담 신청인의 부모님께서 1월 중국여행을 다녀오셨음. 가이드가 데리고 간 곳에서 한약 4개월 분 구매해 오셨음. 거의 다 드신 시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수치가 너무 높게 올라 쇼크사가 될 수준이라고 했음. 검사결과 원인은 약물중독증세라는 소견이었음. 그동안 복용한 약은 없고 중국여행에서 구매한 약만 복용했음.해당 한약의 성분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하며, 여행사에 이의제기 가능한지 문의함.

- 소비자는 비염으로 한의원 방문하였고, 디톡스 한약 35만원 제조 받았음. 첫 날 먹는 약 중에서 1회 복용 했으나 계속 구토를 해서 2회~4회약은 복용하지도 못한 상황임. 약을 먹을 때마다 구토 등 부작용이 심해 다음 약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이럴 경우 처리방법을 문의함.

- 소비자는 꽃을 시들지 않게 하는 보존화용액인 제조사 웰코트의 프리저브드플라워용액(특수 약품)을 10일 전에 구입함. 약품을 뚜껑을 열고, 1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나서 어지럽고 메스꺼워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음. 업체에 문의하니 제품에 알콜성 성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고, 준비중 이라고 하며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말함. 업체에서는 이 제품 때문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 지불한다고 함. 소비자는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음.
- 소비자는 지인의 소개로 스와디스크린이라는 외피용약을 구매함. 두피에 바르니 염증이 발생했으나 업체에서는 명현현상으로 병원 약을 바르지도 말고 복용하지도 말라고 함. 그러나 완화되지 않고 점차 심해짐. 성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함.

<7월>

- 소비자는 살균세정제를 인터넷에서 구매하였으며, 해당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 인체에 뿌려도 무해하다고 나와 있었음. 소비자가 받아서 사용해보니, 머리가 아프고 구토증세가 있음. 업체에 이야기하니 반품은 받아주는데 소비자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함. KC마크 관리하는 곳에 전화를 하니까 해당 상품은 공산품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인체에 무해한 KC마크라고 광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함.

- 소비자는 딸에게 약국에서 오라메디를 사오라고 하였고, 약국에서는 오라메디를 달라고 하니 카트리신 성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좋다고 하여 6.000원에 구입함. 입안이 아픈 상태여서 입안에 약을 발랐더니 마비가 되는 느낌이 생기더니 2시간 후에 괜찮아져서 다시 입안에 발랐더니 혀끝까지 마비가 되는 상황임. 약국을 방문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개봉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함. 제조처 고객상담실로 연락을 하니 약국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함.

- 소비자는 위메프에서 치아미백제를 구입하였고, 치아에 바른 지 2분 만에 하얗게 되면서 피가 남. 다음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치과에 감. 끈적해서 잇몸에 화상을 입었다면서 며칠 연고를 바르라고 함.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도 없었으며 위메프에서 민원 접수하였더니 민원실 팀장에게 전화 옴. 의사진단서 요청을 하여 보냈고, 7월 6일 진단서 1만원과 치료비 포함 3만원 준다고 함. 휴가를 내고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고 하여 상담을 요청함.

- 소비자는 스프레이식 진드기 약을 방 안에 뿌림. 분사 후 3시간 동안 문을 닫은 후 환기를 하라고 하였음. 이후 온 몸이 간지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함.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진드기 약이 독성과 부작용이 있다고 함. 약에는 독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문의함.

- 소비자는 4월초~5월까지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한약을 먹었음. 약을 먹고 끙끙 앓았으며 감기 기운 있을시 상담하라는 내용 있어서 한의원에 문의하니 알약을 한통을 주면서 한 알씩 같이 먹으라고 함. 약 먹은 후 옆구리가 아팠음. 녹용을 권해서 먹었고, 머리가 쭈뼛하게 치솟음. 소화제 한통을 주고 같이 먹으라고 함. 목이 따갑고 눈 밑에 기미가 올라옴. 약을 아침에만 먹으라고 6봉 조제해 줌. 약을 안 먹겠다고 하니 그런 약이 아니라고 방문하라고 함. 한의원에는 메르스 때문에 6월 지나고 7월 중순 방문예정이어서 상담 요청함.

- 소비자는 약국을 방문해 몸살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추천해준 감기약을 복용함. 두드러기가 나면서 온몸이 빨갛고 가려움. 응급실 방문하여 수액을 맞고 가려움증 억제 주사 3번 맞음. 치료비 약 90,000원 발생하였으며 업체에서 진단서 요구하기는 했으나 경비처리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하여 상담을 요청함.

- 소비자는 2~3개월 전 홈쇼핑에서 한국전통의학연구소 모가득 어성초환+두피토탈케어 종합세트 구입함. 세트상품은 샴푸, 미스트, 한약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처음엔 머리가 안 빠지는 것 같더니 더 잘빠짐. 소비자는 판매자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상담을 요청함.

<8월>

■ 여행 중 구입한 한약환불문의

소비자 해외 중국 여행가서 한약을 사왔는데 한약을 복용하는 중 몸에 이상이 생겨서 2015년 3월 여행사쪽에 전화를 했더니 어려 울 것 같다고 하면서 병원 쪽에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함. 병원 쪽에서 진단서는 어렵다고 함.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 한약 부작용

소비자는 3월에 아들이 아파서 한의원에 가서 59만원 주고 탕약을 만들었는데 아이가 더 심해졌다고 함. 한의원에 와보라고 했는데 걸음도 못 걸어서 택시 타고 한의원에 갔다고 함. 병원에 가니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함. 약을 먹일 수 없으니 돌려주겠다고 하니 다 찢어서 하수구에 버리라고 해서 다 찢어서 버렸다고 함. 환불 해달라고 하니 다시 약을 지어가라고 하는데 50만원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

■ 한약 먹고 구토
소비자는 한약 3개월 치 구매, 먹고 3일 먹고 구토함. 구급차에 실려갔고, 7일정도 복용한 것임. 아주 심하여 응급실 2번 내방 함. 남아 있는 제품 환불 받고 싶음

■ 케산이라는 약의 부작용 문의
소비자는 케산이라는 약을 구매 (20,000원), 약국에서 케산을 줬는데, 물변을 봐서, 도저히 못 먹겠음. 한미양행에 전화를 했는데 콧방귀도 안뀜.

■ 비타민으로 인한 부작용 배상처리 문의
소비자는 혀 밑에 염증이 나서 과립형 비타민을 구매하여 복용하다. 복용 후 입안이 퉁퉁 부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제약회사에 연락하니 체질상 발생한 증상인 것 같다며 도의상 처리로 병원비를 청구하라 함. 부작용으로 인한 병원비 7천원 및 빨리 회복하려면 링거를 맞으면 좋다 함. 회사 측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만 가능하다함.

■ 비타민제 먹고 부작용 보상 처리
CJ오쇼핑에서 블랙모어스 오메가3 멀티 영양제를 구매함. 7~8개월 전부터 이 약품을 먹고 있었음. 3월전에 이 제품이 새서 교환을 받음. 교환받은 제품을 복용하고 있는데 8.30일 제품에서 기름이 흐르고 모르고 복통으로 설사를 함. 이런 경우 보상처리 문의함.

■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소비자는 아는 사람이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의원 소개를 받음. 3개월 24만원 결재를 함. 다른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먹고 나서 별 효과가 없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림. 부작용 인것 같은데 취소 할 수가 있는지 문의함.

<9월>

■ 한약부작용으로 반품 문의
소비자는 한의원에서 다이어트한약을 구입함 -2 가격은 18만원임 -3한약구입후 부작용으로 반품 문의

■ 비타민제 먹고 설사함
소비자는 코스트코에서 비타민을 구입해서 아이한테 먹였는데 설사를 했음. 냄새를 맡아보니 석유냄새가 났음.

■ 약품 부작용문의
소비자는 자녀를 위해 약국에서 인테반이란 약을 받음. 빈혈제와 물약을 줬는데 속이 안 좋다고 함. 약국에 가져가니 그냥 먹이라고 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 한약 환급 문의
소비자는 한약을 먹고 설사가 났음. 업체로 문의하니 약을 주어 3-4알정도 먹었음. 다시 한약을 먹자 또 설사가 남. 업체에서는 남은 제품만 환급을 해준다고 함. 환급규정을 알고 싶어 문의함.

■ 비타민약 부작용
소비자의 아버님이 보름 전에 영국에서 수입한 비타민을 드셨음. 드시고 나서 두드러기가 심하게 남. 피부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 연락을 하니 전화를 받지 않음. 약품명은 비타플러스 메가비타민씨 3000 이고 현재 통원치료중임. 의사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고 함.

<10월>

- 신신파스 부착 후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비자는 추석 명절에 무릎이 아파서 신신파스 패노크린 첨가된 파스를 무릎에 부착함. 부작용으로 부풀고 가려워서 병원치료 받고 있음. 저녁에 가렵고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함. 9.30일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는데도 저녁에 잠을 못잠.

- 파스로 인한 화상
  소비자는 어인제약, 파스를 구입하여 붙였는데 피멍이 든 것처럼 심한 화상 상태가 되었음. 파스 회사로 연락을 하니 며칠 기다려 보라고함.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11월>

- 한약을 먹으면 구토, 복통, 설사
  소비자는 유산을 하여 보약을 지어(50만원) 카드로 일시불 지불함. 약을 먹고 나면 구토, 설사, 몸이 누군가에 게 맞은 것처럼 몸살 증상이 있음. 한의원에 문의를 하니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데 성분의뢰를 하고 싶어서 문의함.

- 신경치료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문의
  소비자는 파티마병원에서 신경과 약을 타서 복용함. 갑자기 한쪽이 마비되어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였음. 6개월 복용 중에 잇몸 출혈의 부작용 발생됨

- 밴드 형 의약품 부작용
  소비자는 아이 얼굴에 흉터가 나서 밴드 약품을 발라주었음. 약품으로 인해 피부가 부어오르는 등 더 큰 흉이 남았음.

- 신신파스 사용 후 피부에 물집
  소비자는 9월 26일 추석연휴에 무릎에 신신파스를 붙였음. 자고 일어나니 피부에 물집이 생겨 징그럽게 되었고 가려웠음.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출근도 하지 못함. 신신파스 측에 전화하니 약값을 지급할 것이니 병원을 가라고 함. 연휴가 끝난 후 피부과에 가서 주사를 맞고 피부약을 바르니 가려운 증세는 없어짐. 피부과에서 2주 진단서를 받았고, 며칠 전 신신파스 측에 전화하니 치료비와 위로금 차원의 10만 원을 추가금으로 주겠다고 함.

-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한약 조제복용 후 부작용
  소비자는 경동시장에 있는 한약방에서 차로 끓여먹을 수 있는 한방차를 구입함. 복용 후 부작용이 심해 입원을 하였음. 그런데 알고 보니 한의사도 아닌 한의사 부인이 처방을 해 주었고, 이것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실명까지 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도 있었음. 이런 경우 어떻게 한의원에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함.

- 파스 부작용으로 배상요구 문의
  소비자는 팔목이 아파서 케토톱을 약국에서 구입 후 사용함. 팔목 부분이 빨갛게 부풀어 오름. 파스의 부작용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배상요구가 가능 한지 문의함

- 소비자는 트러블에 바르는 연고를 바름(맨소래담 제품). 코에 발랐더니 부어오르며 빨갛게 됨. 코의 피

지로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음. 너무 심하여 보상받고자 함. 현재는 나은 상태이며 흉터가 남았음. 패인상처는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함.

- 소비자는 카베진이란 위장약을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했음. 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싶음.

-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으로 나토키나제(롯데)를 134,000원에구입함. 먹고나서 너무 몸에 이상반응이 나와 반품하려니 전화를 받지 않음.

<12월>

- 아토피 피부 얼굴 바른후 부작용 일어남
  소비자는 아토피가 있어 인터넷 검색하다 비단멍게 아토피 피부에 좋다는 약을 구매함. 처음에 샘플 사용해 보고 맞으면 대용량으로 구매하라는 상담원의 말만 믿고 대용량 300미리 80만원에 구매함. 샘플을 사용 해보니 얼굴이 좋아졌음. 본 품을 사용 하였더니 얼굴이 좋아지지 않고 트러블이 일어남. 업체로 항의 하니 샘플은 팩타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 있으나 본 품은 팩타이드 성분이 적게 들어 있어 그렇다고 함. 반품하고 환불 받고자 하니 업체에서 본 품을 사용한 양을 제외하고 환불 해주겠다 말함. 업체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함.

- 관장약 먹은 후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소비자의 부모님은 대장내시경 받기 전 먹는 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함. 부모님이 약을 드신 후 전신마비로 응급실 치료를 받고 회복함. 병원에서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인정하였음. 피해 보상을 받고 싶어 문의함.

- 붙이는 파스 부작용
  소비자는 약국에서 녹십자에서 나오는 파스를 구매하여 허리에 6시간 정도 붙였다가 떼었는데 허물이 다 벗겨지고 상처가 너무 심함. 주의사항에는 유아에게 사용 시 주의하라는 안내만 있는데 보상규정 문의함.

- 유통기한이 지난 해열제 먹인 후 발생한 부작용
  소비자는 이틀 전 편의점에서 해열제(감기약) 구입함. 직원에게 제조년월일을 확인함. 아이에게 먹인 후 피부트러블이 발생함. 확인해 보니 2015년 10월 16일까지가 사용기한임. 아이가 피부 트러블이 생김. 병원에서는 뭔가 잘못 먹고 일어난 현상이라고 함.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 1~12월 품목별 의약품 부작용 세부 증상 ①

구분	기미	가려움증	가슴답답	가슴통증	갑부종	간기능저하	간수치상승	간지러움	구토	귀가웅웅거림	기운없음	기침	뇌경색진단	눈주위통증	눈충혈	두근거림	두드러기	두통	두피염증	마비	메스꺼움	목따가움	물집	미기재	반점	반품	발진	배탈	변비	복통	부기	부종
감기약		1																		1				2								
건강기능식품		1					1																						1			
관장약																																
관절약																								1							1	
구내염약																					1											
기미치료제														1																		
다이어트제																																
동물약품																																
미기재				1											1			1			1			8			1	1			1	
밴드																															1	
변비약																																
보존화용액																					1											
비타민제		1	1						1								1				2			2				1			1	
빈혈약																					1											
살균소독제									1																							
살충제		2						1																								
생약																												1				
설사약																																1
성기능보조제																														1		
소독살균제																					1											
소화제																																
수면유도제																								1								
숙취해소제										1																						
신경치료제																																
아스피린																																
여드름치료제																								2			2					
여성세정제		1																														
연고																									1							
영양강장제																								1					1			
외피용약	1																		1	1				1								
위염약																																
위장약																								2								
잇몸약		1																													1	
장세척제																																
전립선 치료약																											1					
철분제			1																		1											
치아미백제																																
케산																																
키성장제																																
탈모치료제						1																										
파스		1																					1	2			2					

피로회복제																															
피부병약																	1						2								
한약				3	1		4		4		1	1	1			2	2	2			4	2		19		1	1	3		4		
한약재료																															
허리디스크약																															
혈압약																							1								
혈액순환개선제																															
화상거즈																															
총합계	1	8	2	4	1	1	5	1	6	1	1	1	1	1	1	2	3	4	1	2	12	2	1	44	1	1	7	6	2	5	5	1

○ 1~12월 품목별 의약품 부작용 세부 증상 ②

구분	불면증	뾰루지	설사	속쓰림	습포	쓰러짐	알레르기	애완동물쇼크	어지러움	위궤양	위염	잇몸출혈	저림증상	전신마비	증상악화	체중감소	체중증가	치아손상	탈모	피부얇아짐	피부손상	허리통증	현기증	혈압상승	호흡가빠짐	호흡곤란	화끈거림	화상	총합계 ①+②
감기약																					1								5
건강기능식품																										1			4
관장약														1															1
관절약																													2
구내염약																													1
기미치료제																													1
다이어트제																	1												1
동물약품								1																					1
미기재									1										1										17
밴드																					2								3
변비약			2																										2
보존화용액																													1
비타민제			2	1														2							1				16
빈혈약																													1
살균소독제																													1
살충제																													3
생약																													1
설사약																													1
성기능보조제																													1
소독살균제																													1
소화제						1																							1
수면유도제																													1
숙취해소제																													1
신경치료제												1																	1
아스피린																				1									1
여드름치료제					1																								5
여성세정제																													1
연고							1																						2
영양강장제																													2
외피용약																													4

위염약															1														1
위장약																													2
잇몸약																													2
장세척제																						1							1
전립선 치료약																													1
철분제													1																3
치아미백제																												1	1
케산			1																										1
키성장제											1																		1
탈모치료제																			1										2
파스					1																13							2	22
피로회복제																							1						1
피부병약																					1						1		5
한약	1	1	4						1	1			1									1		1					66
한약재료																1													1
허리디스크약	1																												1
혈압약																													1
혈액순환개선제									1																1				2
화상거즈																													
총합계	2	1	9	1	2	1	1	1	3	1	1	1	2	1	2	1	1	2	2	1	17	2	1	1	2	1	1	3	198

2) 유효기간

❍ 1~12월 동안 의약품 품목별 유효기간 관련 상담은 6월(6건), 3월(5건)순으로 나타남. 품목별로는 살충제가 (5건), 감기약과 소독살균제가 각각(3건), 안약과 혈압약이 각각(2건)순으로 나타남.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간장약	-	-	-	-	-	-	-	-	-	1	-	-	1
감기약	1	-	-	-	-	-	-	1	1	-	-	-	3
관장약		1	-	-	-	-	-	-	-	-	-	-	1
구강청결제	1	-	-	-	-	-	-	-	-	-	-	-	1
동물약품	-	-	1	-	-	-	-	-	-	-	-	-	1
미기재	-	-	-	-	-	-	1	2	-	1	-	-	4
비타민제	-	1	1	-	-	2	-	-	1	-	-	-	5
살충제	-	-	-	-	1		-	-	-	-	-	-	1
소독살균제	-	-	-	-	-	2	-	-	1	-	-	-	3
소양진정제	-	-	-	-	-	-	1	-	-	-	-	-	1
소화제	-	-	1	-	-	-	-	-	-	-	-	-	1
안약	-	-		-	-	1	-	-	-	1	-	-	2
연고	-	-	1	-	-	-	-	-	-	-	-	-	1
인슐린주사약	-	-		-	-	1	-	-	-	-	-	-	1
혈압약	-	-	1	-	1	-	-	-	-	-	-	-	2
총합계	2	2	5	-	2	6	2	3	3	3	-	-	28

◇ 의약품 유효기간 관련 소비자불만사례

<1월>

- 소비자는 8개월 전 구강청결제를 구입함. 구입당시는 몰랐으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교환을 요구하고 싶음. 이런 경우에도 교환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함.

- 소비자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입 함. 집에 와서 확인 해 보니 약의 유통기간이 지나있었음. 이런 약을 판매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신고하고 싶음.

<2월>

- 소비자는 장(변비) 청소 약을 약국에서 구입함.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달로 지난 것을 확인하였음. 복용 후 속도 좋지 않은 것 같음.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함.

- 소비자는 2015년 1월말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타민 제품 9개월 분량(3통)을 19,000원에 구입함. 복용하던 중에 유통기간이 2015년 2월 26일까지인 것을 확인하였음. 제품의 복용기간 대비 유통기간이 짧아 판매처에 문의 하니 반품처리는 해준다 함. 업체에서는 판매 사이트에 유통기한을 기재 해 놓았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신고하고 싶어 문의함.

<3월>

- 소비자는 2014년 10월 소량만 바르는 연고를 15,000원에 구입하였음. 소량만 바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래 바르는 것이 정상인데, 유통기한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판

매하는 것은 규제가 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함.

- 소비자는 백병원에서 고혈압 약 3개월 분량을 처방받음. 통에 담긴 채로 주었는데 통이 누렇게 변해있었음. 3통 중에 2통의 유효기간이 2015년 5월까지였음. 택배로 약국에 약을 보내서 다시 약을 받았는데도 유효기간이 2월 28일까지였음. 약국에서 교환을 해준다고 하나 신고하고 싶음.

<5월>

- 소비자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칼슘제, 근육이완제, 혈압약을 받았음. 2014년 약을 처방해주었고, 약의 유통기한이 3년이라고 함. 소비자는 제조한지 얼마 안 된 약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였으나 약국에서는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 안 된다고 함. 제조사에 문의하니 2개의 제약회사는 바꾸어 주었는데 한 군데 제약회사는 안 된다고 함. 약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함.

- 소비자는 파리약 연막소독 제품을 구입함. 사용 기간이 5년이 지난 것으로 사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교환해 준다고 하였음. 그러나 소비자는 기간이 지난 제품을 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요청함.

<6월>

- 소비자는 11번가 쇼핑몰을 통하여 비타민을 4개월분을 구입하였으나 2015년 8월 25일로 유통기간 만료일이 된다고 함. 이는 잘못 된 것으로 신고를 하려고 상담을 요청함.

- 소비자는 2014.12~2015.1월 경 당뇨로 인해 부천성가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인슐린 주사약을 받음. 공기 좋은데 있으니 몸이 아프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니, 하나는 유효기간이 6월 20일로 되어 있고 하나는 8월로 되어 있음. 교환을 요구 할 수 있는 지 궁금하여 문의함.

- 소비자는 파리약 연막소독 제품을 구입함. 사용 기간이 5년이 지난 것으로 사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교환해 준다고 하였음. 그러나 소비자는 기간이 지난 제품을 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요청함.

- 소비자는 크린벨 손소독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구입함. 제조사에 이의 신청하니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용기만 다르다고 함. 용기에 제조 날짜 기록한 곳에 유통기간 날짜를 변조하여 판매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담을 신청함.

- 소비자는 GS마켓에서 약을 구입함. 보통 약이 유통기한이 2년인데 유통기한이 6개월밖에 안 남아서 반품을 하였는데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내라고 함. 비타민 제품이고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약은 2년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2년일 줄 알고 많이 구매를 하였음.

- 소비자는 메르스로 인해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손소독제 32만원에 구입하였음. 이후 유통기간(2012/09/23) 경과로 확인되어 판매자에게 통화시도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고 있음. 소비자는 유통기간 2년 경과된 제품 판매로 환불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함.

<7월>

- 소비자는 또봇물파스를 3,000원 구입함. 개봉하여 보니 키티쿨즈 물파스였으며 유통기간이 지났음. 해결기준 문의함.

- 소비자는 2015년 1월 27일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함. 2015년 7월 최근에 복용하고 확인한 바, 2014년 10월까지 유통기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판매 시 이미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것임. 제약회사 및 약국에 이의제기 했으나 책임을 회피함. 대응방안 문의함.

<8월>

■ 2년 전 약국 구입한 약 교환 요구
소비자는 2년 전 약국에서 구입한 약이 현재는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교환 받을 수 있는 지 문의함.

■ 약국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관련문의
소비자의 어머니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약국 에서 약을 사서 먹었다고함. 약을 먹고 나서 좋지 않아서 보니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제품이었음.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약을 판매한 약국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문의.

■ 유통기간 경과된 약품 반품 제조사에서 거부하여 반품에 대한 해결 건
신청인은 약국 운영자로 제약회사에서 유통기간 경과된 약품 반품 거부 하나 타 제약사의 경우 반품해 주고 있다며 반품에 대하여 도움 청하다

<9월>

■ 감기약 유효기간 경과된 제품 먹어서 문의
소비자는 8/27일 약국에서 구매한 감기약 먹고 확인하니 유효기한 5월 30일 확인하게 됨. 약국 방문하여 항의하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안내하는데 마땅한 처벌 문의

■ 쇼핑몰에서 구입한 비타민제 유통기한 경과
소비자는 쇼핑몰에서 비타민을 구입 하였다. 2개통을 구입하여 먹였는데 아기가 먹고 구토가 난다고 하여 확인 한바 한통은 유통기간을 유통, 2013년도로 표시 되고 날짜는 지워짐. 처리 방안 문의함.

■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소비자는 스피드 케어 소독약 240만원어치 구매함. 방문판매업체 2015년 구매 2003년 제작년도로 되어있음. 유통기간이 지났음. 업체에 확인했더니 2003년에 구매한 걸로 나온다고 함. 소비자가 이사 업체 운영시작은 2012년임.

<10월>

- 소비자는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안약을 자주 구매함. 처방을 받으면 한 달에 2병씩만 처방을 해줌. 약제조사는 대웅제약으로 소비자가 사용기한에 대해 문의하니 개봉을 하면 일주일만 사용이 가능 하다고 함. 처방의 기준이 맞는지 문의함

- 소비자는 대웅제약에서 나오는 우루사를 1년 전에 구매함. 아직 잔여 제품이 남아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3) 품질불량

❍ 1~12월 동안 품질불량 관련 상담 25건 중 비타민제 관련 상담이 8건, 한약관련 상담이 3건 이었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간장약	-	-	-	-	-	-	-	-	-	1	-	1
관장약	-	-	-	1	-	-	-	-	-	-	-	1
밴드	-	-	-	-	1	-	-	-	-	-	-	1
비타민제	3	-	1	-	2	-	-	1	-	-	1	8
소독살균기	-	-	-	-	-	-	-	-	-	1	-	1
안약	-	-	-	1	-	-	-	-	-	-	-	1
연고	-	-	-	-	-	-	-	-	-	1	-	1
영양제	-	-	-	-	-	-	-	-	-	2	-	2
외피용약	-	-	-	-	-	-	-	-	-	-	1	1
철분제	-	-	-	-	-	-	-	-	-	1	-	1
키성장제	1	-	-	-	-	-	-	-	-	-	-	1
파스	-	-	1	-	-	-	-	-	-	-	-	1
피임기구	-	-	-	-	-	1	-	-	-	-	-	1
한약	-	-	-	-	-	-	1	1	-	1	-	3
혈액순환개선제	-	-	-	1	-	-	-	-	-	-	-	1
총합계	4	-	2	3	3	1	1	2	-	7	2	25

◇ 의약품 품질불량 관련 소비자불만사례

<1월>

- 소비자는 29개월 아이가 먹을 오뚜기 뽀로로 비타민C 7병을 구입하였음. 이미 아이에게 먹였는데 비타민의 상태가 얼룩덜룩한 상태임을 알게 됨. 아이의 몸에 이상이 있을지 걱정임. 이런 경우 업체에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문의 함.

- 소비자는 1년 전 인터넷 쇼핑몰 솔라레이에서 기능성 건강식품 멀티비타민을 구입함.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개봉을 했는데 색상이 변해있었음. 업체에 교환을 문의하니 교환이 어렵다고 하면서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함. 정말 교환이 어려운지 알고 싶어 문의함.

<3월>

- 소비자는 약국에서 아이들이 먹는 로보카 폴리 비타민을 구매함. 집에 돌아가서 먹으려고 확인해 보니 내용물이 들어 있지 않았음. 업체로 전화하자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며 연결이 되지 않았음. 이럴 경우에는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함.

- 소비자는 3월 26일 신문광고를 보고 한 통에 8개가 들어있는 파스를 83,000원에 구입함. 제품을 수령한 후 확인해 보니 제품의 케이스도 없고, 유통기한이나 제조사 및 품질에 대한 안내장도 명시되어있지 않았음. 판매자에게 전화하니 반말을 하였음.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싶음.

<4월>

- 소비자는 4월 17일 약국에서 안약을 구입함. 안약 안에 이물질이 있어서 눈이 따가움. 약국에서 변질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였음.

- 소비자는 약국에서 장 청소 약을 구입함. 복용을 하려고 보니 곰팡이가 피어있음. 먹고 배가 아프고 함. 구입한 약국에 가서 문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조사에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함.

- 소비자는 2014년 10월 약국에서 징코민을 구매함. 식약처에서 회수조치가 내려진 것 알게 되었음. 약국에서는 제조업체에 요청해야한다고 함. 전화하니 제조업자와 연락이 안 됨. 12월에 동방제약 목산제약으로 바뀌었다고 함. 홈페이지 서비스도 중단되었는데, 이와 같이 제조업자의 폐업 시 처리방법을 문의함.

<5월>

- 소비자는 종로에서 2015년 2월에 센트롬 종합비타민을 2개월분 구입하여 어머니께 드렸음. 어머니께서 약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드신 것 같음. 제약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3월에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전화하니 5월에 연락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함.

- 소비자는 인터넷 11번가에서 의약외품 흉터완화밴드 메디폼을 구매함. 7일전에 물품을 받았고 포장을 뜯고 사용해보니 기포가 있었음. 해외 판매자 측에 반품을 요구하니 거부함. 이런 경우 해결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함.

- 소비자는 2015년 5월 5일 비타민c를 복용함. 먹다가 보니 색깔이 거뭇거뭇하고 이상하여 백화점에 문의를 하였는데 백화점에서는 공기와 산화되어 그런 것이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함.

<6월>

- 소비자는 콘돔을 구입하고 난 뒤 찢어지어 사후 피임약을 드시고 몸이 많이 안 좋음. 이런 경우 제조업체에서는 구입가만 환불 해 준다고 하는데 건강상의 보상과 정신적 보상을 받고 싶음.

<7월>

- 소비자는 지방에 있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구매함. 소비자가 구매한 한약이 가짜라고 하면서 kbs 방송에 나왔음. 판매처에서는 가짜가 아니라고 함. 처리 방안을 문의함.

<9월>

■ 변질된 비타민 환불 문의
소비자는 아기가 뽀로로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갈색으로 변색이 된 것 같다고 함. 구입은 6월말에 함. 전에는 하얀색 이었는데 이번에는 갈색임

■ 약을 다려 와서 10일 정도 지난 후에 먹었는데 약이 상함
소비자는 약을 다려주는 업체에서 약재를 보냄 . 약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약맛이 변함. 받은 지 10일 정도 되었음. 약이 상한 것 같음. 업체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함. 약을 받아 3~4일 정도 밖에 놔두고 냉장고에 넣었음.

<11월>

■ 캡슐형 유산균 교환 요청
소비자는 어디에서 언제 구매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인터넷쇼핑몰에서 유산균 캡슐형을 구매함. 포장을 개봉하였으나 내용물이 없음. 소비자는 제조회사에 문의하여 인터넷에서 구매했고 어디서 제대로

구매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함. 제조업체에서 조금 있다가 전화를 준다더니 어디서 구매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함. (소비자 재상담) 11번가에서 캐나다 수입제품, 판매원이 나이스이샵인 유산균 캡슐로 2015년 8월 30일 주문함. 9월 초순 쯤 제품을 받았음. 한 박스에 60캡슐이 들었는데 매일 한 개씩 복용하면서 50개는 괜찮았으나 일부 캡슐이 덜 만들어진 상태인 걸 발견했음. 문제가 되는 캡슐은 현재 보관 중인데 함량미달인 제품을 교환 혹은 환불을 받고 싶음.

- 약국에서 구매한 연고 변질 문의
  소비자는 일주 전에 약국에서 연고를 구매함. 연고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변질이 된 것 같음. 부작용도 있음. 이런 경우 교환이 안 되는지 문의함.

- 캡슐형 약 변형되어 환불 요구
  소비자는 우루사를 2015년 9월 경 26,000원에 구입 함. 일부 복용 중에 캡슐이 찌그러져 있었음. 업체에 전화를 하니 교환을 해 준다고 함. 교환을 해도 먹을 가능성이 없어 환불을 요구함. 60캡슐 중 47캡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하니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 온라인으로 구입한 철분제 변질
  소비자는 온라인 웰스365에서 철분제를 구입함. 아이가 아픈 관계로 약을 먹지 않는 도중에 변질이 됨. 업체에 문의하니 전화를 받지 않고 게시판에 문의해도 답변이 없음

<12월>

- 비타민제 변색
  소비자는 백화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비타민을 구입함. 며칠 먹었고 약 60알이 들어 있음. 색이 남색이고, 몇 알 먹었음. 지인은 노란색이라고 함. 판매처에 문의 하니 파란색 약은 없다고 함. 금요일에 방문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기로 함.

- 흉터 제거제 접착 불량
  소비자는 약국에서 흉터를 연하게 하는 제품을 구입함. 수입 제품으로 가격은 12만원임. 테이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 접착이 안 됨. 12시간 24시간 접착이 되는 상품 이라는 안내가 있음. 하루는 접착이 되어야 하는데 2~3시간도 채 되지 않아 떨어졌음. 제조일은 1314. 유통기한 2018임. 1/4을 잘라서 사용해보라고 약국에 두고 옴. 약국에서는 확인해 보지 않고 물건을 버렸음. 품질 불량으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원함

4) 표시/광고

❍ 1~12월 동안 표시·광고 관련 상담 41건 중 비타민제 관련 상담이 13건, 소독살균제 6건, 무좀약과 키성장제가 각각 4건 순이었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나프탈렌(좀약)	-	-	-	-	-	-	-	-	1	1	-	-	2
머리염색약	-	-	-	-	-	-	-	1	-	1	-	-	2
무좀약	1	-	-	-	-	1	-	-	-	2	-	-	4
발기부전치료제	-	-	1	-	-	-	-	-	-	1	-	-	2
비타민제	-	-	1	1	2	1	1	-	-	6	1	-	13
생리식염수	-	-	-	-	-	-	1	-	-	1	-	-	2
소독살균제	-	1	-	-	2	-	-	-	-	3	-	-	6
숙취해소제	-	-	1	-	-	-	-	-	-	1	-	-	2
키성장제	-	-	-	1	-	-	1	-	-	2	-	-	4
한약	-	-	-	-	-	-	-	-	1	1	-	-	2
한약재료	-	-	-	-	-	-	1	-	-	1	-	-	2
총합계	1	1	3	2	4	2	4	1	2	20	1	-	41

◇ 의약품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불만사례

<2월>

- 소비자는 유한킴벌리에서 제조한 스카트 하이진 플러스 스킨 클렌저 500ML를 구매하였음. 그런데 기존에 사용해왔던 제품에 적혀 있는 것과 달리 제조사, 전성분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였음. 킴케어(기존 브랜드로)로 광고하여 판매하지만 배송은 변경된 상품으로 받았음. 소비자는 구매처 문제 보다, 이를 시정하지 않는 유한킴벌리 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제품 전 성분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상품 설명 및 케이스를 동일하게 하여 소비자가 구별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부당하다고 생각함.

<3월>

- 소비자는 1주일 전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종합 비타민을 주문함. 다른 사이트에서는 90정에 2만원인데 소비자가 주문한 사이트는 종합비타민과 미네랄이 같이 이미지로 나와 있어 2가지를 포함한 가격인 것으로 이해하였고, 비싸지만 90정에 4만원을 지불함. 종합 비타민을 배송 받았으나 미네랄은 없었음.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미지와 다르다고 설명함.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운송비를 1만원 요구함. 소비자는 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기 때문에 운송비 없이 반품이나 광고대로 미네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소비자의 동생은 레디큐라는 숙취해소제를 구입하면서 사은품으로 핫팩을 받았음. 핫팩의 디자인이 레디큐 제품과 똑같았음. 동생이 핫팩을 먹었고, 응급실에 실려 가서 위세척까지 받았음. 업체에서 합의서를 보내 왔는데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며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함. 소비자는 업체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업체에서는 소비자원에 물어보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문의함.

<4월>

- 소비자는 2015년 4월 중순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타민을 115,000원에 주문함. 해당 제품 확인 시 에는 제조국가가 미국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 제품을 받아보니 일본제품으로 표기되어 있었음. 표기불량으로 해당 업체에 반품을 요청하니 반품비용 1만원을 청구하며, 반품비용 없이 반품을 원함.
- 소비자는 광동제약의 키크는 약을 72만원에 6통을 구매하고 3통을 아이에게 먹게 함. 방송을 보니 이

약이 허위과대광고라고 나와서 업체에 문의하니 복용 후 남은제품을 환불 해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약을 복용한 기간에 키가 클 것이라는 믿음으로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약을 먹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며 피해보상 받기를 원하여 상담을 요청함.

<6월>

- 소비자는 2015년 6월 11일 와우김약사몰(네이버페이결제이용)에서 유아비타민 락피도 60포 4만5천원에 신용카드로 주문함. 네이버페이로 부터 받은 수신문자에 락피도 60포(60일분)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있음. 그러나 배송된 물건은 주문 결제한 상품이 아니라 가격도 상이한 락피도엘 60포임(가격 3만8천500원). 판매자에게 물건 잘못 왔다고 문자함. 네이버 페이 주문내역 확인해보니 선택한 옵션명에 락피도엘이라고 쓰여 있으며 가격은 4만 5천원(락피도 60포가격)으로 주문이 되어 있었음. 소비자는 결제 시 상품명 확인 결제금액까지 확인하고 결제주문 했던 기억이 분명한데 전산 오류라고 판단함. 전산오류 관련은 네이버페이 측에 신고함. 판매자는 주문내역대로 발송했다고 판매자의 실수가 아니라고 함. 낮과 밤의 가격을 달리 판매한다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은 판매자가 결정 하는 것이 권리라고 주장함. 불쾌해서 환불 요구하니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함. 판매자는 사이트상 판매하겠다고 게재한 가격 말고 주문내역에 찍힌 물건명 금액만 확인하고 보낸다고 함. 판매점에서는 소비자의 주문오류라고 하며 단순변심으로 보고 택배비 7.000원 공제 후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서 제품을 수거하여 갔음. 처리 방안 안내바람.

- 소비자는 건강식품 비타민C 구입하여 원산지 확인하나 원산지 표시가 안 됨. 건강식품으로 허가 시 원산지 표시 없이 허가 가능한지 문의함.

- 소비자는 파주에 있는 약국에서 손소독제를 구입함.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 표기가 되어 있음. 확인 해보니 제조일자가 없었음. 제품에 적혀있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문의함.

- 소비자는 손세정수 구입하였으나 제조일자 없음. 어떻게 확인해야하나 상담요청 함.

<7월>

- 소비자는 약국에서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좋다고 선전하는 풀케어 제품을 약국에서 구입하고 24,000원 지불함. 제품포장 상자에 용량 3.3그램 표시는 되어 있는데 제품상자 크기에 비해 너무 적게 표기되어 있어 시력이 안 좋은 노인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음. 제품 상자에 제조사는 없고 수입판매원 (주)한국매나리니 표기되어 있음. 또한 제품의 겉 용기에 비해 내용물은 1/10 정도로 너무 작고 적게 들어 있어 소비자가 용량이 많은 것처럼 혼동하도록 되어 있음. 실제 용량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함. 구입 시 제품포장 상자만 봐서는 용량이 큰 것처럼 오인하게 되어 있어 용량이 크다는 생각으로 제품 가격이 비싸도 감안하고 구입하였다가 실제 확인 시 배신감이 들어 기분이 나쁨. 이에 약품 가격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실제 용량에 비해 제품 상자를 너무 크게 과대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품 상자상에 표기한 용량(3.3그램) 글씨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게 포장상자 대비, 큰 글씨로 명시하도록 기준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담 요청함.
- 소비자는 발포비타민을 구입하였는데 원산지가 독일로 되어있음. 그런데 바코드가 국내용인 880으로 시작하는데 독일산이 맞는지 알고 싶어 문의함.

<8월>

■ 한약재 원산지 위반 신고 문의

소비자는 2015.8. 경동시장 내 한의원에서 한약재 구입함. 한약재가 국산이라고 했는데 중국산임. 원산

지 위반 신고 가능 문의함.

■ 키크는 약 과장광고 문의
소비자는 4월에 인터넷에서 손녀딸 위해 광동키즈앤 G 140만원정도 카드로 구매함. 식약처에서 키크는 물질 특허를 받았다고 함. 식약처에서는 비타민제로 허가해줌. 신문에서 허위, 과장광고라는 기사를 봄.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

■ 구입한 비타민C 유통기간 관련 문의
소비자는 8.17 비타민C를 구입함. 유통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제조일(2014년)로부터 3년이라 되어 있음. 표시사항에 문제는 없는지 문의.

■ 식염수 표시 미흡 시정조치 문의
소비자는 식염수를 오래전부터 사용을 함. 보통 1,000ml를 구입을 하면 10일전도 사용을 함. 알고 보니 식염수가 염화나트륨액이라고 하는데 렌즈용으로도 사용하고 상처 소독 같은것도 하는 용도라고 제조원에서 말을 함. 그런데 이 제품은 24시간이내 사용을 해야 하고 이후는 세균 번식으로 안 좋다고 하는데 식염수에 그런 표시를 해둔 것은 없음. 식약처로 문의를 하니 시정권고는 해본다고 함.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식염수에 대한 표시나 광고가 너무 미흡한 부분으로 시정하고 제재 하고자 함.

<9월>

■ 판매장 방문 머리 염색약 구매 제품 성분 미고지 불만
소비자는 15.09.08 판매장 방문함. 제품 12,000원 결제 구매하여 사용 중 치약처럼 되어 있어 짜서 사용으로 사용 하려고 짜는 중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뒷부분이 터져 염색약이 아이가 옆에 있다 얼굴에 뿌려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성분에 따라 소독 방법이 다르다고 함. 제품 확인결과 성분 고지가 없음. 업체 문의결과 미안하다 하였음. 판매장에 제품 20개 정도인데 1제품만 고지내용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 업체 무허가로 제품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같아 확인 하고자 함.

<10월>

- 소비자는 동네마트에서 나프탈렌(좀약) 구입 하려고 보니 유통기간 2015.8.10로 표시되어 있어 왜 유통기간 경과한 제품을 판매 하냐고 했더니 제조일자 라고 함.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날짜가 유통기한인지, 제조일자 인지 알고 싶음.

- 소비자의 어머니는 10월 26일 한약방에서 한약을 사고 한약을 받음. 소비자는 한약방으로 약재 성분에 대해 문의함. 한약방에서는 한약재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며, 처방전을 주었지만 약재에 대한 명시는 없음. 소비자는 한약재에 한약재표기 문제와 구입한 한약재에 대해 알고자 문의함. 약초당 한의원

<11월>

■ 발포비타민 영유아 안전 주의 표시 없어 불만
아직 돌이 되지 않은 소비자의 자녀가 발포비타민제(베로카) 뚜껑을 입으로 물어뜯었음. 제품 뚜껑에는 방습제가 붙어있었는데 아이 입에 닿은 것 같아 해당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측에 문의 전화함. 독일 제품이고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것이라면서 다른 제품과 달리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게 주의하라는 안내문구가 없는 것을 확인함. 수입업체 측과 현재 협의 중 이라는 안내를 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함.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여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며, 이런 경우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함.

5) 이물질

❍ 1~12월 동안 이물질 관련 상담 10건 중 소화제 관련 상담이 5건이었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비타민제	-	-	-	-	-	-	-	-	-	-	-	1	1
소독살균제	-	-	-	-	-	1	-	-	-	-	-	-	1
소화제	-	1	-	1	-	-	1	-	-	1	1	-	5
철분제	-	-	-	-	1	-	-	-	-	-	-	-	1
피로회복제	-	-	1	-	-	-	-	-	-	-	-	-	1
한약재료	-	-	-	-	-	-	-	-	-	-	-	1	1
총합계	-	1	1	1	1	1	1	-	-	1	1	2	10

◇ 의약품 이물질 관련 소비자불만사례

<2월>

- 소비자는 약국에서 25일 소화가 안 되어 위청수를 구입하여 복용함. 약에서 깨진 유리가 나왔음.

<3월>

- 소비자는 피로회복제를 구입하여 먹으려고 입안에 넣었는데 작은 유리파편이 있어 뱉었음. 다치지는 않았고 피로회복제는 제조사에서 가지고 갔음. 이럴 경우 소비자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4월>

- 소비자는 위청수를 마시다가 병에서 유리가 나오다 식약처에 문의함. 식약처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는 했으나 제품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함. 소비자 해당 제품 건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함.

<5월>

- 소비자는 신생아가 먹는 일동 후디스 철분제(레모나와 유사한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상담을 요청함.

<6월>

- 소비자는 강아지 귀 소독제를 구매를 하였는데 어디서 구매를 한 것 인지 모른다. 이물질이 나온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음.

<7월>

- 소비자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위청수를 마셨음. 병 안에 유리조각이 들어있어 먹다가 혓바닥으로 꺼냄. 이런 경우 어디에 고발을 해야 하는지 문의함.

<10월>

- 소비자는 솔표 조선무약, 위청수 소화제 먹다가 병 안에서 유리조각이 나왔음.

<11월>

▪ 소화제 먹는 도중 유리조각 발견하여 보상 문의
소비자는 11월 13일 약국에서 광동제약의 소화제를 먹는 도중 입에 걸리는 것이 있어 뱉어보니 유리조각이 나옴. 광동제약에 사진을 찍어 보냄. 업체에서는 치료비와 약값만 환불해준다 함. 그 이상의 피해보상 청구가능한지 문의함.

<12월>

- 비타민제 벌레 나온 경우 문의
  소비자는 2달 전 신청인 어머니가 비타민제를 구입을 함. 소비자도 한통을 받아서 먹고 있었음. 오늘 먹으려고 보니 살아있는 벌레가 나옴. 사진을 찍고 벌레는 가지고 있음. 이럴 경우 어떤 처리와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함.

- 한약재 환급의 건
  소비자는 한약재를 만들고 있음. 들어갔던 재료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흙가루가 있어서 전체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음. 약재상에 전화해서 흙 때문에 못 먹게 되었다고 재료를 다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함.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 약재상에서 구입한 약재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주겠다고 함.

6) 품질의심

구분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모기기피제	-	-	-	-	-	1	-	-	-	-	-	1
무좀약	-	-	-	-	1	-	-	-	-	-	-	1
미기재	-	-	1	-	-	-	-	-	-	-	-	1
비타민제	-	-	-	1	-	1	-	-	-	-	-	2
성기능보조제	-	-	-	-	1	-	-	-	-	-	-	1
키성장제	-	-	-	-	-	-	1	1	-	-	-	2
한약	1	2	-	-	3	1	-	-	-	-	-	7
총합계	1	2	1	1	5	3	1	1	-	-	-	15

<5월>

- 해외여행에서 구입한 비타민제 안전 문의
  해외여행을 가이드의 안내로 비타민제 등을 구입함.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 문의.

<8월>

- 해열제 혼입 된 한속단 성분으로 키크는 영양제 반품 요구
  소비자의 자녀가 어린이 키 크는 영양제를 먹고 있음. TV에 키크는 영양제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었음. 한속단은 해열에 필요한 한약재라고 보도되었음. 소비자는 광동제약 제품을 구입하였는데 한속단이라는 원료가 들어있다고 명기되어있음. 광동제약 전화 하니 그 원료가 맞다고 함. 천속단이 키 성장과 연관이 있다고 하니 상관이 없다고 함.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반품을 해달고 하였으나 문제없다고 함. 원료명이 다른 한약재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할까 염려 됨. 처리방법 문의함.

<9월>

- 한국야쿠르트에서 판매한 키성장 솔루션 업 제품 한속단 한약재 부작용 문의
  소비자는 GS홈쇼핑을 통하여 키성장 솔류션 프로그램 구입. 9월 22일경 한국야쿠르트에서 키 성장 제품은 3개월분 복용을 함. 약 30만원 정도 금액에 구입함. 성분 중에서 한속단이라는 한약재 성분에 대한 부작용을 기사를 보았음. 장기 복용 시 부작용 발생과 임신부에게는 복용 금지 한약이라고 함. 12주에 6박스 프로그램 중 4박스 먹었고, 2박스는 중단한 상태임. 판매처에선 남아있는 제품에 대한 부분만 환불 안내함. 복용한 제품은 환불 의사가 없음을 안내받음. 한국야쿠르트 제조사 고객센터 로 문의하니 복용한 제품에 대한 부분은 환불 불가만 안내함. 먹지 말아야하는 식품을 성장하는 아이가 먹어서 부작용 등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상을 요구함.

라. 화장품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 소비자단체에서 1372 통합소비자 상담망을 통해 접수된 화장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를 1372 화장품 분류표에 의해 전국의 소비자 불만사례를 수집함.

[표] 화장품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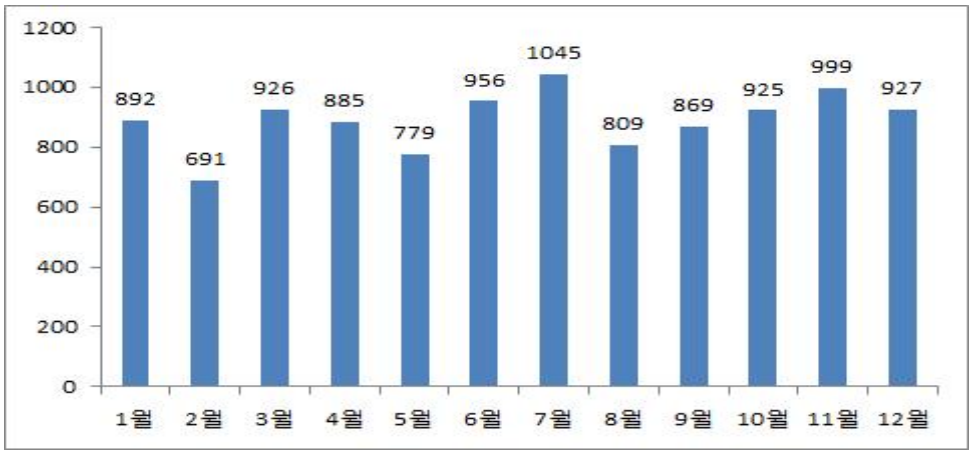
연번	품목	연번	품목	연번	품목
1	기타일반화장품	14	보건위생용품기타	26	탈모제
2	립스틱	15	보건위생용품세트	27	파마약
3	메이크업베이스	16	샴푸	28	파우더
4	마스카라	17	선탠・선크림화장품	29	파운데이션
5	맛사지류	18	세안류	30	팩류
6	면도용로션	19	아이라이너	31	향수
7	면도용비누	20	아이섀도	32	헤어린스
8	면도용크림	21	어린이용화장품	33	헤어스프레이
9	매니큐어	22	염색제	34	헤어크림
10	목욕용오일	23	영양오일류	35	화장비누
11	바디클렌저	24	영양크림류	36	화장수류
12	바블바스	25	치약	37	화장품세트
13	발모제	-	-	-	-

○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화장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상담건수는 전체 10,703건임.

[표] 화장품 월별 상담 건수

구분	사례수	비율
1월	892	8.3
2월	691	6.5
3월	926	8.7
4월	885	8.3
5월	779	7.3
6월	956	8.9
7월	1045	9.8
8월	809	7.6
9월	869	8.1
10월	925	8.6
11월	999	9.3
12월	927	8.7
합계	10,703	100.0

[그림] 화장품 월별 상담 건수



○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을 분석해보면, 기타 일반화장품이 5,250건(49.1%)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세트 3,075건(28.7%), 염색제 413건(3.9%), 영양크림류 348건(3.3%), 샴푸 287건 (2.7%)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월별 상담건수

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기타일반화장품	411	46.1	328	47.5	468	50.5	429	48.5	335	43.0	444	46.4
립스틱	5	0.6	4	0.6	2	0.2	3	0.3	5	0.6	9	0.9
마스카라	-	-	1	0.1	1	0.1	1	0.1	-	-	1	0.1
맛사지류	17	1.9	19	2.7	18	1.9	17	1.9	20	2.6	17	1.8
메니큐어	1	0.1	-	-	2	0.2	2	0.2	2	0.3	2	0.2
메이크업베이스	1	0.1	-	-	-	-	-	-	-	-	2	0.2
면도용로션	-	-	-	-	1	0.1	-	-	-	-	1	0.1
면도용비누	-	-	1	0.1	-	-	-	-	-	-	1	0.1
면도용크림	1	0.1	-	-	-	-	-	-	-	-	-	-
목욕용오일	3	0.3	3	0.4	1	0.1	1	0.1	1	0.1	1	0.1
바디클렌저	4	0.4	5	0.7	4	0.4	-	-	2	0.3	-	-
발모제	2	0.2	2	0.3	3	0.3	1	0.1	1	0.1	5	0.5
방취제	-	-	-	-	2	0.2	-	-	-	-	-	-
보건위생용품기타	7	0.8	8	1.2	9	1.0	8	0.9	7	0.9	17	1.8
보건위생용품세트	1	0.1	2	0.3	-	-	-	-	-	-	2	0.2
샴푸	11	1.2	8	1.2	15	1.6	22	2.5	19	2.4	56	5.9
선탠.선스크린화장품	4	0.4	1	0.1	2	0.2	6	0.7	13	1.7	21	2.2
세안류	4	0.4	3	0.4	2	0.2	-	-	1	0.1	-	-
아이라이너	-	-	-	-	2	0.2	-	-	1	0.1	-	-
어린이용화장품	6	0.7	5	0.7	5	0.5	-	-	4	0.5	2	0.2
염색제	53	5.9	41	5.9	45	4.9	33	3.7	50	6.4	29	3.0
영양오일류	1	0.1	1	0.1	-	-	1	0.1	2	0.3	2	0.2
영양크림류	22	2.5	19	2.7	39	4.2	38	4.3	13	1.7	18	1.9
치약	4	0.4	3	0.4	4	0.4	9	1.0	10	1.3	10	1.0
탈모제	4	0.4	-	-	2	0.2	5	0.6	7	0.9	4	0.4
파마약	2	0.2	-	-	2	0.2	1	0.1	-	-	-	-
파우더	-	-	1	0.1	1	0.1	1	0.1	-	-	-	-
파운데이션	3	0.3	1	0.1	4	0.4	3	0.3	1	0.1	3	0.3
팩류	3	0.3	3	0.4	5	0.5	1	0.1	6	0.8	4	0.4
향수	24	2.7	15	2.2	16	1.7	17	1.9	14	1.8	20	2.1
헤어린스	2	0.2	2	0.3	-	-	-	-	1	0.1	-	-
헤어스프레이	9	1.0	7	1.0	8	0.9	6	0.7	3	0.4	1	0.1
헤어크림	2	0.2	7	1.0	13	1.4	2	0.2	6	0.8	-	-
화장비누	9	1.0	3	0.4	4	0.4	8	0.9	6	0.8	10	1.0
화장수류	2	0.2	1	0.1	4	0.4	3	0.3	-	-	4	0.4
화장품세트	274	30.7	197	28.5	242	26.1	267	30.2	249	32.0	270	28.2
총합계	892	100.0	691	100.0	926	100.0	885	100.0	779	100.0	956	100.0

품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기타일반화장품	538	51.5	379	46.8	447	51.4	449	48.5	524	52.5	498	53.7	5,250	49.1
립스틱	6	0.6	2	0.2	3	0.3	4	0.4	3	0.3	2	0.2	48	0.4
마스카라	2	0.2	1	0.1	-	-	1	0.1	2	0.2	2	0.2	12	0.1
맛사지류	17	1.6	25	3.1	13	1.5	18	1.9	18	1.8	13	1.4	212	2.0
메니큐어	2	0.2	3	0.4	-	-	2	0.2	1	0.1	-	-	17	0.2
메이크업베이스	1	0.1	-	-	-	-	-	-	1	0.1	-	-	5	0.0
면도용로션	1	0.1	-	-	-	-	-	-	-	0.0	-	-	3	0.0
면도용비누	-	-	-	-	-	-	-	-	-	0.0	-	-	2	0.0
면도용크림	1	0.1	-	-	-	-	-	-	1	0.1	-	-	3	0.0
목욕용오일	-	-	-	-	1	0.1	-	-	1	0.1	1	0.1	13	0.1
바디클렌저	-	-	2	0.2	2	0.2	4	0.4	4	0.4	4	0.4	31	0.3
발모제	-	-	6	0.7	5	0.6	2	0.2	2	0.2	4	0.4	33	0.3
방취제	-	-	-	-	-	-	-	-		0.0		0.0	2	0.0
보건위생용품기타	4	0.4	9	1.1	2	0.2	9	1.0	11	1.1	5	0.5	96	0.9
보건위생용품세트	2	0.2	-	-	1	0.1	3	0.3	2	0.2	1	0.1	14	0.1
샴푸	27	2.6	43	5.3	23	2.6	23	2.5	20	2.0	20	2.2	287	2.7
선탠.선스크린화장품	18	1.7	15	1.9	5	0.6	8	0.9	5	0.5	1	0.1	99	0.9
세안류	-	-	2	0.2	1	0.1	-	-	-	-	1	0.1	14	0.1
아이라이너	2	0.2	2	0.2	1	0.1	2	0.2	1	0.1	4	0.4	15	0.1
어린이용화장품	3	0.3	2	0.2	3	0.3	2	0.2	6	0.6	3	0.3	41	0.4
염색제	24	2.3	23	2.8	27	3.1	52	5.6	18	1.8	18	1.9	413	3.9
영양오일류	4	0.4	-	-	4	0.5	1	0.1	4	0.4	2	0.2	22	0.2
영양크림류	31	3.0	20	2.5	32	3.7	37	4.0	43	4.3	36	3.9	348	3.3
치약	6	0.6	7	0.9	8	0.9	6	0.6	8	0.8	4	0.4	79	0.7
탈모제	9	0.9	5	0.6	2	0.2	8	0.9	1	0.1	2	0.2	49	0.5
파마약	-	-	2	0.2	1	0.1	2	0.2	1	0.1	1	0.1	12	0.1
파우더	1	0.1	-	-	1	0.1	-	-	-	-	1	0.1	6	0.1
파운데이션	3	0.3	-	-	3	0.3	-	-	2	0.2	2	0.2	25	0.2
팩류	8	0.8	4	0.5	5	0.6	7	0.8	2	0.2	5	0.5	53	0.5
향수	21	2.0	18	2.2	18	2.1	20	2.2	13	1.3	18	1.9	214	2.0
헤어린스	-	-	-	-	4	0.5	4	0.4	-	-	1	0.1	14	0.1
헤어스프레이	1	0.1	-	-	-	-	2	0.2	5	0.5	3	0.3	45	0.4
헤어크림	3	0.3	3	0.4	1	0.1	3	0.3	3	0.3	5	0.5	48	0.4
화장비누	5	0.5	3	0.4	5	0.6	4	0.4	8	0.8	3	0.3	68	0.6
화장수류	3	0.3	5	0.6	4	0.5	4	0.4	1	0.1	4	0.4	35	0.3
화장품세트	302	28.9	228	28.2	247	28.4	248	26.8	288	28.8	263	28.4	3,075	28.7
총합계	1,045	100.0	809	100.0	869	100.0	925	100.0	999	100.0	927	100.0	10,703	100.0

○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유를 분석해보면, 청약철회가 2,909건(27.2%) 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물품/용역) 1,904건(17.8%), 단순문의·상담이 1,808건(16.9%),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711건(16.0%), 부당행위 508건(4.7%)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월별 상담이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AS불만	7	0.8	1	0.1	4	0.4	3	0.3	3	0.4	6	0.6
가격.요금	17	1.9	11	1.6	12	1.3	13	1.5	12	1.5	17	1.8
거래관행	16	1.8	18	2.6	25	2.7	16	1.8	22	2.8	16	1.7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58	6.5	57	8.2	56	6.0	49	5.5	47	6.0	65	6.8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23	13.8	96	13.9	129	13.9	147	16.6	130	16.7	136	14.2
단순문의.상담	168	18.8	110	15.9	151	16.3	157	17.7	126	16.2	173	18.1
무능력자계약	3	0.3	2	0.3	5	0.5	1	0.1	1	0.1	2	0.2
법.제도	10	1.1	11	1.6	5	0.5	3	0.3	5	0.6	5	0.5
부당채권추심	1	0.1	4	0.6	4	0.4	4	0.5	2	0.3	4	0.4
부당행위	44	4.9	22	3.2	48	5.2	55	6.2	31	4.0	35	3.7
안전(제품/시설)	26	2.9	18	2.6	24	2.6	20	2.3	28	3.6	25	2.6
약관	6	0.7	4	0.6	2	0.2	4	0.5	4	0.5	8	0.8
이자.수수료	-	-	3	0.4	7	0.8	11	1.2	3	0.4	9	0.9
청약철회	229	25.7	196	28.4	245	26.5	238	26.9	196	25.2	236	24.7
표시.광고	23	2.6	18	2.6	18	1.9	17	1.9	16	2.1	16	1.7
품질(물품/용역)	160	17.9	120	17.4	191	20.6	147	16.6	153	19.6	203	21.2
미기재	1	0.1	-	-	-	-	-	-	-	-	-	0.0
총합계	892		100.0		691		100.0		926		100.0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AS불만	7	0.7	6	0.7	5	0.6	3	0.3	2	0.2	3	0.3	50	0.5
가격.요금	16	1.5	13	1.6	10	1.2	10	1.1	13	1.3	8	0.9	152	1.4
거래관행	28	2.7	12	1.5	21	2.4	16	1.7	18	1.8	24	2.6	232	2.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8	6.5	42	5.2	52	6.0	73	7.9	69	6.9	63	6.8	699	6.5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70	16.3	142	17.6	142	16.3	174	18.8	157	15.7	165	17.8	1,711	16.0
단순문의.상담	163	15.6	145	17.9	151	17.4	133	14.4	189	18.9	142	15.3	1,808	16.9
무능력자계약	2	0.2	4	0.5	2	0.2	5	0.5	2	0.2	4	0.4	33	0.3
법.제도	4	0.4	6	0.7	7	0.8	1	0.1	6	0.6	7	0.8	70	0.7
부당채권추심	3	0.3	4	0.5	1	0.1	-	-	1	0.1		0.0	28	0.3
부당행위	47	4.5	43	5.3	53	6.1	47	5.1	45	4.5	38	4.1	508	4.7
안전(제품/시설)	23	2.2	20	2.5	17	2.0	26	2.8	24	2.4	28	3.0	279	2.6
약관	7	0.7	1	0.1	7	0.8	9	1.0	2	0.2	3	0.3	57	0.5
이자.수수료	8	0.8	2	0.2	8	0.9	7	0.8	13	1.3	2	0.2	73	0.7
청약철회	295	28.2	218	26.9	247	28.4	236	25.5	298	29.8	275	29.7	2,909	27.2
표시.광고	23	2.2	12	1.5	10	1.2	14	1.5	12	1.2	10	1.1	189	1.8
품질(물품/용역)	181	17.3	139	17.2	136	15.7	171	18.5	148	14.8	155	16.7	1,904	17.8
미기재	-	-	-	-	-	-	-	-	-	-	-	-	-	-
총합계	1045		809		869		925		999		927		10,702	

○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면, 기타정보제공이 2,874건(26.9%) 으로 가장 많았고, 분쟁해결기준설명이 2,677건(25.0%), 법/제도설명이 2,499건(23.4%)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월별 처리결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계약이행	13	1.5	10	1.4	13	1.4	14	1.6	12	1.5	14	0.1
계약해제.해지	18	2.0	9	1.3	20	2.2	19	2.1	13	1.7	23	0.2
교환	6	0.7	5	0.7	1	0.1	1	0.1	5	0.6	3	0.0
기타정보제공	242	27.1	190	27.5	246	26.6	234	26.4	202	25.9	265	2.8
배상	5	0.6	2	0.3	12	1.3	5	0.6	-	-	4	0.0
법.제도설명	211	23.7	142	20.5	219	23.7	219	24.7	165	21.2	205	2.1
부당행위시정	9	1.0	6	0.9	9	1.0	8	0.9	6	0.8	6	0.1
분쟁해결기준설명	220	24.7	183	26.5	243	26.2	223	25.2	193	24.8	246	2.6
비 소비자상담처리	14	1.6	12	1.7	9	1.0	9	1.0	11	1.4	18	0.2
사업자상담실안내	1	0.1	-	-	-	-	-	-	-	-	-	0.0
상품정보제공	38	4.3	44	6.4	63	6.8	60	6.8	60	7.7	55	0.6
수리보수	-	-	1	0.1	1	0.1	1	0.1	-	-	-	0.0
시장정보제공	14	1.6	16	2.3	17	1.8	16	1.8	12	1.5	20	0.2
시험결과. 의류심의의뢰	1	0.1	1	0.1	-	-	-	-	-	-	1	0.0
이관완료(피해처리후)	-	-	1	0.1	-	-	-	-	-	-	-	0.0
자율분쟁이관	2	0.2	2	0.3	-	-	1	0.1	4	0.5	2	0.0
처리불능	16	1.8	11	1.6	6	0.6	9	1.0	9	1.2	5	0.1
처리중	4	0.4	-	-	2	0.2	4	0.5	6	0.8	4	0.0
취하.중지	6	0.7	5	0.7	5	0.5	3	0.3	2	0.3	3	0.0
타기관알선.이관	7	0.8	4	0.6	3	0.3	5	0.6	6	0.8	4	0.0
피해구제접수안내	20	2.2	19	2.7	23	2.5	14	1.6	35	4.5	25	0.3
합의불성립	15	1.7	9	1.3	14	1.5	18	2.0	13	1.7	12	0.1
환급	29	3.3	19	2.7	20	2.2	22	2.5	25	3.2	41	0.4
미기재	1	0.1	-	-	-	-	-	-	-	-	-	0.0
총합계	892		691		926		885		779		956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계약이행	6	0.6	7	0.9	8	0.9	18	1.9	12	1.2	11	1.2	138	1.3
계약해제.해지	31	3.0	25	3.1	17	2.0	22	2.4	28	2.8	29	3.1	254	2.4
교환	2	0.2	4	0.5	2	0.2	5	0.5	7	0.7	2	0.2	43	0.4
기타정보제공	259	24.8	223	27.6	244	28.1	248	26.8	278	27.8	243	26.2	2,874	26.9
배상	3	0.3	5	0.6	5	0.6	4	0.4	5	0.5	4	0.4	54	0.5
법.제도설명	262	25.1	200	24.7	225	25.9	219	23.7	223	22.3	209	22.5	2,499	23.4
부당행위시정	13	1.2	8	1.0	6	0.7	10	1.1	4	0.4	4	0.4	89	0.8
분쟁해결기준설명	264	25.3	190	23.5	194	22.3	217	23.5	257	25.7	247	26.6	2,677	25.0
비 소비자상담처리	22	2.1	9	1.1	13	1.5	13	1.4	10	1.0	12	1.3	152	1.4
사업자상담실안내	-	-	-	-	-	-	-	-	-	-	-	-	1	0.0
상품정보제공	60	5.7	54	6.7	61	7.0	74	8.0	73	7.3	71	7.7	713	6.7
수리보수	1	0.1	1	0.1	2	0.2	1	0.1	-	-	-	-	8	0.1
시장정보제공	30	2.9	8	1.0	15	1.7	20	2.2	28	2.8	22	2.4	218	2.0
시험결과. 의류심의의뢰	-	-	-	-	-	-	-	-	-	-	-	-	3	0.0
이관완료 (피해처리후)	-	-	-	-	-	-	-	-	-	-	1	0.1	2	0.0
자율분쟁이관	2	0.2	2	0.2	1	0.1	-	-	2	0.2	1	0.1	19	0.2
처리불능	14	1.3	10	1.2	8	0.9	3	0.3	9	0.9	10	1.1	110	1.0
처리중	4	0.4	-	-	7	0.8	2	0.2	2	0.2	4	0.4	39	0.4
취하.중지	3	0.3	3	0.4	4	0.5	3	0.3	3	0.3	6	0.6	46	0.4
타기관알선.이관	2	0.2	1	0.1	2	0.2	4	0.4	2	0.2	2	0.2	42	0.4
피해구제접수안내	21	2.0	30	3.7	25	2.9	22	2.4	22	2.2	18	1.9	274	2.6
합의불성립	16	1.5	14	1.7	13	1.5	18	1.9	13	1.3	12	1.3	167	1.6
환급	30	2.9	15	1.9	17	2.0	22	2.4	21	2.1	19	2.0	280	2.6
미기재	-	-	-	-	-	-	-	-	-	-	-	-	-	-
총합계	1,045		809		869		925		999		927		10,702	100.0

(1) 화장품 1월 소비자상담 분석

- 1월 화장품 불만사례 886건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기타일반화장품이 40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세트 273건, 염색제 52건(4.7%), 향수 24건 순으로 나타남.

- 화장품 품목별 상담이유 현황을 살펴보면, 청약철회 228건(25.7%)으로 가장 높았고, 단순문의·상담이 166건(18.7%), 품질 159건(17.9%)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상담이유(1월)

구분	AS불만	가격。요금	거래관행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단순문의。상담	무능력자계약	법。제도	부당채권추심	부당행위	안전(제품/시설)	약관	청약철회	표시。광고	품질(물품/용역)	미기재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2	5	8	22	57	79	2	1	1	20	9	2	114	12	76	1	411
립스틱	-	-	-	-	-	2	-	-	-	-	-	-	-	1	2	-	5
맛사지류	1	3	-	4	3	2	-	1	-	1	1	-	-	-	1	-	17
메니큐어	-	-	-	-	-	-	-	-	-	1	-	-	-	-	-	-	1
메이크업베이스	-	-	-	-	-	-	-	-	-	-	-	-	-	-	1	-	1
면도용크림	-	-	-	-	-	1	-	-	-	-	-	-	-	-	-	-	1
목욕용오일	-	-	-	1	-	1	-	1	-	-	-	-	-	-	-	-	3
바디클렌저	-	-	-	-	-	2	-	-	-	-	2	-	-	-	-	-	4
발모제	-	-	-	2	-	-	-	-	-	-	-	-	-	-	-	-	2
보건위생용품기타	-	-	1	3	-	1	-	-	-	-	1	-	-	-	1	-	7
보건위생용품세트	-	-	-	-	-	-	-	-	-	-	-	-	-	-	1	-	1
샴푸	-	-	-	-	2	1	-	1	-	-	1	-	2	-	4	-	11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1	-	-	-	-	-	-	-	-	-	-	3	-	4
세안류	-	-	-	-	1	-	-	-	-	-	3	-	-	-	-	-	4
어린이용화장품	-	1	-	1	-	2	-	-	-	-	-	-	-	-	2	-	6
염색제	-	-	-	8	5	6	-	-	-	3	2	-	5	4	20	-	53
영양오일류	-	-	-	-	1	-	-	-	-	-	-	-	-	-	-	-	1
영양크림류	-	-	-	2	2	1	-	-	-	1	-	-	9	-	7	-	22
치약	-	-	-	1	-	1	-	-	-	-	-	-	1	-	1	-	4
탈모제	-	-	-	-	-	-	-	-	-	-	-	-	-	1	3	-	4
파마약	-	-	1	-	-	1	-	-	-	-	-	-	-	-	-	-	2
파운데이션	-	-	-	-	-	-	-	-	-	-	-	-	-	-	3	-	3
팩류	-	-	-	-	-	1	-	-	-	-	1	-	1	-	-	-	3
향수	-	-	2	-	4	4	-	-	-	-	1	-	6	-	7	-	24
헤어린스	-	1	-	-	1	-	-	-	-	-	-	-	-	-	-	-	2
헤어스프레이	-	1	-	-	1	1	-	-	-	2	1	-	-	2	1	-	9
헤어크림	-	-	-	-	1	-	-	-	-	-	-	-	1	-	-	-	2
화장비누	-	-	-	2	-	1	-	1	-	-	-	-	2	-	3	-	9
화장수류	-	-	-	1	-	-	-	-	-	-	-	-	1	-	-	-	2
화장품세트	4	6	4	10	45	61	1	5	-	16	4	4	87	3	24	-	274
총합계	7	17	16	58	123	168	3	10	1	44	26	6	229	23	160	1	892

- 1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 241건(27.2%), 분쟁해결기준 설명 219건(24.7%), 법・제도설명 209건(23.6%)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처리결과(1월)

구분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 소비자상담처리	사업자상담실안내	상품정보제공	시장정보제공	시험결과。의류심의의뢰	자율분쟁이관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미기재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5	11	2	117	4	87	2	106	6	1	23	6	-	1	10	1	-	3	9	4	12	1	411
립스틱	1	-	-	1	-	1	-	1	-	-	-	-	-	-	-	-	1	-	-	-	-	-	5
맛사지류	1	-	-	2	-	3	1	3	-	-	3	-	-	-	-	-	1	-	1	1	1	-	17
메니큐어	-	-	-	1	-	-	-	-	-	-	-	-	-	-	-	-	-	-	-	-	-	-	1
메이크업베이스	-	-	-	-	-	-	-	1	-	-	-	-	-	-	-	-	-	-	-	-	-	-	1
면도용크림	-	-	-	-	-	-	-	-	-	-	-	-	-	-	-	-	-	-	1	-	-	-	1
목욕용오일	-	-	-	2	-	1	-	-	-	-	-	-	-	-	-	-	-	-	-	-	-	-	3
바디클렌저	-	-	-	2	-	-	-	2	-	-	-	-	-	-	-	-	-	-	-	-	-	-	4
발모제	-	-	-	2	-	-	-	-	-	-	-	-	-	-	-	-	-	-	-	-	-	-	2
보건위생용품기타	1	-	-	4	-	-	-	1	-	-	-	-	-	-	-	-	-	-	-	-	1	-	7
보건위생용품세트	-	-	-	-	-	-	-	1	-	-	-	-	-	-	-	-	-	-	-	-	-	-	1
샴푸	-	-	-	3	-	1	-	4	2	-	-	-	-	-	-	-	-	1	-	-	-	-	11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	1	1	-	2	-	-	-	-	-	-	-	-	-	-	-	-	-	-	4
세안류	-	-	-	-	-	1	-	1	-	-	-	-	-	-	1	-	-	-	1	-	-	-	4
어린이용화장품	-	-	1	1	-	2	-	2	-	-	-	-	-	-	-	-	-	-	-	-	-	-	6
염색제	3	1	1	15	-	5	1	13	1	-	2	3	-	-	-	1	-	1	2	2	2	-	53
영양오일류	-	-	-	-	-	-	1	-	-	-	-	-	-	-	-	-	-	-	-	-	-	-	1
영양크림류	-	-	1	1	-	11	-	4	-	-	1	1	-	-	-	-	1	1	-	-	1	-	22
치약	-	-	-	-	-	2	-	1	-	-	-	-	-	-	-	-	-	-	-	-	1	-	4
탈모제	-	-	-	2	-	1	-	-	-	-	1	-	-	-	-	-	-	-	-	-	-	-	4
파마약	-	-	-	1	-	1	-	-	-	-	-	-	-	-	-	-	-	-	-	-	-	-	2
파운데이션	-	-	-	1	-	-	-	1	-	-	-	1	-	-	-	-	-	-	-	-	-	-	3
팩류	-	1	-	1	-	-	-	-	-	-	-	-	-	-	-	-	-	-	-	1	-	-	3
향수	-	-	-	2	-	5	3	6	-	-	1	-	1	1	-	1	-	-	-	1	3	-	24
헤어린스	-	-	-	-	-	-	-	2	-	-	-	-	-	-	-	-	-	-	-	-	-	-	2
헤어스프레이	-	-	-	3	-	-	-	2	-	-	1	-	-	-	-	-	1	-	-	-	2	-	9
헤어크림	-	-	-	-	-	-	-	1	-	-	-	-	-	-	-	-	-	-	-	-	1	-	2
화장비누	-	-	-	4	-	1	-	3	-	-	-	-	-	-	-	-	-	-	-	1	-	-	9
화장수류	-	-	-	-	-	1	-	-	-	-	-	-	-	-	1	-	-	-	-	-	-	-	2
화장품세트	2	5	1	77	-	87	1	63	5	-	6	3	-	-	4	1	2	1	6	5	5	-	274
총합계	13	18	6	242	5	211	9	220	14	1	38	14	1	2	16	4	6	7	20	15	29	1	892

<화장품 관련 1월 소비자상담 사례>

○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에 대한 문의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과 진료비와 약품비, 진단서 발급비가 발생하였으나, 화장품 회사 측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환불은 가능하지만, 진단서가 발부되어 있더라도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근거가 불충분 하다는 사유를 제시하며 진료비 및 진단서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다고 하여 문의

○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발급 시 인과관계
- 토니모리 선크림 사용 후 색소침착이 발생하였고 이에 사업자는 원인규명 및 보상을 위해 패치테스트를 하라고 하였음. 패치테스트 후 병원을 통해 염증으로 인한 색소침착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사업자는 제품명이 기입이 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부함.

- 코리아나 녹두버블폼을 사용하여 피부트러블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배제할 수 없다고 소견을 받았음에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코리아나측이 환불이 거부함.

○ 사용 중인 화장품에서 유리가루가 나온 것에 대한 문의
사용 중인 에센스 화장품을 바르면서 따끔거리기에 살펴보니, 병뚜껑 안쪽에서 유리가루가 계속 떨어짐. 업체에서는 단순 환불 또는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의 문의

(2) 화장품 2월 소비자상담 분석

○ 2월 화장품 품목별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 196건(28.4%)으로 가장 높았고, 품질 120건(17.4%), 단순문의·상담 110건(15.9%)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상담이유(2월)

구분	AS불만	가격·요금	거래관행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단순문의·상담	무능력자계약	법·제도	부당채권추심	부당행위	안전	약관	이자·수수료	청약철회	표시·광고	품질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	7	12	22	44	61	1	5	2	15	5	1	-	95	8	49	328
립스틱	-	-	-	-	-	1	-	-	-	-	1	-	-	-	-	2	4
마스카라	-	-	-	-	-	-	-	-	-	-	-	-	-	1	-		1
맛사지류	-	1	-	3	6	4	-	-	-	-	1	-	-	1	-	3	19
메니큐어	-	-	-	-	-	-	-	-	-	-	-	-	-	-	-	-	-
메이크업베이스	-	-	-	-	-	-	-	-	-	-	-	-	-	-	-	-	-
면도용로션	-	-	-	-	-	-	-	-	-	-	-	-	-	-	-	-	-
면도용비누	-	-	-	-	-	1	-	-	-	-	-	-	-	-	-	-	1
면도용크림	-	-	-	-	-	-	-	-	-	-	-	-	-	-	-	-	-
목욕용오일	-	-	-	-	-	-	-	-	-	-	-	-		1	1	1	3
바디클렌저	-	-	-	2	1	-	-	-	-	-	-	-	-	-	-	2	5
발모제	-	-	-	-	-	-	-	-	-	-	-	-	-	-	-	-	2
방취제	-	-	-	-	-	-	-	-	-	-	-	-	-	-	-	-	-
보건위생용품기타	-	-	1	1	-	1	-	-	-	-	-	1	-	2	-	2	8
보건위생용품세트	-	-	-	1	1		-	-	-	-	-	-	-	-	-		2
샴푸	-	-	-	2	-	1	-	-	-	-	-	-	-	2	1	2	8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1	-	-	-	-	-	-	-	-	-	-	-		1
세안류	-	-	-	-	-	-	-	1	-	-	-	-	-	-	-	2	3
아이라이너	-	-	-	-	-	-	-	-	-	-	-	-	-	-	-	-	-
어린이용화장품	-	-	-	1	-	-	-	-	-	-	-	-	-	-	-	4	5
염색제	-	1	2	4	4	4	-	-	-	-	3	-	-	5	3	15	41
영양오일류	-	-	-	-	-	-	-	-	-	-	-	-	-	-	-	1	1
영양크림류	-	-	-	4	-		-	-	-	1	-	-	-	13	-	1	19
치약	-	1	-	-	-	1	-	-	-	-	-	-	-	-	-	1	3
탈모제	-	-	-	-	-	-	-	-	-	-	-	-	-	-	-	-	-
파마약	-	-	-	-	-	-	-	-	-	-	-	-	-	-	-	-	-
파우더	-	-	-	-	-	-	-	-	-	-	-	-	-	1	-	-	1
파운데이션	-	-	-	1	-	-	-	-	-	-	-	-	-	-	-	-	1
팩류	-	-	-	-	-	-	-	-	-	-	2	-	-	-	-	1	3
향수	-	-	1	4	1	4	-	1	-	-	-	-	-	2	1	1	15
헤어린스	-	-	-	-	-	1	-	-	-	-	-	-	-	-	-	1	2
헤어스프레이	-	-	-	-	3		-	-	-	-	-	-	-	-	1	3	7
헤어크림	-	-	-	1	1	1	-	-	-	-	-	-	-	-	1	3	7
화장비누	-	-	-	-	-	1	-	-	-	-	-	-	-	2	-	-	3
화장수류	-	-	-	-	-	-	-	-	-	-	-	-	-	1	-	-	1
화장품세트	-	1	2	10	34	28	1	4	2	6	6	2	3	70	2	26	197
총합계	1	11	18	57	96	110	2	11	4	22	18	4	3	196	18	120	691

○ 2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 190건(27.5%), 분쟁해결기준 설명 183건(26.5%), 법・제도설명 142건(20.5%)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처리결과(2월)

구분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상품정보제공	수리보수	시장정보제공	시험결과·의류심의의뢰	이관완료	자율분쟁이관	처리불능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3	5	1	108	-	61	3	95	4	18	-	4	-	-	-	2	3	2	8	5	6	328
립스틱	-	-	-	-	-	1	-	1	1	-	-	-	-	-	-	-	-	-	-	-	-	4
마스카라	-	-	-	-	-	-	-	-	1	-	-	-	-	-	-	-	-	-	-	-	-	1
맛사지류	-	-	-	4	-	3	-	5	-	3	1	-	-	-	-	1	1	-	1	-	-	19
메니큐어	-	-	-	-	-	-	-	-	-	-	-	-	-	-	-	-	-	-	-	-	-	-
메이크업베이스	-	-	-	-	-	-	-	-	-	-	-	-	-	-	-	-	-	-	-	-	-	-
면도용로션	-	-	-	-	-	-	-	-	-	-	-	-	-	-	-	-	-	-	-	-	-	-
면도용비누	-	-	1	-	-	-	-	-	-	-	-	-	-	-	-	-	-	-	-	-	-	1
면도용크림	-	-	-	-	-	-	-	-	-	-	-	-	-	-	-	-	-	-	-	-	-	-
목욕용오일	-	-	1	-	-	-	-	-	-	-	-	-	-	-	-	-	-	-	-	-	-	3
바디클렌저	-	-	-	-	-	-	-	2	-	1	-	-	-	-	-	1	-	-	-	-	-	5
발모제	-	-	-	1	-	-	-	1	-	-	-	-	-	-	-	-	-	-	-	-	-	2
방취제	-	-	-	-	-	-	-	-	-	-	-	-	-	-	-	-	-	-	-	-	-	-
보건위생용품기타	-	-	-	3	-	-	1	1	-	3	-	-	-	-	-	-	-	-	-	-	-	8
보건위생용품세트	-	-	-	1	-	1	-	-	-	-	-	-	-	-	-	-	-	-	-	-	-	2
샴푸	1	-	-	2	-	-	-	2	-	2	-	-	-	-	-	-	-	-	1	-	-	8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	-	-	-	-	-	-	-	-	-	-	-	1	-	-	-	-	-	1
세안류	-	-	-	-	-	-	-	2	1	-	-	-	-	-	-	-	-	-	-	-	-	3
아이라이너	-	-	-	-	-	-	-	-	-	-	-	-	-	-	-	-	-	-	-	-	-	-
어린이용화장품	-	-	-	1	-	1	-	2	-	-	-	-	-	-	-	-	-	-	1	-	-	5
염색제	4	1	1	5	1	1	-	14	1	5	-	4	-	-	-	2	-	-	1	1	-	41
영양오일류	-	-	-	-	-	-	-	-	-	-	-	1	-	-	-		-	-	-	-	-	1
영양크림류	1	1	-	2	-	12	-	1	-	-	-	-	1	-	-	1	-	-	-	-	-	19
치약	-	-	-	1	-		1	1	-	-	-	-	-	-	-	-	-	-	-	-	-	3
탈모제	-	-	-	-	-	-	-	-	-	-	-	-	-	-	-	-	-	-	-	-	-	-
파마약	-	-	-	-	-	-	-	-	-	-	-	-	-	-	-	-	-	-	-	-	-	-
파우더	-	-	-	-	-	-	-	-	-	-	-	-	-	-	-	1	-	-	-	-	-	1
파운데이션	-	-	-	-	-	-	-	1	-	-	-	-	-	-	-	-	-	-	-	-	-	1
팩류	-	-	-	1	-	-	-	-	-	1	-	-	-	-	-	-	-	1	-	-	-	3
향수	-	-	-	6	1	2	-	3	-	1	-	-	-	-	1	-	-	-	-	-	1	15
헤어린스	-	-	-	2	-	-	-	-	-	-	-	-	-	-	-	-	-	-	-	-	-	2
헤어스프레이	-	-	-	3	-	-	-	-	-	-	-	-	-	-	-	-	-	-	1	-	3	7
헤어크림	-	1	1	2	-	-	-	1	-	1	-	-	-	-	-	-	-	-	-	1	-	7
화장비누	-	-	-	1	-	-	-	-	-	-	-	-	-	-	-	-	-	1	-	1	-	3
화장수류	-	-	-	-	-	-	-	-	1	-	-	-	-	-	-	-	-	-	-	-	-	1
화장품세트	1	1	-	46	-	60	1	50	3	9	-	7	-	1	-	2	1	-	6	1	8	197
총합계	10	9	5	190	2	142	6	183	12	44	1	16	1	1	2	11	5	4	19	9	19	691

<2월 화장품 관련 상담사례>

○ 홈쇼핑에서 구입한 화장품 품질불만으로 반품문의
소비자는 2월 2일 TV홈쇼핑에서 검정색 염색약을 39,800원에 구입하였음. 사용해보니 TV광고와 다르게 염색 잘 되지 않고 손에 다 묻으며 색 차이 심하게 남. 홈쇼핑에 반품을 요청하니 확인 후에 연락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문의함. 소비자는 제품 과장광고라고 생각하며 반품처리를 하고 싶음.

○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문의
상담 신청인의 어머니가 염색을 하시고 염색약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심. 부종과 염증이 발생하였으며, 병원에서 화학성분에 의한 문제로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도 가지고 있는 상황임. 부종과 진물이 심하게 나서 입원 전에 응급실 2회 방문하였으며 입원하여 12일 치료받았음. 보름 동안 통원치료도 받음. 제조사에 연락을 하였더니 방문하여 제조사와 보험사 간에 합의를 통해 보상관계를 알려주겠다고 함. 오늘 연락이 왔는데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함. 본사에서는 고객배려차원에서 입원한 비용만 물어준다고 통보함. 어머니는 아직도 냉찜질을 하며 1~2달은 통원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문의함.

○ 화장품 부작용 발생 시 진단서 양식 문의
소비자는 1주일 전 구입한 금가루가 들어간 더샘 달팽이크림을 사용하여 얼굴이 살짝 부어오르고 실핏줄이 생겼음. 오늘이 7일째인데 한 달 사이에 제품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 진단서를 첨부해서 가져갔는데 업체에서 계속해서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함. 그래서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계속 발급하여 주지 않으려고 함. 실핏줄이 보이는 부작용으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진단서 양식이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함.

○ 3월 화장품 품목별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 245건(26.5%)으로 가장 높았고, 품질이 191건(20.6%) 단순문의·상담 151건(16.3%)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상담이유(3월)

구분	AS불만	가격·요금	거래관행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단순문의·상담	무능력자계약	법·제도	부당채권추심	부당행위	안전	약관	이자·수수료	청약철회	표시·광고	품질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	6	17	33	64	87	3	1	4	29	11	1	3	114	5	89	468
립스틱	-	-	1	-	-	-	-	-	-	-	-	-	-	-	1	-	2
마스카라	-	-	-	-	-	-	-	-	-	-	1	-	-	-	-	-	1
맛사지류	-	-	1	1	9	4	-	-	-	1	-	-	-	1	-	1	18
메니큐어	-	-	-	-	-	1	-	-	-	1	-	-	-	-	-	-	2
메이크업베이스	-	-	-	-	-	-	-	-	-	-	-	-	-	-	-	-	-
면도용로션	-	-	-	-	-	-	-	-	-	1	-	-	-	-	-	-	1
면도용비누	-	-	-	-	-	-	-	-	-	-	-	-	-	-	-	-	-
면도용크림	-	-	-	-	-	-	-	-	-	-	-	-	-	-	-	-	-
목욕용오일	-	-	-	-	-	-	-	-	-	-	-	-	-	1	-	-	1
바디클렌저	-	-	1	-	-	2	-	-	-	-	-	-	-	1	-	-	4
발모제	-	-	-	-	-	-	-	-	-	-	-	1	-	-	-	2	3
방취제	-	-	-	-	-	2	-	-	-	-	-	-	-	-	-	-	2
보건위생용품기타	-	-	-	1	1	1	-	1	-	-	-	-	-	3	-	2	9
보건위생용품세트	-	-	-	-	-	-	-	-	-	-	-	-	-	-	-	-	-
샴푸	-	2	-	-	1	3	-	-	-	1	-	-	-	-	1	7	15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	-	-	-	-	-	-	-	-	-	-	2	2
세안류	-	1	-	-	-	-	-	-	-	-	-	-	-	-	-	1	2
아이라이너	-	-	-	1	-	-	-	-	-	-	-	-	-	-	-	1	2
어린이용화장품	-	-	-	2	1	1	-	-	-	-	-	-	-	-	-	1	5
염색제	-	-	-	1	8	1	-	-	-	1	4	-	-	2	4	24	45
영양오일류	-	-	-	-	-	-	-	-	-	-	-	-	-	-	-	-	-
영양크림류	-	-	1	-	2	2	-	1	-	2	-	-	-	26	-	5	39
치약	1	-	-	1	-	-	-	-	-	-	-	-	-	-	2		4
탈모제	-	-	-	1	-	-	-	-	-	-	-	-	-	-	-	1	2
파마약	-	-	-	-	-	-	-	1	-	-	-	-	-	-	-	1	2
파우더	-	-	-	-	-	1	-	-	-	-	-	-	-	-	-		1
파운데이션	-	-	-	1	-	-	-	-	-	-	-	-	-	1	1	1	4
팩류	-	-	-		1	-	-	-	-	-	2	-	-			2	5
향수	-	-	-	4	2	4	-	-	-	-		-	-	3	1	2	16
헤어린스	-	-	-	-	-	-	-	-	-	-	-	-	-	-	-	-	-
헤어스프레이	-	-	-	1	2	3	-	-	-	-	1	-	-	-	-	1	8
헤어크림	-	-	-	1	1	2	-	-	-	-	-	-	-	1	1	7	13
화장비누	-	-	-	1	1	-	-	-	-	-	-	-	-	1		1	4
화장수류	-	-	-	-	-	2	-	-	-	-	-	-	-	2			4
화장품세트	2	3	4	7	36	35	2	1	-	12	5	-	4	89	2	40	242
총합계	4	12	25	56	129	151	5	5	4	48	24	2	7	245	18	191	926

○ 3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 246건(26.6%), 분쟁해결기준 설명 243건(26.2%), 법・제도설명 219건(23.7%)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처리결과(3월)

구분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상품정보제공	수리보수	시장정보제공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9	12	1	128	4	94	6	128	3	36	-	10	3	2	2	1	12	9	8	468
립스틱	-	-	-	1	-	1	-	-	-	-	-	-	-	-	-	-	-	-	-	2
마스카라	-	-	-		-	-	-	1	-	-	-	-	-	-	-	-	-	-	-	1
맛사지류	-	2	-	4	-	2	-	7	-	-	-	-	-	-	-	-	1	1	1	18
메니큐어	-	-	-	1	-	-	-	-	-	-	-	-	-	-	-	-	-	-	1	2
메이크업베이스	-	-	-	-	-	-	-	-	-	-	-	-	-	-	-	-	-	-	-	-
면도용로션	-	-	-	-	-	-	1	-	-	-	-	-	-	-	-	-	-	-	-	1
면도용비누	-	-	-	-	-	-	-	-	-	-	-	-	-	-	-	-	-	-	-	-
면도용크림	-	-	-	-	-	-	-	-	-	-	-	-	-	-	-	-	-	-	-	-
목욕용오일	-	-	-	-	-	-	-	1	-	-	-	-	-	-	-	-	-	-	-	1
바디클렌저	-	-	-	2	-	-	-	1	-	-	-	-	-	-	-	-	1	-	-	4
발모제	-	-	-	-	-	1	-	2	-	-	-	-	-	-	-	-	-	-	-	3
방취제	-	-	-	2	-		-		-	-	-	-	-	-	-	-	-	-	-	2
보건위생용품기타	-	1	-	2	-	2	-	3	1	-	-	-	-	-	-	-	-	-	-	9
보건위생용품세트	-	-	-	-	-	-	-	-	-	-	-	-	-	-	-	-	-	-	-	-
샴푸	-	-	-	8	-	2	-	1	-	2	-	1	-	-	-	-	1	-	-	15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	-	-	-	-	-	1	1	-	-	-	-	-	-	-	-	2
세안류	-	-	-	1	-	-	-	1	-	-	-	-	-	-	-	-	-	-	-	2
아이라이너	-	-	-	-	-	1	-	1	-	-	-	-	-	-	-	-	-	-	-	2
어린이용화장품	-	-	-	-	-	1	-	2	1	-	-	-	-	-	-	-	1	-	-	5
염색제	-	1	-	14	2	3	-	12	-	2	-	1	1	-	1	1	2	2	3	45
영양오일류	-	-	-	-	-	-	-	-	-	-	-	-	-	-	-	-	-	-	-	-
영양크림류	-	-	-	11	-	23	-	3	-	1	-	-	-	-	-	-	-	-	1	39
치약	-	-	-	4	-	-	-	-	-	-	-	-	-	-	-	-	-	-	-	4
탈모제	-	-	-	1	-	1	-	-	-	-	-	-	-	-	-	-	-	-	-	2
파마약	-	-	-	-	-	2	-	-	-	-	-	-	-	-	-	-	-	-	-	2
파우더	-	-	-	1	-	-	-	-	-	-	-	-	-	-	-	-	-	-	-	1
파운데이션	-	-	-	1	1	-	-	2	-	-	-	-	-	-	-	-	-	-	-	4
팩류	-	-	-	1	-	1	-	3	-	-	-	-	-	-	-	-	-	-	-	5
향수	1	1	-	5	-	3	-	3	-	-	-	-	1	-	-	-	-	-	2	16
헤어린스	-	-	-	-	-	-	-	-	-	-	-	-		-	-	-	-	-	-	-
헤어스프레이	-	-	-	-	-	1	1	4	-	2	-	-	-	-	-	-	-	-	-	8
헤어크림	-	-	-	4	1	1	1	2	1	1	-	-	-	-	-	-	1	-	1	13
화장비누	1	1	-	1	-	-	-	1	-	-	-	-	-	-	-	-	-	-		4
화장수류	-	-	-	3	-	-	-	-	-	-	-	-	-	-	-	-	-	-	1	4
화장품세트	2	2	-	51	4	80	-	65	3	18	-	5	1	-	2	1	4	2	2	242
총합계	13	20	1	246	12	219	9	243	9	63	1	17	6	2	5	3	23	14	20	926

<3월 화장품 관련 상담사례>

○ 전화권유 판매로 구입한 화장품 반품 문의
소비자는 전화로 샘플을 써보고 평가해달라는 내용으로 드림플러스라는 곳에서 화장품을 배송 받았음. 수령한 후 업체에 전화를 하니 반품을 하면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니 사용해보고 나서 반품하라고 함. 2월 26일 업체에서 사용 후기를 물어보는 전화를 주었고 소비자는 샘플을 사용해보았으니 반품을 하겠다고 요청함. 우체국 택배로 수거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후에 연락이 없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유사 피해사례가 많아 처리방법을 문의함.

○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에 대한 문의
소비자는 한 달 전 홈플러스 내 스킨푸드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함. 자녀들이 화장품을 20일 정도 사용하고 나니 트러블이 발생함. 스킨푸드 소비자상담실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음. 소비자는 부작용(각질, 트러블)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고 싶어 문의함.

○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에 대한 문의
소비자는 2월 27일 65만원에 화장품(클렌징, 로션, 크림 등)을 구입함. 제품을 권유하여 구입한 것인데 얼굴에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발생함. 업체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고 다른 화장품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는데도 얼굴이 아픔. 현재 제품은 개봉된 상태이며 업체에서는 환불이 안 된다고 하여 문의함.

○ 소셜 커머스에서 구입한 화장품 오 배송
소비자는 쿠팡에서 한국 화장품 더블쿠션을 16,800원에 구입함. 주문한 상품과 다른 호수(색상)가 배송됨. 업체에 문의하여 재 배송 안내 받았지만 재 배송 받은 상품도 케이스가 상이하게 배송됨. 소비자가 제대로 된 상품 배송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 배송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계약내용대로 상품의 배송을 원하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원함.

○ 4월 화장품 품목별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가 238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문의/상담이 157건(17.7%), 품질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각각 147건(16.6%)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상담이유(4월)

구분	AS불만	가격.요금	거래관행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단순문의.상담**	무능력자계약	법.제도	부당채권추심	부당행위	안전	약관	이자.수수료	**청약철회**	표시.광고	**품질**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	7	12	19	71	86	1	1	1	36	8	1	2	114	6	63	429
립스틱	-	-	-	1	-	1	-	-	-	-	-	-	-	-	-	1	3
마스카라	-	-	-	-	-	-	-	-	-	-	-	-	-	-	1	-	1
맛사지류	-	-	-	2	5	5	-	-	-	2	1	-	-	1	-	1	17
메니큐어	-	-	-	1	1	-	-	-	-	-	-	-	-	-	-	-	2
목욕용오일	-	1	-	-	-	-	-	-	-	-	-	-	-	-	-	-	1
발모제	-	-	-	-	-	-	-	-	-	-	-	-	-	-	-	-	1
보건위생용품기타	-	-		2	1	2	-	-	-	1	-	-	-	1	-	1	8
샴푸	-	-	1	2	1	2	-	-	-	-	1	-	-	4	3	8	22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	-	1	-	-	-	-	-	-	-	-	-	5	6
염색제	-	-	-	1	2	6	-	-	-	-	5	-	-	2	1	16	33
영양오일류	-	-	-	-	-	-	-	-	-	-	-	-	-	-	-	1	1
영양크림류	2	-	-	1	5	3	-	-	-	-	2	-	-	15	1	9	38
치약	-	-	-	2		4	-	-	-	-	-	-	-	1	-	2	9
탈모제	-	-	-	-	2	-	-	-	-	-	-	-	-	-	-	3	5
파마약	-	-	-	-	-	-	-	-	-	-	-	-	-	-	-	1	1
파우더	-	-	-	-	-	-	-	-	-	-	-	-	-	1	-	-	1
파운데이션	-	-	1	-	1	-	-	-	-	-	-	-	-	-	-	1	3
팩류	-	-	-	-	-	-	-	-	-	-	-	-	-	-	-	1	1
향수	-	-	1	-	2	3	-	-	-	-	-	1	-	4	-	5	17
헤어스프레이	-	-	-	-	1	1	-	-	-	-	1	-	-	1	1	1	6
헤어크림	-	-	-	-	-	-	-	-	-	-	-	-	-	-	1	1	2
화장비누	-	-	-	3	-	1	-	-	-	2	-	-	-	1	1	-	8
화장수류	-	-	-	1	-	-	-	-	-	-	-	-	-	-	-	2	3
화장품세트	-	5	1	13	55	42	-	2	3	14	2	2	9	92	2	25	267
총합계	3	13	16	49	147	157	1	3	4	55	20	4	11	238	17	147	885

○ 4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 234건(26.4%), 분쟁해결기준설명 223건(25.2%), 법・제도설명 219건(24.7%)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처리결과(4월)

구분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상품정보제공	수리보수	시장정보제공	자율분쟁이관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6	10		125	3	103	3	106	4	33		6	1	4	1	2	-	6	8	8	429
립스틱	1	-	-	1	-	1	-	-	-	-	-	-	-	-	-	-	-	-	-	-	3
마스카라	-	-	-	-	-	-	-	1	-	-	-	-	-	-	-	-	-	-	-	-	1
맛사지류	1	-	-	5	-	1	-	5	-	1	-	-	-	-	-	-	-	1	2	1	17
메니큐어	1	-	-	-	-	1	-	-	-	-	-	-	-	-	-	-	-	-	-	-	2
목욕용오일	-	-	-	-	-	1	-	-	-	-	-	-	-	-	-	-	-	-	-	-	1
발모제	-	-	-	1	-	-	-	-	-	-	-	-	-	-	-	-	-	-	-	-	1
보건위생용품기타	-	-	-	3	-	2	-	1	1	-	-	-	-	-	-	-	-	-	-	1	8
샴푸	1	-	-	5	-	4	-	5	-	3	1	1	-	-	-	-	1		1	-	22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1	-	1	-	4	-	-	-	-	-	-	-	-	-	-	-	-	6
염색제	1	-	-	11	1	2	1	9	-	2	-	1	-	1	-	-	-	-	1	3	33
영양오일류	-	-	-	-	-	-	-	1	-	-	-	-	-	-	-	-	-	-	-	-	1
영양크림류	-	1	-	8	-	15	-	10	-	1	-	-	-	1	-	-	-	1	-	1	38
치약	-	1	-	1	-	-	-	4	-	1	-	-	-	-	-	-	1	-	-	1	9
탈모제	-	-	-	3	-	-	-	1	-	-	-	-	-	-	-	-	-	-	1	-	5
파마약	-	-	-	-	-	-	-	-	-	-	-	-	-	-	-	-	-	1	-	-	1
파우더	-	-	-	-	-	1	-	-	-	-	-	-	-	-	-	-	-	-	-	-	1
파운데이션	-	-	-	1	-	-	-	2	-	-	-	-	-	-	-	-	-	-	-	-	3
팩류	-	-	-	-	-	-	-	1	-	-	-	-	-	-	-	-	-	-	-	-	1
향수	-	1	1	4	-	2	-	5	-	1	-	1	-	1	-	-	-	1	-	-	17
헤어스프레이	-	-	-	-	-	2	-	1	-	1	-	-	-	-	-	-	-	-	1	1	6
헤어크림	-	-	-	-	-	1	-	-	-	-	-	-	-	-	-	-	-	-	-	-	2
화장비누	-	-	-	-	-	-	1	1	-	1	-	1	-	2	-	-	-	-	-	2	8
화장수류	-	-	-	-	-	1	1	1	-	-	-	-	-	-	-	-	-	-	-	-	3
화장품세트	3	6	-	65	1	81	2	65	4	16	-	5	-	-	3	1	3	4	4	4	267
총합계	14	19	1	234	5	219	8	223	9	60	1	16	1	9	4	3	5	14	18	22	885

<4월 화장품 관련 상담사례>

○ **염색 후 훼손된 머리 피해 보**

소비자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염색했는데 머리가 타버렸음. 소비자가 약을 더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만 할까요 라는 말만 함. 아르바이트생이 잘못하여 머리가 끊겼고, 머리카락은 녹아버려서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고 두피도 다 일어났음. 비용은 24만원이며, 다른 곳에서 복구하게 되면 비용은 30~40만원 발생하게 됨. 금일(4/2) 방문하여 원장한테 말해보려고 함.

○ **홈쇼핑에서 구입한 화장품 부작용으로 반품 문의 건**

소비자는 롯데 홈쇼핑에서 비타민씨 화장품을 118,000원 구입 함. 화장품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상품설명서를 확인 하니, 치자물질이 함유 된 것으로 나와 있음. 화장품 샘플을 발랐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본품을 개봉해서 바르고 난 후 얼굴이 가렵고 발진 때문에 사용 할 수 없어서 반품 요청 함. 홈쇼핑에서는 제품을 개봉해서 반품이 어렵다 함.

○ **치약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피해보상 문의 건**

소비자는 며칠 전에 이마트에서 부광약품 부광탁스 치약을 구입함. 하루 전날 사용하고 오늘도 사용하니 입술도 붓고 마취가 되는 것 같이 감각이 없는 증상이 나타남.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임. 오늘 부광약품으로 전화를 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소비자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함. 치약에 대한 성분이 제대로 된 것 인지 체질에 따라서 사용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표기가 되여야 할 것 임. 본인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음.

○ **홈쇼핑 염색약을 사용한 후 부작용 발생**

소비자는 4월 초 케이블 방송 체일코리아의 홈쇼핑 염색약을 카드로 39000에 구매함. 구매 전 문의해보니 피부에 닿아도 옻이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함. 구입 후 열흘정도 3번 사용하였으나, 손에 다 묻고 2일 후에 피부에 문제가 생김. 병원에는 아직 가지 않았고, 업체에 전화를 하였으나 곧 전화를 준다고 말하고 연락이 없음.

○ **지방분해 패치 사용 후 부작용으로 색소침착 우려되어 치료비 배상 문의**

소비자는 3월 말, CJ홈쇼핑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패치를 7만원에 구입함. 한 달 분씩 개별포장 되어 있음. 운동을 시작하면서 4/20일 다리에 한개 붙였다 떼어보니 패치 모서리 자국이 생기며 빨갛게 부어올랐다가 이후에 검은색으로 변함. 4/28일, 피부과를 다녀왔는데 의사에게 색소침착 여부는 현재 알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고, 업체에서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설명을 받았음. 3주 후에도 자국이 안 없어지면 치료비 등 치료를 해달라고 한 상태임. 색소침착이면 치료비 배상을 받고 싶어서 방법을 문의함. 피부과 소견서를 제출했고, 홈쇼핑을 통해서 잔여제품에 대한 환불약속은 받았음.

○ 5월 화장품 품목별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가 196건(25.2%)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이 153건(19.6%),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30건(16.7%), 단순문의/상담이 126건(16.2%)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상담이유(5월)

구분	AS불만	가격.요금	거래관행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단순문의.상담	무능력자계약	법.제도	부당채권추심	부당행위	안전	약관	이자.수수료	청약철회	표시.광고	품질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	8	10	22	50	61	-	-	-	11	15	2	1	81	4	69	335
립스틱	-	-	-	-	-	2	-	-	-	1	-	-	-	-	1	1	5
맛사지류	-	-	-	4	11	2	-	-	-	-	2	-	-	1	-		20
메니큐어	-	-	-	-	-	1	-	-	-	-	-	-	-	-	-	1	2
목욕용오일	-	1	-	-	-	-	-	-	-	-	-	-	-	-	-	-	1
바디클렌저	-	-	-	-	-	-	-	-	-	-	-	-	-	2	-	-	2
발모제	-	-	-	-	-	-	-	-	-	-	-	-	-	1	-	-	1
보건위생용품기타	-	-	-	1	1	-	-	1	-	1	-	-	-	1	-	2	7
샴푸	-	1	-	-	-	5	-	-	-	1	2	-	-	3	-	7	19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	1	1	-	-	-	1	-	-	1	3	-	5	13
세안류	-	-	-	1	-	-	-	-	-	-	-	-	-	-	-	-	1
아이라이너	-	-	-	-	-	-	-	-	-	-	-	-	-	-	-	1	1
어린이용화장품	-	-	1	-	1	-	-	-	-	-	-	-	-	-	-	2	4
염색제	-	-	1	7	7	2	-	-	1	3	4	1	-	2	-	21	50
영양오일류	-	-	-	-	1	-	-	-	-	-	-	-	-	-	-	1	2
영양크림류	-	-	-	1	-	-	-	-	-	-	-	-	-	9	-	3	13
치약	-	-	2	-	1	-	-	-	-	-	2	-	-	2	-	2	10
탈모제	1	-	-	-	1	2	-	-	-	-	-	-	-	1	-	2	7
파운데이션	-	-	-	-	-	-	-	-	-	-	-	-	-	-	-	1	1
팩류	-	-	-	-	1	-	-	-	-	1	-	-	-	2	1	1	6
향수	-	-	-	-	1	3	-	1	-	2	-	-	-	2	2	3	14
헤어린스	-	-	-	-	1	-	-	-	-	-	-	-	-	-	-	-	1
헤어스프레이	-	-	-	2	-	1	-	-	-	-	-	-	-	-	-	-	3
헤어크림	-	-	-	-	1	2	-	-	-	-	-	-	-	2	-	1	6
화장비누	-	-	1	-	2	-	-	-	-	-	-	-	-	2	-	1	6
화장품세트	1	2	7	9	50	44	1	3	1	10	3	1	1	82	5	29	249
총합계	3	12	22	47	130	126	1	5	2	31	28	4	3	196	16	153	779

○ 5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 202건(25.9%), 분쟁해결기준 설명 193건(24.8%), 법・제도설명 165건(21.2%)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처리결과(5월)

구분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상품정보제공	시장정보제공	자율분쟁이관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3	4	1	85	68	4	99	6	23	2	3	2	1	-	3	17	6	8	335
립스틱	-	-	-	3	-	-	1		1	-	-	-	-	-	-	-	-	-	5
맛사지류	1	-	-	6	2	-	6	1	-	-	-	-	-	-	1	1	2	-	20
메니큐어	-	-	-	1	-	-	1	-	-	-	-	-	-	-	-	-	-	-	2
목욕용오일	-	-	-	-	-	-	-	-	1	-	-	-	-	-	-	-	-	-	1
바디클렌저	-	-	-	-	-	-	-	-	-	1	-	-	-	-	-	-	-	1	2
발모제	-	-	-	1	-	-	-	-	-	-	-	-	-	-	-	-	-	-	1
보건위생용품기타	-	-	1	2	1	-	1	-	1	-	-	-	-	-	-	-	-	1	7
샴푸	-	-	1	6	2	-	4	-	3	-	-	-	-	1	-	1	-	1	19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1	1	2	4	1	2	-	-	-	-	-	1	-	-	-	-	1	13
세안류	-	-	-	-	1	-	-	-	-	-	-	-	-	-	-	-	-	-	1
아이라이너	-	-	-	-	-	-	1	-	-	-	-	-	-	-	-	-	-	-	1
어린이용화장품	1	-	-	1	-	-	-	-	-	-	-	-	-	-	-	2	-	-	4
염색제	4	-	-	11	4	-	15	1	3	1	-	2	3	-	-	1	2	3	50
영양오일류	-	-	-	-	1	-	-	-	-	-	-	1	-	-	-	-	-	-	2
영양크림류	-	-	-	-	9	-	1	-	2	-	-	-	-	-	-	-	-	1	13
치약	-	-	1	2	3	-	1	-	1	1	-	-	-	-	-	1	-		10
탈모제	-	-	-	1	1	-	1	-	1	-	-	-	-	-	-	2	-	1	7
파운데이션	-	-	-	-	-	-	1	-	-	-	-	-	-	-	-	-	-	-	1
팩류	-	-	-	1	1	-	1	1	-	1	-	-	-	-	-	-	-	1	6
향수	-	-	-	4	3	-	2	1	-	-	-	-	-	-	-	1	-	3	14
헤어린스	-	-	-	-	-	-	-	-	1	-	-	-	-	-	-	-	-	-	1
헤어스프레이	-	-	-	1	-	-	-	-	-	-	-	1	-	-	-	-	1	-	3
헤어크림	-	-	-	3	1	-	2	-	-	-	-	-	-	-	-	-	-	-	6
화장비누	-	1	-	2	-	-	3	-	-	-	-	-	-	-	-	-	-	-	6
화장품세트	3	7	-	70	64	1	51	1	23	6	1	3	1	1	2	9	2	4	249
총합계	12	13	5	202	165	6	193	11	60	12	4	9	6	2	6	35	13	25	779

<5월 화장품 관련 상담사례>

○ **인터넷에서 구입한 품질불량 치아 미백제 환불문의**

소비자는 5월 22일 인터넷에서 치아미백상품 haring B를 주문함. 사용방법에 치아틀을 뜨거운 물에 담가 사용 하라고 하여 미지근한 물에 담갔는데 치아틀이 쪼그라들어 사용 불가능함. 환불 받고 싶어 상담을 요청함.

○ **티네추럴 홈쇼핑에서 구입한 뿌리는 염색약 환불**

소비자는 티네추럴 홈쇼핑에서 뿌리는 염색약을 39,800원에 카드 결제함. 머리에 뿌리는 염색약이므로 염색도 편리하고 모발도 풍성해 보이게 염색이 잘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하게 됨. 5월 19일 배송이 되어 뿌리고 하루 자고 일어나보니 베개에 까맣게 이염이 되었음. 머리를 감아보니 염색이 전혀 안된 상태로 있었음. 판매업체 이의제기 환불 요청하니 개봉이후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함. 제품불량인데 환불받을 수 없는지 문의. 상담결과 피해처리 환급 받음.

○ **메이블린 CC크림 부작용**

소비자는 메이블린 CC크림을 1회 정도 사용했는데 얼굴이 심하게 가려웠음.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도 있고 부작용이 심해 업체로 환급 요구하니 1년이 경과했으니 안 된다고 함.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에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기간이 지나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환급을 요구함. 상담결과 피해처리 환급받았음.

○ **효과없는 리버게인샴푸 환불 및 업체 영업정지 관련 문의.**

소비자는 탈모 때문에 인터넷에서 알아보았고 신옹 홈쇼핑에서 1세트 더 받는 조건으로 3개월 398,000원에 '리버게인 샴푸'를 구입함. 이용해보니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짐. 1세트 이용해보고 효과 없으면 환불해준다고 함. 환불 요청하니 1세트 가격인 12만원 입금하라고 했음. 물건을 반드시 보내야 입금해준다고 하였고, 영업 방해죄로 고소를 한다고 함. 1세트 가격이 114,000원인데 120,000원을 받는다고 함. 물건 보내고 2일 후에 환급해준다고 했음. 이런 업체를 영업정지 시킬 수 없는지 알고 싶어 문의함.

○ **화장품 체험단 가입 후, 지급 받은 어린이화장품 부작용**

소비자는 베이비로션 체험단에 가입하여 제품 사용해보고 리뷰를 작성하기로 함. 제품을 받아 소비자가 먼저 사용해보니 부작용이 발생함. 부작용으로 이의를 제기하니 그 후로 연락을 제대로 해주지 않음. 만약 아이가 사용을 했다면 부작용이 컸을 것임. 이런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싶음.

○ 6월 화장품 품목별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가 236건(24.7%)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203건(21.2%), 단순문의/상담이 173건(18.1%),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36건(14.2%)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상담이유(6월)

구분	AS불만	가격.요금	거래관행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단순문의.상담	무능력자계약	법.제도	부당채권추심	부당행위	안전(제품/시설)	약관	이자.수수료	청약철회	표시.광고	품질(물품/용역)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2	8	10	28	56	101	-	-	-	25	12	6	1	100	8	87	444
립스틱	1	-	1	2	-	-	-	-	-	-	-	-	-	1	-	4	9
마스카라	-	-	-	-	-	-	-	-	-	-	-	-	-	1	-		1
맛사지류	-	-	1	3	6	1	-	-	-	-	1	-	-	4	-	1	17
메니큐어	-	-	-	-	-	-	-	-	-	-	-	-	-	1	-	1	2
메이크업베이스	-	-	-	-	1	-	-	-	-	1	-	-	-	-	-	-	2
면도용로션	-	-	-	-	-	-	-	-	-	-	-	-	-	-	1	-	1
면도용비누	-	-	-	-	-	-	-	-	-	-	-	-	-	-	-	1	1
목욕용오일	-	-	-	-	-	-	-	-	-	-	-	-	-	-	-	-	1
발모제	-	-	-	1	-	-	-	-	-	-	-	-	-	1	-	3	5
보건위생용품기타	-	2	1	2	3	3	-	-	-	1	-	-	-	2	-	3	17
보건위생용품세트	-	-	-	1	-	-	-	-	-	-	-	-	-	1	-	-	2
샴푸	-	1	1	3	8	11	-	-	-	2	2	-	-	3	2	23	56
선탠.선스크린화장품	1	-	-	1	4	4	-	-	-	-	3	-	-	2	-	6	21
어린이용화장품	-	-	-	1	-	-	-	-	-	-	-	-	-	-	-	1	2
염색제	-	-	-	5	1	8	-	-	-	-	2	-	1	1	1	10	29
영양오일류	-	-	-	1	-	1	-	-	-	-	-	-	-	-	-	-	2
영양크림류	-	-	-	-	1	1	-	1	-	-	-	-	-	14	-	1	18
치약	-	-	1	2	-	-	-	-	-	-	-	-	-	1	1	5	10
탈모제	-	-	-	1	-	1	-	-	-	-	-	-	-	-	-	2	4
파운데이션	-	-	-	-	2	-	-	-	-	-	-	-	-	-	-	1	3
팩류	-	-	-	-	1	-	-	-	-	-	1	-	-	1	-	1	4
향수	-	-	-	5	4	3	-	-	-	1	-	-	-	3	-	4	20
헤어스프레이	-	-	-	1	-	-	-	-	-	-	-	-	-	-	-	-	1
화장비누	-	1	-	2	-	2	-	-	-	-	-	-	-	1	-	4	10
화장수류	-	-	-	-	1	-	-	-	-	1	-	-	-	1	-	1	4
화장품세트	2	5	1	6	47	37	2	4	4	4	4	2	7	98	3	44	270
총합계	6	17	16	65	136	173	2	5	4	35	25	8	9	236	16	203	956

○ 6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 265건(27.7%), 분쟁해결기준설명 246건(25.7%), 법・제도설명 205건(21.4%)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처리결과(6월)

구분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상품정보제공	시장정보제공	시험결과.의류심의의뢰	자율분쟁이관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4	9	2	142	1	72	1	118	12	29	8	-	1	4	-	3	2	15	5	16	444
립스틱	-	-	-	5	-	1	1	2	-	-	-	-	-	-	-	-	-	-	-	-	9
마스카라	-	-	-	-	-	-	-	-	-	-	-	-	-	-	-	-	-	-	-	1	1
맛사지류	-	-	-	2	-	1	-	11	-	1	-	-	1	-	-	-	-	-	1	-	17
메니큐어	1	1	-	-	-	-	-	-	-	-	-	-	-	-	-	-	-	-	-	-	2
메이크업베이스	-	-	-	-	-	-	-	2	-	-	-	-	-	-	-	-	-	-	-	-	2
면도용로션	-	-	-	-	-	1	-	-	-	-	-	-	-	-	-	-	-	-	-	-	1
면도용비누	-	-	-	-	-	-	-	-	-	-	-	-	-	-	-	-	-	-	-	1	1
목욕용오일	-	-	-	-	-	-	-	-	-	1	-	-	-	-	-	-	-	-	-	-	1
발모제	-	-	-	1	1	1	-	2	-	-	-	-	-	-	-	-	-	-	-	-	5
보건위생용품기타	1	1	-	6	-	2	1	2	-	1	-	-	-	-	1	-	-	-	1	1	17
보건위생용품세트	-	-	-	-	-	1	-	-	-	-	-	-	-	-	-	-	-	-	1		2
샴푸	3	-	-	14	-	7	2	13	-	4	3	-	-	-	1	-	1	1	1	5	56
선탠.선스크린화장품	1	-	-	7	-	-	-	7	-	-	1	1	-	-	1	-	-	-	1	2	21
어린이용화장품	1	-	-	-	-	-	-	-	-	1	-	-	-	-	-	-	-	-	-	-	2
염색제	-	-	-	10	1	2	-	8		2	1	-	-	1	-	-	-	1		3	29
영양오일류	-	-	-	1	-	-	-	-	-	1	-	-	-	-	-	-	-	-	-	-	2
영양크림류	-	1	-	2	-	11	-	3	-	-	-	-	-	-	-	-	-	-	-	1	18
치약	1	-	-	5	-	1	-	1	2	-	-	-	-	-	-	-	-	-	-	-	10
탈모제	-	-	-	1	-	-	-	1	-	-	-	-	-	-	1	-	-	-	-	1	4
파운데이션	-	-	-	-	-	2	-	-	1	-	-	-	-	-	-	-	-	-	-	-	3
팩류	-	1	-	2	-	-	-	1	-	-	-	-	-	-	-	-	-	-	-	-	4
향수	-	2	-	3	-	6	-	6	1	-	-	-	-	-	-	-	-	-	-	2	20
헤어스프레이	-	-	-	-	-	-	-	-	-	-	-	-	-	-	-	-	-	-	1	-	1
화장비누	-	-	-	4	-	-	-	2	-	-	1	-	-	-	-	-	-	2	-	1	10
화장수류	1	-	-	1	-	-	-	1	-	-	-	-	-	-	-	-	-	-	-	1	4
화장품세트	1	8	-	59	1	97	1	66	2	15	6	-	-	-	-	-	1	6	1	6	270
총합계	14	23	3	265	4	205	6	246	18	55	20	1	2	5	4	3	4	25	12	41	956

<6월 화장품 관련 상담사례>

○ 사용 전 샘플 먼저 사용하라는 공지 유무에 따른 사업자의 부작용 보상 책임

신청인은 온라인에서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하는 사업자임. 11번가 오픈마켓에 제품을 판매했고, 소비자에게서 트러블이 발생했다면서 환불 요청이 들어 왔음. 만약 판매 시 샘플부터 이용해보고 구매를 하시라고 공지를 해 놓게 되면 보상의 책임이 없게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함.

○ 매니큐어 허위과장광고와 영업부당 행위 시정조치 문의

소비자는 홈쇼핑을 보고 매니큐어 세트를 구입을 함. 광고 시 자녀들도 발라도 되고 상처 난 곳도 발라도 되며. 안전성을 특히 강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음. 바르고 착색이 되어 업체로 강하게 이의제기하니 반품을 받아주고 환불 처리 해줌. 강하게 말을 하면 해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개봉을 하고 사용했다고 거부하는 것 같음. 허위과장광고이고 안전성에 대한 것도 믿을 수 없는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를 하고 있음. 시정하고 제재해야 할 것임.

○ 속눈썹 부치는 풀, 제조 일자 변경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속눈썹을 부치는 풀을 구입함. 제품을 받아보니 제조일자를 스티커로 붙여 놓았는데 그 전의 제조일자와 2년이나 차이남. 이런 경우 어디로 신고하여야 되는지 알고 싶음.

○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문의

소비자는 2015년 3월말 쯤 코엑스 면세점에서 설화수 한방 발효 여민 마스크를 구입함. 사용 후 눈 밑이 빨갛게 일어나서 피부과 방문하여 한 달 이상 치료를 함. 그 후에 다른 부분에도 빨갛게 부어올라서 병원 에 다시 방문 문의하니 처음 치료로 인해 재생 능력을 잃어 피부에 발진이 생겼다고 함. 업체에 문의 하니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적용 한다고 하였고 그 기준에 따르면 대학병원 방문 하고 보험적용 가능한 치료만 된다고 함. 소비자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 제모스프레이 부작용으로 배상 청구 시 의사소견서비용 청구

소비자는 CJ홈쇼핑에서 제모 스프레이를 구매함. 5월 30일 부작용이 있어서 오늘 오전 치료를 받고 의사소견서와 영수증을 제출함. 본인 부담금을 청구했는데 의사소견서비용 1만원 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치료비 및 경비. 일실소득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홈쇼핑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여서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을 뿐임. 진료비 총액 26,000원 중 환자부담금총액 18,100원중에 8,000원만 주겠다함은 부당함. 약값 1,800원+ 18,100원 및 스프레이가격(59,900원)환불 요청함.

○ 쇳덩이 나온 세숫비누 피해구제 접수 관련 문의

소비자가 사용한 세숫비누에서 쇳덩어리가 나왔음. 샤워하는 중에 알게 되었고 몸에 상처가 났는데 병원에 갈 정도까지는 아니었음. 업체에서 비누를 회수도 해 갔고 다시 보내주었음. 1개월 뒤에 다시 다른 제품에서 쇳덩어리가 나왔음. 몸에 상처가 나고 피도 나왔음. 다시 업체에 전화하니 본인들 자체적으로 분석했는데 본인들 공장에서는 쇳덩어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며 본인들은 수긍할 수가 없다고 함. 소비자가 일부러 넣은 것처럼 이야기함. 해줄 수 있는 것은 비누교환 뿐이라고 함. 처음에는 쇠가 돌돌 말린 것처럼 있었음. 사진과 동영상도 찍었음. 처음 제품은 업체로 보내주었는데 두번째 것은 보내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 제조일자가 2014년 4월~6월이었음.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를 하려고 하며, 방법을 문의함.

○ **샴푸를 쓰고 부작용이 생김**

소비자는 3년 전 부터 머리나라 샴푸를 사용함. 3개월 전에 머리 혹이 나서 병원 방문함. 병원에서 샴푸를 쓴 후에 잘 헹구길 권함. 샴푸 색깔을 확인 해보니 탁탁한 색깔과 거품도 없음 .샴푸 성분검사 의뢰함. 성분검사한 곳에서 샴푸 자체 균이 나왔다고 함. 업체에 연락했는데 샴푸 1년치를 준다고 함. 머리 두피가 아픈데 샴푸를 받지 않고 배상을 요구함.

○ **화장품 부작용 관련 보상 문의**

소비자는 뉴스킨 화장품을 구입하여 2주간 사용함. 피부가 민감하여 2-3회 마사지를 받은 후 2015년 2월 화장품세트를 구입함. 2주사용 후 얼굴에 부작용이 생겨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았음. 화장품 부작용으로 진단서를 요구하니 부작용으로 진단서를 써줄 수는 없다고 함. 사용한 화장품은 환불을 해주었으나 치료비 보상은 해주지 않음.

○ **천연화장품만 판매한다는 사이트제제 여부**

인터넷에서 천연화장품으로 알고 그동안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음. 홈페이지에 특허증 외에 전 제품 무방부제라 되어 있어 구매자들이 혼돈을 느끼고 있으며, 상품정보 상세내역을 참조하라 해서 확인하면 일부품은 천연이 아닌 것이 있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음. 그동안에 모르고 사용을 해서 피해가 크다고 봄. 이에 대한 조사 후 제제 요구함.

○ **염색약 사용 후 부작용**

신청인의 누나가 2014.12.17 GS홈쇼핑 미오제네프 케라젤컬러 염색약 구입함. 엊그제 금요일에 염색을 했더니 얼굴이 퉁퉁 부어오름. 금요일 입원해서 퇴원하였으며, 눈이 붓고 떠지지도 않음.

○ **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화장품 취소**

소비자는 나드리 화장품 샘플만 써보고 후기 써주면 된다고 하여 주소 알려줌. 그리고 본품도 보낸다고 하며 298,000원이라고 하였지만 그냥 취소 요청함. 샘플 써보고 좋지 않으면 15일 후에 택배기사가 와서 반품하면 된다고 함. 전화 끊고 다시 전화 하였으나 전화 없는 번호로 나옴

○ 7월 화장품 품목별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가 295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이 181건(17.3%),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70건(16.3%), 단순문의/상담이 163건(15.6%)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상담이유(7월)

구분	AS불만	가격·요금	거래관행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단순문의·상담	무능력자계약	법·제도	부당채권추심	부당행위	안전	약관	이자·수수료	청약철회	표시·광고	품질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5	5	20	39	87	82	1	2	2	30	15	5	5	151	5	84	538
립스틱	-	-	-	1	2	1	-	-	-	-	-	-	-	-	-	2	6
마스카라	-	-	-	-	-	-	-	-	-	1	-	-	-	-	-	1	2
맛사지류	-	1	1	1	7	4	-	-	-	-	-	-	-	1	-	2	17
메니큐어	-	-	-	1	-	1	-	-	-	-	-	-	-	-	-	-	2
메이크업베이스	-	-	-	-	1	-	-	-	-	-	-	-	-	-	-	-	1
면도용로션	-	-	-	-	-	-	-	-	-	-	-	-	-	-	-	1	1
면도용크림	-	-	-	-	-	-	-	-	-	-	-	-	-	-	-	1	1
보건위생용품기타	-	-	-	1	1	-	-	-	-	1	-	-	-	-	-	1	4
보건위생용품세트	-	-	-		1	-	-	-	-	-	-	-	-	-	-	1	2
샴푸	-	1	-	2	6	1	-	-	-	-	-	-	-	2	4	11	27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1	1	2	1	-	-	-	-	2	-	-	-	1	3	7	18
아이라이너	-	-	-	-	1	-	-	-	-	-	-	-	-	-	1		2
어린이용화장품	-	-	-	-	-	-	-	-	-	-	-	-	-	-	-	3	3
염색제	-	-	-	-	2	5	-	-	-	-	3	-	-	1	2	11	24
영양오일류	-	-	1	-	1	-	-	-	-	-	1	-	-	1	-	-	4
영양크림류	1	-	-	1	1	1	-	-	-	-	1	-	-	19	1	6	31
치약	-	-	-	-	-	2	-	-	-	-	1	-	-	-	-	3	6
탈모제	-	-	-	2	1	1	-	-	-	1	-	-	-	2	-	2	9
파우더	-	1	-	-	-	-	-	-	-	-	-	-	-	-	-	-	1
파운데이션	-	-	-	1	-	-	-	-	-	-	-	-	-	-	-	2	3
팩류	-	-	1		2	1	-	-	-	-	-	1	-	-	1	2	8
향수		2	1	5	-	-	-	-	-	-	-	-	-	5	3	5	21
헤어스프레이	-	-	-	-	1	-	-	-	-	-	-	-	-	-	-	-	1
헤어크림	-	-	-	-	-	1	-	-	-	-	-	-	-	-	-	2	3
화장비누	-	-	-	1	-	1	-	-	-	-	-	-	-	1	-	2	5
화장수류	-	-	-	-	-	-	-	-	-	-	-	-	-	1	-	2	3
화장품세트	1	5	3	11	55	62	1	2	1	12	2	1	3	110	3	30	302
총합계	7	16	28	68	170	163	2	4	3	47	23	7	8	295	23	181	1,045

○ 7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 259건(25.9%), 분쟁해결기준 설명 264건(24.8%), 법・제도설명 262건(21.2%)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처리결과(7월)

구분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상품정보제공	수리보수	시장정보제공	자율분쟁이관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2	17	2	137	-	118	6	152	13	34	1	15	1	6	2	1	1	9	9	12	538
립스틱	-	-	-	1	-	-	1	1	-	1	-	-	-	1	-	-	-	-	-	1	6
마스카라	1	-	-	-	-	-	-	-	-	-	-	-	-	-	-	-	-	-	-	1	2
맛사지류	-	2	-	5	-	5	-	3	-	-	-	1	-	-	-	-	-	1	-	-	17
메니큐어	-	-	-	-	-	-	-	-	-	-	-	-	-	1	-	-	-	-	-	1	2
메이크업베이스	-	-	-	-	-	-	-	1	-	-	-	-	-	-	-	-	-	-	-	-	1
면도용로션	-	-	-	1	-	-	-	-	-	-	-	-	-	-	-	-	-	-	-	-	1
면도용크림	-	-	-	-	-	-	-	-	1	-	-	-	-	-	-	-	-	-	-	-	1
보건위생용품기타	-	-	-	1	-	2	-	1	-	-	-	-	-	-	-	-	-	-	-	-	4
보건위생용품세트	-	-	-	-	-	-	-	2	-	-	-	-	-	-	-	-	-	-	-	-	2
샴푸	-	1	-	4	-	3	-	11	1	2	-	-	-	-	-	-	1	-	1	3	27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4	-	3	-	5	-	1	-	-	-	1	-	-	-	1	-	3	18
아이라이너	-	-	-	-	-	-	-	1	-	-	-	-	-	-	-	-	-	-	-	1	2
어린이용화장품	-	-	-	3	-	-	-	-	-	-	-	-	-	-	-	-	-	-	-	-	3
염색제	-	-	-	6	2	2	-	5	-	4	-	-	1	1	-	-	-	2	1	-	24
영양오일류	-	-	-	-	-	1	-	1	-	1	-	1	-	-	-	-	-	-	-	-	4
영양크림류	1	-	-	2	-	15	-	7	1	2	-	1	-	1	-	-	-	-	-	1	31
치약	-	-	-	3	-	-	-	1	1	1	-	-	-	-	-	-	-	-	-	-	6
탈모제	1	1	-	2	-	1	1	-	-	-	-	-	-	-	-	-	-	1	1	1	9
파우더	-	-	-	-	-	-	-	-	-	-	-	-	-	-	-	-	-	-	1	-	1
파운데이션	-	-	-	-	-	1	1	-	-	-	-	-	-	-	-	-	-	-	-	1	3
팩류	-	-	-	4	-	2	-	1	-	-	-	1	-	-	-	-	-	-	-	-	8
향수	1	1	-	6	-	4	-	5	-	1	-	-	-	-	-	-	-	2	1	-	21
헤어스프레이	-	1	-	-	-	-	-	-	-	-	-	-	-	-	-	-	-	-	-	-	1
헤어크림	-	-	-	1	-	-	-	-	-	-	-	-	-	-	1	-	-	-	-	1	3
화장비누	-	-	-	2	-	1	-	-	-	-	-	-	-	-	-	-	-	-	1	1	5
화장수류	-	-	-	1	-	1	-	-	-	-	-	1	-	-	-	-	-	-	-	-	3
화장품세트	-	8	-	76	1	103	4	67	5	13	-	10	-	3	1	2	-	5	1	3	302
총합계	6	31	2	259	3	262	13	264	22	60	1	30	2	14	4	3	2	21	16	30	1,045

<7월 화장품 관련 상담사례>

○ 홈쇼핑에서 구입한 화장품 사용 후 발진으로 인한 치료비 청구

소비자는 홈쇼핑으로 2주 전에 화장품을 6만원에 구입함. 샘플을 2회 사용하여 따끔거렸지만 비타민제품이라 그냥 본품을 구입하였음. 본 품을 사용함에 피부가 발진으로 홈쇼핑에서 전화하니 부작용은 소견서을 보내면 치료비등을 처리된다고 함.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고 홈쇼핑에 이야기하였지만 환불은 해주지만 치료비등은 해줄 수 없다고 함. 화장품 사용 후 발진으로 인한 치료비와 화장품 환불요청에 대해 상담하고 싶음.

○ 립스틱 부작용 관련 보상 문의

소비자는 립스틱을 선물 받아서 사용 후 7월2일 구순염이 생겨 물집이 생기 갈라지고 각질이 심각하게 생겼음. 립스틱은 버렸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립스틱으로 인한 부작용임을 진단 받음. 본사 측에 문의 하니 진단서 및 제품이 없어도 치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보상해준다고 함. 피부과 의사가 치료 후에도 향후 구순염이 재발 될 수 있다고 함. 향후 구순염이 재발 될 경우 보상요구 가능한지 궁금함.

○ 화장품 변질 의심되어 환불 요청

소비자는 7월 7일 중앙시장 상가 해실에서 화장품 2개 56000원 카드 결제함. 개봉해보니 색깔이 까맣고 상했음. 7월 8일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았는데 교환받은 제품도 냄새가 이상함. 원래 쓰던 화장품이 아닌 호주 제품 멜라닌크림임. 제조일자도 없음. 소비자는 환불을 원해 상담을 요청함.

○ 립스틱에서 이물질 발견

소비자는 2월 경 입생로랑 립스틱 4개 구입함. 미미박스 온라인몰에서 구입하였음. 립스틱에 지렁이 혹은 미생물 같은 것이 발견되어 상담을 요청함.

○ 부패 변질된 화장품 부작용에 환불 거부하는 인터넷쇼핑몰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 몽태랑에서 화장품 모공스탬프 구매함. 본품 앰플 10개 묶음 2박스와 함께 샘플과 스탬프가 옴. 1개는 봉인스티커를 떼었다 붙이는 등 판매되었다가 반품된 것을 보내준 것 같음. 반품신청을 하니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라고 안내함. 사진을 이메일로 보낸 뒤 며칠간 연락이 없어 2개의 앰플을 사용함. 정상적인 제품사용 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봉인스티커가 떼어졌던 것을 바르고 난 뒤 모공마다 화농이 생김. 판매자에게 문의했으나 교환이나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함.

○ 썬스프레이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소비자는 2015년 6월 25일 옥션을 통해서 클리오 썬 스프레이를 구입함. 팔 다리에 사용 하였는데 팔에 빨간 화상 입은 것처럼 현상이 남아서 사용 중단하였음. 빨간 화상 자국이 없어져서 다시 사용 하고 보니 또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확실히 썬 스프레이로 인한 부작용이라 보여 짐. 소비자는 업체에 반품을 요구 하였으나 업체는 피부과 소견서와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함. 사진 촬영 한 것은 가지고 있는데 사진으로도 보상 요구가 가능 한지 궁금함.

○ 8월 화장품 품목별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문의/상담이 145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42건, 품질 139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상담이유(8월)

구분	AS 불만	가격、요금	거래관행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단순문의、상담	무능력자계약	법、제도	부당채권추심	부당행위	안전(제품)시설)	약관	이자、수수료	청약철회	표시、광고	품질(물품/용역)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2	3	7	16	71	70	1	2	1	25	4	-	1	116	4	56	379
립스틱	-	-	-	1	-	-	-	-	-	-	-	-	-	-	-	1	2
마스카라	-	-	-	-	-	-	-	-	-	-	-	-	-	-	-	1	1
맛사지류	-	-	-	4	10	7	-	-	-	-	-	-	-	2	-	2	25
메니큐어	-	-	-	-	-	1	-	-	-	-	-	-	-	2	-		3
바디클렌저	-	-	-	-	-	1	-	-	-	-	-	-	-	-	-	1	2
발모제	-	-	-	-	-	1	-	-	-	-	-	-	-	1	-	4	6
보건위생용품기타	1	-	-	-	-	3	-	-	-	-	1	-	-	1	-	3	9
샴푸	-	2	1	1	5	6	-	1	-	2	4	-	-	1	3	17	43
선탠.선스크린화장품	1	-	-	2	-	3	-	1	-	-	2	-	-	-	-	6	15
세안류	1	-	-	-	-	1	-	-	-	-	-	-	-	-	-		2
아이라이너	-	-	-	-	-	1	-	-	-	-	-	-	-	-	-	1	2
어린이용화장품	-	-	-	-	-	1	-	-	-	-	1	-	-	-	-		2
염색제	-	-	-	1	1	3	-	-	-	1	3	-	-	1	2	11	23
영양크림류	-	-	-	-	-	2	-	-	-	3	-	-	-	12	-	3	20
치약	-	-	-	2	-		-	-	-	-	2	-	-	1	-	2	7
탈모제	-	-	-	-	1	1	-	-	-	-	-	-	-	2	-	1	5
파마약	-	-	-	-		1	-	-	-	-	-	-	-	-	-	1	2
팩류	1	1	-	-	-		-	-	-	-	1	-	-	-	-	1	4
향수	-	1	1	2	1	4	-	-	-	1	-	1	-	4	-	3	18
헤어크림	-	-	-		-	-	-	-	-	-	1	-	-	-	-	2	3
화장비누	-	1	-	1	-	-	-	-	-	-	-	-	-	-	-	1	3
화장수류	-	-	-	2	-	-	-	-	-	-	-	-	-	2	-	1	5
화장품세트	-	5	3	10	53	39	3	2	3	11	1	-	1	73	3	21	228
총합계	6	13	12	42	142	145	4	6	4	43	20	1	2	218	12	139	809

○ 8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 223건, 법·제도설명 200건, 분쟁해결기준설명 190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처리결과(8월)

구분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 소비자상담처리	상품정보제공	수리보수	시장정보제공	자율분쟁이관	처리불능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3	14	2	113	3	89	6	84	3	31		4	1	3			11	7	5	379
립스틱	-	-	-	1	-	-	-	-	-	-	-	-	-	-	-	-	1	-	-	2
마스카라	-	1	-	-	-	-	-	-	-	-	-	-	-	-	-	-	-	-	-	1
맛사지류	-	-	-	6	-	5	-	5	-	5	-	-	1	-	1	-	1	-	1	25
메니큐어	-	-	-	-	-	-	-	2	-	-	-	-	-	-	-	-	1	-	-	3
바디클렌저	-	-	-	1	-	-	-	1	-	-	-	-	-	-	-	-	-	-	-	2
발모제	-	-	-	3	-	1	-	-	-	1	-	-	-	1	-	-	-	-	-	6
보건위생용품기타	-	-	1	4	-	-	-	3	-	-	1	-	-	-	-	-	-	-	-	9
샴푸	1	-	-	7	-	8	-	13	2	6	-	-	-	1	-	-	2	1	2	43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4	1	5	-	1	-	1	-	-	-	-	-	-	1	1	1	15
세안류	-	-	-	1	-	-	-	1	-	-	-	-	-	-	-	-	-	-	-	2
아이라이너	-	-	-	1	-	-	-	-									1	-	-	2
어린이용화장품	-	-	-	-	-	1	-	1	-	-	-	-	-	-	-	-	-	-	-	2
염색제	1	-	1	6	-	1	-	7	-	1	-	-	-	-	-	-	4	2	-	23
영양크림류	-	-	-	5	-	9	-	3	-	-	-	1	-	-	1	-	-	1	-	20
치약	-	-	-	-	-	1	-	3	1	-	-	-	-	-	-	-	-	-	2	7
탈모제	-	1	-	1	-	1	-	2	-	-	-	-	-	-	-	-	-	-	-	5
파마약	-	-	-	1	-	-	-	1	-	-	-	-	-	-	-	-	-	-	-	2
팩류	-	-	-	1	-	-	-	2	-	-	-	-	-	-	-	-	-	-	1	4
향수	-	-	-	4	-	2	-	4	2	-	-	-	-	1	-	1	1	2	1	18
헤어크림	-	-	-	1	-	-	-	1	-	-	-	-	-	-	1	-	-	-	-	3
화장비누	-	-	-	1	-	-	-	1	-	-	-	-	-	1	-	-	-	-	-	3
화장수류	-	-	-	2	-	-	-	2	-	-	-	-	-	-	-	-	-	-	1	5
화장품세트	2	9	-	60	1	77	2	53	1	9	-	3	-	3	-	-	7	-	1	228
총합계	7	25	4	223	5	200	8	190	9	54	1	8	2	10	3	1	30	14	15	809

<8월 화장품 관련 상담사례>

○ 파운데이션 사용 후 입술과 손등 두드러기 발생

7월8일 롯데백화점에서 에스테로더 파운데이션을 구입. 사용 후 입술과 손등이 피부 두드러기가 생김. 처음에는 화장품 트러블 인줄 모르고 사용을 안 하다가 다시 사용을 하니 손등과 입가에 두드러기가 남. 병원 측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함. 업체 측에서는 병원 측에서 구입한 화장품 때문에 트러블이 났다는 서류상에 입증이 기재 되어야 한다고 함. 소비자는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업체 측에서 반품을 안 해줄까 걱정이 된다고 함.

○ 전화권유 판매 구입한 화장품 반품방법 문의

7/30일에 전화로 화장품을 권유를 했고 샘플만 준다고 했는데 본품까지 배송이 되었다고 함. 샘플은 사용을 했는데 반품 하려고 전화를 하니 업체에서는 전화를 안받고 있다고 함. 반품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

○ 면봉형태 필링 제품 부작용

인터넷으로 화장품 얼굴 필링 하는 제품인데 면봉으로 나옴. 화장품을 뭍 혀서 닦아냄. CJ 오쇼핑 무료 체험분이 부작용이 있었음. 본 품은 반품을 해 달라고 하니 반품이 안 됨. 7/27일 배송 받고 8/3일에 반품 요청함.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 보겠다고 함.

○ 화장품 부작용 발생

10일전에 NS홈쇼핑에서 참존 화장품을 구입함 (99,000만원) 이틀 사용 후 부터 얼굴에 부작용이 발생됨. 피부과 진단서를 요구 하는데 진단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문의

○ 샴푸 사용 후 탈모 발생.

2015년 5월 신청인이 샴푸를 구입을 함. 행복한 세상 머리앤 샴푸를 15000원 구입하고 사용함. 탈모가 여러군데 발생을 함.중소기업 업체 샴푸로 업체 측으로 이의제기 함. 전회를 회피하고 연결도 안시켜주고 함.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함. 남은 제품 검사라도 해서 이의제기 하고자 함. 8월 24일 재상담. 업체가 전문의 소견서 첨부를 하라고 함. 처음에는 보험이다 뭐다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녹취는 안 해둠. 이 건으로 언쟁을 함. 보상을 받던지 아니면 업체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 향수용기 불량 환불 요청

수입 향수를 사용하고 있다. 분무식 향수였으나 캡이 빠져서 조금 세게 누르니 분무 빨대가 빠졌다. 100ml짜리 용량의 1/3이 남아있는 상태라 판매점에 가져가니 수리불가하나 사용이 너무 많이 된 상태라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 함. 분무 캡이 너무 약해서 발생한 일이라 생각되어 환불가능한지 문의함.

○ 9월 화장품 품목별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가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문의/상담이 151건, 136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42건, 품질 136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상담이유(9월)

구분	AS불만	가격、요금	거래관행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단순문의、상담	무능력자계약	법、제도	부당채권추심	부당행위	안전(제품/시설)	약관	이자、수수료	청약철회	표시、광고	품질(물품/용역)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2	5	12	25	67	80	1	2	-	30	8	4	5	135	7	64	447
립스틱	-	-	-	-	-	-	-	-	-	-	-	-	-	2		1	3
맛사지류	1	-	1	-	3	4	-	-	-	-	1	-	-	2	-	1	13
목욕용오일	-	-	-	-	-	-	-	-	-	-	-	-	-	-	-	1	1
바디클렌저	1	-	-	-	-	-	-	-	-	-	-	-	-	-	-	1	2
발모제	-	-	-	2	2	-	-	-	-	-	-	-	-	-	-	1	5
보건위생용품기타	-	-	-	1	-	1	-	-	-	-	-	-	-	-	-		2
보건위생용품세트	-	-	-	-	-	-	-	-	-	-	-	-	-	-	-	1	1
샴푸	-	-	-	1	5	1	-	-	-	-	1	-	-	3	1	11	23
선탠.선스크린 화장품	-	-	-	2	-	2	-	-	-	-	-	-	-	-	-	1	5
세안류	-	-	-	-	-	-	-	-	-	-	-	-	-	-	-	1	1
아이라이너	-	-	-	-	-	-	-	-	-	-	-	-	-	-	1		1
어린이용화장품	-	-	-	-	-	-	-	-	-	-	-	-	-	1	-	2	3
염색제	-	1	1	4	3	4	-	-	-	1	1	-	-	-	-	12	27
영양오일류	-	-	-	-	1	1	-	-	-	1	-	-	-	-	-	1	4
영양크림류	-	-	-	3	1	4	-	2	-	3	2	-	1	14	-	2	32
치약	-	-	-	-	-	3	-	-	-	1	-	-	-	-	-	4	8
탈모제	-	-	-	-	-	1	-	-	-	-	-	-	-	-	-	1	2
파마약	-	-	-	-	-	-	-	-	-	-	-	-	-	-	-	1	1
파우더	-	-	-	-	-	-	-	-	-	-	-	-	-	-	-	1	1
파운데이션	-	-	-	1	-	-	-	-	-	-	-	-	-	1	-	1	3
팩류	-	1	-	1	-	1	-	-	-	1	-	-	-	-	-	1	5
향수	-	1	1	1	1	6	-	-	-	1	-	-	-	2	-	5	18
헤어린스	-	-	-	1	-	-	-	-	-	1	-	-	-	-	-	2	4
헤어크림	-	-	-	-	1	-	-	-	-	-	-	-	-	-	-		1
화장비누	-	-	-	-	-	2	-	-	-	-	-	-	-	2	-	1	5
화장수류	-	1	-	-	-	-	-	-	-	1	-	-	-	1	-	1	4
화장품세트	1	1	6	10	58	41	1	3	1	13	4	3	2	84	1	18	247
총합계	5	10	21	52	142	151	2	7	1	53	17	7	8	247	10	136	869

○ 9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 244건, 법·제도설명 225건, 분쟁해결기준 설명 194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처리결과(9월)

구분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상품정보제공	수리보수	시장정보제공	자율분쟁이관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3	7	-	142	2	104	2	102	10	32	1	9	-	5	1	2	2	5	8	10	447
립스틱	-	-	-	-	-	1	-	1	-	-	-	-	-	-	-	-	-	-	1	-	3
맛사지류	-	1	-	3	-	2	-	2	-	2	-	-	-	-	-	-	-	2	-	1	13
목욕용오일	-	-	-	-	-	-	-	1	-	-	-	-	-	-	-	-	-	-	-	-	1
바디클렌저	-	-	-	-	-	-	-	1	-	-	-	-	-	-	-	-	-	1	-	-	2
발모제	-	-	-	1	-	3	-	-	-	1	-	-	-	-	-	-	-	-	-	-	5
보건위생용품기타	-	-	-	2	-	-	-	-	-	-	-	-	-	-	-	-	-	-	-	-	2
보건위생용품세트	-	-	-	-	-	-	-	1	-	-	-	-	-	-	-	-	-	-	-	-	1
샴푸	1			9	-	1	-	11	-	-	-	1	-	-	-	-	-	-	-	-	23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3	-	1	-	-	-	-	-	-	-	-	1	-	-	-	-	-	5
세안류	-	-	-	-	-	-	-	1	-	-	-	-	-	-	-	-	-	-	-	-	1
아이라이너	-	-	-	-	-	-	-	-	-	-	-	-	-	-	-	-	-	-	-	1	1
어린이용화장품	-	-	-	-	-	1	-	2	-	-	-	-	-	-	-	-	-	-	-	-	3
염색제	3	-	-	12	1	1	1	3	1	-	-	1	-	1	-	-	-	1	-	2	27
영양오일류	-	-	-	1	-	2	-	-	-	-	-	-	-	-	-	1	-	-	-	-	4
영양크림류	-	2	-	5	-	12	-	6	-	2	-	1	-	1	1	-	-	2	-	-	32
치약	-	-	1	2	-	-	1	2	-	2	-	-	-	-	-	-	-	-	-	-	8
탈모제	-	-	-	1	-	-	-	-	-	1	-	-	-	-	-	-	-	-	-	-	2
파마약	-	-	-	-	-	-	-	1	-	-	-	-	-	-	-	-	-	-	-	-	1
파우더	-	-	-	-	-	-	-	1	-	-	-	-	-	-	-	-	-	-	-	-	1
파운데이션	-	-	-	-	-	-	-	1	-	1	-	1	-	-	-	-	-	-	-	-	3
팩류	-	-	-	1	1	1	-	1	-	-	-	-	-	-	-	-	-	1	-	-	5
향수	-	-	1	4	-	1	-	5	1	2	-	-	-	-	-	-	-	3	1	-	18
헤어린스	-	-	-	1	-	-	-	3	-	-	-	-	-	-	-	-	-	-	-	-	4
헤어크림	-	-	-	-	-	-	-	-	-	-	-	1	-	-	-	-	-	-	-	-	1
화장비누	-	-	-	2	1	1	-	1	-	-	-	-	-	-	-	-	-	-	-	-	5
화장수류	-	-	-	-	-	2	-	-	-	1	-	-	-	-	-	-	-	-	1	-	4
화장품세트	1	7	-	55	-	92	2	48	1	17	1	1	1	1	4	1	-	10	2	3	247
총합계	8	17	2	244	5	225	6	194	13	61	2	15	1	8	7	4	2	25	13	17	869

<9월 화장품 관련 상담사례>

○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교환문의

소비자는 GS샵에서 작년에 에센스를 구매. 비타민 에센스 작년 6월에 구매 후 8월에 임신하여 사용못함.2017년도 까지 쓸 수 있다고 하였음. 쓰려고 개봉을 하니 하얀색에서 노랗게 색이 변하였음. 바르니 발리지 않고 밀려나고 얼굴도 부작용발생. 결제를 할때 개봉안하고 유통기한 안으로 사용하면 상관없다 하였고, 제품도 서늘한 곳에 두어 관리부주의도 아님. 업체 측으로 사용 안한 것이라도 교환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기간이 지나서 무조건 불가하다고 함. 유통기한 남은 상태에서 쓴것인데 너무 억울한 사항임. 한번 쓴 제품이아니라 임신 전에 계속 사용했었던 제품 이였음.

○ 판매가가 잘못 안내 된 화장품의 차액문의

어썸판도라 라는 네이버 블로그 판매자에게 수입 화장품 구매. 수입이라 정확한 가격도 모르고 처음에는 15만원이라고 함. 유니크로 결재 사이트 가보니, 가격이 11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다시 금액확인요청을 하니, 원래 금액이 1만 5천원인데, 배송비와 카드수수료포함해서 그렇다고 해서 결재를 함. 며칠뒤에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추가 금액을 요구함. 4만 5천원. 거듭 확인하고 결재 한것인데, 계속 금액이 왔다갔다 안내를 하여, 전화를 안 받았더니, 회사로 전화하겠다고 하고 사기친 것 처럼 사과를 받겠다고 함.

○ 미백치약사용후부작용

홈쇼핑에서 미백 치약을 15일 무료 체험 해 본 후 구입하라고 하여 박스 채 받고 그냥 사용을 해보니 도리어 이빨이 색이 변하여 판매처에 연락을 하니 2, 샘플이 아닌 본 품을 사용 하였다고 본품 값 부담 하라고 하는데 어떤 소비자가 물건 받을 때 상세 확인을 하느냐 보낸 물품이 샘플인지 알고 사용을 한 것 인데 그 물품이 샘플이 아니라서 대금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본다. 사용한 물품 대금 부담 하여야 하는지

○ 파우더 사용하고 부작용 발생하여 환불 외 치료비 배상방법 문의

소비자는 9/3일, GS홈쇼핑에서 메이크업 헬퍼에서 판매하는 팩트를 15,000원에 구입했다. 배송 받아 금요일과 토요일 2일간 사용 후, 부작용으로 얼굴이 가렵고 여드름이 나서 업체에 항의하여 환불을 받기로 했다. 피부과를 다녀오기는 했으나 의사가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소견서를 못써준다고 하여 소견서는 받지를 못했는데 치료비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 1주일간 눈썹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타투 아이라이너 허위광고로 반품 요구

소비자는 9/7일, NS홈쇼핑에서 타투 아이라이너 6개 7,000원에 구입했다.1주일간 지워지지 않는다는 광고를 보고 구입해서 사용 중인데 하루 만에 지워졌다. 업체에 항의하자, 1주일 동안 세수를 하지 않아야 지속된다고 한다. 그중 눈썹에 관계되는 한개만 개봉하고 사용했다. 업체에 알리고 허위사실을 광고 하고 판매한 타투 아이라이너의 반품 요구한다.

○ 10월 화장품 품목별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가 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74건, 품질(물품/용역) 171건, 단순문의/상담이 133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상담이유(10월)

구분	AS불만	가격。요금	거래관행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단순문의。상담	무능력자계약	법。제도	부당행위	안전(제품/시설)	약관	이자。수수료	청약철회	표시。광고	품질(물품/용역)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3	4	11	36	78	73	3	-	22	15	4	2	120	3	75	449
립스틱	-	-	-	2	-	1	-	-	-	-	-	-	1	-	-	4
마스카라	-	-	-	-	-	-	-	-	-	-	-	-	1	-	-	1
맛사지류	-	-	-	2	5	7	-	-	2	-	-	-	1	-	1	18
메니큐어	-	-	-	1	-	1	-	-	-	-	-	-	-	-		2
바디클렌저	-	-	-	-	-	-	-	-	1	2	-	-	-	-	1	4
발모제	-	-	-	-	-	-	-	-	-	-	-	-	-	-	2	2
보건위생용품기타	-	1	-	1	-	-	-	1	-	1	-	-	-	1	4	9
보건위생용품세트	-	-	-	1	-	-	-	-	-	-	-	1	-	1	-	3
샴푸	-	-	-	1	4	2	-	-	1	-	-	-	4	3	8	23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3	2	-	-	-	1	-	-	-	-	-	2	8
아이라이너	-	-	-	1	-	-	-	-	1	-	-	-	-	-	-	2
어린이용화장품	-	-	-	-	1	-	-	-	-	-	-	-	-	-	1	2
염색제	-	-	1	7	6	6	-	-	1	3	1	-	5	3	19	52
영양오일류	-	-	-	-	1	-	-	-	-	-	-	-	-	-	-	1
영양크림류	-	-	2	-	3	4	1	-	4	-	-	-	18	-	5	37
치약	-	-	-	-	2	-	-	-	-	-	-	-	1	1	2	6
탈모제	-	-	-	2	3	1	-	-	-	-	-	-	-	-	2	8
파마약	-	-	-	-	-	-	-	-	-	-	-	-	-	-	2	2
팩류	-	-	-	1	1	2	-	-	-	-	-	-	-	-	3	7
향수	-	-	-	2	1	3	-	-	-	-	-	-	3	1	10	20
헤어린스	-	-	-	-	-	-	-	-	-	1	-	-	-	-	3	4
헤어스프레이	-	-	-	-	-	-	-	-	-	-	-	-	1	-	1	2
헤어크림	-	-	-	1	-	-	-	-	-	-	-	-	-	-	2	3
화장비누	-	-	-	2	-	-	-	-	-	-	1	-	-	-	1	4
화장수류	-	-	-	1	-	-	-	-	1	-	-	-	1	-	1	4
화장품세트	-	5	2	9	67	33	1	-	13	4	3	4	80	1	26	248
총합계	3	10	16	73	174	133	5	1	47	26	9	7	236	14	171	925

○ 10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 248건, 법・제도설명 219건, 분쟁해결기준 설명 217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처리결과(10월)

구분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 소비자상담처리	상품정보제공	수리보수	시장정보제공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5	10	2	138	2	103	6	94	5	41	1	8	1	2	2	2	8	13	6	449
립스틱	-	-	-	1	-	-	-	1	1	-	-	-	-	-	-	-	-	-	1	4
마스카라	-	-	-	-	-	-	-	1	-	-	-	-	-	-	-	-	-	-	-	1
맛사지류	-	-	-	7	-	1	1	8	-	1	-	-	-	-	-	-	-	-	-	18
메니큐어	1	-	-	1	-	-	-	-	-	-	-	-	-	-	-	-	-	-	-	2
바디클렌저	-	-	-	1	-	-	-	3	-	-	-	-	-	-	-	-	-	-	-	4
발모제	-	-	-	-	-	1	-	1	-	-	-	-	-	-	-	-	-	-	-	2
보건위생용품기타	-	-	1	-	-	2	-	3	-	1	-	-	-	-	-	-	1	-	1	9
보건위생용품세트	-	-	-	-	-	1	-	2	-	-	-	-	-	-	-	-	-	-	-	3
샴푸	-	-	-	11	1	1	-	6	-	2	-	2	-	-	-	-	-	-	-	23
선탠.선스크린화장품	3	-	-	1	-	-	-	2	-	-	-	1	-	-	-	-	-	-	1	8
아이라이너	-	1	-	1	-	-	-	-	-	-	-	-	-	-	-	-	-	-	-	2
어린이용화장품	-	-	-	-	-	-	-	-	-	-	-	-	-	-	-	-	-	2	-	2
염색제	3	2	-	10	-	4	2	16	2	2	-	3	-	-	1		3	1	3	52
영양오일류	-	-	-	-	1	-	-	-	-	-	-	-	-	-	-	-	-	-	-	1
영양크림류	-	1	-	9	-	20	-	3	-	-	-	3	-	-	-	-	-	-	1	37
치약	-	1	-	-	-	2	-	2	-	1	-	-	-	-	-	-	-	-	-	6
탈모제	-	-	-	1	-	4	-	1	-	-	-	-	-	-	-	-	1	-	1	8
파마약	-	-	-		-		-		-	-	-	1	-	-	-	1	-	-	-	2
팩류	-	1	-	2	-	3	-	1	-	-	-		-	-	-	-	-	-	-	7
향수	2	-	1	4	-	3	-	4	1	2	-	-	1	-	-	-	-	-	2	20
헤어린스	-	-	-	2	-	-	-	-	1	1	-	-	-	-	-	-	-	-	-	4
헤어스프레이	-	-	-	-	-	-	-	2	-	-	-	-	-	-	-	-	-	-	-	2
헤어크림	1	-	-	-	-	-	-	2	-	-	-	-	-	-	-	-	-	-	-	3
화장비누	-	-	-	1	-	1	-	1	-	-	-	-	-	-	-	-	-	1	-	4
화장수류	-	-	-	1	-	1	-	2	-	-	-	-	-	-	-	-	-	-	-	4
화장품세트	3	6	1	57	-	72	1	62	3	23	-	2	1	-	-	1	9	1	6	248
총합계	18	22	5	248	4	219	10	217	13	74	1	20	3	2	3	4	22	18	22	925

<10월 화장품 관련 상담사례>

○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심함

소비자는 2015년 2월 시크릿 다이렉트 화장품 구입함. 화장품세트 2000,000원 카드 10개월 할부. 현재 완납한 상태로 사용 중 피부 트러블 일어남. 지인으로 방문판매로 구입함. 업체에 연락해 사용하지 않은 제품 환불 요구하니 3개월 지난 것은 환불 대상 어렵다고 함. 지인도 피부트러블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함.

○ 염색약 사용 후 부작용

소비자는 염색방에서 머리 염색을 함. 염색을 하고나서 얼굴에 흑핀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염색방에서는 염색약회사와 연결을 해줌. 회사에서는 그럴 만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함.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10월 29일 본사에서 연락하여 소비자는 의사의 진단서에 명시된 20회 치료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5회분만 인정하겠다고 함. 다시 본사에 올려 10회까지는 올려보겠다고 하나 소비자는 20회의 치료를 원함.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가.

○ 화장품 부작용인 경우 배상기준 문의

소비자는 2주전에 온라인으로 프렌코즈 화장품을 구매함. 사용했는데 피부 트러블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되어 업체에 문의하니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병원 내방함. 소견서와 영수증 제출을 하였으나 원래 제품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나 도의상으로 제품은 환불하며 치료비 배상은 불가하다고 함. 관련 규정에 대해서 문의함.

○ 광고와 다른 효과, 반품 요청

소비자는 아임 홈쇼핑(080-815-7777) 이용하여 염색약 구입함. 방송 광고 시 '자연스럽고, 비가와도 번지지 않음. 일시 염색 커버, 부드러움 광고'의 내용이 있었으며, 구입함, 사용 시 방송 광고와 다름. 홈쇼핑업체에 사용 물품 제외한 잔여 물품 반품 요청함. 업체 반품 거부함.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함.

○ 11월 화장품 품목별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가 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57건, 품질(물품/용역) 148건, 단순문의/상담이 189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상담이유(11월)

구분	AS불만	가격、요금	거래관행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단순문의、상담	무능력자계약	법、제도	부당채권추심	부당행위	안전(제품/시설)	약관	이자、수수료	청약철회	표시、광고	품질(물품/용역)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	7	11	41	76	106	1	1	1	37	11	-	2	156	8	65	524
립스틱	-	-	-	2	-	-	-	-	-	-	-	-	-	-	-	1	3
마스카라	-	-	-	-	1	-	-	-	-	-	-	-	-	-	-	1	2
맛사지류	-	1	2	2	8	1	-	-	-	-	-	-	-	3	-	1	18
메니큐어	-	-	-	-	-	-	-	-	-	-	-	-	-	-	-	1	1
메이크업베이스	-	-	-	1	-	-	-	-	-	-	-	-	-	-	-	-	1
면도용크림	-	-	-	-	-	-	-	-	-	-	1	-	-	-	-	-	1
목욕용오일	-	-	-	-	1	-	-	-	-	-	-	-	-	-	-	-	1
바디클렌저	-	1	-	-	2	-	-	-	-	-	-	-	-	1	-	-	4
발모제	-	-	-	-	1	1	-	-	-	-	-	-	-	-	-	-	2
보건위생용품기타	-	-	1	4	-	1	-	-	-	-	-	-	-	2	1	2	11
보건위생용품세트	-	-	-	1	-	-	-	-	-	-	-	-	-	-	1	-	2
샴푸	-	1	-	2	4	6	-	-	-	-	2	-	-	1	-	4	20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	-	1	-	-	-	-	-	-	-	-	-	4	5
아이라이너	-	-	-	-	-	-	-	-	-	-	-	-	-	-	-	1	1
어린이용화장품	-	-	-	-	-	1	-	-	-	1	-	-	-	-	-	4	6
염색제	-	1	-	2	1	1	-	-	-	1	1	-	1	1	-	9	18
영양오일류	-	-	-	-	1	1	-	-	-	-	-	-	-	2	-	-	4
영양크림류	-	-	-	2	1	3	-	-	-	1	1	-	-	28	-	7	43
치약	-	-	-	1	-	3	-	-	-	-	-	-	-	3	1	-	8
탈모제	-	-	-	-	-	-	-	-	-	-	-	-	-	-	-	1	1
파마약	-	-	-	-	-	-	-	-	-	-	-	-	-	-	-	1	1
파운데이션	-	-	-	-	-	-	-	1	-	-	-	-	-	1	-	-	2
팩류	-	-	-	-	-	-	-	-	-	-	-	-	-	-	-	2	2
향수	-	-	-	2	1	2	-	1	-	1	-	-	-	3	-	3	13
헤어스프레이	-	-	-	-	1	-	-	-	-	-	3	-	-	-	-	1	5
헤어크림	-	-	-	-	-	-	-	-	-	-	-	-	-	-	-	3	3
화장비누	-	-	-	1	-	3	-	-	-	1	1	-	-	1	-	1	8
화장수류	-	-	-	-	-	1	-	-	-	-	-	-	-	-	-	-	1
화장품세트	1	2	4	8	59	58	1	3	-	3	4	2	10	96	1	36	288
총합계	2	13	18	69	157	189	2	6	1	45	24	2	13	298	12	148	999

○ 11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 278건, 분쟁해결기준 설명 257건, 법·제도설명 223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처리결과(11월)

구분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상품정보제공	수리보수	시장정보제공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6	11	5	161	2	108	3	129	3	46	15	1	4	1	1	1	9	7	11	524
립스틱	-	-	1	-	-	-	-	2	-	-	-	-	-	-	-	-	-	-	-	3
마스카라	-	-	-	1	-	1	-	-	-	-	-	-	-	-	-	-	-	-	-	2
맛사지류	1	-	-	4	-	1	-	8	-	1	1	-	-	-	-	-	1	-	1	18
메니큐어	-	-	-	-	-	1	-	-	-	-	-	-	-	-	-	-	-	-	-	1
메이크업베이스	-	-	-	-	-	-	-	1	-	-	-	-	-	-	-	-	-	-	-	1
면도용크림	-	-	-	-	-	-	-	1	-	-	-	-	-	-	-	-	-	-	-	1
목욕용오일	-	-	-	-	-	-	-	-	-	-	-	-	1	-	-	-	-	-	-	1
바디클렌저	-	-	-	3	-	-	-	-	-	-	1	-	-	-	-	-	-	-	-	4
발모제	-	-	-	1	-	-	-	-	-	1	-	-	-	-	-	-	-	-	-	2
보건위생용품기타	-	-	-	2	-	5	-	1	-	-	-	-	1	-	-	-	1	1	-	11
보건위생용품세트	1	-	-	1	-	-	-	-	-	-	-	-	-	-	-	-	-	-	-	2
샴푸	-	-	-	6	-	3	-	2	2	2	-	-	1	-	-	1	-	2	1	20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	-	-	-	3	-	1	1	-	-	-	-	-	-	-	-	5
아이라이너	-	-	-	-	-	-	-	-	-	-	-	-	-	-	1	-	-	-	-	1
어린이용화장품	-	-	-	2	-	1	-	2	-	1	-	-	-	-	-	-	-	-	-	6
염색제	-	-	-	3	2	1	-	4	1	3	-	-	-	-	-	-	2	1	1	18
영양오일류	-	-	-	1	-	1	-	1	-	-	-	-	1	-	-	-	-	-	-	4
영양크림류	1	1	-	5	-	23	-	8	-	1	3	-	-	-	-	-	-	-	1	43
치약	1	-	-	3	-	-	-	2	-	1	-	-	-	-	-	-	-	-	1	8
탈모제	-	-	-		-	1	-	-	-	-	-	-	-	-	-	-	-	-	-	1
파마약	-	-	-	1	-	-	-	-	-	-	-	-	-	-	-	-	-	-	-	1
파운데이션	-	-	-		-	-	-	2	-	-	-	-	-	-	-	-	-	-	-	2
팩류	-	-	-	1	-	-	-	1	-	-	-	-	-	-	-	-	-	-	-	2
향수	-	-	-	4	-	1	-	5	-	1	-	-	-	-	-	-	1	1	-	13
헤어스프레이	-	-	-	1	-	-	-	3	-	1	-	-	-	-	-	-	-	-	-	5
헤어크림	-	-	-	1	-	-	-	1	-	-	1	-	-	-	-	-	-	-	-	3
화장비누	-	-	-	3	-	1	1	2	1	-	-	-	-	-	-	-	-	-	-	8
화장수류	-	-	-	1	-	-	-	-	-	-	-	-	-	-	-	-	-	-	-	1
화장품세트	2	16	1	73	1	75	-	79	3	14	6	1	1	1	1	-	8	1	5	288
총합계	12	28	7	278	5	223	4	257	10	73	28	2	9	2	3	2	22	13	21	999

<11월 화장품 관련 상담사례>

○ 검은 반점이 생기는 크림 판매중지 문의

소비자는 2015. 10월 중순경 신문, tv 광고를 보고 도미나크림을 구매함. 사용 후 검은 반점이 생김 업체에 전화하였고,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이전부터 있었지 않았는지 등 질문을 받음. 의사소견서 있을시 보험처리 안내하였으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함. 소비자는 배상 요구조건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판매중지 하기를 요청함.

○ 현대홈쇼핑에서 구입한 화장품 부작용으로 환불문의

소비자는 11월 9일 현대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구입함. 기미방지 화장품으로 카미안느 루미너스 바이탈 더블유커버케어 솔루션임. 얼굴이 화끈거리고 간지럽고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음. 제품 3개와 사은품으로 크림과 클렌징제품이 왔는데 제품 1개와 사은품을 사용함. 개봉 안한 제품만 환불해 준다고 함.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 화장품 유통기간 변조 부당하여 문의

소비자는 2015년 5월 19일 방문판매 화장품 사업자로 등록하고 화장품을 구매함, 제품을 몇 세트 구입하여 일부 출고가 안 되었고 일부제품은 유통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 11월에 물건을 일괄적으로 받으라고 업체에서 말하는데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18개월 유통기간을 30개월로 다시 스티커 작업하여 붙여서 주는데 이는 부당한 하다고 생각함. 이런 경우 반품이나 교환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함.

○ 수분크림에서 유리조각 혼입되어 혼입 규명, 보상에 대한 해결

소비자는 11월 3일 저녁 수분크림 (수려한 효 수분멀티크림 150ml) 사용 중에 유리조각 혼입된 것을 확인함. 구입 직후 사용 시에도 이물질 확인 되었으나 신경 쓰지 않은 상태에서 11월 3일 동일 이물질인 유리조각 발견함. 유리조각 혼입에 대한 규명, 보상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함.

○ 홈쇼핑에서 산 화장품에 이물질이 들어있어 문의함

소비자는 1년 전 GS홈쇼핑에서 일동제약에서 제조한 앰플 화장품을 구입함. 사용하지 않다가 사용하려고 봤더니 화장품 내에 물고기 똥 같은 물질이 둥둥 떠다니며 색이 갈변되어 있음. 유통기한은 2017년임. 홈쇼핑 회사와 제조회사에 연락해봤더니 전량 회수하여 시험검사 하겠다고 함. 소비자는 업체의 시험결과를 믿을 수가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함.

○ 12월 화장품 품목별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65건, 품질(물품/용역) 155건, 단순문의/상담이 142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상담이유(12월)

구분	AS불만	가격、요금	거래관행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단순문의、상담	무능력자계약	법、제도	부당행위	안전(제품/시설)	약관	이자、수수료	청약철회	표시、광고	품질(물품/용역)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3	6	15	30	86	65	2	3	25	17	-	-	159	8	79	498
립스틱	-	-	-	1	-	-	-	-	-	-	-	-	-	-	1	2
마스카라	-	-	-	-	1	-	-	-	-	-	-	-	-	-	1	2
맛사지류	-	-	-	2	7	2	-	-	-	1	-	-	1	-	-	13
목욕용오일	-	-	-	-	-	-	-	1	-	-	-	-	-	-	-	1
바디클렌저	-	-	-	1	-	-	-	-	-	-	-	-	1	-	2	4
발모제	-	-	-	-	2	-	-	-	-	-	-	-	-	-	2	4
보건위생용품기타	-	-	-	-	1	1	-	-	-	-	-	-	-	-	3	5
보건위생용품세트	-	-	-	-	1	-	-	-	-	-	-	-	-	-	-	1
샴푸	-	-	-	4	5	2	-	-	1	-	1	-	1	-	6	20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	-	-	-	-	-	-	-	-	-	-	1	1
세안류	-	-	-	-	-	-	-	-	-	1	-	-	-	-	-	1
아이라이너	-	-	-	-	-	-	-	-	-	1	-	-	1	-	2	4
어린이용화장품	-	-	-	-	-	-	-	-	1	-	-	-	-	-	2	3
염색제	-	-	1	3	1	3	-	-	-	3	-	-	-	-	7	18
영양오일류	-	-	-	-	-	1	-	-	-	-	-	-	-	-	1	2
영양크림류	-	1	-	3	6	4	-	-	-	-	-	-	17	1	4	36
치약	-	-	-	-	-	-	-	-	-	-	-	-	1	-	3	4
탈모제	-	-	-	-	-	-	-	-	-	-	-	-	1	-	1	2
파마약	-	-	-	-	-	-	-	-	-	-	-	-	-	-	1	1
파우더	-	-	-	1	-	-	-	-	-	-	-	-	-	-		1
파운데이션	-	-	-	-	-	1	-	-	-	-	-	-	-	-	1	2
팩류	-	-	-	1	-	-	-	-	-	1	-	-	-	-	3	5
향수	-	-	-	4	2	4	-	-	2	-	-	-	3	-	3	18
헤어린스	-	-	-	-	-	-	-	-	-	-	-	-	-	-	1	1
헤어스프레이	-	-	-	-	-	2	-	-	-	-	-	-	-	-	1	3
헤어크림	-	-	-	-	1	1	-	-	-	-	-	-	1	-	2	5
화장비누	-	-	1	-	1	1	-	-	-	-	-	-	-	-	-	3
화장수류	-	-	1	1	-	-	-	-	-	-	-	-	1	-	1	4
화장품세트	-	1	6	12	51	55	2	3	9	4	2	2	88	1	27	263
총합계	3	8	24	63	165	142	4	7	38	28	3	2	275	10	155	927

○ 12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분쟁해결기준 설명 247건, 기타정보제공 243건, 법·제도설명 209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처리결과(12월)

구분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 소비자상담처리	상품정보제공	시장정보제공	이관완료(피해처리후)	자율분쟁이관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7	14	1	135	-	106	4	137	6	37	11	1	1	4	3	3	2	11	3	12	498
립스틱	-	-	-	1	-	-	-	1	-	-	-	-	-	-	-	-	-	-	-	-	2
마스카라	-	-	-	1	-	-	-	1	-	-	-	-	-	-	-	-	-	-	-	-	2
맛사지류	-	-	-	6	-	1	-	5	-	-	-	-	-	-	-	-	-	-	1	-	13
목욕용오일	-	-	-	1	-	-	-	-	-	-	-	-	-	-	-	-	-	-	-	-	1
바디클렌저	-	-	-	3	-	-	-	1	-	-	-	-	-	-	-	-	-	-	-	-	4
발모제	-	-	-	3	-	-	-	1	-	-	-	-	-	-	-	-	-	-	-	-	4
보건위생용품기타	-	-	-	3	-	-	-	1	-	-	-	-	-	-	-	-	-	-	-	1	5
보건위생용품세트	-	-	-	-	-	-	-	-	-	-	-	-	-	-	-	1	-	-	-	-	1
샴푸	-	-	-	5	-	1	-	6	1	1	1	-	-	-	-	-	-	-	3	2	20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	-	-	-	-	1	-	-	-	-	-	-	-	-	-	-	-	-	1
세안류	-	-	-	-	-	1	-	-	-	-	-	-	-	-	-	-	-	-	-	-	1
아이라이너	-	-	-	-	-	1	-	2	-	1	-	-	-	-	-	-	-	-	-	-	4
어린이용화장품	-	-	-	1	-	-	-	2	-	-	-	-	-	-	-	-	-	-	-	-	3
염색제	1	-	-	3	-	1	-	7	-	3	-	-	-	1	1	1	-	-	-	-	18
영양오일류	-	-	-	2	-	-	-	-	-	-	-	-	-	-	-	-	-	-	-	-	2
영양크림류	-	-	1	9	-	16	-	6	-	1	2	-	-	1	-	-	-	-	-	-	36
치약	-	-	-	1	-	2	-	-	-	1	-	-	-	-	-	-	-	-	-	-	4
탈모제	-	-	-	-	-	-	-	-	-	-	-	-	-	1	-	-	-	-	-	1	2
파마약	-	-	-	-	-	-	-	1	-	-	-	-	-	-	-	-	-	-	-	-	1
파우더	-	-	-	-	-	-	-	-	-	-	-	-	-	-	-	-	-	-	-	1	1
파운데이션	-	-	-	1	-	-	-	1	-	-	-	-	-	-	-	-	-	-	-	-	2
팩류	-	-	-	-	-	-	-	2	-	1	-	-	-	-	-	-	-	1	1	-	5
향수	-	1	-	6	1	-	-	3	1	3	-	-	-	1	-	-	-	-	2	-	18
헤어린스	-	-	-	-	-	-	-	-	-	-	1	-	-	-	-	-	-	-	-	-	1
헤어스프레이	-	-	-	-	-	1	-	2	-	-	-	-	-	-	-	-	-	-	-	-	3
헤어크림	-	1	-	2	-	1	-		-	-	-	-	-	1	-	-	-	-	-	-	5
화장비누	-	-	-	-	-	-	-	1	-	-	1	-	-	-	-	-	-	1	-	-	3
화장수류	-	-	-	-	1	1	-	2	-	-	-	-	-	-	-	-	-	-	-	-	4
화장품세트	3	13	-	60	2	77	-	64	4	23	6	-	-	1	-	1	-	5	2	2	263
총합계	11	29	2	243	4	209	4	247	12	71	22	1	1	10	4	6	2	18	12	19	927

<12월 화장품 관련 상담사례>

○ 염색약으로 피부트러블 부작용 보상문의

소비자는 쿠팡에서 천연염색약을 구매함. 2달 전 알러지가 없다고 광고하여 구매하였으나 피부트러블이 발생하여 피부과 방문하고 치료받는 중임. 쿠팡에서 염색약은 처분하라고 하여 버렸음. 염색약값은 환불 받음. 병원비 약값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지 알고 싶어 문의함.

○ 화장품 광고내용과 달라 반품 요청

소비자는 12월 3째주 홈앤쇼핑에서 화장품을 구입함. 구입 당시 페녹시 에탄올 함유 여부 확인하니 함유되어 있지 않다 하여 구입함. 수령 후 확인해보니 부분적으로 함유되어 있고 사용 시 눈이 따갑고 충혈 되며 두통 발생함. 환불 문의하니 고객센터에서는 의사의 소견서 필요하다고 함. 광고 내용과 상이하고 부작용으로 환불요청함.

○ 마스크팩 부작용

소비자는 2015년 9월에 네이쳐리퍼불릭 마스크팩을 사용하고 부작용으로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음. 소비자의 동생도 같이 사용을 했는데 동일한 부작용을 겪음. 업체에 사고접수를 하고 업체에서도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사직원도 다녀감. 보험사에서는 인과 관계을 확인해야 한다며 임상테스트를 해보자고 함. 얼굴이 아닌 등에 테스트를 했는데 반응이 미미하다고 보험사에서는 보상이 어렵다고 업체로 다시 책임을 미룸. 업체에서는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 처리되는 부분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이제까지의 치료비에서 비보험 부분은 보상을 못하겠다고함. 얼굴 때문에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외국도 나가지 못해 위약금을 물면서 항공권도 취소함. 치료비와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 화장품에서 이물질이 나옴

소비자는 스킨푸드의 가스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쿠션에 검은 금속성 가루가 보임. 업체에서는 물품을 회수한다고 함. 기능성으로 개발이 된 제품인데 사용한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올수도 있다고 생각함. 이런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 문의함.

○ 물티슈 곰팡이로 인한 건

소비자는 12월 29일 인터넷을 통해 대균 물티슈 75매 2통 21,000원에 구매를 하였다고 함. 구매한 상품 12월 30일 사용을 하고자 물티슈를 꺼내보니 곰팡이가 있다고 함. 이로 인해 제조처에 위 관련 문의를 하니 죄송하다. 라는 말과 함께 교환 또는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다른 소비자들 피해가 입지 않도록 신고를 하고자 문의함.

○ 샴푸에서 벌레가 나옴

소비자는 엘라스틴 샴푸에서 벌레가 나옴. 구매시점은 모르지만 유통기간이 2019년임. 이틀 전 새것을 개봉 하였는데 작고 조그만 벌레가 나와 문의함.

마. 소비자 불만사례 주제별 집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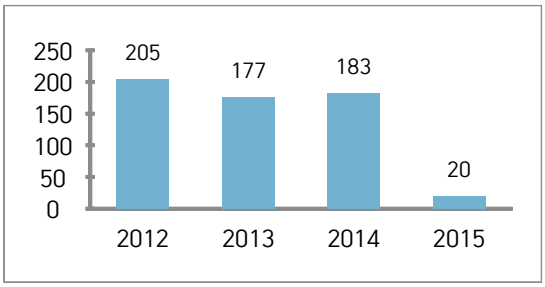
○ 소비자 불만사례 중에서 이슈가 되는 식품 사고와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실시함.

1. 한약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 2012년~2015년(1~2월) 한약 소비자불만사례 분석

○ 2012년부터 2015년(1~2월)까지 한약 소비자불만사례는 총 585건이었음. 2012년은 205건, 2013년 177건, 2014년 183건으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
2012	205
2013	177
2014	183
2015(1~2월)	20
합계	585



○ 2012년부터 2015년(1~2월)까지 한약 소비자불만사례를 구입장소 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이 267건(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여행(54건, 9.2%), 한약방(53건, 9.1%) 순으로 나타남.

구입장소	2012	2013	2014	2015(1~2월)	총합계	비율(%)
한의원	98	73	87	9	267	45.6
해외여행	20	18	13	3	54	9.2
한약방	18	24	10	1	53	9.1
한약재료	10	7	12	-	29	5.0
방문판매	6	3	11	1	21	3.6
인터넷	5	9	5	-	19	3.2
건강원	10	2	2	2	16	2.7
국내여행	5	6	3	-	14	2.4
광고지	4	4	5	-	13	2.2
약국	3	3	4	-	10	1.7
전화권유	2	3	2	-	7	1.2
한방병원	2	2	1	-	5	0.9
홈쇼핑	1	-	3	-	4	0.7
조합	1	1	1	-	3	0.5
침술원	-	2	-	-	2	0.3
다단계	1	-	-	-	1	0.2
대형마트	1	-	-	-	1	0.2
종합상사	1	-	-	-	1	0.2
지하상가	-	1	-	-	1	0.2
미기재	17	19	24	4	64	10.9
총합계	**205**	**177**	**183**	**20**	**585**	**100.0**

- 해외여행(54) : 중국, 태국, 베트남 여행에서 주로 구입
- 한약재료(29) : 경동시장, 건재상, 약령시장 등 약초, 한약재 구입
- 방문판매(21) : 집에 직접방문, 행사장, 길거리 등에서 구입
- 광고지(13) : 대부분 신문광고를 보고 구입한 경우

○ 2012년부터 2015년(1~2월)까지 한약의 소비자불만사례를 상담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172건(29.4%), 환불(81건, 13.8%), 취소(68건, 11.6%), 반품(52건, 8.9%), 배송문제(49건, 8.4%), 성분검사 44건(7.5%) 순으로 나타남.

상담사유	2012	2013	2014	2015(1~2월)	총합계	비율(%)
부작용	62	43	61	6	172	29.4
환불	25	22	31	3	81	13.8
취소	20	30	17	1	68	11.6
반품	17	14	18	3	52	8.9
배송문제	23	16	8	2	49	8.4
성분검사	16	13	13	2	44	7.5
효과없음	12	8	4	1	25	4.3
품질불량	4	5	7	-	16	2.7
가격, 요금	3	7	3	-	13	2.2
연락두절	5	5	2	-	12	2.1
불친절	3	2	1	-	6	1.0
포장불량	1	1	3	1	6	1.0
품질의심	-	1	4	1	6	1.0
이물질	2	-	3	-	5	0.9
부패	3	-	1	-	4	0.7
제조일/유통기한 미표기	1	1	2	-	4	0.7
중량미달	1	1	2	-	4	0.7
대금청구	1	1	1	-	3	0.5
주문안한 한약	1	2	-	-	3	0.5
허위광고	1	2	-	-	3	0.5
약관문의	-	1	-	-	1	0.2
채권추심	1	-	-	-	1	0.2
포장비닐 환경호르몬	1	-	-	-	1	0.2
해외여행	1	-	-	-	1	0.2
기타	1	2	2	-	5	0.9
총합계	**205**	**177**	**183**	**20**	**585**	100

- 배송문제(49) : 배송업체의 한약포장 파손 및 분실
- 성분검사(44) : 한약의 제조과정을 알 수 없어 성분검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 기타(5) : 불법/부당 판매처여부(3), 보약시음회 전화로 개인정보요구, 치료제로서의 인정여부

○ 2012년부터 2015년(1~2월)까지 한약의 소비자불만사례 상담사유 중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장소별로 살펴보면, 총 585건 중에 주로 한약을 구입하는 한의원과 한약방에서 부작용(172건, 29.4%)과 성분검사(44건,7.5%)의 소비자불만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부작용	성분검사	효과없음	품질불량	품질의심	이물질	부패	제조일,유통기한미표기
건강원	4	2	1	3	-	-	1	2
광고지	-	-	1	2	-	-	-	-
국내여행	-	2	1	1	-	-	-	-
다단계	1	-	-	-	-	-	-	-
대형마트	1	-	-	-	-	-	-	-
미기재	14	7	1	2	1	-	-	-
방문판매	8	1	-	1	1	-	-	-
약국	3	1	2	-	-	-	-	-
인터넷	-	-	1	1	-	-	-	-
전화권유	1	-	1	-	-	-	-	-
조합	1	-	1	-	-	-	-	-
종합상사	1	-	-	-	-	-	-	-
지하상가	-	-	-	-	-	-	-	-
침술원	1	-	-	-	-	-	-	-
한방병원	1	-	-	-	-	-	-	-
한약방	23	10	-	-	-	1	-	-
한약재료	5	1	2	3	1	1	-	1
한의원	101	15	14	2	3	3	3	1
해외여행	6	5	-	1	-	-	-	
홈쇼핑	1	-	-	-	-	-	-	
총합계	172	44	25	16	6	5	4	4

1) 부작용

○ 2012년부터 2015년(1~2월) 동안 구입 장소별로 부작용 건수를 살펴보면, 한의원이 101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12	2013	2014	2015(1~2월)	총합계
건강원	2	-	1	1	4
다단계	1	-	-	-	1
대형마트	1	-	-	-	1
방문판매	4	-	3	1	8
약국	1	1	1	-	3
전화권유	-	1	-	-	1
조합	1	-	-	-	1
종합상사	1	-	-	-	1
침술원	-	1	-	-	1
한방병원	-	1	-	-	1
한약방	5	11	7	-	23
한약재료	3	-	2	-	5
한의원	38	22	37	4	101
해외여행	1	2	3	-	6
홈쇼핑	-	-	1	-	1
미기재	4	4	6	-	14
총합계	**62**	**43**	**61**	**6**	**172**

○ 2012년부터 2015년(1~2월)동안 부작용의 세부 증상을 살펴보면 배탈 17건, 간수치 상승 10건, 어지러움 10건으로 나타났음.

○ 2012년에 비해 2013년도 부작용 건수는 약 20건 감소하였으나 2014년 다시 20건 소폭 상승하였음.

구분	2012	2013	2014	2015(1~2월)	총합계
배탈	3	4	9	1	17
간수치 상승	2	1	5	2	10
어지러움	4	4	2	-	10
속쓰림	3	2	4	-	9
두드러기	3	3	2	-	8
복통	2	3	3	-	8
두통	1	2	3	-	6
매스꺼움	3	-	3	-	6
피부	3	1	2	-	6
불면	2	2	1	-	5
악화	2	2	1	-	5
구토	-	1	3	-	4
병원 입원	3	1	-	-	4
가슴답답	2	1	-	-	3
급성간염	2	1	-	-	3
반점	2	-	1	-	3
변비	1	-	2	-	3
부기	1	1	1	-	3
간기능저하	2	-	-	-	2
마비	-	-	2	-	2
시력저하	1	1	-	-	2
식은땀	-	1	1	-	2
알레르기	2	-	-	-	2
체중증가	2	-	-	-	2
혈압	-	1	-	1	2
호흡곤란	2		-	-	2
고열	1	-	-	-	1
눈 건조증	-	1	-	-	1
당뇨지수	-	-	1	-	1
두근거림	-	1	-	-	1
목 통증	-	-	1	-	1
발진	-	-	1	-	1
배뇨장애	1	-	-	-	1
여드름 악화	1	-	-	-	1
위궤양	1	-	-	-	1
위염	1	-	-	-	1
이명현상	1	-	-	-	1
치질수술 후 발진	1	-	-	-	1
탈모	1	-	-	-	1
파킨슨	-	1	-	-	1
하혈	1	-	-	-	1
혈관	-	-	1	-	1
혈액수치	-	1	-	-	1
미기재	5	7	12	2	26
총합계	62	43	61	6	172

○ 2012년 장소별 부작용 세부증상

구분	가슴답답	간기능저하	간수치상승	고열	급성간염	두드러기	두통	매스꺼움	반점	배뇨장애	배탈	변비	병원입원	복통	부기	불면	속쓰림	시력저하	악화	알레르기	어지러움	여드름악화	위궤양	위염	이명현상	체중증가	치질수술후발진	탈모	피부	하혈	호흡곤란	미기재	총합계
건강원	-	-	-	-	-	-	-	-	-	-	-	-	-	-	-	-	-	-	1	-	-	-	-	-	-	1	-	-	-	-	-	-	2
다단계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1
대형마트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1
방문판매	-	-	-	1	-	-	-	-	-	-	-	1	-	-	-	-	-	-	-	1	-	-	-	-	-	-	-	-	-	-	-	1	4
약국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전화권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합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1
종합상사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1
침술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방병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약방	-	-	-	-	-	1	-	-	-	-	-	-	-	1	-	-	1	-	-	-	1	-	-	-	-	-	-	-	-	1	-	-	5
한약재료	1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1	-	3
한의원	1	1	2	-	1	2	1	3	2	1	1	-	1	1	1	2	2	1	1	-	2	1	-	1	1		1	1	3	-	1	3	38
해외여행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1
홈쇼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기재	-	1	-	-	-	-	-	-	-	-	1	-	1	-	-	-	-	-	-	-	-	-	-	-	-	-	-	-	-	-	-	1	4
총합계	2	2	2	1	2	3	1	3	2	1	3	1	3	2	1	2	3	1	2	2	4	1	1	1	1	2	1	1	3	1	2	5	62

○ 2013년 장소별 부작용 세부증상

- 2013년(43건)은 2012년(62건)에 비해 전체 부작용 건수는 19건 감소하였으나 한약방에서의 부작용 사례는 6건 증가하였음.

구분	가슴답답	간수치상승	구토	급성간염	눈건조증	두근거림	두드러기	두통	배탈	병원입원	복통	부기	불면	속쓰림	시력저하	식은땀	악화	어지러움	파킨슨	피부	혈압	혈액수치	미기재	총합계
건강원	-	-	-	-	-	-	-	-	-	-	-	-	-	-	-	-	-	-	-	-	-	-	-	-
다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대형마트	-	-	-	-	-	-	-	-	-	-	-	-	-	-	-	-	-	-	-	-	-	-	-	-
방문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약국	-	-	-	-	-	-	-	-	-	-	-	-	-	-	-	-	-	-	-	-	-	-	1	1
전화권유	-	-	-	-	-	-	1	-	-	-	-	-	-	-	-	-	-	-	-	-	-	-	-	1
조합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침술원	-	-	1	-	-	-	-	-	-	-	-	-	-	-	-	-	-	-	-	-	-	-	-	1
한방병원	-	-	-	-	-	1	-	-	-	-	-	-	-	-	-	-	-	-	-	-	-	-	-	1
한약방	-	-	-	1	-	-	-	-	2	1	1	1	2	-	-	1	1	-	-	-	-	-	1	11
한약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한의원	1	1	-	-	1		-	2	2	-	2	-	-	1	1	-	-	4	-	1	1	1	4	22
해외여행	-	-	-	-	-	-	1	-	-	-	-	-	-	1	-	-	-	-	-	-	-	-	-	2
홈쇼핑	-	-	-	-	-	-		-	-	-	-	-	-	-	-	-	-	-	-	-	-	-	-	-
미기재	-	-	-	-	-	-	1	-	-	-	-	-	-	-	-	-	1	-	1	-	-	-	1	4
총합계	1	1	1	1	1	1	3	2	4	1	3	1	2	2	1	1	2	4	1	1	1	1	7	43

○ 2014년 장소별 부작용 세부증상

구분	간수치 상승	구토	당뇨지수	두드러기	두통	마비	매스꺼움	목통증	반점	발진	배탈	변비	복통	부기	불면	속쓰림	식은땀	악화	어지러움	피부	혈관	미기재	총합계
건강원	-	-	-	-	-	-	-	-	-	-	1	-	-	-	-	-	-	-	-	-	-	-	1
다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대형마트	-	-	-	-	-	-	-	-	-	-	-	-	-	-	-	-	-	-	-	-	-	-	-
방문판매	-	-	-	-	-	2	-	-	-	-	1	-	-	-	-	-	-	-	-	-	-	-	3
약국	1	-	-	-	-	-	-	-	-	-	-	-	-	-	-	-	-	-	-	-	-	-	1
전화권유	-	-	-	-	-	-	-	-	-	-	-	-	-	-	-	-	-	-	-	-	-	-	-
조합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침술원	-	-	-	-	-	-	-	-	-	-	-	-	-	-	-	-	-	-	-	-	-	-	-
한방병원	-	-	-	-	-	-	-	-	-	-	-	-	-	-	-	-	-	-	-	-	-	-	-
한약방	-	-	-	-	-	-	1	1	-	-	-	2	-	-	-	1	-	-	-	1	-	1	7
한약재료	-	-	-	-	-	-	-	-	-	-	-	-	-	-	-	-	-	-	-	-	-	2	2
한의원	3	3	1	2	2	-	2	-	1	1	5	-	2	1	1	2	1	1	2	1	1	5	37
해외여행	-	-	-	-	-	-	-	-	-	-	-	-	1	-	-	1	-	-	-	-	-	1	3
홈쇼핑	-	-	-	-	1	-	-	-	-	-	-	-	-	-	-	-	-	-	-	-	-	-	1
미기재	1	-	-	-	-	-	-	-	-	-	2	-	-	-	-	-	-	-	-	-	-	3	6
총합계	5	3	1	2	3	2	3	1	1	1	9	2	3	1	1	4	1	1	2	2	1	12	61

○ 2015년(1~2월) 장소별 부작용 세부증상

구분	간수치 상승	배탈	혈압	미기재	총합계
건강원	-	-	1	-	1
다단계	-	-	-	-	-
대형마트	-	-	-	-	-
방문판매	-	1	-	-	1
약국	-	-	-	-	-
전화권유	-	-	-	-	-
조합	-	-	-	-	-
종합상사	-	-	-	-	-
침술원	-	-	-	-	-
한방병원	-	-	-	-	-
한약방	-	-	-	-	-
한약재료	-	-	-	-	-
한의원	2	-	-	2	4
해외여행	-	-	-	-	-
홈쇼핑	-	-	-	-	-
미기재	-	-	-	-	-
총합계	2	1	1	2	6

◇ 한약 부작용 관련 소비자불만사례

<2012년>

○ 한약 복용 후 어지러움 발생
소비자는 2011년 12월 경, 평소 허리가 아팠는데 소개로 간 한의원에서 한약을 제조하여 15만원을 지불함. 한의원에서는 3번만 먹으면 낫는다고 하여 먹었음. 한약을 3~4일 먹었는데 너무 어지러워 한의원에 전화하니, 반봉지로 먹는 양을 줄이라고 하였음. 줄여 먹었으나 계속 어지럽고 울렁증이 있어 식당에서 쓰러졌음.

○ 한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함
소비자는 충주지역의 한의원에서 약을 지었음. 약을 하루 이틀 먹고 나니 복통이 시작되면서 몸이 가렵고, 소변에 피가 나왔음. 한의원에 문의를 하니 약이 독해서 그러한 것이라며 호전 될 것이라며 5일정도 더 먹었음. 그러나 5일이 지나도 호전됨이 없어 병원에 가니 급성황달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결국 한 달 정도 입원을 했고, 이에 한의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청구 할 수 있는지 문의함.

○ 한약 복용 후 배탈이 남
소비자는 경동시장 안에 있는 한약 파는 곳에서 변비에 좋다고 하여 인도산 수입약초를 70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함. 이것을 먹고 배탈이 나서 입원까지 함.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식약청에 등록이 된 가게라고 하면서 허가를 받아 판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 한약 복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
소비자는 압구정에 있는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하여 복용함. 복용 후, 앞가슴이랑 등 뒤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피부병이 발생함. 피부가 광범위하게 빨갛게 일어나서 참을 수 없이 가려운 증상이 있음. 1주일 사이에 색소침착과 흉터가 넓은 범위로 남았음. 해당 한의원을 찾아가니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함. 해당 한의원의 한약을 먹고 일어난 것이기에 그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었는데 한의원 측에서는 조금의 치료비용도 부담할 의사가 없으며 고소하라고 함. 이러한 한의원의 태도에 더 화가 나며 상담과 해결 방법 제시를 원함.

○ 한약 복용 후 위궤양 발생
소비자는 2월 초에 이마트 은평점에서 상담을 하고 약재들을 달여 먹은 후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이 후 여러 약들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 진단은 위궤양으로 나왔고 식도도 좋지 않음.

<2013년>

○ 한약 복용 후 속 쓰림
소비자는 7월 1일 중국을 다녀오면서 한약을 구입하였음. 친구의 카드로 120만원을 결재하였음. 복용 중에 속이 쓰린 증상이 있음. 총 4박스 구입을 하였으나 현재 1박스만 복용한 상태인데 반품할 수 있는지 문의함.

○ 한약 복용 후 파킨슨 증상 의심
소비자는 3년 전에 진맥 받지 않고 한약을 배송을 받아 복용함. 주위에서 먹었던 사람이 좋다고 하였음. 3일째 먹던 날 몸이 이상하고 비틀거림. 병원에서 파킨슨병이라고 함. 병원의사는 그 한약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소비자는 그 약 때문이라고 생각함. 도움을 받을 방법 문의함.

○ 한약 복용 후 간수치 상승
소비자는 한약 복용 후 간수치가 1000까지 올라감. 병원에서 의사 진단서는 받아 놓은 상태임. 다른 사람의 피해도 막고 싶음. 한약 성분 조회도 하고 싶음.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는지 문의함.

○ 한약 복용 후 혈액수치 감소
소비자는 암을 앓고 있는 환자임. 한 달에 500만원의 한약을 먹으면 암이 치료가 된다고 하여서 한약을 먹었음. 한 달 복용 후 혈액 검사를 하였더니 오히려 혈액 수치가 더 떨어졌음.한의원으로 연락을 하니 3개월은 복용을 하여야 효과가 있다고 함. 치료도 되지 않는 약을 판매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환불 받고 싶은데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함.

<2014년>

○ 한약 복용 후 마비증상 호소
소비자는 위암수술환자이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함. 이로 인해 한약을 먹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생각에 한의사와 상담을 하였음. 소비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여 행사장에서 녹용이 들어간 한약을 350만원에 구입 함. 1개월 동안 복용을 하였는데 손과 발, 혀가 꼬이는 부작용이 발생함. 한약방이나 병원에서는 모두 부작용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

○ 한약 복용 후 변비 발생
소비자는 9월 16일 한약방에서 25일치 한약을 지었음. 45만원 3개월로 카드 결재함. 2일 복용하였는데 열도나면서 소변량도 줄고 변비가 발생함. 한의원에 전화하니 맥을 짚을 때는 소음인으로 약을 지었으나 증상을 보니 소양인인 것 같다고 함. 한약방에서는 (1) 50% 환불 (2) 새로운 약을 지어서 배송, 2가지 중에 소비자에게 선택 하라고 함. 소비자는 환불여부에 대해 문의함.

○ 한약 복용 후 당뇨지수 이상
소비자는 당뇨가 있는 상황이었고, 목 디스크가 심해 한약을 먹기로 하였음. 한의원에 방문하였고, 음용하였더니 당뇨지수가 올라갔음.

○ 한약 복용 후 목 통증 발생
소비자는 한약방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함. 한 달 분량 중에 1주일 분량을 먼저 구입함. 복용 후 목구멍이 따끔거리고 부작용이 발생한 것 같음. 이런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함.

<2015년(1~2월)>

○ 한약 복용 후 혈압 상승
소비자는 건강원에서 한약을 20만원에 구입 후 복용함. 한약에는 다슬기 약쑥 익모초를 넣었음. 복용 후.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 약을 바꿔 달라고 했는데 조금 더 주었음. 겨울에 먹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함. 그런데 혈압이 또 올랐음.

○ 한약 복용 후 간수치 상승
소비자는 2014년 10월 28일 한의원에서 한약을 16만원에 구입함. 한약을 복용하고 속이 올라왔음. 2014년 12월 28일에 병원에 입원함. 피 검사를 했는데 간 치수가 230이 넘는데, 한약이 문제인 것 같음. 이와 같은 상황에 한약을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함.

◇ 한약 성분검사 관련 소비자불만사례

2) 성분검사

○ 2012년부터 2015년(1~2월) 동안 구입 장소별로 성분검사 관련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한의원 15건, 한약방 10건으로 나타남.

구분	2012	2013	2014	2015(1~2월)	총합계
건강원	2	-	-	-	2
국내여행	1	-	1	-	2
방문판매	-	-	1	-	1
약국	-	1	-	-	1
한약방	4	5	1	-	10
한약재료	-	1	-	-	1
한의원	6	3	5	1	15
해외여행	3	-	2	-	5
미기재	-	3	3	1	7
총합계	16	13	13	2	44

<2012년>

○ 소비자는 9월 5일 한약방에 녹용을 넣은 한약을 40만원에 구입함. 한약방에서 조제된 약에서는 녹용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음. 성분이 의심스러워서 문의함.

○ 소비자 부부는 4월 경 15,000원을 내고 관광을 갔음. 사슴농장에서 녹용을 각 35만원씩 2개를 구입함. 구입한 다음날 바로 물건을 받았음.

○ 소비자는 2월경 중국 북경 여행에서 한의사가 진맥하고 알약 형태의 한약을 구입함. 가격은 3개월치에 62만원이었음. 이 한약이 안전한지 궁금함. 중금속 성분분석 등을 분석하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함.

○ 소비자는 중국 여행 시 캡슐에 담긴 한약을 구입함. 얼마 전 방송에서 중국에서 사온 한약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봄. 소비자 본인이 구입한 제품도 성분이 의심스러워져서 성분분석을 받고 싶어 문의함.

○ 소비자는 건강원에 홍삼으로 즙을 내기 위해 홍삼을 맡김. 그러나 홍삼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즙을 낸 것으로 의심됨. 성분을 분석해보고 싶음.

<2013년>

○ 소비자는 한약재로 만든 소화제를 구입함. 소비자의 지인이 수은이 들어있다며 복용을 만류함. 소비자는 정말 수은이 들어있는지 성분의뢰를 하고 싶어 문의함.

○ 소비자는 한약방에서 한약을 지어서 먹고 효과가 좋아서 다시 한약을 지었음. 이전에 먹었던 한약과 색깔도 달라 약이 달라 진 것 같아서 한약방에 문의를 하니 날씨와 기온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고 하며 이상이 없는 것이라고 함. 그러나 소비자는 몸 상태도 좋아지는 효과도 없고 오히려 악화되는 느낌이 들어 한약의 성분을 검사해보고 싶음.

○ 소비자는 한약 환을 구입하려고 함. 한 달 치가 약 1000만원이라고 함. 소비자는 가격이 너무 비싸 업체에 식약청에 등록이 되었냐고 문의하였고, 한약은 식약청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음. 한약의 주성분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함.

<2014년>

○ 소비자는 당뇨에 좋다는 한약을 지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한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문의함.

○ 소비자는 편강탕을 구입하였음. 천식, 비염, 아토피에 탁월한 한약이라고 하는데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도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 소비자는 약 5년 전에 관광을 가서 녹용이 포함된 한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음. 3월 경, 당시 효과가 좋았기에 독감치료를 위해 한약을 다시 복용하려고 5년 전 구입처에 연락함. 소비자는 전과 같이 녹용을 포함하여 한약을 주문 후, 39만원에 10개월 할부로 결재하였음. 배송을 받고 한약을 데워 종이컵에 부어서 내용물을 확인함. 소비자는 녹용이 포함되면 기름방울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음. 이에 한약의 성분분석을 하고 싶어 문의함.

<2015년(1~2월)>

○ 소비자는 다리가 아파서 한약을 지었음. 한약에 용을 추가하였는데 들어간 것 같지가 않음.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도 들어갔다고 함. 성분검사가 가능한지 문의함.

○ 소비자는 한약을 처방 받아 제조하였음. 그런데 한약이 묽은 것 같아 성분검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함.

※ 한약 상담사례 분석 중 주요 소비자 문의사항

1. 한의원과 한약방의 차이

한의원	한약방
한의과대학(6년제)를 졸업한 자로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업종에서 몇 년간 근무한 자가 한약업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설하는 한약재 소매업종 ※ 한약업사 자격의 마지막 시험은 1982년을 끝으로 없어진 제도
진료하는 곳	한약재를 판매하는 곳(소매자영업)
침, 부항, 약침, 추나, 한약 등 시술	한약업사가 고객의 요구에 응하여 약재를 담아서 내주는 곳
	불법 : 한약방에서 진맥하는 것,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는 문진행위

※ 참고 : 대구 산후 한약 김병성 한의원

2. 명현현상과 부작용의 차이

명현현상	부작용
- 한방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여 치유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완쾌되는 것을 일컫는 말 - 이 같은 현상은 치유과정의 기전(機轉)으로 인한 명현현상인지, 오치(誤治)에 의한 악화 또는 부작용의 현상인지, 신중한 감별을 필요로 함.	- 약이 지닌 그 본래의 작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작용. 대개 좋지 않은 경우
약 2~3일 정도 증상	1주일 이상 이상증세

2. ‘무점포’ 관련 불만사례 집중분석

□ 조사목적

- 무점포 관련 식품상담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무점포에서의 식품 위해요소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 무점포를 통해 구입한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재점검해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Ⅰ. 유통관련 식품 상담 건수

▶ 조사기간: 2014. 1월 ~ 12월

▶ 조사대상: 1372에 접수된 무점포 관련 식품 상담사례 11,609건

1. 월별 건수

○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372에 접수된 무점포관련 식품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총 11,609건으로 1월 1,450건(12.5%), 12월 1,093건(9.4%), 5월 1,031건(8.9%), 2월 978건(8.4%), 3월 969건(8.3%), 4월 961건(8.3%), 9월 911건(7.8%), 8월 909건(7.8%), 7월 890건(7.7%), 10월 849건(7.3%), 6월 830건(7.2%), 11월 738건(6.4%)순으로 나타났다.

<월별 건수>

항 목	빈도(명)	비율(%)
1월	1,450	12.5
2월	978	8.4
3월	969	8.3
4월	961	8.3
5월	1,031	8.9
6월	830	7.2
7월	890	7.7
8월	909	7.8
9월	911	7.8
10월	849	7.3
11월	738	6.4
12월	1,093	9.4
합계	11,609	100.0

2. 판매방법별 건수

○ 판매방법별 건수를 살펴보면 방문판매 3,817건(33.0%)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 2,797건(24.2%), 전화통신판매 2,348건(20.3%), 직접 구입 1,559건(13.5%), TV홈쇼핑 777건(6.7%), 다단계판매 270건(2.3%), 기타 11건(0.1%)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 건수>

항 목	빈도(명)	비율(%)
방문판매	3,817	33.0
전자상거래	2,797	24.2
전화통신판매	2,348	20.3
직접구입	1,559	13.5
TV홈쇼핑	777	6.7
다단계판매	270	2.3
기타	11	0.1
합계	11,579	100.0
무응답	30	

3. 지역별 건수

○ 지역별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 2,621건(23.8%), 서울 1,980건(18.0%), 충남 1,403건(12.7%), 부산 1,152건(10.4%), 전북 918건(8.3%), 경남 441건(4.0%), 대전 392건(3.6%), 경북 366건(3.3%), 강원 346건(3.1%), 대구 311건(2.8%), 인천 263건(2.4%), 전남 262건(2.4%), 울산 220건(2.0%), 충북 201건(1.8%), 광주 88건(0.8%), 제주 61건(0.6%)순이었다.

<지역별 건수>

항 목	빈도(명)	비율(%)
경기	2,621	23.8
서울	1,980	18.0
충남	1,403	12.7
부산	1,152	10.4
전북	918	8.3
경남	441	4.0
대전	392	3.6
경북	366	3.3
강원	346	3.1
대구	311	2.8
인천	263	2.4
전남	262	2.4
울산	220	2.0
충북	201	1.8
광주	88	0.8
제주	61	0.6
합계	11,025	100.0
무응답	584	

4. 품목별 건수

○ 품목별 건수를 살펴보면 건강식품 7,212건(62.4%), 유가공식품 1,026건(8.9%), 채소류 512건(4.4%), 곡류 272건(2.4%), 나물류 244건(2.1%), 유란류 202건(1.8%), 음료류 190건(1.6%), 과자류 160건(1.4%), 과일류 166건(1.4%), 즉석식품 151건(1.3%), 육류가공품 141건(1.2%), 생선류 136건(1.2%), 다류 122건(1.1%)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건수>

항목	빈도(명)	비율(%)
건강식품	7,212	62.4
유가공식품	1,026	8.9
채소류	512	4.4
곡류	272	2.4
나물류	244	2.1
유란류	202	1.8
음료류	190	1.6
과자류	160	1.4
과일류	166	1.4
즉석식품	151	1.3
육류가공품	141	1.2
생선류	136	1.2
다류	122	1.1
약용작물류	113	1.0
빵 및 떡류	100	0.9
조미식품류	73	0.6
김치류	68	0.6
해조류	69	0.6
특수용도식품	56	0.5
절임식품	53	0.5
건강기능식품	55	0.5
당류	46	0.4
면류	43	0.4
어패류	43	0.4
건포류	40	0.3
식용유지류	29	0.3
주류	31	0.3
고추가루	40	0.3
아이스크림류	20	0.2
조림식품	18	0.2
견과류	22	0.2
어유가공품	16	0.1
젓갈류	12	0.1
육류	17	0.1
식용종자,버섯류	12	0.1
조미료	16	0.1
알가공품	4	0
두부류, 육류	5	0
드레싱류	2	0
합계	11,537	100
무응답	72	

5. 상담이유별 건수

○ 상담이유별 건수를 살펴보면 해지 2,903건(22.9%), 정보요청 2,494건(19.7%), 반품 2,090건(16.5%), 부당행위 시정 1,896건(15.0%), 환불 1,643건(13.0%), 기타 759건(6.0%), 손해배상청구 445건(3.5%), 교환 206건(1.6%), 치료비요구 193건(1.5%), 사과요구 38건(0.3%)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유별 건수>

항 목	빈도(명)	비율(%)
해지	2,903	22.9
정보요청	2,494	19.7
반품	2,090	16.5
부당행위시정	1,896	15.0
환불	1,643	13.0
기타	759	6.0
손해배상청구	445	3.5
교환	206	1.6
치료비요구	193	1.5
사과요구	38	0.3
합계	12,667	100.0

6. 불만사례별 건수

○ 불만사례별 건수를 살펴보면 기타 7,766건(65.0%), 품질불량 1,077건(9.0%), 이상증세 823건(6.9%), 표시광고 659건(5.5%), 변질 474건(4.0%), 이물질 383건(3.2%), 검사요청 363건(3.0%), 규격 235건(2.0%)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사례별 건수>

항목	빈도(명)	비율(%)
기타*	7,766	65.0
품질불량	1,077	9.0
이상증세	823	6.9
표시광고	659	5.5
변질	474	4.0
이물질	383	3.2
검사요청	363	3.0
규격	235	2.0
유통기한	163	1.4
합계	11,943	100.0

* 기타: 식품 및 관련 정보제공/배송문제/가격불만/철회(가격대금, 채권추심, 압류 등)

7. 처리결과별 건수

○ 처리결과별 건수를 살펴보면 상담정보제공 10,295건(88.7%), 환불 416건(3.6%), 해지 333건(2.9%), 부당행위시정 296건(2.5%), 반품 122건(1.1%), 교환 79건(0.7%), 손해배상청구 40건(0.3%), 치료비배상 14건(0.1%), 사과요구 13건(0.1%)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별 건수>

항 목	빈도(명)	비율(%)
상담정보제공	10,295	88.7
환불	416	3.6
해지	333	2.9
부당행위시정	296	2.5
반품	122	1.1
교환	79	0.7
손해배상청구	40	0.3
치료비배상	14	0.1
사과요구	13	0.1
합계	11,608	100.0
무응답	1	

Ⅱ. 무점포 관련 상담 사례

○ **인터넷에서 구매한 아이180플러스에 이엽우피소 들어 있다는 보도 보고 반품요구했으나 복용한 제품에 대한 환불 거부**

소비자는 2014년 9월 자녀 키가 적어서 나오미쇼핑몰에서 아이180플러스를 구매하여 복용하던 중 백수오와 비슷한 이엽우피소를 넣어서 식약처에서 제품회수 처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옴. 판매처에서는 중국산 백수오가 들어갔다며 제품에 이상 없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데 전체 제품에 대해 환불 받고 싶음

○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분유 주문 후 판매처 연락두절**

소비자는 12/10일 해외대행업체인 바이유로에서 아기분유를 13만 9천원에 구입함. 주문한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전화하니 연결이 되지 않고 게시글을 올려도 답변이 없음. 업체측에 제품 배송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요구함.

○ **전화상으로 무료샘플을 보내준다고 하고는 물품 판매하는 상술**

소비자는 행복채움이란 회사에서 몸에 좋다는 오디를 무료로 보내주니 맛보고 구입하라고 했는데, 막상 택배로 받아보니 오디즙 두봉지는 시음하고 2박스는 구매하라며 지로용지까지 동봉해서 보냄. 전화로 꼭 구매해야 한다면서 물품 회수를 거부하고 있음. 제품 반품을 원함.

○ **명품이라고 판매한 대게 품질 보상 요구**

소비자는 해복수산 사이트에서 명품이라고 고지가 된 대게 5마를 구입하여 부모님께 배송함. 주문시 길이는 10-11cm이고 중량은 300-400g이고 살아 있는 제품을 배송한다고 했는데 물품을 받아보니 죽은 상태이고 게를 쪄서 먹어보니 속도 비어서 광고와는 다른 품질로 판 매처에 항의함. 판매자는 얼음을 채워 마취를 한 상태로 보내면 24시간이 경과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이미 찐 상태로 반품해 줄 수 없다고 함.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한 시정과 제품가 환불 원함.

○ 행상 리어커에서 구입한 낙지, 신선도 떨어져서 교환 요구했으나 거절

소비자는 15년 동안 거래한 행상리어커 생선가게에서 낙지 4다발을 구입. 1다발을 먹어보니 엄청 맛이 없고 오래되어 신선도도 떨어지고 질겨서 먹을 수가 없음. 판매한 아주머니에게 남은 낙지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 요구 하였으나 거절함.

○ 배달 샐러드 먹다가 돌을 씹어 이빨 파손, 업체 보상 거부

소비자는 1주일에 2회씩 배달 샐러드를 배달 받아 먹고 있음. 가끔 샐러드에 돌이 들어가 있어서 씻어서 먹기도 했는데 오늘 샐러드를 먹으면서 돌을 씹어서 이빨 끝이 부러졌음. 치과에서 치료 받고 업체 측에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니 도리어 화를 내면서 샐러드 먹고 생긴 사고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상을 거부함.

○ 목욕탕에서 살빠지는 약 구입, 효과없어 반품 원하나 업체와 연락두절

소비자는 10월 목욕탕 때 미는 분을 통해 살빠지는 약을 구입하고, 11월 약효가 더 좋아졌다고 해서 150만원 주고 더 구입함. 아들이 군대에서 복용했으나 70kg이였는데 100kg이나 살이 쪄서 제대함. 구입시 얘기했던 효능 효과는 전혀 없어 제조회사 측에 연락했으나 전화가 안되고 소개한 분하고도 연락이 안됨

○ 해태 허니버터칩으로 오인하도록 유인하여 다른 제과를 판매하는 G마켓

소비자는 쇼핑몰 화면에서 해태허니 버터칩을 틀릭하고 표시나 사진 품목도 해태 허니버터칩 사진을 걸어 놓아서 선택 구매하였는데, 옵션에 롯데 버터칩을 선택하게 작은 글씨로 해놓은 걸 자세히 보지 못해서 당연히 해태 허니버터칩으로 알고 구매함. 롯데제품이 배달되어 반품 요청하니 배송료를 지불하라고 함. 인기 있는 해태 제품 속에 눈속임으로 롯데과자를 판매하는 G마켓의 비도덕적인 상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원함.

○ 캄보디아 여행중에 구입한 200년산 상황버섯, 원가보다 10배 비싸고 효능효과 과장

소비자는 노랑풍선 여행사를 통해 캄보디아 여행중에 원시림 업체에서 200년산 상황버섯을 120만원에 구입함. 제품에 보증서와 제조일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해 보니 PD수첩과 뉴스에 캄보디아 상황버섯이 허위과장 광고로 사기 판매행위라고 해서 여행사측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당뇨 협압 조절 등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하고 가격도 원가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와 여행사를 엄격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함.

○ 90%가 사양벌꿀인 꿀을 잡화꿀이라고 표기하여 판매하고 반품시 배송비 요구

소비자는 인터파크에서 튜브 잡화벌꿀을 저렴하게 판매해서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잡화벌꿀 성분이 10%이고 사양벌꿀 성분이 90%임. 광고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표기를 기재하지 않아 잡화벌꿀인 줄 만 알고 구입했는데 판매처에서는 잡화벌꿀이 어느정도 들어가면 잡화꿀이라 할 수 있다며 구매자가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반품시에는 소비자가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함. 질이 낮은 사양꿀을 잡화꿀로 오인하도록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 노상에서 구매한 능이버섯 원산지 속여서 판매

소비자는 노상 리어커에서 국산 능이버섯이라고 해서 1kg에 오만원 구입해서 개봉해보니 봉지에 중국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우선 판매자에게 항의하러 가기 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함

○ 길거리에서 당첨되었다고 속여서 천마 한박스 판매

소비자는 잡곡을 준다는 방송을 듣고 나가보니 무주 반딧불 영농조합에서 첨마를 판매함. 모인 사람

들 중에 3명에게 당첨되었다며 한 박스는 공짜로 준다며 33만원에 제품을 판매함. 속아서 구매한 것 같아 취소하고 반품 원함.

Ⅲ. 결론

이번 조사에서 보면 판매방법별에서는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전화권유판매가 7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지역별에서는 서울수도권이 44.2%였으며, 품목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62.4%를 차지하였으며, 상담이유에서는 해지와 정보요청이 42.6%였고, 불만사례에서는 기타(정보제공, 배송문제, 가격불만, 철회) 65.0%, 처리결과에서는 상담정보제공이 8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무점포를 통한 식품 구입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할 점은 식품의 품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식품 규격, 원산지, 반품 조건, 배송 형태(냉동, 냉장, 실온)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가격도 오프라인매장과 비교해보고 구입할 필요가 있다. 가격이 상당히 쌀 것 같지만 실제로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비교 구매가 필수적이다.

단지 손질 및 포장이 잘 되어 있어 편의성 때문에 구입한다하더라도 규격을 잘 살펴보고 구입해야 가격 및 품질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신선식품의 경우 운송 중 상하는 경우가 허다해 배송 형태를 잘 살펴보고 구입하고, 구입한 식품이 손상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반품 및 교환조건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무점포의 경우 식품에 대한 정보가 올바르게 제공되지 않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많고,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꼼꼼이 살펴보고 구입 하여야하겠다.

3. 백수오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5월)

○ 5월 백수오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0,940건으로 전체 식품 관련 상담 12,651건의 86.5%를 차지함. 일반식품 상담 건수는 1,711(13.5%)에 불과함.

○ 백수오를 구매한 구입장소를 살펴보면, 무점포를 통해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건이 10,184건(9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판매방법을 살펴보면, TV홈쇼핑이 9,061건(82.8%)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구입 736건(6.7%), 방문판매 343건(3.1%) 순으로 나타남.

판매방법	표본수	비율
직접구입	736	6.7
방문판매	343	3.1
다단계판매	14	0.1
전화통신판매	99	0.9
전자상거래	618	5.6
TV홈쇼핑	9,061	82.8
무응답	69	0.6
총합계	10,940	100.0

구입장소	표본수	비율
슈퍼마켓	7	0.1
대형마트	184	1.7
편의점	7	0.1
백화점	89	0.8
재래시장	19	0.2
소형매장	176	1.6
음식점	2	0.0
무점포	10,184	93.1
무응답	272	2.5
총합계	10,940	100.0

○ TV홈쇼핑으로 구매한 9,061건의 상담 중 홈쇼핑사를 살펴보면 홈앤쇼핑이 3,815건(51.3%)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처로는 내츄럴엔도텍이 1,250건(74.4%)로 나타남.

홈쇼핑	사례수	비율
홈앤쇼핑	3,815	51.3
롯데홈쇼핑	845	11.4
NS홈쇼핑	841	11.3
현대홈쇼핑	756	10.2
CJ오쇼핑	496	6.7
GS홈쇼핑	413	5.6
기타홈쇼핑	271	3.6
총합계	7,437	100.0

제조처	사례수	비율
내츄럴엔도텍	1,250	74.4
천호식품	263	15.7
김정문알로에	81	4.8
풀무원	30	1.8
대상	30	1.8
서흥	26	1.5
알로에마임	20	1.2
정관장	20	1.2
총합계	1,680	100.0

○ 백수오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의 상담이유는 환불 7,678건(58.5%), 정보요청 3,003건(22.9%), 반품 1,622건(12.4%) 순으로 나타남.

상담이유	표본수	비율
교환	7	0.1
반품	1,622	12.4
환불	7,678	58.5
해지	114	0.9
치료비요구	69	0.5
손해배상청구	385	2.9
사과요구	3	0.0
부당행위시정	169	1.3
정보요청	3,003	22.9
기타	73	0.6
총합계	13,123	100.0

○ 5월 백수오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제공이 4,201건(31.5%)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3,593건(27.0%), 성분검사 2,705건(20.3%), 청약철회 2,013건(15.1%) 순으로 나타남.

불만사례1	총건수	불만사례2	표본수	비율
이물질	28	머리카락/털/뼈	13	0.1
		다칠수있음	8	0.1
		다치지는 않음	3	0.0
		침전물	4	0.0
이상증세	252	설사/복통/구토	90	0.7
		발열/두통	44	0.3
		치아손상	1	0.0
		두드러기/알레르기	70	0.5
		식중독	1	0.0
		기타이상증세	46	0.3
유통기한	3	유통기한 경과	2	0.0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1	0.0
변질	12	상함/부패	2	0.0
		곰팡이	7	0.1
		악취	3	0.0
검사요청	2,749	성분검사	2,705	20.3
		원산지확인	1	0.0
		진품확인	43	0.3
품질불량	3,593	품질불량	3,593	27.0
표시광고	466	과대광고	3	0.0
		가격미표시	1	0.0
		성분표시	462	3.5
규격	5	용량미달	5	0.0
기타	6,222	식품 및 관련 정보제공	4,201	31.5
		배송문제	5	0.0
		가격불만	3	0.0
		철회	2,013	15.1
총합계			13,330	100.0

(복수응답)

4. ‘과자류’ 관련 불만사례 집중분석

Ⅰ. 일반 과자류 상담 사례분석

□ 조사목적

- 최근 수입과자 전문점 등의 급증으로 과자 관련한 소비자의 관심과 정보제공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 초콜릿류를 포함한 과자류 관련한 상담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 문제와 정보제공에의 요구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 조사개요

- 상담접수기간 : 2014.01~2015.07
- 분석대상: 1372상담센터에 접수된 과자류 509건

1. 불만사례접수 지역

- 지역별 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경기 103건(20.2%), 서울 83건(16.3%), 충남 60건(11.8%), 부산 55건(10.8%) 순으로 나타났다.

No	지역명	빈도	백분율(%)
1	서울	83	16.3
2	경기	103	20.2
3	강원	12	2.4
4	경남	31	6.1
5	경북	32	6.3
6	전남	10	2.0
7	전북	42	8.3
8	충남	60	11.8
9	충북	11	2.2
10	광주	2	.4
11	대구	1	.2
12	대전	17	3.3
13	인천	23	4.5
14	부산	55	10.8
15	울산	19	3.7
16	제주	8	1.6
합계		509	100.0

2. 제품 구입장소

- 제품을 구입한 장소는 슈퍼마켓이 295건(58%), 대형마트 95건(18.7%), 편의점 46건(9.0%) 순으로 조사되었다.

No	구입처	빈도	백분율(%)
1	슈퍼마켓	295	58.0
2	대형마트	95	18.7
3	편의점	46	9.0
4	백화점	1	.2
5	소형매장	30	5.9
6	무점포	42	8.3
합계		509	100.0

3. 제품 구입 방법

- 제품 구입방법으로는 직접구입이 467건(91.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38건(7.5%) 순으로 조사되었다.

No	구입방법	빈도	백분율(%)
1	직접구입	467	91.7
2	전화통신판매	2	.4
3	전자상거래	38	7.5
4	TV홈쇼핑	2	.4
합계		509	100.0

4. 제품종류

- 제품 종류는 과자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No	제품 종류	빈도	백분율(%)
1	과자류	504	99.0
2	초컬릿	5	1.0
합계		509	100.0

5. 상담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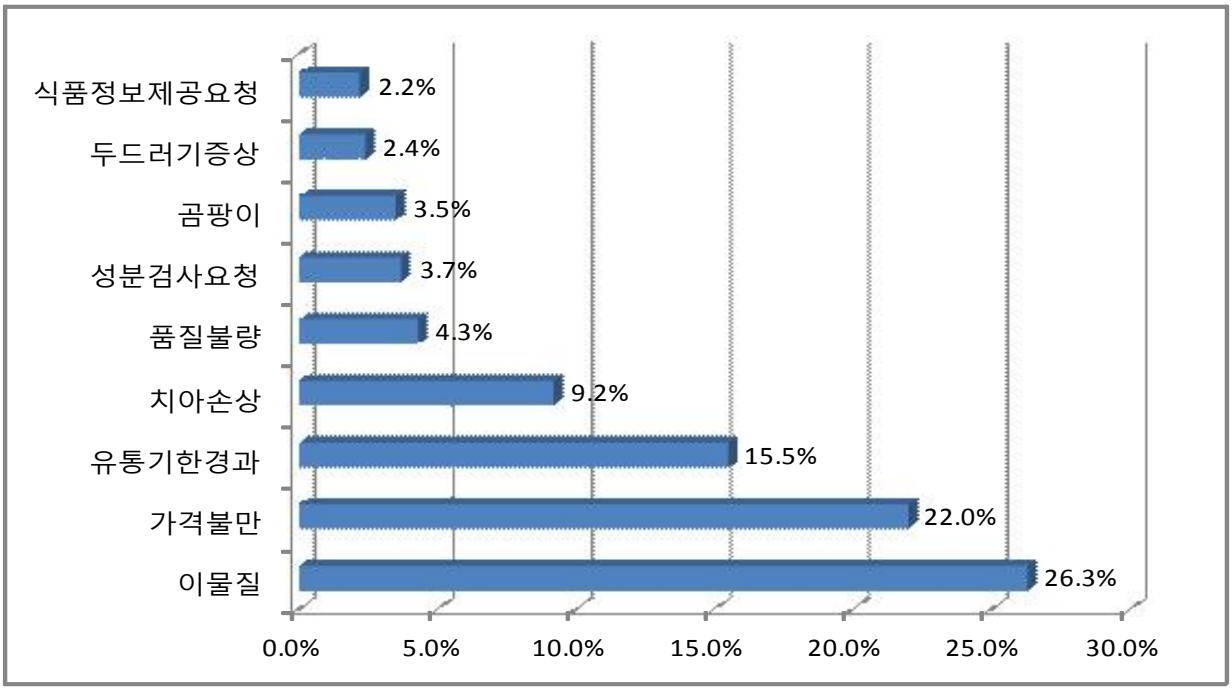
- 상담을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시정을 위해서라는 내용이 415건(8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비 요구 83건(16.3%), 정보요청 11건(2.2%) 순으로 조사되었다.

No	상담이유	빈도	백분율(%)
1	치료비요구	83	16.3
2	부당행위시정	415	81.5
3	정보요청	11	2.2
	합계	509	100.0

6. 불만상담 사례

- 불만사례별 건수를 확인한 결과, 이물질 종류가 134건(26.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불만이 112건(22%), 유통기한 경과가 79건(15.5%), 치아손상이 47건(9.2%)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례		빈도		백분율 (%)	
이물질	벌레	134	51	26.3	10.0
	머리카락		8		1.6
	다칠 수 있는 이물질		17		3.3
	다칠 수 없는 이물질		58		11.4
설사, 복통, 구토		22		4.3	
치아손상		47		9.2	
두드러기		12		2.4	
유통기한경과		79		15.5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2		.4	
부패		1		.2	
곰팡이		18		3.5	
성분검사 요청		19		3.7	
품질불량		22		4.3	
포장불량		10		2.0	
용기로인한 손상		2		.4	
과대광고		3		.6	
가격미표시		3		.6	
용량미달		7		1.4	
식품정보제공		11		2.2	
배송문제		5		1.0	
가격불만		112		22.0	
합계		509		100.0	



7. 상담처리결과

- 상담처리결과는 상담 및 정보제공이 507(99.6%)건으로 나타났다. 불만이 접수된 사례를 보면, 이물질, 가격불만, 유통기한 경과가 각각 26.3%, 22.0%, 15.5%로 63.8%를 차지하고 있어 상담처리결과 역시 해당 상담건에 대한 정보제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물질의 경우, 이물질 신고를 통해 후속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신체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가격불만에 대해서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상거래 상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불만에 대한 처리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No	처리 결과	빈도	백분율(%)
1	교환	1	0.2
2	환불	1	0.2
3	상담정보제공	507	99.6
합계		509	100.0

Ⅱ. 수입과자류 상담 분석 (2014.1~2014.12)

1. 지역, 구입처, 구입방법

- 수입과자류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 상담접수지역은 서울10건,경기10건, 부산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입처는 수퍼마켓이 19건(4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무점포가 14건(29.8%)으로, 일반과자류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구입방법에서도 직접구입이 33건(70.2%), 전자상거래 14건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빈도	퍼센트(%)
서울	10	21.3
경기	10	21.3
강원	2	4.3
경남	2	4.3
전북	1	2.1
충남	5	10.6
대전	6	12.8
인천	2	4.3
부산	8	17.0
제주	1	2.1
합계	47	100.0

구입처	빈도	퍼센트
수퍼마켓	19	40.4
대형마트	4	8.5
편의점	3	6.4
소형매장	7	14.9
무점포	14	29.8
합계	47	100.0

2. 상담이유

- 상담이유는 정보요청이 18건(38.3%), 손해배상청구 10건(21.3%), 부당행위시정 8건(17%)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유	빈도	퍼센트
반품	1	2.1
환불	6	12.8
치료비요구	2	4.3
손해배상청구	10	21.3
사과요구	1	2.1
부당행위시정	8	17.0
정보요청	18	38.3
기타	1	2.1
합계	47	100.0

2-1 일반과자류와 수입과자류 상담이유 비교

- 일반과자류는 상담이유로 부당행위 시정이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수입과자는 정보제공 요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일반 과자	수입 과자
1	부당행위시정 81.5%	정보제공요청 38.3%
2	치료비요구 16.3%	손해배상청구 21.3%
3	정보제공요청 2.2%	부당행위시정 17%

3. 상담불만 사례

- 상담불만 사례는 이물질이 29.7%, 치아손상이 12.8%, 유통기한 미표시가 10.6%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사례	빈도	퍼센트
이물질	14	29.7%
치아손상	6	12.8
두드러기	1	2.1
유통기한경과	1	2.1
유통기한미표시	5	10.6
상함부패	1	2.1
곰팡이	2	4.3
악취	2	4.3
진품확인	1	2.1
품질불량	2	4.3
용기파손	1	2.1
포장불량	1	2.1
가격미표시	1	2.1
용량미달	1	2.1
식품정보제공	2	4.3
배송문제	4	8.5
가격불만	2	4.3
합계	47	100.0

3-1. 일반과자류와 수입과자류 상담사례 비교

- 일반 과자류와 수입과자 상담사례를 비교하면 둘 다 이물지렝 의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 일반과자류는 유통기한경과가 15.5%로 높게 나타난 반면, 수입과자는 치아손상이 12.8%로 나타났고, 수입과자류는 유통기한 미 표시가 10.6%로 3순위로 나타났다.

순위	일반 과자	수입 과자
1	이물질 26.3%	이물질 29.7%
2	유통기한경과 15.5%	치아손상 12.8%
3	치아손상 9.2%	유통기한 미표시 10.6%

4. 상담품목 및 처리결과

- 상담품목은 과자류가 44건, 초콜릿류가 3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처리결과는 상담정보제공이 44건, 환불 2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처리결과	빈도	퍼센트
환불	2	4.3
부당행위시정	1	2.1
상담정보제공	44	93.6
합계	47	100.0

Ⅲ. 상담사례

1. 수입과자 관련 상담

<유통기한 표시>

- 수입과자를 구매 후,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았는데, 구매처에 가져가니 아니라고함. 수입과자는 유통 기한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함.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본사, 대리점 어느쪽에 책임이 있는지 문의함.
- 유통기간 표시 방법 및 확인 방법 문의

<성분 등 정보요청>

- 자극적인 맛과 관련하여 영양성분 정보 궁금해 하며, 아이들에게 먹여도 괜찮은지 문의함
- 미국젤리 구입했는데 진품과 가품이 섞여있어서 확인 받고 싶어함.(셀트구입)
- 일본 수입과자의 안전성에 대한 문의

<유통업자 질문>

- 납품업자인데 판매장에서 소비자 분쟁관련하여 처리 방법 문의
- 캔디수입업체인데 소비자 이손상으로 배상요구 처리방법 문의
- 수입과자 유통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파는 사업자인데 납품받은 과자에 유통기한,제조일자, 등의 표기가 전혀없음.
- 온라인 수입과자 판매자인데 과자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 줘야 할지
- 식품수입회사인데 소비자가 치아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보상범위

<특정 제품의 문제>
- 나쵸칩 과자에서 찌든냄새 난다는 상담 복수 접수
- kiss초콜릿, 페레레로쉐 초콜릿에서 애벌레
- 델피톱 먹고 몸에 두드러기 남

2. 유통채널별 유통기간 경과 상담 사례
- G마켓에서 구입한 빼빼로가 유통기한 경과함. (환불 받음)
- 11번가에서 구입한 과자가 2개월이나 유통기한이 경과함.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는데 유통기한이 1개월 밖에 안 남음, 대량 구매했는데 환불받고 싶은데 기간이 남아서 안된다고 함.
- 사우나 매장에서 구입한 과자가 유통기간이 5개월이 지남
-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한 과자가 1달 유통기간이 지남
- 문구점에서 구입한 제품이 제조일자만 있고 유통기한은 없음
- 위메프에서 2014년 1월 구입한 제품이 내용물에 2011년 3월이라는 표시가 있음.
-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에 유통기한 표시가 없음.

3. 특정 제품 관련 상담 (트랜드 반영)
- 허니버터칩 과자와 관련하여 재고상품과 묶음으로 판매하여 어쩔 수 없이 구매
- 허니버터칩과 맥주, 캬라멜과 묶음 판매하여 신고함
- 허니버터침이 들어 왔는데 없다고 하여, 창고에 몇박스 있는지 조사 요청함.
- 마트에서 허니버터칩 구입하려는데 이 제품만 구입할 수 없다고 다른걸 구매해야만 한다고 강요하여 창량음료 구매한 후 구매함
- 허니버터칩과 타제품 묶음 판매와 관련하여 업체측 강매이며, 불공정 거래로 신고가능여부 상담
- 허니버터칩이 2,500원 인데 4,500원짜리를 붙여서 판매하려고함.
- 썩은 계란 사건관련하여 원재료 불안하여 상담전화

4. 식품 상담 처리관련 문제
-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식약처에 신고하니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라고 하고, 상담센터는 식약처 1399를 알려주는 등 상담내용이 다른 문제
- 유통기간 경과제품의 행정처분 수위

Ⅳ. 결론 및 제언

과자류 상담도 다른 식품 상담 사례처럼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 결과가 상담 정보제공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는 이가 부러졌거나, 상품 복용 후 배탈, 설사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치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일반과자류(국산과자)와 수입과자를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구입장소나, 상담이유, 상담사례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과자류는 직접 구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수입과자는 무점포 구입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이유도 일반과자는 유통기한이나 변질 등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81.5%)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치료비요구(16.3%)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수입과자는 정보제공 요청이 가장 높은 38.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21.3%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불만 사례에서는 각각 이물질이 가장 높은 불만으로 나타났으나 (26.3%, 29.7%) 2순위로 일반과자류는 유통기한 경과 (15.5%), 치아손상(9.2%)으로 나타났고, 수입과자는 2순위가 치아손상(12.8%), 유통기한 미표시가 10.6%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입과자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유 1순위가 정보제공 요청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유통기한 표시 방법, 성분의 안전성 , 특정 국가 제품 안전성 여부 등으로 수입과자의 판매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정보제공 요구도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의 문의도 적지 않아 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법등의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입과자의 안전성 관련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겠다.

5. ‘발효유’ 관련 불만사례 집중분석

Ⅰ. ‘발효유’ 상담 사례분석

□ 발효유

발효유는 젖산균으로 발효된 유제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발효유의 발효 과정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리며 맛을 좋게 하고 소화율(음식이 몸에서 소화되는 정도)을 높인다. 발효유 제품은 꽤 오래 전부터 생산되었으며 기원전 10000년경부터 생산되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 조사목적

건강에 대한 인간의 건강에 효과가 높은 유산균종이 알려지면서, 발효유 등과 같은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식품 상담 사례 중 발효유 관련 상담은 미미하나 발효유 특성 상 복통 등 직접적인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어 소비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상담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 문제 분석과 정보제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조사개요

· 상담접수기간 : 2014.01~2015.08
· 분석대상 : 1372상담센터에 접수된 발효유 건
· 2014년 1월~2014년 14월 : 전체 식품 : 24153건 / 발효유상담 151건(0.6%)
· 2015년 1월~2015년 8월 : 전체 식품 : 30063건 / 발효유상담 98건(0.3%)

Ⅱ 발효유 상담 분석 (2014.1~2014.12)

1. 불만사례접수 지역[1)]

- 2014년도 1월~12월 동안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중 발효유 상담 151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접수지역은 경기 36건(25.2%), 서울25건(17.5%), 충남, 부산 16건(11.2%) 으로 나타났다.

<표1> 2014.1~2014.12 불만사례접수 지역

지역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
서울	25	16.6	17.5
경기	36	23.8	25.2
강원	1	0.7	0.7
경남	12	7.9	8.4
경북	5	3.3	3.5
전남	6	4.0	4.2
전북	7	4.6	4.9
충남	16	10.6	11.2
충북	2	1.3	1.4
광주	2	1.3	1.4
대구	5	3.3	3.5
대전	5	3.3	3.5
인천	4	2.6	2.8
부산	16	10.6	11.2
울산	1	0.7	0.7
무응답	8	5.3	0
합계	151	100.0	

1) 모든 설명은 유효퍼센트 기준으로 작성

2. 제품 구입 장소

- 2014년도 1월~12월 동안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중 발효유 상담 151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처는 무점포[2] 47건(3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슈퍼마켓 44건(31.4%), 소형매장 25건(17.9%)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2> 2014년 1월~12월 제품 구입장소

구입처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슈퍼마켓	44	29.1	31.4
대형마트	16	10.6	11.4
편의점	7	4.6	5.0
재래시장	1	0.7	0.7
소형매장	25	16.6	17.9
무점포	47	31.1	33.6
무응답	11	7.3	0.0
합계	151	100	100.0

3. 제품 구입 방법

- 2014년도 1월~12월 동안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중 발효유 상담 151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 구입 방법은 직접구입 94건(6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문판매 23건(15.4%), TV홈쇼핑 15건(10.1%) 순으로 조사 되었다.

<표3> 2014년 1월~12월 제품 구입방법

구입방법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직접구입	94	62.3	63.1
방문판매	23	15.2	15.4
전화.통신판매	3	2.09.3	2.0
전자상거래	14	9.9	9.4
TV홈쇼핑	15	98.7	10.1
무응답	2	1.3	0
합계	151	100.0	100.0

2) 통신판매, 방문판매, 산지직송, 전자상거래등 점포를 쓰지 않는 판매 방법

4. 상담이유(복수응답)

- 2014년도 1월~12월 동안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중 발효유 상담 151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 이유는 정보요청이 56건(32.9%), 부당행위시정 27건(15.9%), 손해배상청구 23건(13.5%) 순으로 나타났다.

<표4> 2014년 1월~12월 제품 구입방법 (복수응답)

상담이유	빈도	퍼센트
교환	1	0.6
반품	12	7.1
환불	19	11.2
해지	12	7.1
치료비요구	15	8.8
손해배상청구	23	13.5
부당행위시정	27	15.9
정보요청	56	32.9
기타	5	2.9
합계	170	100.0

5. 불만상담 사례 (복수응답)

- 2014년도 1월~12월 동안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중 발효유 상담 151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불만 사례
  1순위: 이물질 30건(18.9%) : 다치지는 않음(비닐/고무) 13건,
  2순위: 이상증세 26건(16.4%) : 설사/복통/구토 20건,
  3순위: 식품 및 관련 정보제공 24건(15.1%)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 2014년, 2015년 1월~8월 불만상담 사례

불만사례	2014년 (건)	백분율(%)	2015년 1-8월(건)	백분율(%)	합계 (건)	백분율(%)
이물질	30	18.9	15	14.7	45	17.2
이상증세	26	16.4	11	10.8	37	14.2
유통기한	18	11.3	16	15.7	34	13
변질	11	6.9	12	11.8	23	8.8
검사요청	2	1.3	2	2.0	4	1.5
품질불량	11	6.9	8	7.8	19	7.3
표시광고	7	4.4	4	3.9	11	4.2
식품정보제공	24	15.1	17	16.7	41	15.7
배송문제	8	5	3	2.9	11	4.2
가격불만	5	3.1	7	6.9	12	4.6
철회	17	10.7	7	6.9	24	9.2
합계	159	100	102	100.0	261	100

6. 상담 처리 결과

- 2014년도 1월~12월 동안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중 발효유 상담 151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 처리 결과는 상담. 정보제공 138건(91.4%), 환불 6건(4%), 부당행위시정 4건(2.6%) 순으로 나타났다.

<표5> 2014년 1월~12월 상담 처리 결과

구입방법	빈도	퍼센트(%)
교환	2	1.3
환불	6	4.0
손해배상청구	1	0.7
부당행위시정	4	2.6
상담.정보제공	138	91.4
합계	151	100.0

Ⅲ. 발효유 상담 분석 (2015.1~2015.8)

1. 불만사례접수 지역

- 2015년도 1월~8월 동안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중 발효유 상담 98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접수지역은 서울24건(24.5%), 경기 21건(21.4%), 충남 9건(9.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빈도	퍼센트(%)
서울	24	24.5
경기	21	21.4
강원	1	1.0
경남	7	7.1
경북	6	6.1
전남	4	4.1
전북	3	3.1
충남	9	9.2
충북	2	2.0
광주	2	2.0
대구	6	6.1
대전	2	2.0
인천	5	5.1
부산	4	4.1
울산	1	1.0
제주	1	1.0
합계	98	100.0

<표6> 2015년 1월~8월 불만사례 접수 지역

지역	빈도	퍼센트(%)
서울	24	24.5
경기	21	21.4
강원	1	1.0
경남	7	7.1
경북	6	6.1
전남	4	4.1
전북	3	3.1
충남	9	9.2
충북	2	2.0
광주	2	2.0
대구	6	6.1
대전	2	2.0
인천	5	5.1
부산	4	4.1
울산	1	1.0
제주	1	1.0
합계	98	100.0

2. 제품 구입장소

- 2015년도 1월~8월 동안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중 발효유 상담 98건을 분석한 결과구입처는 무점포 43건(48.3%), 대형마트 19건(21.3%), 슈퍼마켓 17건(19.1%) 순으로 조사 되었다.

<표7> 2015년 1월~8월 제품 구입 장소

구입처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슈퍼마켓	17	17.3	19.1
대형마트	19	19.4	21.3
편의점	5	5.1	5.6
재래시장	1	1.0	1.1
소형매장	4	4.1	4.5
무점포	43	43.9	48.3
무응답	9	9.2	0.0
합계	98	100.0	100.0

3. 제품 구입 방법

- 2015년도 1월~8월 동안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중 발효유 상담 98건을 분석한 결과제품 구입 방법은 직접구입 63건(6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문판매 11건(11.5%), TV홈쇼핑 7건(7.3%) 순으로 조사 되었다.

<표8> 2015년 1월~8월 제품구입 방법

구입방법	빈도	퍼센트
직접구입	63	65.6
방문판매	11	11.5
전화.통신판매	4	4.2
전자상거래	11	11.5
TV홈쇼핑	7	7.3
무응답	2	0.0
합계	98	100.0

4. 상담이유(복수응답)

- 2015년도 1월~8월 동안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중 발효유 상담 98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이유는 정보요청이 39건(36.1%), 부당행위시정 15건(13.9%), 손해배상 청구 14건(13.0%) 순으로 나타났다.

<표9> 2015년 1월~8월 상담이유(복수응답)

상담이유	빈도	퍼센트
교환	4	3.7
반품	12	11.1
환불	9	8.3
해지	8	7.4
치료비요구	1	0.9
손해배상청구	14	13.0
사과요구	1	0.9
부당행위 시정	15	13.9
정보요청	39	36.1
기타	5	4.6
합계	108	100.0

5. 불만상담 사례

- 2015년도 1월~8월 동안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중 발효유 상담 98건을 분석한 결과는
  1순위: 식품 및 관련 정보제공 17건(16.7%)
  2순위: 유통기한 16건(15.7%)
  3순위: 이물질 15건(14.7%)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 2014년, 2015년 1월~8월 불만상담 사례

불만사례	2014년(건)	백분율(%)	2015년 1-8월(건)	백분율(%)	합계 (건)	백분율(%)
이물질	30	18.9	15	14.7	45	17.2
이상증세	26	16.4	11	10.8	37	14.2
유통기한	18	11.3	16	15.7	34	13
변질	11	6.9	12	11.8	23	8.8
검사요청	2	1.3	2	2.0	4	1.5
품질불량	11	6.9	8	7.8	19	7.3
표시광고	7	4.4	4	3.9	11	4.2
식품정보제공	24	15.1	17	16.7	41	15.7
배송문제	8	5	3	2.9	11	4.2
가격불만	5	3.1	7	6.9	12	4.6
철회	17	10.7	7	6.9	24	9.2
합계	159	100	102	100.0	261	100

6. 상담 처리 결과

- 2015년도 1월~8월 동안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중 발효유 상담 98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 처리 결과는 상담. 정보제공 93건(94.9%), 환불과 손해배상청구 각각 2건(2%) 순으로 나타났다.

<표10> 2015년 1월~8월 상담처리 결과

구입방법	빈도	퍼센트
환불	2	2.0
손해배상청구	2	2.0
부당행위시정	1	1.0
상담.정보제공	93	94.9
합계	98	100.0

Ⅲ. 2014년, 2015년 1월~8월 상담사례

1. 발효유 관련 상담

<이물질>

- **벌레**: 요구르트를 마시던 중 손톱만한 벌레가 나와 업체에 항의하니 자체 해결하려 하며 병원에서는 장염이라고 하는데 배상 문의
- 요구르트 배달시켜 먹는 10cm 지렁이가 나와 처리 방법 문의
- **머리카락/털/뼈/손톱**: 떠먹는 요구르트 개봉을 하니 머리카락이 있는데 업체가 배상을 해주지 않아 문의
- 마트에서 요플레 구입 후 먹다보니 임플란트 이물 발견되어 피해보상 문의
- **다칠수있음(금속/유리쇠/철/플라스틱등):** 떠먹는 불가리스에서 플라스틱 이물질 발생되어 문의
- **다치지는 않음(비닐/고무)**: 요구르트에서 비닐 발견되어 보상규정 문의
- **침전물**: 요구르트에서 침전물이 생겨 처리방법 문의

<이상증세>
- **설사/복통/구토**: 슈퍼에서 떠먹는 요구르트 구입하여 먹은 후 배탈 나 확인하니 유통기한 경과되어 문의
- **발열/두통**: 야쿠르트 먹고 구토, 발열증상 나타나 문의
- **두드러기. 알레르기**: 유산균을 먹고 두드러기 발생되어 보상 문의

<유통기한>
- 요거트 유통기한 읽는 방법 문의 0311.17.29
- 유통기한 지난 요구르트 먹고 탈 나 보상 문의
- 유통기한 지난 제품 먹고 장염 발생 배상 문의

<변질>
- **상함. 부패 :** 세븐일레븐에서 요구르트 구매해서 먹었는데 유통기한 지나지 않았는데 맛이 상 한거 같아 식품 위생 걱정돼 상담.

- **곰팡이** : 급식으로 받은 요구르트 유통기한 지나지 않았는데 곰팡이가 심해 보상금 문의

<검사요청>
- 비피더스 먹으면 아이가 쓰다고 하고, 화학약품냄새가 나는데 성분 검사 가능 한지 문의

<품질불량>
- 한국야쿠르트에서 나오는 뽀요를 배달해서 먹고 있는데 배달사원이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전량 회수를 해야 된다고 수거해 갔는데 기존에 있던 제품 아기 먹었는데 맛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어떤 잘못된 성분이 제품에 들어갔는지 얘기도 안 해 줘 몹시 화가 나 문의
- 요플레 먹고 부작용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 문의

<표시광고>

- **과대광고:** 요구르트 1+1 행사여서 전자상거래로 주문했는데 한 줄만 배송이 되어 확인하여 보니 제품 배송기준일로 행사 상품이며 배송일은 행사 다음날이므로 할인행사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허위과장과고가 아닌 지 문의

<식품 및 관련 정보제공>
- 슈퍼에서 요구르트 구매했는데 고객 사은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 야쿠르트 배달원이 판매를 못하게 해도 아파트 단지에 와서 판매를 하는데 금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가격불만>
- 건국우유에서 요구르트 배달받아 먹는데 요금이 먹은 것보다 더 청구되어 문의
- 마트에서 바이오플랜 요구르트 구매했는데 다른 마트가 더 싸 불만
- 불가리스 4개 5150원에 구매했는데 너무 비싸게 판매하는 것 같다고 문의

<철회>
- 배달 요구르트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문의

Ⅳ. 결론 및 제언

최근 소비자들의 식품구입에서 안전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2014년, 2014년 1월~8월 상담사례 분석 주요 결과를 기초로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만상담 사례의 경우 2014년 1순위가 이물질, 2015년1-8월 3순위, 2014년과 2015년 1월-8월 합계 1순위로 합계 순으로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물질이 나오면 이물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발견 일시를 확인 후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식품 포장지,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한 뒤 가능한 사진을 찍은 뒤 신고 해야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된 결과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식약처에 접수를 하면 결과를 믿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식약처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372상담센터에 이물질보고 대상인 금속이 들어간 식품 관련으로 상담을 한 소비자가 있다면 해당 상담 내용을 토대로 추적 조사하여, 식약처에 보고가 되었는지 역학 조사하여 보고하지 않은 기업을 처벌하고 교육해야 한다.

둘째,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2014년 2순위, 2015년 1-8월 2순위, 2014년과 2015년 1월-8월 합계 3순위이다. 이상 증세로는 2014년, 2015년 1월-8월 모두 설사/복통/구토가 많은데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먹고 발생된 경우도 있는 반면 유통기한 전인 제품을 먹은 소비자 역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소비, 유통, 제조단계 중 어디에서 문제인 것인지 단순상담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정확한 원인 분석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교육을 할 소비자단체, 관리 감독을 할 관할구청과 식약처의 협업이 필요하다.
소비자도 식품 보관 시 주의를 해야 하며 판매 시에도 냉장고 온도와 위생 관리 및 선입선출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체크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제조 후 운반 시에도 냉장온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도움이 되도록 (우유, 메밀, 대두, 밀계란, 복숭아, 토마토 등)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 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제품도 있으나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있다. 기업에서는 표시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노력과 표시사항의 정확성, 허위나 과장 등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며 안전한 식품 구매를 위해 소비자도 주의사항을 읽어보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구매 습관이다.

셋째, 2014년과 2015년 1월~8월 분석이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불만사례 접수 지역이 2014년의 경우 경기 ->서울-> (충남, 부산) 순위에서 2015년 1월-8월 상담의 경우 서울-> 경기-> 충남 순으로 변경이 되었다.
제품 구입 장소의 경우 2014년 무점포-> 슈퍼마켓->소형매장 순위에서 2015년 1월-8월 상담의 경우 무점포-> 대형마트-> 슈퍼마켓으로 변경 되었다.
이 외 제품 구입방법, 상담이유, 상담 처리 결과는 2014년과 2015년 1월-8월 상담사례 모두 순위가 동일하다.

넷째, 식품. 정보제공 불만사례는 2014년 3순위, 2015년 1-8월 1순위, 2014년과 2015년 1월-8월 합계 2순위이다. 항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 정보제공 불만사례는 식품 분석을 통해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상담 접수 시 자세한 상담내용 기록과 접수 매뉴얼 표준화와 대응 답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 된다면 향후에는 객관적 원인분석과 소비자상담사례 관련성 파악을 통해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분유류'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집중분석

Ⅰ. 분유류 상담 사례분석

□ 조사목적

- 지속적으로 분유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분유에 있어서의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정보제공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분유의 경우 법적 관리기준이 조제분유와 성장기용조제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초유성분이 함유된 분유, 산양에서 얻은 분유 등 종류가 다양하여 소비자 문제가 복잡한 양상을 띄므로, 정보제공에의 요구도를 파악해 보고자 함

□ 조사개요

- 상담접수기간: 2014.01~2015.08
- 분석대상: 1372상담센터에 접수된 분유류 221건

1. 불만사례접수 지역

- 지역별 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경기 60건(27.1%), 서울 48건(21.7%), 부산 26건(11.8%) 순으로 나타났다.

No	지역명	빈도	백분율(%)
1	서울	48	21.7
2	경기	60	27.1
3	강원	3	1.4
4	경남	7	3.2
5	경북	7	3.2
6	전남	8	3.6
7	전북	13	5.9
8	충남	15	6.8
9	충북	2	0.9
10	광주	2	0.9
11	대구	14	6.3
12	대전	2	0.9
13	인천	11	5.0
14	부산	26	11.8
15	울산	2	0.9
16	제주	1	0.5
합계		221	100.0

2. 제품 구입장소

- 제품을 구입한 장소는 무점포 110건(49.8%), 대형마트 48건(21.7%), 슈퍼마켓이 41건(18.6%), 소형시장 19건(8.6%) 순으로 조사되었다.

No	구입처	빈도	백분율(%)
1	슈퍼마켓	41	18.6
2	대형마트	48	21.7
3	편의점	1	0.5
4	재래시장	1	0.5
5	소형시장	19	8.6
5	음식점	1	0.5
6	무점포	110	49.8
합계		221	100.0

3. 제품 구입 방법

- 제품 구입방법으로는 직접구입이 110건(49.8%)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98건(44.3%) 순으로 조사되었다.

No	구입방법	빈도	백분율(%)
1	직접구입	110	49.8
2	전화통신판매	8	3.6
3	전자상거래	98	44.3
4	TV홈쇼핑	5	2.3
합계		221	100.0

4. 상담이유

- 상담을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보요청 78건(3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당행위 시정 52건(23.5%), 환불 28건(12.7%) 순으로 조사되었다.

No	상담이유	빈도	백분율(%)
1	교환	14	6.3
2	반품	22	10.0
3	환불	28	12.7
4	해지	6	2.7
5	치료비요구	5	2.3
6	손해배상청구	13	5.9
7	부당행위시정	52	23.5
8	정보요청	78	35.3
9	기타	3	1.4
합계		221	100.0

5. 불만상담 사례

- 불만사례별 건수를 확인한 결과, 이물질 종류가 69건(31.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및 관련정보 제공 30건(13.6%), 배송문제 29건(13.1%) 순으로 나타났다.

- 불만이 접수된 사례를 보면, 이물질 31.3%, 식품 및 관련정보 제공 13.6%, 배송문제 13.1% 을 차지하고 있어 이물질 관련 상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이물질에서는 벌레, 검은 물질, 거미 등의 물질이 발견되어 분유생산업체에 항의를 하고, 그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문의한 건이 많았다.

상담 사례		빈도		백분율 (%)	
이물질	벌레	69	27	31.3	12.2
	머리카락		3		1.4
	다칠 수 있는 이물질		5		2.3
	다칠 수 없는 이물질		34		15.4
침전물		9		4.1	
설사/복통		11		5.0	
두드러기		3		1.4	
유통기한경과		7		3.2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2		0.9	
상함/부패		2		0.9	
악취		1		0.5	
성분검사		8		3.6	
품질불량		14		6.3	
용기파손		7		3.2	
포장불량		5		2.3	
과대광고		1		0.5	
가격미표시		1		0.5	
성분표시		3		1.4	
식품 및 관련정보제공		30		13.6	
배송문제		29		13.1	
가격불만		6		2.7	
철회		13		5.9	
합계		**221**		**100.0**	

6. 상담처리결과

- 상담처리결과는 상담 및 정보제공이 204(92.3%)건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상담이나 정보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No	처리 결과	빈도	백분율(%)
1	교환	1	0.5
2	환불	8	3.6
3	해지	2	0.9
4	손해배상청구	2	0.9
5	사과요구	1	0.5
6	부당행위시정	3	1.4
7	상담/정보제공	204	92.3
합계		**221**	**100.0**

5.3.3. 국내외 식의약품 관련 언론 기사 수집 및 분석

○ 국내외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식의약품 사고와 소비자 관심 품목이나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언론 보도자료를 수집함.

○ 식약처 보도자료, 식품나라 오늘의 뉴스, 식품안전정보원,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매월 국내외 식의약품 이슈를 수집하고 식의약품 안전관리 소통 주제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1) 국내사례

주요내용
○ **대상포진 예방백신 '조스타박스' 전문의약품 불구 일반인에 광고 논란** (2015.01.05. / 국민일보) 한 병원에서 대상포진 예방백신인 '조스타박스'가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에게도 버젓이 홍보가 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제약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MSD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홍보자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병원이 백신에 대해 환자들에게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열대에 비치한 것이며 당사의 마케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백신 등의 전문의약품 광고를 일반 대중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게 될 경우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사람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잘못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광고를 규제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78조 2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나 약사를 제외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다. 다만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백신의 경우에는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가 가능하다. 다만 여전히 대부분의 백신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TV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 **성형시술 의약품 수만점 중국서 밀수·시술 일당 4명 입건** (2015.01.05. / 국민일보) 중국에서 보톡스와 필러 같은 성형시술 의약품 수만점을 몰래 들여와 팔고 무면허 시술까지 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밀수업자를 구속하고 운반책, 무면허 시술업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밀수업자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시가 12억원 상당의 필러와 보톡스 등을 불법으로 들여왔다. 이를 무면허 업자들이 싼 값에 수백개씩 사갔다. 얼굴 잔주름을 메우고 피부를 팽팽하게 펴주는 필러와 보톡스는 신경을 잘못 건드릴 경우 얼굴 마비나 실명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숙련된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술 시간이 짧고 준비물이 많지 않아 무면허 업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의학적 지식 없이 어깨 너머로 시술을 배운 무면허 업자에게도 60여명이 시술을 받았다.

○ **식품의약안전처, 즉석식품 '레알떡라볶이'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 (2015.01.06./ 메디컬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PC방 등에서 팔리고 있는 즉석식품 '레알떡라볶이'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제품은 유통기한 2015년 1월 23일까지의 식품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사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 됨에 따라 위해식품으로 판정하고 회수 조치를 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기한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회수영업자인 맘마웰FDS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구입한 업소로 되돌려 주기를 당부했다.

○ **오뚜기 '뽀롱뽀롱 뽀로로 비타민C' 갈변현상, 자발적 회수나서** (2015.01.14.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오뚜기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네이처바이 '뽀롱뽀롱 뽀로로 비타민C' 일부 제품에서 갈변현상이 나타났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제조된 오뚜기 제품 중 일부가 하절기 관리소홀로 높은 습도 및 온도에 노출되면서 산소 등과 반응해 갈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오뚜기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으나 비타민C 함량이 감소하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 중 유통기한 이내에 갈변현상이 발생한 제품은 반품 및 환급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 **우식품제조장 제조 캬라멜 색소서 발암물질 검출, 판매중단 및 회수** (2015.01.15. / 뉴스파고)

천우식품제조장에서 제조한 캬라멜 색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초과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천우식품제조장이 제조한 카라멜색소(제품명: 카라멜) 제품에서 4-메틸이미다졸(4-MI, 기준: 250mg/kg 이하)이 기준초과 검출(922mg/kg)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북 청도군이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4년 12월 19일인 제품으로, 4-메틸이미다졸은 암모니아와 당의 가열반응에 의해 미량 생성되는 부산물로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그룹 2B(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리 과정 중 식품에도 생성될 수 있다.

○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기 추진** (2015.02.05. / 약업신문)

제품 내부에만 명기됐던 화장품 유통기한이 겉포장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소비자의 구매편의와 이용안전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의 주요 골자는 국민의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과 견본제품 등에 사용기한 표기가 없어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고 상품반환, 환불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장품 사용기한 의무표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화장품 법 제10조에는 1차 포장용기에만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하고 견본품 등에는 표시의무가 없었다. 국민권익위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과 우리나라 화장품을 구매하는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류 화장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대외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고 말했다.

○ **식약처, 짝퉁 '홍삼원' 제조판매업자 적발** (2015.02.11.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정관장 '홍삼원'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적발된 일당은 지난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관장 '홍삼원' 제품과 유사한 홍삼 제품 1천 박스(30포/박스)를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생산해 시가 3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홍삼원' 제품은 국내 유명브랜드인 정관장 제품의 로고, 바코드,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제품품질보증서까지 정교하게 모방해 정관장 제품과 육안으로 구별해내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또한 파우치 포장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인쇄한 뒤 보따리상을 통해 6만장을 국내에 밀반입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박스포장에는 2015년 9월 8일, 내부 파우치 포장에는 2016년 8월 31일로 이중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다.

○ **유럽식품안전청도 비스페놀A 안전하다는 결론 내놔** (2015.03.25. / 한국경제)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쓰이는 '비스페놀A(BPA)'의 안전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 BPA의 인체 위해성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최근 방한한 스티브 헨처스 미국 화학협회(ACC) 전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어 EFSA에서도 BPA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며 "이는 비스페놀A의 노출로 인한 소비자 건강 위해성이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BPA는 그동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지목된 화학소재다. 일부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나 에폭시 수지로 만든 제품에 열을 가하면 BPA가 녹아 나와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국내에서는 BPA의 환경호르몬 논란이 발생하면서 젖병 불매 운동이 발생, 제품 생산이 중단된 적도 있다.
헨처스 전무는 "현재 소비자가 식품용기 등에서 섭취하는 BPA의 노출량은 매우 극소량이고, 특히 인체에 들어온 BPA는 24시간 내에 무해한 물질로 변해 몸에서 소변 등으로 빠르게 배출 된다"며 "이는 건강과 관련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 용기와 관련된 BPA는 전체 생산량의 1% 미만에 불과하다"며 "BPA가 100% 인체에 무해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현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종 제품에서 노출되는 빈도나 양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BPA 대체재, 예컨대 프리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BPA 대체재로는 아크릴, 폴리스티렌, 폴리에테르설폰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헨처스 전무는 "BPA의 경우 현재까지 8200건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대체재의 경우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대체물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에서 에스트로겐 활성물질이 나왔다는 연구도 있다"고 말했다.

○ **작년 식품 허위과대광고 10건 중 8건은 질병 치료·예방 거짓 광고** (2015.03.26. / 파이낸셜 뉴스)

작년 식품 허위과대광고 10건 중 8건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한 사례였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505건을 분석한 결과, 80%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례였다고 밝혔다.
주요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 광고(80%)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8.3%)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이외의 광고 10건(2.0%)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 9건(1.8%)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6건(1.2%) 등이다.
주요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쑤시고 뼈아픈 관절에 좋다는 '질병치료' △남성 정력을 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인 '암 치료'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키성장' △모유수유에 효과가 있는 '특정성분 지칭' 등이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을 표방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오는 4월 중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직접 요양원을 방문해 노인들이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허위광고에 속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의약품 부작용 신고 작년 18만 건, 항암제 최다** (2015.04.01. / 연합뉴스)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등을 신고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가 전년과 비슷한 18만3천544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전문가, 일반인 등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 건수를 1일 공개했다. 최근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는 2011년 7만4천657건, 2012년 9만2천375건, 2013년 18만3천260건이었다.
지난해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을 효능군별로 분류해보면 항악성 종양제(항암제)가 2만9천577건(16.1%)으로 가장 많고, 해열진통소염제 2만2천912건(12.5%), X선 조영제 1만4천572건(7.9%), 항생제 1만3천286건(7.2%), 합성마약 1만1천365건(6.2%) 등의 순이었다.
증상별로는 오심(헛구역질) 2만8천141건(15.3%), 가려움증 1만6천868건(9.2%), 두드러기 1만5천14건(8.2%), 구토 1만4천929건(8.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부작용 등이 보고된 의약품 가운데 성분 제제 분석과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X선 조영제인 '요오딕사놀' 등 14개 성분제제(298개 제품)의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거나 지속적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등 선제적 안전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안전성 정보 보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이 있다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나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증상을 보고 해 달라" 고 당부했다.

○ **'키 크는 데 효과 있다' 허위·과대광고 식품업체 적발** (2015.04.02.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어린이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식품 판매 업체 대표 임모(58)씨 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결과 임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일반 식품인 '광동

키즈앤지'를 '복용한 지 10개월 만에 무려 10.8㎝ 폭풍 성장 했어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등 문구를 사용해 시가 14억여원 어치를 판매했다. 식품 판매 업체 대표 윤모(41)씨도 칼슘과 비타민이 함유된 건강식품 '프리미엄 키즈본'을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유명 연예인 자녀가 제품을 섭취한 결과 키가 컸다는 체험기까지 사용해 허위·과대광고 했다. 또 다른 식품 판매업체 대표인 김모(42)씨는 일반 식품인 '마니키커'를 '성장 호르몬 6배 촉진', '복용 시 8시간 후 성장인자 28% 증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 시가 2억7천여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조된 식품으로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적발됐다"며 "앞으로도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 **7월부터 물휴지(물티슈), 화장품으로 관리 된다.** (2015.04.02. / 한국경제TV)

지난해 예고되었던 물휴지(물티슈)의 화장품 전환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이 완료되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것.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물휴지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는 등 물휴지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제품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물휴지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2015년 6월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여야하며,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감시를 받게 된다. 또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휴지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하여「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오는 4월3일에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물휴지'에 대하여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 및 '형광증백제'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물휴지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 무턱대고 믿었다간** (2015.04.03.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총 제공량을 기준했을 때 기준 범위를 넘기는가 하면,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도 산도조절제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함유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3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식약처에서 발표한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목록에 포함된 106개 제품 중 주요 식품기업인 남양유업(대표 이원구), 동원F&B(대표 박성칠),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 롯데푸드(대표 이영호), 매일유업(대표 김선희), 빙그레(대표 박영준),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현), 팔도(대표 최재문), 해태제과(대표 신정훈) 등 총 9개 식품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은 여느 제품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명확한 선정 기준에 의한 인증이라기보다는 제품 홍보성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영양에 관한 기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간식)은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 이하, 포화지방 4g 이하, 당류 17g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채주스는 당류를 첨가해선 안 되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비타민이나 무기질 역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엄격해 보이는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들은 업체들 임의대로 결정하는 '1회 제공량 쪼개기'로 인해 쉽게 충족이 가능하다.

업체에서는 아이들 영양간식으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다 먹을 경우 영양섭취 면에서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셈이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의 최현숙 소장은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이 시행된 지 7년가량 됐는데도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생소할 뿐 아니라 업체의 홍보 수단에 그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식품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들도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이라는 문구를 맹신하지 말고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글로벌 식품업계 설탕 대안 찾자, 천연감미료 개발 경쟁** (2015.04.06. / 머니투데이 파이낸셜타임스)

설탕이 비만과 당뇨 등을 유발하는 공공의 적으로 몰리면서 글로벌 식품업계에서 설탕을 대체할 천연감미료를 찾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단맛을 내는 감미료는 식품에 필수불가결한 첨가물이다. 전 세계 감미료시장 규모는 700억달러(약 75조9150억원)로 이 중 설탕시장(600억달러)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이밖에 천연감미료 일종인 고과당 옥수수시럽이 70억달러, 나머지 30억달러는 파라과이가 원산지인 식물에서 추출하는 고당도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2억달러)와 기타 인공감미료 몫이다.
문제는 설탕이 대표적인 천연감미료지만 비만을 비롯한 성인병 유발원으로 낙인찍혔다는 점이다. 미국 월가 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설탕이 비만과 당뇨 등을 일으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며 설탕 섭취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경제가 망가지기 쉽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건강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은 천연 식품 수요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당국의 건강 관련 식품 규제가 강화된 것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들은 설탕을 대체할 천연감미료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스테비아는 설탕보다 당도가 300배가량 높지만 칼로리가 낮은 게 특징이다. 가격이 상당하지만 적은 양으로 높은 당도를 낼 수 있는 만큼 식품업체 입장에선 설탕보다 비용 부담이 덜 하다.
하지만 스테비아도 단점이 있다. 뒷맛이 써 설탕과 함께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스테비아 생산업체들이 뒷맛을 조절하자 펩시는 지난해 10월 스테비아와 설탕을 함께 쓴 '펩시 트루'를 선보였다. 이보다 앞서 경쟁사인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라이프'를 내놨다. 스테비아의 성공은 다른 천연감미료 개발을 위한 투자를 부추겼다. 중국의 '나한과'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추출한 감미료 역시 설탕보다 300배가량 당도가 높다. 뉴질랜드 기업인 바이오비토리아는 나한과에서 추출한 천연감미료를 상용화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고 유럽연합(EU)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서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덩굴식물 오블리에서 추출한 브라제인이라는 단백질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나투르(Natur)리서치라는 회사는 '크윗'(Cweet)이라는 브랜드로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FDA에 승인을 신청했다. 이밖에 영국 테이트&라일은 지난달 옥수수에서 추출한 알룰로스를 이용한 천연 감미료 '돌시아 프리마'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설탕을 대체할 천연 감미료 개발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지겠지만 새 감미료를 둘러싼 천연, 인공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탈모 치료 전문의들 "허위·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2015.04.14. / 연합뉴스)

탈모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탈모 치료제·시술의 과장 광고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모발학회, 대한탈모치료학회, 대한모발이식학회(피부 성형)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탈모 치료나 모발 이식 수술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허위·과장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성초'를 들었다. 특정 의사의 홍보 활동으로 한때 탈모 치료

제로 각광 받던 어성초는 지금까지도 효능을 검증한 공식적인 연구가 한 차례도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또 최근 기존 '절개식' 모발이식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광고되는 '모낭단위적출술(FUE)' 역시 과장 광고 사례로 지목됐다.
일부 의사들이 광고를 통해 "FUE 방식은 초음파를 이용해 모낭 손상이 적고 이식 성공률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초음파를 특정 방식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모낭 손상이 적어진다는 주장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한탈모치료학회 관계자는 "특정 치료제나 시술의 효과를 입증하려면 검증된 논문 등 신뢰할 만한 근거가 필요하지만 최근 근거 없는 과장 광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과장 광고는 결국 전체 의사의 명예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어린이 중독' 75% 집에서 발생…의약품·살충제 주범** (2015.05.04. / KBS뉴스)

어린이 중독 사고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주로 의약품과 살충제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른들의 관리 소홀로 최근 3년 새 14살 이하 어린이가 삼키거나 흡입해 일어난 중독사고 천 4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약품에 의한 사고가 2백 58 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의약품 가운데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의사 처방 뒤 조제된 전문 의약품이 많았고, 감기약과 안약 등 가정상비약도 상당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살충제가 68건으로 7%를 차지했고, 표백제와 비누류 순이었습니다. 특히, 식초를 마시거나 엎질러 화상을 입은 사고가 11건이었고 구강청결제를 마시고 구토나 복통 등을 일으켜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2건 있었습니다. 사고의 76%는 가정에서 일어났고, 이어 상업시설과 문화놀이시설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 사고가 831 건으로 82%를 차지했고 7살에서 14살 사이 어린이 사고도 백 73건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중독사고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의약품과 표백제 등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품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 의무화 식품위생법 본회의 통과. 빠르면 2017년 후반기부터 모든 식품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2015.05.07. / 약업신문)

앞으로 제조·가공·수입하는 국내 모든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트륨 함량을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식약처 고시에 따라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당 또는 1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 각 제품에 함유된 나트륨의 양의 과소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같은 식품 내에 각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나트륨 섭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3년 8월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제332회 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정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값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또는 중위수와 국민의 나트륨 목표 섭취량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2011년 기준, 라면이 포함된 유탕면류 중 조사된 식품의 나트륨 평균값은 1415mg/100g

이다. 평균값과 국민 나트륨 목표 섭취량을 고려한 기준값이 1000mg/100g일 경우, 해당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1200mg이라면, 기준값인 1000mg/100g과 해당 라면의 나트륨 함량인 1200mg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색상과 모양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게 된다.
이에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식품군을 1차년도 면류·음료류를 시작으로 제품군·제품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유예기간인 2년 동안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소비자·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벤젠 첨가한 맛기름 1200t(38억원 상당) 제조판매한 식품업체 3명 구속** (2015.05.15. / 경향신문)

대구수성경찰서는 15일 발암물질인 벤젠을 첨가한 향기유(맛기름) 38억여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식품업체 관계자 5명을 적발해 대표 김모씨(58)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중국 산둥성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벤젠을 첨가해 목화씨에서 추출한 면실원유를 제조한 후 이를 참깨추출물 등과 혼합해 참향미유·들향미유를 만들었다. 이어 이를 경기 안산 소재 국내 본사로 들여와 옥수수유·대두유 등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향미유 완제품 12종류 1200t(시가 38억여원)을 만들어 식당과 마트 등 전국 83개의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경북 영천 소재 한 식품업체가 김씨가 운영하는 식품업체에서 구입한 면실원유에서 심한 휘발성 유기물질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 3월 김씨의 식품업체가 유통시킨 향미유 완제품 7점과 시료를 압수해 검사한 결과 벤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식품업체의 향미유 완제품 1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의 제품에서 벤젠이 검출된 것을 확인, 전 제품을 회수 폐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식품업체의 향미유 완제품에 함유된 벤젠 검출량은 평균 80ppb이었다.
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수질기준은 벤젠의 경우 10ppb 이하이다. 경찰은 면실원유의 검은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탈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식품제조가공 기준을 위반하고, 면실유 혼합사실을 표기하지 않는 등의 원재료 성분 허위표기 등의 위반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역 넓어지는 할랄 열풍] 식품 → 의약품 → 화장품으로** (2015.05.25. /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할랄 열풍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식료품이다. 그러나 할랄은 먹는 것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화장품과 의약품, 의류 등 생활용품을 비롯해 금융과 미디어까지 모두 할랄의 대상이다.
화장품도 식품과 마찬가지로 할랄 인증을 받는다. 동물성 재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색조 화장품이나 마스크팩은 큰 문제가 없지만, 로션·크림 등은 할랄에 민감하다. 돼지로부터 나온 콜라겐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슬람에서는 금지된 재료다. 이에 따라 무슬림은 다른 동물 재료를 사용해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을 쓴다. 현지에서는 할랄로 인정되는 매니큐어도 개발되고 있다. 무슬림은 원칙적으로는 매니큐어를 바르기 어렵다. 매일 다섯 번씩 하는 기도 전에 손발과 얼굴을 씻는데, 이때 지워지지 않는 매니큐어는 율법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쉽게 뗄 수 있는 제품이나, 안으로 물이 스며드는 매니큐어가 할랄 인증을 받아 인기를 끌고 있다.
非무슬림 소비자도 관심
최근 이슬람 지역에서 할랄 규율이 강조되면서 이 같은 할랄 인증 화장품의 선호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할랄 화장품은 무슬림뿐 아니라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이나 유해 화학물질을 기피하는 소비자의 관심도 끈다. '이슬람 경제 현황 보고서 2014-2015'에 따르면 세계 할랄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3년 400억 달러(약 43조원)에서 2019년 730억 달러(약 78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부는 자국의 화장품 시장 중 10~20%가량이 할랄 화장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

내 화장품 업계의 할랄 인증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K-뷰티의 인기가 중국·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중동 지역에는 본격적인 진출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 업계는 할랄 화장품 시장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철저한 시장조사를 벌이며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아직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없지만 이슬람 지역의 시장조사와 함께 할랄 인증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제약 업계도 할랄 인증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최근 커지는 동남아 시장에서도 할랄 인증이 이슈가 되고 있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각 제약사가 개별적으로 대응을 준비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의약품에서 할랄 인증에 관건에 되는 것은 연질 캡슐이다. 흔히 제조되는 캡슐형 약제의 재료는 돼지로 만든 젤라틴이다. 따라서 할랄 인증을 준비 중인 제약사는 연질 캡슐을 다른 제형이나 식물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복지부, '쇼닥터' 금지법안 원안대로 간다** (2015.05.29. / 메디파나뉴스)

복지부는 방송 등에 출연,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기식 등에 대한 효능을 알리는 의료인 일명 '쇼닥터'에 대한 금지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입법예고한 후 4월 20일 재입법예고했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알려진 대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은 '쇼닥터' 금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쇼닥터' 금지를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할 것이며,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같은 의협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4월 재입법예고했던 '쇼닥터' 관련 내용에 수정 없이 원안대로 복지부 안을 결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율규제보다는 강제성이 필요하다"라며 '쇼닥터'를 강력하게 금지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특정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재입법 예고안에서는 골격이 유지된 채 일부 자구만 수정이 됐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7월 경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심사 과정에서 '쇼닥터' 관련 내용에 수정이 발생할 지 주목된다.

○ **공정위 "롯데홈쇼핑, 화장품 샘플을 정품처럼 거짓광고"** (2015.06.24. / 조선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한 롯데홈쇼핑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TV홈쇼핑을 통해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공정위는 롯데홈쇼핑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홈쇼핑이 판매한 화장품은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이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이를 용량이 20ml인 정품인 것처럼 시각적 이미지를 왜곡했다.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지만, 롯데홈쇼핑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방송의 쇼호스트와 게스트가 "정품으로 40만원 상당"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판매 중인 제품의 정상가격이 40만원인 것처럼 방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거짓·과장 광고의 피해 역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 **"식품 속 금속·벌레 쉽게 찾는다" 이물질 검사기술 상용화** (2015.06.26. / 한국농어민신문)

식품 속 미세한 금속이나 벌레 등 이물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식품 이물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특허 패키징 및 공동마케팅 지원을 통해 한국식품연구원이 개발한 '테라헤르츠파 기반 실시간 식품품질 검사기술'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 ㈜TECC에 5억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진행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최성욱 식품연구원 박사팀이 개발한 테라헤르츠파 기반 식품검사장치는 전파의 투과 특성과 빛의 물질 고유 흡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파장 대역인 테라헤르츠파의 특성을 활용, 영상 촬영을 통해 1mm 이상의 금속, 벌레 및 플라스틱 등 경질성 이물과 연질성 이물 모두 검출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검사 장치다. 기존 방사선 검사기에서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식품 속의 벌레, 머리카락 등 연질성 이물을 고속으로 검출할 수 있어 식품 안전성 향상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중략) 박용곤 식품연구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 본격적인 제품화로 이어지게 되면 식품 이물질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략)

○ **인삼, 의약품 아닌 식품으로 인증…수출길 넓어져** (2015.07.07. / SBS뉴스)

인삼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부터 식품으로 공식 인정받아 수출길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제품 규격이 최종 심의를 통과해 세계규격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CODEX는 소비자 건강보호와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로, CODEX 규격은 186개 전체 회원국에 대한 권고기준이며 국제교역을 할 때 공인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인삼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간주돼 왔는데, 식품이 되면 통관 절차도 더 간단해지고 관세 혜택도 더 받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수출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인삼제품이 세계규격으로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등재된 김치를 포함해 2개의 CODEX 세계규격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고추장과 된장은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지난 2009년에 등재됐습니다.

○ **유기농 화장품 시대 본격 개막…유기농 성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2015.07.13. / 한국경제TV)

국내에도 드디어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 그 동안 업계 자율에 맡겨져 화장품 전반에 걸쳐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유기농` 표시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을유기농 원료로 함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유기 농원료에 대한 인증기관이 없는 상황이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해외인증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유기농 원료가 기준이 되고 있다. (중략)

▲ 미국, 유럽 등 해외 인증기관에 인정받은 유기농원료만이 `진정한 유기농`으로 인정
새로 시행된 규정을 보면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유기농, 식물, 동물, 미네랄 원료와 물이다. 원칙적으로 합성원료는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지만,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정부에서 허용한 합성원료 내에서 5%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표시 제품의 유기농 원료는 해외 인증기관의 기준을 따른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유기농 인증기관으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공신력 있는 정부 산하 기관이나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이다. 이미 국내외 대표적인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유기농 관련 선진국에서 만든 유기농 화장품 인

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주요 해외 인증마크로는 미국 USDA, 독일 BDIH, 프랑스 ECOCERT, 이탈리아 ICEA, 영국 Soil Association, 일본 JAS 등이 있으며, 미국, 유럽연합 등은 정부 주도하에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외에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민간 차원의 인증마크 제도도 갖고 있다.

▲ 해외 유기농 인증기관도 유기농에 대한 정의, 인증 마크를 위한 함량 기준 서로 달라
다만, 해외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인증마크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품 내 유기농 원료의 함량은 차이가 있다. 이에 유기농 제품을 선택할 때는 유기농 인증마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제품 내 유기농 원료의 함량까지 따져봐야 한다. (중략)

▲ 국내 유기농화장품 기준 마련됐지만 인증기관 및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선책 필요
7월부터 시행된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유기농 원료의 정의, 함량뿐 아니라 제조공정, 작업장 및 제조설비, 포장, 보관 등 제조 과정전반에 걸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기농 인증기관에 대한 추후 계획이 부재하고, 개정된 기준을 근거로 정부가 인정하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마크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천연 화장품에 대한 기준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최근 들어 대나무, 녹차, 유채 등의 식물성 원료는 물론 열매와 씨앗을 활용한 제품, 마유, 산양유 등 동물성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천연`, `식물 유래의` 등의 모호한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 전문가들 역시 유기농 화장품 대비 비교적 낮은 기준이더라도 천연 화장품의 성분과 함량에 대한 별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내 유기농, 천연 화장품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과 기준 마련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최음제·동물의약품까지 섞여…해외 인터넷판매 기능식품 불량** (2015.07.20. / 뉴시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기능식품들에 무더기로 유해물질이 검출돼 직구에 주의가 요청됐다. 동물의약품에 최음제 성분까지 섞여있었다. 20일 식품의약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효과 54개 제품, 성기능 개선 24개 제품, 근육강화 31개 제품 등 109개 제품을 수거·검사했다. 검사 결과, 20개 제품에서 이카린,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조사 내용을 관세청에 통보해 통관이 금지되도록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유해물질 검출 내역을 보면 슈퍼제닉(Supergenic), 맥스-슬림(Max-Slim)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2개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시부트라민 등이 나왔다. 마카맨(MACA Man), 테스토잭200(TestoJack 200)과 같은 성기능 개선 제품 5개는 최음제로 사용되는 이카린 등을 사용했다. 슈퍼린(SuperLean), 테스토젠(Testogen-XR) 등 근육 강화 제품 3개에서도 요힘빈이나 이카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 판매 제품 중 다이어트,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등의 허위·과대광고가 많다"며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건강기능식품에 '○○맛' 표시 가능해졌다** (2015.07.21. / 약업신문)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최근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에서 제품 주표시면에 '오렌지맛' '딸기향' 등의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한다는 것이다.
'○○맛'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 부원료를 강조한 것으로 보고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단계에서 이같은 표시하지 못하도록 정한 방침을 지난 6월 수정한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맛'과 같은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쳤다.
지난 6월 열린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 표시 허용과 관련한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설명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맛'이라는 표현을 부원료 강조 표시로 보고 심의단계에서 허용하지 않았다"며 "굳이 이같은 표현을 부원료 강조 표시로 볼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에 따라 표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소비자가 기능성이나 주원료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심의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홍삼맛'과 같은 표현의 경우 주원료나 기능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표시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이러한 기능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맛' 표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를 진행하면서 허용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표시 허용은 앞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 광고물에 바로 적용된다.

○ **단지 아름답기만 할까? 우리의 눈을 위협하는 써클렌즈, 올바른 선택법** (2015.08.17. / 뉴스1Biz)

금일 SBS 모닝와이드를 통해 방영된 써클렌즈의 내용이 화제다. 본래 써클렌즈는 젊은 여성들이 미용을 위해 많이 선호해온 아이템 중 하나이다.하지만 렌즈에 화려한 무늬를 수놓은 색소가 여성들의 눈을 더욱더 위협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각막염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여성(114만6000명) 환자가 남성(59만8000명)의 1.9배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가장 큰 원인은 콘택트렌즈의 잘못된 착용과 무분별한 서클렌즈의 착용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SBS 모닝와이드에서 면봉을 활용해 서클렌즈를 색소용출 테스트 해본 결과 일부 써클렌즈에서 색소가 묻어나는걸 확인했다. 저가, 고가를 막론하고 다양한 제품에서 색소가 묻어나는게 밝혀진 셈이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미용 콘택트렌즈는 색소용출을 보이거나, 세포독성을 내포해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말에 따르면 " 좋은 써클렌즈를 고르기 위해선렌즈와 렌즈 사이에 색소가 샌드위치처럼 위치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고 한다.
이어 " 이와 같은 경우,색소가 직접적으로 눈에 닿지 않기 때문에 렌즈 표면에 색소를 바로 입히는 것보다 안전도가 훨씬 높다며, 만약, 색소가 묻어나는 써클렌즈를 사용할 경우 각막손상 위험이 높아지며 점차 시력이 저하 돼 심지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 전한다.
한편 모닝와이드에서 방영된 써클렌즈에 관련된 영상이 SNS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여성 전문 페이스북 커뮤니티 페이지인 '여자가 화장하는 이유' 에서 모닝와이드의 써클렌즈 관련 영상을 게시한 글이 도달 수 100만 이상, 영상 조회수 70만 이상, 댓글이 3000개에 육박하면서소비자들의 써클렌즈 사용 및 선택에 대한 우려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다.
댓글에 따르면, "지금 당장 면봉테스트 먼저 해보자" "아 여태까지 그냥 모르고 썼는데 어떡해" "렌즈와 렌즈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염료 넣는 제품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 등 써클렌즈 사용에 대해 많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2015.08.18.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기업이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위반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내년부터 커피 등에도 나트륨 함량 표시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

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HACCP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이다. 구체적으로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시 60점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취소하도록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를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추가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업체들을 고려해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정보 공개된다** (2015.08.31 /경향신문)

소비자들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의 수입 업체와 수입량 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지난 28일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업체가 아닌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나아가 GMO를 원료로 사용했으면 예외없이 무조건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앞장설 것"이라며 "또 식약처가 공개하는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지체없이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월 GMO수입현황 등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식약처가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3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실련은 당시 "이미 CJ제일제당,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사례가 있고 해당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해 식용유 등을 제조한다고 밝혔으니 관련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가짜' 홍삼농축액 팔아 27억 원 챙긴 업자 적발** (2015.09.17. / KBS뉴스)

가짜 홍삼 제품을 만들어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한 제조 업자가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홍삼 농축액이 들어있지 않은 가짜 홍삼 제품을 만들어 판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 농축액을 넣지 않은 홍삼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만들어 판 혐의로 51살 공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씨는 지난 2012년 초부터 올해 7월까지 홍삼음료 15개와 액상차 2개 등 모두 17개 제품에 홍삼 농축액 대신 홍삼향 식품첨가물이나 캐러멜 색소 등을 사용해 27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해 온라인과 방문 판매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일부 제품은 공장 출고가가 7천원에서 만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7만원에서 20만 원까지 부풀려 판매됐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공 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평소에는 정상 제품을 만들면서 수시로 가짜 제품을 만들고 이중으로 생산일지를 허위 작성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위생관리 점검을 소홀히 한 제약업체 직원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홍삼 등 인기 건강식품의 가짜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뼈·피부·머리카락 재생된다" …건강기능식품 속여 판 40대** (2015.10.27. / 뉴스1)

대전 동부경찰서는 27일 식이유황 건강기능식품이 뼈와 피부는 물론 머리카락 등을 형성·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위반)로 업체 대표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일부터 7월7일까지 인터넷신문에 자신이 판매하는 식이유황 제품이 관절, 뼈, 피부, 머리카락 등을 형성·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허위·과장 광고해 소비자 516명에게 5959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가공육 발길 '뚝'…식품업계, 가공육 발암물질 논란 진화 '진땀'** (2015.10.28. / 한국농어민신문)

가공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가 확산되면서 국내 식품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가공육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부대찌개 전문점 등 가공육을 사용하는 음식점에까지 분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중략)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육에 대한 정밀 유해평가를 실시한 뒤 섭취 기준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26일 소시지와 햄 같은 가공육을 장기간 섭취하면 직장암과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실려 있다. 이에 따라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에 포함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도 2군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육가공협회는 "단백질의 보고인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1군 발암물질인 석면·비소 등과 동급으로 거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인의 연간 가공육 소비량은 WHO의 위험 섭취량인 18㎏보다 훨씬 적은 4.4㎏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기관을 통해 신뢰성있는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공육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국내 식품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중략)

2) 국외 사례

국가	주요내용
미국	○ **설탕 과다섭취, 각종 만성질환 유발, "가공식품 첨가당이 문제"** (2015.01.03. /아시아투데이) 설탕 과다섭취가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설탕에 관한 8000여 편의 연구논문을 종합분석한 결과 설탕 과다섭취가 지방간, 2형(성인)당뇨병, 대사장애 등 만성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의학뉴스 포털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설탕 과다섭취는 살만 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설탕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있는 로라 슈미트 박사는 선언했다. 아이들의 성인 당뇨병 급증과 치솟는 지방간과 대사장애 발생률이 이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그는 지적했다. 미국당뇨병학회의 최신통계에 따르면 미국 전체인구의 9.3%인 2910만 명이 당뇨병 환자이며 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 미국간장재단에 의하면 미국인 10명 중 한 명꼴인 최소한 3000만 명이 갖가지 간장질환을 겪고 있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소아내분비내과 전문의 로버트 러스틱 박사는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심장병, 당뇨병, 간 기능장애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요인들을 한데 묶은 대사증후군을 겪고 있으며 이는 첨가당의 과도한 섭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대사증후군은 비만 때문이라고 널리 알려졌지만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표지'일뿐 원인은 아니며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은 설탕의 과다섭취라고 그는 주장했다. 따라서 비만에 문제의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설탕이 첨가되는 가공식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대만	○ **매일 탄산음료 마시면 결석 생성 및 노화 가속화** (2015.02.03. / 식품나라 - 자유시보) John Tung Foundation(JTF)은 탄산음료에는 당분과 첨가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골질 유실, 심지어 암 유발의 리스크를 높이는 등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되도록 마시지 말 것을 권장하였다. John Tung Foundation (JTF) 식품영양팀 주임은 성인의 일일 당분 섭취량이 25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330ml 음료 1병에 36g의 당분이 함유되어 있어 권장량을 훨씬 초과한다고 언급하였다. 당분을 과량 섭취하면 신체 노화가 가속화되며, '미국 공중보건' 잡지에 작년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일 당이 함유된 탄산음료 약 590ml이상을 마신 사람의 세포가 평균 4.6년 빨리 노화됐다고 한다.
미국	○ **다크초콜릿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성분 우유, 소비자 주의 당부** (2015.02.11. / 식품나라-미국식품의약품청(FDA))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다크 초콜릿 1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를 통해, 이들 제품 중 다수에 우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FDA는 이를 토대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유 성분을 조심해야 하는 가정에 주의를 당부했다. 우유는 8가지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그 외 밀, 달걀, 땅콩, 트리넛, 어류, 갑각조개류, 대두)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법에 따라 주요 알레르기 성분을 포함한 식품의 라벨에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

	고 있다. FDA는 이번 조사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발견하였다. -"유성분 free 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free"라고 표시된 다크 초콜릿이 우유를 덜 함유하고 있을 것 같아도, 이들 17개 제품 중 2개에 우유가 함유된 것이 확인되었음. -우유 성분을 라벨에 표시한 7개 바(bars)에는 우유가 함유되어 있었으나, 우유의 함유 사실을 확실하게 표시하지 않은 93개 바 중 55개도 우유가 함유된 것이 확인되었음. -"우유 미량"이라고 표시된 7개 초콜릿 제품 중 6개에서 특정인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수치의 우유를 함유하고 있었음.
미국	**○ 던킨도넛 도넛에 사용된 분말 슈가 중 증백제 사용 중단** (2015.03.05. / 식품나라-Consumerist) 미국 던킨도넛(Dunkin' Donuts)는 자외선 차단제와 치약 등에 사용되는 증백제인 이산화티타늄을 업체의 도넛류 제조에 사용된 모든 분말 당(powdered sugar)에서 없애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업체의 이러한 행보는 이처럼 작은 입자를 가진 물질이 동일한 물질이지만 그보다 큰 입자의 물리적 특성과 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한 단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미 식품의약품청(FDA)은 나노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나노기술이 접목된 모든 제품을 단정하여 유해하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나노물질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체 건강문제에 있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에즈 유 소우(As You Sow)'라는 한 환경 및 사회책임 비영리 단체는 던킨의 제품에서 이산화티타늄 사용을 중단해 달라 던킨 측에 제기했던 바 있다. 에즈 유 소우 단체는 던킨 측에 이산화티타늄을 섭취했을 때의 독성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나노물질의 사용을 평가하도록 촉구한 안을 철회할 예정이다.
미국	**○ 맥도날드, "2년내 인체용 항생제 먹인 닭고기 사용 중단"** (2015.03.05.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인간 치료용 항생제를 먹인 닭고기 매입을 중단하기로 해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맥도날드는 2년내 항생제 투약 닭고기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닭의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인간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이온투과담체(ionophores) 항생제 사용 닭고기는 취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맥도날드는 올 하반기부터 인공 성장호르몬을 투약하지 않은 젖소로부터 얻은 저지방 우유를 제공하기로 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 등의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글로벌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멕시칸 그릴 레스토랑인 치포틀레 등 경쟁자들이 활약하면서 영업이 어려워졌다.이에 맥도날드는 건강식품, 특히 무항생제 닭고기를 선택하게 됐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닭고기를 사용하는 업체인 맥도날드가 인체용 항생제 사용 닭고기 매입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미국 양계농가 사육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 **코스트코도 "항생제 육류 안 팔겠다"** (2015.03.06. KBS TV) 맥도날드에 이어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도 항생제를 먹여 키운 닭 등 육류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크레이그 윌슨 코스트코 식품안전 담당 부사장은 앞으로 2년 내에 항생제를 먹여 키운 닭과 육류를 수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스트코의 이 같은 방침은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항생제 먹인 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튿날 공개되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순매출 천백억 달러 가운데 육류와 농산물, 빵류 등이 13%를 차지했다.
독일	○ **에너지드링크 문제에 대해 평가해** (2015.03.24. / 식품나라-Foodwatch) 정부는 에너지드링크의 위험에 대해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의하면, 에너지드링크를 통해 카페인 섭취 허용량을 넘긴 청소년은 8%에 달한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카페인 최고 허용값은 지금까지 없었다. 달콤한 맛과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마케팅하는 에너지드링크는 높은 수치의 카페인이 함유된 강한 커피와는 또 다르며, 이는 68%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드링크는 부정맥질환, 발작, 신장기능 이상 발생 그리고 심지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10월 건강위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드링크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일본	○ **학교급식 매뉴얼 개정..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세밀 대응** (2015.04.23. 식품나라 / 산케이신문) 학생들의 식품알레르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치기현) 우츠노미야시(宇都宮市)는 2005년에 정했던 '학교급식 시 식품알레르기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이번 달부터 운용한다. 원인식품 및 증상 등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식품알레르기에 관한 의사의 지시내용을 기재하는 '학교생활 관리지도표'를 독자적인 양식으로 변경하여 채용하는 등 보다 세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에 도쿄도 내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때문에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문부과학성이 내놓은 통지에 근거하여 개정했다. 학교생활 관리지도표는 알레르기의 질병 형태 및 원인식품, 진단근거, 원인식품의 제거 정도, 처방약, 증상 등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채용한다. 해당 항목에 동그라미를 치는 형식으로 보호자에게는 연 1회 학교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심각한 어린이에게 처방하는 아드레날린 자기주사제 '에피펜'의 소지정보를 학교현장에서 공유하는 것에 더해 구급운송 시 지도표에 기재한 정보를 운송된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태세를 새롭게 구축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어느 교직원도 적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급 시 대처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알레르기 대응식을 배식할 때에는 반드시 제일 먼저 실시하고 잘못된 점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통상적인 급식 배식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도 규정한다. 시 교육위원회 학교건강과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은 1147명(2014.5.10. 현재)으로 전체의 2.7%다. 에피펜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77명(2015.3.10. 현재)이다.

칠레	○ **식품에 '당ㆍ나트륨' 등 함량 초과 의무 표시 실시** (2015.04.24. / 식품나라-라테르세라(La Tercera))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인간 치료용 항생제를 먹인 닭고기 매입을 중단하기로 해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맥도날드는 2년내 항생제 투약 닭고기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닭의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인간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이온투과담체(ionophores) 항생제 사용 닭고기는 취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맥도날드는 올 하반기부터 인공 성장호르몬을 투약하지 않은 젖소로부터 얻은 저지방 우유를 제공하기로 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 등의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글로벌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멕시칸 그릴 레스토랑인 치포틀레 등 경쟁자들이 활약하면서 영업이 어려워졌다.이에 맥도날드는 건강식품, 특히 무항생제 닭고기를 선택하게 됐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닭고기를 사용하는 업체인 맥도날드가 인체용 항생제 사용 닭고기 매입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미국 양계농가 사육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 **냉동 새우 60%에 미생물 오염** (2015.04.28. / 식품나라 - Food Safety News) 미국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는 냉동 새우 342개 시료 중 60%에 살모넬라, 비브리오, 리스테리아 또는 대장균이 오염되어 있고, 2%에는 '메티실린 항생제 내성 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되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컨슈머 리포트지는 3월 말, 미국 27개 도시의 월마트, 크로거, 알버슨, 코스트코, 프라이스 마켓플라이스, 하이비,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과 같은 소매업체로부터 신선새우(284개)와 가열조리된 새우(58개)를 구매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지 않는 신선하고 냉동된 적 없는 새우는 검사에서 제외했다. 미생물 및 항생제 잔류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가열 조리된 즉석섭취 새우 16%에서 비브리오, 대장균을 비롯한 일부 세균이 검출되었다. 또한 신선하고 수입된 양식 새우 11개 시료에서 항생제가, 새우 시료 7개에서 MRSA가 검출되었다.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연간 1인당 4파운드 가량의 새우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미국 내 새우 94%는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이다. 특히, 방글라데시 및 인도산신선 양식새우의 미생물 오염률이 각각 83%와 74%로 가장 높았으며, 아르헨티나와 미국산 자연산(wild-caught) 새우의 미생물 오염률은 각각 33%와 20%로 가장 양호했다. 컨슈머 리포트의 우르바시 란간소비자 안전 및 지속가능 센터장은 미 식품의약품청(FDA)이 보고한2014년 수입산새우 전체 검사 비율 0.7%를 증가시키고, 비브리오를 HACCP 규정 중 실행 기준에 포함시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FDA의 2014년 수입산 새우선박점검률은 3.4%다.
태국	○ **삶은 죽순 포장제품의 보툴리눔 식중독 위험 경고** (2015.05.13. / 식품나라 - Outbreak News Today) 태국 공중보건부는 지난 일요일, 보툴리눔 식중독 가능성으로 비닐봉지나 통조림 캔에 포장

	된 오염된 삶은 죽순을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공중보건부 장관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봉지나 통조림 캔에 든 삶은 죽순을 섭취하기 전 15분간 재가열할 것을 당부했다. 이 세균은 식품을 15분간 가열할 경우 쉽게 파괴될 수 있다. 하지만 특이한 포장, 색, 냄새의 삶은 죽순은 섭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품은 묻어서 버릴 것을 권고했다.
대만	○ **대만, 일본産 식품 수입 전면 중단… 日 "WTO 제소 불사"** (2015.05.15. / 조선일보) 대만이 15일부터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일본은 대만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맞서는 상태라고 연합보(聯合報)·자유시보(自由時報)·교도통신 등 대만과 일본 언론이 전했다. 대만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현 등 일본 도호쿠(東北)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다. 이번 조치는 금수 대상 지역을 도호쿠에서 일본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많다"면서, 도쿄·시즈오카 등 원전 사고 지역과 비교적 먼 곳에서 만들어낸 식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서와 방사선 검사 증명서를 첨부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해왔다. 지난 3월, 사고 원전 주변에서 생산된 수산품이 다른 지역 산물로 둔갑해 유통되다 적발된 사건도 대만 정부와 소비자 불신을 키웠다고 대만 언론은 보도했다. 일본과 대만 당국자들이 13일 타이베이에서 대만 측 요구 조건에 대해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결렬됐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대만의 요구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것"이라면서 "WTO 제소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항의했다. 일본이 대만을 WTO에 제소해 WTO가 일본 손을 들어줄 경우, 일본은 대만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다. 그러나 WTO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되며, 자칫 대만 국민들 사이에 반일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 한국은 후쿠시마와 도치기·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지바·군마·아오모리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이 금지돼 있다. 농산물은 위 8개 현에 니가타·가나가와·사이타마 등을 포함한 13개 현 식품 수입을 금지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일본에서 수입하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입되는 모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수입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 **미 FDA "트랜스지방 안전하지 않다"…식단서 퇴출(종합)** (2015.06.18. / 연합뉴스) 앞으로 미국에서 가공식품을 만들 때 트랜스지방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16일(현지시간) 트랜스지방의 주요 생성원인 부분경화유(PHO)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GRAS) 식품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의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부분경화유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자사의 부분경화유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 FDA의 예외 승인을 받은 뒤에만 사용할 수 있다. 트랜스지방이란 액체 상태의 불포화지방을 고체 상태로 가공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

	정(부분경화)에서 생성되는 지방으로 마가린, 쿠키, 크래커, 비스킷, 냉동피자, 전자레인지용 팝콘, 냉장 도넛, 쇼트닝 등에 많이 함유돼 있다. 이 성분은 인체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FDA는 지난 2006년 가공식품의 캔이나 라벨에 트랜스지방 함량을 표기할 것을 의무화한 데 이어 2013년 트랜스지방 퇴출 방침을 처음 시사한 지 3년 만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FDA의 조치는 부분경화유에서 발생하는 인공 트랜스지방에만 해당하며, 유제품이나 쇠고기 등에서 발생하는 자연 트랜스지방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중략) 미국의 식품 제조업체들은 2003~2013년 사이 트랜스지방 사용량을 78% 줄이는 등 최근 자정 노력을 보였지만, 전면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처지가 됐다. 트랜스지방은 가격이 싸고, 유통기한이 길며, 맛과 식감이 더 좋아 완벽한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FDA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20년간 식품업계가 대체재나 새로운 제조 공법을 만드는 데 총 62억달러(약 7조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같은 기간 국민건강 개선 등의 효과로 1천400억달러(약 156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만	○ **대만, 12월 31일부터 식음료 직접 제공 장소에서 유전자변형 식품정보 표기해야** (2015.07.22. / 식품나라-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언론에서 식당에서 판매하는 푸주(FuZhu:腐竹/길게 말아 압착한 두부)에 유전자변형 식품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식품약품관리서는 2015년 5월 29일 "식음료 직접 제공 장소의 식품에 함유된 유전자변형 식품원료 표시규정" 초안을 예고하였으며, 식음료 직접 제공 장소의 식품에 유전자변형 식품원료가 함유되어 있을 경우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 함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법률 공고 행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식당에서 유전자변형 식품원료로 만든 더우장(DouJiang:豆漿/두유류), 두부, 더우화(DouHua:豆花/간식류에 사용하는 순두부류), 반건조 두부, 두부피, 대두단백으로 만든 식물성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유전자변형 식품정보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식품약품관리서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 5월 29일 "포장식품, 식품첨가물 및 벌크식품 중 유전자변형 식품원료 함유 표시 의무 준수사항"을 공고하였으며, 포장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벌크식품에 유전자변형 식품원료가 함유되어 있다면 규정에 따라 표기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외 외식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표시 범위를 식음료를 직접 제공하는 장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 **FDA, 모든 식품에 첨가당 표시 의무화** (2015.07.25. SBS뉴스) 미국식품의약국 FDA는 모든 식품에 첨가당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FDA는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표에 첨가당의 함량과 그것이 하루 표준섭취량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1일 기준치 비율을 표시하게 할 방침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 등이 보도했습니다. 첨가당은 식품이 생산되기 전에 이미 들어 있는 당분 외에 단맛을 내기 위해 추가로 첨가되는 설탕을 말합니다. 첨가당을 섭취하면 영양소 없이 칼로리만 늘어나게 돼 오래전부터 심혈관질환과 비만 위험요인으로 지목돼왔습니다.

	수전 메인 FDA 식품안전영양실장은 첨가당 표시를 통해 소비자는 매일 섭취하는 당분의 양과 그것이 하루 표준섭취량 중 얼마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성인의 하루 첨가당 섭취 권장량을 50g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FDA는 이러한 방침을 앞으로 75일 동안 공개청문에 붙여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
미국	**○ 미국, 통바베큐와 관련한 살모넬라 오염 주의 당부** (2015.08.04. / 식품나라-식품안전검사국(FSIS))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돼지고기, 특히 통 바베큐와 관련한 살모넬라 발병이 우려되어 공중보건 주의경보를 발표했다. 당국은 2015년 7월 15일(현지시간), 살모넬라 I 4,[5],12:i 클러스터들을 전달받았다. 워싱턴 보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공동으로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 클러스터 8건은 돼지 로스트에 사용한 통돼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례 환자들의 발현일은 2015년 4월 25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이며, 워싱턴에서 확인되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당국은 워싱턴주 보건부와 CDC와 함께 이번 조사를 협업하고 있다. 당국은 소비자에게 다음의 네 가지 식품 안전 요령을 유념토록 당부했다. - 세척: 신뢰할 수 있는 납품업자에게 돼지를 받고, 비닐로 싸거나 대형 비닐 봉투에 담아 육즙이 흐르지 않도록 함. 조리 전까지 차게 보관하고, 냉장고나 얼음에 보관할 수 없으면 조리하기 직전에 돼지를 받아올 것 - 분리: 통돼지와 접촉한 것(손, 식기류 등)은 따뜻한 비눗물로 반드시 세척할 것 - 가열: 3분 후 내부온도가 화씨 145도 이상일 때까지 가열하고, 식품용 온도계로 여러 곳의 내부 온도를 확인할 것 - 냉장: 조리한 고기는 깨끗한 접시에 내고, 남은 음식은 얕은 용기에 담아 1~2시간 내로 냉장함. 냉장 전에 꼭 식힐 필요는 없음
프랑스	**○ 프랑스, 항산화 물질 과다 섭취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2015.08.05. / 식품나라-르피가로(Le Figaro) 와인, 과일, 채소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은 노화 및 암 방지에 효과가 있을 수 있음. 이 가설은 매력적이지만 확인이 필요하다. 인체 기관을 구성하는 무수한 세포는 산소 부산물인 활성산소를 생성한다. 활성산소는 스트레스, 오염, 햇빛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으며 인체 기관 노화의 주범이다. 그렇지만 항산화 물질은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과학자들은 균형 잡힌 식단의 효과와, 항산화 물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당뇨, 고혈압, 암 등 노화와 관련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 파리 8대학 영양학 교수 세르주 에흐베그(Serge Hercberg)의 200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항산화 물질은 모든 종류의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항산화 물질의 부정적 효과 또한 지적하였다. 항산화 보충제를 섭취한 여성에게서 흑색종(피부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비타민 혹은 미네랄 부족은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보충제 역시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 세르주 에흐베그 교수의 연구 결과에서도 항산화 물질 섭취는 발병 위험이 높은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증가시켰다. 교수는 "항산화 물질을 과다 섭취할 경우 초기 기대했던 효과와는 반대로 산화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미국	○ **미국 땅콩회사 'PCA' 전직 CEO에 징역 28년형 선고** (2015.09.24. /식품안정정보원-Reiters(US)) 미국 조지아주 한 땅콩회사의 전직 CEO가 9명의 사망자와 수 백명의 감염자를 낳았던 살모넬라 파동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아 식품 오염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형량을 받았음. 스튜어트 파넬씨(61)는 '피넛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Peanut Corporation of America, PCA)(사)'를 감독했으며, 남동생 마이클 파넬씨(56)는 회사 식품 브로커를 맡았음. 이들은 2014년 9월, 살모넬라에 오염된 땅콩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선적했던 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음. 조지아주에 소재한 업체 공장이 오염된 탓에 미국 역사상 최대 식품 회수가 일어났으며, 업체는 파산했음. 미국 지법은 마이클 파넬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전직 품질관리자였던 매리 위커슨씨에게는 방해 혐의로 징역 5년형이 내려졌음. 스튜어트 파넬씨는 판결 전, "나와 가족들은 7년간 악몽같았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음. 지난해 7일간 열린 심리에서 검사는 파넬 형제가 수년간 자사의 땅콩 가공품이 살모넬라에 오염된 사실을 숨기고,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되었다는 실험실 결과 증명서를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을 밝혔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은 지난 심리에서 해당 업체로 46개주 714명이 피해를 입고, 이 가운데 166명은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음.
뉴질랜드	○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일부 코코넛 우유 음료에 대한 식품안전 경고 발표** (2015.09.24. / 식품안전정보원-일차산업부(MPI))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MPI)는 우유 알레르기 또는 우유 불내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유나 유제품이 들어있을 수 있으나 이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은 일부 수입산 코코넛 우유 음료를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함. 호주, 뉴질랜드의 식품법에 따라 우유나 유제품을 함유한 제품은 반드시 이를 라벨상에 명시해야 함. 일차산업부는 '식품법 2014'에 따라 성명을 발표하여 우유 알레르기나 불내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명에서 말하는 제품들을 피할 것을 경고함. 일차산업부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FSANZ)으로부터 호주에서 해당 제품들이 회수되고 있음을 통지 받음. 호주에서는 코코넛 우유 음료 섭취와 관련 있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2건이 보고됨. 현재까지 뉴질랜드에서는 해당 제품들의 섭취와 관련된 사례 보고는 없음. 뉴질랜드에서 해당 제품들 중 일부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 제품들은 구멍가게(dairies), 에스닉푸드 상점, 전문스포츠 상점과 같은 다양한 소매점에 들어가 있음. 일차산업부는 소비자들에게 경고를 발하는 것 이외에도 관련 제품들이 올바르게 표시될 때까지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 위해 수입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음. 당국은 제품 시험에 관해 호주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경고 성명과 회수 조치를 낳을 수 있는 추가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 일차산업부의 섭취경고 성명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우유 및 유제품)이 미표시된 코코넛 우유 음료는 다음과 같음: 1) Greentime 브랜드 Coconut Milk Drink, 500ml 캔, 제조국: 대만 2) Coco Joy 브랜드 Pure Coconut Milk, (바나나, 초콜릿, 커피맛) 500ml 병, 제조국: 베트남 3) V Fresh 브랜드 Coconut Milk Drink, 240ml 캔, 제조국: 태국 4) Orthodox Coconut Palm 브랜드, Coconut Palm Coconut Juice, 245ml 캔, 245ml 테트라팩, 1000ml 테트라팩, 제조국: 중국 상기 제품들의 모든 배치 및 모든 사이즈에 해당.
중국	**○ 중국 상하이시 '식품안전정보 이력추적플랫폼' 운영, 전체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2015.10.05. / 식품안전정보원-식품화반넷) * 2015.9.30 기제공 정보,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상하이시 식품안전정보 이력추적 관리 품종 목록(2015년판)"에 관한 공고' 관련 * 2015.8.27 기제공 정보, '"상하이시 식품안전정보 이력추적 관리 방법"(상하이정부령 33호)' 관련 * 2015.8.23 기제공 정보, '중국, 올해 10월 1일부터 "상하이시 식품안전정보 이력추적 관리 방법" 시행 예정' 관련 10월 1일부터 "상하이시 식품안전정보 이력추적 관리 방법"이 시행되며, 이와 함께 상하이시 식품안전정보 이력추적조회플랫폼(www.shfda.org)도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곡류, 축산물, 가금제품, 채소 4대 식품(13개 품목)의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됨. 지난 9월 30일, 기자는 까르푸 신좡(莘庄)점에서 삼겹살을 무작위 구입하여 www.shfda.org에 접속한 후 포장라벨에 표시된 20자리 식품안전이력추적코드를 입력함. 돼지의 출처가 상하이시 쉬무우창(XuMuWuChang:畜牧五场)이며 SHANGHAI AIC PORK FOODSTUFF CO.,LTD(上海爱森肉食品有限公司)에서 도축하였고 9월 27일 까르푸 신좡점이 구입하였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음. 상하이시 식약감독국 부국장 구전화(顾振华)는 현재 10대 식품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정보이력추적관리를 시행하기엔 아직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나, 상하이시는 향후 점진적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한 종류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힘. 금일부터 정보이력추적관리를 시행하는 품목은 곡류(포장 자포니카쌀), 축산물(돼지고기, 포장 쇠고기, 포장 양고기), 가금제품(살아있는 닭, 식용 비둘기, 포장 생닭), 채소(동부, 감자, 토마토, 고추, 동과)이며, 올해 12월 1일부터 정보이력추적관리를 시행하는 품목은 과일(사과, 바나나), 수산물(갈치, 조기, 병어), 콩제품(포장 락톤두부), 유제품(영유아조제분유), 식용유(대두유)임.
미국	**○ 미국 서브웨이, 무항생제 식육으로 전면 교체** (2015.10.23. / 식품안전정보원- Reuters(US))

	샌드위치 체인점 '서브웨이'가 내년부터 무-항생제 닭고기와 칠면조고기를 미국 매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9년 내로 항생제를 사용한 동물의 식육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음. 경쟁업체인 치폴레와 맥도날드가 유사 정책을 내놓으면서 미국 축산 생산업체에 인체용 항생제를 축산에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서브웨이는 오는 3월부터 전국 2만 7천여 개 매장에서 무항생제 닭고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칠면조고기의 제공 시일은 밝히지 않았음. 2018년까지는 닭고기와 칠면조고기 일체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업체는 이후 6년 이내에 돼지고기와 쇠고기에도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5.3.4.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 식의약품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및 국내외 식의약품 관련 언론 기사를 통해 논의된 이슈 및 식의약 안전이슈 발생 시 즉각적으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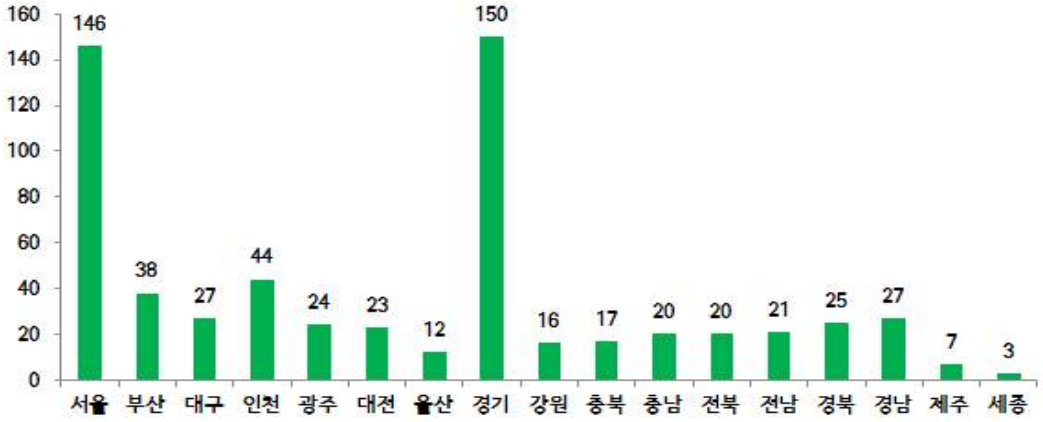
○ 일반소비자와 오피니언리더 대상의 설문조사(4회)와 오피니언리더 대상 설문조사(1회)로 총 5회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함.

1) 식의약 안전교육 컨텐츠에 대한 소비자의견 조사

❍ 조사시기 : 2015년 5월 19일 ~ 6월 3일
❍ 조사대상 : 국민소통단 1,000명 중 응답자 620명
❍ 조사결과

(1) 거주지역

거주지역은 서울이 146명(12%)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0명(12%), 인천 44명(4%)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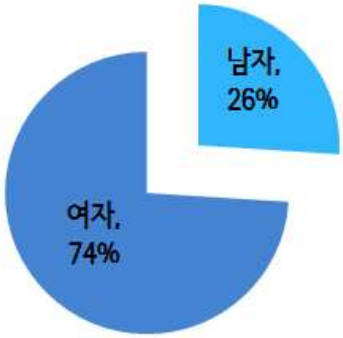
구분	응답인원	비율
서울	146	12%
부산	38	3%
대구	27	2%
인천	44	4%
광주	24	2%
대전	23	2%
울산	12	1%
경기	150	12%
강원	16	1%
충북	17	1%
충남	20	2%
전북	20	2%
전남	21	2%
경북	25	2%
경남	27	2%
제주	7	1%
세종	3	0%
합계	620	100%

구분	응답인원	비율
시	543	88%
군	18	3%
구	59	10%
합계	620	100%

(2) 성별

성별은 여자가 457명(74%), 남자가 163명(2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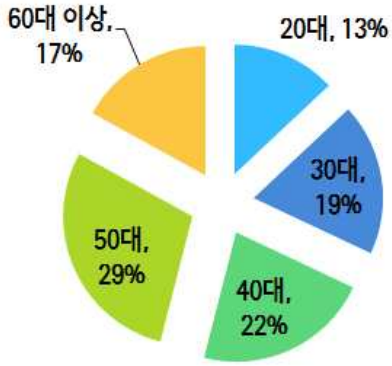
구분	응답인원	비율
남자	163	26%
여자	457	74%
합계	620	100%



(3) 연령

연령은 50대가 178명(2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39명(22%), 30대 115명(19%). 60대 이상 107명(17%), 20대 87명(13%)순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인원	비율
20대	81	13%
30대	115	19%
40대	139	22%
50대	178	29%
60대 이상	107	17%
합계	62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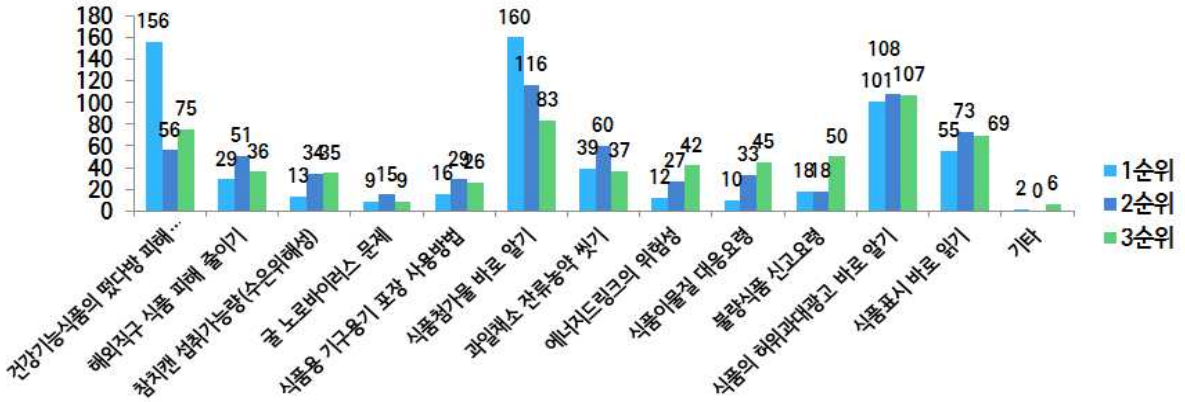


(4)응답내용

■ 문항 1. 귀하는 식품과 관련해서 가장 교육이 필요한 컨텐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식품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1순위로 '식품첨가물 바로알기'(160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떴다방 피해 줄이기와 안전한 섭취요령'(156건)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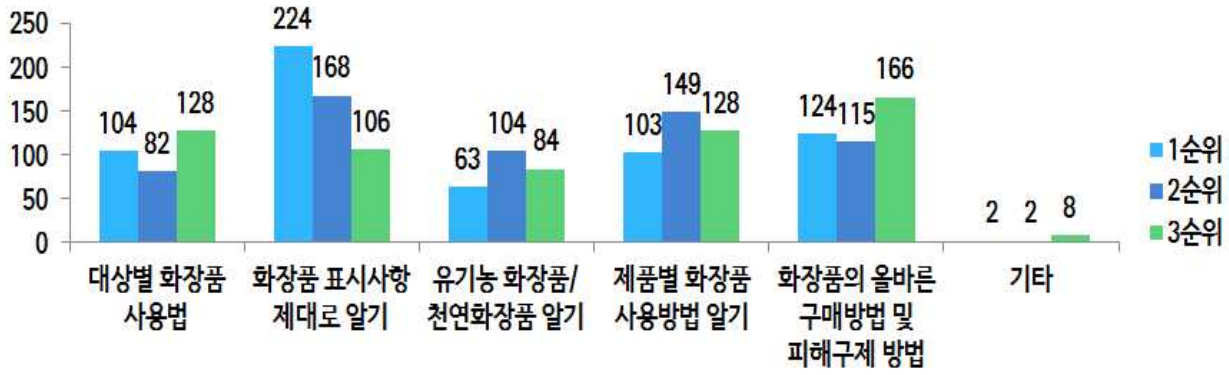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건강기능식품의 떴다방 피해 줄이기와 안전한 섭취요령	156	56	75
② 해외직구 식품 피해 줄이기	29	51	36
③ 참치캔 섭취가능량(수은위해성)	13	34	35
④ 굴 노로바이러스 문제	9	15	9
⑤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 사용방법	16	29	26
⑥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160	116	83
⑦ 과일채소 잔류농약 씻기	39	60	37
⑧ 에너지드링크의 위험성	12	27	42
⑨ 식품이물질 대응요령	10	33	45
⑩ 불량식품 신고요령	18	18	50
⑪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바로 알기	101	108	107
⑫ 식품표시 바로 읽기	55	73	69
⑬ 기타	2	0	6



■ 문항 2. 귀하는 화장품과 관련해서 가장 교육이 필요한 컨텐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장품 관련 교육 시 가장 필요한 교육콘텐츠 1순위로 '화장품 표시사항 제대로 알기' (224건)를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화장품의 올바른 구매방법 및 피해구제방법'(124건)순으로 나타남. 2순위로는 화장품 표시사항 제대로 알기(168건)이 가장 많았고, 3순위로는 화장품의 올바른 구매방법 및 피해구제 방법(166건)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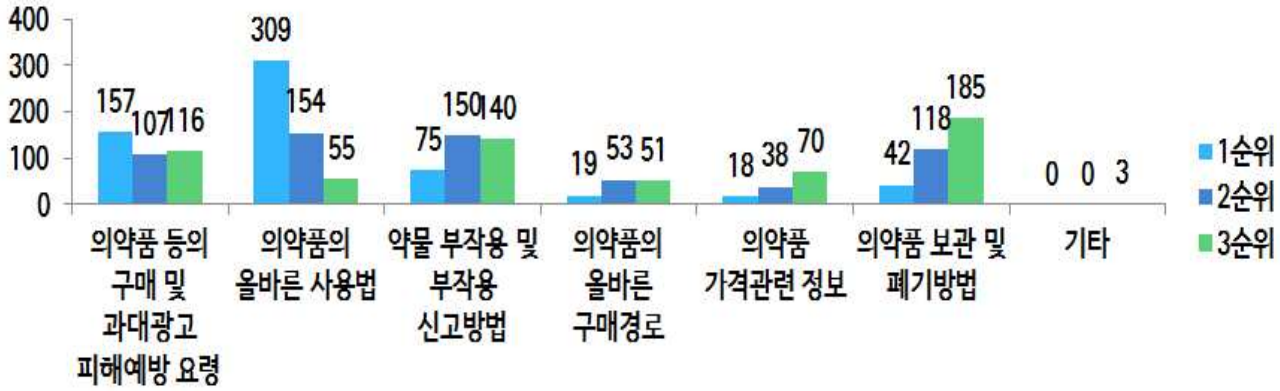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대상별 화장품 사용법	104	82	128
② 화장품 표시사항 제대로 알기	224	168	106
③ 유기농 화장품/ 천연화장품 알기	63	104	84
④ 제품별 화장품 사용방법 알기	103	149	128
⑤ 화장품의 올바른 구매방법 및 피해구제 방법	124	115	166
⑥ 기타	2	2	8



■ 문항 3. 귀하는 의약품과 관련해서 가장 교육이 필요한 컨텐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약품 관련 교육 시 가장 필요한 교육콘텐츠 1순위와 2순위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309건,154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순위로는 '의약품 보관 및 폐기방법' (185건)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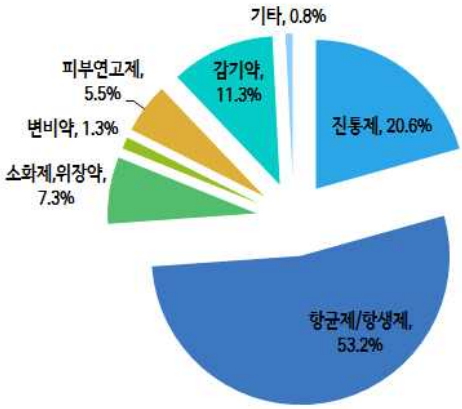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의약품 등의 구매 및 과대광고 피해예방 요령	157	107	116
②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309	154	55
③ 약물 부작용 및 부작용 신고방법	75	150	140
④ 의약품의 올바른 구매경로	19	53	51
⑤ 의약품 가격관련 정보	18	38	70
⑥ 의약품 보관 및 폐기방법	42	118	185
⑥ 기타	0	0	3



■ 문항 3-1. 다음 의약품 중 교육이 가장 필요한 품목은 무엇입니까?

의약품 중에서도 가장 교육이 필요한 품목으로는 항균제/항생제 (53.2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로는 진통제(20.65%), 감기약(11.29%), 소화제,위장약(7.2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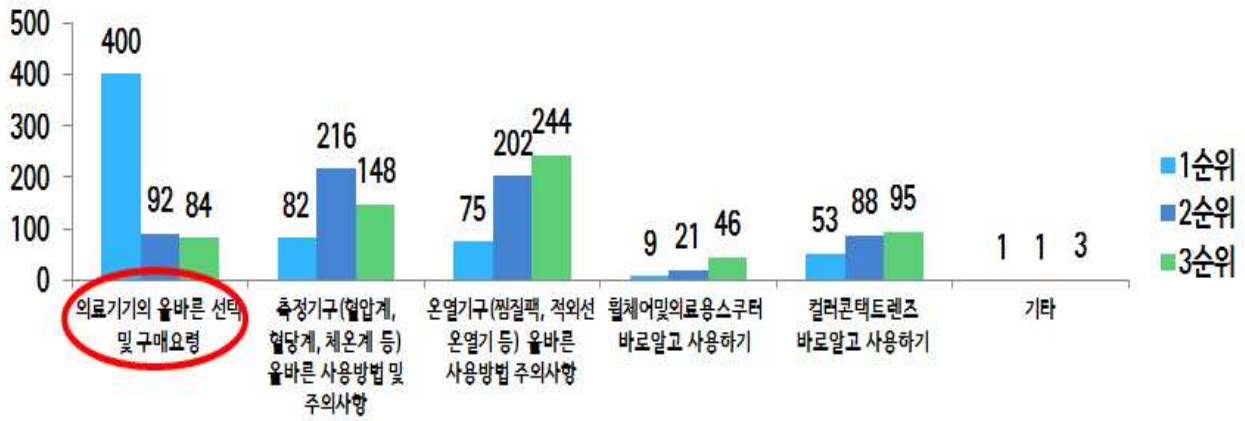
문항	응답인원	응답율
진통제	128	20.65%
항균제/항생제	330	53.23%
소화제,위장약	45	7.26%
변비약	8	1.29%
피부연고제	34	5.48%
감기약	70	11.29%
기타	5	0.81%



■ 문항 4. 귀하는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가장 교육이 필요한 컨텐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가장 교육이 필요한 콘텐츠로 의료기기의 올바른 선택 및 구매요령 (400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측정기구(혈압계, 혈당계, 체온계 등)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216건), 3순위로는 온열기구(찜질팩, 적외선 온열기 등) 올바른 사용방법 주의사항(244건) 순으로 나타남.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의료기기의 올바른 선택 및 구매요령	400	92	84
② 측정기구(혈압계, 혈당계, 체온계 등)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82	216	148
③ 온열기구(찜질팩, 적외선 온열기 등) 올바른 사용방법 주의사항	75	202	244
④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바로 알고 사용하기	9	21	46
⑤ 컬러콘택트렌즈 바로알고 사용하기	53	88	95
⑥ 기타	1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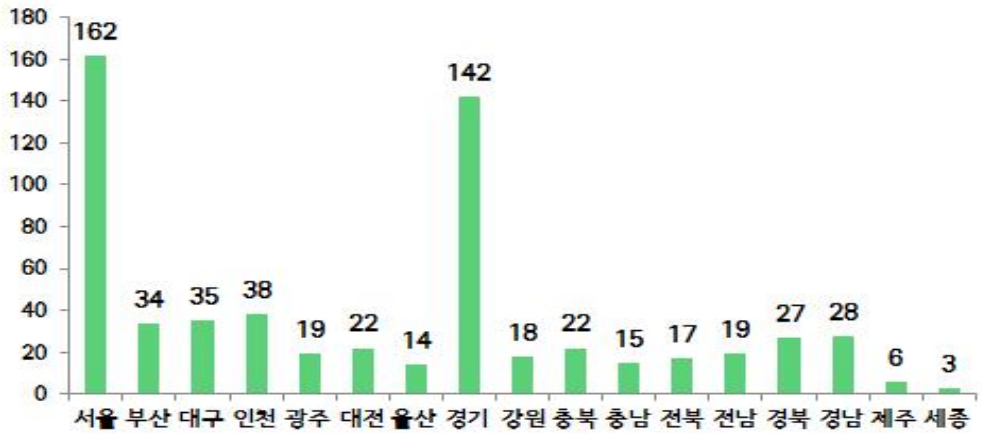
2) 식품 허위·과대광고 설문조사

○ 조사시기 : 2015년 7월 27일 ~ 8월 17일
○ 조사대상 : 국민소통단 1,000명 중 응답자 621명

○ 조사결과

(1) 거주지역

식품 허위・과대광고 설문조사 결과 서울이 162명(26.1%)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2명(22.9%), 인천 38명(46.1%)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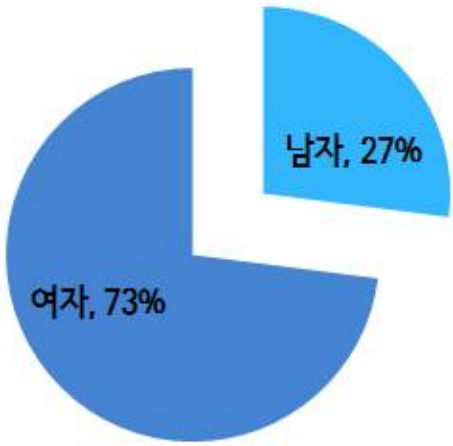
구분	응답인원	비율
서울	162	26.1%
부산	34	5.5%
대구	35	5.6%
인천	38	6.1%
광주	19	3.1%
대전	22	3.5%
울산	14	2.3%
경기	142	22.9%
강원	18	2.9%
충북	22	3.5%
충남	15	2.4%
전북	17	2.7%
전남	19	3.1%
경북	27	4.3%
경남	28	4.5%
제주	6	1.0%
세종	3	0.5%
합계	621	100%

구분	응답인원	비율
시	307	49%
군	294	47%
구	20	3%
합계	621	100%

(2) 성별

설문조사 결과 여자는 455명(73%), 남자가 166명(7%) 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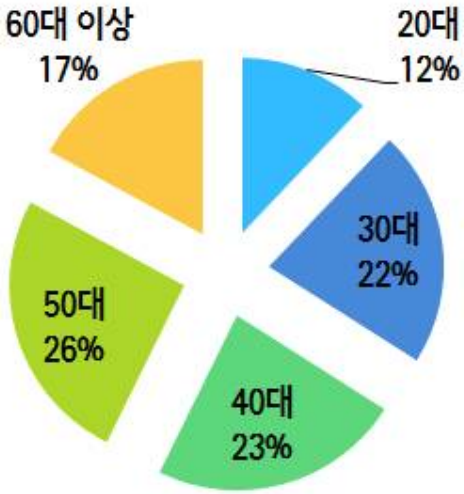
구분	응답인원	비율
남자	166	27%
여자	455	73%
합계	621	100%



(3) 연령

연령은 50대가 159명 (25.6%)로 가장 많고, 40대1 145명(23.3%), 30대 136명 (21.9%), 60대 이상 106명 (17.1%), 20대 75명 (75%) 순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인원	비율
20대	75	12.1%
30대	136	21.9%
40대	145	23.3%
50대	159	25.6%
60대 이상	106	17.1%
합계	6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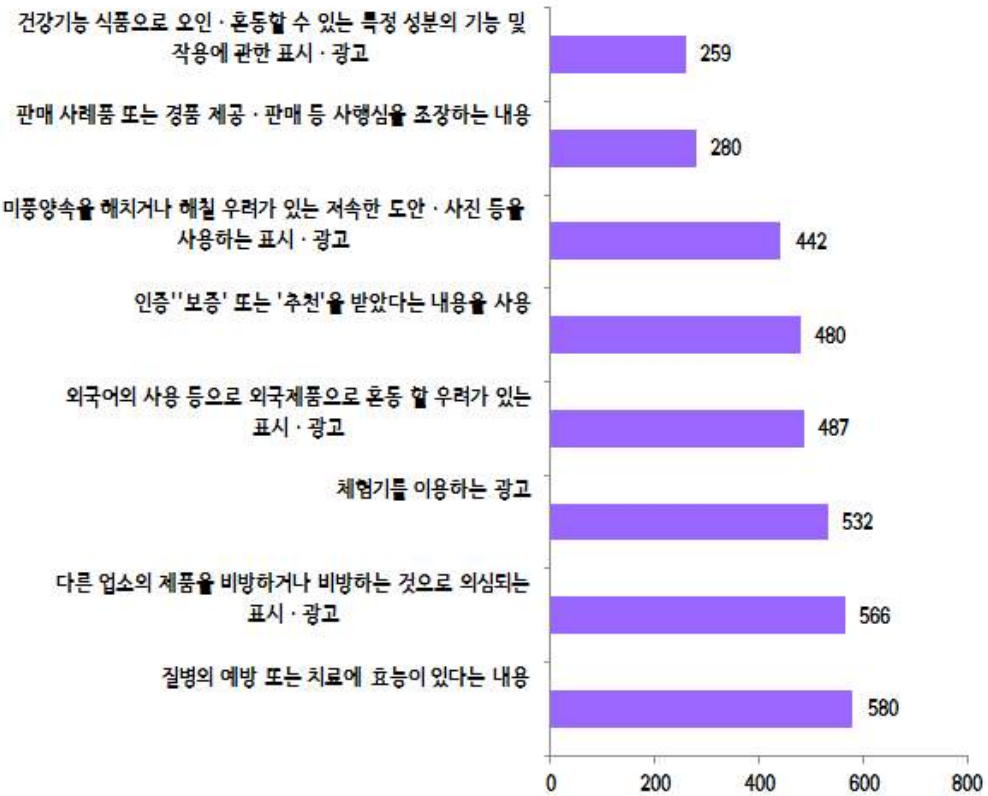


(4) 응답내용

■ **문항 1. 귀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 허위·과대광고를 일상생활에서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중복응답)

일상생활에서 허위·과대광고를 접해본 유형으로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가 580건(1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 가 566건(15.6%),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전후효과를 사진으로 비교)' 532건(14.7%)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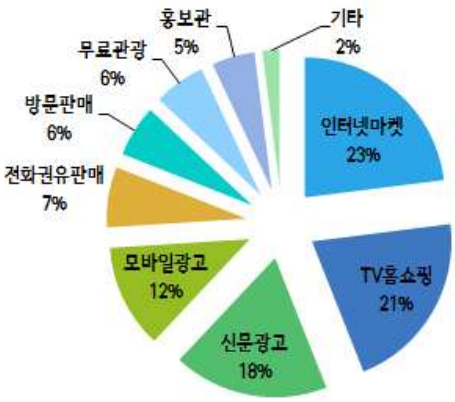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580	16.0%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	566	15.6%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전후효과를 사진으로 비교하는 등)	532	14.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제휴한 것으로 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487	13.4%
'인증''보증'또는'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보증 및 추천을 받은 경우 제외	480	13.2%
미풍양속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저속한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442	12.2%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280	7.7%
소비자가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 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259	7.1%



■ 문항 2. 귀하는 식품구매 시 위와 같은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중복응답)

허위·과대광고를 접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인터넷마켓이 347건(23%)로 가낭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로는 TV홈쇼핑이 314건(21%), 신문광고 273건(18%), 모바일광고 184건(12%)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	비율
인터넷마켓	347	23%
TV홈쇼핑	314	21%
신문광고	273	18%
모바일광고	184	12%
전화권유판매	111	7%
방문판매	95	6%
무료관광	91	6%
홍보관	82	5%
기타	2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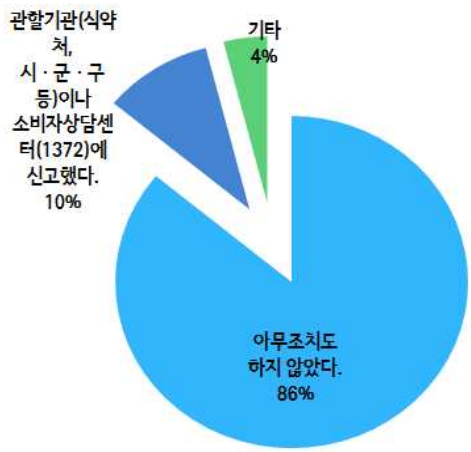
* 기타 : (길거리 전단지 및 부착된 광고인쇄물, 버스 안, 잡지, 지하철광고, 친구 또는 지인을 통해, 관광버스, 마트, 인터넷 개인 블로그, 전광판, 경험 없음)

■ 문항 3. 식품 등 구매 시 질병치료효과 등 허위·과대광고 사례라고 판단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허위·과대광고 사례라고 판단했을 때,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34건(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할기관이나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했다는 답변이 63건(10%)로 나타났음.

구분	빈도	비율
아무조치도 하지 않았다.	534	86%
관할기관(식약처, 시·군·구 등)이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했다.	63	10%
기타	2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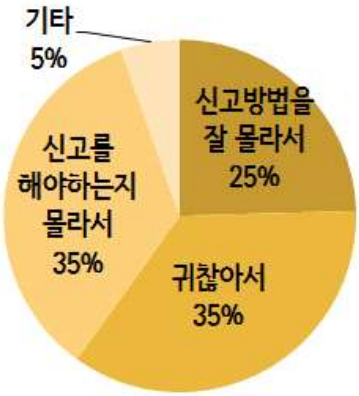
* 기타 : (구매 경험 없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그냥 무시하고 사지 않는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상의, 시정요청, 제품업체의 고객 상담실에 반품함, 업체 측으로 직접시정요구, 주변에 알림)



■ 문항 3-1.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했을 시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534명 중 189명(35%)가 '귀찮아서'라고 답했으며, 185명(35%)은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131명(25%)는 '신고방법을 몰라서' 라고 응답함.

구분	빈도	비율
귀찮아서	189	35%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185	35%
신고방법을 잘 몰라서	131	25%
기타	2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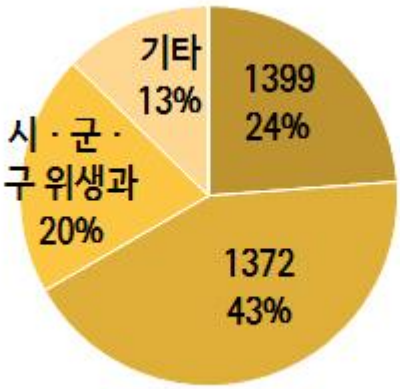


* 기타 : (신고를 한다고 해도 해결방법이 신통하지 않아서, 구매를 직접 하지 않아서/나의 일이 아니므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몰라서, 항상 하는 광고라고 생각하여, 앞으로 구입 안하고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서 등)

■ 문항 3-2. 어디로 신고를 하셨습니까?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했을 시 관할기관이나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했다는 63명 중 27명(43%)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했다고 답했으며, 15명(24%)는 1399 식약처 신고센터로, 13명(20%)는 시,군,구 위생과로 신고했다고 답했음.

구분	빈도	비율
1372	27	43%
1399	15	24%
시・군・구 위생과	13	20%
기타	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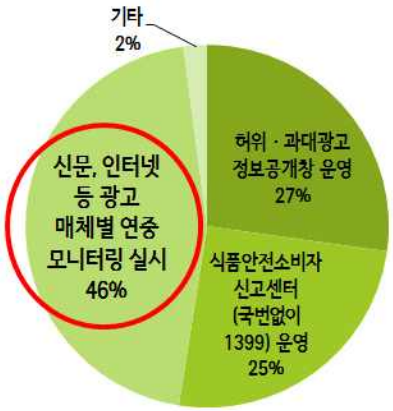
* 기타 : (소비자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직원에게 사진 전송 등)

■ **문항4.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서 식약처에서 진행 하고 있는 아래의 정책 중 소비자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정책중에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하여 신문, 인터넷 등 광고매체별 연중 모니터링 실시 ' (282건, 45%) 를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 위반업체 및 위반사례들을 공개하는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 (169건. 27%)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	비율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하여 신문, 인터넷 등 광고매체별 연중 모니터링 실시	282	45%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 위반업체 및 위반사례들을 공개하는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 (www.foodnara.go.kr/kwanggo) 운영	169	27%
허위·과대광고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할 수 있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399) 운영	157	25%
기타	13	2%

* 기타 : (홈페이지가 아닌 다양한 채널로 피해사례정보 제공,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신고 할 수 있는 앱, 피해 많은 어르신 찾아 소규모 집중 교육 실시, 엄중한 조치로 재발 방지, 지하철/TV(뉴스 광고 등)/버스 등의 홍보, 1399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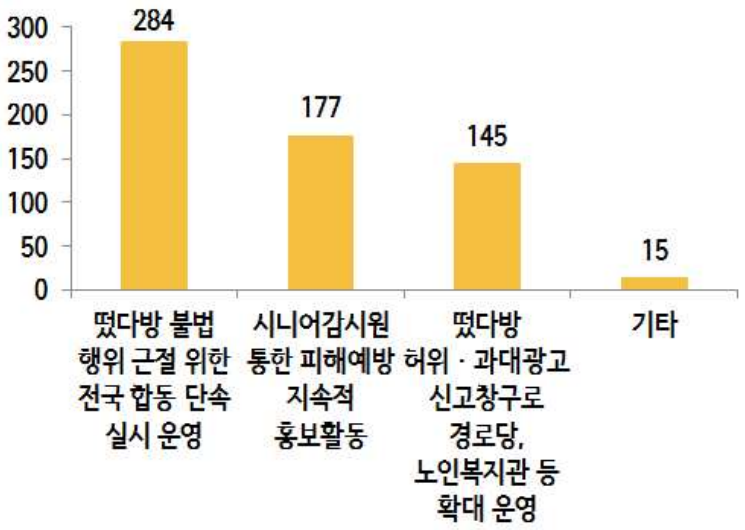


■ **문항5. 최근 신종 홍보관(떴다방) 관련하여 노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떴다방에서 어르신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책으로는 '신종 홍보관(떴다방)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합동 단속 실시 운영' (284건. 4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니어 감시원을 통한 신종 홍보관 피해예방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실시' (177건, 29%). '신종 홍보관(떴다방) 허위·과대광고 신고창구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확대 운영'(145건, 23%)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	비율
신종 홍보관(떴다방)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합동 단속 실시 운영	284	46%
시니어감시원을 통한 신종 홍보관(떴다방) 피해예방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실시	177	29%
신종 홍보관(떴다방) 허위·과대광고 신고창구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확대 운영	145	23%
기타	15	2%

* 기타 : (지속적인 소비자피해예방교육,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소규모 집중교육실시, 동사무소에서 협조, 사례를 통한 예방차원의 홍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 50대 연령층으로 모니터링 감시원 활동, 강력한 처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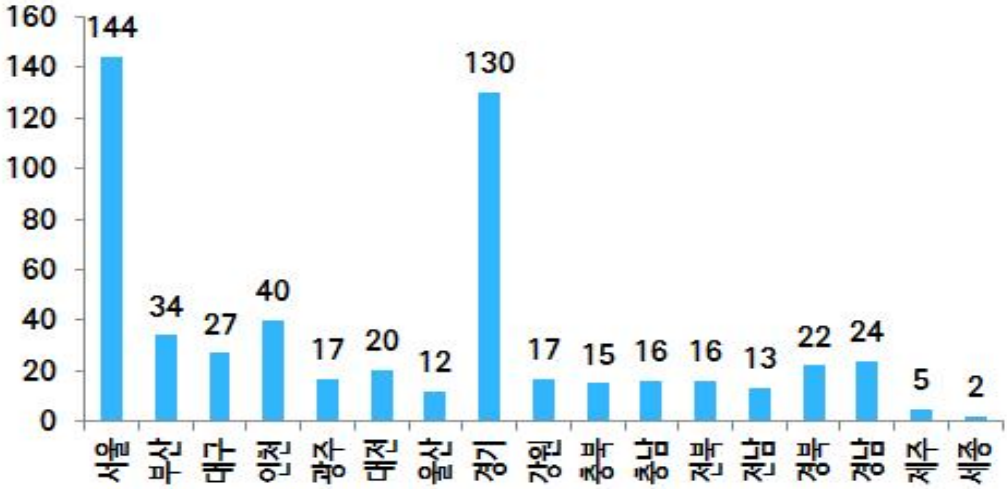
3) 식품안전주요정책 선호도 조사

○ 조사시기 : 2015년 10월 15일 ~ 10월 27일
○ 조사대상 : 국민소통단 1,000명 중 응답자 554명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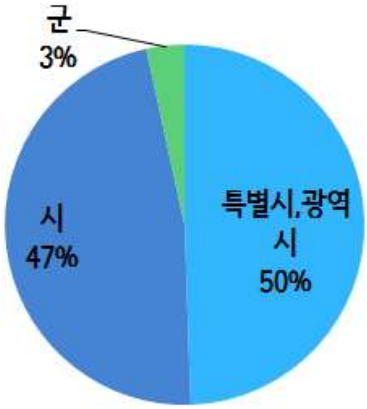
(1) 거주지역

거주지역은 서울이 144건(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130건(23%). 인천 40건(7%), 부산 34건(6%) 순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인원	비율
서울	144	26%
부산	34	6%
대구	27	5%
인천	40	7%
광주	17	3%
대전	20	4%
울산	12	2%
경기	130	23%
강원	17	3%
충북	15	3%
충남	16	3%
전북	16	3%
전남	13	2%
경북	22	4%
경남	24	4%
제주	5	1%
세종	2	0%
합계	5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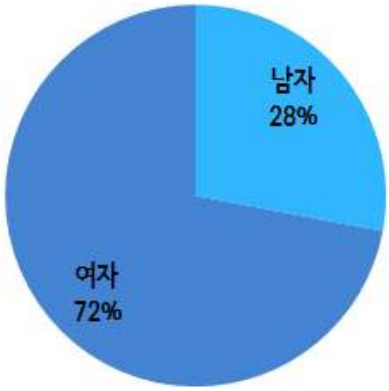
구분	응답인원	비율
시,광역시	274	49%
군	261	47%
구	19	3%
합계	554	100%



(2) 성별

성별은 여자가 399건(73%), 남자가 155건(2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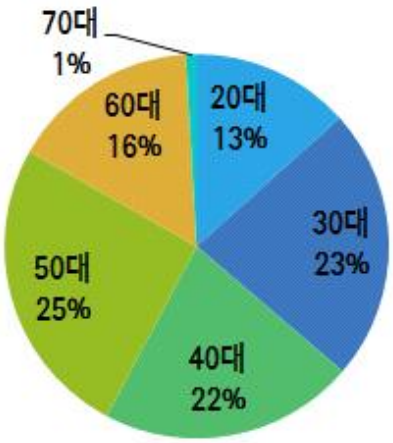
구분	응답인원	비율
남자	155	28%
여자	399	72%
합계	554	100%



(3) 연령

연령은 50대가 141건(2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가 127건(22.9%), 40대 119건(21.5%). 60대 88건(15.9%), 20대가 74건(13.4%) 순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인원	비율
20대	74	13.4
30대	127	22.9
40대	119	21.5
50대	141	25.5
60대	88	15.9
70대	5	0.9
합계	5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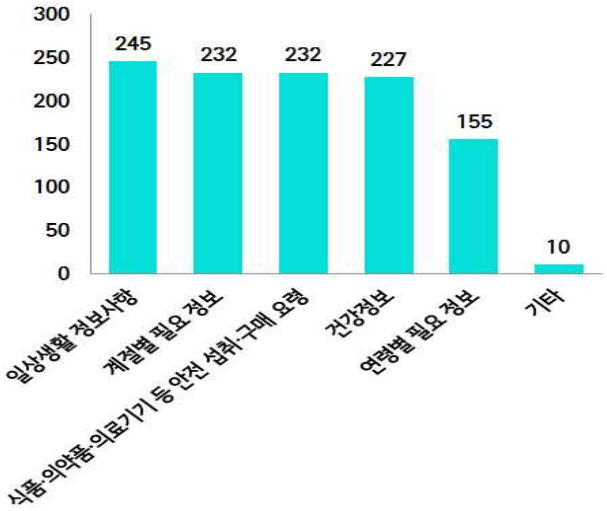
(4) 응답내용

■ 문항 1. 다음의 생활밀착형 정보 중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은? (중복응답가능)

생활밀착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정보 중에 가장 관심있는 것으로 일상생활 정보가 245건(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계절별 필요정보와 의료기기 등 안전섭취, 구매요청이 각각 232건(21%)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인원	비율
계절별 필요정보(ex. 봄나물 안전하게 섭취하기, 여름철 식중독 예방요령 등)	232	21%
연령별 필요정보(ex. 임신 주기별 식생활 가이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등)	155	14%
일상생활 정보(ex. 파스, 염색제,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245	22%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안전 섭취·구매 요령(ex. 건강기능식품 구매방법 등)	232	21%
건강정보(ex. 메르스 감염예방 수칙,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	227	21%
기타	1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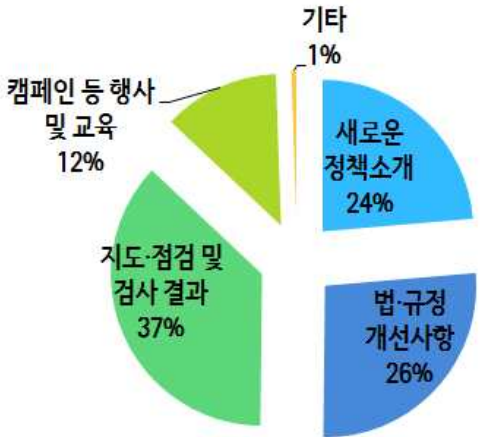
* 기타 :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및 제제, 소비자 관련 주의보, 일상생활에 섭취하는 식품의 올바른 구입요령, 판매처 등, 건강식품(칼로리 표시, 섭취 시 효과 등)



■ 문항 2. 식품안전관리 정책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식품안전관리 정책 중에는 204명(12%)이 '지도・점검 및 검사결과' 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법・규정 개선사항'이 147건(27%), '새로운 정책소개' 가 131건(24%). '행사 및 교육'이 69건(12%) 순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인원	비율
새로운 정책소개	131	24%
법·규정 개선사항	147	27%
지도·점검 및 검사 결과	204	37%
캠페인 등 행사 및 교육	69	12%
기타	3	1%



* 기타: 법규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위반업소에 대한 삼진아웃, 위반업소의 업주가 폐업 후 다른 업소개업하지 못하도록 규제

■ 문항 3. 식품안전관리 정책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중복응답)

가장 관심 있는 식품 안전관리 정책의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순위로 나타남.

1위.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 (12%)
2위. 유전자 변형식품 및 알레르기 등 식품표시 (10%)
3위. 위해식품 신속 차단을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 및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 (9%)
4위. 소비자 대상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캠페인 (8%)
5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7%)
6위. 나트륨·당류 저감화 사업 (7%)

구분	응답인원	비율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	285	12%
유전자 변형식품 및 알레르기 등 식품표시	234	10%
위해식품 신속 차단을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 및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	229	9%
소비자 대상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캠페인	190	8%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179	7%
나트륨·당류 저감화 사업	161	7%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등 위생·안전 취약식품 집중 관리	141	6%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대책	149	6%
HACCP 제품 확대 등 HACCP 적용 활성화	129	5%
수입식품 통관검사 체계 개선 및 해외직구 식품 관리체계	132	5%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관리	129	5%
개방형 주방사업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으로 깨끗한 외식환경 조성	117	5%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한 맞춤형 안전정보	98	4%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및	104	4%

광고 금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87	4%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학교급식 식중독 확산 조기 차단	59	2%
기타	8	0%

* 기타: 영유아식품관련정보, TV 라디오 등의 방송에서 건강방송을 다양한 시간대에 편성, HACCP 제품 확대 보다는 HACCP 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강화로 유지 하도록 지도 감독

■ **문항 4. 식품 안전 정보에 대하여 제공 받기를 원하는 방법은?**

식품안전정보에 대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전달 방법으로는 'SNS'가 150건(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대폰 문자' 125건(23%). '홈페이지'(117건)와 '이메일'(115건) 이 각각 2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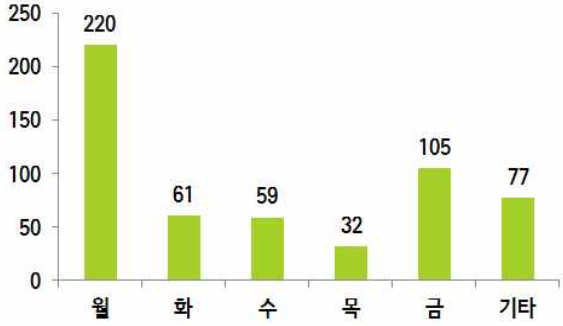
구분	응답인원	비율
홈페이지	117	21%
블로그	25	5%
SNS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	150	27%
이메일	115	21%
휴대폰 문자	125	23%
기타	22	4%

* TV, 유선방송, 소비자단체를 통한 캠페인 및 교육, 인터넷 포털사이트, 직접교육, 뉴스, 신문, 홍보물(고령자),공익광고

■ **문항 5. 식품안전 정보를 받고 싶은 요일은?**

식품안전정보를 가장 받고 싶은 요일로는 '월요일'이 220건(4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금요일'105건(19%), 화요일 61건(11%), 수요일 59건(11%) 순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인원	비율
월	220	40%
화	61	11%
수	59	11%
목	32	6%
금	105	19%
기타	77	14%



* 기타 : 요일에 상관없이, 수시로, 주말, 수시로 확인 가능한 게시판, 요일별로 주제를 정하여서(예. 잔반남기지 않는 날은 수요일이므로 연관 지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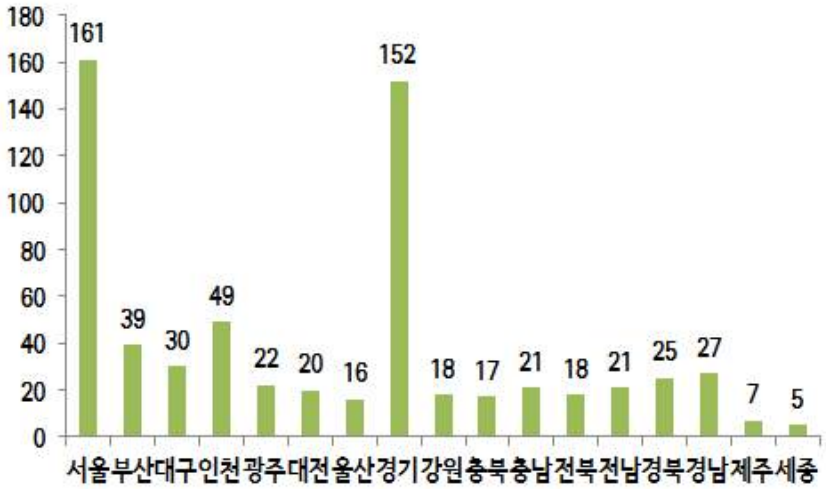
4) 건강기능식품 정책 소비자 인식조사

○ 조사시기 :2015년 11월 5일 ~ 11월 20일
○ 조사대상 :국민소통단 1,000명 중 응답자 648명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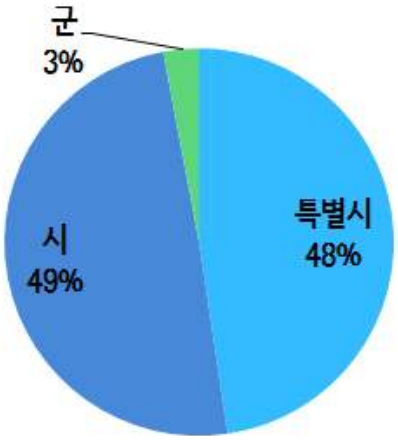
(1) 거주지역

거주지역은 서울 161건(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52건(23%), 인천 49건(8%), 부산 39건(6%) 순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인원	비율
서울	161	25%
부산	39	6%
대구	30	5%
인천	49	8%
광주	22	3%
대전	20	3%
울산	16	2%
경기	152	23%
강원	18	3%
충북	17	3%
충남	21	3%
전북	18	3%
전남	21	3%
경북	25	4%
경남	27	4%
제주	7	1%
세종	5	1%
합계	6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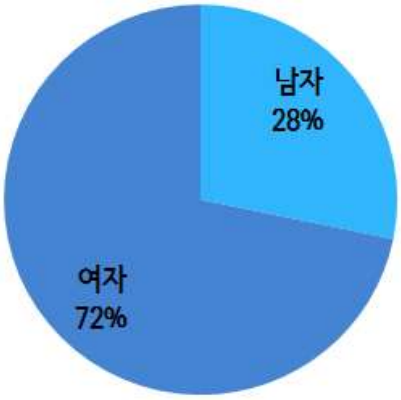
구분	응답인원	비율
시	309	48%
군	320	49%
구	19	3%
합계	648	100%



(2) 성별

성별은 여자가 464명(72%), 남자가 184건(2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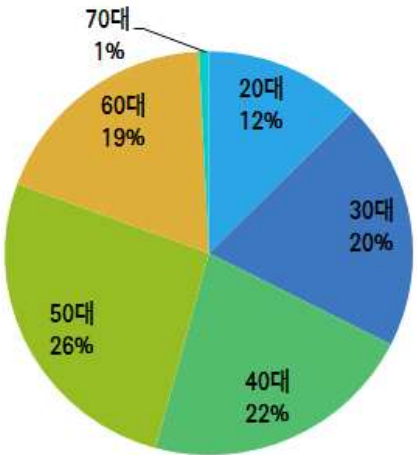
구분	응답인원	비율
남자	184	28%
여자	464	72%
합계	648	100%



(3) 연령

연령은 50대 170건(26.2%) 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41건(21.8%), 30대 127건(19.6%), 60대 122건(18.8%). 20대 82건(12%) 순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인원	비율
20대	82	12.7
30대	127	19.6
40대	141	21.8
50대	170	26.2
60대	122	18.8
70대	6	0.9
합계	6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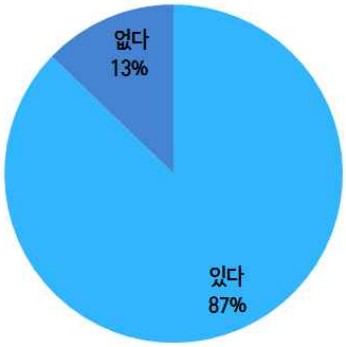


(4) 응답내용

■ 문항 1. 귀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건강기능식품 구매경험에 대해 565명(87%)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83명(13%)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구분	응답인원	비율
있다	565	87%
없다	83	13%



■ 문항2. 귀하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증마크를 확인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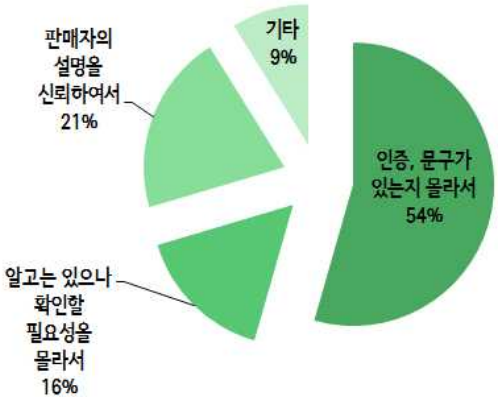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증마크를 확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477명(74%)가 '예' 라고 응답했으며, 171명(26%)가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구분	응답인원	비율
예	477	74%
아니오	171	26%

■ 문항 2-1. 인증이나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문항 2에서 인증마크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71명 중 그 이유로 '인증,문구가 있는지 몰라서'(92건 ,53.8%%)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판매장의 설명을 신뢰하여서'(37건, 21.6%), '알고는 있으나 확인할 필요성을 몰라서' (27건,15.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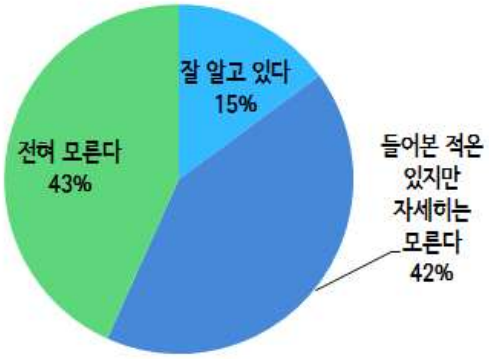
구분	응답 인원	비율
인증,문구가 있는지 몰라서	92	53.8
알고는 있으나 확인할 필요성을 몰라서	27	15.8
판매자의 설명을 신뢰하여서	37	21.6
기타	15	8.8
합계	171	100.0



■ 문항 3. 귀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래와 같이 기능성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96건(1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처음 들어본다'가 281건(43%),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는 모른다' 가 271건(4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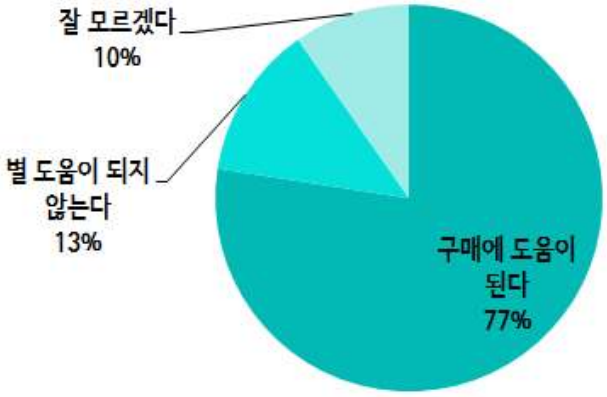
문항	응답 인원	비율
잘 알고 있다.	96	15%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모른다.	271	42%
처음 들어본다	281	43%



■ 문항 4. 이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 표시가 구매 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표시가 구매 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결과, '구매에 도움이 된다'가 501건(77%)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83건(13%), '잘 모르겠다' 는 64건(1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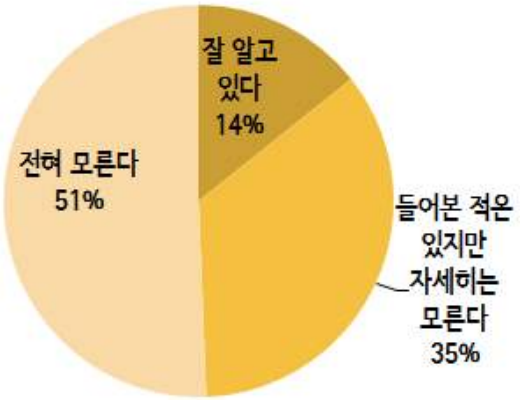
문항	응답인원	비율
구매에 도움이 된다.	501	77%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83	13%
잘 모르겠다.	64	10%



■ 문항 5. 귀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신고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번호(1577-2488)를 알고 계십니까?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번호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330명(51%)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227명(35%)가 들어본적은 있지만 자세히는 모른다, 91명(14%)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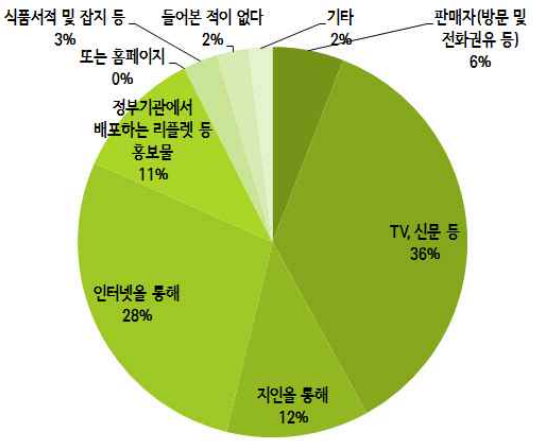
문항	응답인원	비율
잘 알고 있다.	91	14%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모른다.	227	35%
전혀 모른다.	330	51%



■ 문항 6. 건강기능식품의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신고 등 안전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는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건강기능식품의 주의사항 및 부작용 신고 등에 관한 안전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에 대한 설설문 결과, TV, 신문 등이 392명(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304건(47%), 지인을 통해 128건(20%), 정부기관에서 배포하는 홍보물 및 홈페이지 118건(18%) 순으로 나타남.

문항	응답 인원	비율
TV, 신문 등	392	60%
인터넷을 통해	304	47%
지인을 통해	128	20%
정부기관에서 배포하는 리플렛 등 홍보물 또는 홈페이지	118	18%
판매자(방문 및 전화권유 등)	64	10%
식품서적 및 잡지 등	34	5%
들어본 적이 없다	28	4%
기타	21	3%



* 기타 : 관공소, 소비자단체의 교육 등

5) <오피니언리더 설문조사> 불량식품 근절 추진을 위한 기획 감시 의제 발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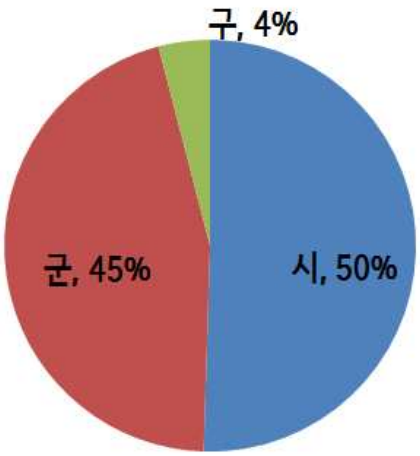
○ 조사시기 : 2015년 11월 5일~ 11월 20일
○ 조사대상 : 국민소통단 300명 중 214명 응답

○ 조사결과

(1) 거주지역
거주지역은 서울 62건(29%), 경기 51건(24%), 인천 17건(8%), 부산 16건(7%), 경북 11건(5%) 순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인원	비율
서울	62	29%
부산	16	7%
대구	5	2%
인천	17	8%
광주	6	3%
대전	7	3%
울산	6	3%
경기	51	24%
강원	5	2%
충북	6	3%
충남	6	3%
전북	4	2%
전남	5	2%
경북	11	5%
경남	7	3%
제주	0	0%
세종	0	0%
합계	21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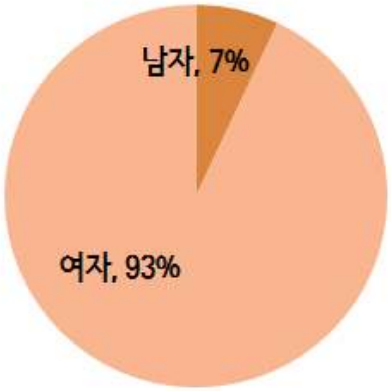
구분	응답인원	비율
시	108	50%
군	97	45%
구	9	4%
합계	214	100%



(2) 성별

성별은 여자 199건(93%), 남자 15건(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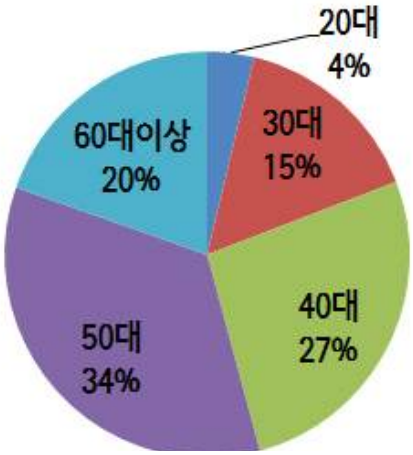
구분	응답인원	비율
남자	15	7%
여자	199	93%
합계	214	100%



(3) 연령

연령은 50대가 74건(34.6%), 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7건(26.6%), 60대 이상 42건(19.6%), 30대 33건(15.4%) 순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인원	비율
20대	8	3.7
30대	33	15.4
40대	57	26.6
50대	74	34.6
60대 이상	42	19.6
합계	2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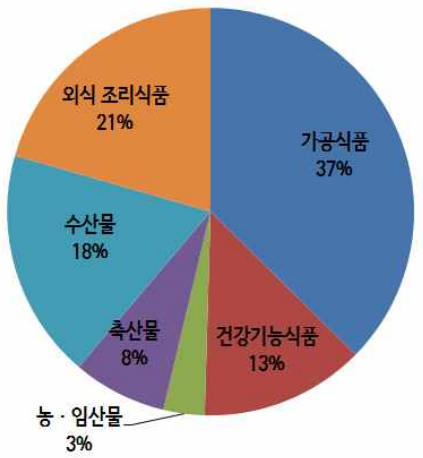


(4) 응답내용

■ 문항 1. 가장 불안을 느끼는 식품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오피니언리더 214명 중 80명(37%)가 가공식품에 가장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외식 조리식품 44건(21%), 수산물 39명(18%), 건강기능식품 28건(13%), 축산물 16건(7%), 농・임산물 7건(3%) 순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인원	비율
가공식품	80	37%
건강기능식품	28	13%
농・임산물	7	3%
축산물	16	7%
수산물	39	18%
외식 조리식품	44	21%



■ 문항 2.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먹을거리 (주관식)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먹을거리로는 치킨이나 붕어빵, 어묵, 길거리 등 길거리 음식, 학교 앞, 어린이 먹을거리.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육,가공식품, 농수산물, 가공식품, 절임식품 등 다양한 답변이 있었으며,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를 원한고 있었음.

- 치킨집 기름산패여부
-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 학교 앞, 어린이 먹을거리
-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 음식점 위생관리 등 다양한 의견 등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먹을거리	
치킨	· 기름의 산패로 인한 발암물질 · 저가 치킨의 기름상태 · 도축부터 소비단계까지 위생점검 · 뼈 없는 치킨의 원산지 표시 · 도로 변 차량에서 판매하는 구이통닭 위생 점검 · 기름의 재사용 상태 ·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치킨판매업소 원산지 표기 · 배달치킨의 원산지 표기
붕어빵	· 붕어빵의 팥(제조과정,유통기한,원산지표시,위생문제등) · 첨가제 사용여부 및 반죽 성분검사 / 먼지, 공해에 대한 우려
어묵	· 유통기한, 길거리판매 어묵 위생상태 점검

	· 긴 나무 꼬치가 국물에 담겨 있는 것에 대한 위생 문제 · 생산지를 알 수 없는 어묵 · 일본산 수산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여부 · 어묵국물의 재사용이나 염분, 설탕으로 맛을 내어 건강염려, 끓인 상태 확인불가 · 어묵 찍어먹는 간장의 위생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어떻게 판매해야 하는지 교육)
길거리 음식	· 트럭에서 파는 대게 · 혼잡한 도로에서 과일이나 뻥튀기(매우 위험하며 운전자불안) · 떡볶이 위생상태 · 튀김(박스에 초벌튀김 되어 배달된 것을 다시 튀겨 판매목격, 제조과정 알 수 없으며 보관상태 불결함)/ 기름 위생상태 (산패, 산가 등 조사필요) · 푸드트럭 위생상태 · 식수 및 설거지에 이용하는 물 구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 · 행주의 위생상태 · 재료보관 상태 점검 필요 · 지하철 계단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과 떡, 샌드위치 위생, 원산지 등 · 지하철에서 파는 음식 (따로 유리나 출입문을 만들지 않고 오픈해서 파는 곳) · 길거리 계란빵(유통기한 경과된 오래된 계란 사용 여부) · 관광객이 많은 명동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먹거리의 위생상태 · 호떡, 튀김류, 떡꼬치, 자장면, 과일쥬스, 꼬치류 등.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족발, 불 족발 등 · 아파트 앞 소형트럭에서 파는 먹거리 중 열처리가 되지 않은 종류 (회초밥, 생선회 등) · 길거리에서 파는 순대곱창 볶음의 곱창의 청결 및 위생관리 등 우려 · 리어카에서 전통된장이라고 판매하고 있는 장류 · 길에서 파는 김치, 옥수수찐빵, 무인과자, 만두 ·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꼬치, 수제돈가스(원산지 표시도 없으며, 성분표시 없어) ·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판매되는 즉석 생선회. (언제 구입했는지 알 수 없는 생선을 그 자리에서 회를 뜬다하여 깨끗하지는 않다고 생각함, 포장마차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물을 플라스틱 통에 보관하였다가 음식을 할 때 사용함)
학교 앞 먹거리	· 학교 앞 문방구 및 학교 앞에서 파는 출처 불명의 불량식품 (성분을 알 수 없는 식품을 미등록 으로 또는 문방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팔고 있음) · 학교 앞 쥐포의 가공과정 궁금하고 위생 우려됨 (조리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고 판매하는지 여부) ·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닭강정, 떡꼬치 등 (문방구 밖에 설치되어 있어 뚜껑은 있지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먼지도 들어가고 비위생적이라 여겨지며 특히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라 신경이 쓰임) · 학교 문방구 내 판매되는 동남아시아 산 사탕류, 과자 (제조과정 신뢰 어려움 / 문제 발생시 발생사항만 보도처벌 및 시정사항 끝까지 알림. 선의 업체의 피해 방지를 위해 업체명 공개 필요) · 학교 앞에서 감자튀김을 판매, 감자튀김과 함께 가루를 섞어서 준다. 섞어진 가루가 어떤 성분인지 확인이 어려워서 불안함
축산물	· 축산물을 유통시킬 때 트럭으로 운반 시 위생불량 (관리, 감독필요) · 길거리 차에서 팔고 있는 닭 (원산지표시 및 유통과정 유효기간이 좀 더 자세한 정보필요) · HACCP 업체에서 생산되는 육가공식품 관리

· 육가공식품	· 육가공식품 (햄버거스테이크, 돈가스, 떡갈비 등)의 제품들을 보면 동물성지방 (비계, 닭껍데기 등)이 함유되어 있을 때가 있음. 그러면서 단백질 함량을 맞추기 위해 콩 단백질을 첨가하여 눈속임을 하는 경우 (영양성분표에서 육가공품의 지방과 단백질 비율을 표시해야 할 필요성) · 냉동 가공육류식품 (예) 햄버거패티, 치킨너겟 (제품에 쓰이는 육류의 부위나 품질, 유통상태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 · 육류가공식품 (소세지 등 가공식품이 안 좋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고 하니 어느 정도의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함) · 초등학교 부근 축산물 도축장 위생 실태 단속 필요 (축산물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의 도축장 등 위생상태 점검 필요 및 강화 필요) · 육류 전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산 육류 (미국산, 호주산, 돼지고기의 경우는 브라질산, 벨기에산 등이 있는데, 수입산 육류의 안전과 위생이 의심스러움) · 마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육회비빔밥의 육회 (가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위생감독 필요) · 육가공식품 (정육점에서 만드는 소시지 햄 등 첨가물 사용 및 미생물 지표) · 대형마트 내 직접 제조식품 (양념고기 등) 의 경우 제조가공 시 위생관리구역을 철저히 나누고, 위생커버를 철저히 하도록 의무화 · 식용 가축에 대한 열악한 사육환경 (특히 개, 닭, 돼지 등) 사육장의 위생관리 실태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와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함)
농수산물, 가공식품	· 횟집 활어의 신선도 (작고 좁은 환경에서 나오는 음식들의 조리환경에 대한 의문점) · 활어회의 안전성 (활어를 수족관에 넣어 운반하는 과정에서 활어가 심하게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품을 투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됨. 대부분 산지가 아닌 도시 등에서 판매하는 활어 회에 이러한 약품성분이 검출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 · 노상에서 판매하는 생선회류 (섭취 후 배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보상 받을 수 가없다) · 수산시장 바닥에 깔아놓고 파는 활어 등을 사서 회로 먹는 경우 (수족관 설치가 부담이 된다면 그물망 등 에 넣어서 고무통에 담은 상태로 판매 또는 받침대를 놓고 판매를 하도록 지도) ·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선류 (생선류 들의 원산지 불분명 / 특히 일본산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 · 수산물 (방사능 검사 완료제품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음) · 고등어나 특히 식당의 해산물 (고등어 먹을 때 마다 일본의 방사능 피해 우려) · 전통시장 주변 약초·농산물 행상 (원산지 및 잔류농약) · 홍삼 (인삼의 재배기간 확인) · 농산물 공판장 깐 마늘을 씻지도 않고 곰팡이 핀 것과 썩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그대로 갈아 단체급식 및 식당 등 사용 · 외국산 농축수산물, 임산물 (보따리장수가 많아 이들은 검역 없이 통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안전성을 위협함. 특별 단속이 필요한 실정) · 우후죽순 생겨난 야채가게 신선도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야채의 신선도와 유통과정) · 재래시장에 판매하는 즉석식품 참기름, 들기름(제조일자 표기가 대부분 누락) · 쥐포, 오징어, 조미 김 등의 수산가공식품 (제품의 품질에 따라 가격 등이 매우 다르고 특히 길거리에서도 많이 취급되고 있는 제품으로 수산가공품은 소비자가 그냥 구입한 상태로 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위생 등에 대해 관리가 필요) · 길에서 파는 땅콩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원산지 궁금) · 폐기되어야 할 재료 납품 (달걀, 폐유, 식당 참기름 등) 1차 가공되어 대량 공급되는 식재료 대상 위생 점검, 처벌강화 필요. 적발하기도 쉽지 않으며 재발하는 이유는 적발 후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 소분해서 판매하는 박스과일 출하 날짜가 적혀있지 않음(낱개 포장시에도 출하 날짜 기입이 필요) · 농산물(농약정도, 원산지표시) · 구입 후 생으로 먹는 샐러드, 껍질을 벗겨 반가공상태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위생 (미생물) (깨끗한 음용수로 세척이 제대로 되었는지, 특히 유기 농산물의 경우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더문제) · 더덕이나 도라지 연근 등 뿌리채소와 양파, 마늘 등 껍질을 깐 채로 소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는농 산물도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껍질을 많이 까서 오히려 더 좋은 것처럼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건강 (기능) 식품 · 떴다방	· 가짜 성분, 유사성분, 허위. 과대광고 · 건강원 레토르트 포장의 각종 즙 (야채, 과일 등) 건강원의 위생 점검을 하지 않고 원재료의 세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즙을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기기의 점검. 원재료의 보관 및 세척 확인 · 떴다방 판매 경우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음 · 정부에서 인증되지 않은 건강 보조 식품들 · 마트나 홈쇼핑 등에서 세일품목이라며 홍보하며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 · 비타민,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 섭취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도 찬반논란이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움 (단속보다는 다양한 입장에 대해 보다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이 이뤄질 수 있으면 함) · 기능성 성분이 표시한대로 함유되어 있는지 지속적 분석 필요 · 백수오 제품 홈쇼핑 문제 · 판매사원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음 · 떴다방에서 유통되는 식품 (특히 연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점 등 으로 미루어 보아 폭리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성분표시 등의 미흡한 표시사항 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됨) ·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건강기능식품(판매 후 연락이 안 되어 반품이 어려움) · 미끼로 엄청난 사은품을 제공하며 호객행위 (주방용품 소형가전 등을 미끼로 하여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등을 의료약품처럼 광고하며 비싼 가격에 팔고있음)
음식점	· 외국처럼 조리실을 손님이 볼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 짬뽕, 국밥 등 많은 재료를 섞어서 제조하는 음식 (제조의 과정, 주방의 청결도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도 치밀한 관리 필요) · 체인점 (예) 채선당 플러스, 패밀리레스토랑 등) 에 들어오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되는 것(체인점인 경우 소비자는 체인점을 운영하는 곳에서 기본적으로 원산지관리와 위생을 점검한다고 생각하나 중소 규모의 체인점의 원산지와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 TV에서 맛집으로 나온 업소(고객이 몰려 주방위생이 매우 소홀하여 엉망임) · 식당의 객실이나 화장실은 깨끗하나 조리장의 바닥이나 냉장고 냉동실의 위생 상태는 엉망 · 주택가골목에서 주택 겸 식당으로 배달전문으로만 운영하는 곳(지나가다 보면 간판이 있어 식당인줄은 알지만 불청결해보임, 위생단속이 필요한 것 같음) · 야간업소에서 판매되는 안주용 꼬지, 구이, 햄 등 (모범식당이라 붙어있지만 재점검과 재지정 요청) · 해썹적용 대상 식육식당 등이 과연 해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미흡한 부분 있어 사후관리 필요 (원산지나 원료가 믿고 먹을 수 있는지 꺼림칙함) · 식당 경우 너무 불친절하고 지저분한 경우(해썹 지정 식당인데도 작업장이 노출되고, 냉장고 안이나, 종업원 위생상태가 매우미흡) · 배달음식 전문업체 위생관리 (현재 난립하고 있는 배달음식 전문업체들의 식자재 위생관

	리와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여부 단속) · 뷔페음식 위생관리 (조개류 신선도 및 위생관리 필요, 식중독우려, 남은 음식 재활용 등) · 요즘 쭈꾸미 요리 판매업소가 증가하고 쭈꾸미를 구운맛 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쭈꾸미에 숯불 굽는 맛을 내는 양념소스가 안전한지 위해여부 의문임) · 오리가 몸에 좋다고 하여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오리의 항생제 등의 안전여부 · 패스트푸드 재료 중 채소 (햄버거의 재료 중 채소 (양상추)가 먹기에 꺼림직 할 정도로 신선하지 못하고 냄새가 났던 적이 있었음) · 조리기구의 위생관리 · 곱창 전문점(곱창의 위생과 신선도, 유통과정 관리)
생산, 제조 상	· 식품 생산공장이나 식당주방의 위생상태 정기점검 · 김치 제조 중 사용하는 재료와 첨가물(배추, 천일염, 젓갈(액젓,새우젓 등), 찹쌀풀 또는 밀가루 풀, 마늘, 생강, 대파 등 : 품질유지, 숙도지연의 이유로 다양한 첨가물을 사용 점검 필요 · 5일장 집게 사용하지 않고 고무장갑으로 뜨거운 갈비를 뒤집어가며 갈비 구움(환경호르몬 문제. 식품위생에 문제가 있으므로 관할 시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 재래시장, 대형할인마트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는 김치류의 제조장소, 제료 위생상태 (판매자의 보건증 발급유무) · 식품판매 허가 없이 파는 개고기류, 보신탕 위생관리 법적인 조항 필요(질병이 있는 개나 애완견(피부병) · 시장에서 만들어 파는 도토리묵과 두부콩(맛으로는 확인 불가하고 콩이나 묵가루의 함량을 알 수 없음) · 분말의 재료를 표기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은 확인 후 섭취할 수 있어야 함 · 소금/천일염 생산과정 (이물질유입방지 등 천일염생산과정에 대한 관리와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수입물량이 어떤 경로로 소비 되는지 모니터링) · 소규모 만두제조공장 경우 가정집 지하 등에서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현장점검을 통한 위생상태 체크) · 한과 제조 업소 (공장방문 결과 위생상태 의심스러움. 튀기는 기름 청소 문제, 직원 위생모 미착용 등) · 목초액의 잔류독성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 · 한강주변 배달서비스, 주변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치킨(냉동닭)의 제조공정 · 한강주변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제조과정 및 냉동닭을 이용해 재 가열해 판매하는 치킨(편의점)의 제조 과정 단속필요 · 족발 담그는 소스가 유명한 집일수록 새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에 첨가하는 방식이어서 미생물 증식우려 (미생물검사 및 위생점검 필요) · 빵가루 (빵가루 공장 위생문제, 직원 청결문제)
유통	· 냉장용 고기를 실온에 보관(슈퍼 우유 보관 시 냉장에 넣지 않은 경우) · 재래시장 비포장상품 · 대형마트에 한시적 판매하는 노출형 먹거리 (단 며칠간 정식매장이 아닌 매장 한 켠에서 판매하고 접어버리므로 사후피해에 대해 증빙자료 구하기 어려움) · 배달앱으로 등록된 야식업체 위생상태를 알 수 없어 불안감이큼(노출되지 않은 위생상태에 대해 위생이 취약 할 우려가 있는 배달전문점에 대해 위생점검이 필요) · 소셜커머스에서 저렴하게 파는 식품들 위생상태 · 전통시장 등의 마약김밥 (마약 이라는 명칭이 주는 문제) · 요즘 많이 늘어나는 수입과자나 수입 먹거리들의 일반판매(유통기간이나 보관상태 등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소비해도 좋은 것인지 궁금함) · 수입과자 판매점 (소분판매단속, 유통기한경과)

순대	· 순대 품질 및 위생 우려 (제조, 가공공정의 위생상태) · 순대음식점 위생상태 (순대음식점은 주방이 거의 오픈되어 있는데 위생상태가 좋아보이지 않음. 사용하는 순대의 유통기한이나, 위생상태 점검이 필요) · 가공제조과정 점검요망(제조과정에 불순물이 들어가지는 않는지, 깨끗한 환경인지) · 순대골목음식점에서 순대를 발로 밟는 것을 본적이 있음 · 순대 국물이나 순대도 전시해두면 유통기한을 알 수가 없어 불안함 (위생점검과 업주들의 위생교육 필요)
절임 식품 · 건어물 · 발효 식품	· 상가 밑에서 판매하는 절임식품 · 마트 등에서 팔고 있는 젓갈, 육수종류 (양념이 너무 과다해서 어떤 식으로 제조되었는지 확인 할 길이 없음) · 단무지의 경우 치자 색소를 써 인공색소를 쓰지 않는 것처럼 하고 더 많은 첨가물을 넣는 것은 아닌지 (제품의 포장에 無(무)를 써 놓고 다른 첨가물들은 다 적혀 있음, 無(무)표현 금지 필요) · 시장이나 노점에서 만들어 파는 반찬 및 젓갈류 (위생점검 및 제조일자 확인) · 젓갈, 고춧가루 등 분쇄하여 본래 형태를 알 수 없는 양념류, 영업장에서 대량 거래되는 양념류 (일일이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더욱 관심을 두고 관리해야 함) · 고추장, 된장, 액젓 등의 발효식품 · 젓갈류 (관광지 등에서 판매 되는것, 도매상, 소매상 등 전반적으로)위생관리와 나트륨함량 등
기타	· GMO식품 · 대용량생수 (배달생수수질검사) · 편의점에 판매, 유통되고 있는 삼각김밥 (원산지 속여서 유통되고 있지는 않은지) · 어린이과자(함량 체크) · 유아의 간식 (유기농이 표기된 상품, 국내산이 표기된 식품의 안전성) · 유아 아동 음식으로 파는 프리미엄 어린이 음식이나 이유식 · 떡 (쌀을 씻지않고 그냥 담가 두었다 건져서 떡을 만들고 있음 , 견과류(수입)도 씻지 않고 (상한 것 그대로)사용) · 집단 급식소 식재료 품질 및 위생관리 (대체로영세한업체, .서류상으로 하는 관리, 아니라 수시로 모니터링을 활성화, 특히 학교의 경우 외부인차단이라는이유로 단속을 회피.보수적인 학교에서 감시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며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 할 수 있는 예산지원 및 방안도 마련) · 공원, 번화가, 관광지,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즉석 생과일쥬스 (현장에서 직접 과일을 착즙하거나 으깨어 제조하므로 세척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곳에서 위생관리, 잔류농약이 묻어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것 아닌지 우려) · 장례식장, 예식장의 뷔페음식 식재료의 원산지 소비자들에게 고지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객이 많은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의 원산지표시와 위생점검 제안) · 5일 장터에서 식품 원산지 미표시 판매, LPG 가스통을 옆에 두고 빈대떡이나 튀김 요리하여 화재위험 (관할 시군 담당자들이 단속을 해야하고, 교통도 복잡하고 5일장터를 안전한 장소로 변경. 노점상 상인에게도 노점상인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실시) · 재래시장에서 포장지없이 중량단위로 판매하는 과자 원산지나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불안함,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기관에서 표시를 점검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단속 필요) · 식재료가 오래되거나 상한 음식을 갈아서 파는 경우 (갈거나 분말상태로 파는 재료 위생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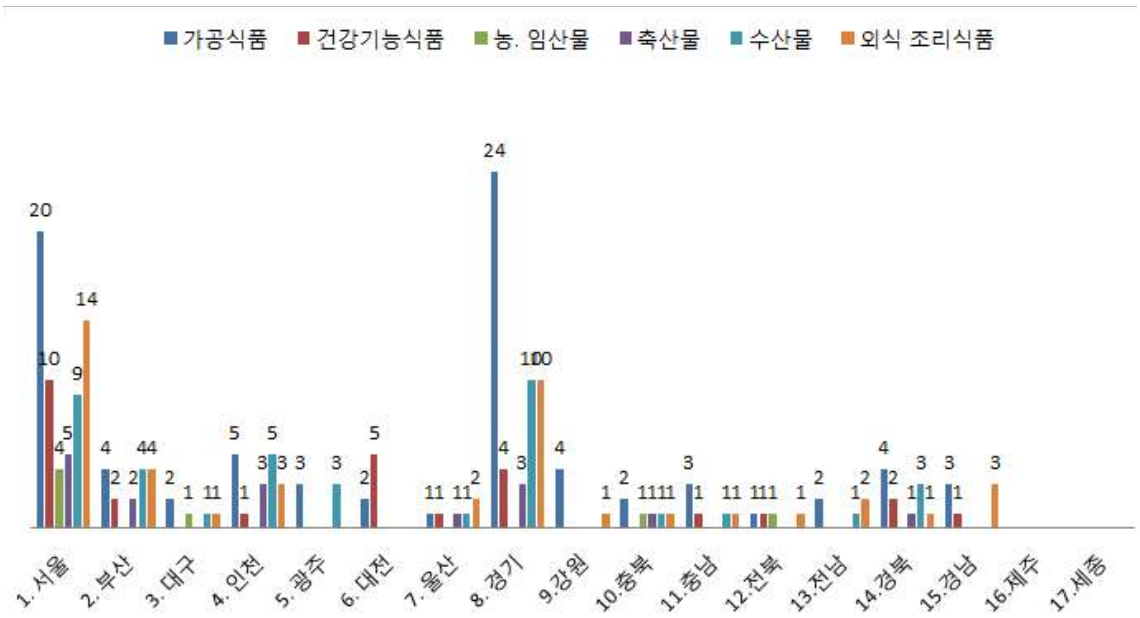
5.3.5. 지역오피니언리더 의견수렴

○ 지역오피니언 리더 활용하여 다각화·정교화된 의견수렴

○ 각 지역사회 소비자의 특이적인 식의약 안전이슈 발굴 등 정보를 수집하여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 및 식의약 관련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렴함.

- 가장 불안을 느끼는 식품 분야에 대한 오피니언리더 설문조사 결과, 서울 지역에서는 가공식품>외식조리식품>건강기능식품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지역에서는 가공식품>수산물,외식조리식품> 순으로 나타남.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외식조리식품	총합계
서울	20	10	4	5	9	14	62
부산	4	2		2	4	4	16
대구	2		1		1	1	5
인천	5	1		3	5	3	17
광주	3				3		6
대전	2	5					7
울산	1	1		1	1	2	6
경기	24	4		3	10	10	51
강원	4					1	5
충북	2		1	1	1	1	6
충남	3	1			1	1	6
전북	1	1	1			1	4
전남	2				1	2	5
경북	4	2		1	3	1	11
경남	3	1				3	7
제주							-
세종							-
총합계	80	28	7	16	39	44	214



5.3.6. 소통주제 정보 전달 - 의견수렴 및 피드백

<목적>

○ 국민소통단을 통해 수렴된 소비자의 의견 중에 소통주제를 선정하여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자료로 공유

○ 소비자단체와 정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 수렴 및 피드백 소통체계 마련

○ 필요시 안전정보 자료는 다양한 소통채널(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및 1372 소비텔 등)을 활용하여 공유·확산

○ 확산·전파된 소비자 필요정보에 대해 국민소통단의 정보이용 만족도조사 실시

1) 1차 의견수렴 및 피드백

<피드백> 식품의약품안전처 (4월 27일)
□ 수입과자 안전관리 강화 → 유통 수입 과자류 수거검사 현황 및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계획 마련 추진 중 (하반기 특별 수거검사, 지자체 협력하여 수입과자류에 대한 일상 검사 지속 추진, 주적합 식품 회수 등 조치 추진), 수입과자류의 나트륨 당류 영양성분 등 실태조사 관련 정책연구사업 진행 예정(5월~) □ 굴 노로바이러스 안전관리 강화 → 해수부, 시.도, 수협중앙회 협업으로 안전성 검사 및 지도 점검 추진 완료, 생산자단체(수협) 자율검사 강화, 생산자 및 위(공)판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교육 홍보 강화 요청 등 □ 한약 성분표시 등 필요성 제기 → 식약처 소관사항과 보건복지부 소관 한약의 관리 설명.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표시기준 및 규정 안내.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예정(보건복지부), 처방 한약의 성분표시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단체 의견 공유 등 □ 염색제 부작용 안전관리 → 염모제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의견수렴중 , 소비자단체 샘플을 포함하여 제품 판매 제안하였으며 소비자불만 현황에 따른 해결방안 검토 조치 예정 식의약 안전교실 교육자료로 연계진행.
<의견수렴 내용>
(1) 1차 실무급 관리위원회 운영 (2월 26일) □ 겨울철 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문제 이슈 → 소비자주의사항 전달 필요, 어패류 안전 교육 컨텐츠나 특별주제로 조사하여 포럼 시 활용 □ 수입과자 판매 증가 → 수입과자 관리 확인요청 □ 시중 판매과자 질소함유량 과하게 포함 → 질소량 규제, 기준 등 제시 필요 □ 전자담배에 대한 문제 심각 → 담배 안전성 관리 요구 □ 허브 마약 언론보도 → 마약성분 위해 알림 필요

□ 한약 주의사항,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 정보제공 미비 → 양약 처방전처럼 성분 확인 개선하여 정보 제공 제안

□ 제모제와 데오드란트, 향수 같이 쓰면 위험한 사항 →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제공 필요

□ 염모제 패치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 과실로 보는 것 → 패치테스트 관련 업체 면책 부당

(2) 1차 위원급 관리위원회 운영 (3월 9일)

□ 굴(어패류)로 인한 부작용 다수 발생

→ 노로바이러스의 겨울철 확산은 양식장의 문제, 해양수산부 관리, 수산물 가공문제가 근본적

□ 수입과자 판매 증가로 인한 관리

→ 수입과자 벌크로 뜯으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대포장 설명서를 비치해 놓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유통 품질문제가 많고 한번 수입 통관되면 유통기한, 라벨관리가 소홀해지는 점이 있어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한글표시사항, 소포장 비치, 원산지, 정크푸드에 대한 내용 등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한약에 대한 성분표시 필요

→ 알권리 측면 정보제공필요, 국민소통단을 통해 소비자 필요정보 발굴

□ 제모제 및 염색제 사용 시 주의사항

→ 생활밀착형 정보로 식의약교실 교육컨텐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필요

2) 2차 의견수렴 및 피드백

<피드백> 식약처, 소비자단체 간담회

1) 식약처 - 단체장 간담회

■ 일시 : 2015년 5월 1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롯데호텔 36층 버클리룸
■ 참석 : 김승희 처장 · 유무영 조정관 · 장기윤 차장 · 김관성 · 김성호 · 양진영 · 최동미 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천주 회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덕승 회장 · 임은경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성자 원장(한국소비자교육원), 조태임 회장(한국부인회총본부), 주경순 회장(소비자교육중앙회), 차경애 회장(한국YWCA연합회)
■ 내용 :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간 소통강화 방안, 백수오 및 주요 식품 안전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

2) 식약처장 방문 간담회
▪ 일시 : 2015년 6월 16일(화) 오후3시
▪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실
▪ 참석 : 김천주 회장, 이덕승 회장, 김자혜 회장, 임은경 사무총장
▪ 내용 : 백수오 허위과장광고 조사 촉구, 백수오 리코딩 예산 요구 .

<의견수렴 내용>
(1) 2차 실무급 관리위원회 운영 (4월 27일) □ 가짜 백수오 관련 보도로 인한 소비자상담 폭발 → 식약처 검사결과, 신속한 후속조치 필요 □ 에너지 드링크 판매 범위 넓어 학교 밖에서의 학생들 섭취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의약품, 화장품 부작용 발생 시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움 → 제조사별 부작용 현황파악을 위한 대안 필요 □ 환절기 감기약 복용 많음 → 감기약 복용 시 소비자주의사항 전달 필요 □ 의약품 표시광고 중 숙취해소제 구입 시 증정품(핫팩) 소비자오인 피해사례 → 소비자단체, 업체에 시정요청 공문 발송 □ 한약 피해사례 지속적, 다수 → 한약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2) 2차 위원급 관리위원회 운영 (5월 19일) □ 가짜 백수오 관련 소비자 피해 → 소비자피해 협의체 구성시 이해부처, 당사자들, 제조처 포함 논의 필요, 소비자문제 언론보도 시에는 소비자 행동가이드를 함께 내는 것이 필요함. 협의체 구성, 문제점 논의 및 소비자 정보 전달필요. 이력추적제를 실시하여 추적가능토록 해야 함. □ 의약품, 화장품 부작용 발생 시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움 → 의약품 및 화장품은 사람의 체질이나 복용량에 따라 부작용이 달라 소비자피해보상기준 개선 필요 □ 인터넷 쇼핑몰, 신문 광고를 보고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및 다이어트제품이 광고내용과 다름 → 건강기능식품 및 다이어트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대책 필요,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식품 근본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함.

3) 3차 의견수렴 및 피드백

<피드백>
□ 식약처 의견전달 (6월 4일) 1) 제품제조 시 생약추출물* 을 개별 추출하도록 제조방법이 정해져 있으나, 혼합추출 하더라도 효능에는 영향 없음 * 효능,효과를 갖는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임 2) 식약처 대전지방청은 동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약사감시에서 의약외품에 대한 전반적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75개 품목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음. * 조사결과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누락(20개품목), 등 총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확인(보도자료 참고).

3) 동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2품목*의 경우, TV 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개별 추출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

*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보도자료참고).

4) 동 제조업체의 위반사항은 제조업무정지 및 광고업무정지 등 조치예정이고, 최종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는 무관하여 회수조치 계획은 없음.

□ **소비자단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가이드라인 제작**

<두리화장품 환불 정책 가이드>

환불대상	2015년 1월 1일 이후 식약처 행정처분 예정 품목을 구매한 고객이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우려로 반품/환불을 희망하는 고객
부분 환불 조건	상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잔여 제품에 한하여 우선 환불
환불범위	당사 CS팀 환불대상 여부 상담 후 잔여제품 반품 매뉴얼에 따라 부분환불 진행
환불절차	각 유통업체 CS접수 → 행정처분 예정 품목 여부 확인 → 당사 CS팀으로 이관 → 당사 CS 상담 접수 후 부분 환불 절차 안내(사용분 금액 차감) → 제품 구매/결제처 고객 환불 처리

처리절차	제품 환불 정책 가이드
STEP 1. 제품 품질에는 이상없음을 안내	[품질의 문제가 아님을 안내] - 식약처 정기감시 결과, 제품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발표 (2015.06.04. 식약처 홈페이지 발표) - 자사 전제품은 출고전 미생물검사 항시 시행 - 출시 전 효능성/안전성 등 각종 테스트 완료 (임상테스트/FDA안전성 검사/피부과테스트 등 제품 별 상이) [기타] - 허위광고는 100% 자사 과실이니 해당 부분 이유 불문 사죄 (단, 허위광고는 진기현/진기현프리미엄 홈쇼핑 방송 멘트 부분이며, 홈쇼핑 외 광고와 해당 제품의 패키지&다른 제품 패키지에는 개별추출로 광고된 부분은 없음) - 진기현/진기현프리미엄은 온라인&홈쇼핑 전용이며, 시판마트 유통 제품이 아님. 시판 및 기타유통 제품은 허위광고 사실이 없음을 인지.
STEP 2. 제품교환/환불 안내	[품질에 이상이 없음에도 환불 요청하는 고객은 아래 단계에 의한 안내] - 환불 안내(부분 환불 정책 시행) ● 환불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구매제품에 한함 ● 자사 CS팀에서 상세한 고객 안내 절차 진행 (1) 제품 사용분 금액 산정, 해당 금액 차감 후 환불 진행 (2) 각 유통업체 시스템 상 차감 환불 취소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 선입고 후(반품) 사용분 금액 자사 입금 후 유통업체의 전체 카드

	취소처리 진행) ● 온라인 홈쇼핑 고객 중 환불의사가 있는 모든 고객은 본사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해드리며, 시판(대형마트) 유통은 별도로 판매처에서 환불처리 진행.
STEP 3. 고객사과	[고객 사과_반드시 진행] - 제조관련 허위광고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 사죄 - 제조/품질 시스템 확충 후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하겠음을 안내
기타. 예외CASE	[2015년 1월 1일 이전 구매고객] - 불가 안내를 드리며, 제품 교환처리 진행 안내 - 강성고객의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일부 처리 [기타 예외 질의/클레임] - 두리화장품 본사 고객상담실 연결(하단 연락처 참조)

<의견수렴 내용>

□ 두리화장품 상담 증가에 따른 정보 요청

1) '댕기머리진기현샴푸'의 제조방식에 따른 효능 문제

2) 동 제조업체 타제품 제조과정의 문제 가능성 및 허가사항위반 여부

3) 동 제조업체의 약사법에 의한 조치 이외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 여부

4) 동 제조업체 제품의 회수조치 진행 계획 여부.

4) 4차 의견수렴 및 피드백

<피드백>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전달(7월 3일)

□ 가짜백수오 이슈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식품관리총괄과) 식약처 홈페이지 백수오 안전관리 사이트 오픈하여 관련 정보 공개. 회수 및 피해보상 / 안정성 평가예정 /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 계획 수립 중

□ 의약품 설명서 크고 알기쉽게 개선 필요 등

→ (의약품관리총괄과, 의약품안전평가과) 소비자에게 의약품 안전한 사용하도록 정보 알기쉽게 전달 노력. 일반의약품 오약기재 대상 확대 등. 의약품피해구제제도 및 부작용신고방법 적극 홍보 예정

□ 인터넷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대책 필요

→ (식품관리총괄과) 국민소통단 설문조사를 토대로 향후 정책홍보 등 계획에 반영, 식품허위과대광고 근절 위한 토론회 개최 필요성 전달. 식품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 배너 설치

□ 어린이 고카페인 음료 무분별한 섭취 예방관리 요구

→ (식생활안전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위한 판매 제한,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 확대 추진 중(5월 법안소위 회부), 학교주변 판매금지, 학교 교육자료, 포스터, 가정통신문 등 현행 관리 제도 안내.

□ 감기약 TV 광고로 약물 오남용 우려

→ (의약품관리총괄과) 의약품관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 운영중이며, 해당 광고는 현재 방영하지 않으며 재방영 계획 없음. 향후 소비자 오인 우려사항이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

<의견수렴 내용>
(1) 3차 실무급 관리위원회 운영 (7월 3일) □ 비타민제 변색에 대한 상담 꾸준히 발생 → 색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개별포장 제안 □ 약국에서 남은 약 가져오라고 한 것에 대해 소비자 재활용 의심 → 의약품 폐기방법 안내 필요 □ 5월 가짜 백수오 관련 건 상담 10,940건으로 전체 5월 식품 상담의 86.5%를 차지함. → 백수오 상담의 보상방안이 늦게 나오게 되어 신속한 대응안내가 어려운 사례였음. □ 무점포 불만사례 분석 (집중분석) → 식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 식품규격, 원산지, 반품조건, 배송형태 등 오프라인과 비교구매 필수적. → 허위과장광고와 표시사항 문제가 많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입해야 함.

5) 5차 의견수렴 및 피드백

<피드백>
식약처, 생활밀착형 식의약 안전정보 전달
○ 일시 : 2015년 7월 14일 (1차), 2015년 7월 20일 (2차) ○ 전달방법 : 국민소통단에게 메일로 전달

▹여름철 식중독 예방요령
(올바른 식품 냉각방법, 생선,조개류 조리방법)

▹건강식습관을 지켜주세요.
(나트륨, 당 줄이기)

▹잘 지켜요! 장보기 60분
(식품구매는 60분이내에,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기)

▹ 자외선차단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활동에 따른 자외선 차단제 선택방법)	▹ 자연에서 식탁까지! (식품이력정보조회서비스 이용방법)
▹ 영양표시 확인은 건강한 식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영양성분표시 확인 방법)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고열량, 저양양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및 광고 금지)

6) 6차 의견수렴 및 피드백

<피드백> 소비자단체, 라운드테이블 개최
1) HACCP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라운드 테이블 ▪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한국YWCA연합회 2층 강당 ▪ 참석 : 소비자단체 34명, 식품업체 7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명 (총 43명) ▪ 내용 : 발제1. HACCP 제도의 현황과 과제, 오혜영 원장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발제2.HACCP 인증제도 : EU - HACCP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점 김용휘 교수 /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종합토론 - 박기환 교수 /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 백대용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 조규봉 기자 / 쿠키뉴스 - 김정년 부장 / 한국식품산업협회 - 이향기 위원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식품안전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부회장 - 강석연 과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 HACCP제도의 현황과 과제, HACCP 인증제도 : EU-HACCP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점, HACCP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
<의견수렴 내용>
(1) 3차 워원급 관리위원회 운영(7월 27일) (보고안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2015.6.11)에 대한 의견제출 □ 송학식품의 불량제품 유통에 대한 소비자단체 성명서 배포 (논의안건) □ 식품안전을 위한 소비자라운드테이블 (HACCP 인증제도 개선) 논의 및 개선방안 논의 → 소비자단체가 지자체나 식약처 지방청에 요청 시 언제든지 동행할 수 있는 조항 등 필요, 김치진흥법 김치품질평가처럼 해썹인증 기업을 사전에 소비자단체가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 검토 필요.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인증 제형을 일반화시키는 것 반대.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인 만큼 실험을 통해 안전성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또한 키 성장제품의 인체적용시험 필요함. □ 대장균 달걀 학교 급식, 제빵 업체에 유통 → 1) 부당이득환수제 2) 업체의 개인신분, 이력추적을 공개 하는 방안 등 강력한 처벌 필요 (2) 4차 실무급 관리위원회 운영(7월 17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송학식품 수사결과 보도에 따른 식약처 해썹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한 피드백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추진계획 보고 (소통협력과, 소비안전과, 소비자단체 참여)

(단기적방안)

- 소비자참여제 도입 : 해썹 정기평가에 소비자 참여
- 해썹 인증업체 무작위 기획점검 실시
- 강제퇴출제도 도입 (One-strike Out제)
- 식품위생법위한 해썹 인증업체 특별점검, 특별교육 실시

(중장기방안)

-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통합추진을 통한 HACCP 활성화 시너지 유발 및 사후관리 강화
- [가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15.6~7.20) 및 국회 본회의 통과('15.12)
- 가공식품 HACCP 유효기간 갱신제도 도입
-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적용업소 수시조사 및 평가 의무화

(3) 5차 실무급 관리위원회 운영 (8월 27일)

□ 분유의 이물질(벌레) 나오는 사례 → 상온에 두고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제조업체도 포장형태 보완필요

□ 배달우유가 상함 → 여름철 변질가능성 높으므로 정해진 배달시간에 배달하는 시스템 개선 필요.

□ 치아미백제 사용으로 인한 화상증세 → 심각한 사항으로 비슷한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썬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고 피부가 붉어지는 경우 → 모니터링 필요

□ 무좀약 폴케어 과대포장 → 포장에 비해 용량이 적을 경우 용량표시를 명확히 해야 함. 연고의 경우도 공기가 주입되어서 포장에 비해 실제용량보다 적어서 불만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과자류' 관련 불만사례 집중분석 → 처리 결과가 상담 정보제공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한계. 이상 증세를 보이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치 못한 경우 대다수. 수입과자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유 1순위가 정보제공 요청, 유통기한 표시 방법, 성분의 안전성 , 특정 국가 제품 안전성 여부 등임.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의 문의도 적지 않아 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법 등의 안내도 필요.

7) 7차 의견수렴 및 피드백

<피드백> 소비자단체, 캠페인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근절 캠페인

▶ 국민소통단을 통해서 발굴된 이슈인 '허위·과대광고 소비자피해 근절' 의 필요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허위,과대 광고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시 대처법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 일정 : 2015. 11. 27.(금) 11:30~12:30
○ 장소 : 명동일대 (명동역,을지로입구,회현역 등)
○ 참여인원 : 소비자단체 50명 및 소비자 5000명

○ 캠페인 리플릿 예시

<의견수렴 내용>

(1) 4차 위원급 관리위원회 운영 (10월 2일)

□ 해썹 인증제도개선 라운드테이블 → 해썹에 대한 국민인식확대 및 교육과 제3의 검증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과자류' 관련 불만사례 집중분석 → 소비기한, 상미기한, 유통기한 등 표시가 일관되지 않아 소비자가 혼란. 유통기한 별도표시'로 표시하는 경우 개선 필요. 수입식품표시관리(유통기한 등) 모니터링 필요.

□ 이물혼입상담 → 축산물 가공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보고의무 없어 개선 필요. 이물 발견 시에도, 도축장에서 문제인지, 위생문제인지 등 (원료, 제조. 유통) 알기 어려움.

□ 패스트푸드 위생상태 불량 → 명예감시원 활용 등으로 지속적 관리감독 필요

□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안)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에 대한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필요

□ 허위, 과대광고 → 건강기능식품 이외에 일반식품에서의 기능성표현도 점검필요. 기능성을 표방하는 식품광고의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 표시 가이드라인 필요.

(2) 6차 실무급 관리위원회 운영 (10월 30일)

□ 키크는 성장제 → 한속단에 대한 언론보도로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섭취방법, 임신부의 섭취 안전성 등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소비자 정보 필요

□ 비타민 관련 부작용 상담 다수 → 해외에서는 모든 식의약품 부작용 등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1건이라도 접수되면 바로 원인분석으로 이어지거나, 추적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어 부작용 문제에 대해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개선 필요함.

□ 동일한 제조사 우유에서 쓴맛, 약냄새, 신맛 등 중복하여 상담 접수 → 당시, 제조된 우유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됨.

□ 발효유 관련 집중분석 → 이물질 관련 상담사례가 가장 많았음. 또한 요즘 그릭요거트가 유행인데, 그릭요거트 스타일이라고 광고하여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모니터링 필요.

(3) 5차 위원급 관리위원회 운영(11월 17일, 오전 10시)

□ 제12회 소비자포럼 → 이슈에 따라 어떤 주체가(소비자단체 , 정부) 내용을 전달할지도 소통에서 중요한 사항임.

□ 백수오 진행경과 보고 → 식약처에서 홈쇼핑 업제들에 대하여 과대광고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인정하고 영업정치 처분하였음. 식약처는 이를 행정처분안으로 하여 각 홈쇼핑 업체 영업소 관찰 지자체로 넘겼음. 이에 대해 홈쇼핑업체들은 검찰 수사 및 식약처 추가조사 중이므로 행정처분 보류 요청함.

- 소비자단체 ,가짜 백수오 소비자 피해보상 이행 촉구를 위한 집회 개최 (11월20일)

□ 국민소통단 설문 → 식품안전정책 중 소비자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제공 필요.

□ 국민소통단 개선방안 논의 → 국민소통단의 스펙트럼을 넓혀 소통할 필요. 설문조사 이후 소통단들에게 설문결과와 피드백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통해 안내 필요.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시책에 개선방향제시 하여 올바른 정책과 그 시행 결과를 국민하게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정보공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홈페이지등을 통한 일상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야 함.

참고자료 – 리플렛 예시

국민소통단이란?

국민소통단이란

전국적으로 연령별 · 지역별 · 성별로 1,000명으로 구성된 대국민 소통채널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상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부처에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및 정책 반영 등으로 환류하는 소통체계입니다.

국민소통단 (전국, 지역별, 연령별, 성별, 1000명구성)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정책 ·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소통단: 관련 정보제공, 정책반영, 제도개선 상황 환류

국민소통단에 참여하려면

국민소통단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국민소통단으로 참여하실 소비자의 참여를 바랍니다.

활동기간 : 2016. 1 ~ 12(1년)

활동혜택 : 응답자에게 소정의 선물 지급

활동방법 : 문자나 이메일을 통하여 국민소통단 설문이 도착하면 설문에 응답 후 회신해주는 방식

•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lkj@consumer.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개

소비자의 건전하고도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결합,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원단체의 발전을 도와 소비자 보호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976년 4개의 발기단체를 시작으로 현재는 10개의 회원단체와 전국 255개 지역단체들이 목적을 함께 하며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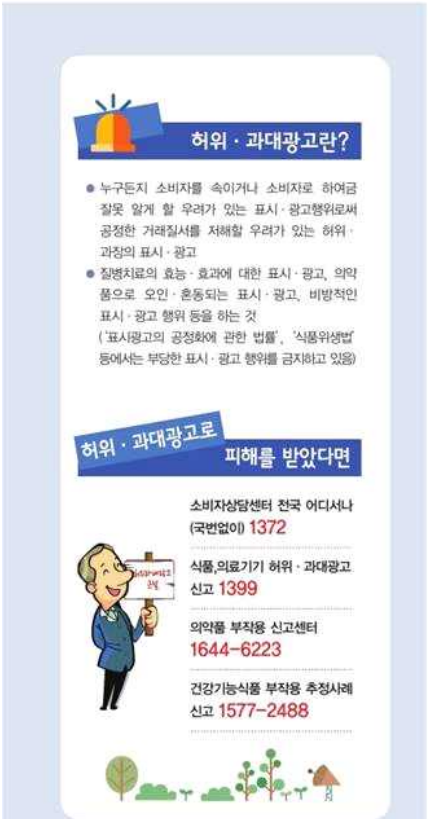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서울시 중구 명동11길20 서울YWCA회관 701호
02-774-4050 홈페이지 www.consumer.or.kr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허위, 과대광고 신고는 1399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위 · 과대광고란?

- 누구든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
- 질병치료의 효능 · 효과에 대한 표시 ·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 · 혼동되는 표시 · 광고, 비방적인 표시 · 광고 행위 등을 하는 것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허위 · 과대광고로 피해를 받았다면

소비자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

식품,의료기기 허위 · 과대광고 신고 1399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 1644-6223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1577-2488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 · 과대광고

다음과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유형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예) 항암, 당뇨, 고혈압에 좋은 환

유형 2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광고**
예) 병원에서도 포기한 환자가 완치되는 천연항암치료가루

유형 3 **체험기 이용 광고**
예) 1주 먹고나니 탈모가 사라지고 머리숱이 늘었어요
• 1주일에몸무게가 00kg에서 00kg로 날씬해 졌어요
•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 질병의 완치사례 영상을 상영

유형 4 **다른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는 광고**
예) BA보다 AA제품이 사포닌이 더 많이 함유

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 사례

의료기기의 효능 ·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는 광고

- 온열기에 누워만 있어도 당뇨, 피부병,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이 깨끗이 낫는다고 주장하는 광고
- 이온수를 마시면 각종 암, 아토피가 치료 된다고 주장하는 광고
- 족욕기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몸속 노폐물, 독소가 빠져 나온다고 하는 광고
- 혈액순환개선 목적으로 허가 받은 전위 발생기를 뇌세포 조직을 재생시키고 피를 맑게 하여 피부 질환을 호전시키는 등 만병통치용이라고 주장하는 광고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금지표현

-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학적 효능 ·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금지
-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에 대한 표현 금지
- 화장품의 효능 · 효과를 벗어나는 표현 금지
- 피부노화와 셀룰라이트 감소 등은 사용할 수 없으나 효능 · 효과를 입증한 경우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등의 표현은 사용 가능
-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금지

○ 참고자료 - 캠페인사진

세월호 1년,
그 아픔을 기억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합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과대광고
속지 마세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식품 · 의료기기
허위 · 과대광고 신고
1399!
식품의약품안전처
Leonidas
벼룩시장

daiso
HOLIDAY
서울중구 서울로얄호텔 리모델링공사
한국부인회

참고자료 -기념품 예시

소비자 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72!
식품 허위·과대광고 신고는
☎1399!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Korea National Council Consumer Organizations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고온도 60℃
평균온도 53℃
소비자 상담센터는
☎1372!
식품 허위·과대광고 신고는
☎1399!
주운 겨울 바깥에서 일할 때
아플 때 찜질이 필요한 곳에
1개입

식품을 약처럼 판매하면
☎1399로 신고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5.3.7. 식의약 정책 만족도 조사

2015년 식의약 정책 및 생활밀착형 정보에 대해서 국민소통단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이 31명(14%), 만족이 96명(43%), 보통이 86명(40%)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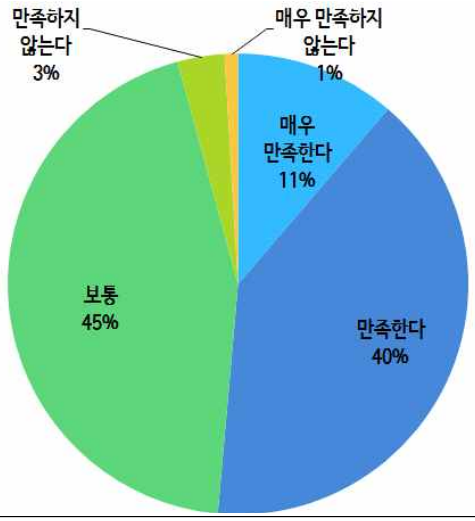
▶ (설문 문항) 2015년에 제공된 식의약 정책 및 생활밀착형 정보에 대한 만족정도는?

✓**정책정보** : 식품이력정보 조회서비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안전관리 등
✓**생활정보** : 건강식습관 지켜주세요, 장보기 60분, 여름철 식중독 예방요령 등

○ 조사기간 : 2015년 11월 5일~11월 20일

○ 조사대상 : 국민소통단 1,000명 중 638명 응답

문항	응답인원	비율
매우 만족한다	31	14%
만족한다	93	43%
보통	86	40%
만족 하지 않는다	2	1%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	1%



5.3.8. 소비자포럼

○ 식의약 안전이슈, 정책 개선방향 등 관심사항에 대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실무급 회의, 위원급 회의 등에서 상정된 소통주제 중 주요이슈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소비자포럼과 연계하여 개최

(1) 제11회 소비자포럼

❍ 주제 : 식품 허위·과대광고 소비자피해 근절방안
❍ 일정 : 2015. 8. 28.(금) 14:00~15:30
❍ 장소 :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
❍ 주요 의견

▶ 일반식품의 광고 사전 심의 등 제도 마련

- 민간기관(협회, 단체 등)을 통한 온라인(포털, 신문·쇼핑 등) 광고 사전자율심의 및 정부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과 통일성 있게 접근하여 혼란 방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

▶ 정부의 법·제도 강화 및 관리 철저

- 노인, 어린이 등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한 원인규명 등 제도개선을 통한 전략적인 방안마련 필요
- 법·제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고, 실제 행정처분은 경감되어 법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점도 고려 필요
  *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항에 대한 형량하한제 실제 적용 사례 미흡

▶ 허위 표시·과대 광고와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강화

-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 교육을 통해 모니터링 강화 및 전문가FOOL을 형성하여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관련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등과 협업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 해당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이트가 지속 유지관리(update) 필요

(학계)

▪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사전심의가 반드시 필요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법·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
▪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비자·판매자 교육을 하고, 전문가 FOOL을 형성하여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온라인(포털사이트, 신문·쇼핑 등)의 광고를 협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해서 사전에 1차 검증하고 사후 모

니터링을 강화하여 관리할 필요

(소비자단체)

- 법은 강화되었지만 실제 처벌이 약한 부분에 대한 법의 실효성 지적
- 판매업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피해보상규정도 강화하고 식품도 사전심사 의무화 필요
-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신뢰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되도록 지속 관리 필요
-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일반식품),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가 통일성 있게 접근하여 소비자 혼란 방지 필요
-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구분 교육 필요
-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 시 기능성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 필요

(기자)

- 취약계층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관리 강화 필요
  - 피해대상자는 누구인지, 왜 피해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파악 등
- 소비자 스스로가 똑똑해 져야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쇼핑협회)

- 협회 차원에서 식약처와 함께 홍보 및 교육 등 적극 협조하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마련에도 적극 도울 예정
- 사전광고 심의가 중요

(식약처)

- 허위표시·과대 광고하는 판매업자 제재 방안 부재에 따라 기타 식품 판매업의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판매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검토하겠음
- 허위표시·과대광고 하는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설(현재는 떴다방만 10만원 지급)
- 반복·상습적으로 허위표시·과대 광고하는 업체는 특별 관리 업체로 지정하여 단속 강화

(2) 제12회 소비자포럼

○ 주제 : 국민 중심의 식의약 정책소통 방안
○ 일정 : 2015. 11. 10.(화) 14:00~16:00
○ 장소 : LW컨벤션 3층 다이아몬드홀
○ 주요 내용

▶ (발제1)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식의약 정책소통방안**

1) **전략과 목표의 설정** : 정책의 완성을 위한 핵심프로세스, 시민역량 향상
2) **상시성** : 상시적인 소통체계 구축 /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
3) **투명성** : 정책의 파트너에 대한 평가와 구성의 원칙
4) **공개와 열린 참여** :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개진되어야 한다.
5) 교육이나 홍보가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
6) **이해관계자 분석과 효과적인 소통** : 언론, 국회, 정부, 전문가, NGO 특성별 소통 전략 마련
7) **다양한 매체의 활용** : 영상과 스토리텔링의 시대
8) **위기대응 시나리오별 매뉴얼** : 일상적인 소통과 위기대응 상황별 소통 전략

▶ (발제2) **글로벌 거버넌스 패러다임 변화와 식약처·국민 소통의 미래**

소통의 패러다임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으나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통(通)'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의 기존방식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새로운 변혁적 접근이 필요하다.

1) 소통의 궁극적 목표인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협력을 강화, 공무원과 시민의 역량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2) 소통의 인프라가 되는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해 정부주도 보다는 민관협력 형태로 정부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요자를 위한 설계와 디지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3) 정부와 공무원, 국민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특히 앞으로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4) 소통의 **투명성**을 통해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부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다. 투명성은 국민이 정부조직의 내부 활동과 의사결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 국민이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이 수행한 활동에 대해 정보를 제공, 확산하는 것, 국민의 평가와 비판을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까지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가 생긴다.

5) 자발적으로 통찰력을 갖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숙의적 시민참여**를 높여야 한다. 새로운 정책에 시민의 참여로 토론을 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국민의 위한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예)서울시 사업에 참여한 국민들이 서울시를 더 신뢰하고 믿음, 투명성을 높게 평가한 사례

▶ (토론)

- 국민들에게는 물리적 위해보다는 정신적, 심리적인 위기의식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식약처가 유일무이하게 대변인실 외에 소통협력과를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정신적인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다. 국민과의 상시소통을 위해 온라인에서 '민'주도로 소통을 하는 것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소통전문가가 필요하다.

- 이슈 발생 시'신속 - 정확','정확-신속'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고 싶은 정보를 주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먼저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 결국, 소통은 서로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소비자와 정부가 서로 간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라운드테이블>

백수오 소비자문제 개선방안 라운드테이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2015년 5월 14일(목)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백수오소비자문제 개선방안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최근 '가짜 백수오'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일부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라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하정철 팀장(소비자원), 안만호 대변인(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 이향기 위원장(소협 식품안전위원회)의 발제에 이어 명승권 교수(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인제대학교 백병원),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사무소),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김자혜 회장(소비자시민모임)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라운드테이블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백수오 소비자문제의 경과

하정철 팀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60% 이상의 백수오 제품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고, 백수오 원료 사용제품 3개(9.4%), 이엽우피소 검출제품 21개(65.6%), 백수오 원료 확인불가 제품 8개(25.0%)로 나타났으며, 8개 중 2개 제품은 DNA(Deoxyribonucleic Acid) 검사가 가능한 제품이나 표시와 달리 백수오 성분 확인이 불가하고, 6개 제품은 제조공법상 최종제품에 DNA가 남아있지 않아 이엽우피소 혼입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간담회에서 23개 업체는 제품과 원료 폐기 및 자발적 회수·폐기를 결정하였으나, 내츄럴엔도텍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 4월 13일 소송 및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후 유전자분석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소비자원의 시험 방법과 결과에 이견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며, 공정위·식약처·소비자원 3자 간담회에서는 소비자원의 시험방법, 시험결과, 이엽우피소 부작용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에게 설명했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소비자원이 네츄럴엔도텍을 검찰 고발할 예정임을 이야기하자 식약처에서는 다른 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1차 발표를 하고 네츄럴엔도텍은 추후 발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내부 검토시 검찰수사는 장기간 이루어지는데 내츄럴엔도텍의 가처분 기일이 2주 뒤인 상황에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하여 4월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검찰수사 의뢰가 진행되었다. 이후 내츄럴엔도텍은 업체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4월 23,27일에 배포했으나 결국 5월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하여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는 구입 시기·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 조치를 하였으나, 현재 6개 TV홈쇼핑 업체에서는 NS홈쇼핑만 구매 시기·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5개 홈쇼핑 업체는 소비자가 수용하기 힘든 1차 보상방안을 제시한 상태이며, 식약처 전수조사, 이엽우피소 혼입·위해성 여부에 따라 추가 보상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였다.

식약처의 백수오 관리실태 및 향후 대책

안만호 대변인은 이엽우피소의 독성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대만과 중국에서 식품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한국독성학회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현 섭취수준에서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5월 현재,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300개소 721개 품목 제품 전체에 대한 특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처분 조치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원재료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제품 회수·폐기 계획, 제조업체에 대한 백수오 원료 진위여부 확인 등 지도 및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료 구입단계에서 진위여부 검사 또는 검사증명서 비치 의무화 추진, 수입시마다 이엽우피소 혼입여부 정밀검사 실시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사기관과 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여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 사후관리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비자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백수오 관련 소비자 피해 현안

이향기 위원장은 5월 11~12일에 접수된 '백수오' 관련상담 1,916건을 분석한 결과, 82.3%가 'TV홈쇼핑'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구입 업체는 '홈앤쇼핑' 47.4%, '롯데홈쇼핑' 12.0%, '현대홈쇼핑' 9.3% 등이었으며 '구입업체를 밝히지 않은 상담'도 18.1% 있었다. 제조사는 '내추럴엔도텍'이 47.2%, '서흥' 2.6%, '천호식품' 2.0% 순이었으며, '업체명을 밝히지 않음'은 43.2%였다. 상품명은 내추럴엔도텍의 '백수오궁'과 '백수오퀸'이 41.8%로 가장 많았고, 서흥의 '백수오 시크릿' 2.6%, 천호식품의 '황후 백수오' 0.8%이었으며, 50.9%가 '정확한 상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백수오라고만 밝힘'으로 분석되었다.
상담내용은 '반품 및 환불 요청'이 70.2%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호소',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여부 확인', '피해보상' 등이었다. 가짜 백수오 상담 중 8.3%가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이상증세는 간 기능 손상, 소화기 장애, 두통 등 통증발생, 자궁관련 질환,

피부질환 등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백수오 관련 주요 쟁점은 제품의 안전성 문제이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영수증 지참시 전액 환불이라고 하나 사실과는 다르고, NS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홈쇼핑업체는 검찰수사 결과와 식약처 전수검사 결과 등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관리에서 부적합 보고 의무 시행 및 식약처 관리시스템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과학적 검증·검사방법 개선이 필요하며, DNA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보도내용이 달라 혼란이 가중됐는데 식약처가 올바른 대응을 취한 것인지 묻고 싶고, 이미 이엽우피소가 재배되고 있다면 백수오 둔갑 개연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방법 개선을 주장하였다.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의 전수검사, 수입 백수오 원료의 이엽우피소 함유여부 조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법 개선, 소비자원의 정보 공개 및 대안 제시, 홈쇼핑 업체의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취소,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 기준에 소비자보호측면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정의, 범주 등의 재정립 및 원료 인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네거티브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원료 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해 검사방법을 과학·사회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제 이후에는 백수오 소비자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건강기능식품 제도, 취약점 많아 폐지 고려해야

명승권 박사는 이번 백수오 소비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개념 정의부터 기능성 등급, 내용, 심사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으로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내용 중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병을 예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약품이 되어야 하며, 개념 규정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등급으로, 가장 기능성이 높은 등급이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원래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고 전제해놓고 건강기능식품 최고등급에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등급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일 높은 등급조차도 현재 근거 수준이 아직 미약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제도는 개념, 기능성 등급, 기준 자체가 허술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백수오와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없애고, 그에 해당되는 물질의 기능성을 인증 받으려면 의약품 테두리 안에서 엄격한 기준을 거친 후 시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강재헌 박사는 건강기능식품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최소한의 툴(Tool)이 생겼고, 잘못된 검증이나

홍보를 남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200여 종이 넘는 개별 고시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걱정이며, 건강기능식품은 한 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전문가가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였다.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범위를 좁히고 나머지는 민간이나 협회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안이 고려할만 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제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나중에 문제 발생시 시장에서 엄격히 처벌을 받게 하고 있는데, 이처럼 강력한 패널티를 주면 제도가 잘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이번 문제도 백수오 포함 여부 및 식품 안전성이 중요한 이슈인데, 현재 시스템은 안전성을 업체가 직접 입증하거나 판매업체가 식약처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안전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정부와 관련부처가 안정성을 명확하게 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백수오 사태, 정부 부처간 의견 달라 혼란 더 커져

김태민 변호사는 이엽우피소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 홍보했고, 연구 중 백수오보다 이엽우피소가 효능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2000년대 초반 이엽우피소와 백수오가 같은 식물로 볼 수 있고 효과가 동일하니 식약처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이를 거부했고, 농진청은 오히려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당시 상황을 보면 농진청과 식약처 간의 문제인데, 결국 소비자는 혼란이 더욱 컸다고 발언했다.
한편 식약처에서 전수 조사하여 발표할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데, 평소에 접하는 이물질 사건도 업체는 식약처 이물보고신고제도가 있으니 원인이 밝혀지면 보상해주겠다고 하지만 '원인불명'인 경우가 70~80%라 국가에서도 못 밝혀 증거가 없으니 보상해줄 이유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보상받을 길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식약처에서 위해가 없다고 미리 발표한 것도 성급한 일이었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식품을 섭취하는데, 백수오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의사는 소견서를 써주지 않을 것이며 결국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막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만약 제조상 결함에 해당되면 업체가 입증하게 되어 있지만 이는 전제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로, 식약처가 위해하지 않다고 급하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발표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등급제는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 많지 않고, 나머지는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조금 있거나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시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지속적인 원료 관리와 안전성 검토 필요해

김지호 홍보이사는 일본이나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없다고 확정된 다음에야 식품으로 등록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포지티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작년에 삼지구엽초(음양곽)가 식품으로 처음 인정을 받았는데 지표성분인 '이타민'은 식약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성분으로, 그동안 검출될 경우에는 전량 폐기, 회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를 티백, 주류에 넣으면 검출되지 않아 국내산 삼지구엽초는 티백 주류에 넣는 방법에 한해서 식품으로 인정을 해 주었는데, 지표성분은 그 식품을 대표하는 것으로 물에 달이거나 에탄올로 추출했을 때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려워 문제제기를 했고, 다른 검사기관에 식약처가 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했더니 성분이 나왔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을 식약처에 전달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어야 하니 개선을 바란다고 했지만, 식약처는 '실험방법은 같을지 몰라도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삼지구엽초는 현재 인기가 없으나, 만약 백수오처럼 붐이 일어나 국내산 재배량으로는 수요를 맞추기가 어려워 중국산이 들어온다면, 2013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수입산에 대해 검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만약 수입산 삼지구엽초가 혼입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우려하였다.
당국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원료관리를 해야 하며, 인정할 당시 안전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조물책임법 등 강화하여 업체에게 책임과 처벌 강화해야

김자혜 회장은 식약처의 안전하다는 발표로 인해 소비자는 혼란스러웠고, 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실에 소협과 논의 없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올리기만 함으로 인해 소비자단체와 소비자가 골탕을 먹었음을 토로했다.
이번 백수오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업체는 환불을 해야 함을 주장하며, 농진청과 식약처, 소비자원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고, 특히 정부에서 불량식품 근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백수오 사건을 보면 나날이 상황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단체와 협의를 하여 1372 소비자상담실을 통해 들어오는 항의전화와 상담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나 리콜 제도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백수오 소비자 이슈와 관련되어 안전성, 피해보상 및 건강기능식품제도 관리 시스템 개선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소비자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참고자료 - 라운드테이블>

HACCP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2015년 9월 24일(금)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2014년도에 발생한 크라운제과와 동서식품의 불량제품 유통 및 최근 송학식품 대장균 떡볶이 사건 등 HACCP 인증을 받은 기업의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HACCP 인증제도의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HACCP 인증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오혜영 원장(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HACCP 인증제도의 운영 및 한계점'에 대해 김용휘 교수(세종대 식품공학과)의 발제에 이어 박기환 교수(중앙대 식품공학과), 백대용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조규봉 기자(쿠키뉴스), 김정년 부장(한국식품산업협회), 강석연 과장(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이향기 위원장(소협 식품안전위원회)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라운드테이블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HACCP 인증제도의 문제점 개선

(오혜영 원장) 은 HACCP은 위해요소 분석과 중요관리중점관리를 하는 것이며,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학·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관리 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제조관리기준)는 아직까지 식품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GMP가 품질을 잘 생산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다룬다면, SSOP(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표준위생관리운영기준)은 소프트웨어적인 관리 포인트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위해요소 관리 시스템이 HACCP이라고 설명했다.

HACCP제도는 소규모업체여도 의무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2017년에는 연 매출액 100억 원인 업소에 HACCP을 적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적 HACCP 인증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체는 인력・비용의 증가, 시설개・보수 비용이 발생하지만, 총매출 및 수익의 증가, 소비자 클레임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입장에서 HACCP 제도는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HACCP 인증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 신뢰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ACCP 제도의 적용확대는 불가피하고, 정부는 식품 안전과 국민안심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HACCP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하여 생산현장 종사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기술적 방법이자 납품, 계약 등 시장의 요구를 위한 필수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식품 선택방법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알권리 보장, 안전한 식품 섭취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식품제조업체가 영세한 곳이 많아 전문지식・관련 종사자・경험 등의 부족, 경영진의 HACCP 추진 의지 부족,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경영진의 윤리의식,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점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HACCP 제도의 향후과제는 HACCP 시스템 구축 인력 부재 극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의 필요성은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 더욱 우선적이고 절실한 부분이기에, 보다 쉬운 영세업체 HACCP적용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식품안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하여 비위생적 생산, 부적합 원료 사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 대표자 의식 개선 및 홍보를 할 것이며, 표시사항 위반, 원료수불일지미작성에 대해서는 소규모 영세 업체 교육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보건증 등 검사 시기 경과 등의 위반에 대해서도 관리 및 운영방법 교육, 사후관리 및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ACCP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 인증・사후관리의 통합 및 전문화, △ 식품・축산물 HACCP 관리 일원화, 식품・축산물 HACCP 통합고시 마련, △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후관리강화에 대해서는 최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으로 HACCP 안전관리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 즉시 HACCP 인증기업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HACCP 인증제도의 운영 및 한계점

(김용휘 교수) 는 EU(European Union)의 HACCP 리포트를 통해 HACCP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였으며, 여기서 발견한 문제는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HACCP 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품질인증제도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HACCP은 최대한도로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체에서 위험이 되는 요소를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하는 행동양식으로 접근한다면 최종 목표인 안전한 식품섭취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가 HACCP의 의무적용업체, 의무조항 등을 만듦으로써 정부(식약처)가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게 되었으며, 해결이 불가능한 상

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 식품회사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HACCP을 통해 공급망 관리, 식품공장 종사자가 위해요소 감소 방법과 해결 방법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HACCP의 전제조건에 우량 제조 기준(GMP), 위생 관리 기준(SSOP), 작업표준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에 미국에서도 영세업체・중소기업에서 HACCP 적용시 인력과 재원이 부족하여 어려워했다고 설명하며, 그만큼 HACCP은 일괄적으로 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공장특유의 특이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편성에 의해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생산 공장별로 독창성을 갖고 최선의 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EU 리포트에 나와 있듯이, HACCP은 사전예방을 통해 식품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며, HACCP은 자가품질검사를 대체할 수도 없고 전혀 다른 종류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EU리포트가 발표된 것은 HACCP 적용에 대한 평가, 교육제도의 확보 및 재검증, 올바른 행동양식에 따라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나가고 있는지 여부, 인식의 전환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HACCP은 정해진 전제조건에 따라 운영을 하게 되지만, HACCP 운영시 우리 상황에 맞추어 개념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HACCP의 전제조건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을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HACCP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것은 개별 공장생산시설마다 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유연성 및 운영성 평가 방법이며, 개별위험도, 생산 작업과정의 차이, 작업장 규모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HACCP의 모범답안이 존재하지 않기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HACCP을 적용할 때 SOP, SSOP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CCP를 많이 설정하면 더 안전한 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착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CCP가 너무 많아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모든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HACCP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서류를 면제하거나 줄여준다면 더욱 HACCP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HACCP 제도에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HACCP 검증프로그램을 '관' 주도가 아니라 제3자 주도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인증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HACCP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사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례집이 부족해서 HACCP의 적용방법이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HACCP 사례집 제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제는 많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가급적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 식품회사가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제3자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같은 경우 HACCP 인증에 대해 외부 컨설턴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GMP 시설 설치업자로 시설기준에 대해 잘못 컨설팅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에어샤워기를 설치했을 때 작업종사자는 통과하지만 공장에 납입되는 물건은 에어샤워기를 통해 들어가지 않는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HACCP은 문제 발견시 HACCP 작업장에서의 개선노력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경영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일하는 직원에게 행동양식을 알려주고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각자의 위치에서 식품안전규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면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발제 이후에는 HACCP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HACCP의 유연한 운용 필요

(박기환 교수)는 그간 여러 가지 식품 사건, 사고는 HACCP 관련 인적자원관리 부족 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ACCP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 중 하나는 한계기준을 식품안전 관리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데, 식약처 담당자가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고 소비자의 이익,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한계기준으로 가져간 점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냉장온도를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것은 절대로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 놓는 것인데, 기계를 끄고 켜는 것을 고려하여 냉장고 온도를 8℃ 정도로 맞추어 놓아야 온도 편차까지 고려했을 때 10℃를 유지 할 수 있게 되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부분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최저와 최고 온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식품 안전에만 집중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995년 우리나라에서 HACCP 도입을 하면서 미국 제도를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시키지 않고 적용해 왔고, 정해진 틀에 맞추어 필요한 요건을 추가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Food Safety Program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HACCP 기준에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규모 HACCP이라는 변형된 안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HACCP의 원칙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주고, 유연성을 두고 개별 업체가 상황에 맞게끔 식품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된다면 HACCP제도도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중 특히 식품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설기준인 GMP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 HACCP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GMP부터 갖추어야 하여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식품위생법상 지켜야 하는 기본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식품을 만들어 영업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HACCP 제도의 선행요건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 강화가 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먹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ACCP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 중요해

(백대용 변호사) 는 가장 큰 문제점이 소비자가 HACCP 제도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빠져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과 사후관리의 일원화를 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식약처의 인력이 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옮겨가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력을 늘리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발언하였다.

우리 정부기관이 방대한 숫자의 식품업체를 모두 개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소비자 관련 문제개선을 위해서 규제권한을 주어 관리, 감독 등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가 빠져있는 개선방안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개선방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달라지기 힘들다는 지적이었다. 정부에서 HACCP을 홍보할 때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라고 홍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HACCP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체계라고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도 있는 위생관리체계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발언했다. 당연히 소비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HACCP의 정의 때문에 제도 도입 및 이행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HACCP 제도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소비자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HACCP 제도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식품 안전은 어떤 규모의 식품회사라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음식은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그렇기 때문에 중소업체와 영세사업자도 당연히 안전한 식품생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정부가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관리, 감독, 교육 등을 하면서 지원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요구

(조규봉 기자) 는 HACCP이 정부가 관리하는 객관적인 품질인증제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식품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인 HACCP에 대해 정부와 식약처가 그간 홍보를 잘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2013년 겨울에 한 식품업체의 직원이 완제품을 발로 차면서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취재결과 사실이었고 그 사건발생 일주일 후 해당업체 직원은 식약처의 감독기간이라 업무가 많다고 이야기했다고 발언하였다. 식약처와 식품업체의 유착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식약

처의 감독기간 일주일 전부터 업체가 미리 알고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관리감독 기관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토론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하며, 기자 개인 SNS에 해당 토론회 개최를 알리고 소비자의 고견을 달라는 글을 올렸더니 현재 올린 글에 80여개의 '좋아요'가 있었고, 일주일 전에는 40개의 '좋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댓글 중 1가지를 소개하자면, "징벌적 손해배상 체계를 적용하는 미국 등에서는 기업이 위해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HACCP 등의 관리 체계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책적인 부분이 더 크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민간으로 이양하다 보니 민간인증기관은 너무나도 영세하고, 직원들의 처우는 참담할 정도이다. 결국 인증 자체가 부실해지고 기업은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HACCP 인증을 안 받더라도 품질관리를 위해 많은 투자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뭔가 해야 하니까' 식의 제도라면 '형식적인 인증제도 → 미약한 처벌 → 부실한 관리 → 불필요한 비용 투자'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HACCP에 대한 현재 국민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제품에서 부패는 일어나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면 부패하지 않는 원리처럼 영향력이 있는 기득권층에서 부패가 있으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라며, 업체도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직원과 복장규정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도 계속 정부, 기업, 소비자 인식이 전환되어야 HACCP 인증제도가 개선 될 것임을 강조했다.

평가자에 대한 교육 개선, 긍정적인 효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김정년 부장) 은 기업에게는 시장과 소비자가 제일 무서운 존재이며, 시장의 외면은 방도가 없음을 지적했다. 소비자 의식이 높아져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변하고 있고, 요즘은 시장과 납품업체에서 요구하여 먼저 HACCP을 도입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생산을 위해서 HACCP 인증제도가 꼭 필요함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빠른 근대화를 이루었는데 1995년부터 HACCP을 도입하여 식품기업 별도의 안전시스템도 많은 발전을 해왔으며, HACCP 도입으로 개별 공장과 사업장은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자하여 HACCP 시설을 유지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만드는 식품 자체가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 안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점에 대해 기업에게도 칭찬을 북돋아 주었으면 한다고 발언하였다. 물론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HACCP은 잘 만들어진 좋은 제도이지만 가끔 좋지 않은 사례가 나오는데, 실제로 거의 사람에 대한 문제라서 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평가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동일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같은 것을 평가하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자에 대한 교육 개선이 HACCP의 빠른 안착과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였다.

HACCP 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운용방식 변화 필요

(이향기 부회장) 은 HACCP에 대한 정의가 소비자에게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소비자단체에서도 교육을 통해 위생과 HACCP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ACCP은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으나, 운영방식에 더 문제가 있으며, 현재 HACCP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아직까지 그 운용 비율은 1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쉽게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은 있으나, 올바르게 HACCP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8년 동안 도축장의 HACCP 평가를 해온 경험을 보면, 개념정립도 잘 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해요소를 확인·분석하는지 여부, CCP의 적절한 설정 여부, 한계기준의 안전성 확보가 충분한지 여부, 모니터링 방법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자료 수집 및 평가하는 유효성 검증이 가능한 작업장이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HACCP에 대한 개념 정립을 잘 하고 있는 작업장이라면 소규모 작업장이든, 대규모 작업장이든 그 차이에 상관없이 평가하면 되나 HACCP으로 인한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운용되지 못하고 있고 개념 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과 행동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HACCP 인증제도에 대한 기록시스템도 엉망이고 형식적이다 보니, 개선조치도 잘 안되고 있는데, 제대로 CCP를 설정하고 유효성 검증을 하여 개선조치를 하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록 관리에 대해서는 HACCP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는 몇 가지 기록관리만으로 충분하며 형식적인 기록 관리가 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여 하드웨어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 HACCP 관련 시설을 판매하려는 일부 컨설팅업자 때문에 HACCP 작업장 운용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HACCP 작업장을 방문했을 때 해당 업체에서 오래 일을 한 사람이 HACCP 담당자로서 모니터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HACCP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나라 HACCP의 컨설팅이나 감독 관련 인력은 젊은 나이에 은퇴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ACCP 교육에 대해서도 매우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대상자가 바쁘면 대리자가 참석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인터넷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 제대로 듣지 않고 이수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내용도 각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HACCP 작업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되도록 ‘HACCP 교육사례집’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는 소규모 작업장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례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CCP 인증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시스템 적용을 잘못하다 보니 부적합한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어, 향후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축장의 운영을 평가하면서 좋았던 점 중 하나는 과거 도축장과 지금 도축장은 큰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작업장 종사자의 마인드가 많이 바뀐 점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일일이 HACCP 운영에 대해 직접 자문해주고 컨설팅해 주고 있는 것처럼, HACCP 평가자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전문가・공무원이 하나의 평가팀으로 되어 HACCP 작업장을 방문하고 평가하여 실질적으로 그 작업장에 맞는 컨설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가품질제도가 있기 때문에 HACCP 제도를 폐지시키자는 주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세업체의 HACCP 인증 확대에 대해서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해당 업체 직원이 위해요소(CCP) 분석을 올바르게 하고 운용해야 하는데 CCP 분석이 잘못되고 있어 HACCP 운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장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을 해야 하므로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과 사후관리를 일원화하는 부분도 더 고민하여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CCP 제도의 정착을 위한 보완 및 개선 노력할 것

(강석연 과장)은 한계기준관리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도 HACCP 지도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HACCP을 사후 관리하는 직원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관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서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에도 소비자 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영세사업자는 HACCP 운영 초기 제도 대상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의했는데, 국내 식품업계의 90%인 영세사업자를 빼고 식품안전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또는 개선자금・기술지원 등을 통해 영세업체의 위생 수준도 더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HACCP 홍보에 대해서는 의도한 바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2016년도에 HACCP 광고 제작시 광고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ACCP의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작업장 평가가 정기・수시・기획평가 3가지가 있으며, 정기평가는 행정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체에 평가를 한다는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정경유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보하는 것을 업체가 잘못 이용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시평가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신고,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을 접수하게 되면 불시에 점검을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획평가는 추석, 발렌타인 데이 등 특수 기간 중 해

당업체에 불시 방문하여 조사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평가제도운영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를 더욱 고민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관리자에 대한 감사나 제3자의 관리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관련업계에서 은퇴자를 활용하여 매칭시켜 HACCP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HACCP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은 영업자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달라지기 어려우며, 2016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HACCP 사례집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ACCP 제도가 무사히 정착되어 우리나라도 식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비자도 끝까지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HACCP 인증제도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활발한 의견제시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Ⅲ. 업무관리 (예산관리)

(단위:원)

구 분 / 비 목		계약금액	산출내역	집행금액	잔액
1. 인건비	책임연구원	3,533,720	3,018,785원*10개월*11.71%*1명	3,533,720	
	연구원	6,774,020	2,314,762원*10개월*29.26%*1명	6,774,020	
	연구보조원	2,264,102	1,547,342원*10개월*14.63%*1명	2,264,102	
	소 계①	12,571,842		12,571,842	-
2. 운영비					
유 인 물비	착수보고서	26,000			
	최종용역보고서	450,000	최종보고서 25부*19,040원	476,000	
전 산 처 리 비	토너	300,000	150,000×2개	300,000	
회 의 비	연구반회의(실무급)	3,400,000	100,000원*34명/5회	3,400,000	
	위원회회의(위원급)	2,400,000	100,000원*24명/5회	2,400,000	
운 영 비	상담사례분석비	17,156,700	38,126건*450원	17,156,700	
	설문조사비	3,566,650	설문조사	3,566,650	
	통계분석비	1,486,430	통계분석	1,486,430	
	식음료대	912,120	회의 음료 및 식대	912,120	
	설문기념품비	6,768,750	모바일상품권	6,790,020	
	설문기념품비	1,150,000	모바일상품권 4,750원*214개	1,016,500	
	캠페인	5,779,350	리플렛 및 기념품(핫팩) 각 5,000개 및 현수막 등	5,555,500	
	위탁정산수수료	400,000	위탁정산 수수료/대영회계법인	400,000	
교 통 통 신 비	시내교통비	140,000	시내교통비	140,000	
소계(②)		43,936,000		43,599,920	336,080
3.일반관리비(③)		2,825,158	일반관리비	2,825,158	-
합계(①+②+③)		59,333,000		58,996,920	336,080

Ⅳ. 기타(설문조사 양식 등)

[국민소통단 설문조사①]
식의약 안전 교육에 대한 소비자 의견

ID			

국민소통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국민소통단 활동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총 4회**의 설문조사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행되오니 국민소통단 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에 대해 소비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응답은 오로지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산출 후에는 철저하게 보안·폐기됨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응답자에게는 3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되오니 휴대전화번호 기재를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5월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mail : sohyub@consumer.or.kr
☎ (02)774-4050 Fax (02)774-4090

1. 거주지역 Ⅰ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2. 거주지역 Ⅱ	① 시	② 군	③ 구			
3.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4.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5. 성명	□□□					
6. 휴대전화번호	□□□ - □□□□ - □□□□					

(소정의 기념품(기프티콘) 제공을 위해 정확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1. 귀하는 **식품**과 관련해서 가장 교육이 필요한 컨텐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별 기재 1위_____ 2위_____ 3위_____)

① 건강기능식품의 떳다방 피해 줄이기와 안전한 섭취요령
② 해외직구 식품 피해 줄이기
③ 참치캔 섭취가능량(수은위해성)
④ 굴 노로바이러스 문제
⑤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 사용방법
⑥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⑦ 과일채소 잔류농약 씻기
⑧ 에너지드링크의 위험성
⑨ 식품이물질 대응요령
⑩ 불량식품 신고요령
⑪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바로 알기
⑫ 식품표시 바로 읽기

⑬ 기타 ( )

2. 귀하는 **화장품**과 관련해서 가장 교육이 필요한 컨텐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별 기재 1위_____ 2위_____ 3위_____)

① 대상별 화장품 사용법
② 화장품 표시사항 제대로 알기
③ 유기농 화장품/ 천연화장품 알기
④ 제품별 화장품 사용방법 알기
⑤ 화장품의 올바른 구매방법 및 피해구제 방법
⑥ 기타( )

3. 귀하는 **의약품**과 관련해서 가장 교육이 필요한 컨텐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별 기재 1위_____ 2위_____ 3위_____)

① 의약품 등의 구매 및 과대광고 피해예방 요령
②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③ 약물 부작용 및 부작용 신고방법
④ 의약품의 올바른 구매경로
⑤ 의약품 가격관련 정보
⑥ 의약품 보관 및 폐기방법
⑦ 기타 ( )

3-1. 다음 의약품 중 교육이 가장 필요한 품목은 무엇입니까?

① 진통제 ② 항균제/항생제 ③ 소화제, 위장약 ④ 변비약 ⑤ 피부연고제
⑥ 감기약 ⑦ 기타( )

4. 귀하는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가장 교육이 필요한 컨텐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별 기재 1위_____ 2위_____ 3위_____)

① 의료기기의 올바른 선택 및 구매요령
② 측정기구(혈압계, 혈당계, 체온계 등)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③ 온열기구(찜질팩, 적외선 온열기 등) 올바른 사용방법 주의사항
④ 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바로알고 사용하기
⑤ 컬러콘택트렌즈 바로알고 사용하기
⑥ 기타 ( )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소통단 설문조사②] 식품 허위·과대광고

ID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묻습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응답은 오로지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산출 후에는 철저하게 보안·폐기됨을 말씀드립니다.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및 홍보방안 등 마련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mail : richphj@consumer.or.kr
☎ (02)774-4050 Fax (02)774-4090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1. 거주지역 Ⅰ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2. 거주지역 Ⅱ	① 특별시, 광역시	② 시	③ 군			
3.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4. 연령	_____세					
5. 연락처	_____ (소정의 기념품 제공을 위해 작성 부탁드립니다.)					

1. 귀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 허위·과대광고를 일상생활에서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 다 음 -

구 분	O	X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 보증 및 추천을 받은 경우 제외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전후 효과를 사진으로 비교하는 등)		

2. 귀하는 식품 구매시 위와 같은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중복응답가능)**

① 인터넷마켓 ② TV홈쇼핑 ③ 신문광고 ④ 방문판매 ⑤ 홍보관
⑥ 전화권유판매 ⑦ 무료관광 ⑧ 모바일광고 ⑨ 기타( )

3. 식품 등 구매시 질병치료효과 등 허위·과대광고 사례라고 판단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① 아무조치도 하지 않았다. **(3-1로)**

② 관할기관(식약처, 시·군·구 등)이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했다. **(3-2로)**

③ 기타( )

3-1. 이유는?

① 신고방법을 잘 몰라서 ② 귀찮아서

③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④ 기타( )

3-2. 어디로 신고하셨습니까?

① 1399 ② 1372 ③ 시·군·구 위생과 ④ 기타( )

4.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서 식약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래의 정책 중 소비자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 위반업체 및 위반사례들을 공개하는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www.foodnara.go.kr/kwanggo)** 운영

② 허위·과대광고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할 수 있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399) 운영**

③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하여 **신문, 인터넷 등 광고매체별 연중 모니터링** 실시

④ 기타 ( )

5. 최근 **신종 홍보관(떴다방)** 관련하여 노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니어감시원을 통한 신종 홍보관(떴다방) 피해예방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실시**

② 신종 홍보관(떴다방) 허위·과대광고 신고창구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확대 운영**

③ 신종 홍보관(떴다방)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합동 단속** 실시 운영

④ 기타 ( )

6.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바라는 점은?

( )

감사합니다.

[국민소통단 설문조사③]
식품안전 주요정책 선호도

ID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식품안전 주요정책 선호도에 대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묻습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응답은 오로지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산출 후에는 철저하게 보안폐기됩니다. 식품안전관리 정책 소통방안 마련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5년 10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mail : lkj@consumer.or.kr
☎ (02)774-4050 Fax (02)774-4090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1. 거주지역 Ⅰ	① 특별시, 광역시		② 시	③ 군		
2. 거주지역 Ⅱ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3.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4. 연령	_____세					
5. 연락처	_____ (소정의 기념품 제공을 위해 작성 부탁드립니다.)					

1.~5. 식품과 관련한 안전관리 정책 및 정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 다음의 생활밀착형 정보 중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은? (중복응답가능)

① **계절별** 필요 정보(ex. 봄나물 안전하게 섭취하기, 여름철 식중독 예방요령 등)

② **연령별** 필요 정보(ex. 임신 주기별 식생활 가이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등)

③ **일상생활** 정보(ex. 파스, 염색제,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④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안전 섭취·구매 요령**(ex. 건강기능식품 구매하는 방법 등)

⑤ **건강**정보(ex. 메르스 감염예방 수칙,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

⑥ 기타 ( )

2. 식품안전관리 정책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① 새로운 정책소개 ② 법·규정 개선사항 ③ 지도·점검 및 검사 결과

④ 캠페인 등 행사 및 교육 ⑤ 기타 ( )

3. 식품안전 정책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중복응답가능)

①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등 **위생·안전 취약식품 집중 관리**

② HACCP 제품 확대 등 **HACCP** 적용 활성화

③ 위해식품 신속 차단을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 및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

④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한 맞춤형 안전정보

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⑥ **유전자 변형식품 및 알레르기 등 식품표시**

⑦ **수입식품 통관검사** 체계 개선 및 **해외직구 식품** 관리체계

⑧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

⑨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관리

⑩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및 광고 금지

⑪ **개방형 주방사업**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으로 깨끗한 외식환경 조성

⑫ **나트륨·당류 저감화** 사업

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⑭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학교급식 식중독 확산 조기 차단**

⑮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대책

⑯ 소비자 대상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캠페인**

⑰ 기타 ( )

4. 식품 안전 정보에 대하여 제공 받기를 원하는 방법은?

① 홈페이지 ② 블로그 ③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④ 이메일

⑤ 휴대폰 문자 ⑥ 기타 ( )

5. 식품안전 정보를 받고 싶은 요일은?

① 월 ② 화 ③ 수 ④ 목 ⑤ 금 ⑥ 기타 ( )

6. 식품과 관련한 안전관리 정책 및 정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바라는 점은?

( )

감사합니다.

[국민소통단 설문조사④]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등급표시 개선

ID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등급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묻습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응답은 오로지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산출 후에는 철저하게 보안·폐기됨을 말씀드립니다.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및 홍보방안 등 마련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5년 8월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mail : richphj@consumer.or.kr
☎ (02)774-4050 Fax (02)774-4090

1. 거주지역 Ⅰ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2. 거주지역 Ⅱ	① 특별시, 광역시 ② 시 ③ 군
3.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4. 연령	_____세
5. 연락처	_____ (소정의 기념품 제공을 위해 작성 부탁드립니다.)

1. 귀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2번 문항으로) ② 없다 (3번 문항으로)

2. 귀하는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어떠한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①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증마크 ② 기능성(효능) ③ 섭취량·섭취방법
④ 섭취 시 주의사항 ⑤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⑥ 성분(원료, 재료명)
⑦ 가격 ⑧ 브랜드·제조원 ⑨ 기타

3. 귀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등급(제품 뒷면, 영양·기능정보)을 확인하십니까?
① 확인한다 ② 확인하지 않는다

4. 귀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에서 생리활성기능 2등급과 3등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능성 등급	필요하다	필요없다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생리활성기능 1 등급 ○○에 도움을 줌		
생리활성기능 2 등급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3 등급 ○○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5. 귀하는 소비자들이 내 몸에 맞는 기능성을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제품 앞면에 기능성 등급 표시 ② 기능성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③ 판매원의 기능성 내용 설명 ④ 건강기능식품 판매장소 축소

⑤ 기타 ( )

6.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

감사합니다.

[국민소통단 설문조사⑤] 오피니언리더 의견수렴 불량식품 근절 추진을 위한 기획 감시 의제 발굴

ID			

안녕하십니까?

현재 식약처에서는 불량식품 척결을 위하여 위생취약 분야, 국민이 불안해하는 분야 및 고의적·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불량식품 척결과 식품의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먹을거리**에 대해 **오피니언리더**의 의견을 묻습니다. 2016년도 **불량식품 단속업무 및 정책제안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응답은 오로지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산출 후 보안, 폐기됩니다.

2015년 10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mail : sohyub@consumer.or.kr
☎ (02)774-4050 Fax (02)774-4090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1. 거주지역 Ⅰ	① 특별시, 광역시	② 시	③ 군			
2. 거주지역 Ⅱ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3.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4. 연령	① 30세이하	② 31~40세	③ 41~50세	④ 51~60세	⑤ 61세 이상	
5. 연락처	_____ (소정의 기념품 제공을 위해 작성 부탁드립니다.)					

1. **평소 불안하게 생각되어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먹을거리(식품의 생산·제조·가공·유통·판매 전 과정** 포함, **최대 3가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① 사례	*예시) 도로변 자동차에서 판매하는 구이통닭*
현황 및 문제점 / 필요한 단속내용	*예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구이통닭의 위생관리 등이 우려 / 닭품질 및 위생관리 등*

② 사례	
현황 및 문제점 / 필요한 단속내용	

③ 사례	
현황 및 문제점 / 필요한 단속내용	

2. 다음 중 **가장 불안을 느끼는 식품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외식 조리식품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주요 기획감시 내용('14년~'15년)

< '14년 >

연번	점검 대상	주요 점검 내용
1	건강식품 등 허위과대광고(떴다방 3회)	노인・부녀자 대상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 단속(홍보관 2회, 관광지 1회)
2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체	개학철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위생 점검
3	건포류 제조업체	위생취약품목인 건포류(오징어진미채 등) 제조·소분업체 점검
4	추출식품류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추출식품류(인삼·홍삼음료, 과채즙, 액상차, 추출가공식품) 제조업체 위생 점검
5	족발, 보쌈 등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족발, 보쌈 등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하는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 및 원료 적정성 점검
6	커피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하절기 소비가 증가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빙수 및 편의점 판매 커피 등 제조업체 위생 및 원료 적정성 점검
7	닭·오리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치킨, 닭갈비 등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하는 원료(닭, 오리) 적정성 및 불법 유통 점검
8	효소 등 특정원료 사용 식품	효소, 아사이베리 등 특정원료 사용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원재료 사용 적정성 점검
9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온라인 판매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판매업체 위생 점검
10	간편식·이유식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위생 및 원료 적정성 점검

< '15년 >

연번	점검 대상	주요 점검 내용
1	건강식품 등 허위과대광고(떴다방 2회)	노인・부녀자 대상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 단속
2	유통기한 임박 식육 유통·판매업체	유통기한 경과・변조 및 수입육이 혼합된 한우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설에 증가하는 쇠고기 불법 유통 차단
3	PB제품 및 유통기한 임박제품 제조업체	PB제품 및 유통기한 임박제품의 소비 증가에 따라 원료 사용의 적정성 및 제조・가공시설 위생 점검 등 기획 감시
4	산양삼 판매업체	산양삼 인터넷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가짜 산양삼 유통행위 집중 단속
5	소스류 제조업체	소스류 제조업체 원료의 적정성 및 전반적인 제조・가공 환경 점검 등 단속
6	순대 제조업체	국민다소비 식품인 '순대'에 대한 원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및 생산시설 및 제조과정의 위생상태 점검
7	떡볶이떡 제조업체	국민들이 즐겨먹는 떡볶이떡에서 위생·안전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떡볶이떡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 실시
8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위생상태가 노출되지 않아 소비자 불안감이 크고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배달앱 등록 야식 배달 전문점에 대한 위생점검
9	농수산물 원료 사용 천연 조미식품	농수산물(멸치 등 원재료 100%) 원료 사용 천연 조미식품 제조업체의 원료의 안전성 및 건전성 점검